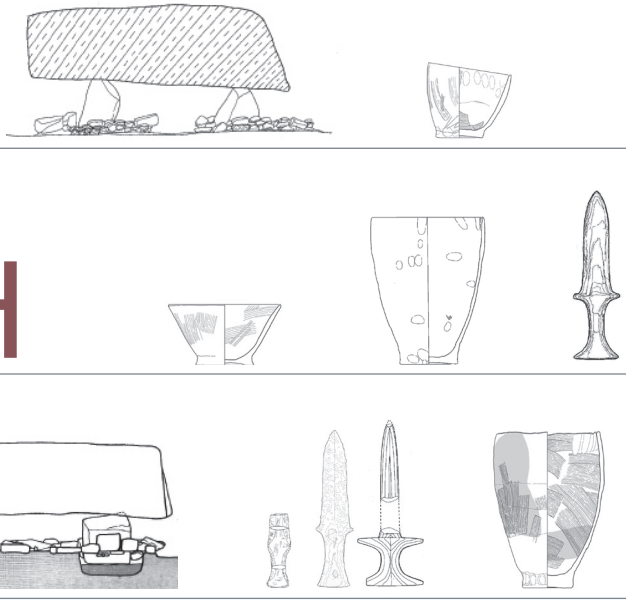
국제학술대회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2021. 6. 17.(목) ~ 2021. 6. 18.(금)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강당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한국청동기학회

• 1일차 : 2021. 6. 17.(목)

시간		프로그램
10:30~10:45	15′	접수, 등록
10:45~11:00	15′	개 회 사 **유재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축 사 **지병목**(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권구**(한국청동기학회장) 기념촬영
기조강연 11:00~11:40	4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_ **김승옥**(전북대학교)
11:40~13:00	80′	〈오찬〉
**1부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진행 : **오현덕**(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윤호필**(상주박물관)
발표 1 13:00~13:30	30′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_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발표 2 13:30~14:00	30′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_ **이재언**(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발표 3 14:00~14:30	30′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_ **이동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4:30~14:40	10′	〈휴식〉
**2부	만경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진행 : **소재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발표 4 14:40~15:10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_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발표 5 15:10~15:40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_ **정다운**(완주군청)
발표 6 15:40~16:10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_ **송아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6:10~16:20	10′	〈휴식〉
**3부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진행 : **소재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이동희**(인제대학교)
발표 7 16:20~16:5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_ **황재훈**(충남대학교)
발표 8 16:50~17:2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 양상_ **김진환**(해원문화재연구원)
발표 9 17:20~17:5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_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 2일차 : 2021. 6. 18.(금)

**4부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		진행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조진선** (전남대학교)
발표 10 10:00~10:30	30′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_ **한수영**(호남문화재연구원)
발표 11 10:30~11:00	30′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_ **김진영**(고대문화재연구원)
발표 12 11:00~11:30	30′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_ **정수옥**(문화재청)
11:30~13:00	60′	〈오찬〉
**5부	중국과 일본의 청동기시대 농경과 호남지역**		진행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김권구**(계명대학교)
발표 13 13:00~13:30	30′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 Zheng Yun Fei **鄭雲飛**(中國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 발표 영상 상영
발표 14 13:30~14:00	30′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Miyazato Osamu **宮里修**(日本高知大学) ※ 발표 영상 상영
14:00~14:10	10′	〈휴식〉
종합토론 14:10~16:20	130′	좌장 **이청규** 토론 **윤호필, 천선행, 이동희, 조진선, 김권구**
16:20~16:30		폐 회 사 **이은석**(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기념촬영

Contents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1 일 차

기조강연

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 1
   김승옥(전북대학교)

1부 :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2.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 23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3.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 49
   이재언(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4.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 79
   이동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부 : 만경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5.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 109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6.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 137
   정다운(완주군청)
7.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 165
   송아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Contents

3부 :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8.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 197
황재훈(충남대학교)

9.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 양상 ····· 223
김진환(해원문화재연구원)

1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 247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2 일 차

4부 :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

1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 275
한수영(호남문화재연구원)

12.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 299
김진영(고대문화재연구원)

13.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 323
정수옥(문화재청)

5부 : 중국과 일본의 청동기시대 농경과 호남지역

14.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 ····· 349
Zheng Yun Fei 鄭雲飛 (中國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 발표 영상 상영

15.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 373
Miyazato Osamu 宮里修 (日本高知大学) ※ 발표 영상 상영

토론문 ····· 393

0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김 승 옥
전북대학교

Ⅰ. 머리말
Ⅱ. 유적의 분포와 지역적 전개과정
Ⅲ. 문화의 변천과 성격
Ⅳ. 문화의 특징과 쟁점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김 승 옥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Ⅰ. 머리말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호남지역은 서부 평야지대와 동부 산간지대로 대별되는데, 이는 호남정맥의 산줄기가 東高西低의 지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부의 만경강·동진강·영산강유역권에는 넓은 충적대지와 낮은 구릉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충적지는 서해와 남해안으로 연결된다. 이에 비해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동부에서는 금강 상류와 섬진강·보성강이 흐르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좁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호남지역의 이러한 지형과 수계망의 특징은 선사시대 이래 다양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다와 강,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서부지역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문화의 이주와 접촉, 교류가 이루어지는 개방형의 환경이지만 동부지역은 산맥의 고개나 강줄기를 따라 문화가 선형적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송국리형문화가 서부 일대에 그 꽃을 피우지만, 동부에서는 지석묘문화가 상대적으로 번창하게 된다. 또한 전북 동부의 금강 상류 일대는 전남의 영산강과 섬진강, 영남의 남강유역을 이어주는 문화적 길목과 접이지대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며(김승옥 2006b), 남해안 일대의 문화는 바다 건너 제주도와 일본 고대 문화의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은 이처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동기시대를 조기-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고, 각 획기에 따라 문화의 흐름과 특징을 짚어본다.

Ⅱ. 유적의 분포와 지역적 전개과정

1. 조기와 전기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의 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상한 연대를 기원전 15세기 전후로 보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시기부터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에서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데,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이 시기[1]의 유적으로는 전주 동산동과 순창 원촌의 취락유적이 유일하며[2] 분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발견된 바 없다.

기원전 12세기경의 전기에 이르면 유적의 수가 증가하고 분포지역 역시 넓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들어서면 호남지역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40여개 이상의 취락유적(주거지 총 수 120기 이상)과 10여개 정도의 분묘유적이 발견되었다(정다운 2015). 물론 발견되지 않은 취락이나 분묘유적을 감안하면 유적의 수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문화는 가락동·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대별되기도 하는데, 호남에서는 이러한 문화유형이 모두 유행하였으며 조기에 등장한 미사리유형의 주거지가 전기에도 축조된다. 이러한 전기의 취락들은 만경강·동진강·영산강·섬진강(남해안 포함)유역권에서 집중 발견되고 있다(그림 1). 따라서 호남의 전기 문화는 전북 동부의 금강 상류를 제외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견된 취락들은 주요 물줄기를 따라 확산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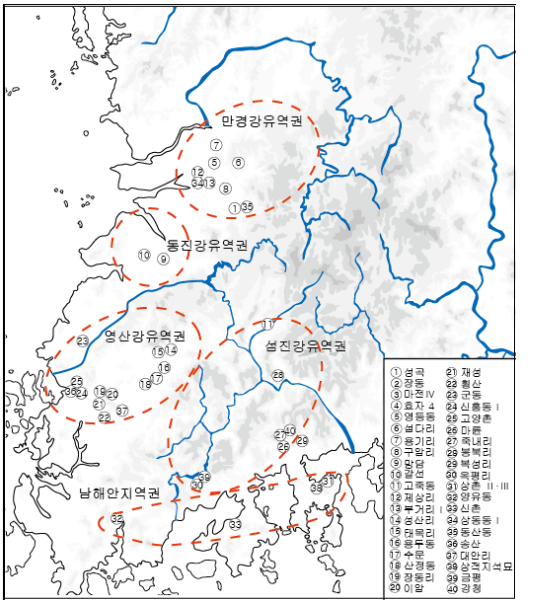


그림 1. 호남지역 전기 취락의 분포
(정다운 2015, 재편집)

호남지역의 전기 취락은 만경강 일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후 서해안을 따라 영산강과 섬진강유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승옥 2017; 정다운 2015; 홍밝음 2013). 또한 만경강 일대의 전기 문화는 미사리→가락동→역삼동유형의 순서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화들은 상호간에 활발한 문화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김승옥 2017).

호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시점은 남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10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발견 유적의 수 역시 많지 않다((김승옥 2015a, b; 배진성 2011). 지석묘의 경우 동부 일대에서는 이 시기에 축조된 유적이 일부 발견되지만 서부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발굴된 유적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그림 2). 그럼에도 동부의 예나 서부 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분포(그림 1) 등을 볼 때 서부지역 지석묘도 일부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남의 서부 일대에서 전기에 축조된 묘제로는 먼저 토광묘를 꼽을 수 있다. 나주 장동유적에서 토광묘 1기가 발견되었는데, 내부에서 전기의 특징적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삼각만입석촉과 적색마연호가 출토되었다. 향후 조사가 진전되면 이와 같은 토광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왜냐하면

1)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15세기로 비정하였지만 이 연대는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순천 마륜과 광주 노대동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가 발견되고, 이러한 이중구연토기가 청동기시대의 각목돌대문토기와 시간상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안승모 2011)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담양 태목리 1호 주거지에서도 각목돌대문토기가 발견되지만 절상돌대문토기와 공반되고 내부에서 초석시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주거지는 전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부 일대에서 전기 취락이 유행했고 상술한 바와 같이 전기 문화는 전북 서부를 거쳐 전남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기에 축조된 또 다른 묘제로는 옹관묘가 있다. 직립구연의 옹관묘가 익산 석천리와 율촌리에서 발견된 바 있고, 최근에는 완주 운교, 전주 반용리·동산동, 정읍 상평동유적 등 그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직립구연의 옹형토기는 만경강 일대의 익산 영등동 I-3호처럼 전기 취락에서도 일부 발견되지만 중기 취락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기 후반에 옹관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옹관이 송국리형 취락이나 묘제와 동일 지점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중기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전기 최말기문화와의 접촉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전기의 옹형토기가 傳世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립구연의 옹관이 중기 전반 경에 축조되었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향후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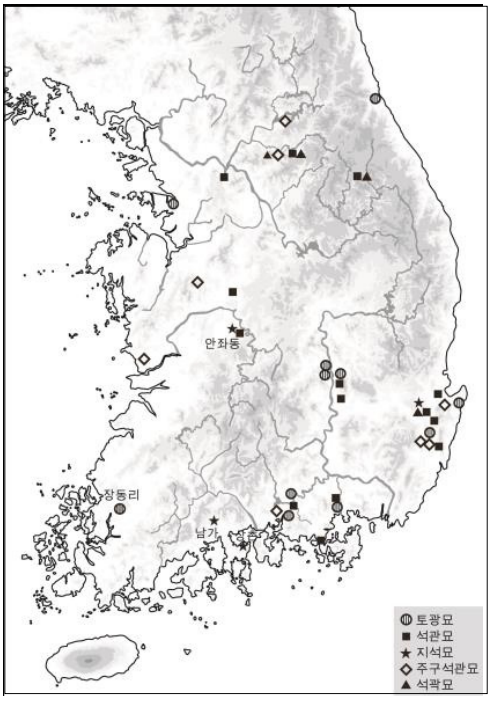


그림 2.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묘제의 분포

2. 중기

기원전 9세기경부터 시작되는 호남지역의 중기 사회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본격적인 농경사회로의 진입을 보여준다. 취락과 분묘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를 대변한다(김승옥 2006a; 이종철 2015). 여기서는 서부 평야지대와 동부 산악지대로 대별하여 이 시기의 대표적 묘제인 송국리형 무덤(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과 지석묘의 분포 및 상호관계를 논하고 필요한 경우 취락을 언급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남지역은 지석묘의 핵심 분포지대로서 우리나라 모든 지석묘의 60%정도가 이곳에서 발견된다(이동희 2017). 이에 비해 전북지역 지석묘는 3,000여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지석묘 전체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 전북 서부의 고창 일대와 동부 산간지대에서 발견되고 있다(김승옥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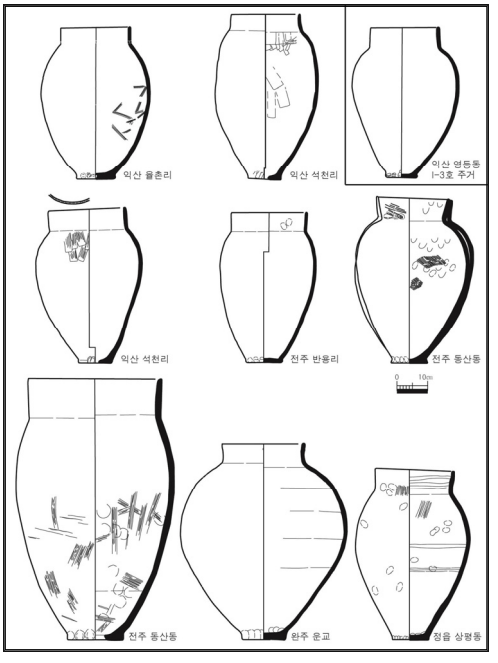


그림 3. 만경강 일대 전기 옹관과 주거지 출토 옹형토기

이와 같이 호남지역은 전 세계 지석묘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지만 고창을 제외한 전북 서해안과 서부 일대에서는 소수의 지석묘가 발견되고 있다(그림 4). 발견된 것들도 대부분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대규모의 군집 현상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 서부 일대에서 활발하게 발견되는 분묘가 있는데, 송국리형묘제가 그것이다. 분포와 밀도로 볼 때 송국리형묘제의 핵심 분포권은 금강 중하류이고, 다음으로 높은 곳이 바로 전북 서부 일대라 할 수 있어 전북 서부는 송국리형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분포와 밀도에서도 입증된다(김승옥 2006b; 이종철 2015).

송국리형묘제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전북 서부 일대에 비해 분포와 밀도가 떨어지고 주로 함평과 나주 등 서해안에 인접한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그림 4). 영산강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극소수가 발견되고 있다. 전북 서부와 유사한 해안과 평야지대임에도 왜 전남지역에서는 송국리형묘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견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석묘가 발달한 고창 일대에 송국리형묘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되는 것처럼 영산강과 남해안 일대 지석묘의 유행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송국리형문화가 유입될 당시 이미 전남의 서부 일대에는 지석묘문화가 유행하고 있었고, 이는 외부 문화의 이주와 정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동일 유적에서 함께 발견되는 예가 드물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전남 동부 산악지대 일대의 지석묘는 서부 평야지대에 비해 그 수와 밀도, 특히 군집도에서 압도적인데(이영문 2003), 이 지역에서도 송국리형분묘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점 역시 전남 서부지역에서 송국리형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확산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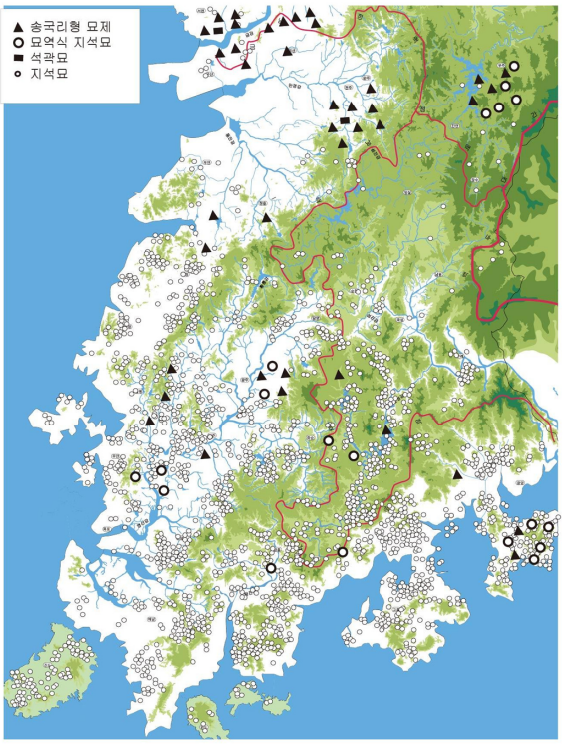


그림 4. 호남지역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의 분포

서부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적 차이는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남지역 지석묘의 주요 분포지는 전북과 전남 모두 산악지형이 발달된 동부지역이다. 서부 지역에서 최대의 밀집도와 군집성을 자랑하는 고창 죽림리 일대 지석묘의 주요 분포지는 산악지형이 발달한 선운산 일대이다. 전남의 서부 일대 역시 지석묘가 활발하게 발견되는 지역은 주변에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서부지역에서 지석묘가 활발하게 발견되는 지역은 공히 산악지대인 반면, 송국리형묘제가 발달한 곳은 낮은 구릉이 발달한 저평한 평야지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묘제의 상반된 분포상의 차이는 수 톤에서 수 십 톤에 이르는 지석묘의 상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도로망과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수천 년 전의 당시 사회에서 거대한 상석을 채석할 수 있는 암반이 주변에 분포하지 않는다면 지석묘의 축조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지석묘문화 전통의 당시 주민들은 산악지형이 발달한 곳을 선호하였을 것이며, 암석 채석이 용이하지 않은 서부 평야지대는 거주 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비해 거대한 암석을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은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축조하는 송국리형문화집단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점유가 적었던 서부 평야지대에 삶의 터전을 잡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 분포상의 차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생업경제의 방식과 주요 식량자원의 차이이다. 청동기시대의 구체적인 생업경제를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유적과 유물로 볼 때 이 시기 호남지역은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발전하였음임에 틀림이 없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평야지대는 논농사에 유리하고 산악지대는 밭농사와 화전농경, 다양한 야생자원의 획득에 유리하다. 이 점은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를 들어 송국리형묘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농사의 비중이 높고 지석묘문화권에서는 밭농사와 화전농경, 야생자원에 대한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증거가 많지는 않지만 전북 평야지대와 유사한 논산 마전리에서 당시의 논이 발견되었고, 진안 여의곡에서 밭이 발견되었다는 점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송국리형묘제는 이와 같이 서부 평야지대에서 활발하게 발견되지만 평야지대에서도 광주 원두유적과 같은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낮은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부에 축조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지석묘가 구릉 외에도 산기슭이나 고갯마루, 강변의 충적대지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 점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또한 지석묘는 강의 방향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거나 구릉이나 산기슭에서도 일정한 방향을 보이지만 송국리형묘제는 특정한 방향이나 열을 보이지 않고 3기 내외의 분묘가 소군집을 이루어 분포한다.

이러한 송국리형묘제의 공간배치는 주거지의 배치와 일맥상통한다. 송국리형문화의 경관을 살펴보면 주거지와 분묘는 대부분 동일 구릉이나 인근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발견되며, 3기 내외가 소군집을 이루어 분포한다. 예를 들어 전주 마전유적(그림 5)에서는 주거지와 분묘, 수혈군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3기 내외가 군집하여 발견된다. 이러한 송국리형 묘제와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는 전주 동산동이나 함평 용산리, 고양촌 등 많은 유적에서 확인된다. 예나 지금이나 공간은 친족관계를 반영한다. 송국리형문화의 이러한 공간배치 역시 취락 내에서 친족적으로 가까운 자들이 함께 모여 살았고(주거군) 이러한 주거군이 몇 개 모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근에 위치한 분묘 역시 이러한 친족관계에 따라 공간적으로 조성된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서부 일대의 송국리형묘제의 기원과 확산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송국리형묘제는 물론이고 취락이 가장 밀집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금강중하류 일대이고 이곳의 송국리형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다(김승옥 2006b). 호남지역 서부의 경우에도 송국리형묘제는 전북의 만경강 일대에서 먼저 유행하고, 이후 서해안을 따라 동진강과 영산강, 남해안일대로 점차 남하하게 된다. 이러한 송국리형묘제의 확산과 전파경로는 송국리형묘제의 분포와 밀도가 만

경강일대에서 가장 높지만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점차 떨어진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이러한 확산 과정은 송국리형묘제의 조합상에서도 알 수 있는데, 금강중하류와 만경강일대의 전주 여의동, 완주 상운리, 익산 어량리 유적 등에서는 세 묘제가 세트로 확인되지만 동진강이남 일대에서는 세 묘제중의 일부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송국리형묘제가 남하하면서 석개토광묘와 옹관묘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지의 토착문화와 만나면서 전형의 송국리형문화가 변화와 융합을 거듭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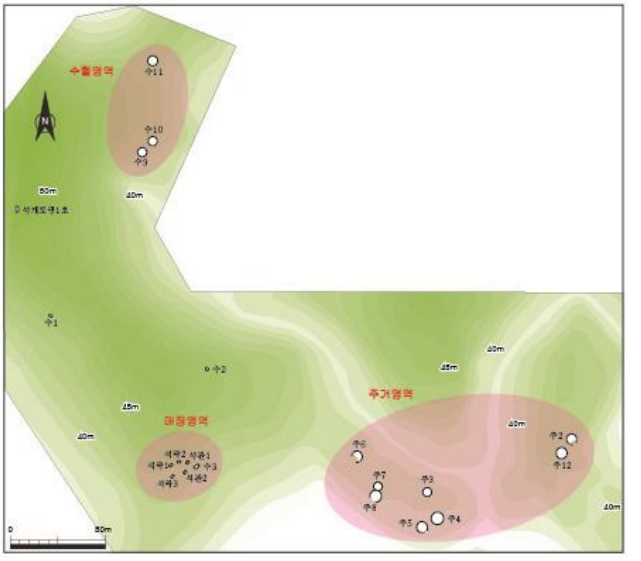


그림 5. 전주 마전유적 III-1구역 유구 모습

이와 같이 서부 일대 중기의 분묘는 크게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 분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두 문화는 서로 어떻게 만났을까? 서부 일대에서 두 묘제는 혼재하여 발견되는 사례도 있고, 송국리형묘제가 지석묘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 증거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두 묘제가 만나기전 청동기시대 전기 지석묘의 매장시설은 석곽형이지만 중기 이후에 이르면 석관형도 다수 축조된다. 또한 송국리형묘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영산강유역권에서는 석관과 석곽형의 비율이 30.6%와 58.1%이지만 보성강유역권에서는 2.0%와 76.1%로서 거의 대부분 석곽형이다(李榮文 1993). 서부와 동부 지석묘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지역적 차이일수도 있지만 송국리형묘제인 석관묘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남해안 일대의 장흥 갈두와 신풍에서 대규모의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가 공존하는 양상도 이러한 문화 간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그림 6, 7). 또한 송국리형문화와 지석묘사회의 접촉은 양자가 지역적 분포를 달리하고 갈등이나 전쟁의 직접 증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상호간의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자연스러운 공존과 상생의 결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호남지역 동부 산악지대를 살펴보면, 이 지역 일대의 묘제는 지석묘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기 후반부터 지석묘가 축조되고 중기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행한다. 중기 이후 이 지역에도 송국리형문화가 유입되지만 서부 일대에 비해 유적은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송국리형묘제는 진안 여의곡·망덕·모곡 등의 금강 상류와 임실 외량(그림 8)과 운정리, 순창 무수리 등 섬진강 상중류에서 한정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진안 여의곡을 제외하면 송국리형묘제 중 석관묘만이 발견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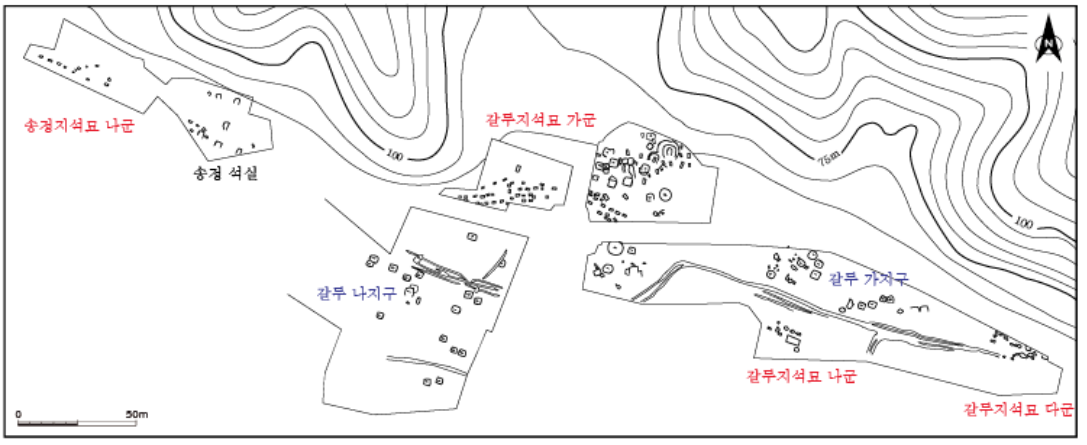


그림 6. 장흥 갈두 · 송정유적 유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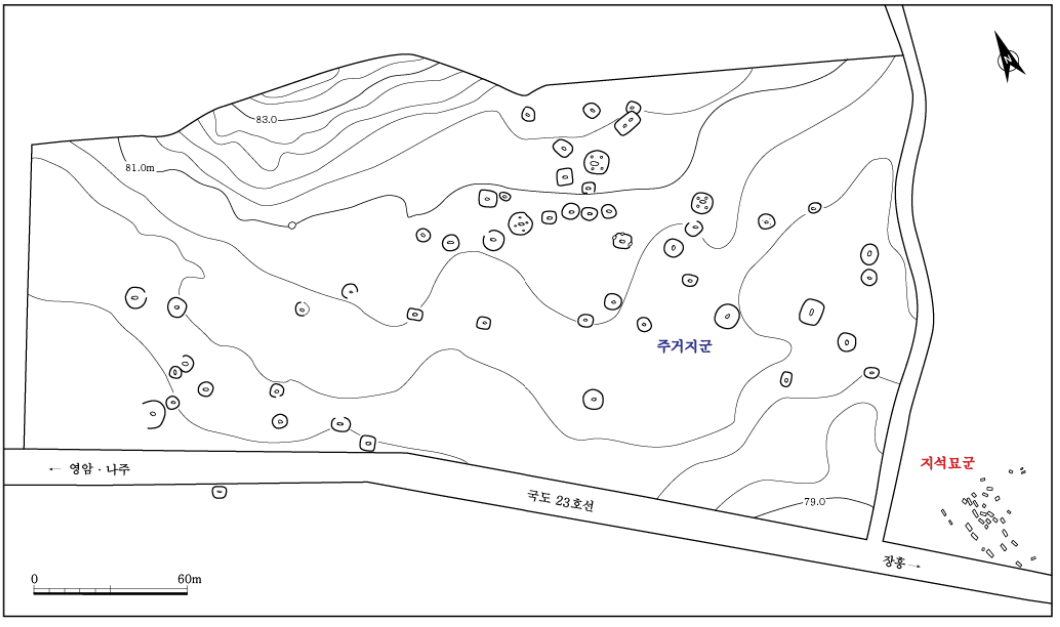


그림 7. 장흥 신풍유적 유구 분포도

호남 동부 일대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송국리형묘제는 지석묘와 혼재하거나 지석묘의 외곽에 축조된다는 점에서 서부와 대조를 이룬다. 대표적인 예로 여의곡유적을 들 수 있는데, 이 유적에서는 전기부터 축조된 대규모 지석묘가 금강변을 따라 열상으로 축조되었고, 그 외곽에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가 조합을 이루어 발견되었다(그림 9). 이러한 송국리형묘제는 여의곡유적의 최말기인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김승옥 2003). 인접한 구릉에서는 송국리형취락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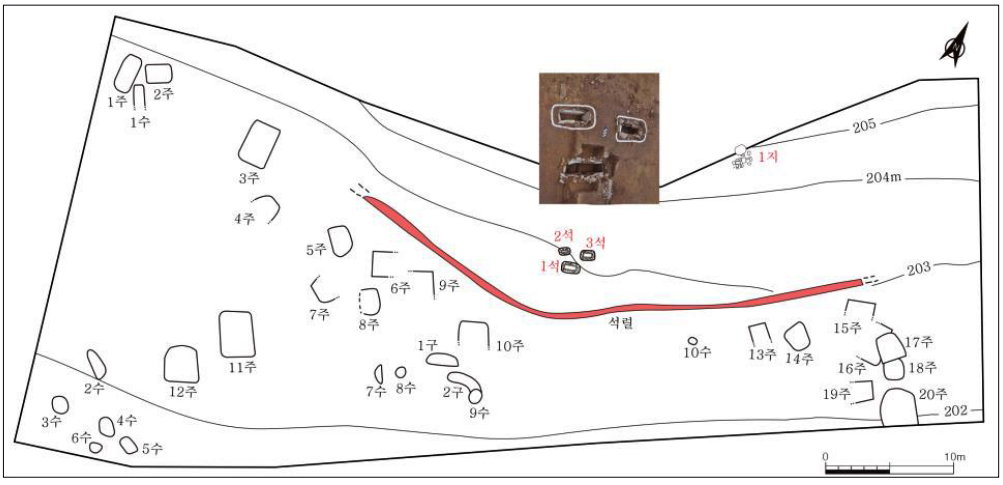


그림 8. 임실 외량2유적 유구 분포도

지석묘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던 전라도의 동부에도 이처럼 송국리형묘제가 유입되었음은 확실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송국리형 취락에서도 입증된다. 그럼에도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사회간의 접촉과정과 그 결과는 서부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동부 일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중기 이후의 송국리형묘제가 선주민 집단인 지석묘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예를 들어 여의곡유적에서는 송국리형묘제가 지석묘 열의 외곽에 축조되었고, 52호와 53호 석관묘는 상부에 방형의 묘역시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 묘역식지석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정할 수도 있다(그림 9). 순천 가곡동유적에서도 묘역식지석묘 주위로 석관묘가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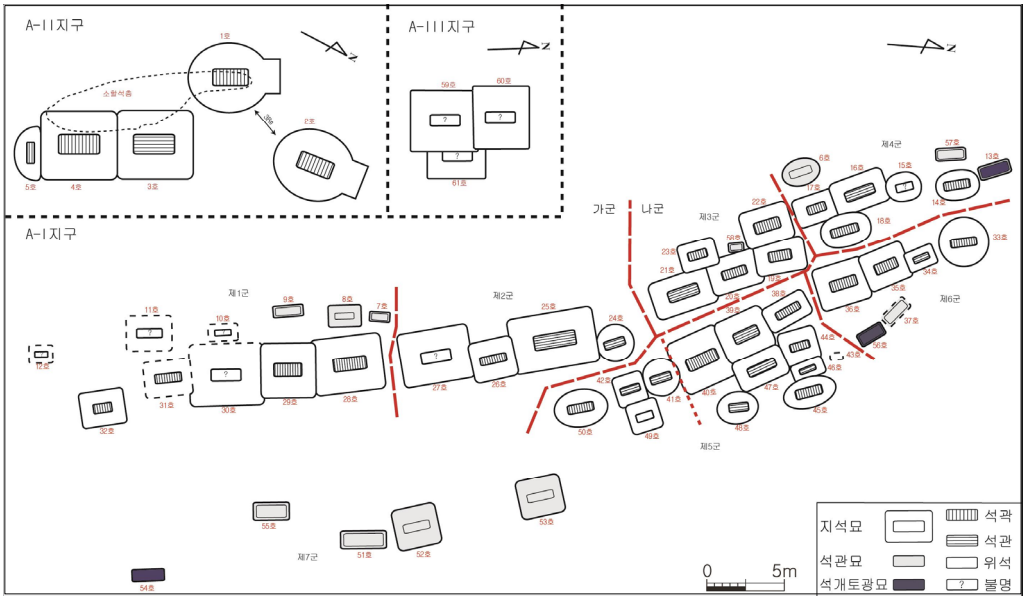


그림 9. 진안 여의곡유적 모식도

지석묘사회와 공존한 송국리형묘제는 지석묘의 형태와 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어 지석묘의 하부구조 중에는 이단토광으로 된 깊은 지하에 여러 개의 뚜껑돌을 덮은 형식이 다수 발견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성 동촌리 지석묘[3]를 들 수 있다(그림 10). 지석묘에서 보이는 이러한 하부구조는 지하 이단으로 된 석관묘나 석개토광묘의 하부구조와 별로 차이가 없다. 또한 묘역식지석묘는 송국리형문화권과 일치하는데(김승옥 2007), 원형의 묘역시설은 송국리형 원형 주거지의 평면 형태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림 10. 보성 동촌리유적 지석묘

서부와 마찬가지로 동부지역 송국리형문화의 확산은 지형과 수계망을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금강 중하류의 송국리형묘제는 금강 상류로 확산되고 이후 섬진강을 거쳐 남해안 일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백두대간을 넘어 경상도의 황강과 남강유역권으로 넘어간다. 섬진강의 송국리형묘제는 전북 서부 일대, 특히 만경강과 깊은 관련을 보인다. 즉 송국리형묘제의 분포(그림 4)로 볼 때, 만경강 일대의 송국리형묘제는 섬진강 최상류인 임실을 거쳐 순창 일대로 확산되었던 걸로 이해된다. 섬진강 하류는 금강과 섬진강 상류의 묘제도 유입되지만 서남해안과도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묘제의 확산과 정착과정은 취락에서도 흡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김승옥 2006b; 이종철 2015).

결과적으로 호남지역의 동부 일대는 청동기시대 문화의 교차로이자 정류장이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만나 변화와 혁신을 거쳐 새로운 문화로 거듭난 곳이 동부 일대이다. 동부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 지석묘만이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기 이후부터는 금강 중하류의 송국리형문화와 만나 지석묘+송국리형묘제라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건설하게 된다. 동부지역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와 같은 묘제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진주 내촌리·대촌·옥방2지구 등 남강 일대에서 발견되는 유적에서는 지석묘를 중심으로 다수의 석관묘나 석개토광묘가 공존한다(김승옥 2007). 한마디로 호남의 동부 일대는 다양한 청동기시대 문화의 점이지대이자 동시에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곳이라 요약할 수 있다.

3. 후기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면 분묘의 종류와 분포가 급변하게 된다. 물론 이 시기에도 중기에 유행하였던 송국리형문화가 지속되며, 남해안일대에서는 더욱 성행하게 된다(김승옥 2007). 예를 들어 군산 도암리, 전주 효자4, 완주 상운리, 고창 율계리, 광주 수문과 하남동, 장흥 갈두유적에서는 중기의 송국리형주거지가 후기에도 축조된다(이종철 2014). 그러나 중국

3) 동촌리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이지만 기술의 편의상 여기에 소개한다.

요령일대의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분묘 형태라 할 수 있는 적석목관묘, 토광묘, 옹관묘(횡치다옹식)가 유행하게 된다.

호남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어떠한 경로로 유입되었을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북방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북부와 중부지역으로 전파되고, 해로를 통해 금강중하류로 유입된다. 호남지역의 경우 만경강이 주목되는데, 만경강 일대의 밀집된 이 시기의 묘제로 볼 때 호남의 점토대토기문화는 해로를 통해 만경강 일대로 먼저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점토대토기문화는 영산강과 남해안일대로 남하하게 된다(김승옥 2016).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의 핵심을 정리하면, 1) 지역 연맹체로서의 마한의 시작은 만경강 일대로 볼 수 있으며, 2) 핵심 무대는 만경강 이남의 황방산 일대이고, 3) 성립 시점은 기원전 2세기 전후로 볼 수 있다(김승옥 2020).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물질문화는 역사전개상 마한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端初인 셈이다.

이러한 외래계의 점토대토기문화와 재지 토착 세력과의 사회적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묘제의 분포로 볼 때 이주민의 정착 초기에 두 문화는 대부분 공간을 달리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점차 두 문화 간의 접촉과 융합현상이 발생하는데, 먼저 재지의 분묘에서 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이다(김승옥 2016). 예를 들어 완주 반교리와 정읍 정토유적의 석개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발견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고창 왕촌리유적 석관묘에서는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이 석관묘는 일단 굴광에 석관을 안치한 후 2중 개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송국리형 석관묘의 말기 형태로 판단된다(김승옥 2016). 영산강유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광주 매월동, 나주 운곡동과 월양리, 영암 장천리와 엄길리 등의 지석묘에서는 세형동검, 검파두식, 두형토기, 점토대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함평 상곡리 석관묘에서는 鏡形銅器 4점이 확인되었는데, 이 유물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오강원 2017).

이와는 반대로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적에서 재지 분묘의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 가령 완주 신풍과 갈동의 토광묘에서 송국리식의 외반구연옹과 홍도가 확인되었고(송종열 2015), 전주 마전의 구상유구에서도 홍도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적석목관묘에서 재지 분묘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이단묘광이나 대형 뚜껑돌이 발견되는데, 전주 여의동과 효자동, 익산 다송리,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유적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예를 들어 粗紋鏡과 扇形銅斧가 발견된 여의동유적에서는 이단굴광과 대형 뚜껑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송국리형묘제인 이단석개토광묘의 구조를 연상하게 한다(한수영 2015).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이와 같이 재지와 외래계의 분묘가 공존과 융합을 거듭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통합과 재창조의 과정을 거친 호남의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는 이후 이 지역 마한문화의 발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Ⅲ. 문화의 변천과 성격

1. 조기: 문화의 태동

남한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 조기 취락은 유적당 주거의 수가 대부분 2~3동으로 구성되는데, 호남 역시 이러한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호남지역의 조기 사회는 하나의 대형 가옥에 친족적으로 가까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소위 '공동거주형 세대공동체'(김승옥 2006a)로 구성된 소규모의 집단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유역을 본향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조기 문화는 충적지 기반의 농경, 구릉과 산지를 이용한 수렵과 채집, 강 연안의 하천어로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혼합경제체재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천선행 2015). 호남지역의 조기 문화 역시 입지와 유물복합체의 양상으로 보면 이러한 생업경제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동산동유적에서 발견된 다양한 탄화곡물과 벼의 압흔, 하천어로와 관련된 다량의 어망추, 수렵도구와 야생식물(주로 견과류)과 패류는 이러한 혼합경제방식을 지지하는 증거들이다(김승옥 2017).

2. 전기: 문화의 확산

상술한 바와 같이 호남지역의 전기 문화는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조기와 여러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조기의 취락이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반면, 전기에 이르면 주로 낮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취락이 건설된다. 또한 조기 주거지는 대부분 대형의 장방형이지만 전기에는 장방형과 함께 세장방형이 유행하게 된다. 전기 후반부에 이르면 지석묘, 옹관묘, 토광묘 등 분묘가 축조되기 시작된다는 점도 조기와 전기의 차이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주거지와 분묘에서 발견되는 유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기의 생업경제는 조기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도 집약적 수전농경보다는 곡간의 저지대를 이용한 소규모 농경과 함께 수렵과 채집, 하천 어로가 조합된 혼합경제방식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취락의 입지에서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이 시기의 취락은 중기의 송국리형문화 취락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저지대 수전농경지로의 접근이 불리하다고 한다(허의행·강병권 2004).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 시기에 소규모의 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지역에서도 논농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청동기시대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었을까?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사회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일부 발견되었다. 지석묘를 예로 들면, 무덤방은 모두 대형 석곽이고 석검이나 석촉을 제외하고 높은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위세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군집을 보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전기 분묘에 피장된 주인공들은 각각의 친족집단이나 세대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 간에 현저한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조기 사회는 성과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던 사회로 볼 수 있지만 신분이 세습

되는 계층사회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김승옥 2007). 다시 말해 청동기시대 전기는 불평등의 씨앗을 어느 정도 잉태하고 있지만 그 열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위계적 관계가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마을과 마을 간에는 교역이나 축제를 통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지석묘의 거대한 상석과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력과 기술이 요구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동력은 한 마을내의 구성원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마을의 협업(집합적 노동력)을 통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내 여러 마을이 모여 축제와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도 발견되었는데, 완주 구암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적은 만경강 일대에서는 유일하게 해발 76m 높이의 고지성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 이후에 속하는 주거지 10기와 환호형의 대형 유구가 발견되었다(그림 11). 유적 전체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환호형 유구는 구릉 정상부를 감싸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호 내부에서는 대형의 수혈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유구 내에서는 불을 오래 맞은 흔적이 있는 소형할석과 불에 그을려 단단하게 굳은 흙덩이가 반복적으로 쌓여 있고, 이중구연단사선문과 구순각목문토기 등이 다량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수혈유구는 제의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거지들의 내부에서는 의례행위를 시사하는 적색마연고배, 소형의 발과 완, 小壺, 국자모양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구암리유적은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지역 내 촌락사회의 제의와 축제를 공동으로 행하였던 장소였다고 여겨지며, 향후 호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적이 발견되리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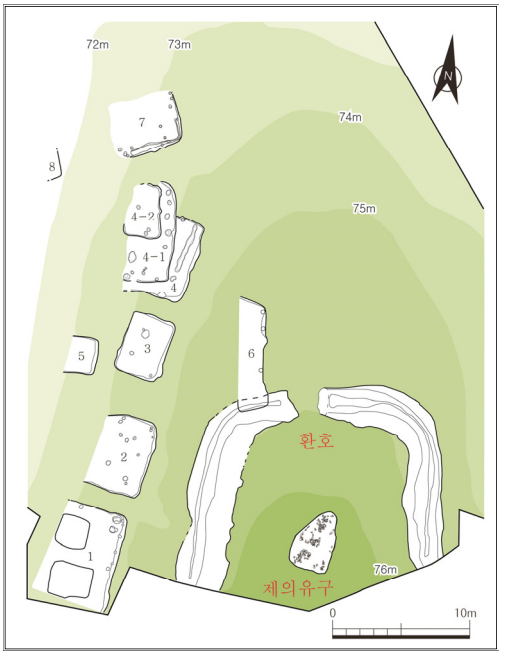


그림 11. 완주 구암리 유구 배치도

3. 중기: 사회적 복잡화와 위계화의 발달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중기 사회는 인구증가와 본격적인 농경사회로의 진입, 사회적 위계화의 심화로 요약(김승옥 2007; 송만영 1995; 안재호 2000; 안승모 2000; 조현종 2000)될 수 있는데, 호남지역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복잡화와 위계화의 발달을 잘 보여준다. 가령,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호남지역에서도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적의 분포와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전기에 이어 역삼동 혹은 흔암리형문화, 그리고 휴암리형문화가 지속되고 지석묘 또한 더욱 활발하게 축조된다. 여기에 금강중하류에서 발원한 송국리형문화가 호남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된다.

호남지역 중기 사회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취락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기에 비해 개별 주거지들은 문화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형의 크기를 보이는데, 이는 하나의 대가족이 독립된 가옥에 거주하는 소위 '독립거주형 세대공동체'의 주거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군

이 다수 모여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게 된다.

중기 사회는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대규모 잉여생산물의 창출로 이어진다. 호남지역에서도 잉여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대규모로 등장하는데 수혈과 고상가옥이 그것이다. 고상가옥의 일부는 망루나 거주용으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잉여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전문저장시설로 이해되고 있다(김경택·황지미 2014).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를 포함한 이 시기의 분묘는 동일 유적에서 생활유구와 공간을 달리하면서 분포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취락의 경관과 발전된 사회구조를 보여주는 유적이 다수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전주 동산동유적을 들 수 있다(그림 12). 이 유적은 황방산의 사면쪽으로 취락이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취락의 규모가 현재 조사된 것보다 훨씬 컸으리라 추정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지점에서 주거지 69기, 분묘 28기, 수혈 140여기, 굴립주 건물지 10여기, 구상유구 30여기, 기타 적석유구, 의례유구, 원형환구 등이 발견되어 그야말로 초대형 복합취락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취락은 생활영역과 분묘영역이 공간적으로 구별되고, 전자는 다시 주거와 광장, 저장공간(수혈과 고상가옥)으로 나누어진다. 생활영역의 중앙에 위치한 광장에서는 공공의례와 축제를 거행했음이 확실한데, 이는 생활영역의 중심에 위치한 드넓은 공간과 내부에서 다량의 토기와 잡석을 집중적으로 폐기한 의례용 제사유구의 존재에서 방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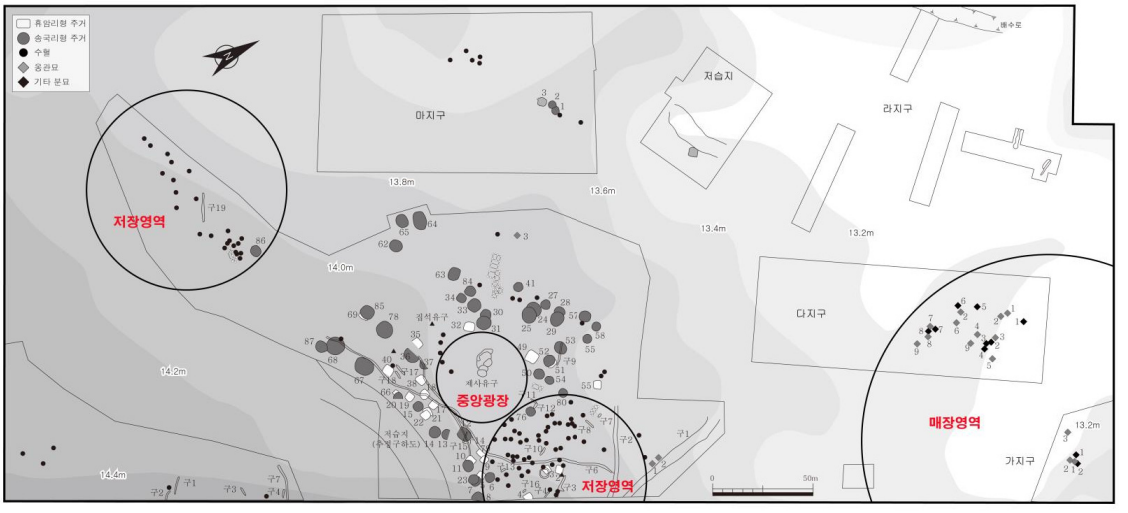


그림 12. 전주 동산동 청동기시대 중기 유구 배치도

이처럼 발달된 사회조직과 복합도를 자랑하는 동산동취락은 주변 소규모 촌락을 사회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거점취락'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거로는 주변에 중소 규모의 촌락만이 위치하는 점, 만경강이라는 수로와 육로의 교차로에 위치하는 점, 대규모 저장시설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김승옥 2017). 중앙광장과 내부의 의례유구에서는 주변 촌락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농경축제와 같은 축제를 즐기고 조상을 기리는 다양한 제의행위를 거행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동산동유적은 지역을 아우르는 핵심취락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핵심취락은 호남지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고창 죽림리와 여수 적량동의 지석묘사회, 진안 여의곡유적, 장흥 갈두와 신풍유적(그림 6, 7), 나주 운곡동유적 등도 지역연계망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점 취락으로서의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안 여의곡유적에서는 1) 금강 수계를 포함한 전북 동부에서 가장 압도적인 규모의 지석묘가 발견되었으며, 2) 대규모의 밭유적이 확인되었으며, 3) 주거와 매장 영역 사이에 광장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간과 소위 '入大木'과 유사한 일련의 제의행위(이종철 2018)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중기에 이르면 지역 핵심 취락과 주변의 중소형 촌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광역의 지역공동체가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 사회의 개인과 집단 간의 사회정치적 관계는 어떠했을까? 평등사회였을까, 불평등사회였을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피장자의 지위와 신분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는 분묘유적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중기에 이르면 지역 내 취락과 분묘의 규모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심화되며, 집단 내에서도 개인적 위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강 상류의 최상위 중심지였던 여의곡유적에서는 분묘의 크기와 형태, 출토유물에서 일부 개별 분묘와 3기 내외의 군집 분묘가 신분이 높았던 자들의 무덤으로 판단된다(그림 9, 13). 이러한 유력 군집묘 내에서는 여의곡 5호처럼 극소형의 분묘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르면 성인뿐만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유소아가 함께 매장되는, 소위 유력 친족집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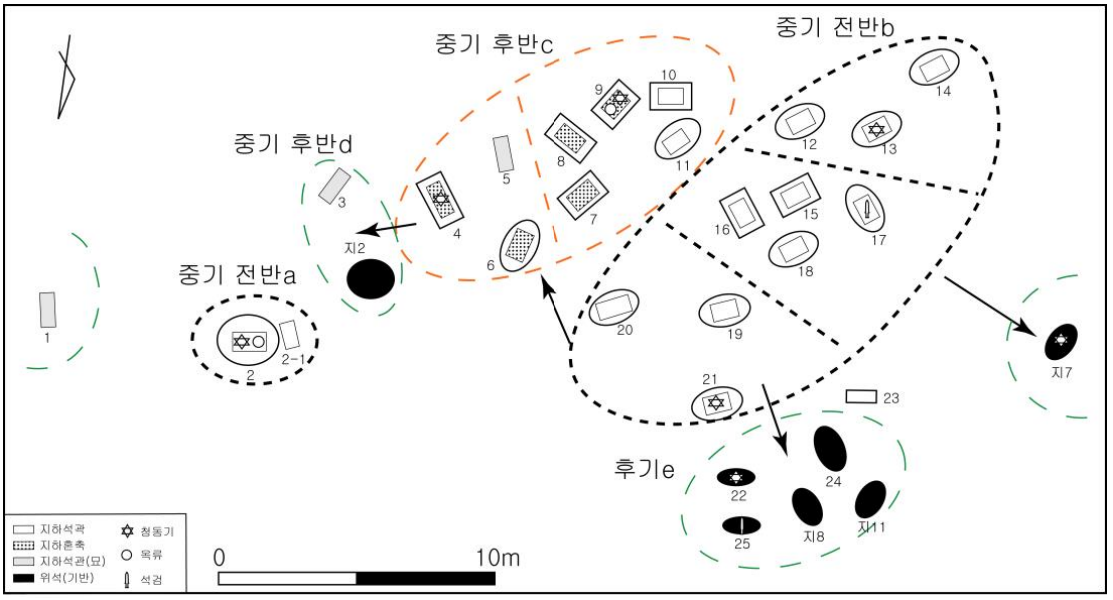


그림 13. 여수 적량동 유구 배치와 변화

전남 일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자들은 초대형의 석곽에 안치되고 내부에서 비파형동검, 석검, 옥 등 고급 위신재가 부장된다. 이러한 예로 섬진강과 보성강 일대의 적량동, 우산리, 오림동유적 등을 들 수 있다(김승옥 2007). 이 중에서 여수 적량동유적(그림 14)을 살펴보면,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7점의 비파형동검과 1점의 비파형동모가 발견되어 남부 지방에서 청동유물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분묘유적이다. 비파형동검이 발견되는 무덤의 매장주체부는 22호를 제외하고 모두 석곽형이며, 상대적으로 대형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획기별 각 군집묘에서는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무덤이 1기씩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무덤은 군집 내에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자의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량동 지석묘집단은 인근의 지석묘집단에 비해 우월한 집단으로서, 이러한 우월적 위치는 중기부터 후기까지 지속된다(이동희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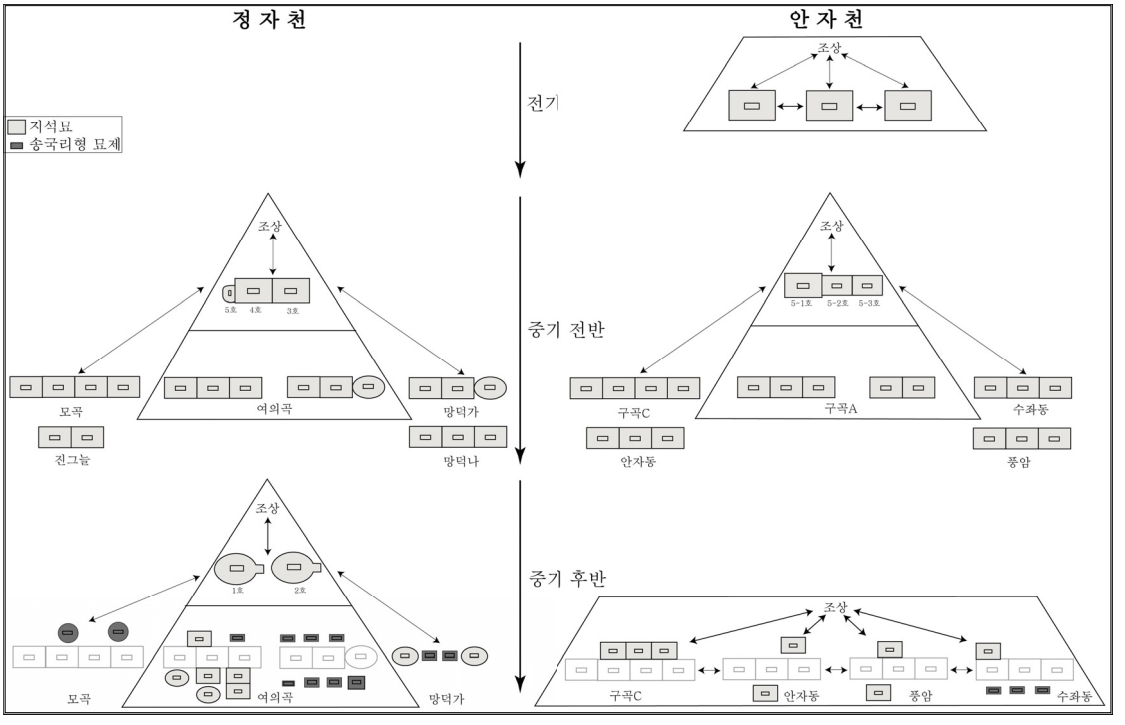


그림 14. 금강 상류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

4. 후기: 사회적 위계화의 절정과 외래문화와의 만남

후기에 이르면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다시 한 번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 지역에 따라 재지의 토착문화가 여전히 유행하고, 전남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이 시기에도 지석묘의 축조가 여전히 성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적 위계화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유력 개인묘의 탄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여수 적량동 7호 지석묘(그림 14)나 보성 동촌리의 지석묘는 공간적 위치, 유구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지역 내 최상위 신분을 가진 자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여수 봉계동 10호나 보성 덕치리의 1호 기반식 지석묘도 비슷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자의 무덤으로 이해된다(김승옥 2007).

이러한 재지 문화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 후기 사회는 일변을 하게 되는데,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이 그것이다. 중국 요동지역 이주민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한반도의 북부와 중남부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호남지역에서는 만경강 일대에서 이러한 점토대토기문화가 먼저 나타나고 이후 영산강과 섬진강 등지로 점차 이동하게 된다.

재지와 외래문화의 공존으로 요약할 수 있는 호남지역의 후기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중기문화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송국리형문화는 하천의 수계를 따라 구릉상에 주로 분포하는 '수계선호형'의 사회로 볼 수 있고, 점토대토기문화는 산의 고지대에 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산지선호형'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에서는 장거리 교역을 통한 위신재의 획득이 활발하였고, 이는 거대 공동체와 대형 기념물의 축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규모의 농업공동체를 이룬 송국리형문화와 대비된다. 따라서 재지의 송국리형 사회가 '집단 성향의 족장사회(예를 들면 유력 군집묘)'라면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는 '개인 성향의 족장사회(예를 들면 유력 개인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승옥 2007). 이러한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는 생업경제에서도 전자가 수전농경의 비중이 높고 후자는 혼합경제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대규모의 구상유구에서 이루어진 의례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김승옥 2016)

이와 같이 출자와 입지, 사회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는 재지와 외래문화는 상호간에 접촉이 활발해지고 동일유적에서 양자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된다. 청동기시대 최말기에 이르면 재지와 외래계의 구별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문화융합의 사례가 전라도에서 다수 발견된다. 전주 여의동과 효자동, 익산 다송리,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의 유적들은 이러한 문화접촉과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Ⅳ. 문화의 특징과 쟁점

이상에서 살펴 본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개방성과 독자성, 탁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호남지역의 재지 문화는 외부의 문화적 자극과 주민의 이주에 매우 개방적이었고, 그 결과 송국리형문화나 점토대토기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러한 개방성의 동력으로는 육로와 함께 서해안과 남해안을 통한 해로의 발전, 그리고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호남의 자연환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호남지역에서 공존과 통합을 거듭한 청동기시대 문화는 경상도 남강 일대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송국리형문화는 바다 건너 삼양동유적과 같은 제주도 해양거점취락의 기반이 되고 일본 큐수 일대로 파급되어 야요이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던 호남지역은 동시에 다양한 문화 교통로로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중부지방과 전남, 영남을 잇는 문화의 길목이자 점이지대로 작용하게 된다.

호남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외부문화에 개방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유의 독자성도 유지하였다고 여겨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석묘를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호남지역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지석묘가 가장 밀집된 분포를 보이는 곳이다. 지석묘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고, 지석묘사회의 구조와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아카이브로서의 지역이 호남지역인 셈이다.

이와 같이 고유의 재지 토착문화를 유지하면서 외부 문화의 유입에 개방적이었던 호남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공존과 통합을 거듭하여 우수한 청동기시대 문화를 건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송국리형문화가 유입되어 가장 탁월한 청동기시대 문화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역이 바로 호남지역이다. 또한 북방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만경강을 통해 유입되었고 재지의 문화와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우수한 청동기시대 문화로 거듭나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남지역은 마한이 시작되고 가장 마지막까지 강력한 마한 문화가 성행했던 지역이다. 호남의 이러한 마한의 시작과 발달은 그 이전의 우수한 청동기문화와 외래계의 점토대토기문화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향후 풀어나가야 할 이러한 쟁점은 비단 호남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수많은 숙제가 있다[4]. 여기서는 3가지 정도의 쟁점만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편년과 획기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를 조기-전기-중기-후기의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획기의 시작과 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국리형문화 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일각의 견해가 아닐까싶다. 이러한 주장은 기원전 2세기경에 시작되는 초기철기시대 이전의 청동기시대 문화, 즉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병행하는 청동기시대 말기의 문화를 배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후자의 청동기시대 말기 문화는 가장 발전된 청동기문화를 보여주고, 호남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서는 사회적 복잡화란 측면에서 중기의 송국리형문화에 비해 더욱 발전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둘째, 송국리형묘제의 타당성 문제이다. 송국리형묘제가 제안(김승옥 2001)된 이후 일각에서는 이 묘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부정하거나 수정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이명훈 2015). 이러한 비판의 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송국리형묘제와 지석묘가 공존하는 현상을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남지역에서도 진안 여의곡, 임실 외량2, 장흥 신풍과 갈두유적에서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이나 묘제가 지석묘와 함께 발견된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문화는 끊임없이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공존하거나 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송국리형문화와 지석묘 집단의 문화가 그러하고 점토대토기문화와 송국리형문화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여의곡·외량2·갈두와 신풍유적은 각각 금강상류·섬진강상류·남해안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지점은 송국리형문화와 지석묘문화가 만나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석묘사회의 문화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고고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도 지석묘는 '농경사회의 기념물'로 각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석

4) 예를 들어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전환기의 고고학, 전기 다양한 문화유형의 유입과 상대적 선후관계, 송국리형 문화의 기원, 송국리식 방형과 원형주거지의 출자 및 선후관계,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문화체계 등 다양한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묘사회는 정착생활과 수전농경을 통해 잉여생산물을 창출한 농경사회였을까?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통해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정하기 힘들지만 상당히 회의적이다. 호남의 경우 동부든 서부든 지석묘는 대부분 산악지대나 산지성 구릉이 발전한 곳에서 유행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아직까지 수전농경의 증거는 발견된 바 없다. 또한 수만여기의 지석묘가 축조됐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정착생활의 전제가 되는 주거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공반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지석묘와 공반되는 일부 송국리형주거지는 지석묘 사회 후반부 양 문화 간의 접촉이나 융합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로선 지석묘 사회를 밭농사나 화전농경, 수렵채집, 어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혼합경제체제를 영위했던 '이동성 농경사회'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5]. 물론 향후 주거지와 분묘의 절대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 고고학에서 '있음(有)'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없음'의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송기호 2018)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잔존 물질문화에 의존하는 고고학에서 벗어나 '비물질문화 고고학'에 관한 다양한 자료 발굴과 방법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5)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문화 취락과 분묘의 불균형 역시 향후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런데 점토대토기문화 역시 산지선호형의 사회로서 수전농경보다는 혼합경제체제를 영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석묘 사회와 일면 유사성을 보여 주목된다.

참고문헌

김경택·황지미, 2014,「청동기시대 굴립주건물지의 기능 분석」, 『百濟文化』 51; 5-30.

김승옥, 2001,「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硏究-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45; 45-74.

-, 2003,「금강 상류 무문토기시대 무덤의 형식과 변천」,『韓國考古學報』49; 5-45.

-, 2004,「전북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세계 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학술총서 1, pp. 173-184.

-, 2006a,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 60: 4-37.

-. 2006b,「송국리문화의 지역권설정과 확산과정」,『호남고고학보』24; 33-64.

-, 2007,「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사회평론. pp. 39-82.

-, 2015a,「편년과 지역적 이해」,『한국청동기문화개론』, 진인진, pp. 42-65.

-, 2015b,「묘제의 특징과 변천」,『한국청동기문화개론』, 진인진, pp. 86-108.

-, 2016,「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韓國考古學報』99; 40-77.

-, 2017,「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호남고고학보』55; 32-59.

-, 2020, 「만경강의 물질문화와 마한의 성립」, 『전북지역 馬韓문화』, pp. 372-39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1.

배진성, 2011,「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韓國考古學報』80; 5-28.

송만영, 1995,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性格』,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 論文.

손준호, 2009,「湖西地域 靑銅器時代 墓制의 性格」,『先史와 古代』31; 137-160.

송기호, 2018,「문헌사와 고고학의 만남을 위하여」,『韓國上古史學報』100: 9-15.

송종열, 2015,「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 과정」, 『湖南考古學報』 50; 52-69.

안승모, 2000,「稻作의 出現과 擴散」,『韓國 古代의 稻作文化』,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 pp. 1-20.

-, 2011,「신석기문화의 성립과 전개」,『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서경문화사, pp. 63-97.

안재호, 2000,「韓國 農耕社會의 成立」,『韓國考古學報』43; 41-66.

오강원, 2017,「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경형동기 연구」,『한국청동기학보』20; 56-87.

이동희, 2002,「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와 發展段階-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湖南考古學報』15; 19-55.

-, 2017,「분묘의 분포·입지·군집」,『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pp. 70-91.

이명훈, 2015,「松菊里型 墓制의 檢討」,『韓國考古學報』97; 28-67.

이영문, 2003, 『한국 지석묘사회 연구』, 주류성.

이종철, 2014,「제4장 호남·제주지역」,『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聚落』, 서경문화사, pp. 168-194.

-, 2015,『松菊里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2018,「立大木·솟대 祭儀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試論」, 『韓國考古學報』 106; 8-45.

정다운, 2015,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시공간적 전개양상』,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조현종, 2000,「稻作農耕의 起源과 展開」, 『韓國古代文化의 變遷과 交涉』, 서경문화사. pp. 3-30.
천선행, 2015,「청동기시대 조기 설정 재고」, 『湖南考古學報』 51; 4-31.
한수영, 2015,『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硏究』,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허의행・강병권, 2004,『天安 云田里遺蹟』, (財)忠淸埋葬文化財妍究院 文化遺蹟 調査報告 第3 冊.
홍밝음, 2013,「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문화의 변천과정」,『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 경 문화사, pp. 327-353.

02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김 규 정
전북문화재연구원

Ⅰ. 머리말
Ⅱ.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연구현황
Ⅲ.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
Ⅳ. 맺음말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김 규 정 (전북문화재연구원)

Ⅰ. 머리말

영산강은 내장산을 기점으로 남서로 분기하여 입암산-방장산-구황산-장암산-불갑산-군유산으로 이어지는 영산기맥과 남으로 분기하여 추월산-무등산-봉화산-월출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정맥을 자연경계 삼아 유역권을 이룬다. 수계는 담양군 용면 추월산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전남의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흐르면서 장성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는 황룡강과 화순에서 발원하여 서북류하는 지석천이 차례로 합수하고 광주천, 만봉천, 고막천, 함평천, 삼포강, 영암천 등 작은 지류를 포함한다. 삼포강과 영암천은 내해인 남해만과 영암만으로 바로 흘렀었지만 영산강하구언 공사가 완료되면서 영산강 수로가 목포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산강 지류에 포함되었다(조진선 2006, 186쪽). 이처럼 영산강유역은 크고 작은 지류들이 발달되어 있고 낮은 구릉과 강변 충적지가 발달되어 선사·고대인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넓게 분포하지만 대체로 상류와 중류에 밀집된 양상이 확인된다. 영산강은 지리적인 특징에 따라 배가 왕래했던 영산포를 기준으로 상류권과 하류권으로 구분하거나(유향미 2006), 자연지형에 따라 상류, 중·하류, 서부, 서부도서, 서북부, 남부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본 발표문에서는 발원지와 큰 지류인 황룡강과 지석천이 합수되는 담양·장성·광주·화순을 상류로, 영산강 본류이면서 해수의 영향을 받았던 영산포를 포함한 나주·영암을 중·하류로, 그리고 고막천, 함평천 등이 있는 함평·무안을 영산강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영산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밀집분포지이자 古代에는 옹관고분으로 대표되는 마한문화권의 핵심지역으로서 백제가 국가체제를 완성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마한문화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확산한 선사·고대문화는 지석묘와 옹관고분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본 발표문의 연구범위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영산강유역 지석묘(2015·2016·2017)』의 지역구분을 참조하여 영산강 상류지역(장성·담양·광주·화순), 영산강 중·하류지역(나주·영암), 영산강서부지역(함평·무안)으로 구분하였다.

영산강유역 청동기문화는 재지의 지석묘문화와 함께 수전농경 중심의 송국리문화가 바탕이 되었지만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주변지역으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바탕은 우리나라 최대의 농경유적이라 할 수 있는 신창동유적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본 발표문은 지금까지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과 분묘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 문화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연구현황을 취락과 분묘로 나누어 개괄하고 현재까지 조사된 취락과 분묘를 통해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연구현황

1. 취락 연구현황

영산강유역에서 처음 보고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1977년 광주 송암동에서 조사되었는데 호남지역에서 처음 조사된 송국리식주거지이다. 이후 1984~1986년에 걸쳐 영암 장천리에서 모두 12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대체로 송국리식주거지로 영산강유역이 송국리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천리유적 이후의 발굴조사는 잠시 소강기에 들었다가 1990년대 들어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개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는 광주광역시에서 취락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05년 광주 용두동에서 전기취락과 함께 중기취락이 조사된 것을 비롯해, 수완지구에서 전기 주거지와 송국리형취락이 대규모로 조사되었으며 수완지구 내 수문 취락은 성덕·장자·신완 유적과 함께 송국리문화 단계의 중심취락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종철 2014, 171쪽). 또한 영산강유역 전역에서 전기~중기에 이르는 취락들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어 비로소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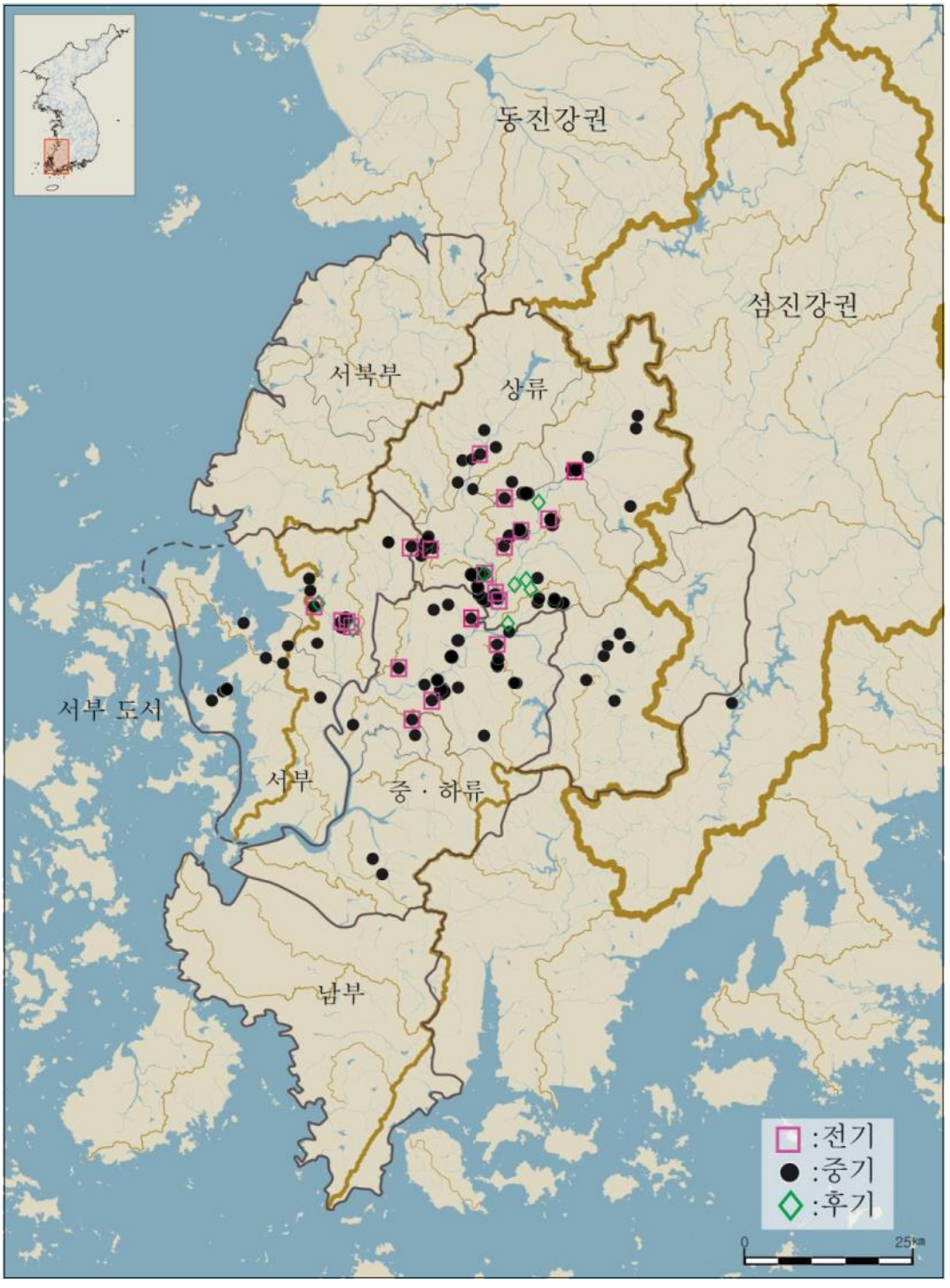


그림 1.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분포도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연구도 발굴조사 자료가 증가되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호남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영산강유역의 청동기문화는 간헐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종철 1999·2015; 김규정 2000·2013; 유향미 2006; 신상효 2007; 김문국 2010; 홍밝음 2010a·2010b; 정다운 2015; 천선행 2016).

중기에는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구릉이나 충적지를 중심으로 수기에서 수십 기의 주거지가 군집을 이루며 취락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그 가운데 광주 평동과 나주 운곡동에서는 대규모 취락이 확인된다. 2004~2007년 조사된 나주 운곡동유적은 모두 74기의 송국리식주거지가 조사된 대형취락으로 영산강유역의 가장 대표적인 취락으로 볼 수 있고, 2008~2009년 조사된 광주 평동유적은 송국리식주거지 37기가 조사된 대형취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형취락의 등장은 생계경제에 있어 수도작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취락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유향미(2006)에 의해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단에 주혈이 있는 A형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원형과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공존하다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로 대체되고 최종적으로 철기시대 장방형주거지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홍밝음(2010a·2010b)은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전기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접촉·융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와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았다.

2. 분묘 연구현황

청동기시대 분묘는 지석묘로 대표되는데 영산강유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지석묘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나주 노동리에 분포하는 지석묘 30기 가운데 2기이다(小泉顯夫 1986). 이후 1961년 김원룡에 의해 담양 문학리 지석묘가 소개되었고, 본격적인 조사는 1975년 영산강 4개 댐 가운데 대초댐·담양댐·장성댐에서 지석묘 63기, 1977년 나주 보산동 지석묘 1기, 광주 충효동 지석묘 6기가 발굴조사되었다(전남대학교박물관 1979).

1980년대에는 시·군 단위의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에 걸쳐 전 시·군에 대한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 1996년 『전남의 고대묘제』가 간행(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1996)되었으며 내용 가운데 지석묘 부문만 발췌하여 『전남의 지석묘』라는 단행본(이영문·조근우 1996b)을 발간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지석묘 2,208개소 19,058기가 분포하며 영산강유역의 지석묘는 574개소 4,218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산강 중·하류와 그 지류에 밀집된 반면 상류로 갈수록 그 분포 수나 밀집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문·조근우 1996a, 516-517쪽).

최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산강유역 지석묘의 종합적인 분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석묘는 기존 1,585개군 9,629기가 분포하였으나 경지정리와 각종 건설공사로 멸실되어 현재 7,455기(시·발굴조사 1,105기 제외)가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2016)[2].

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산강유역 지석묘 분포조사는 고창·영광지역까지 포함한 것이다. 영산강유역과 고창·영광지역은 문화적인 동질성이 높지만 본 발표문은 영산강유역권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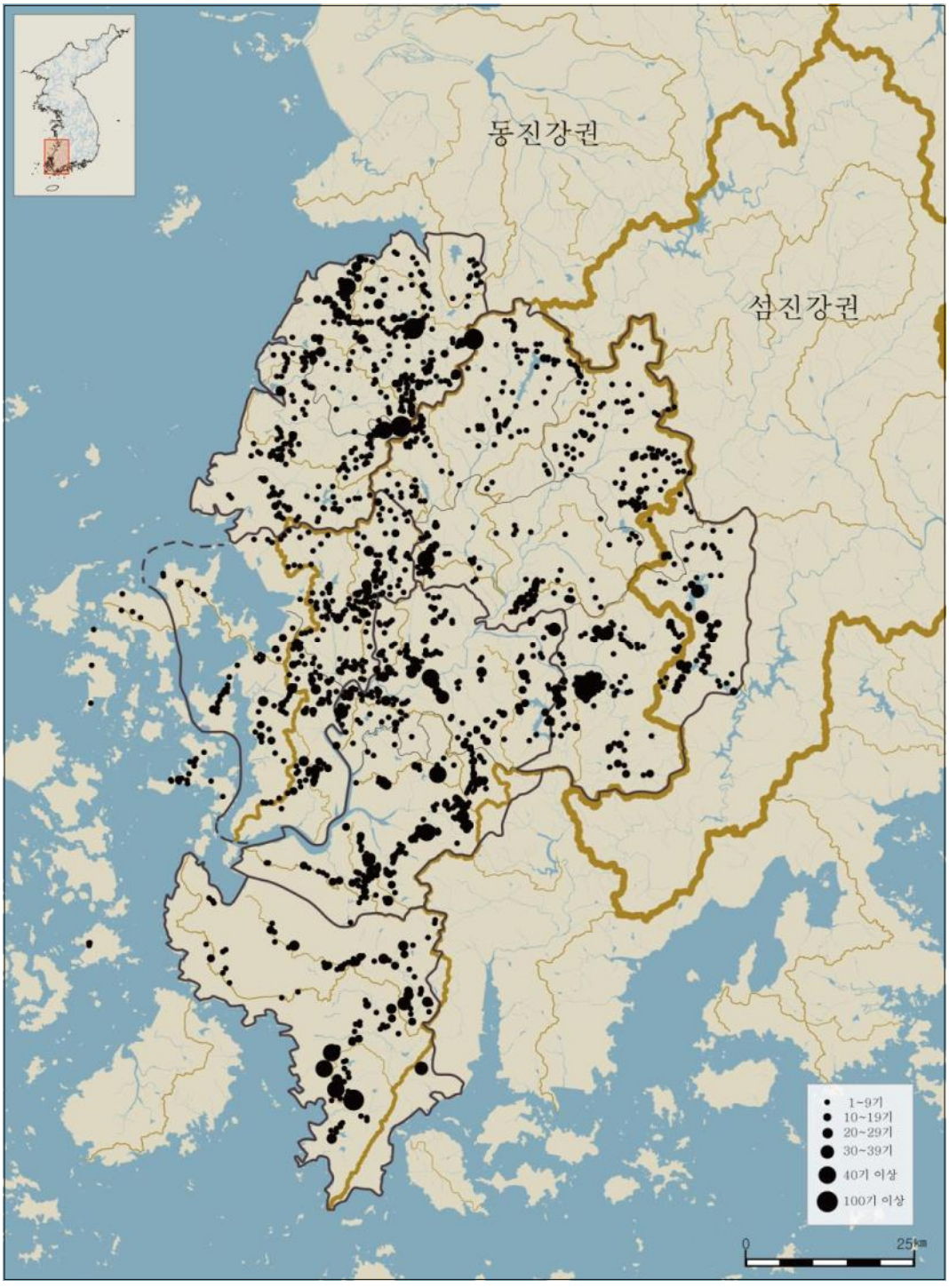


그림 2.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지석묘 분포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산강 상류지역(장성・담양・광주・화순)은 지석묘 245개소 1,751기가 보고되었는데 2015년 조사에서는 459개소 2,644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422기가 멸실되어 2,222기가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석묘는 55개소 224기이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영산강 중・하류지역(나주・영암)은 지석묘 355개소 2,516기가 보고되었는데 현재 1,914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시・발굴조사된 지석묘는 45개소 220기이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영산강서부지역(함평・무안・목포)의 지석묘는 272개소가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석묘는 18개소 111기이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전남지방 지석묘에 대한 연구는 1978년 최몽룡의 「전남지방 소재 지석묘의 형식과 분류」라는 논문을 통해 전남지방 지석묘의 형식이 분류되고 출토유물과 분포로 마한과의 관련을 시사하는 등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최몽룡, 이영문, 지건길에 의해 10여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면서 전남지방 지석묘의 성격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정리는 이영문의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이영문・조근우 1996, 33쪽). 영산강유역 지석묘에 대한 연구 또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이영문 1988; 선재명 2001; 김승근 2002; 平郡達哉 2004; 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홍밝음 2015; 강진표 2016; 이동희 2017; 강동석 2018).

영산강유역 지석묘의 축조 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로 보고 있지만(이영문 2004), 다른 지역에 비해 출토유물이 빈약해서 시기 설정의 한계가 있다. 최근 영산강상류 지석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산강유역 지석묘가 송국리문화와 관련이 깊고 시기 또한 중기 이전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았다(홍밝음 2015). 하지만 전기 분묘의 대부분이 전기 후반에 해당되고 있어 본격적인 분묘 축조의 시작은 전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배진성 2018, 39-43쪽).

영산강유역 지석묘는 중・하류와 그 지류에 밀집되어 있으며 상류로 갈수록 그 분포수나 밀집도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밀집분포상으로 보아 영산강을 따라 들어온 지석묘 집단이 나주 다시면 일대에 자리를 잡고 지석묘를 성행시켰으며, 일부 집단들이 점차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영산강을 따라 상류쪽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이영문 2004, 74쪽).

점토대토기문화기 분묘와 관련한 연구는 이동희(2002)의 연구가 주목되는데 그는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기 묘제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Ⅰ단계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유입되는 시기로 원형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조문경, 흑색마연장경호 등 새로운 유물이 나타나고 분묘는 적석목관묘의 일부 속성이 가미된 적석석곽묘, 석개토광묘, 지석묘 등 다양하며 기원전 4세기~3세기 전반으로 보았다. Ⅱ단계는 기원전 3세기~2세기 전반경으로 점토대토기문화의 토착화가 진행되는 시기, Ⅲ단계는 토광목관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로 초기 형태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기 시작하며 기원전 2세기 전반~2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Ⅳ단계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대부분 사라지고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며, 분묘는 대부분 옹관묘, 토광목관묘가 조성되며 기원전 2세기 중・후엽에서 기원전후한 시기로 편년하였다.

Ⅲ.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

한반도 청동기문화는 각 유형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는데 미사리유형을 早期,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흔암리유형을 前期, 송국리유형을 中期, 수석리유형을 後期로 구분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영산강유역에서도 유효하지만 아직 조기의 문화상은 선명하지 않다[3].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전기문화의 특징

1) 주거지

영산강유역 조·전기는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조기는 미사리유형의 존재 유무를 통해 설정이 가능하다. 미사리유형은 평면 방형주거지에 내부시설은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되며, 유물은 돌대문토기를 특징으로 한다. 미사리유형은 섬진강중류 순창 원촌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영산강상류인 담양 태목리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태목리 1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절상)돌대문토기와 직립구연호가 출토되었다. AMS연대 측정결과 기원전 13~12세기로 편년되고 있어 전기 단계와 구분되지만(이종철 2014, 179쪽) 주거지의 평면이 장방형으로 변화되고 유물 또한 직립구연호와 공반되고 있어 조기와는 차이를 보이고(김규정 2016, 186쪽)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지만 조기까지 소급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기는 영산강유역에 본격적으로 주거지가 축조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흔암리유형이 영산강유역에 처음 유입되고 확산될 당시에는 각 유형 간의 접촉이 없었다가 차츰 각 유형이 접촉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의 흔적이 주거지나 유물에서 나타나는데 영산강유역에서는 각 유형 간의 접촉 양상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전기 1단계는 호남 북서부지역으로부터 가락동유형이, 호남 동부내륙으로부터 미사리유형과 역삼동·흔암리유형 유입되는 시기로 주거지는 1~2기로 구성된 단위 주거군으로 볼 수 있으며, 유적 또한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유적은 영산강 상류의 담양 태목리 1호 주거지, 장성 장산리 2호·3호 주거지, 광주 용두동 1호 주거지, 덕림동 을림 A-1호 주거지, 하산동 2호 주거지, 중·하류의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주거지,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신흥동 Ⅱ-8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3) 조기는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와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미사리유형으로 대표되는데 영산강유역에서는 담양 태목리에서 확인된 1기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의 주거지가 조사된 사례가 없어 영산강유역 조기 설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증가된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분포도

장성 장산리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를 특징으로 하며, 중앙에 2열의 정연한 주혈이 특징이다. 유물은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광주 덕림동 을림 A-1호 주거지는 위석식노지+무시설식노지가 특징이며 주거유형은 가락동유형의 둔산식주거지의 변형으로 볼 수 있지만,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구순각목, 공열+구순각목문토기 등이 출토되어 가락동유형에 역삼동·흔암리유형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산동 1호 주거지는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토기와 삼각만입촉이 출토되었다. 하산동 2호 주거지는 위석식노지에 중앙 2열의 주혈이 배치되어 있으며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돌류문토기, 삼각만입촉 등이 출토되었다.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복수의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 호, 주형석도, 이단경식석촉, 일단경식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유형은 역삼동식이지만 유물은 가락동유형이다.

역삼동유형은 영산강 중·하류의 나주 동곡리 횡산 1호 주거지로 대표되는데 평면 장방형에 복수의 토광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호, 심발, 일단경식석촉, 석부, 석착 등

공열을 특징으로 하는 역삼동식이다.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신흥동 Ⅱ-8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둔산식주거지를 특징으로 한다. 유물은 어형석도, 삼각만입촉, 편평편인석부, 석제방추차, 석부, 석착, 지석이 출토되었다.

전기 Ⅰ단계는 영산강유역에 주거지가 간헐적으로 확인되지만 개별 주거로 구성되며 취락은 확인되지 않는다. 절대연대는 상류의 담양 태목리 1호 주거지 2,980±60BP, 광주 용두동 1호 주거지 2,980±50BP, 광주 하산동 1호 주거지 2,994±28BP, 2호 주거지 3,057±56BP·3,140±29BP, 5호 주거지 2,995±32BP, 중·하류의 동곡리 횡산 1호 주거지 3,060±60BP·2,860±50BP·2,930±50BP·2,880±50BP, 서부의 함평 신흥동 Ⅱ-8호 주거지 2,910±20BP·2,925±20BP·2,945±20BP·2,880±50BP, 외치리 백야 A-2호 주거지 2,930±30BP 등이다. 영산강유역 전기 전엽은 3,100~2,900BP로 볼 수 있다. AMS연대와 출토유물로 볼 때 가락동유형을 특징으로 하면서 복합문양이 시문되지만, 나주 동곡리 횡산 주거지처럼 반관통돌류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역삼동유형 가운데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전기 Ⅱ단계는 영산강유역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주거지들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전 시기에 비해 유적이 급증한다. 조사된 유적은 상류의 광주 산정동 1호, 수문 1호, 용두동 장방형주거지, 노대동, 하산동, 덕림동 을림, 동림동 저습지, 화순 내평리 등이다. 영산강중·하류는 나주 이암 1호, 장동리, 덕산리 동산촌, 대안리 방두 등이며, 영산강서부지역은 함평 신흥동 Ⅰ-5호·Ⅱ-5호, 고양촌, 송산, 외치리 백야 등이다.

산정동 1호는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심발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은 폭이 넓어지고 단사선도 일정한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다. 수문 1호는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고, 유물은 폭이 넓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토기, 심발, 삼각만입촉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은 흔적만 남은 퇴화형식이다. 덕림동 을림 A-2호는 무시설식노지에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중·하류의 이암 1호는 평면 장방형에 토광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양인석부가 공반된다. 덕산리 동산촌은 평면 장방형에 토광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물은 구순각목토기와 대팻날이 출토되었다. 영산강서부지역 신흥동 Ⅰ-5호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복합문양계토기(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구순각목),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호, 삼각만입촉, 어형석도, 편평편인석부 등이 공반된다. Ⅰ-5호 주거지의 주거구조는 가락동유형이지만, 유물은 복합문양계토기(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구순각목),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공반된다. 이는 가락동유형 집단에 의해 역삼동유형의 일부 요소를 채용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흥동 Ⅱ-5호는 평면 장방형에 복수의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심발이 공반된다. 외치리 백야 A-4호는 구순각목, 단사선+구순각목과 환상석부, 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전기 Ⅱ단계는 주거지가 역삼동유형으로 바뀌고 유물도 역삼동·흔암리유형을 특징으로 한다. 무엇보다 Ⅰ단계의 뚜렷한 이중구연은 이중구연의 폭이 넓어지고 동체와 두께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이중구연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는 퇴화형식이 대부분이다.

전기 Ⅱ단계의 절대연대는 영산강 상류의 광주 수문 1호 주거지 2,920±60BP, 중·하류의 나주 덕

산리 동산촌 1호 주거지 2,970±30BP・2,880±30BP, 서부의 신흥동 Ⅱ-5호 주거지 2,866±20BP, 외치리 백야 A-4호 주거지 2,850±40BP・2,810±40BP, A-10호 주거지 2,880±30BP로 편년된다. 동림동 저습지 목기 3,880±30BP, 고무래 3,210±40BP, 목재 2,920±40BP, 이암 1호 주거지 2,960±50BP・3,010±50BP・3,070±50BP 등은 AMS연대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지만 가락동유형의 특징적인 이중구연+단사선의 퇴화가 뚜렷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Ⅱ단계는 2,900~2,800BP로 편년할 수 있다.

전기 Ⅲ단계는 전기 장방형주거지가 세장방형이나 방형으로 바뀌고 영산강유역 전역으로 확산된다. 대체로 전기 Ⅱ단계의 장방형주거지와 공반되고 있어 시기적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유적은 영산강 상류의 광주 수문 2호・2-1호 주거지, 용두동 (장)방형주거지, 중・하류의 나주 장동리 (장)방형주거지,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고양촌 2호・5호 주거지, 신흥동 Ⅰ-4호・Ⅰ-6호・Ⅰ-8호・Ⅰ-11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수문 2호는 세장방형에 토광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한 돌류문토기, 직립구연호편, 삼각만입촉이 출토되었다. 용두동 방형주거지는 대부분 중앙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4호 주거지에서 삼각만입촉, 7호 주거지에서 삼각만입촉과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고양촌 2호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적색마연토기 호편이 출토되었다. 고양촌 5호 주거지는 원형이며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삼각만입촉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이중구연 폭이 넓어지고 단사선도 정형성이 없는 퇴화형식이다. 신흥동 Ⅰ-8호 주거지는 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단사선문+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다. 신흥동 Ⅰ-4호・Ⅰ-6호 주거지는 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무문양계 심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Ⅰ-11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유물은 심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전기 Ⅲ단계는 주거지 규모가 소형화・규격화되고 이중구연도 거의 퇴화되어 선상으로 흔적만 남아 있으며 무문양계의 출토비율이 증가한다(김규정 2016).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방형과 원형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전기의 특징인 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전기 Ⅲ단계의 AMS연대는 영산강 상류의 광주 용두동 4호 주거지 2,940±60BP・2,970±60BP・2,880±50BP, 광주 수문 2호 주거지 2,690±60BP, 수문 28호 주거지 2,820±60BP, 하산동 6호 주거지 2,715±31BP, 영산강서부지역의 고양촌 2호 주거지 2,700±40BP・2,790±60BP 등으로 전기 Ⅲ단계는 대체로 2,800~2,700BP로 편년할 수 있다. 영산강서부지역의 고양촌 5호 주거지는 평면 원형에 무시설식노지와 퇴화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삼각만입촉이 출토되어 영산강유역 원형주거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호남 북서부지역 전주 여의동 용정 1호 주거지도 원형주거지 중앙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어 있고 AMS연대는 2,853±37BP로 측정되어 고양촌 5호 주거지도 여의동 용정 1호 주거지와 큰 시기차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Ⅲ단계는 기존 장방형주거지가 서서히 소멸하면서 주거지 규모가 소형화・규격화되면서 방형이나 원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묘

영산강유역 조・전기의 분묘는 나주 랑동 지석묘군 1호 묘실과 장동리에서 조사된 토광묘 1기가 유일하다. 분묘는 청동기시대에 정형화되고 집단적으로 조영되기 시작하며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 기초를 둔 사회적인 관습 중 하나로 보수적이고 끈질긴 전통을 지니고 있어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

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문 2011, 36쪽). 청동기시대 분묘는 전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배진성 2018, 39-43쪽).

나주 랑동 1호 묘실은 상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묘실만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부가 긴 유구식유경석검이 출토되었는데 AMS연대는 2,880±40BP, 2,800±40BP로 측정되었다. 석검 가운데 장경식과 유공식 석검은 전기 주거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전기 유물로 볼 수 있어(이영문 2011, 41-42쪽), 나주 랑동 1호 묘실은 출토된 유물과 AMS연대로 볼 때 영산강유역 전기 Ⅱ단계로 편년 가능하다. 나주 장동리 토광묘는 전기의 특징적인 삼각만입촉과 적색마연토기호, 식옥이 출토되었는데 삼각만입촉이 대체로 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어 장동리 토광묘는 전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산강 상류 지석천수계에 속하는 화순 대신리 나지구 채석장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지석묘 상석을 채석하는 채석장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이곳이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제의나 신앙처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문 외 2002, 95쪽). 중·하류인 나주 보산동 1호 지석묘에서 부장유물은 아니지만 이중구연토기편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최몽룡 1977)되었는데 편으로 출토되어 정확하지 않다[4].

영산강유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수렵, 채집, 어로, 농경에 적합하고 바다를 통한 외부 선진문화와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청동기시대 지석묘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처럼 영산강유역 지석묘문화는 독자적으로 형성 발전될 수 없고 주변지역과 끊임없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문 2004, 70쪽).

영산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조사된 분묘가 많지 않다. 나주 랑동 지석묘와 장동리 토광묘로 볼 때 분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전기 Ⅱ단계부터이다.

2. 중기문화(송국리문화)의 특징

1) 주거지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중기는 송국리문화로 대표되는데 주거지 중앙에 타원형구덩이와 중심주혈이 있는 송국리식주거지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묘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되며, 영산강유역은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기의 지석묘문화가 지속되어 지석묘의 하부구조로 석관이 채용되거나 지석묘와 함께 석관묘가 축조된다.

영산강유역의 송국리식주거지는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조사되었다. 영산강 상류에서는 담양 성산리·태목리·오산리·중옥리, 장성 대덕리·서양리·야은리·환교·월산리·월정리·삼태리·장산리, 화순 복교리·백암리·화림리 광대촌·품평리 봉하촌·내평리, 광주 송암동·산정·수문·성덕·장자·신완·용두동·관동·금곡·기용·하남동·노대동·행암동·평동·외촌·임암동

4) 구연부를 성형한 후 점토띠를 아래로 내려 접어붙인 이중구연으로 구연부에 문양은 확인되지 않지만 점토대토기와는 구분되는 이중구연토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에서 아직까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예가 없고, 도면을 살펴보면 이중구연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구연부가 외반되었고 경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원형점토대토기의 변형인 단면 방형점토대토기일 가능성이 있다.

입암·덕남동 덕남·덕림동 복만·덕림동 을림·덕림동 갱이들·복룡동·하산동 등에서 조사되었다. 영산강 중·하류는 나주 이암·송월동·신촌리·장동리·도민동·만봉리·매성리 재성·기동·신평·영천·장등·촌곡·운곡동·월양리·은사·장산리 장사·양지촌·구기촌, 영암 장천리·금계리에서 조사되었다. 영산강서부지역에서는 함평 죽암리 소명·진양리 중랑·용산리 대성·고양촌·월야리 순촌·신흥동·송산·마산리 표산·자풍리 신풍·상곡리·성천리 와촌·용산리 수산·외치리 백야·외치리 분산, 무안 다산리 인평·연리·용정리 신촌·평산리 평림·통정·하묘리 두곡에서 조사되었다.

중기는 주거지, 지상건물지, 수혈, 분묘, 의례시설 등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며 이전 시기에 비해 취락의 구성에 있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에 비해 취락의 규모가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나주 운곡동 74기, 광주 평동 37기, 광주 수문 31기 등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대형취락이 등장하는 양상이다. 또한 광주 산정은 23기로 중형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10기~20기 내외의 중소형취락은 광주 외촌(10기), 성덕(11기), 화순 품평리(15기), 나주 영천(16기) 등 주로 영산강 상류와 중·하류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10기 미만의 소형취락은 영산강유역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영산강유역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 취락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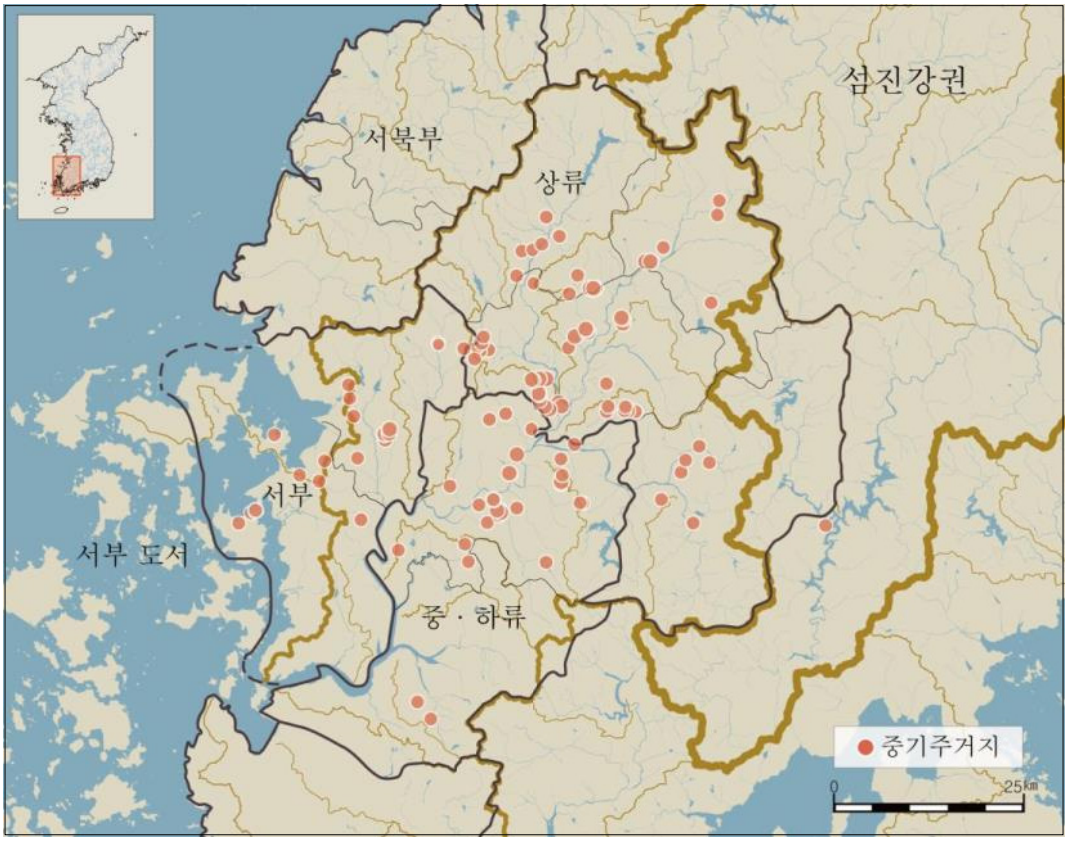


그림 4.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지 분포도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는 형식에서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단에 중심주혈이 있는 A형식이 83%를 차지하고 있어(김규정 2000; 이종철 2000·2002)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A형식은 송국리식주거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호서·호남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다른 형식들과 공반된 사례도 많다. 하지만 영산강유역에서는 주로 A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단순한 주거유형으로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송국리식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을 휴암리식, 원형을 송국리식으로 구분하는데 영산강유역의 경우 노양지(2021, 42-43쪽)의 분류에 따르면 81개 유적 711기(영광 14기 포함) 가운데 541기의 분석 결과 휴암리식 255기, 송국리식 284기로 송국리식이 약간 많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타난다. 나주·영광·장성·화순은 휴암리식이, 광주·담양은 송국리식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 일대는 송국리식주거지가, 나주 일대는 휴암리식주거지의 점유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4개의 주혈이 배치된 주거지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규모가 큰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평야가 펼쳐진 낮은 구릉과 강변 충적지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규모 취락인 운곡동은 구릉상에 입지하며, 평동은 강변충적지에 입지한다. 특히 대형취락은 농경에 유리한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동취락은 영산강 지류의 넓은 충적지에 분포하는 농경 기반의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다. 운곡동은 구릉상에 입지하지만, 50기 이상의 주거지가 여러 개의 소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 평탄면을 공지로 두고 주변에 환상이나 열상을 이루며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취락은 주로 강변충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주변에 중·소규모의 취락이 형성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수도작이 강조되면서 농경에 유리한 강변충적지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는 취락에서는 저장을 위한 별도의 시설들이 확인되는데 저장시설은 구덩이와 굴립주건물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는 평면 원형과 방형이 공존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원형이 줄어들고 방형이 증가하면서 철기시대 장방형주거지로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유향미 2006, 17-21쪽) 이는 광주 수문에서 방형이 원형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것을 근거로 보았다. 하지만, 방형과 원형이 중복된 사례는 광주 수문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영산강유역 전체의 양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김규정 2013, 96쪽). 또한 지금까지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송국리식주거지의 평면형태에 따른 시간성은 대체로 방형이 빠르고 원형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원형이 빠르고 방형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률적인 시간성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지역에 따라 평면형태의 시기차이는 인정되지만 시간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선호하는 평면형태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호서지역으로부터 1차로 휴암리집단이 유입되고 2차로 송국리문화가 유입·확산되면서 호남 일부지역은 송국리문화에 흡수되지만 일부는 송국리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성된 것(노양지 2021, 82쪽)으로 보기도 한다.

영산강유역 중기취락의 편년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절대연대를 통해 볼 때 중기 전반은 2,700~2,600BP, 후반은 2,500~2,400BP로 본다(김규정 2016). 최근 증가하고 있는 AMS연대를 살펴보면 휴암리식인 장성 삼태리 서태 2호 주거지 2,917±48BP, 함평 와촌 2호 석곽 2,950±60BP

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 시기는 전기 전엽에 해당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수문 5호(휴암리식) 주거지는 2,610±50BP로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광주 복룡동 1-5호 주거지 2,729±24BP, 1-10호 주거지 2,895±30BP, 2-1호 주거지 2,738±29BP, 2-2호 주거지 2,817±31BP 등은 상당히 빠른 시기로 편년된다. 무안 평림 2호(휴암리식) 주거지는 2,620±50BP로 유물은 방추차편, 석기편이 출토되었다. 휴암리식의 경우 대체로 2,700~2,400BP로 볼 수 있고, 대부분 2,700~2,600BP에 집중된다. 2,800BP대는 확인되지 않으며 무안 평림 3호 주거지 2,460±50BP, 나주 구기촌 덕곡 6호 주거지는 2,450±40BP로 편년된다.

송국리식은 광주 용두동 13호 주거지가 2,890±60BP·2,830±60BP로 측정되어 영산강유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었지만, 2,800~2,700BP로 측정되는 예는 거의 없으며 2,600~2,300BP에 집중되고 있어 2,600BP를 전후한 시점에 휴암리식주거지가 확연히 줄어들고 송국리식주거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송국리식주거지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노양지 2021, 63쪽). 그리고 광주 수문 8호 주거지 2,310±60BP, 노대동 주거지 2,370±50BP, 나주 운곡동 Ⅱ-4호 주거지 2,380±40BP, 운곡동 Ⅳ-11호 주거지 2,300±60BP 등 대체로 2,300BP로 측정된 자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하한은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묘

영산강유역 중기 분묘는 지석묘가 가장 많고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소수 확인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옹관묘는 조사된 예가 없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축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된 사례가 많지 않아 편년 설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남해안지역과 보성강수계 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석검과 석촉인데 전기의 특징적인 이단병식석검이나 무경식석촉이 출토된 예가 없고 특히 영산강 상류의 경우 대부분 유경식석촉이 출토되고 있어 대체로 청동기시대 중기에 지석묘가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홍밝음 2015, 57-58쪽).

중기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주거지와 함께 분묘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 지석묘와 함께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축조되기 시작하고 지석묘 매장주체부(하부구조)도 석관이 채용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덕림리 백양 지석묘로 상석은 모두 이동되었지만 하부구조는 비교적 잘 남아 있어 구조 파악이 용이하다. 백양 지석묘군에서는 지석묘의 하부구조인 석곽형과 석관형이 모두 확인되며 석관과 석곽이 결합된 형태들도 확인된다. 특히 매장주체부를 판석을 이용해 가로방향으로 세워쌓기로 석관을 만들고 석관과 묘광 사이에 작은 할석을 이용해 뒷채움하고 다중개석을 덮은 구조이다. 송국리문화 중심분포권인 금강유역 석관묘는 묘광에 붙여서 석관을 축조하고 있는데 반해 백양에서 확인된 석관묘는 묘광과 석관 사이에 할석으로 뒷채움한 것이 특징이다. 함평 고양촌과 무안 성동리 안골, 맥포리, 평산리 평림에서도 지석묘 하부구조로 석관형이 확인되었으며 무안 하묘리 두곡지석묘군은 9기의 지석묘 가운데 8기에서 하부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석관형과 함께 석개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지석묘는 중기에 사회변화와 함께 무덤의 구조나 형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이영문 2011, 67쪽) 전통적인 지석묘 축조지역에 새로운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지석묘 매장주체부로

사용하기 용이한 석관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석묘와는 별개로 송국리형묘제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석관묘는 영산강 상류의 화순 삼천리 황새봉에서 2기, 영산강 중·하류의 안산리 영천에서 석관묘 21기가 조사되었으며, 영상강서부지역의 함평 용산리, 월야 순촌, 고양촌, 신흥동에서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용산리에서는 석관묘 7기와 석개토광묘 3기가 조사되었으며, 월야 순촌에서는 석관묘 1기와 석개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고양촌에서는 석관묘 21기가 조사되었으며, 신흥동 I 에서는 석관묘 11기, 월야리 송산에서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석관묘는 대부분 지석묘와 공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석묘의 하부구조인지 아니면 순수한 석관묘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 묘제 내에서 공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배치상태는 대체로 지석묘를 중심으로 주변에 석관과 석곽이 위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는 매장풍습의 차이 내지는 신분의 차이로 보고 있다(김승근 2007, 359쪽). 묘역 내에 석관묘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새롭게 석관이 지석묘 매장주체부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송국리형묘제인 옹관묘는 아직까지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지의 지석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고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로써 옹관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외에 광주 외촌에서는 주구를 갖춘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토광묘는 구릉 경사면에 축조되었으며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장축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면에는 'ㄷ' 자 형태의 주구를 갖추고 있다. 매장주체부인 토광묘에서는 단경식석검이 출토되었다.

영산강유역에 중기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 재지의 지석묘는 지속되지만 하부구조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고 송국리형 묘제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축조되고 비록 1기에 불과하지만 주구묘가 축조되는 등 분묘에 있어 다양성이 확인된다.

3. 후기문화(점토대토기문화)의 특징

청동기시대 후기는 점토대토기문화로 대표되는데 점토대토기문화는 연구자에 따라 청동기시대 후기 또는 초기철기시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라는 개념은 당연히 철기시대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철기의 생산과 유통이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대이다(이청규 2018, 4쪽). 따라서 한반도에서 철기의 등장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기구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철기가 공반되지 않고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청동유물이 출토되는 단계는 당연히 청동기시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점토대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 후기에 포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점토대토기문화는 수석리유형으로 대표되며 안성 반제리에서 70기 이상의 대규모 취락이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5기 미만의 소규모 취락이 중심을 이룬다. 이 시기는 양주 수석리, 안성 반제리, 보령 교성리처럼 고지성취락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중기취락과는 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김권구 2014, 12쪽), 중기에 비해 취락이 급감한다. 호남지역에서도 조사된 취락에 비해 분묘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취락은 단독 또는 수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취락이 대부분인 반면 분묘는 수십 기의 군집묘가 확인되어 취락과 분묘의 양적불균형이 확인된다. 하지만

중부지역에서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호남지역에서도 대규모 취락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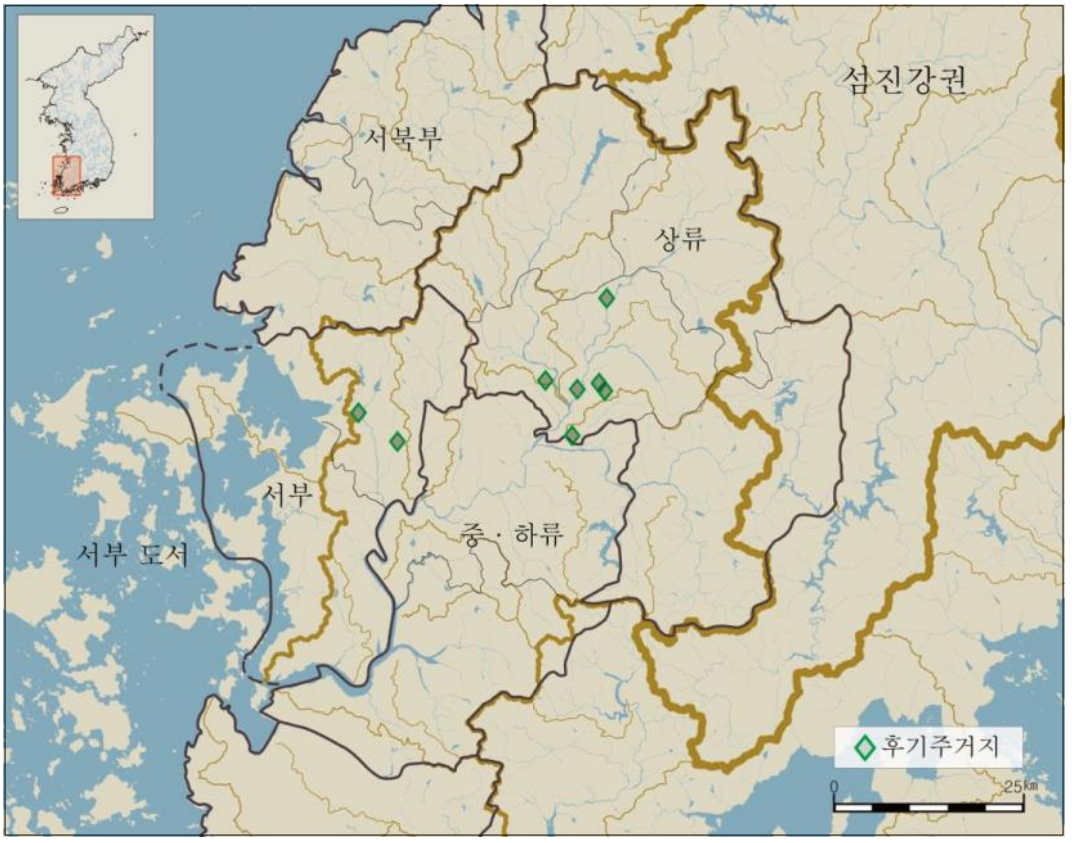


그림 5.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 분포도

원형점토대토기는 호남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그 중심분포권은 금강·만경강유역이며 이에 반해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영산강유역과 남해안지역이 중심분포권이다. 영산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기 주거지는 광주 수문 1기(5호), 평동 A에서 9기, 나주 운곡동에서 1기 등 지금까지 조사된 주거지를 모두 합해도 10기 내외로 이전 시기의 송국리식주거지에 비하면 급감하는 양상이다. 물론 호남지역은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재지의 송국리식주거지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영산강유역에서도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광주 수문 5호 주거지는 평면 말각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고, 1호·7호·11호 수혈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1호 토광묘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2점과 흑색마연장경호 3점이 공반되었다. 평동 A에서는 주거지 9기, 수혈 82기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경우 壁附爐가 확인되며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 소형토기, 시루가 출토되었다. 나주 운곡동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75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Ⅱ-33호 주거지 1기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점토대토기문화기 주거는 소형의 (장)방형 또는 말각(장)방형 주거 내부에 1기의 노가 설치된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외에 평면 원형이거나 노가 2기 이상 설치된 주거, 규모가 80㎡에 이르는 대형 주거도 확인된다(송만영 2011). 특히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유형으로 알려진 수석리식주거는 벽면에 노가 설치된 壁附爐가 특징인데, 그 계보는 요령지역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송만영 2014, 85쪽). 영산강유역에서 壁附爐로 볼 수 있는 주거지는 광주 평동과 화순 황새봉에서 확인된 주거지가 있다.

영산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은 대부분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며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한다. 절대연대는 광주 수문 5호 주거지 2,610±50BP, 나주 운곡동유적 Ⅱ-33호 주거지 2,560±50BP, 광주 평동 A-363호 수혈 2,200±60BP, A-495호 수혈 2,290±60BP로 측정되었다. 아직 절대연대 자료가 많지 않고 수문 5호와 운곡동 Ⅱ-33호 주거지의 연대는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한계가 있다. 나주 운곡동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보고자는 구연부 형식을 바탕으로 기원전 4세기로 편년하였는데(마한문화연구원 2009) 영산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평동 A-363호 수혈은 삼각형점토대토기, 시루, 두형토기, 무문토기 저부편과 함께 타날문토기, 경질토기고배, 경질토기호 등 큰 시기차를 보이는 유물이 공반되었다. 하지만 A-495호 수혈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개, 두형토기가 출토되었으며 타날문토기가 공반되지 않았다. 평동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단순기가 보이지 않고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절대연대가 비록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물의 상대연대를 고려할 때 신창동유적의 시기와 거의 동시기인 기원전 2세기(김규정 2021)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보기 힘들다.

신창동 최하층과 군곡리 최하층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신창동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며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기원전 1세기로 보고 있다(국립광주박물관 2003). 군곡리 패총도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제Ⅰ기층을 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로 보고(강귀형 2019, 113쪽) 있는데 제Ⅰ기층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도 출토되지만 경질무문토기(삼각형점토대 포함)도 상당량 출토되고 있으며 Ⅰ기층의 연대는 Ⅱ기층과의 연속성과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발생된 경질무문토기의 존재를 고려할 때 퇴적 시기를 크게 상향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원전 2세기를 중심시기로 보고 있다(한옥민 2019, 229쪽). 그리고 오룡동, 평동, 월전동 하선, 고양촌 등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데 대체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평동, 신촌, 화순 황새봉, 마산리 표산 등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영산강유역에서는 절대연대는 올라가지만 일부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기원전 2세기가 중심연대로 볼 수 있다(김규정 2021).

신창동, 평동, 황새봉, 행원리 행원 등에서는 평면 방형과 원형주거지들이 축조되고 있다. 물론 유물에 있어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된다. 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도 확인되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가 공반된 사례가 많다(김규정 2021).

영산강유역 점토대토기의 변화 양상은 금강·만경강유역처럼 원형점토대토기 단순기→원형점토

대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 공반기→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로 편년 가능하다. 주거지에 있어서는 재지의 송국리식주거지→방형주거지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묘는 석개토광묘, 적석석관묘, 지석묘 등 재지의 청동기시대 분묘에 새로운 적석목관묘의 속성이 일부 도입되기 시작하고(이동희 2002) 이후 (목관)토광묘와 옹관묘가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 후기 분묘는 전기 이래 지석묘가 후기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유물에 있어 점토대토기를 특징으로 한다. 영산강유역 지석묘에서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지석묘는 광주 매월동 동산 가군-5호 석곽, 나군-5호 지석묘, 1호 석곽, 나주 운곡동 다-1호 지석묘, 월양리 4호 지석묘, 영암 장천리 1호 지석묘, 엄길리 5호 지석묘 등이다. 매월동 동산 가군-5호 석곽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나군-5호 지석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편, 1호 석곽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나주 운곡동 다-1호 지석묘에서는 세형동검편, 주조철착, 일단경식석촉, 월양리 4호 지석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함평 덕림리 백양 24호 석곽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적색마연토기호, 33호 석곽에서 주조철부, 영암 장천리 1호 지석묘에서는 석제검파두식과 세형동검편, 엄길리 5호 지석묘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운곡동 다-1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편과 주조철착이다. 주조철착은 만경강유역 토광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지석묘의 축조시기의 하한을 알 수 있는데 영산강유역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덕림리 백양 24호 석곽과 엄길리 5호 지석묘에서도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영산강유역 지석묘는 초기철기시대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덕림리 백양 24호 석곽, 33호 석곽, 운곡동 다-1호 지석묘, 엄길리 5호 지석묘 등에서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엄길리에서는 매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의례적인 행위로 유물이 지석 주변이나 적석 상면에 놓여 있어 지석묘를 축조하는 과정에 매납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후대에 매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석묘 부장품으로 직접 부장되지 않은 경우 과연 지석묘 축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실례로 지석묘 주변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보다 늦은 원삼국시대의 토기편들도 수습되고 있는데 이 유물들이 지석묘과 직접 관련되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제례의식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까지 지석묘의 기능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조진선 2004, 194쪽). 이에 대해 이영문은 영산강유역에 분포된 지석묘 밀집지와 마한 소국 비정지를 비교하여 지석묘 축조집단들이 성장하여 다음 단계인 마한 소국을 형성한 토착세력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이영문 2004, 89쪽), 삼국시대에는 지석묘를 재활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석실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술부족, 노동력 동원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에 따른 축조 편이 도모·전통적 거석 숭배 신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동희 2017a, 101쪽).

나주 운곡동 Ⅳ-18호 주거지의 경우 2,130±60BP으로 측정되었으며 운곡동 Ⅱ-33호 송국리식주거지와 Ⅰ-11호 주거지 출토 점토대토기, 다-1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편과 주조철착 등으로 보아 송국리식주거지와 지석묘가 초기철기시대로 보고 있다(이동희 2017, 103쪽). 지금까지 자료로 본다면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기까지도 송국리식주거지가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자료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자료의 축적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영산강유역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광주 금호동 수혈 1기에서 삼각형점토대

토기, 두형토기, 석부가 출토되었고, 신촌에서는 수혈 22기, 구 11기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소호, 우각형파수,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오룡동에서는 구 3기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와 뚜껑이 출토되었고, 치평동에서는 구 2기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 무문토기저부가 출토되었다. 수혈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거지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아 저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데 구의 경우 명확한 기능을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 신촌 나구역 구는 유적이 자리한 구릉지대를 감싸며 3~4중으로 돌아가고 단면 'V'자 또는 'Y'자형으로 이러한 형태와 구조로 보아 환호시설(호남문화재연구원 2011)로 보기도 하지만, 구릉 경사면을 따라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번에 굴착되기 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굴착이 이루어지고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대부분 파쇄된 상태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구의 기능은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농경

영산강유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은 조·전기 주거지는 19개소 50여 기, 중기는 88개소 650여 기가 조사되었다. 영산강유역은 낮은 구릉과 소하천들이 발달되어 있어 농경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도작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대의 농경유적인 신창동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농경은 2000년대 이후로 벼농사와 관련된 논과 수로 등 다양한 유구들이 조사되면서 청동기시대에 수도작이 본격화 되었으며 식생활에서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준정 2011). 하지만 생계경제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의 다른 요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시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고일홍 2010, 27쪽) 청동기시대 농경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저습지 개발이 본격화된 것이 청동기시대인데 이는 벼농사를 위한 논의 조성과 관리와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관개시설이 동반되며, 새로운 개념의 어로방식인 논 어로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현종 2011, 70쪽).

최근에는 청동기시대 생업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농경과 재배작물에 편중되어 있으며 농경이 생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배작물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지만,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지방산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분석법을 통해 이를 이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곽승기 2017).

청동기시대 전기에 재배된 작물은 조, 기장, 콩과 함께 지역에 따라 벼와 맥류가 추가되며 미사리유형과 역삼동유형에서 이미 잡곡(조·기장)+벼+맥류(보리·밀)+두류(콩)의 작물조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안승모 2008). 청동기시대 전기는 대대적인 개간을 통한 농경 보다는 취락 인근에서 소규모 경작과 함께 수렵과 채집, 어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취락의 생계를 이끌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박서현 2016, 26쪽).

영산강유역은 농경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기 농경과 관련된 흔적은 외치리 백야 A-10호 주거지에서는 탄화들깨가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경작지나 식물자료가 발견

된 예가 거의 없다. 다만 봉산들과 동림동유적 화분분석을 통해 농경과 관련한 식생 교란의 흔적이 확인되고 AMS연대 측정 결과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논농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민구 2010, 54-60쪽).

곡물자료의 경우 영산강유역은 아니지만 동일한 문화상을 보이는 호남 북서부지역인 익산 용기리 Ⅰ유적에서 벼와 조·기장·콩이 검출되었고(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김제 상동동 Ⅰ유적에서 벼(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용기리 Ⅰ유적에서 조 압흔, 전주 동산동유적에서 탄화 조·벼와 조 압흔(가능성), 기장 압흔, 벼 압흔, 콩 압흔, 팥 압흔(가능성)이 확인되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이로 보아 자연환경이 비슷한 영산강유역에서도 전기부터 다양한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는 구릉과 충적지를 중심으로 대형취락들이 등장하고 영산강유역 전역으로 취락이 확산된 것으로 보아 전기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계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농지개발을 수반한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충적지에 대규모 취락이 등장한 것도 중기에 비롯된 것으로 넓은 충적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릉과 구릉사이의 곡저지를 이용한 농경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산강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중기에 농경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곡저지와 충적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농경유적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경의 적극적인 자료인 水田이 광주 용산동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AMS연대측정 결과 2,550±40BP로 측정되어 시기적으로 중기로 볼 수 있지만,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가 출토되었다. 원형점토대토기인들은 기본적으로 송국리인처럼 수전도작을 기반으로 안정된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이창희 2014, 18쪽) 점토대토기문화의 농경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다만 용산동유적에서 확인된 수전층은 AMS연대와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수전이라는 점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 수전으로는 최초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기는 약간 늦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인 신창동유적에서는 벼가 재배된 밭이 최초로 확인되었고(조현종 2008, 40쪽), 장립의 탄화미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면 경작면적 확보와 더불어 우량품종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민구 2010, 66쪽). 영산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비해 후기가 되면 취락이 급감하지만 유적의 입지가 중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기에 본격화된 수도작이 후기에도 지속되며, 신창동유적처럼 논벼뿐만 아니라 밭벼재배(조현종 2008, 42쪽)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벼 이외에도 청동기시대에 다양한 곡물이 재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기에서부터 중기까지 콩자료는 연속되고 있으나 중기의 가장 큰 변화는 두류 특히 팥의 보편화이다(안승모 2008, 32쪽). 한반도에서 선·역사시대를 거쳐 가장 오래 식용된 두류는 대두와 팥으로 청동기시대에 콩과 식물이 주로 이용되는 것은 벼과 작물위주의 식단에서 오는 탄수화물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으로 주로 재배된 것으로 식생활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재배시 질소 고정을 통해 토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음식으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민구 2018, 167쪽). 밭작물 재배에 있어 대부분의 작물은 주로 두둑에 재배하지만 콩은 두둑과 두둑 사이

고랑에 심을 수 있는 혼합재배가 가능한 작물로 일찍부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콩科 식물은 생육기간이 짧고 가뭄에도 잘 견디고 지력을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한 작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농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취락의 입지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농경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라 식재료 확보를 위한 어로·수렵·채집 등 생계경제 전반에서 부족한 영양분 보충과 안정적인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영산강유역권은 청동기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형성·발전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는 조·전기부터 시작되지만 조기의 문화양상은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 전기는 북으로부터 유입되는 가락동유형과 동으로부터 유입된 역삼동·흔암리유형이 공존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는 호남 전역에 송국리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영산강유역도 송국리문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만, 여전히 재지의 지석묘문화도 지속된다.

특히 송국리문화는 수도작을 기반으로 호서와 호남지역은 물론 영남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영산강유역은 기후조건이 농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농경을 기반으로 대형취락들이 형성된다. 또한 송국리문화의 유입으로 분묘에 있어 재지의 지석묘에 송국리문화의 특징적 분묘인 석관이 지석묘 하부구조로 채용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석묘의 하부구조로 적합하지 않은 옹관묘는 전혀 채용되지 않는다. 즉 영산강유역은 지석묘라는 전통 묘제를 기반으로 상당한 결속력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송국리형취락은 급격하게 소멸하지만 지석묘 전통은 한동한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산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이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동기시대에는 전기부터 지석묘를 중심으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며 지석묘사회를 형성하고 중기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분묘에 있어 지석묘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묘를 받아들인다. 이후 후기에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지석묘는 쇠퇴하지만 옹관묘라는 새로운 분묘를 받아들이면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옹관고분으로 발전하게 된다. 영산강유역 문화권은 영산강을 통한 주변지역과 다양한 문화교류가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가 큰 역할을 하였겠지만 한편으로 영산강유역만의 독특한 고분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지석묘를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보고서는 지면관계상 생략)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영산강유역 지석묘 1 장성・담양・광주・화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영산강유역 지석묘 2 나주・영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영산강유역 지석묘 3 함평・무안・목포』.

김재원・윤무병, 1967, 『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이영문・조근우, 1996a, 「전남의 지석묘」 『전남의 고대 묘제:본문편』,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이영문・조근우, 1996b, 『전남의 지석묘』, 학연문화사.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1996, 『전남의 고대묘제』.

논문

강동석, 2018, 「지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 -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한국고고학보』109, 한국고고학회.

고일홍, 2010,「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 화전농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한국상고사학보』67, 한국상고사학회.

곽승기 2017, 「특정화합물 안정동위원소분석법을 이용한 청동기시대 중서부지방 생업양상연구」 『한국상고사학보』95, 한국상고사학회.

김규정, 2013,『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규정, 2016, 「제4장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울:서경문화사.

김규정, 2021, 「호남지역 마한 성립기 주거지 일고찰」 『호남고고학보』67, 호남고고학회

김문국,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 고찰』,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구, 2010, 「영산강유역 초기 벼농사의 전개」 『한국고고학보』79, 한국고고학회.

김민구, 2018, 「탄화물 분석을 통한 삼국시대 대두 이용방법 고찰」『한국상고사학보』100, 한국상고사학회.

김승근, 2007, 「전남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인돌」 『아시아 거석문화와 고인돌』 제2회 아시아권 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엄, 동북아지석묘연구소.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한국고고학보』60, 한국고고학회.

김진영, 2018, 「영산강유역 철기 수용과 배경」 『호남고고학보』59, 호남고고학회.

노양지, 2021, 『호서・호남지역 휴암리 유형 전개양상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서현, 2016,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 -취락과 생업도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53, 호남고고학회.

배진성, 2018, 「청동기시대 전기 분묘에 대한 보론」 『호서고고학』40, 호서고고학회.

안승모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작물조성 -종자유체를 중심으로-」『호남고고학보』 28, 호남고고학회.
유향미, 2006, 「영산강유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양상」 『논문집』6, 호남문화재연구원.
이동희, 2017a, 「지석묘의 재활용과 그 의미」 『호남고고학보』55, 호남고고학회.
이동희, 2017b, 「영산강유역 마한 초현기의 분묘와 정치체의 형성」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이영문, 2004, 「영산강유역 지석묘 문화의 성격」 『문화사학』21, 한국문화사학회.
이영문, 2007, 「소위 송국리형 묘제의 형성과 그 특징」 『문화사학』28, 한국문화사학회.
이영문, 2011,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묘제의 양상」 『문화사학』35, 한국문화사학회.
이영문, 2014,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사성과와 연구과제」『호남고고학보』47, 호남고고학회.
이종철, 2002, 「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변화에 대한 시론」『호남고고학보』16, 호남고고학회.
이종철, 2014, 「제4장 호남・제주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취락』, 서울:서경문화사.
이준정, 2011, 「作物 섭취량 변화를 통해 본 農耕의 전개과정」『한국상고사학보』73, 한국상고사학회.
이청규, 2018, 「남한지역 청동기 철기문화 전환에 대한 논의」 『신라문화』5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조진선, 2003, 「전남지역 지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변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43, 한국상고사학회.
조진선, 2004, 「전남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 『세계 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조현종, 2008, 『한국 초기 도작문화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현종, 2011, 「한국 선사시대 저습지 이용양상시고」 『고고학지』17, 국립중앙박물관.
홍밝음, 2010a,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의 전개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밝음, 2010b,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36, 호남고고학회.
홍밝음, 2015, 「영산강 상류지역 지석묘 분포현황 및 연대검토」 『고문화』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황재훈, 2017, 「영산강유역 송국리식 토기의 특징과 변천」 『호남고고학보』56, 호남고고학회.

03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이 재 언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Ⅱ. 주거유적의 현황과 분포
Ⅲ. 주거유적의 시기별 양상
Ⅳ. 주거의 편년과 특징
Ⅴ. 맺음말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이 재 언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연구는 호남지역 내 하나의 지역권으로 구분되며, 호남의 시각에서 취락(김규정 2000, 2013, 2021; 신상효 2007; 김문국 2010; 홍밝음 2010a, 2010b; 정다운 2015), 문화상(황재훈 2009; 천선행 2016), 유물(황재훈 2007; 송영진·김규정 2014; 장지현 2015; 김규정 2017a, 2017b), 생업경제(김민구·권경숙 2010, 권경숙 2011; 박서현 2016)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유역별 소지역단위의 연구에서도 취락의 분포, 편년, 문화상 등(박수현 2004; 이종철 2012; 김승옥 2016; 천선행 2019; 김규정 2020) 기존 연구시각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영산강유역의 연구는 분묘(이영문 1993; 선재명 2001; 김승근 2002; 平郡達哉 2004; 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홍밝음 2015; 강진표 2016)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거·유물 등의 연구(김경칠 1997; 황재훈 2005, 2009; 성경당 2005; 김민구 2010; 강동석 2018)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지역별 유적의 편중, 편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유물의 부재 등 다양한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경기·호서·영남지역에서는 조사 성과를 토대로 일련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에 비해 영산강유역은 자료가 축적된 상황임에도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청동기시대 연구경향은 돌대문·점토대토기를 중심으로 한 조·전기, 중·후기 시기구분을 비롯한 광역 편년구축(한국청동기학회 201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6)과 생산·유통·소비체계(이기성 2006; 조대현·박수현 2013; 황창한 2019; 이종철 2017), 사회경제적 변화(김장석 2005; 허의행 2011, 2015; 김범철 2014; 우정연 2014; 손준호 2008, 2019)에 초점을 맞추며 청동기시대 사회변동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연구에서도 절대연대, 석기 및 토기의 조합상과 주거형태와 구조 등 기존 연대관에 대한 인식전환과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이영문 2014).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산강유역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서남단을 지칭하며,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상 광주,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영암, 함평, 무안, 목포가 중심이다. 연구자의 연구관점에 따라 서해안의 영광, 진도, 신안지역과 남해안의 해남, 완도, 탐진강의 강진, 장흥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영산강유역의 공간적범위의 설정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 영산강유역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산천을 경계로 형성·발전되는 문화를 볼 때 핵심지역은 영산강 본류이며, 이를 중심으로 주거유적의 분포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1].

Ⅱ. 주거유적의 현황과 분포



圖 1. 영산강유역권(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은 광주 송암동유적(전남대학교박물관 1979)에서 송국리형 원형주거지가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수는 조·전기 19개소, 중·후기 88개소이다[2](표 1).

주거유적의 분포를 보면 영산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게 확인된다. 시기별로 조·전기유적은 영산강 중·상류(담양·광주·나주)를 비롯한 황룡강, 함평천에서 확인된다. 중·후기유적은 지류에 해당하는 지석천, 영암천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이전 시기에 비해 주거 수는 4배 이상 증가한다.

表 1. 영산강유역 주거유적 현황

유역별 유적수량 (조·전기/중·후기/기타)	조·전기	중·후기	계	비고(행정구역)
황룡강(2/8/2)	3	39	42	장성
영산강 상류권(7/31/5)	21	245	266	담양, 광주
영산강 중·하류권(5/22/0)	8	222	230	나주, 목포
지석천(0/7/0)	0	24	24	화순
함평천·고막원천(5/18/1)	18	133	151	함평, 무안
영암천(0/2/0)	0	16	16	영암
계(19/88/8)	50	679	729	

1)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 용연리 가마골 용추봉(龍湫峰, 584m) 남쪽에서 발원하여, 황룡강, 고막원천, 함평천, 지석천 등을 지류로 삼고 목포를 통해 서해 바다로 흘러나간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river.go.kr)에 기반하면 함평천 좌측의 무안 및 화순군 일부는 영산강수계에서 제외되나 행정구역상 묶어 검토하였다. 다만 영암천권은 영산강하류에 포함되나 지리적인 환경의 차이로 분리시켜 검토하였다.

2) 청동기시대 시간 폭은 기원전 1500~300년, 시각에 따라 2시기, 3시기, 4시기로 구분된다. 문화는 새로운 문화요소의 수용·유입으로 발생하고, 발전·쇠퇴하면서 소멸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이는 발생기(조기)-성장기(전기)-성행기(중기)-쇠퇴기(후기)-소멸기(만기)로 이해되나(이영문 2013),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편년(청동기학회 2016) 조기-전기-중기-후기 안을 따르며 전개과정상 조·전기, 중·후기 2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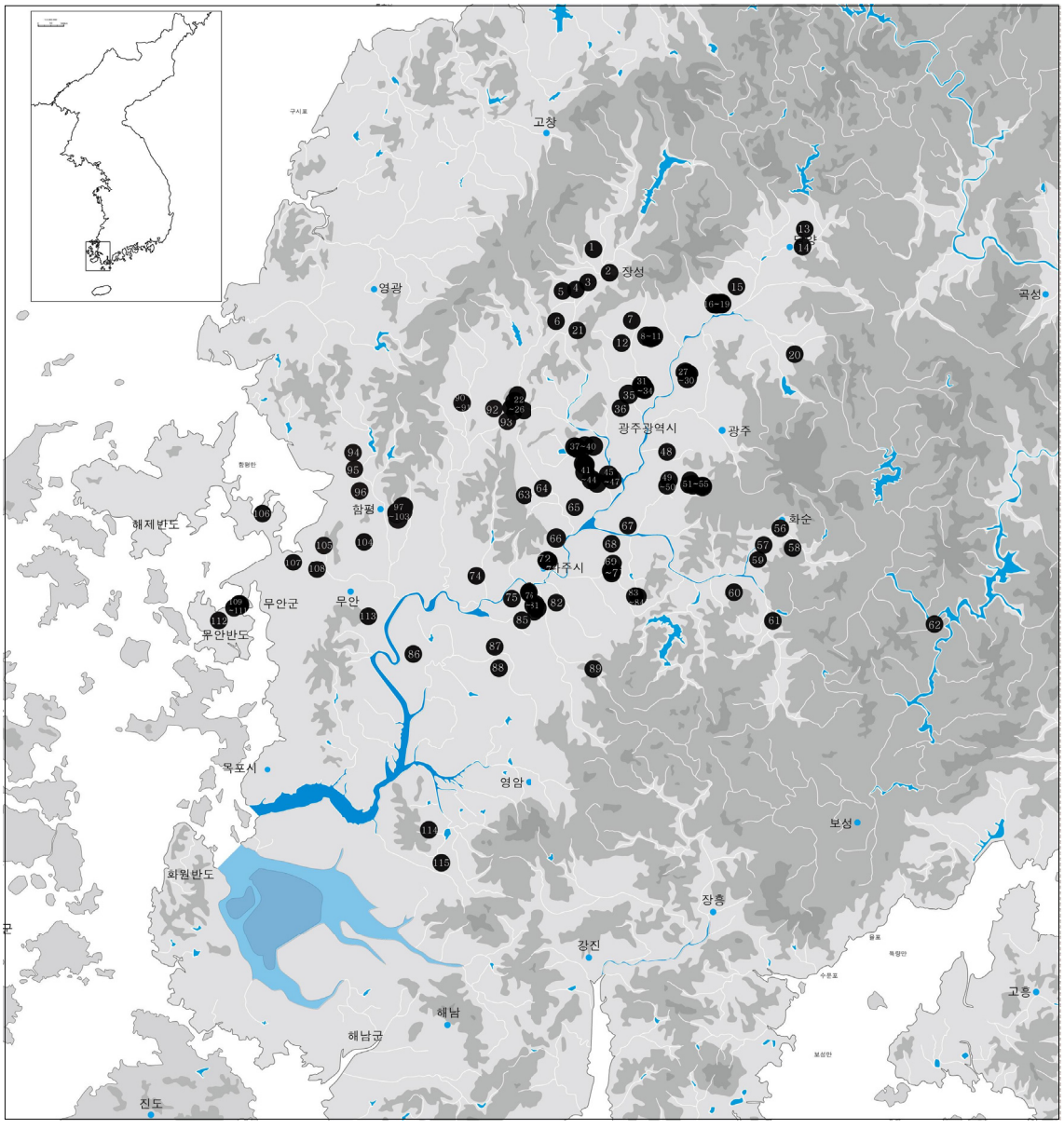


圖 2. 영산강유역 주거유적 분포(유적 번호는 표 3의 연번과 동일)

유적의 입지는 평지(충적지)와 구릉으로 구분된다. 주 분포범위는 해발 10~60m범위이나 입지하는 지역의 지형에 따라 평지(충적지)에 입지하는 유적은 해발 10~20m, 구릉 30~40m, 광주·장성지역에서는 해발 70~100m의 산지성 구릉입지가 확인된다[3].

3) 유적의 입지를 세분하면 산지성 구릉과 구릉 정상부, 사면부, 말단부 및 평지(충적지)로 구분 가능하지만, 입지에 따른 생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선행연구(손준호 2019)를 참고하여 구릉과 평지로만 구분하였다. 또한 유적의 입지는 해발보다 비고가 입지 특징을 파악하는데 유효하다할 수 있지만 상대비고에서 입지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 해발고도를 사용한다.

청동기시대 주거배치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기 유적은 점상·선상취락에서 이후 면상취락이 늘어나는 점(이형원 2009), 후기 유적은 입지에 따라 산지 능선부에는 괴촌·점촌·열촌·환촌형, 사면부에는 열촌·점촌, 구릉부에는 환촌형 취락이 주로 조영되는 취락의 차이를 파악하고, 송국리유형 취락은 환촌형과 광장촌형 2가지 유형으로 변화·발전해 나간다고 판단하였다(이홍종 2007). 영산강유역의 주거의 분포배치는 독립(점촌)·열상·군집(환촌), 부정형의 형태는 확인되지만, 입지에 따른 분포형태는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유적의 구성은 주거 단독, 주거+저장시설(수혈, 주공군), 주거+매장유구, 주거+기타(구) 4가지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확인되며, 수혈, 매장유구, 구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유적 구성요소의 배치는 주거군과 혼재하거나 분리된 형태로 구분된다.

배치 및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조·전기유적에서는 1~2기의 주거가 단독 혹은 열상으로 구성되며, 중·후기유적에서는 5기 내외에서 60기에 이르는 열상이나 군집이 형성되며 수혈, 매장유구가 함께 구성된다. 특히 광주 평동(43기), 나주 장동리(46기), 운곡동(74기), 구기촌(43기), 함평 신흥동(33기) 등 30기 이상의 대형 주거군이 영산강본류와 고막원천에서 확인되며, 나주 장동리와 함평 신흥동유적에서는 전기 주거가 함께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表 2. 영산강유역 주거군 구성요소

유 역 권 (유적 수)	단독 구성	1 요소			2 요소			3 요소	합계
		주거+저장	주거+매장	주거+기타	주거+저장+매장	주거+매장+기타	주거+저장+기타	주거+저장+매장+기타	
황룡강(12)	6	2	2	·	·	·	2	·	12
영산강 상류권(43)	25	5	1	3	1	·	3	5	43
영산강 중·하류권(27)	14	5	·	·	3	2	2	1	27
지석천(7)	4	·	1	·	2	·	·	·	7
함평천·고막원천(16)	8	1	4	·	1	·	1	1	16
무안반도(8)	4	2	1	·	·	·	·	1	8
영암천(2)	1	·	·	·	1	·	·	·	2
계	62	15	9	3	8	2	8	8	115

表 3.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유역	연번	유적명	입지(해발)	총 기수	공반유구	참고문헌
황룡강	1	장성 대덕리	구릉(86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2	장성 야은리	구릉(65-85m)	4	지석묘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	장성 장산리2	평지(43m)	4	수혈1, 구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4	장성 환교 I	구릉(51.7m)	5	토광묘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5	장성 서양리	구릉(100-105m)	5	수혈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6	장성 월산리	구릉(45-65m)	2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7	장성 산정	구릉(51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8	장성 삼태리	구릉(45-55m)	11	수혈5	호남문화재연구원, 2016
	9	장성 삼태리 중태	구릉(30-40m)	3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6
	10	장성 삼태리 서태	구릉(41-48m)	5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6
	11	장성 경현사지	구릉(43m)	1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3
	12	장성 월정리Ⅱ	구릉(38-41m)	5	수혈2, 구, 초철토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6
영산강상류	13	담양 원천리 안골	구릉(18-79m)	7	함정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14	담양 학동리 학동	평지(51m)	2	수혈8, 구3	대한문화재연구원, 2019
	15	담양 성산리	구릉(52m)	3	수혈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16	담양 태목리 I	평지(28-29m)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17	담양 태목리Ⅱ	평지(29m)	17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18	담양 중옥	구릉(30-33m)	8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19	담양 중옥리	구릉(44-46m)	1	수혈6, 지상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20	담양 오산	구릉(67m)	2	구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21	광주 오룡동	구릉(32-48m)	1		목포대학교박물관, 1995
	22	광주 덕림동 수성	구릉(40-43m)	1	수혈1, 토1,구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3	광주 덕림동 복만	구릉(56-57m)	7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4	광주 덕림동 갱이들	구릉(52-53m)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5	광주 덕림동 응유	구릉(51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6	광주 덕림동 을림	구릉(53-56m)	28	지3, 석2, 수혈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7	광주 용두동	구릉(42-52m)	15		전남대학교박물관, 2010
	28	광주 용두동 용두	구릉(56-57m)	2	수혈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9
	29	광주 용두동 거상	구릉(52-54m)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30	광주 외촌	구릉(60m)	10	수혈4, 토3, 구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31	광주 성덕	구릉(39-40m)	11	지2, 석관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2	광주 장덕동 장자	구릉(31-41m)	7	수혈4, 옹3, 구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3	광주 신완	구릉(37m)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4	광주 수문	구릉(35-38m)	36	수혈45, 토2, 구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5	광주 하남동Ⅲ	구릉(41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6	광주 산정동	구릉(33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7	광주 금곡A	구릉(32-38m)	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38	광주 금곡B	구릉(38m)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39	광주 관동	구릉(57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유역	연번	유적명	입지(해발)	총 기수	공반유구	참고문헌
	40	광주 평동(A·B)	평지(13-14m)	43	수혈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41	광주 산정 A	구릉(40-45m)	2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42	광주 연산동 산정	구릉(36-37m)	2		영해문화재연구원, 2020
	43	광주 연산동 산정-3구역-	구릉(30m)	1		전남문화재연구원, 2020
	44	광주 기용	구릉(37m)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45	광주 하산	구릉(32-33m)	7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8
	46	광주 복룡동	평지(11m)	18	수혈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8
	47	광주 복룡동291-3	평지(11m)	2	수혈18, 구7	호남문화재연구원, 2020
	48	광주 매월동 동산	구릉(35-37m)	8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
	49	광주 임암동 입암	평지(47m)	7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50	광주 송암동	구릉(20-30m)	1		전남대학교박물관, 1979
	51	광주 노대동 구암	구릉(78-79m)	5	지석8, 수혈1, 구3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52	광주 덕남동 덕남	구릉(89-93m)	2	구 2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53	광주 노대동·행암동	구릉(71-75m)	7	수혈1, 구1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54	광주 노대동 신기	구릉(73m)	3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
	55	광주 노대동 신기Ⅱ	구릉(76m)	1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지석천	56	화순 하삼 51-53	평지(52-53m)	3		고대문화재연구원, 2019
	57	화순 내평리Ⅰ	구릉(60-63m)	8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3
	58	화순 삼천리 황새봉	평지(52-53m)	3	수혈2, 석관2	대한문화재연구원, 2020
	59	화순 백암리	구릉(68m)	1	적석목관1	국립중앙박물관, 고고학지14
	60	화순 효산리 모산	평지(44-45m)	1	지석1, 수혈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7
	61	화순 품평리 봉하촌	평지(68-70m)	15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4
	62	화순 복교리	평지(90m)	2		전남대학교박물관, 1990
영산강중류	63	나주 안산리 영천	구릉(38-39m)	18	석관21, 수혈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64	나주 장등	구릉(32-40m)	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65	나주 장동리	구릉(12-20m)	46	토13, 구13, 수혈30	전남문화재연구원, 2013
	66	나주 청동	구릉(19-25m)	3		영해문화재연구원, 2019
	67	나주 신평Ⅱ	구릉(32m)	2		마한문화연구원, 2014
	68	나주 매성리 재성	구릉(29-35m)	3	수혈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2
	69	나주 신도리 신평Ⅰ	구릉(28-36m)	5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70	나주 신도리 도민동Ⅰ	구릉(30-38m)	6		마한문화연구원, 2014
	71	나주 도민동Ⅱ	구릉(37-39m)	24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72	나주 송월동	구릉(21-26m)	2	수혈1, 구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73	나주 송월동	구릉(27m)	3	수혈5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74	나주 동곡리 횡산	구릉(15-16m)	1		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75	나주 오량동요지Ⅱ	구릉(16-18m)	3		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76	나주 운곡동Ⅱ	구릉(14-30m)	57	수혈, 수로	마한문화연구원, 2009
	77	나주 운곡동Ⅳ	구릉(30m)	17	지석5, 수혈	마한문화연구원, 2014
	78	나주 구기촌	구릉(35-39m)	43	수혈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
	79	나주 양산리 양지촌	구릉(31m)	3	구, 지석묘	마한문화연구원, 2015

유역	연번	유적명	입지(해발)	총 기수	공반유구	참고문헌
	80	나주 장산리	구릉(26-34m)	4	지석1, 구3	마한문화연구원, 2008
	81	나주 장산리 장사	구릉(21-24m)	5	주공군1	마한문화연구원, 2015
	82	나주 대기동 기동	구릉(23-26m)	3		대한문화재연구원, 2011
	83	나주 은사	구릉(44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84	나주 풍산리 은사	구릉(45-46m)	4	수혈1, 토1, 주공군	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85	나주 덕산리 동산촌	구릉(32-33m)	1	수혈7	호남문화재연구원, 2021
	86	나주 월양리	구릉(13-22m)	6		마한문화연구원, 2014
	87	나주 이암	구릉(24-26m)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88	나주 신촌리	구릉(30-32m)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89	나주 만봉리	구릉	1		해동문화재연구원, 2014
고막원천	90	함평 대성	구릉(38-39m)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91	함평 용산리	구릉(45m)	2		영해문화재연구원, 2015
	92	함평 외치리 백야	구릉(52-54m)	1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93	함평 외치리 분산	구릉(50-52m)	16	수혈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함평천	94	함평 소명	구릉(28-35m)	7		전남대학교박물관, 2003
	95	함평 진양리 중랑	구릉(37-50m)	4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96	함평 대덕리 고양촌	구릉(25m)	10	석관21, 수혈87 구 15 등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97	함평 향교	구릉(23-29m)	7	수혈5, 구6	대한문화재연구원, 2008
	98	함평 향교 고분	구릉(19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99	함평 표산리1~3	구릉(34-45m)	24		영해문화재연구원, 2018
	100	함평 신흥동 I	구릉(21-25m)	10	석관10	대한문화재연구원, 2010
	101	함평 신흥동II	구릉(18-27m)	11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102	함평 신흥동III	구릉(30-33m)	12	석곽2, 수혈1	대한문화재연구원, 2014
	103	함평 월산리 송산	구릉(24-35m)	3	석관1(40m)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104	함평 성촌리 와촌	구릉(34-39m)	6	석곽2, 토광7	전남대학교박물관, 2007
	105	함평 자풍리	구릉(35-36m)	2	지석2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6
무안반도·태봉천	106	무안 용정리신촌 I·II	구릉(27-34m)	8	수혈2, 소성1, 지상1, 구 등	대한문화재연구원, 2016
	107	무안 통정	구릉(23-24m)	5	수혈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108	무안 평산리 평림	구릉(28-30m)	4	지석6, 토2	전남대학교박물관, 2007
	109	무안 하묘리 두곡	구릉(20m)	1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110	무안 하묘리 두곡	구릉(17-19m)	6		대한문화재연구원, 2011
	111	무안 하묘리 둔전II	구릉(16m)	5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112	무안 연리	구릉(17-21m)	7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113	무안 다산리 인평	구릉(23m)	1	주공열10여기, 소성1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영암천	114	영암 장천리 I·II	구릉	12	고상가옥, 지석묘3	목포대학교박물관, 1986
	115	영암 금계리	구릉(15~18m)	12		목포대학교박물관, 2004

※ 목록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파란색 표시는 전기주거지가 확인된 유적이다.

Ⅲ. 주거유적의 시기별 양상

1. 조 · 전기 주거의 양상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지는 평면형태 방형·장방형으로, 석상위석식노지+돌대문토기의 미사리유형, 위석식노지+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가락동유형, 무시설식노지+공열문토기의 역삼동유형, 무시설식노지와 공열문+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흔암리유형으로 구분하며, 석기는 이단병식 석검,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반월형석도 등을 표지로 한다.

조·전기유적은 19개소 50기로 담양·광주·나주에서 12개소, 주변지류인 황룡강·고막원천에서 7개소가 확인된다. 주거입지는 주변보다 높은 미고지 또는 구릉 정상이나 능선을 따라 1~3기로 구성된다. 나주 동곡리 횡산, 덕산리 동산촌 유적을 제외하고, 인근지역이나 동일한 유적에서 중기주거지가 확인된다. 유적의 전·중기 주거지는 해발 12~56m 범위의 차이가 확인되지만, 전기 주거지만은 해발 30m 내외의 범위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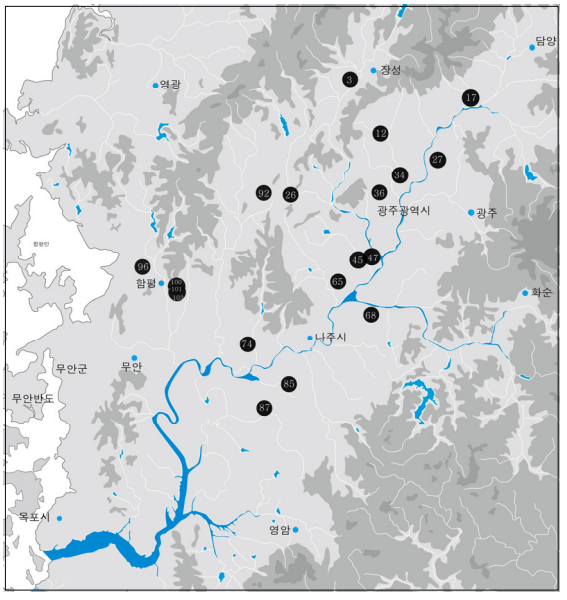


圖 3. 영산강유역 전기 주거지 분포

전기주거지는 토기의 문양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 노지 등의 구성요소를 통해 구분한다. 영산강유역 전기주거지의 경우 1차적으로 토기문양을 기준으로 삼고 평면형태, 노지 등을 파악하여 전기주거지로 판단하였다(표 5).

전기 취락은 선상·면상취락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이형원 2009). 주변범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대상으로 보면, 영산강유역에서 단독으로 입지하는 나주 덕산리와 함평 신흥동유적을 제외하고는 2~3기가 열상 혹은 군을 이루며 확인된다.

유적의 구성에 있어서도 수혈, 매장유구 등이 함께 확인되지만, 전~중기에 걸친 유적이 대부분으로 동시기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주 장동리유적 토광묘에서 삼각만입촉이 확인되어 전기에 무덤이 축조될 가능성은 있지만 나주 횡산유적처럼 삼각만입촉과 일단경촉이 공반되는 양상으로 보아 전기말~중기초의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거 내부에 저장공이 확인되는 경우 주변에 수혈유구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된다.

영산강유역에서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유적은 돌대문토기가 확인된 유적은 담양 태목리와 장성 장산리유적이다. 담양 태목리유적은 영산강상류의 충적대지, 장성 장산리유적은 평지성 구릉에 입지한다. 두 유적 모두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태목리가 좀 더 세장한 형태이다. 내부시설로 보면 태목리는 석상위석식노지, 장성 장산리에서는 위석식노지로 차이가 있으나, 2열의 정연한 주공열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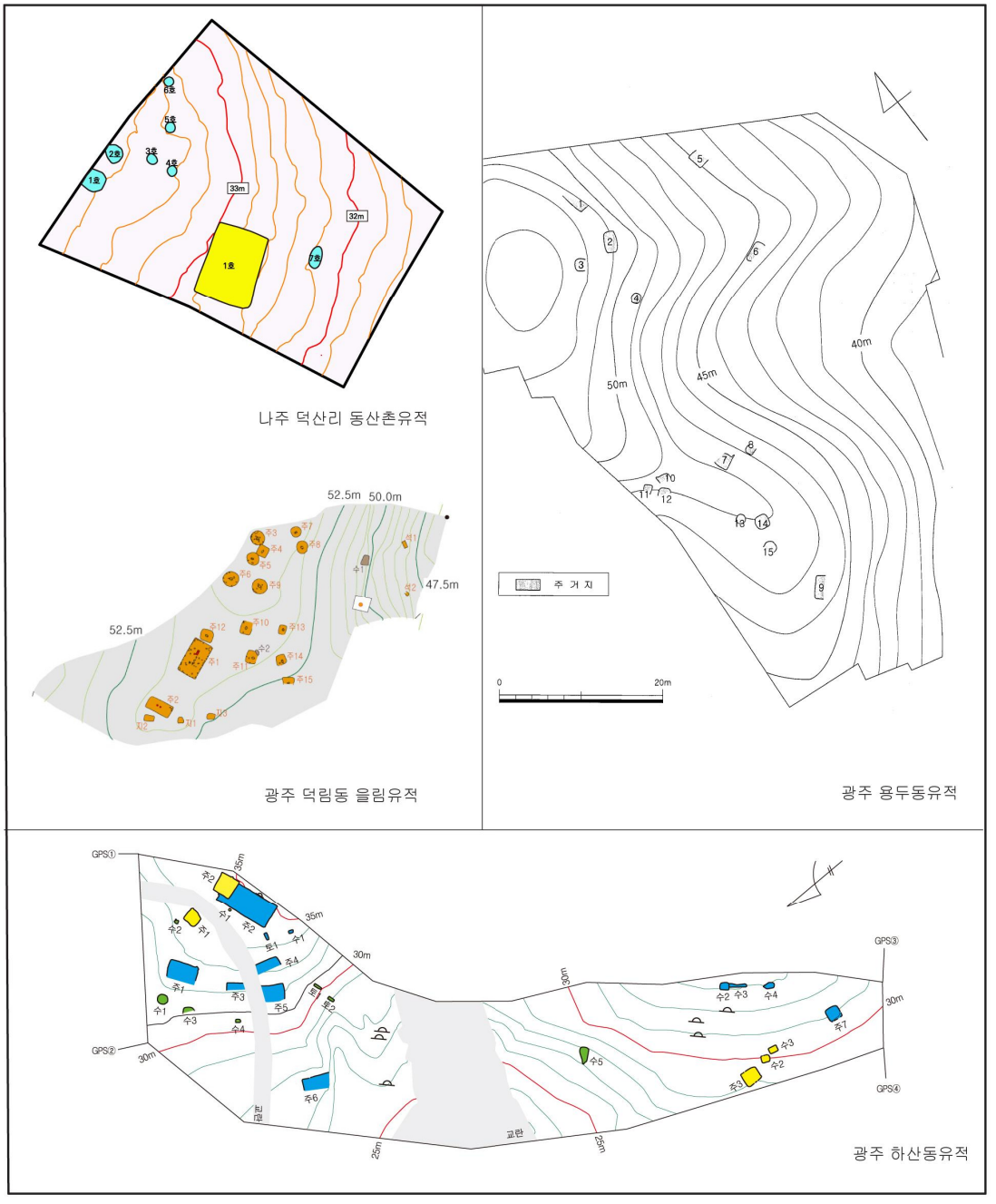


圖 4. 전기주거지 배치유형

하다. 출토유물은 장산리에서 석검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이 중심으로 확인된다. 호남지역에서 돌대문토기가 확인되는 유적은 섬진강유역의 순창 원촌, 만경강유역의 전주 동산동, 익산 섬다리, 영등동 유적뿐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한다[4].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기주거의 평면형태는 주로 장방형이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공, 벽구, 저장공이 확인된다. 노지는 (석상)위석식, 무시설식, 토광식 3가지 구조이며, 평면 원형 또는 방형으로 주거지 중앙의 한쪽 면에 치우쳐 확인된다. 노지의 수는 1~3개가 중심이지만 최대 6개까지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사용되지만 광주 수문 1호에서 무시설식과 토광식, 광주 덕림동 A-1호·함평 신흥동Ⅰ 5호에서는 위석식과 무시설식이 함께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나주 매성리 재성유적(482.9㎡), 나주 동산촌(33.6㎡)의 예로 보아 주거지의 증축이나 대형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위석식노지는 함평 신흥동, 을림, 백야, 장성 장산리유적이 위치하는 영산강 서쪽지역에서 확인되는 반면, 무시설식·토광형노지는 광주 용두동, 하산동, 나주 덕산리 동산촌유적 등으로 영산강 본류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주공열은 담양 태목리, 함평 을림, 백야, 광주 수문, 하산동 등에서 2열로 확인된다. 특히 태목리에서는 주공과 함께 초석, 장성 장산리 2호주거지에서는 초석시설만 확인되었다. 나주지역의 경우 소주공만 확인되며, 주공간의 정형성은 보이지 않는다. 호남지역에서 주공이 정연하게 시설된 예는 익산 영등동 2-7호에서 확인된다[5].

벽구의 형태는 네 벽 모두 설치된 형태, 세 벽, 한쪽 벽을 중심으로 설치된 것으로 구분된다. 벽구의 기능은 배수 또는 벽체 시설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함평 백야A-1호와 나주 동곡리 횡산 1호 주거지에서는 벽구를 따라 외부의 배수구로 이어지는 소위'울산식 주거지'의 형태가 확인된다. 담양 태목리와 광주 수문유적에서는 벽구 내에 주공이 배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벽체를 세우기 위한 시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전기 주거지에서 저장은 내부의 수혈에서 토기 등을 근거로 저장공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저장공으로 보고된 예를 제외하고 영산강유역 전기주거지에서 파악된 수혈은 1~3개가 중심을 이루며 평면형태 원형·방형·부정형으로 정연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혈의 깊이는 8~25cm 내외로 시각에 따라 저장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정연(2014)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자면 단기저장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저장시설은 주거지 주변이나 주거지들 사이에 분포하는 양상이다.

4) 주거지의 장단비에 따라 평면형태를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하며, 규모를 통해 소·중·대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라 면적과 규모에 있어 기준이 상이하며, 잔존상태로 보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5) 주거의 주공열 배치나 초석의 사용은 미사리, 가락동, 역삼동유형과의 차이로 추측한다. 돌대문토기와 위석식노지가 확인되는 담양 태목리유적의 주공열은 정연하며 초석이 확인된다. 장성 장산리유적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이외 지역의 전기주거지의 주공열에는 확연한 정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공의 정연함이 시기성을 내포한다면, 태목리와 장산리 주거지를 조금 이르게 편년 가능할 것이며, 유형간의 차이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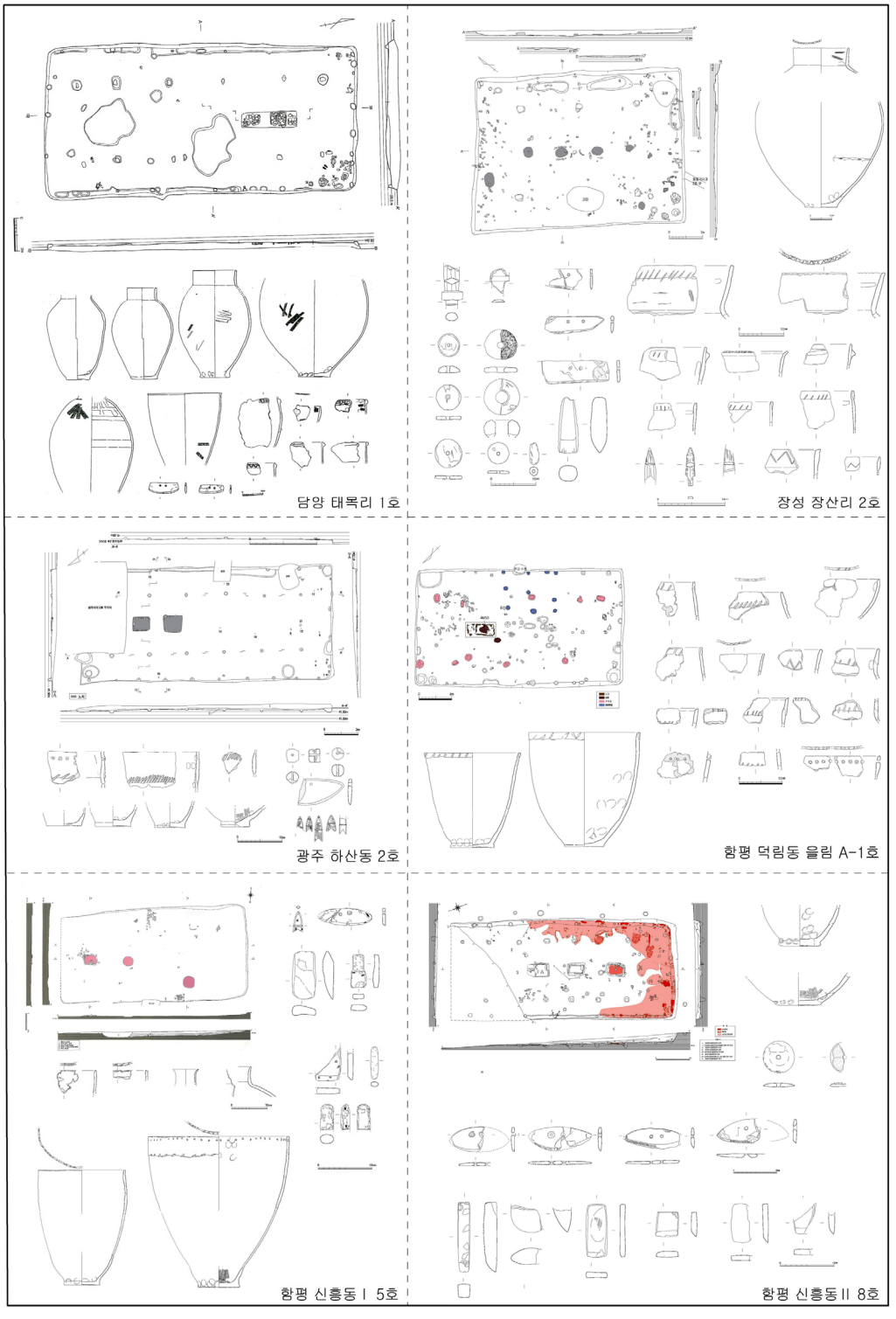


圖 5. 영산강유역 전기 주거지(주거 1/80, 유물 축척부동)

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주요 유물은 돌대문, 거치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문, 구순각목문 단독문과 복합문토기를 비롯한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촉, 석도, 석부, 방추차가 중심을 이룬다. 돌대문토기는 절상돌대문으로 담양 태목리, 장성 장산리에서 확인되며, 광주 용두동, 산정동, 수문, 함평 고양촌 등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을 표지로 하는 가락동식토기가 주를 이룬다. 석기는 이단병식석검 병부편, 삼각만입촉과 일단경촉이 확인되며, 고막원천·함평천지역의 신흥동, 백야유적에서 합인·편인·환상석부와 함평 을림 A-1호에서 천하석제의 곡옥이 1점 주목된다.

호남지역에서 전기유적의 출현은 만경강유역과 섬진강유역권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천선행 2016:17), 영산강유역의 전기유적은 가락동유형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홍밝음 2012; 천선행 2019).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토기는 생계방식의 변화나 주민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전통적인 토기가 그대로 제작·사용되는 점으로 미루어, 가락동 유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경강 일대에서 역삼동유형의 복합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된 점은 가락동유형 집단에 의해 역삼동유형의 일부 요소가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규정 2013:87).

평면형태를 제외하고 주거내부에서 확인되는 주공, 노지, 벽구시설들은 시기적인 변화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홍밝음 2012), 나주 횡산유적, 함평 을림유적에서 공열+구순각목이 시문된 역삼동유형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지역별로 점유된 상태로 추정되며, 수계에 따라 주거구조 입지나 지역별 전개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6].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기유적의 연대측정치는 B.P.3310~2670 범위로 절대연대를 통한 전기 주거지의 연대는 기원전 13세기 전후에 광주 하산동 2호, 광주 덕림동 A-1호이다. 기원전 12~11세기는 담양 태목리 1호, 광주 용두동 1호, 수문 1호, 하산동 1·5호, 나주 이암 1호, 횡산 1호, 함평 백야 A-2호이다. 기원전 10~9세기는 광주 수문 2호,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덕산리 동산촌, 함평 고양촌 2호, 백야 A-4·10호이다.

연대측정치를 근거로 청동기시대 전기는 분포상에서 지역 간 증감의 상관관계나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출 및 점진적 확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변동 양상이 관찰되지 않아, 남한 전역은 3200~3100B.P. 이래 동시다발적인 점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황재훈 2015). 영산강유역에서도 광주 하산동, 덕림동 유적을 예로 보아 기원전 13세기 전후한 시기에 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영산강유역에서 가락동유형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함평, 나주일대에서 보이는 역삼동유형의 구성요소는 서해안의 고창, 남해안의 순천, 여수지역까지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이는 기존의 문화요소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접촉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表 4. 영산강유역 주요 전기주거지

유 적 명	유구	규 모			내 부 시 설				주요 유물	연대 측정	비 고
		길이	너비	깊이	노지	주혈	벽구	수혈			
장성 장산리2	2	1250	950	20 ~25	위석			3 ~5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 방추차, 석검, 석도, 석촉 등		
	3	510	460	12	위석1	○			구순각목, 석도, 석착 등		
장성 월정리Ⅱ	1	1556	188	15	소토2		○	1	방추차, 저부편		
담양 태목리Ⅱ	1	1802	836	64	1	○	○		돌대문, 직구옹, 석도	2980±50	
	2	620	436	34	1	○					
광주 용두동	1	740	320	30	2	○			단사선, 삼각만입촉	2980±50	
	2	620	380	45	무시설1		○		이중구연단사선, 석도, 삼각만입촉		
	5	505	365	30	○				이중구연단사선, 토제구슬		
	6	620	220	20	무시설		○	2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1710±50	
광주 수문	1	1500	245	10	무시설3 토광2	○		○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문, 삼각만입촉	2920±60	
	2	1860	360	30	5	○	○	○	공렬, 어망추, 삼각만입촉, 석검, 석도	2690±60	
	2-1	1060	140	30	·	○	○		구순각목문, 유경식석촉		
	29	380	100	15	·		○		구순각목문, 석도		
광주 산정동	1	846	340	26	무시설2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광주 복룡동291-3	1	640	550	25	1				구순각목		
광주 하산동	1	810	514	20	무시설2	○	○	3	삼각만입, 구순각목	2994±28	
	2	1500	706	60	위석식2	○	○	2	삼각만입, 석도, 어망추	3057±56 3140±29	
	3	418	220	10	무시설3		○	1			
	4	624	248	16	무시설2	○	○	1	삼각만입		
	5	588	440	37	3	○	○	1	삼각만입, 방추차, 어망추, 석도	2995±32	
	6	774	288	21	무시설4	○	○			2715±31	
광주 덕림동 을림	A-1	1230	690	30	위석식2 무시설1	○			구순각목공렬, 이중구연단사선문, 편인석부, 곡옥	2670±30 3310±50 2820±30	
	A-2	920	410	15	무시설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공렬		
나주 이암	1	692	520	23	3	○			단사선문	2960±50 3010±50 3070±50	

유 적 명	유구	규 모			내 부 시 설				주요 유물	연대 측정	비 고
		길이	너비	깊이	노지	주혈	벽구	수혈			
나주 장동리	26	1100	510	25	무시설1 토광1		○	1	구순각목, 어망추, 석촉		
나주 동곡리 횡산	1	874	572	50	3	○	○	4	구순각목, 공렬, 석촉, 석부, 어망추 등	3060±60 2860±50 2930±50 2880±50	
나주 매성리 재성	1	1230	430	12	무시설6	○	○	2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 어망추, 삼각만입촉	2750±50 2920±50 2540±50	
나주 덕산리 동산촌	1	668	504	23	무시설1	○	○	4	구순각목, 단사선, 석착	2880±30 2970±30	
함평 대덕리 고양촌	2	558	406	10	무시설1	○	○		이중구연단사선, 적색마연토기편	2700±40 2790±60	
함평 신흥동Ⅰ	5	1106	546	12	무시설2 위석식1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		
	6	284	208	6	토광1				구순각목		
	7	658	276	10	무시설2	○		5	저부편		
	8	300	286	20	무시설1				구순각목단사선문		
	9	556	324	19	무시설2	○		1	석부편		
	10	276	204	2	무시설1				지석		
함평 신흥동Ⅱ	5	526	360	18	무시설2				이중구연단사선문, 석도, 편인석부		
함평 신흥동Ⅱ	8	1328	568	52	위석식3	○	○		석도, 방추차, 편인석부		
함평 외치리 백야	A-1	482	428	8			○		구순각목공렬		동일주거 가능성
	A-2	370	426	10	위석식1	○	○	1	무문토기편	2930±30	
	A-3	328	384	16	1	○		1	구순각목, 석도		
	A-4	1196	470	60	무시설4	○	○		구순각목, 구순각목단사선, 환상석부, 석도	2850±40 2810±40	
	A-5	428	334	32	무시설1				이중구연단사선, 미완성석기		
	A-6	928	640	37	무시설1		○		구순각목		
	A-7	660	345	26	무시설1		○		구순각목		
	A-8	428	404	42	토광1	○	○	1	구순각목, 석부편, 석촉		
	A-10	338	380	20	·	○			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선	2880±30	탄화곡물 (들깨)

※ 주거형태 및 구조를 중심으로 일부 요소만 확인되는 유구는 제외하였으며, 제원은 보고서에 보고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2. 중 · 후기주거의 양상

청동기시대 중·후기는 생업경제상의 변화에 따라 농경 중심의 생계변화가 정착되는 시기로 이전 시기와는 평면형태, 구조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의 조합상이 특징적인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로, 평면형태, 타원형구덩이, 중심주공 및 4주의 배치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는 지역적 양상이 확인되며 휴암리형, 송국리형, 효자동형, 오곡리형, 검단리형 등 세부유형으로 설정한다(김규정 2013:88).

영산강유역 중·후기 취락은 88개소 679기가 확인된다. 이전 시기에 비해 4.5배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광주·나주지역에서의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30기 이상의 군집된 주거군이 확인된다.

유적이 입지는 산지성 구릉을 제외하고 해발 30~40m의 범위에 중심적으로 분포하며[7], 입지하는 광주 평동, 복룡동유적의 경우 10~15m에서 확인된다. 농경사회로의 진입은 농경지로서의 접근성이 중요해지며 구릉의 사면을 선호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김승옥 2006:30), 해발 60m 이상의 산지성 주거를 제외하고 분포의 높이에 있어 일정범위 내 위치와 구릉 주변으로 충적지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농경이 생계의 일정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주거규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규모에 대한 기준은 지역 및 연구자마다 상이하며[8], 영산강유역의 양상을 바탕으로 1~5기 소형, 5~10기 중형, 11~15기 대형, 16기 이상을 초대형으로 설정하였다.

5~10기 내외의 소·중형 주거군은 영산강유역 전 지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며, 5기 미만이 중심을 이루며 일정 범위 내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영산강하류에 해당하는 영암천에서는 주거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된다[9].

11기 이상의 대형 주거군은 영산강 본류의 광주, 나주지역과 함평에 분포한다. 인근지역에 입지하는 일부 유적(광주 용두동, 노대동, 연산동, 복룡동 등)을 묶어본다면 20기 이상이 군집된 취락으로도 볼 수 있어, 영산강 본류에서의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진다. 이중 전기에서 중기까지 시간폭을 가지는 유적은 담양 태목리(20기), 광주 용두동(23기), 수문(36기), 덕림동 을림(28기), 나주 장동리(46기), 함평 신흥동(33기)이다.

청동기시대 소·중형 주거군이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경우 혈연적으로 가까운 하나의 출계집단 주거로 판단한다(김승옥 2006). 영산강유역의 주거군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집단이 중심을 이루며, 점차 대형 취락으로 발전해가는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거군의 분포배치에 있어서는 1기만 확인되는 단독 배치뿐만 아니라 열상, 부정형 등의 다양한 배치형태가 확인된다. 이는 주거군 구성에서 저장시설로 판단하는 수혈과 주공군(고상건물지)의 수가 적다는 점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중기 주거지의 저장시설은 특정지점에 군집하거나 주거군별로 나뉘어 분포하는 양상이다. 전면적

---

7) 지석천유역인 화순군의 경우 해발고도 50m이상에서 유적이 분포하지만, 지형적인 측면인 것으로 평지와의 상대고도를 통해 본다면 타 지역과 동일한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8) 일반적으로 10동, 20동 30동 이상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며, 지역별 주거수량의 편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주거수의 설정값은 다르다. 본고에서도 소규모 주거가 중심으로 확인되는 양상으로 이에 맞추어 설정하고자 한다.

9) 탐진강유역 등 주변지역의 청동기시대 이후 취락의 양상으로 본다면 조수와 같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입지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 발굴조사가 아닌 이상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외부 수혈은 수도작이 확산된 중기에 다수 확인되며(손준호 2004), 전기의 늦은 단계부터 일정한 주거지군에 배치되며 잉여생산물의 관리가 개별 가구에서 다수의 가구군으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한다(허의행 2013).

수혈유구는 주거군의 규모와 비례하지 않으며 함평 고양촌(87기), 광주 수문(45기), 나주 장동리(30기) 외에는 대부분 10기미만의 수량만 확인된다. 비슷한 입지를 갖춘 대다수의 주거군을 비롯하여 해발고도 60m이상의 산지성 구릉에 입지한 광주 노대동, 노대동 신기, 노대동 덕남 유적과 차이가 크지 않다. 상기 유적은 인접한 구릉으로 1개 단위로 묶을 수도 있지만, 동일 집단으로 묶더라도 배치양상에 있어 수혈 2기와 무덤만이 확인된다[10].

다음으로 주거지의 구조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소는 원형, 타원형, 말각방형, 방형의 평면형태와 타원형 구덩이의 내주공, 외주공, 무주공 등이다. 평면형태는 주거지의 시기 및 지역성을 파악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다.

영산강유역 중·후기 주거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이 모두 확인되며, 비율은 1.4:1로 원형과 방형에 있어 차이를 파악하였으나(이종철 2015:78-79), 조사사례가 많아지면서 1.19:1의 비율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호서·호남지역 중기 휴암리유형 검토를 통해 영산강유역의 경우 동일한 권역에서도 상류지역은 송국리형, 이외의 나주, 영광, 장성지역에서는 휴암리형이 높게 확인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파악했다(노양지 2021). 또한 영산강유역 중·후기 주거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의 특징적인 타원형구덩이와 주공이 나타나지 않는 방형주거지가 확인된다.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타원형구덩이와 중심주공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타원형 내부에 주공이 위치하는 내주공 형식이 83%로 중심을 이루며, 외주공(7%)>무주공(4.25%)=4주식(4.25%)>중간식(1.5%)순으로 확인된다. 영산강 본류에서 멀어지면서 특정 형식, 늦은 시기의 경우 중심 기둥의 간격, 배치 등의 정연했던 형태가 흐트러지는 양상이 파악된다.

表 5. 호서 · 호남지역 중기주거지 평면형태(노양지 2021 인용 정리)

지역		유적(기수)	비율	비고(특징)
호서	서해안	42(466)	휴암 > 송국	
	아산만	33(248)	휴암 < 송국	기타 주거지 비중이 높음
	금강상류	52(495)	휴암 < 송국	
	금강 중·하류	46(338)	휴암 < 송국	
호남	만경강	73(561)	휴암 < 송국	
	영산강	81(711)	휴암 = 송국	나주, 영광, 장성 : 휴암리 / 광주, 담양 : 송국리
	남해안	28(285)	휴암 > 송국	광양, 순천지역
	섬진강	13(118)	휴암 > 송국	임실 : 송국리 / 곡성, 구례 휴암리 3배

10) 비교 대상에 있어 산지성 구릉에 입지하는 주거의 경우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유적의 입지에 따라 저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외의 내부시설은 중기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벽구가 주거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시설되며 타원형 구덩이로 연결되는 형태도 확인된다. 또한 수혈을 비롯한 방형의 주거에서도, 점토다짐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주거의 배수시설, 내부 공간분할 등 그 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심발, 호, 외반구연의 토기류와 합인석부,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석검 등의 석기류, 방추차·어망추 등이 다양하게 출토된다.

영산강유역의 중·후기 주거지의 주요 연대측정치의 범위는 B.P.2970 ~ 2300이다. 보정곡선의 평탄화에 따라 신뢰성 문제가 있으나, 대략적인 경향성 파악은 가능하다. 측정된 절대연대치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료를 제외하면 B.P. 2,700을 상회하는 자료가 확인된다. 해당유적은 화순 복교리를 제외하고 전기 주거지가 확인되어 전~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의 평면형태 및 내부구조에 있어 변화가 파악되었는데, 연대측정치로 본다면 B.P. 2620에 해당한다. B.C 7~6세기경 무안지역까지 주거범위가 확장되는데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시간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적이 점유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하한과 관련하여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수석리, 교성리 등 점토대토기집단의 주거유적은 고지에 위치하며 점차 재지집단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이해한다. 영산강유역에서는 고지성 취락에 해당하는 유적은 장성, 광주에서 확인되며, 산지성 구릉에 입지하는 광주 노대동유적의 절대연대는 B.P 2620~2520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른 시기부터 입지차이가 주목된다. 또한 전기부터 유적이 확인되는 함평 고양촌, 광주 수문과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평동유적을 비롯한 화순 황새봉유적 등에서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경질무문토기의 양상이 확인됨으로 영산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의 시간 폭을 넓게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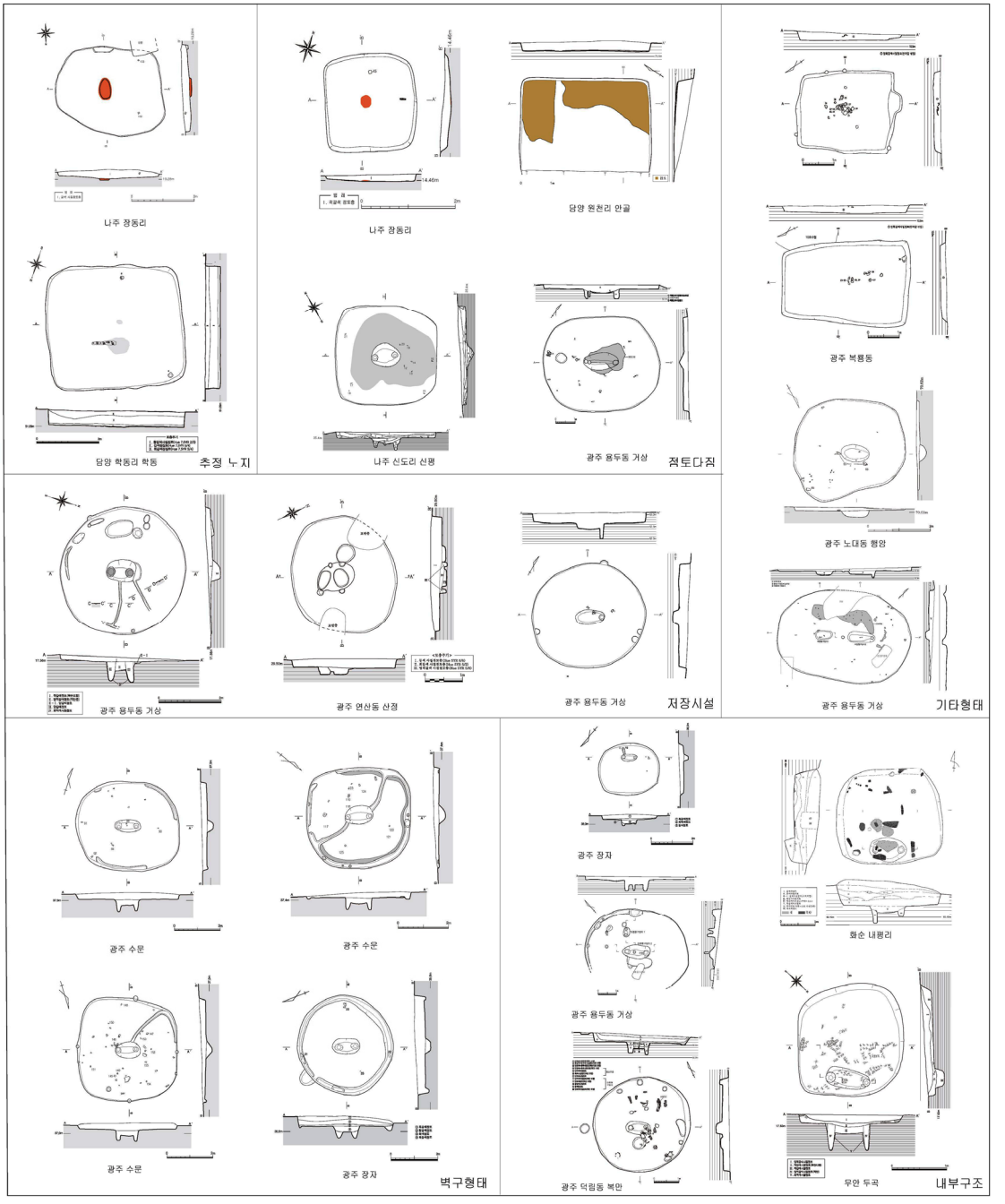


圖 6. 중 · 후기 주거지 특이구조

表 6. 영산강유역 주거지 절대연대 측정치(전기주거지 외)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	유 적 명	호 수	탄소연대
나주 운곡동유적Ⅳ	16호-1	4200±60	함평 와촌	5호-2	2530±50
영암 장천리		4140±120	함평 외치리 백야	B-4호-1	2530±40
영암 장천리		3930±120	광주 노대동 신기	1호-19	2520±60
광주 용두동	4호-2	2970±60	함평 고양촌	HP-1	2520±40
광주 용두동	7호-1	2960±60	함평 외치리 분산	4호-1	2510±40
화순 복교리	c-1	2950±120	광주 덕림동 을림	A-12호	2510±30
광주 용두동	4호-1	2940±60	광주 성덕유적(장자)	7호	2500±60
광주 노대동	6호-2	2930±60	광주 덕림동 복만	1호-2	2500±40
광주 복룡동	Ⅰ-10	2898±30	함평 외치리 분산	4호-2	2500±40
광주 용두동	13호-1	2890±60	함평 외치리 분산	4호-3	2500±40
담양 성산리유적	2호	2890±60	함평 외치리 백야	B-4호-1	2500±40
광주 용두동	4호-2	2880±50	무안 평림	4	2490±50
광주 용두동	13호-2	2830±60	광주 덕림동 복만	1호-1	2480±30
나주 복룡동	Ⅱ-2	2817±31	광주 노대동 신기	3호-3	2470±60
광주 용두동	7호-2	2790±60	광주 산정	18호	2470±60
함평 고양촌	HP-3	2790±60	나주 운곡동Ⅱ	31호	2470±50
광주 용두동	15호	2780±120	광주 수문유적	13호	2460±60
광주 노대동	6호-1	2770±60	장성 환교유적1	2호	2460±60
나주 복룡동	Ⅱ-1	2738±29	무안 평림	3	2460±50
나주 복룡동	Ⅰ-5	2729±24	나주 운곡동Ⅱ	2호	2450±60
함평 고양촌	HP-2	2700±40	나주 영천유적	6호	2450±50
광주 노대동 신기	3호-5	2620±60	광주 덕림동 을림	B-1호	2450±30
무안 평림	2	2620±50	광주 노대동 신기	2호-1	2440±60
광주 노대동	1호	2610±50	광주 덕림동 을림	A-5호	2440±30
광주 수문유적	5호	2610±50	광주 신완	1호	2430±80
광주 노대동 신기	2호-4	2590±50	나주 도민동	28호	2420±50
함평 와촌	5호-3	2590±50	나주 운곡동Ⅱ	6호	2420±40
나주 운곡동Ⅱ	18호	2580±50	나주 운곡동Ⅱ	2호-2	2410±40
광주 노대동 신기	1호-4	2570±50	함평 고양촌	HP-10	2400±60
나주 운곡동Ⅱ	33호	2560±50	광주 산정	23호	2400±50
함평 와촌	5호-1	2560±50	함평 고양촌	HP-6	2390±40
나주 운곡동Ⅱ	33호	2560±50	나주 운곡동Ⅱ	4호	2380±60
함평 고양촌	HP-4	2560±40	광주 노대동	3호	2370±50
나주 운곡동Ⅱ	5호	2550±60	광주 수문유적	8호	2310±60
광주 노대동 신기	1호-1	2550±50	나주 운곡동유적Ⅳ	11호	2300±60
나주 운곡동Ⅱ	41호	2550±50	함평 고양촌	HP-7	2200±60
광주 용두동	14호	2540±80	함평 고양촌	HP-9	2140±60
광주 노대동 신기	1호-12	2540±60	나주 운곡동유적Ⅳ	18호	2130±60
장성 환교유적1	4호	2540±60	함평 고양촌	HP-5	2110±40
무안 통정유적	1호	2530±50	함평 고양촌	HP-8	2050±50
광주 산정	20호	2530±50	나주 운곡동유적Ⅳ	8호	1900±60
장성 환교유적1	1호	2530±50	나주 운곡동유적Ⅳ	16호-2	1540±50

Ⅳ. 주거의 편년과 특징

고고학 연구에 있어 편년과 생계는 무게감이 있는 분야이다. 이는 시간축 설정을 통해 변화상을 파악하고 당시 사회문화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재조명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영산강유역 주거의 편년과 생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편년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편년은 호남지역의 토기의 변화상 및 절대연대를 참고하여, 상한은 기원전 1300년, 하한은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하여 기원전 5~4세기로 편년하고 있다(김규정 2013; 양영주 2013; 홍밝음 2013; 이영문 2013, 2014). 먼저 전기의 편년은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절대연대를 기반으로 유물상을 통해 3기로 구분한다. 절대연대는 B.P. 3,000~2,700범위이며, 평면형태 방형에서 장방형, 복수의 노지, 주공열의 변화, 단사선문+구순각목, 공열+이중구연의 복합문 요소 등을 주요 요소로 파악한다.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전기로 편년되는 주거지들이 점차 확인되는 추세로, 연대측정치는 B.P.3310~2670 범위이다. 담양 태목리와 장성 장산리에서는 절상돌대문이 출토되어 영산강유역에서 이른 시기로 편년 가능하다[11]. 절대연대측정치의 중심 분포범위는 기원전 12~11세기에 해당하지만 광주 하산동 2호, 광주 덕림동 A-1호는 기원전 13세기 전후까지 올려볼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 13세기 전후한 시기에 전기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며, 분묘 측정치 또한 B.P. 2610~3080에 해당하는 지석묘(나주 랑동), 토광묘(나주 장동리) 자료로 보아 전기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중·후기는 전기에 비해 주거지와 유물의 변화상이 뚜렷하지 않으나, 호남지역의 경우 상한 기원전 9세기, 하한 3세기로 보고 있다(김규정 2013:92). 중·후기유적의 절대연대측정치는 상대적인 연대폭을 통해 경향성 파악은 가능하다 생각된다. 영산강유역에서 측정된 절대연대는 B.P. 2,700 ~2,400에 주로 분포한다. 연대측정치를 보면 광주·나주·함평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점유되며 평면형태에서도 방형과 원형의 주거지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표 7). 평면형태에 따라 집단의 성격이 다르다면 영산강유역에서는 집단이 통합되는 양상으로, 지역마다 문화양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다양성을 띄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송국리형 주거지나 유물의 변화양상이 뚜렷하지 않고 광주 하남동 1호 출토 두형토기, 광주 수문 5호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영암 엄길리 유적 4호 지석묘에서 흑도장경호, 광주 성덕유적 1호 토광묘에서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영산강유역은 전기의 가락동·역삼동유형을 기반으로 송국리문화와 접변하여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11) 조기의 설정은 돌대문토기 단독기로 파악하는 시각(고민정 2010; 천선행 2005·2007; 홍밝음 2013)이 중심이나, 광주 동림동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07)에서 신석기시대 만기의 점열문토기와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반 및 목기의 연대측정 보정연대가 기원전 1120~1480년으로 조기의 설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김규정 2013; 이영문 2014).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돌대문토기는 절상돌대문으로 세부형식이나 공반유물상을 고려해볼때 조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금강 중류 가락동유형이 미사리유형 취락에 선행하는 의견(공민규 2011:57)이 제시되어 영산강유역의 전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表 7. 중·후기 취락 규모에 따른 유구 평면형태

전체 유적수 (N=101)	소형(~5기)			중형(~10기)			대형(~15기)			초대형(16기~)		
	휴암리 단독	송국리 단독	공존	휴암리 단독	송국리 단독	공존	휴암리 단독	송국리 단독	공존	휴암리 단독	송국리 단독	공존
황룡강(10)	4	1	4			1						
영산강 상류(37)	6	9	3	2	4	5			2		1	5
영산강 중·하류(24)	7	5	3			3						6
지석천(6)	1	2	1			1			1			
함평천·고막원천(14)		4	1	1	1	3			2			2
무안반도(8)	1	3	1			3						
영암천(2)					1	1						
계	19	24	13	3	6	17	0	0	5	0	1	13

2. 특징

1) 영산강유역 주거의 지역성

송국리문화는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영남, 호남지역까지 확인되며, 한반도 청동기시대 구분의 획기로 중요하고 특징적이다. 특히 송국리형 주거의 방형과 원형의 구분과 변화는 선후관계와 지역성, 주거군의 밀집분포는 청동기시대 사회 전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의 평면형태의 경우 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타원형으로 변화상이 중복관계나 공반유물을 통해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영산강유역에서는 원형과 방형계의 비율이 비슷하며 원형→방형으로의 선후관계가 광주 수문유적 등에서 확인되며, 주변지역인 영광 마전, 장흥 신풍유적에서도 방형이 후행하는 중복양상이 파악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원형과 방형주거가 공존하였으나 원형계가 줄어들고 방형계가 증가하거나(유향미 2006), 원형계에서 방형계로 변화한다는 의견(김규정 2006) 등 점차 방형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장방형주거지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점으로 보아 영산강유역에서는 방형의 주거지가 특징적인 양상이라 생각된다.

방형의 휴암리 물질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송국리문화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성과(명승렬 2014)를 참고하면, 선후관계는 금강 중·하류지역에서는 확인되지만 시기차이는 크지 않으며, 중심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유적에 따라 방형과 원형의 선후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휴암리유형의 연대측정치가 호남지역에서는 영산강-남해안/만경강-섬진강순으로 이른 연대치가 확인되는 점은(노양지 2021:66) 중·후기문화의 접촉을 비롯한 주거의 범위가 주변지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사회는 인구가 증가·집중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시작되는 시기로, 경기남부 반송리식, 영남지역 동천동형, 하촌리형 주거형태가 설정되고 자체적인 발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박성희 2015; 이수홍 2014). 호남지역의 양상은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결과(김규정 2013; 양영주 2009)와 충청지역의 인구유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황재훈 2009; 노양지 2021)[12].

영산강유역의 중·후기의 방형주거에서도 일부 전기요소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계기적인 변화와 함께, 문화유입에 따라 공백지역을 점유하면서 발전해가는 가능성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를 둔다면 전기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문화유입으로 다양한 형태로 접변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차이는 전북 및 호남 동부권의 경우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정된 공간에서 발전하는 방향성으로 이해된다면, 영산강유역의 주거군은 대부분 소형에 속하며 주거 배치의 불규칙성, 각 수계별 상위의 중형 및 대형주거군(광주 수문, 평동, 덕림동 을림)의 존재는 경쟁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유가 가능한 주변 환경을 통해 각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통합되며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3].

2) 영산강유역의 생업경제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에 대한 주요한 관점은 화전이나 수전방법 등 농경을 입지, 형태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나(안재호 2000; 이홍종 외 2010; 고일홍 2010), 유구, 유물중심의 토기용량(김범철 외 2007, 2013), 저장공 및 수혈(허의행 2011; 우정연 2014), 석기조성비(손준호 2008, 2019)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생업환경을 추론하고 있다. 한편 송국리문화의 생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수렵·채집에서 수전이 본격화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변화가 주거, 생계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것으로 추정한다(김장석 2008). 다만 자연환경 및 사회조직의 특성이 유사함에도 송국리문화단계의 변화는 단일한 동인과 과정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한다(김범철 2006:90).

영산강유역 주거의 양상을 보면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 주거군의 구성요소에서 저장시설, 분묘 등의 부재는 공간분할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집단이 분화하거나 일정범위 내 집단의 공동 생산소비, 소규모 집단의 유입·정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지간의 동시기성, 분묘와의 연관성 등 넓은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기에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의 양상을 석기조성비와 저장공 및 수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석기는 실생활에 이용되어 생계 활동의 변화상이나 지역적 특징, 입지에 따른 차이, 유적·유구의 성격 규명 등 생계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석기조성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손준호 2008, 2019; 박서현 2016).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체 석기 조성비 비교를 보면 입지별 석기조성비에서는 구릉과 충적지의 차이는 크지 않고, 시기별 변화상이나 농경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변화의 방향이 유사함과 지역별 특정 기능의 도구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손준호 2016:332-333).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시기별 석기조성비에서 조기~중기의 수확구의 감소양상과 지역별 특정도구가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점이다. 호남지역 또한 수확구의 비율이 가장 낮게 확인되는 점은 동일하게 파악되며, 수확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도구의 효율성 증가로 판단한다(손준호 2019:337-338).

---

12) 한반도 내에서 동일한 유물이나 유구의 공반상이 같다면 그 양자는 동일시기로 둬야하는 의견을 참고하여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전개과정을 검토하면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편구옹, 구순각목문토기와 공반하는 주상편인석부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제주도 내의 방형주거지를 전기후반까지 소급하며 인구유입을 추정하기도 한다(오원홍 2018).

13) 영산강유역에서 보여지는 송국리형 주거에서 출토되는 점토대토기, 주거의 입지, 분묘의 분포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후기뿐만 아니라 기존부터 새로운 문화요소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하고자 한다.

수렵구, 목재 가공구, 석기 가공구 등 도구의 변화는 생산을 위한 도구체계 및 생산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호남지역에서 특징적인 양상인 수렵구는 농경 이외에 수렵 등의 복합 생계를 반영하는 자료로 이해된다. 영산강유역의 경우 경작유구의 부재라는 불완전성이 있지만 주거군의 입지 및 광주 신창동유적을 감안한다면 청동기시대 중기의 생업은 수전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물의 저장이다. 청동기시대 조·전기에서 저장은 주거지 내부의 저장공, 중·후기에는 주거지 외부의 수혈이나 고상건물(주공군)을 저장시설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영산강유역에서 수혈유구는 전기에 주거지 주변이나 주거지들 사이에 분포하며, 중기 주거지에는 특정지점에 군집하거나 주거군별로 나뉘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외부 수혈은 채집의 양상을 보여주거나 수도작이 확산된 중기에 다수 확인되며(손준호 2004), 전기의 늦은 단계에 일정한 주거지군에 딸려 배치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야외 수혈을 저장시설로 이해하고 잉여생산물의 관리가 개별 가구에서 다수의 가구군으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허의행 2013).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 저장은 저장공이나 굴립주 건물로 이해하고 있으나, 영산강유역에 있어 보관을 위한 수혈이나 지상건물지로 추정되는 주공군은 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수혈유구의 주 목적은 저장시설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지만 이외 물품 보관시설, 훈연처리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호서지역 수혈유구의 깊이와 저장기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주거 내부에서 확인된 수혈은 특수한 대상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하였다. 기능적으로 유구에서 확인되는 토기, 석기의 출토로 보아 지역 내 큰 차이가 없으며, 명확한 용도구분은 어렵지만 저장시설로 잠정 파악하고 깊이 차이를 통해 단기저장용과 장기저장용으로 구분하였다(우정연 2014:118-121).

영산강유역의 저장공 및 주변에서 확인되는 수혈은 호서지역과 동일한 양상으로 깊이 또한 20㎝ 내외이다. 따라서 저장공과 수혈은 보관시설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여 송국리유적 수혈유구도 소형에 깊이가 얕고,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는 점 등을 들어 소비 직전의 단기 저장 또는 보관용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깊이가 얕은 수혈유구가 저장시설로 이용되었을 경우 지상에 노출되었다면 건조된 상태의 작물이나 물품의 보관가능성도 추정한다(김경택 외2012:44).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보관 및 저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저장의 경우 단기저장의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된다.

외부 수혈에 보관하는 방식은 송국리단계 뿐만 아니라 이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되며, 이는 내부에 보관된 것보다 장기적인 저장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김민구 2010).

주거 구성요소에서 저장시설의 부재는 기존 주거지로 보고된 유구들 중 보관시설로서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산강유역 주거에 있어 방형 수혈 및 내부에 노의 여부만 확인되는 유구들은 주거지로 보고되어있다. 유구는 배치에 있어서도 1기 혹은 다수가 군집되어 확인되지만 주거의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예시로 서섹스 블랙패치유적의 주거군의 사이에 축사시설이 확인되는 점이 참고된다(이성주 2012).

내부에 노가 확인되는 유구에 대해서는 공동체적 의례나 행사에 쓰인 취사시설, 습기 제거용 목

탄시설, 저장하기 위한 훈연 처리 시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저장시설로 사용되었다면 건조 저장에 유리한단기저장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허의행 2008:70-74). 이러한 예를 적극 고려한다면 송국리문화단계에서는 주거지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유적의 입지환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주거의 배치나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며[14], 그 자료로서 주거지 중 저장공만 존재하는 형태나 일부 노만 확인되는 경우로 영산강유역에서 저장시설의 부재와 함께 수렵구가 높게 확인되는 양상은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 또는 훈연처리을 위한 유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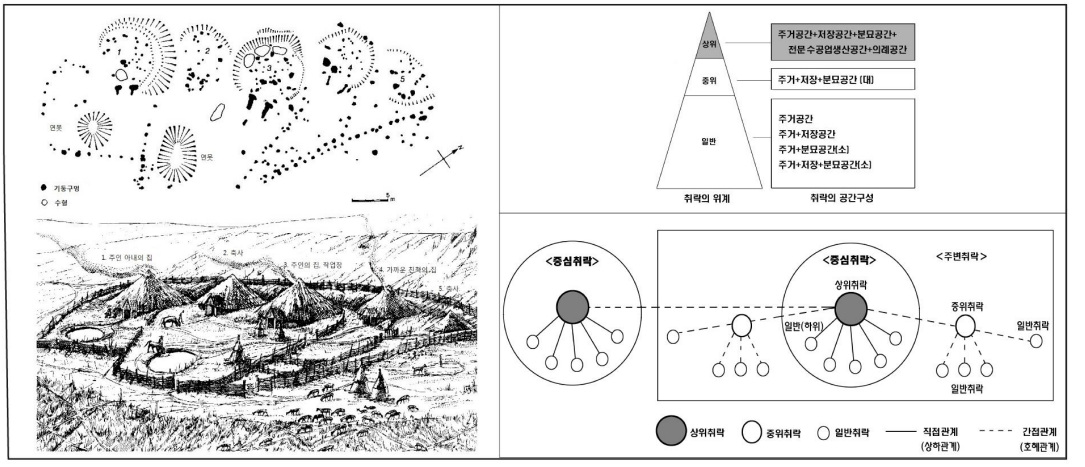


圖 7 주거 복원도(이성주 2012 재인용) / 취락의 위계와 관계모식도(이형원 2018)

전술한 주거구조 및 생계의 양상을 종합하면, 영산강유역의 주거는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 파악된다.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은 연구자에 따라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주거와 분묘공간, 광장, 의례공간 등을 특징적인 요소로 거점취락·일반취락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격적인 농경사회로의 진입은 농경지로서의 접근성이 중요해지며, 대규모 경작지 개발과 농경을 위한 인구의 집중화가 요구되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중기부터 나타나는 취락의 대규모화라고 판단한다(김승옥 2006:30). 다만, 영산강유역의 취락구조에서 특징적인 요소가 확인되는 취락은 나주 운곡동, 광주 수문유적뿐이다. 선행연구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은 일정한 공간내 집단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이형원 2018, 강동석 2018). 호남지역의 관점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점, 거점취락의 양상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주거군들에서는 거점취락으로 상정하기에 차별화된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네트워크의 중심부, 지속적인 반복점유의 가능성 등 영산강유역 주거의 변천상에 있어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양상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4) 부정형의 주공열, 분묘군에서 확인되는 주거지 1기, 수혈에서의 불맞은점토괴 등의 양상은 가축사육, 분묘축조를 위한 임시거처, 가마나 저장시설의 가능성을 추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거나 구조물의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특징적인 유구는 다른 기능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Ⅴ. 맺음말

그동안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는 연구는 호남의 연구시각에서 다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자료의 편중 등의 이유로 지석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최근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자료는 타 지역과 비교·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사성과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영산강유역 주거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돌대문토기의 조기, 점토대토기의 후기 등 아직까지 시기별 문화양상에 대한 해상도가 낮지만, 청동기시대의 흐름은 동일한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산강유역은 주거형태부터 원형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호남지역 내 만경강유역, 남해안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영산강유역의 문화가 분화되는 상황과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소와의 접촉·통합되는 방향성으로 생각된다.

영산강유역이 포함되는 한반도 서남부지역은 고대사회의 형성과정부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역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반에는 청동기시대의 역동성과 영산강유역 문화변동이 작용했기에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청동기시대 재조명이란 주제를 통해 고민하게 된 영산강유역 청동기사회에 대한 질문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하며 후배를 위해 선배님들의 많은 질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문헌

한국청동기학회, 2013,『한국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김권구·공민규편, 2016,『청동기시대의 고고학3-취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2.

안재호·이형원편, 2016,『청동기시대의 고고학2-편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2.

이형원, 2009,『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김규정, 2013,『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권중, 2019,「중부지방 송국리문화의 제 양상과 성격 연구」,『한국청동기학보』25.

김민구·권경숙, 2010,「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석기조성과 생업경제-호남지역과의 비교-」, 『호남고고학보』36.

김승옥, 2006,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한국고고학보』60.

고일홍, 2010,「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화전농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67.

김범철, 2006,「금강 중·하류역 송국리형 취락에 대한 가구고고학적 접근」,『한국상고사 학보』51.

, 2013,「청동기시대 토기 용량복원 시론-호서지역 취락출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80.

, 2014,「호서지역 청동기시대 가내 저장양상 변화의 의미」,『한국상고사학보』83.

김범철·안형기·송한경, 2007,「무문토기의 용량분석 시론-충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출토품을 중심으로-」,『야외고고학』2.

김장석, 2007,「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호서고고학』17.

, 2008,「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67.

김장석·황재훈·김준규외 5명, 2018,「한국 방사성탄소연대 이상연대치의 선별과 검증」, 『한국고고학보』107.

강동석, 2018,「지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 - 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한국고고학보』109.

노양지, 2021,『호서·호남지역 휴암리유형의 전개양상 연구』,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명승렬, 2014,「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물질문화의 다양성 검토」,『호서고고학』31.

박성희, 2015,「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권역」,『고고학』14-1.

박서현, 2016,「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 취락과 생업도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53.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 - 한국 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109.

손준호, 2008,「석기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업과 사회경제」,『한국청동기학보』3.

손준호, 2015,「송국리문화의 석기 편년」,『호서고고학』32.

손준호, 2019,「청동기시대 석기 조성비비교」,『인문학연구』58-4.

이성주, 2012,「마을과 도시에 관한 고고학의 논의」,『고고학』11-2.

이수홍, 2014,「청동기시대 주거생활 변화와 지역성의 사회적 의미-영남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90.
이영문, 2013,「청동기시대 편년연구의 현황과 과제」,『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자료집.
, 2014,「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사 성과와 연구과제」,『호남고고학보』47.
양영주, 2013,「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자료집.
오원홍, 2018,「탐라 이전 송국리형 주거취락의 변화 양상 : 삼양동·용담동 일대 유적을 중심으로」,『호남고고학보』58.
이진민, 2004,「중부 지역 역삼동 유형과 송국리 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역삼동 유형의 하한에 주목하여」,『한국고고학보』54.
우정연, 2014,「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 - 중기 저장전략 비교연구 - 물리적·사회적 저장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상고사학보』85.
이종철, 2002,「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변화에 대한 시론」,『호남고고학보』16.
, 2017,「송국리형 취락의 생산과 소비 양상-개별 주거와 취락을 중심으로-」,『호남고고학보』57.
, 2021,「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 양상」,『한국청동기학보』28.
이희경·이형원, 2016,「원삼국~한성백제기 작물의 저장, 소비, 폐기의 일양상 - 용인 고림동유적의 사례 -」,『한국상고사학보』92.
이형원, 2012,「중부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 구조와 그 의미」,『고고학』11-2.
, 2018,「청동기시대 중심취락의 지역적 양상」,『청동기시대 송국리유적, 왜 중요한 가?』, 서울대학교박물관·중부고고학회학술대회발표자료집.
이홍종, 2007,「송국리형취락의 공간배치」,『호서고고학』17.
이홍종·허의행, 2010,「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입지와 생업환경」,『한국고고학보』74.
이홍종·손준호, 2012,「충적지 취락의 지형환경」,『영남고고학』63.
조대현·박수현, 2013,「청동기시대 석기생산에 대한 일 고찰-중부지역 취락 출토 자료를 중심으로-」,『호서고고학』28.
천선행, 2016,「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의 실체와 전개」,『호서고고학』35.
, 2019,「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특징과 분포양상」,『호서고고학』44.
홍밝음, 2010,「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호남고고학보』36.
홍밝음, 2012,「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문화의 변천과정」,『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 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자료집.
허의행, 2011,「호서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저장수혈의 양상과 변화」,『영남고고학』58.
황재훈·김장석,이영선외 14명, 2016, 방사성탄소연대의 고목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92
황재훈, 2009,「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호서고고학』20.

, 2015,「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연구 검토-형식 편년과 유형론,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고고학』14-1.
, 2017,「중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동향-공렬토기의 확산과 문화변동에 주목하여-」,『영남고고학』78.

※ 지면관계 상 보고서 및 선행연구사는 제외하였음.

04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이 동 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Ⅱ. 영산강유역 권역구분과 분포현황
Ⅲ. 입지와 군집상 특징
Ⅳ. 지석묘의 형식과 출토유물
Ⅴ. 맺음말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이 동 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인 지석묘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찍이 지석묘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석묘 연구는 각 지역별 연구, 특정 지석묘에 대한 연구,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개별 유물이나 부장풍습 연구, 지석묘의 기능과 장제, 위계화나 사회집단의 성격 연구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지석묘가 어떻게 전파되었고,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호남지역 지석묘 조사는 1927년에 나주 노동리와 고흥 운대리가 최초로 조사되었고, 1960년대에는 국립박물관에 의해 고창 상갑리를 비롯해 순천, 곡성, 영암, 강진에 있는 지석묘들이 정식 발굴조사되었다. 70년대의 영산강 4개 댐을 비롯해 80년대에 아산댐과 보성강유역의 동복댐, 주암댐, 90년대에는 전북 동부지역인 금강 상류의 용담댐, 2000년대에는 장흥 탐진댐 등 주로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내 지석묘들이 대규모로 발굴조사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 건설로 여수반도에 집중되어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까지 영산강유역권에는 대규모 발굴조사는 아니지만 각종 건설사업으로 지석묘 발굴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영산강유역권 지석묘 연구는 주로 호남·전남지역 지석묘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이영문 2002, 2009; 조진선 2004; 平郡達哉 2004; 황재훈 2006; 이동희 2012). 이외에 지역·권역별 연구(선재명 2001; 이영문 2004; 김진환 2012; 최성훈 2015), 특징적인 지석묘 형식에 대한 연구(김선기 1997; 유태용 2007; 김석현 2015; 강진표 2016), 지석묘 출토유물(이영문 1997; 조진선 1999)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호남지역 지석묘 연구는 매우 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보성강유역이나 남해안지역에 비해 영산강유역 지석묘 연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영산강유역은 지석묘의 밀집 분포지역으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로 확인되는 구조와 형식이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유적의 시기나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석묘의 구조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된 지표조사를 통해 지석묘의 분포현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지표조사 자료와 발굴조사 자료를 통해 지석묘의 분포양상, 형식과 구조적인 측면, 타지역에 비해 수량은 부족하지만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여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을 살피고자 한다.

Ⅱ. 영산강유역 권역구분과 분포현황

1. 영산강유역의 권역구분

우리나라 서남부에 위치한 영산강은 담양군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입하는 강으로 극락강, 지석강, 황룡강, 고막원천, 함평천 등의 지류를 비롯해 1,345개의 소지류들이 있다. 영산강유역은 지리적으로 동쪽에서 서남향으로 뻗은 소백산맥의 한 줄기가 보성강과 탐진강유역이 경계를 이루고, 노령산맥으로 인해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영산강유역권은 자연·지리적 환경에 따라 4개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 상류지역

상류지역은 행정구역상 장성군, 담양군, 광주광역시, 화순군 일부에 해당하며, 대부분 산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하천은 황룡강, 극락강, 지석천이 합류하면서 영산강 본류를 이룬다. 황룡강유역은 노령산맥에 의해 전북 정읍과 경계를 이루지만 고갯길인 갈재를 통해 문화교류가 가능하다. 극락강유역인 담양군은 용추에서 순창 복흥면으로 연결되며, 담양 금성면과 순창 금과면, 담양 무정면에서 곡성 옥과면으로 비교적 낮은 구릉성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 쉽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섬진강의 지석묘문화와도 연결되고 있다. 지석천의 상류인 화순군은 순천 주암으로 통하고, 이양면에서 보성과 장흥 장평으로 연결되어 보성강유역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이다. 상류지역은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전라북도 정읍, 섬진강 중상류, 보성강유역과 문화적인 교류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중 · 하류지역

중·하류지역은 행정구역상 나주시와 영암군, 함평군 북동부 일부에 해당한다. 주요 하천은 문평천, 고막원천, 함평천, 만봉천, 삼포천, 영암천 등이 합류하면서 영산강 본류를 이룬다. 영산강유역의 핵심지역으로 산지도 있지만 저평한 구릉과 평지가 발달해 있어 개방적인 지형이다. 전남 서해연안지역과 연결되고, 바다를 통해 외부지역과도 연결되는 곳이다.

3) 서해연안지역

서해연안지역은 영산강유역을 기준으로 서북부지역과 서부지역, 서부도서지역으로 구분가능하다.

서북부지역인 고창과 영광은 지형상 같은 분지에 있으며, 노령산맥에 의해 영산강유역과는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고창지역에 1,700여기의 지석묘가 밀집되어 있고, 전남 전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부지역은 행정구역상 함평군 서부, 무안군, 목포시에 해당한다. 노령산맥의 끝자락과 영산강 하류에 의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부지역을 거쳐 영산강유역으로 진입하는 길목이다. 서부도서지역은 신안군에 해당하며, 연안항로를 이용해 영산강유역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목에 해당한다.

4) 서해남부지역

서해남부지역은 해남군에 해당하며, 북쪽은 영암호와 소백산맥에 의해 영암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서해와 남해를 공유한 곳으로 북쪽으로는 영산강유역, 동쪽으로는 남해안지역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개방된 해상교통의 요지이다. 영산강유역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거치는 지역으로 서쪽에는 진도군과 장흥군, 동쪽은 진도군이 자리한다.

2. 분포현황

영산강유역권에서 조사된 지석묘는 전남의 고대묘제(이영문·조근우 1996)에서 1,063개군 7,928기가 보고되었고, 이후 각 시군별 문화유적분포조사를 통해 1,348개군 8,904기로 등록(문화재GIS 인트라넷시스템)되어 있다. 최근 영산강유역의 지석묘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1,585개군 9,637기가 분포[1]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表 1>. 이는 나주 풍산리 도래지석묘군(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20)과 같이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기도 하며, 영암 산호리 지석묘군(목포대학교박물관 1993)이나 함평 덕림리 백양 지석묘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14)처럼 현재는 상석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지석묘로 밝혀지는 것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지석묘 분포는 고창과 화순, 나주·영암, 해남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최대밀집지 중 하나인 고창군에서 서해안변을 따라 점차 분포수가 적어진다. 그리고 교류의 요지에 있는 해남군에서 다시 밀집분포를 이루고 있다. 영산강유역에는 중·하류지역인 나주·영암 전역에 분포하고, 화순군을 제외한 상류로 갈수록 400여기 이하로 그 분포수가 적어진다. 이러한 분포권은 지석묘의 전파와 이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권에서 현재까지 시·발굴조사 된 지석묘는 188개군이 조사되었지만 상석만 확인되거나 자연석으로 판별된 경우를 제외하면 124개군 1,057기이다<表 2>. 또한 유적 내에서 상석만 확인되는 188기를 제외하면 869기이다.

1) 분포현황은 당시 사람들의 영역권과 생활권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포권을 확인하고자 문헌조사(최몽룡 1975; 문화재관리국 1977,1986; 이외 지표·발굴조사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된 지석묘의 총 기수를 정리한 것이다.

表 1. 권역별 지석묘 분포현황(나주문화재연구소 2015~2017 참고)

연번	지역	권역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비고
			유적 수	총 기수	유적 수	총 기수	
1	담양	상류	94	263	12	36	
2	장성		106	287	15	47	
3	광주		78	383	17	85	
4	화순		126	1,201	31	152	섬진강제외
5	나주	중·하류	193	1,364	35	276	
6	영암		162	1,152	20	180	
7	함평		62	330	4	54	함평 북서부
8	고창	서해연안	231	1,780	18	114	
9	영광		150	534	12	45	
10	함평		103	439	8	15	함평 서부지역
11	무안		103	512	7	94	
12	목포		4	21	1	14	
13	신안		56	174	3	65	
14	해남	남부	117	1,197	5	12	
합계			1,585	9,637	188	1,189	

表 2. 영산강유역권 지석묘 발굴조사현황

연번	권역	유적명	발굴기수				입지	주요구조	배치	주요유물	참고
			상석+매장	매장	상석+묘역, 지석	상석만					
1	상류지역	장성 덕재리 남바위	2		1	2	계곡평지	개석(2)	열상		문화재 1976
2		장성 덕재리 원동	1	4	3	3	평지?	기반(2), 위석(1), 석관(4)	열상		문화재 1976
3		장성 쌍웅리	1		1		산기슭	기반(1)	열상		문화재 1976
4		장성 학성리 학동	1		1		고갯마루	기반(1), 개석(1)	열상		전대박 1995
5		장성 용흥리 태암 다군	3				구릉정상	위석(1), 기반(2)	열상		동대박 2003
6		장성 용흥리 태암 라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동대박 2003
7		장성 덕산리 조산			1		산기슭	기반(1)	단독		목대박 2006
8		장성 오월리 오현			2		계곡평지	기반(2)	연접묘역		호문연 2010
9		장성 삼태리	1				구릉정상	개석?(1)	단독	구순각목	호문연 2016
10		담양 문학리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김원용 1961
11		담양 산성리	1	3			평지?	기반(1), 석곽(2)	열상		전대박 1976
12		담양 태목리 태암	1		1		퇴적평지	기반(2)	열상		호문연 2003
13		담양 덕성리 영월		1			고갯마루	석곽(1)	단독	석검	동지연 2014
14		광주 충효동 성안	7				계곡평지	기반(7)	열상		전대박 1979
15		광주 풍암동 풍암			1		구릉사면	개석(1)	단독		전대박 1999
16		광주 금호동 망원			1		구릉정상	개석(1)	단독		전대박 1999
17		광주 매월동 동산 가군	4	8			고갯마루	위석(4), 기반(1) 석곽(3), 석관(2)	열상,군상	석검	전대박 2001
18		광주 매월동 동산 나군	3	7	2		구릉정상	위석(2), 기반(2)	열상,군상		전대박 2001
19		광주 신창동 매결	1	4			구릉사면	기반(1), 석관(3)	단독		호문연 2004
20		광주 용두동 개동 나군				9	구릉사면	상석	열상		전문연 2006

연번	권역	유적명	발굴기수				입지	주요구조	배치	주요유물	참고
			상석+매장	매장	상석+묘역, 지석	상석만					
21		광주 장덕동 성덕	1	1	1		구릉정상	위석(1)	단독		호문연 2008
22		광주 노대동 구암	3	3	3	3	계곡평지	기반(2), 개석(3) 석곽(1), 석관(2)	열상		전문연 2010
23		광주 덕림동 을림		4	1		구릉정상	기반(1), 석곽(2), 석관(2)	열상		호문연 2018
24		광주 덕림동 덕림	3	12			구릉정상	기반(3), 석곽(9), 석관(1)	열상, 군상	이단경촉	호문연 2018
25		광주 덕림동 쌍구실들	1	1			구릉정상	기반(1), 석곽(1)	T자		호문연 2018
26		광주 덕림동 수성			2		구릉사면	기반(2)	각 단독		호문연 2018
27		화순 대초리 조치 다군	5			2	계곡평지	개석(2)	열상		전대박 1976
28		화순 대초리 대초 나군	2			1	계곡평지	기반(1), 개석(1)	열상		전대박 1976
29		화순 만연리			3	2	구릉정상	기반(1)	열상?		전대박 1993
30		화순 운월리 운포 다군	5	1	1		고갯마루	개석(2), 위석(4), 석곽(1)	열상		전대박2002
31		화순 이십곡리	4			3	산기슭	개석(1), 위석(3)	열상		전대박 2002
32		화순 대신리 지동	7	17		14	계곡평지	탁자(2), 위석(8), 개석(3) 석곽(3), 석관(3)	열상		목대박 2002
33		화순 효산리·대신리	10	5	24	28	산기슭	탁자(3), 기반(14)	열상, 군상	석검	목대박 2005 동지연 2006 2012, 2016
34		화순 다리지 월정 나군	6	3			산기슭	개석(5), 위석(1), 석곽(2)	열상, 군상		전대박 2003
35		화순 서태리 태곡 가군	1	1		1	계곡평지	기반(1), 석곽(1)	열상		동지연 2009
36		화순 서태리 태곡 나			1		산기슭	기반(1)	단독		동지연 2009
37		화순 효산리 모산 1		3			산기슭	개석?(1), 석관(2)	ㄱ자		동지연 2017
38		화순 대리 주암 나			1		구릉사면	기반(1)	단독		동지연 2016
39		화순 용강리		3			산기슭	석곽(3)	군상	옥	동지연 2011
40	중·하류지역	나주 노동리 하노동	1				산기슭	기반?(1)	열상		고이즈미1926
41		나주 대초리 남대	3		1	6	계곡평지	기반(2), 개석(2)	타원		전대박 1976
42		나주 마산리 쟁기머리	2	2		1	계곡평지	탁자(1), 개석(3)	열상		전대박 1976
43		나주 판촌리 남판	8	4		2	계곡평지	탁자(1), 기반(6), 석곽(4)	열상		전대박 1976
44		나주 궁원리 먹개동들	4				계곡평지	기반?(4)	열상		영문연 2016
45		나주 영평리 복룡	1	9			구릉정상	위석(1), 석곽(1), 석관(8)	열상, 군상	석검	전문연 2017
46		나주 풍산리 도래 가군	3		4		산기슭	기반(6), 위석(1)	열상		영문연 2020
47		나주 보산리	1	1			산기슭	기반(1),	단독		전대박 1977
48		나주 회진리 사직	1			2	산기슭	탁자(1)	군상	석검, 채문	전대박 1995
49		나주 복암리 랑동	1			2	퇴적평지	개석?(3)	열상	석검	전문연 2006
50		나주 동수동 동령 가군			2		구릉사면	위석(2)	열상		동대박 2007
51		나주 동수동 동령 나군	1				구릉사면	기반(1)	단독		동대박 2007
52		나주 장산리 장사			1		구릉사면	위석(1)	단독		마문연 2008
53		나주 운곡동 안성 나군	1		2	1	구릉사면	기반(2)	열상	석검, 동검편	마문연 2008
54		나주 운곡동 안성 라군	2	1			구릉사면	개석(2), 묘실(1)	열상 3호:단독		마문연 2008
55		나주 신포리 내동 가군	2				구릉사면	개석?(2)	열상		동대박 2012
56		나주 송학리 유천 가군	2	9	9	8	산기슭	탁자?(1), 위석(2), 개석(2)	열상, 군상		마문연 2010
57		나주 운곡동 능동 나군	7	19		1	구릉사면	개석(2), 위석(5) 석곽(17), 석관(1)	열상, 군상		마문연 2011
58		나주 운곡동 기능	2	1		2	구릉사면	개석(1), 위석(1), 석곽(1)	열상	석검	마문연 2011
59		나주 운봉리 백운		21	28		계곡평지	기반(5), 묘역(1), 석곽(5) 석관(9)	열상		제문연 2013

연번	권역	유적명	발굴기수				입지	주요구조	배치	주요유물	참고
			상석+매장	매장	상석+묘역, 지석	상석만					
60		나주 운봉리 백동	1				산기슭	탁자(1)	단독		제문연 2013
61		나주 만봉리 용반 Ⅱ	4		3	2	계곡평지	탁자(1), 위석(1), 기반(2) 개석(3)	열상		해문연 2014
62		나주 만봉리 용반 Ⅲ	4	7			계곡평지	위석(5), 묘역(6)	열상, 군상		해문연 2014
63		나주 월양리		24			고갯마루	상석(1), 석곽(12), 석관(5)	열상	석검	마문연 2014
64		나주 동수동 동령 다군	1		1		구릉사면	위석(2)	열상		동지연 2015
65		나주 동수동 동령 라군	1	2			구릉사면	기반(1), 석곽(2)	11자, T자		동지연 2015
66		나주 동수동 동령 마군	2				구릉사면	개석(2)	열상		동지연 2015
67		나주 동수동 동령 바군 (장산리 장사)	6	22	1	6	구릉사면	기반(2), 개석?(2), 위석(3) 묘역(1), 석곽(18), 석관(3)	열상, 군상	옥	마문연 2015
68		나주 양산리 양지촌	1				구릉사면	개석(1)	단독		마문연 2015
69		나주 월명		1		1	퇴적평지	개석?(1), 석곽(1), 석관(3) 옹관(1)	열상, 군상		동대박 2011
70		나주 와우리	1			3	구릉사면	개석?(1)	열상		전문연 2019
71		영암 장산리 주암 가군	1				구릉사면	탁자(1)	열상		국박 1967
72		영암 장천리 괴음 나군	2		2		퇴적평지	기반(1), 개석(3)	군상	동검편	목대박 1984
73		영암 청룡리	4	2	3		퇴적평지	기반(4), 개석(1), 석관(2)	열상		목대박 1984
74		영암 산호리		10			퇴적평지	석곽(10)	군상, 열상	석검	목대박 1993
75		영암 채지리	1				산기슭	개석(1)	단독		목대박1996
76		영암 망산리	3	1		1	구릉사면	기반(1), 개석(2), 석곽(1)	열상	옥	목대박 1996
77		영암 옥야리 남해포	2	3			구릉정상	개석(1), 위석(2), 석곽(2)	열상		목대박 2000
78		영암 회문리 녹암			1		평지	기반(1)	단독		동지연 2008
79		영암 용산리 용산 나군		3	5	6	산록평지	기반(1), 석곽(1)	군상		동지연 2008
80		영암 서호리 소서호 가군	11	36	1		구릉정상	기반(5), 개석(3), 위석(7) 묘역(16), 석곽(7), 석관(7)	열상, 군상	청동방울	동지연 2008 기문연 2020
81		영암 장천리 효성 가군	1				퇴적평지	기반(1)	열상		영문연 2012
82		영암 엄길리	13	14	4	3	퇴적평지	기반(4), 개석(16) 석곽(6), 석관(3)	열상	석검, 점토대, 흑도	동지연 2013
83		영암 회문리 회촌	2	25			평지	기반(2), 묘역(4), 석곽(7)	열상	석검	동지연2016
84		함평 산내리 송산	1			7	계곡평지	기반(1)	열상, 군상		목대박 1992
85		함평 용두리 선박 나군			1		산기슭	기반(1)	단독		호문연 2008
86		함평 상곡리 운곡	2	34		2	계곡평지	탁자(1), 위석(1)	열상 탁자 독립		호문연 2007 영문연 2014
87		함평 덕림리 백양		33			퇴적평지	석곽(21), 석관(9)	열상	석검, 옥, 점토대	대문연 2014
88	서해연안지역 – 서부	함평 진양리 각골		3	1		산록평지	기반(1), 석곽(3)	T자		목대박 1997
89		함평 곡창리 신곡 나군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호문연 2005
90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3	2			산기슭	탁자(3), 석곽(2)	열상	석검	동지연 2010
91		함평 자풍리 신풍 가군		1	1		구릉정상	기반(1), 석관(1)	열상		동문연 2016
92		무안 월암리 회인동	1			3	평지	기반(1)	열상	옥	목대박 1992
93		무안 성동리 안골	13		1	2	계곡평지	탁자(6), 기반(3), 위석(1) 개석(1)	열상, 군상		목대박 1997
94		무안 맥포리	5		1	3	구릉정상	기반(4), 위석(2)	열상		호문연 2005
95		무안 평산리 평림	6				구릉정상	주형(1), 위석(1), 기반(2)	열상		전대박 2007
96		무안 하묘리 두곡	6	9		3	구릉정상	개석(3), 위석(2), 석곽(2) 석관(1), 토광(1)	열상, 군상		전문연 2012

연번	권역	유적명	발굴기수				입지	주요구조	배치	주요유물	참고
			상석+매장	매장	상석+묘역, 지석	상석만					
97		무안 상마리 상마정	7	12	3	14	구릉사면	탁자(4), 주형(3), 주형+탁자(1), 기반(4), 개석(4) 위석(1), 석곽(5), 석관(5)	열상, 군상		동지연 2014
98		무안 용정리 신촌 Ⅱ		3		1	구릉사면	석관(2)	열상		대문연 2016
99		목포 석현동 도룡		5	4	4	구릉정상	기반(5), 석곽(1), 석관(2)	3호 독립 열상, 군상		민문연 2019
100	서해연안지역 – 서북부	고창 용계리 Y지구	4			3	계곡평지	주형(2), 기반(2)	군상		전시박 1984
101		고창 운곡리 A~C지구	6		6	4	계곡평지	주형(3), 기반(9)	열상, 군상		전시박 1984
102		고창 상갑리	3				산기슭	개석(1), 기반(2)	열상		국박 1993
103		고창 죽림리	14		3	1	산기슭	탁자((9), 탁자+기반(5)	열상		원마백 1993
104		고창 죽림리 재해		1	2	1	산기슭	주형(2), 석관(1)	열상	점토대	원대박 2009
105		고창 암치리 아군			1		산기슭	기반(1)	단독		원대박 2001
106		고창 예지리 대성	1				구릉정상	개석(1)	단독		전주박 2002
107		고창 계산리			1	3	산기슭	주형(1)	단독		호문연 2004
108		고창 부곡리	2	17	1		구릉정상	주형+탁자(1), 기반+탁자(1), 기반(1), 석관(6), 석곽(3), 토광(2)	열상		호문연 2006
109		고창 죽림리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원마백 2006
110		고창 도산리	2			3	구릉정상	탁자(1), 기반(1)	군상		전주연 2010
111		고창 계당리 라군			2	7	산기슭	주형(1), 기반(1)	열상?		전라연 2014
112		고창 금평리	7	4	1	1	구릉사면	주형(1), 기반(4), 개석(3) 석곽(1), 석관(3)	열상, 군상		전라연 2015
113		고창 부곡리 강천	1				퇴적평지	탁자(1)	단독		전북연 2020
114		영광 대덕리 복룡			2	6	구릉사면	주형(1), 기반(1)	열상?		전대박 2002
115		영광 영양리 수왕		8			산기슭	석관(6)	열상		광박 2002
116		영광 영양리 영촌 나군	2		1	1	산기슭	주형(2), 개석(1)	군상	석검	광박 2002
117		영광 금계리 유봉		1	2	1	구릉사면	주형(2), 기반(1)	열상		호문연 2004
118		영광 삼효리 석전 가			1		구릉사면	주형(1)	단독		호문연 2004
119		영광 송학리 유천 가군		7	2		구릉사면	개석(1), 석곽(1)	군상		동지연 2008
120		영광 송죽리 의촌 가군	1	2		3	고갯마루	기반(1), 석곽(2)	군상		동지연 2013
121		영광 길용리 용암 라			1		계곡평지	기반(1)	단독		동지연 2014
122	서해남부지역	해남 호동리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목대박 1992
123		해남 고현리	1	1			산기슭	기반(1), 석곽(1)	열상		목대박 1998
124		해남 장소리 장소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목대박 2000
합계			267	441	161	188					

Ⅲ. 입지와 군집상 특징

1. 입지 특징[2)]

입지지형은 사람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당시 집단의 생계방식이나 생활환경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지석묘의 입지는 크게 구릉, 산기슭, 평지, 고갯마루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연지형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입지는 전체적으로 산기슭에 위치하는 양상이 확인되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表 3. 영산강유역권 권역별 입지(이영문 2002 수정 · 인용)

권역 / 입지	상류	중·하류	서해연안	서해남부	계
구릉	104(25.7%)	173(41.4%)	282(43.5%)	43(36.7%)	602(37.9%)
평지	126(31.1%)	95(22.7%)	76(11.7%)	26(22.2%)	323(20.3%)
산기슭	158(39.1%)	121(29%)	250(38.6%)	38(32.4%)	567(35.7%)
고갯마루	16(3.9%)	28(6.7%)	39(6%)	10(8.5%)	93(5.8%)
계	404(25.4%)	417(26.2%)	647(40.9%)	117(7.3%)	1,585(100%)

구릉입지는 저평한 구릉이나 산사면에서 뻗어내린 능선상의 정상부 또는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저평한 구릉지대보다는 대부분 산과 인접한 능선상에 있는 분포하는 양상이다. 분포 비율을 보면 서해연안지역 43.5%, 중·하류지역 41.4%, 서해남부지역 36.7%, 상류지역 25.7% 순으로 나타나 산지지형보다는 평야지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지입지는 산지지형의 계곡평지와 강변의 퇴적평지에 분포하고 있다. 강변의 퇴적평지보다는 계곡평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분포 비율은 상류지역 31.1%, 중·하류지역 22.7%, 서해남부지역 22.2%, 서해연안지역 11.7%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릉과 평야지대가 발달한 서해연안지역에 비율이 낮으며, 산지지형인 상류지역에 계곡평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도서지역인 신안군의 입지는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해 평지의 비율이 더욱 높다.

산기슭입지는 산사면의 경사면과 산중턱(산록하사면) 또는 경사면 끝자락에서 평지(산록하평지)로 이어지는 곳에 분포하고 있다. 산록하평지의 경우 평지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고, 평지입지보다 높은 지형이다. 분포 비율은 상류지역 39.1%, 서해연안지역 38.6%, 서해남부지역 32.4%, 중·하류지역 29% 순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편이나 평야가 발달한 중·하류지역에서는 비율이 낮다.

고갯마루 입지는 산마루와 구릉마루로 나누어지는데 산마루는 높은 지형으로 양쪽에는 경사가 심하며, 구릉마루는 세장하게 뻗은 구릉의 끝에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분포 비율은 3~8% 정도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해연안지역에서 중·하류지

2) 입지와 군집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입지의 특징이 부각 될 수 있도록 분포조사 보고서(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 2016 : 2017)에서 세분한 지형을 보다 단순화시켰다.

역으로 들어서는 곳에 많이 분포한다. 대표적으로 나주 복암리 시랑골, 함평 곡창리 신곡 다군, 무안 성동리 안골, 영광 성산리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고개 양쪽 지역에 다수의 지석묘군들이 분포하고 있어 지석묘 축조 집단의 활동영역을 추론할 수 있으며, 집단 간의 경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영문 1987:82).

이외에 산 정상부에서도 지석묘가 입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주 회진리 사직 지석묘와 함평 삼축리 연화동 지석묘가 있다. 이곳은 낮은 야산의 정상부로 주변 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2. 군집수와 밀집분포지

지석묘는 농경의 시작, 정착생활, 공동체 집단의 의례행위로써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는 안정적인 생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경지의 확대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집단 간의 경쟁은 공동체 집단 간의 영역 설정이 요구되며(손준호 2011), 이러한 영역의 표시로서 지석묘를 상정하기도 한다(김장석 2002; 이영문 2002; 김범철 2011). 따라서 지석묘의 분포상과 군집수는 당시의 문화영역이나 생활권을 파악(이영문 1996:398)해 볼 수 있다.

表 4. 영산강유역권 권역별 지석묘 군집수(이영문 2002 수정 · 인용)

권역 / 군집	상류	중·하류	서북부	남부	계
초대군집(60기 이상)	2(0.4%)	2(0.4%)	3(0.4%)	2(1.7%)	9(0.5%)
대군집(30기 이상)	5(1.2%)	12(2.8%)	4(0.6%)	3(2.5%)	24(1.5%)
중대군집(20~29기)	8(1.9%)	18(4.3%)	22(3.4%)	14(11.9%)	62(3.9%)
중소군집(10~19기)	33(8.1%)	83(19.9%)	81(12.5%)	23(19.6%)	220(12.8%)
소군집(2~9기)	243(60.1%)	249(59.7%)	384(59.3%)	64(54.7%)	940(59.3%)
단독(1기)	113(27.9%)	53(12.7%)	153(23.6%)	11(9.4%)	330(20.82%)
계	404(25.4%)	417(26.3%)	647(40.8%)	117(7.3%)	1,585(100%)

군집수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보고된 기수로 파악하였으나 실제로는 군집수에 따른 군집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예로 무안 상마정 상마리 지석묘군은 탁자식. 기반식(주형), 개석식 등 모든 형식이 확인되었는데, 지표조사에는 16기가 보고되었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최소한 24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중소군집이였던 것이 중대군집으로 바뀌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자칫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정한 지역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군집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권역별 지석묘 군집수를 보면 초대군집에서 소군집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관계를 보인다. 이는 대군집일수록 오랜기간 축조되어 왔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동시기성이라는 가정을 두면 각 군집 간에 우열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상류지역에는 화순 효산리·대신리 일대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그 주변의 비봉산 북사면부에 대군집인 대곡리 내대곡 나군이 자리한다. 이곳은 지석천변의 광활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고, 주변은 산지가 발달해 수렵과 채집은 물론 농경에도 좋은 자연지형을 갖추고 있다. 대군집은 지류인 광주 평림천 인근의 삼거동과 담양 평장리 대야 나군이 있으며, 산기슭의 경사면에 입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외에 작은 군집은 주변 지류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영산강 최상류지역인 장성·담양지역에는 중대군집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분포상에서도 그 밀집도는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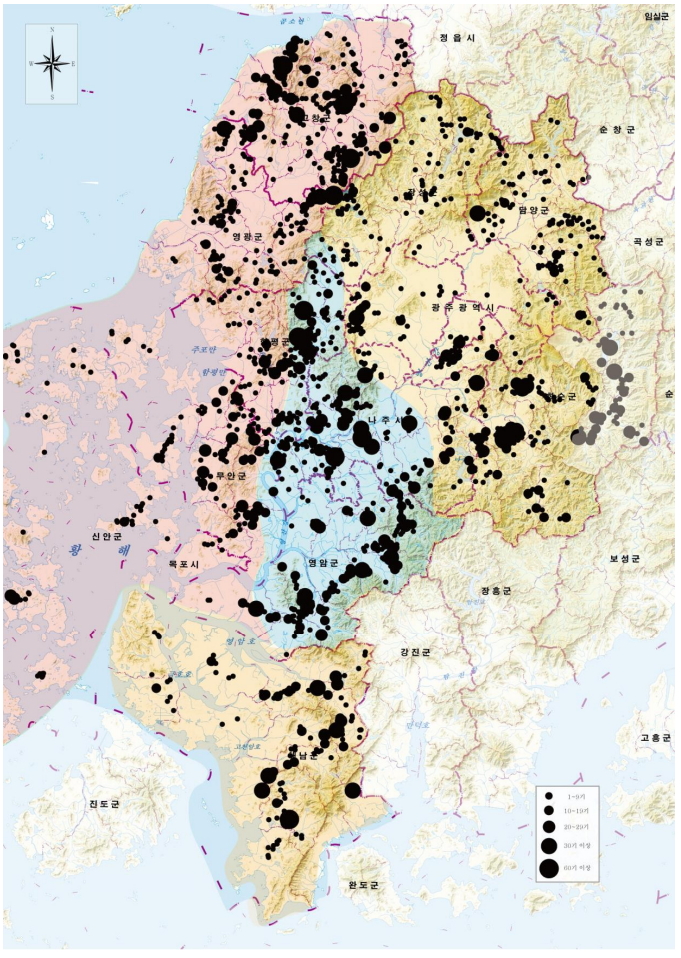


圖 1. 영산강유역권 지석묘 군집별 분포도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재편집)

중·하류지역의 초대군집은 나주 신포리와 동수동 동령 나군이 대표적인데, 대군집인 나주 운곡동 기능과 동수동 동령 바군, 운봉리 백운지석묘군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나주 다시·왕곡 일대에 초대군집과 대군집이 밀집분포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외에 함평 나산·해보 일대에 상곡리 운곡과 덕림리 백양 지석묘군이 삼포천과 영암천의 상류에 인접해 영암 장산리 주암과 회문리 회촌이 자리한다. 이곳은 영산강 본류 또는 지류의 드넓은 충적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낮은 야산의 경사면이나 구릉에 입지하고 있다.

이 군집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군집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만봉천 상류역의 나주 세지일대, 영산강 본류의 동강일대, 영암 서호면일대에 중대·중소군집이 밀집분포한다.

이외에 주목되는 곳은 함평 나산면 원선리 일대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원선마을 북서쪽의 계곡부 골짜기에 지석묘로 추정되는 석재 수십기가 산재하고 있어 초대형군집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서부연안지역은 서북부지역인 고창 죽림리일대와 상금리 일대에서만 최대밀집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금리는 상금마을에서 서쪽 고갯길을 따라 넘어가면 장성 삼계면과 이어지고 양 지역들은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 영산강유역과의 이동·전파와 관련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대군집인 고창 교흥리, 안산리 안산, 영광 성산리 등 서해안과 멀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주진천과 와탄천과 같은 비교적 큰 하천 주변의 고창 성송면 일대와 영광 백수읍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고창·영광 분지의

주위에 밀집분포한 양상인데, 동쪽은 해안, 북쪽과 서쪽은 산지를 중심으로 한 생계방식에 따라 생활환경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역인 함평·무안 일대에는 대군집 이상의 군집은 확인되지 않으나 함평천 주변의 대동·함평읍 일대와 영산강 본류와 인접한 무안 몽탄·일로 일대에 중소·중대군집이 밀집분포한다. 서해안과 인접한 운남면 일대에는 소군집 중심의 밀집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서해도서의 신안 압해 일대와 안좌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서해남부지역의 초대군집은 해남 현산면에 위치한 황산리 분토유적이 있다. 이곳은 두륜산의 남서쪽으로 뻗은 지맥의 말단부로 1.2㎞ 범위에 추정 지석묘가 산재해 있다. 대군집은 해남 읍호리 읍호 나군과 방축리가 있으며, 두 군집은 모두 산사면 말단부에 위치하고, 서해 또는 구산천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분포지는 해남군의 남쪽에 위치한 현산·화산면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으로 옥천·마산·삼산면 일대에 소·중소군집이 분포한다. 군집수로 본 분포상의 특징은 일정범위에 초대군집과 대군집이 자리하고 중·소군집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집수와 분포상을 통해 영산강유역권의 양상을 살핀 결과, 일정 지역에 중심밀집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초대군집 또는 대군집 중심으로 주변에 중·소군집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대군집 이상의 군집들은 비교적 높은 곳에 입지하고, 주변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분포지는 지석묘 축조집단이 일정한 범위를 형성하면서 지역적으로 영역권을 이루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리고 영산강유역권의 최대밀집지라 알려진 나주 다시·왕곡 일대(이영문 1987:85)에서 초대군집과 대군집이 다수 확인되는 점은 이 일대가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Ⅳ. 지석묘의 형식과 출토유물

1. 지석묘 형식과 특징

지석묘 형식은 외형상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으로 구분되고, 하부구조에서 확인되는 지석, 묘역시설, 매장시설의 위치와 축조방식 등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었다(하문식 2017:31~38). 지석묘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상에 나타나는 거대한 상석이다. 영산강유역권의 지석묘는 지역적인 분포수의 차이는 있지만 탁자식과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이 모두 확인된다. 호남지역 지석묘의 특징[3]인 탁자식지석묘와 주형지석묘, 대형기반식지석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탁자식 지석묘

탁자식지석묘는 환황해문화권을 거론할 만큼 특징적인 형식(김정배 1996; 하문식 1997)으로 서북한지역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전북 부안과 고창, 전남 영광, 함평, 무안, 영암, 해남에 이르기까지 서해안에 인접해 분포하고 있다. 경남 거창(하인수 1989)에서도 확인되지만 영남

3) 호남지역 지석묘의 특징은 일정지역에 밀집분포 하는 점,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나타나는 점, 대형 기반식의 존재, 지역에 따른 출토유물의 종류와 빈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이영문 2009). 탁자식이나 주형지석, 대형 기반식과 같은 특징적인 지석묘는 지표에서도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분포가 희박한 편이다. 내륙으로는 금강 상류지역인 장수 삼봉리와 영산강유역인 나주와 광주, 화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영산강유역권에서 확인된 탁자식지석묘는 탁자식요소를 가진 것을 포함하면 60기 정도이고, 주로 서해안과 영산강하류에 밀집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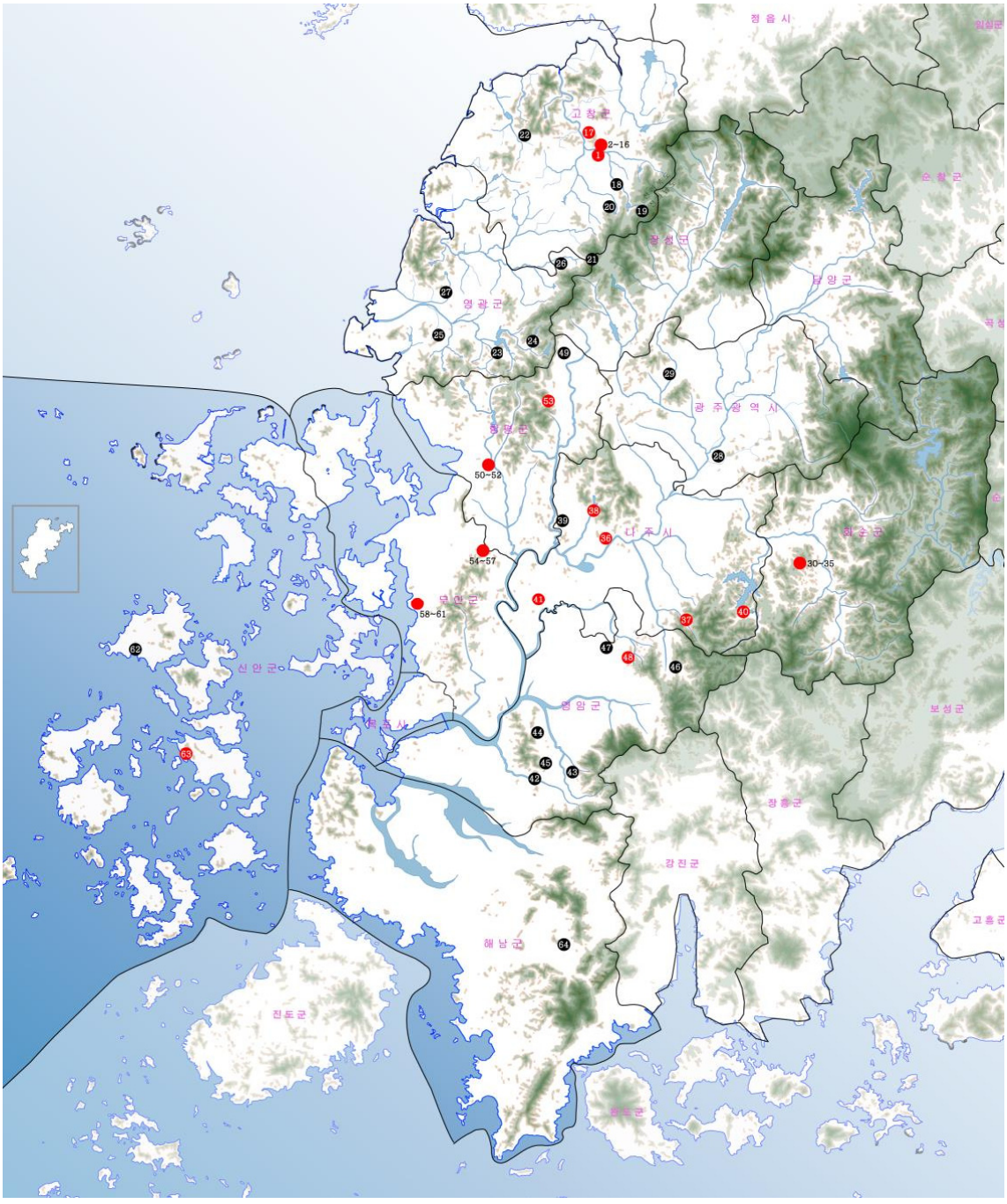


圖 2. 영산강유역권 탁자식지석묘 분포도(표 5와 연번동일)

탁자식지석묘는 평지, 구릉정상, 구릉사면, 산록하사면, 산록하평지, 고갯마루 등 모든 입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입지는 대부분이 산사면이나 구릉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산강 중·하류와 서부지역에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에 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외에 고창 상금리 7호의 경우 고갯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입지는 호남지역에서 분포된 고인돌 입지와 같은 양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고인돌 형식에 따른 입지 선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이영문 2011:112).

탁자식지석묘의 군집유형은 1기만 있는 단독 입지와 군집 내에서 일정 거리를 둔 독립 입지, 탁자식 중심의 군집, 다른 형식과 공존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영산강유역권에는 탁자식 1기와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 주형지석묘 등과 함께 열상으로 배치된 것이 많다.

단독 입지는 고창 부곡리 강촌, 나주 운봉리 백동, 나주 송촌리 송정 나, 신안 백산리 백산 가 등 총 4기이다. 고창 부곡리 강촌은 퇴적평지에 자리하고, 이외 탁자식은 산사면이나 구릉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운봉리 백동의 경우 탁자식으로 보고되었지만 구조로만 볼 때 수매의 두꺼운 판석을 세워 돌려놓았고, 매장시설 내 폭도 넓은 점 등 축조방법이 흡사 제주도의 위석식 지석묘와 닮아있다. 이는 탁자식의 변화과정이나 지역적인 특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립 입지는 영광 쌍운리 회복 가군과 함평 상곡리 운곡 지석묘군이 대표적이다. 상곡리 운곡 유적은 기존에 보고된 운곡지석묘군에 대한 시굴조사(호남문화재연구원 2007)가 이루어져 기반식 16기, 개석식 5기와 함께 주변에서 40여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5여m 떨어진 곳에 탁자식 지석묘(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4)가 독립되어 있다. 내부에서 석촉이 2점 출토되어 매장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기반식과 개석식 중심의 군집의 배열과 매장시설의 장축방향 등이 탁자식지석묘를 향하고 있어 상징지석묘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탁자식 중심의 군집은 고창 죽림리와 무안 성동리, 함평 대덕리가 있다. 고창 죽림리(원광대학교 1993)는 각 군집이 모여 초대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발굴조사 된 곳은 탁자식만 확인되고 있다. 무안 성동리는 900㎝ 크기의 초대형 지석묘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탁자식지석묘가 열상배치 되어있다. 함평 대덕리는 3기의 탁자식지석묘가 1열로 배치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형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1호에서 유경식석검, 방추차가 삼국시대 개배 등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탁자식의 묘실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에 추가장이나 제의와 같은 시설로 재활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탁자식을 중심으로 다른 형식이 공존하는 군집은 영산강유역권 탁자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반식과 공존하는 예는 나주 판촌리 남판 3호, 나주 만봉리 용반 5호, 광주 용두동 19호가 있다. 이외에 무안 상마정 1호와 같이 주형지석과 소형 탁자식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개석식과 공존하는 것은 나주 마산리 쟁기머리 3호로 탁자식의 형식은 장벽과 단벽을 1매씩 ㅁ자 형태로 짜놓은 소형석실이다. 이외에 나주 월양리에서는 상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상식에 두꺼운 벽석으로 축조한 소형석실이 1기 확인되었다. 군집내 정중앙에 자리하며, 주변에는 수십기의 석관형, 석곽형, 토광형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상류지역의 화순 대신리·효산리 지석묘군에서 조사된 탁자식은 기반식과 개석식, 위석식 등 모든 형식과 공존하고 있다.

表 5. 영산강유역권 탁자식지석묘 현황(이영문 2011 도표 수정 · 인용)

연번	권역	유적명	입지	군집형태	상석규모(cm)			벽석 수	조사	비고
					장축	단축	두께			
1	서북부	고창 도산리	구릉정상	군집	350	310	38	2매(장벽)	발굴	
2		고창 죽림리 2320호	산기슭	군집	190	175	60	3매(장벽)	발굴	
3		고창 죽림리 2322호	산기슭	군집	275	152	60	10매(장벽8,단벽2)	발굴	
4		고창 죽림리 2323호	산기슭	군집	220	135	60	8매(장벽6,단벽2)	발굴	
5		고창 죽림리 2324호	산기슭	군집	310	160	50	6매(장벽4,단벽2)	발굴	
6		고창 죽림리 2325호	산기슭	군집	170	105	48	7매(장벽5,단벽2)	발굴	
7		고창 죽림리 2326호	산기슭	군집	320	175	90	6매(장벽3,단벽3)	발굴	
8		고창 죽림리 2327호	산기슭	군집	224	140	60	7매(장벽4,단벽3)	발굴	
9		고창 죽림리 2328호	산기슭	군집	312	132	83	5매(장벽3,단벽2)	발굴	
10		고창 죽림리 2329호	산기슭	군집	172	120	40	8매(장벽6,단벽2)	발굴	
11		고창 죽림리 2330호	산기슭	군집	210	130	50	7매(장벽4,단벽3)	발굴	
12		고창 죽림리 2333호	산기슭	군집	270	155	80	8매(장벽4,단벽4)	발굴	
13		고창 죽림리 2331호	산기슭	군집	224	197	52	4매(장벽2,단벽2)	발굴	
14		고창 죽림리 2428호	산기슭	군집	360	200	70	3매(장벽2,단벽1)	발굴	
15		고창 죽림리 2443호	산기슭	군집	350	310	38	2매(장벽)	발굴	
16		고창 죽림리 2509호	구릉정상	군집	340	240	150	2매(장벽)	지표	
17		고창 아산면 용계리	계곡평지	군집	575	330	154	4매(장벽2,단벽2)	발굴	
18		고창 부곡리 강촌	퇴적평지	1기	285	230	145	5매(장벽4,단벽1)	발굴	
19		고창 은사리 다군 3호	산기슭	군집	360	200	90	4매(장벽)	지표	
20		고창 초내리 4호	구릉정상	군집	450	420	170	5매(장벽4,단벽1)	지표	
21		고창 상금리 7호	고갯마루	군집	200	160	57	3매(장벽2,단벽1)	지표	
22		고창 하련리 가군 4호	산기슭	군집	220	(160)	40	2매(장벽)	지표	
23		영광 쌍운리 회복 가군 7호	산기슭	군집	280	200	90	2매(장벽2)	지표	
24		영광 삼학리 왕촌	고개마루	2기	304	130	52	2매(장벽2)	지표	
25		영광 설매리 동고 4호	구릉사면	군집	250	200	85	3매(장벽2,단벽1)	지표	
26		영광 복평리 석정 나군 7호	구릉정상	군집	510	300	75	1매(장벽)	지표	
27		영광 죽사리 명산 가군 5호	산기슭	군집	200	180	138	1매(장벽)	지표	
28	상류	광주 산수동 용산 1호	구릉정상	군집	370	280	60	2매(장벽)	지표	
29		광주 용두동 19호	구릉정상	군집	340	220	120	3매(장벽2,단벽1)	지표	
30		화순 대신리 마당바위 12호	산기슭	군집	350	250	50	4매(장벽2,단벽2)	발굴	
31		화순 대신리 지동	계곡평지	군집				4매(장벽2,단벽2)	지표	
32		화순 대신리 지동	계곡평지	군집				6매(장벽4,단벽2)	지표	
33		화순 대신리 지동C군 28호	계곡평지	군집				5매(장벽3,단벽2)	발굴	
34		화순 대신리 지동C군 29호	계곡평지	군집				3매(장벽1,단벽2)	발굴	
35		화순 대신리 감태바위 24호	산기슭	군집				3매(장벽2,단벽1)	발굴	
36	중하류	나주 회진리 사직 1호	산기슭	군집	405	280	115	3매(장벽2,단벽1)	발굴	

연번	권역	유적명	입지	군집 형태	상석규모(cm)			벽석 수	조사	비고
					장축	단축	두께			
37		나주 만봉리 용반 Ⅱ 5호	평지	군집	250	195	85	3매(장벽2,단벽1)	발굴	
38		나주 운봉리 백동	산기슭	1기	412	328	82	12매(장벽8,단벽4)	발굴	
39		나주 송촌리 송정 나	산기슭	1기	230	160	90	3매(장벽2,단벽1)	지표	
40		나주 마산리 쟁기머리 3호	평지	군집	320	260	40	4매(장벽2,단벽2)	발굴	
41		나주 월양리 13호	고갯마루	군집				4매(장벽2,단벽2)	발굴	
42		영암 독천리 독천	산기슭	군집	210	155	30	3매(장벽2,단벽1)	지표	
43		영암 용산리 용산 가군 1호	평지	군집	330	120	30	2매(장벽)	지표	
44		영암 소산리 소흘 가군 2호	평지	군집	545	415	180	2매(장벽)	지표	
45		영암 화송리 송정	구릉정상	군집	310	240	25	3매(장벽2,단벽1)	지표	
46		영암 용흥리 옥포 12호	평지	군집	320	180	110	2매(장벽)	지표	
47		영암 행정리 광암 가군 2호	구릉정상	군집	220	200	60	4매(장벽2,단벽2)	지표	
48		영암 장산리 주암 가군	산기슭	군집	280	160	125	6매(장벽4,단벽2)	발굴	
49		함평 용암리 연화 3호	구릉정상	군집	270	200	120	2매(장벽)	지표	
50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1호	산기슭	군집	268	172	66	4매(장벽2,단벽2)	발굴	
51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2호	산기슭	군집	284	144	52	2매(장벽1,단벽1)	발굴	
52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3호	산기슭	군집	286	238	62	3매(장벽2,단벽1)	발굴	
53		함평 상곡리 운곡 2호	계곡평지	독립	289	281	68	3매(장벽2,단벽1)	발굴	
54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1호	계곡평지	군집	534	380	102	5매(장벽4,단벽1)	발굴	
55	서부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3호	계곡평지	군집	280	246	82	6매(장벽4,단벽2)	발굴	
56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4호	계곡평지	군집	459	354	89	5매(장벽3,단벽2)	발굴	
57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8호	계곡평지	군집	328	232	64	4매(장벽2,단벽2)	발굴	
58		무안 상마리 상마정 6호	구릉사면	군집	314	254	58	2매(장벽2)	발굴	
59		무안 상마리 상마정 9호	구릉사면	군집				1매(장벽1)	발굴	
60		무안 상마리 상마정 15호	구릉사면	군집				2매(장벽2)	발굴	
61		무안 상마리 상마정 26호	구릉사면	군집					발굴	파괴
62	서부 도서	신안 백산리 백산 가	구릉정상	1기	460	340	30	2매(장벽)	지표	
63		신안 안좌 방월리 B군 8호	산기슭	군집	202	126	56	6매(장벽3,단벽3)	시굴	
64	남부	해남 해남 신흥리 감당	산기슭	군집	220	200	60	2매(장벽)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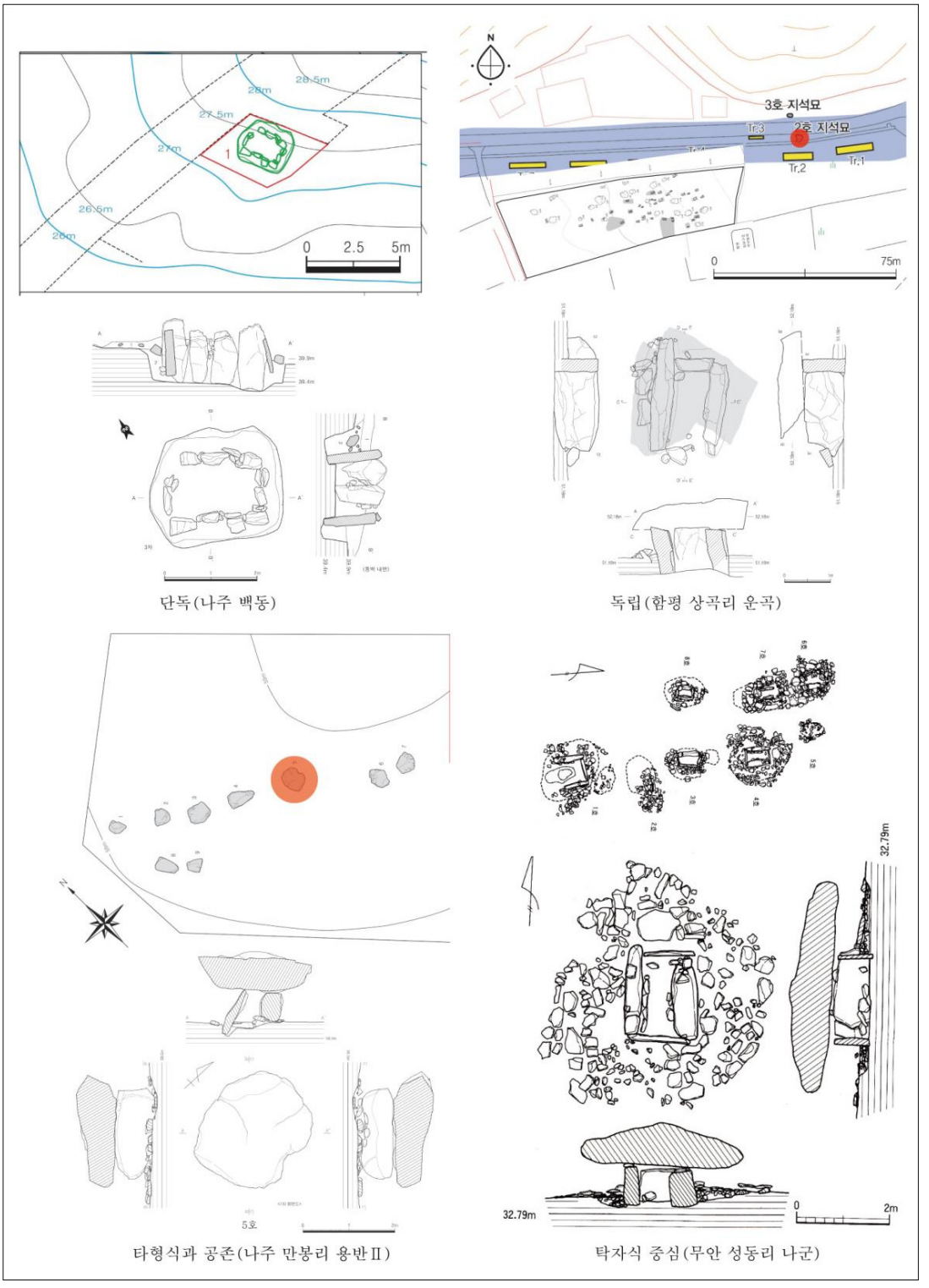


圖 3. 영산강유역권 탁자식 지석묘 군집양상

2) 주형지석묘

주형지석묘는 지역성이 강한 지석묘로 고창·영광지역인 서북부지역에 밀집분포하고 있다. 주형지석묘의 분류 기준은 지석의 높이가 50㎝ 이상이면서 사각형의 장주형이나 제형으로 다듬은 할석이 4곳에 배치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선기 1997; 유태용 2007; 이영문 2011). 외형상 기반식으로 구분되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주형지석으로 확인된 경우도 다수 있다. 그동안의 분류기준과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지석의 높이가 50㎝이상이면서 지표면과 상석 하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사각형이나 제형으로 다듬은 할석이 4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4].

영산강유역권에서 확인된 주형지석묘는 82개소 120기이다. 분포는 주진천 중류지역인 고창군 아산면, 해리면 일대와 상류의 성송면 암치리, 상금리일대. 와탄천 상류지역의 영광 대마면, 백수읍 일대에 밀집분포하며, 노령산맥 인접지역에 더 밀집되어 있는 양상이다(김선기 1997). 이외에 노령산맥과 인접한 장성과 서부지역인 함평, 무안, 영산강유역의 광주, 영암, 신안 안좌도와 압해도에도 분포하고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입지는 구릉과 산기슭, 평지, 고갯마루 등 모든 곳에서 확인되며, 구릉정상부나 구릉사면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평지나 고갯마루에도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구릉이 발달한 서해안지역의 입지와 비슷한 양상이다.

군집은 1기만 있는 단독, 군집내에서 일정 간격을 둔 독립, 군집 내 중앙과 외곽에 배치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주형지석묘만 군집한 경우는 없으며, 대게 탁자식이나 기반식, 개석식과 같은 다른 형식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입지는 나지막한 구릉정상, 산사면 능선의 정상부 등 비교적 높은 곳에서 주변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평지에 위치한 경우도 주변에 있는 지석묘군보다 비교적 높은 지점에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창 계당리 나, 고창 산수리 다, 영광 삼효리 석전 가 유적이 있다.

군집 내에서 독립된 지석묘는 모두 지표에서 확인된 것으로 대표적인 유적은 함평 원선리 유촌과 용암리 신성, 장성 부성리 절암 지석묘군이 있다. 함평 원선리 유촌은 계곡평지에 29기가 4열로 배치되어 있다. 주형지석으로 추정되는 지석이 노출된 29호는 군집과 10여m 떨어진 곳에 독립되어 있다.

군집 내 중앙에 있는 지석묘는 구릉정상에 위치한 군집에서 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영광 성산리와 영암 학계리이다. 영광 성산리 유적은 46기의 지석묘가 4열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앙에 주형지석묘인 26호가 자리한다. 이러한 배치는 탁자식지석묘나 상징지석묘와 같은 입지를 보인다(이영문 2011:131).

군집 내 외곽에 있는 지석묘는 군집에서 치우쳐 있거나 열상의 끝에 배치되어 있다. 발굴조사된 고창 금평리 1호와 영광 대덕리 복룡, 무안 상마리 상마정 1호가 대표적이며, 군집 내에서 입지적인 차이를 보인다. 고창 금평리는 산사면의 등고선과 평행하게 열상배치되어 있는데, 주변의 다른 형식의 지석묘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 하지만 영광 대덕리 복룡 지석묘군은 나지막한 능선위에 위치하는데 주형지석묘가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무안 상마리 상마정의 경우 등고선과 평행을 이룬 군집 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 군집 내에서 꼭 탁월한 입지를 선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4) 발굴조사나 지표조사시 확인되는 주형지석묘는 지석이 4곳이 아니지만 지석의 높이가 50㎝ 이상이면서 사각형 또는 제형으로 다듬은 지석이 확인되는 것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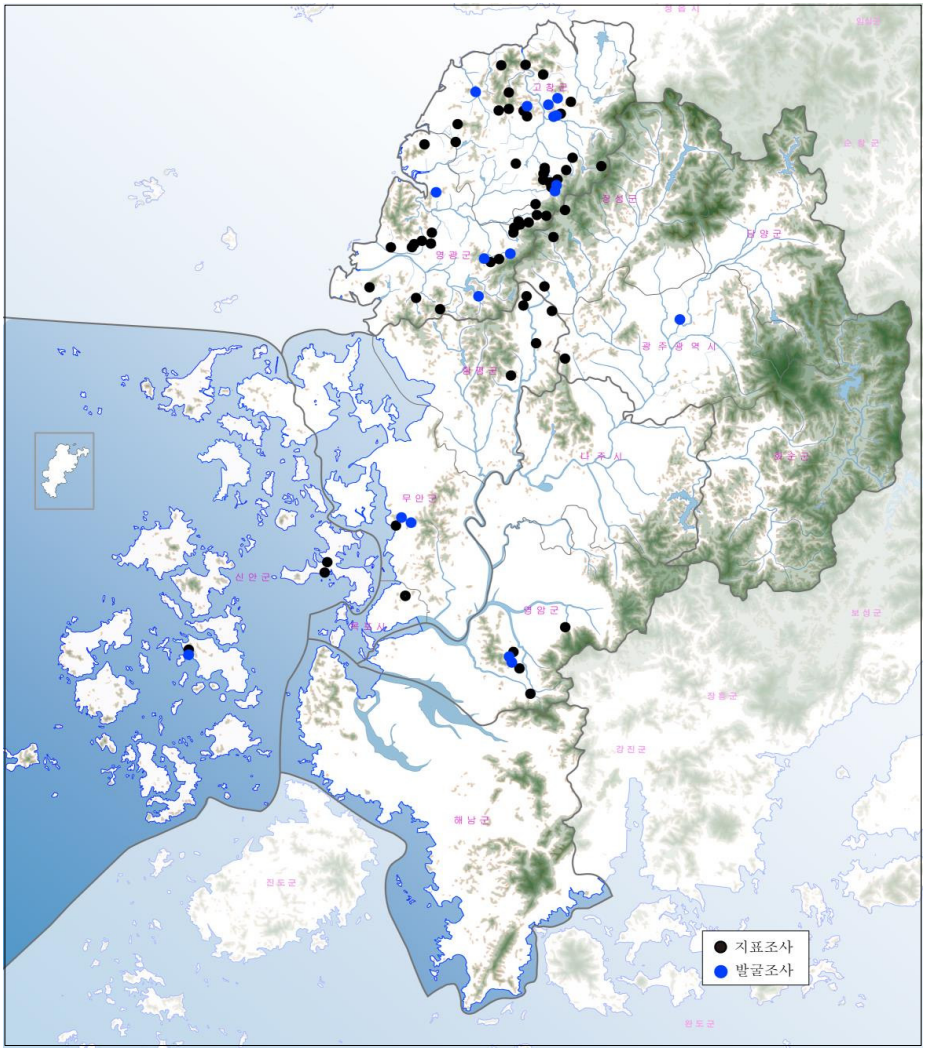


圖 4. 영산강유역권 주형지석묘 분포도

주형지석묘의 특징은 상석의 형태가 장방형, 타원형, 제형, 괴석형 등 다양하게 확인되지만 단면 형태가 판석형에 가까운 장방형이 많아 탁자식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석의 상면이 되로록 수평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영광 금계리 유봉 1호와 고창 죽림리 재해 2433호의 경우 지석의 굴광을 이용해 높낮이를 맞추었으며, 영광 영양리 영촌 2호는 상석과 지석 사이에 보강석을 채워넣었다. 이외에 고창 산수리 지석묘는 상석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지석을 더 크고 높게 만들어 상석의 상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지석은 고창 금평리 1호나 영광 삼효리 석전 가, 금계리 유봉 1호처럼 4개가 기본이나 무안 평산리 평림 5호에서 9개, 무안 상마리 상마정 1호에서 6개가 배치되기도 한다. 지석의 형태에 있어서도 고창 상금리나 영광 성산리 평금에서와 같이 장주형의 할석과 장방형의 대형지석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상석이 1m 이상 두꺼워지고, 지석은 4개 이상인 것이 많다. 주형지석묘는 탁자식지석묘의 분포권과 일치하고

있어 탁자식과 함께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김선기 1997)하고 있다. 탁자식의 형식은 남쪽으로 갈수록 지석이 낮아지고, 상석이 1m 이상 두꺼워지는 특징(이영문 2011)을 갖고 있는데, 남쪽에서 확인된 주형지석묘도 지석의 높이가 낮아지고, 상석도 두꺼워지는 특징을 보인다.



圖 5. 영산강유역권 주형지석묘 일괄

3) 대형 기반식지석묘

대형 기반식지석묘는 수십에서 수백 톤에 이르는 거대한 상석을 가진 지석묘로 외형적으로 다른 지석묘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다. 또한 매장시설이 없는 것이 많아 무덤의 성격이 아닌 재단고인돌(이융도, 하문식 1989)이나 상징적인 기념물(하문식 1998), 재단 또는 묘표석(이영문 1994)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혈연집단이나 지역집단의 기념물, 가매장시설(이영문 2011)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 기반식지석묘 중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상징적지석묘로 뚜렷히 구분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5].

영산강유역권에서 발굴조사 된 상징지석묘는 32개군 39기가 확인된다[6]. 입지는 평지, 산록하사면, 구릉정상, 구릉사면 등에서 확인되나 고갯마루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규모는 길이가 400㎝ 이상이면서 두께가 200㎝ 내외인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석은 괴석형의 대형 상석에는 7~12매의 지석이 확인되고, 장방형 상석에는 자연석이나 할석 또는 주형지석을 4~5매를 고이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상의 특징은 매장시설이 있는 지석묘와는 규모와 형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군집양상은 배치와 입지 상태에 따라 1기만 있는 단독, 군집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 군집 내 중앙배치, 군집 내 외곽 배치로 구분된다.

단독입지는 대부분 1기이지만 2기가 함께 배치되는 것도 있다. 발굴된 지석묘는 광주 덕림리 수성, 화순 서태리 태곡 나, 나주 장산리 장사, 영암 회문리 녹암, 함평 곡창리 신곡 나군에서 단독으로 1기씩만 입지한다. 나주 만봉리 용반 Ⅲ군에서는 2기가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다. 광주 덕림동 수성은 산기슭 말단부인 산록하사면에 위치하며, 길이 802㎝, 두께 200㎝ 크기의 괴석형의 기반식지석묘이다. 지석은 대형지석과 소형지석을 둘러가며 고였다. 나주 장산리 장사 지석묘는 구릉정상부에 472×436×264㎝ 규모에 12매의 지석을 고인 기반식지석묘이다. 내부에는 할석을 깔았으며, 원형의 구획석이 있다. 영암 회문리 녹암 지석묘는 평지에 위치하며, 길이가 708㎝, 두께가 106㎝이고, 지석은 5매가 고여있다. 나주 만봉리 용반은 2기가 마주보고 있다. 3호와 8호가 여기에 해당하며, 모두 기반식지석묘이다. 3호는 매장시설이 확인 지석묘 군집 내에서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8호는 남동쪽 20여m 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3호는 구획석과 묘역석을 갖추고 있으나 8호는 지석을 타원형으로 둘러가면 고인 구조이다.

독립입지는 열상 또는 군상을 이루는 군집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대부분 일반적인 지석묘들보다 높은 곳에 축조되는 양상이다. 발굴된 유적은 함평 상곡리 운곡, 나주 영평리 복룡, 나주 송학리 유천 가군 등이 있다. 함평 상곡리 운곡 지석묘는 시굴조사를 통해 60여기가 확인되었는데 동쪽으로 40여m 떨어진 곳에 탁자식지석묘가 1기, 이곳에서 북쪽으로 10여m 떨어진 곳에 452×366×270㎝ 크기의 기반식지석묘가 자리한다. 지석은 크고 작은 14개의 할석을 이용해 타원형으로 고였다. 특히 대형군집을 바라볼 수 있는 인근에 탁자식과 상징지석묘가 함께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나주 영평리 복룡 지석묘는 1기만 확인되는데 조사 시 석관묘와 이격하여 독립되어 있는

5) 상징지석묘는 상석 두께 2m 이상인 괴석형 상석, 상석 두께 1.5~2m 정도인 잘 정제된 타원형 상석, 상석 두께 1~1.5m의 직육면체형 상석들이 해당하고, 대형 지석이나 주형지석을 한 기반식지석묘와 대형 탁자식도 포함될 수 있다(이영문 2011:132~133).

6) 나주 운봉리 백운 46호는 묘역시설만 확인되었는데 규모와 지석의 간격이 2m 이상인 점으로 보아 대형지석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포함시켰다.

양상이다.

군집 내 중앙입지는 상징지석묘가 지석묘 군집에서 중앙에 자리하는 것으로, 발굴된 것은 목포 석현동 도룡이 있다. 이 유적은 구릉정상부에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정상부에는 3호 지석묘만 축조된다. 3호는 지석 4매가 고이고 있으며, 구획석이 돌아간다. 일반적인 지석묘와 규모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입지에 따라 상징적인 지석묘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표조사 유적으로는 영광 성산리와 화순 벽송리가 대표적이다. 벽송리는 기반식이고, 성산리는 주형지석묘의 형태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집 내 외곽입지는 열상배치와 연결되는 것과 열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구분된다. 열상 내 배치는 광주 매월동 나군과 고창 금평리 지석묘가 있다. 열상 외 배치는 나주 운봉리 백운 지석묘가 있다. 광주 매월동 지석묘 나군은 구릉정상부에 위치한다. 1호는 지석을 3매 고인 기반식지석묘로 보다 높은 곳에 자리한다. 규모는 320×220×160㎝로 비교적 작은 상징지석묘에 속하지만 군집에서 확인된 지석묘의 규모에 비해 1.5배 내지 2배가 큰 편이다. 나주 운봉리 백운 지석묘는 계곡평지에 49기의 지석묘가 열상 또는 군상을 이루고 있다. 46호는 묘역시설과 지석만 확인되는데 지석의 범위가 2m 이상인 점으로 보아 대형상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열상 배치에서 방향을 달리하여 외곽에 배치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는 상징지석묘의 요소를 가진 상석도 확인된다.

이외에 군집 내에서 다수의 상징지석묘가 존재하고 있다. 나주 풍산리 도래 가군과 화순 대신리 지동 지석묘군 등이 대표적이다. 두 유적은 다른 양상인데 나주 풍산리 도래 가군은 입지와 규모에서 다른 지석묘와 차이를 보이지만 화순 대신리 지동은 큰 차이가 없다. 나주 풍산리 도래 가군은 7기가 조사되었는데 3기에서 상징지석묘적 요소가 나타난다. 1호, 4호. 7호는 지석묘 두께가 모두 200㎝ 내외로 열상으로 확인된다. 매장시설이 확인된 지석묘는 보다 작은 규모이며, 상징지석묘에 비해 낮은 곳에 축조된다. 지석은 비교적 큰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7호의 경우 9매의 지석을 구획석을 따라 타원형으로 둘렀으며, 1매는 중앙에 배치하였다.

대형 기반식지석묘는 무덤의 기능을 가진 상석과 뚜렷히 구분되는 상징지석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군집양상에 있어 단독으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묘역의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며, 군집 내 중앙에 배치되기도 한다. 모든 입지지형에서 확인되나 군집 내 다른 지석묘 보다 높은 지형에 있다. 단독으로 확인된 상징지석묘는 구릉과 평지에서 확인되지만 비교적 주변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탁자식·주형지석묘, 대형 기반식지석묘는 무덤으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주로 매장시설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집내에서 위치나 입지로 보아 묘구를 표시하는 기념물로써 의례공간이나 가매장시설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으로 입지하는 경우에는 집단간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여러 지역집단간의 공동 기념물로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영문.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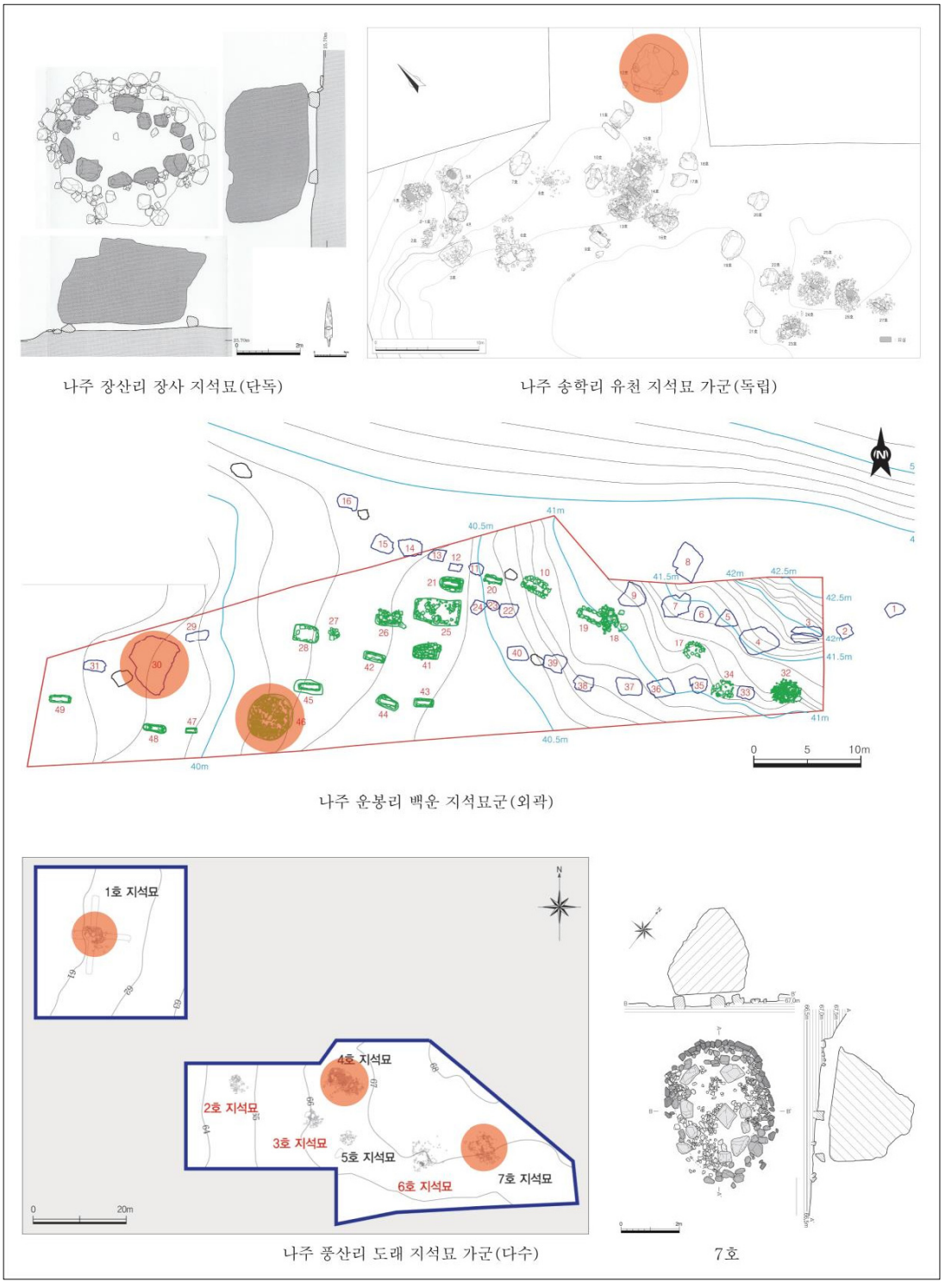


圖 6. 영산강유역권 상징지석묘 군집양상

2. 지석묘 출토유물

영산강유역권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201점[7]으로 남해안지역이나 보성강유역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량을 보인다. 석촉이 107점으로 많은 수량을 보이나 대부분이 묘역시설이나 주변에서 출토된 것이다. 다음으로 삼각형석도 22점, 석검 21점, 옥류 15점이다. 유물은 발굴된 유적 수에 차이는 있지만 중·하류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석묘의 대표적인 부장유물인 석검은 일단병식 9점, 유경식 12점이 출토되었다. 함평 덕림리 백양 지석묘군을 제외하고는 각 유적에서 1점씩만 출토된다. 유경식석검 중 세장한 경부를 가진 나주 랑동과 운곡동 안성 출토품은 각형토기와 관련된 석검으로 서해안을 통한 교류(이영문 1990:132)를 상정할 수 있는데, 아직 뚜렷한 유적이나 문화요소는 없다. 함평 덕림리 백양 12호 출토 일단병식석검은 병부가 의기화 된 석검인데 이는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지역의 특징적인 형식으로 문화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촉은 28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묘역시설이나 묘실 주변에서 수습된 것이다. 석촉은 광주 덕림동 덕림 4호의 묘실 바닥에서 출토된 이단경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단경식이다. 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된다고 해서 모두 전기로 올려볼 수는 없지만 이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에서 부장유물로 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외에 석기로는 석도와 석부, 방추차 등이 있으며, 대부분 묘역시설이나 외부에서 출토되고 있다. 석도는 총 22점으로 영암 서호리 서소호 가군 A-1호 묘역에서 출토된 주형의 반월형석도를 제외하면 모두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삼각형석도이다. 석부는 합인석부, 편인석부, 유구석부가 있다.

表 6. 영산강유역권 지석묘 출토유물

유물구분 \ 권역구분		상류	중·하류	서해연안			서해남부	계
				서북부	서부	서부도서		
유적수		39	48	22	12		3	**124**
석검	일단병식	1	7					**9**
	유경식	3	7	1	1			**12**
석촉	이단경식	1						**1**
	일단경식	40	56	2	6		2	**106**
석도	반월형석도		1					**1**
	삼각형석도	1	14	1	4		1	**21**
석부	합인석부	1	4	1		1	1	**8**
	편인석부	2	7					**9**
	유구석부		4		1			**5**
기타	방추차	2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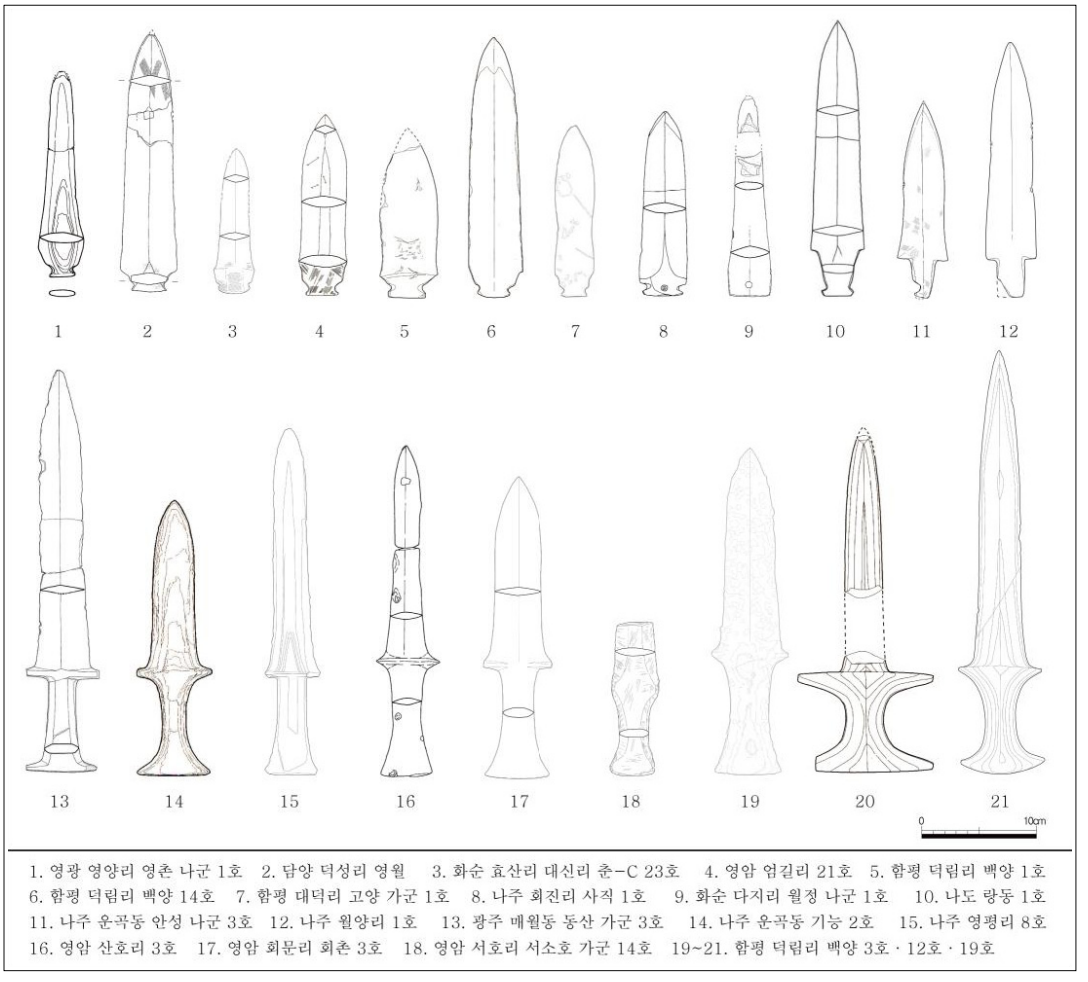
7) 출토유물의 수량은 지석묘 내부 또는 매장시설 주변에서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석묘와 떨어져 지표수습된 유물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되는 유물의 수는 이보다 더 많다.

유물구분 \ 권역구분		상류	중·하류	서해연안			서해남부	계
				서북부	서부	서부도서		
청동기	세형동검		2					2
	청동방울		1					
옥	곡옥		1		1			2
	관옥	1	10					11
	환옥		2					2
토기류	채문토기		1					1
	적색마연		2					2
	흑색마연		1					1
	점토대	3	3	1				7
계		52	122	5	13	1	4	197

청동기는 세형동검과 청동방울이 있다. 세형동검은 영암 장천리 1호와 나주 운곡동 안성 나군 1호 주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청동방울은 영암 서호리 소서호 가군 6호의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고흥 안치 지석묘 3호의 묘역시설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다. 청동방울과 관련해서 동이전(東夷傳)의 한전(韓傳)의 기록을 참고하면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방울이 후대유물일 지라도 지석묘가 축조된 이후에도 이곳이 그만큼 신성시되었으며, 의례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옥은 곡옥과 관옥, 소형의 환옥이 있다. 영암 망산리 5호에서 곡옥 1점과 관옥 9점이 공반되었으며, 무안 월암리에서는 곡옥이 1점 출토되었다. 함평 덕림리 백양 19호에서는 소형의 환옥이 2점 출토되었으며, 화순 용강리 3호와 나주 동수동 동령 바군 1호에서는 관옥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대부분 묘역시설이나 주변에서 편으로 확인된다. 채문토기는 나주 회진리 사직에서 1개체분이 출토된 바 있으며, 점토대토기는 고창 죽림리 재해 2433호 주변에서 수습되었다. 영암 엄길리 5호에서는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를 지석 옆에 매납하였다. 함평 덕림리 백양 24호에서 삼각점토대편과 적색마연토기가 공반되었다. 이외에 장성 삼태리 유적에서는 묘실 바닥의 동쪽에서 구순각목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주목된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11기가 함께 조사되었으며, 가장 높은 구릉정상부에 지석묘 1기가 단독으로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른시기의 지석묘로 판단된다.



1. 영광 영양리 영촌 나군 1호 2. 담양 덕성리 영월 3. 화순 효산리 대신리 춘-C 23호 4. 영암 엄길리 21호 5. 함평 덕림리 백양 1호
6. 함평 덕림리 백양 14호 7.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1호 8. 나주 회진리 사직 1호 9. 화순 다지리 월정 나군 1호 10. 나도 랑동 1호
11. 나주 운곡동 안성 나군 3호 12. 나주 월양리 1호 13. 광주 매월동 동산 가군 3호 14. 나주 운곡동 기능 2호 15. 나주 영평리 8호
16. 영암 산호리 3호 17. 영암 회문리 회촌 3호 18. 영암 서호리 서소호 가군 14호 19~21. 함평 덕림리 백양 3호 · 12호 · 19호

圖 7. 영산강유역권 지석묘 출토 마제석검

Ⅴ. 맺음말

이상으로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분포양상과 함께 특징적인 지석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석묘의 분포는 최근 이루어진 지표조사 결과와 기존 문헌자료를 토대로 총 정리하고자 하였다. 영산강유역권의 범위는 본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같은 지석묘 문화를 가진 고창과 영광지역을 포함하였으며, 본 발표의 내용상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영산강 수계를 따라 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안도서지역과 해남지역도 함께 살펴보았다.

지석묘의 분포양상은 9,600기 이상이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분포현황과 분포수에 따른 군집양상을 살핀 결과 초대군집이나 대군집을 중심으로 중·소군집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상은 일정한 지역에 더욱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나주 다시·왕곡 일대이다.

지석묘의 형식과 특징은 기존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호남지역의 특징적인 지석묘인 탁자식지석묘와 주형지석묘, 대형 기반식지석묘(상징지석묘)에 대해 입지와 군집, 배치상태 등을 살폈다. 그 특징을 요약 하면 영산강유역권 지석묘는 다양한 형식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지석묘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석곽형, 석관형, 토광형 등 매장시설만 확인되는 경우가 더 많다. 탁자식지석묘과 주형지석묘는 그 분포범위가 서부도서지역인 신안과 남부지역인 해남을 포함해 영산강 상류까지 미치고 있다. 탁자식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상석이 두꺼워지고, 석실의 높이는 낮아지고 있다. 주형지석묘는 지석의 형태와 높이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탁자식과 동일한 분포권을 하고 있으며, 남쪽이나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석이 두껍고, 지석의 높이도 낮아지고 있어 탁자식의 이동·전파와 형식변화를 함께 하고 있는 듯하다.

유물은 석기류와 청동기, 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지만 타지역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석검의 형식으로 보아 서해안과 남해안지역과의 교류를 상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이른시기의 석촉이나 토기편이 묘실 내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지석묘의 다양한 구조와 형식, 축조배경이나 사회문제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못하고, 최근 자료를 집성하고 정리하는데 그쳤다. 이는 앞으로 나아갈 지석묘 연구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진표, 2016, 『전남지역 묘역지석묘의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석현, 2015, 『동북아시아 대형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기, 1997, 「고창지역 주형지석을 갖는 지석묘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5집.

김정배, 1996, 「韓國과 遼東半島의 支石墓」, 『先史와 古代』 7, 한국고대학회.

김진환, 2012,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재명, 2011, 『영산강유역의 지석묘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준호, 2011, 「청동기시대 전쟁의 성격」, 『고고학』 10.

유태용, 2007, 「호남지역 석주식 지석묘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28호.

이동희, 2012, 「전남·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와 지역성」, 『고조선단군학』 29집.

이영문, 1987, 「전남지방의 지석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문, 1990, 「호남지방 지석묘 출토유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고학보』 25.

이영문, 1994, 「지석묘의 기능적 성격에 대한 검토」, 『배종무총장퇴임기념논총』.

이영문, 1996, 「유적 분포로 본 문화영역과 생활권」, 『도서문화』 14.

이영문, 1997, 「전남지방 출토 마제석검에 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24.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이영문, 2004, 「영산강유역 지석묘 문화의 성격」, 『문화사학』 21호.

이영문, 2011, 「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 『한국청동기학보』 8호.

이융조·하문식, 1989, 「한국 고인골의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제단고인돌 형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63.

조진선, 1997, 「지석묘의 입지와 장축방향 선정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6.

조진선, 1999, 「호남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9.

조진선, 2004, 「전남지역 지석묘의 연구현황과 형식변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43호.

최성훈, 2015, 「전남 동남부지역 지석묘사회 변천과정」, 『한국청동기학보』 17.

平郡達哉, 2004, 『전남지역 지석묘 사회 전개과정에 대한 일고찰』,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문식, 1997, 『동북아세아 고인돌 문화의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문식, 2017, 「분묘의 형태와 구조」, 『청동기시대 고고학 4-분묘와 의례』,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하인수, 1989, 「거창 내오리 지석묘 지표조사 보고」, 『가야통신』 18.

황재훈, 2006, 「전남지역 지석묘의 형식분류와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53.

05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이 종 철
전북대학교박물관

Ⅰ. 머리말
Ⅱ. 유적의 분포와 연구 성과
Ⅲ. 문화적 특징
Ⅳ. 맺음말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이 종 철 (전북대학교박물관)

Ⅰ. 머리말

만경강 유역권이 독자적인 고고학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의 발굴조사 성과라고 하여도 무리는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쪽의 미륵산에서 남쪽의 모악산 사이에 펼쳐져 있는 분지형 공간을 '만경강 유역 문화권'으로 설정(최완규 2016: 11)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문화권의 성격은 청동기와 철기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철기시대의 문화상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에도 독자적인 문화집단 또는 지역집단으로 대표되는 문화상의 존재를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경강은 전라북도 동쪽에서 서쪽을 가로지르는 74㎞의 전형적인 곡류하천이며, 대조(大潮) 시에는 삼례부근까지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감조하천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진안군과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운장산 자락의 동상면 사봉리 밤샘에서 발원하여 완주, 전주, 익산, 김제, 군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강의 상류는 산악지대를, 중류와 하류는 야트막한 구릉지대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류는 전라북도를 남북으로, 지류는 동서로 가르는 지형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형세는 강의 남쪽과 북쪽에 펼쳐진 평지(저지대 포함)를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하여 다양한 문화집단의 시대별 양상을 시공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밭 100이랑을 뜻하는 경(頃)이 만(萬)개나 되어 100만 이랑을 뜻하니, 기름진 농토로 펼쳐진 드넓은 곳[萬頃]이라는 의미와 잘 맞닿아 있다.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시시대 문화는 지난 2016년(호남고고학회)과 2019(한국청동기학회)년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그 시간축은 청동기시대 조기~점토대토기문화 단계로 우리나라 고고학 편년상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또는 철기시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19년~2020년 사이에 특별한 유적의 조사 성과가 없는 한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연구를 대표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재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발표자는 2019년 만경강 학술대회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연구자들의 주장과 그에 따른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2020년에 실시한 황방산 일원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2019년~2020년 사이에 조사된 유적들에서 확보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좀 더 밀도 있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번 발표의 시간적 범위는 청동기시대이며 조기~후기의 4분기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동서로 형성된 만경강 본류와 남쪽 및 북쪽에 각각 형성된 각 지류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 북쪽 경계는 만경강의 지류인 탑천과 금강의 지류인 산북천 사이로, 남쪽 경계는 신평천-(김제)-두월천으로 설정한다. 강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류권·중류권·하류권으로 구분하고, 하천과 하천이 경계를 이루는 공간을 구역화하여 고고학적 양상을 대조하기 위한 섹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유적의 분포와 연구 성과

1. 유적의 분포

1) 만경강 유역의 공간적 구분

만경강은 동부 산악지대의 계곡을 따라 서진하여 봉동에 이르는 구간을 상류권, 봉동에서 만경대교(고척천과 탑천 합류지)까지 사행하는 구간을 중류권, 만경대교에서 서해 초입까지를 하류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圖 1).

表 1. 만경강 유역의 공간 구분

구분	만경강		
	하류권	중류권	상류권
구간(W-E)	서해 초입~탑천	탑천~봉동	봉동~동상면 밤샘
지형적 특징	저지대, 독립 산지 간석지	평지성 구릉, 저지대 사행곡류	산악지대 계곡, 곡간평지
문화권(N-S)경계	탑천-용암천		미륵산-봉실산-모악산
구역	N5	N4, N3, N2, N1	E
	S5	S4, S3, S2, 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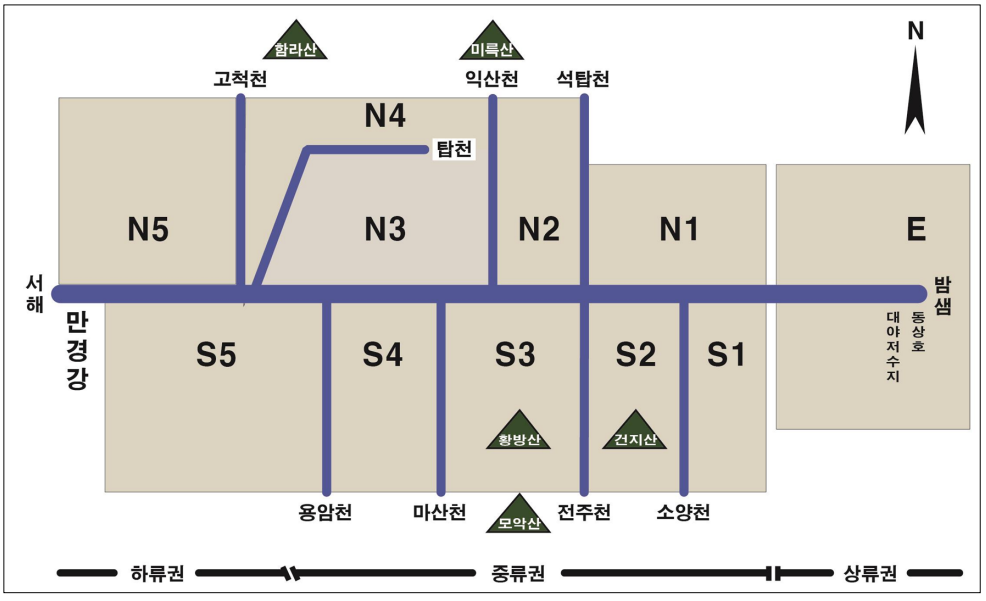


圖 1. 만경강 유역권의 수계별 구역 설정

만경강 유역권은 본류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형성된 다양한 지류가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수계권을 고려하여 북쪽은 미륵산을 경계로 금강의 지류인 산북천 유역 이남을, 남쪽은 신평천-김제시-두월천(월평천의 지류)을 경계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쪽은 서쪽으로부터 고척천·탑천·익산천·석탑천에 의해, 남쪽은 용암천·마산천·전주천·소양천에 의해 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탑천의 북쪽 지역(N4구역)은 만경강 유역권과 금강 유역권(논산권)의 복합적 양상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圖 1).

2) 유적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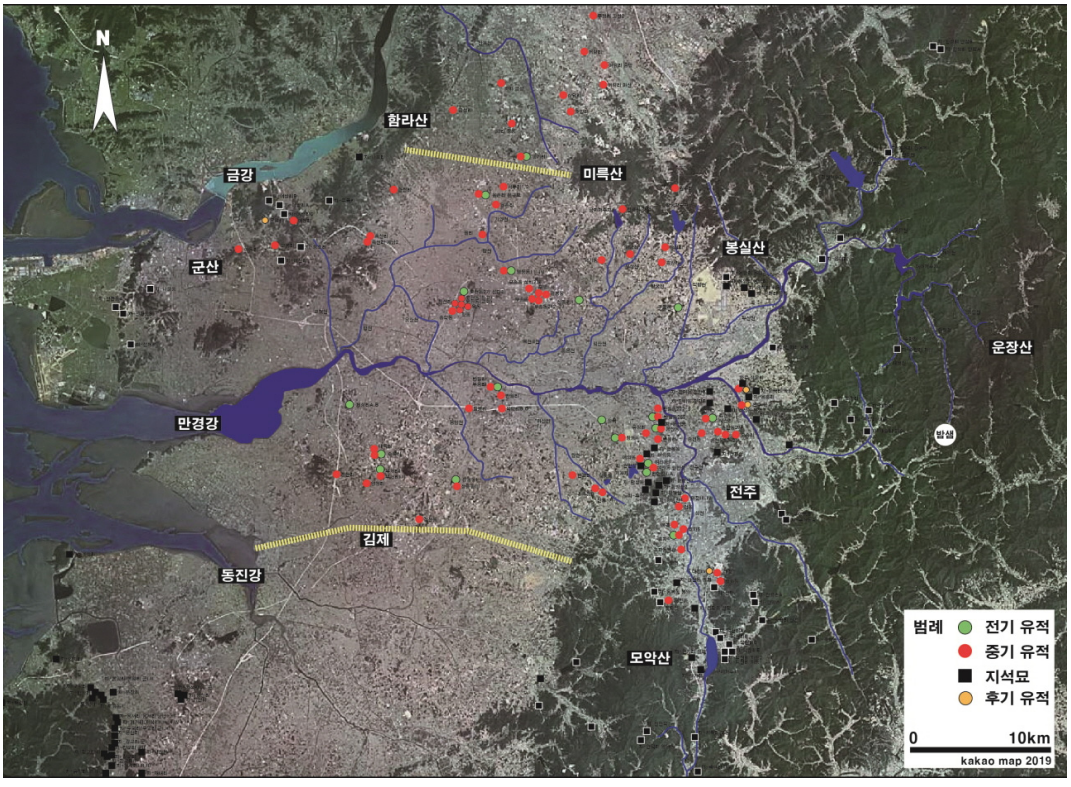


圖 2.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

만경강 유역권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수혈·구상유구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유적과 지석묘·석관묘·석개토광묘·토광묘·옹관묘 등의 매장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圖 2]는 생활유적과 지석묘 유적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생활유적은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본류와 지류에 의해 구분되는 구역 설정을 도식화한 [圖 1]과 [圖 2]를 바탕으로 유적의 분포 및 취락의 공간 분포와 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취락은 주로 중류권에서 확인되며, 상류권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하류권에서는 김제권(S5)에서만 확인되며, 군산권(N5) 일부에서 극히 소규모로 발견된다.

둘째, 전기 유적은 주로 익산권(N3·N2)·김제권(S5)·전주권(S3)에서 확인되지만, 밀집도는 낮은 편

이어서 점상분포와 같다. 반면 중기 유적은 봉동 일원(N1)과 상류권(E)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확인된다. 그만큼 전기에 비해 취락 점유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지점별 밀집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후기 유적은 전기 유적보다도 월등히 적은데, 삼천 일원(S3)·소양천 일원(S1)·군산권(N5)에서 소규모로 확인된다. 따라서 유적의 점유도는 중기>전기>후기로 파악된다.

셋째, 취락의 상대적인 점유도는 전주천-황방산-삼천 일원인 S3구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전주 송천동 일원(S2)과 익산 일원(N3)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圖 2). 따라서 만경강 유역권에서 S3구역은 취락의 점유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며, 전주천과 삼천을 따라 일방형의 지역연계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表 2.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시기별 · 구역별 취락 분포 현황

시기 / 구역	청동기시대 유적				
	조기	전기	중기		후기
N5 (군산권)			군산 여방리	군산 고봉리Ⅱ,D 군산 아동리	군산 도암리
N4 (서수-황등권)			군산 축산리 군산 관원리 익산 율촌리 익산 보삼리	군산 축산리 계남2 익산 서두리1,2 익산 율촌리 분구묘	
N3 (익산권)		익산 영등동Ⅰ,Ⅱ,Ⅲ 익산 모현동2섬다리 익산 신동리1	익산 장신리 익산 모현동(창고) 익산 학동 익산 석치고개 익산 부송동2 익산 팔봉동 익산 덕기동	익산 송학동 익산 모현동(교회) 익산 목동 익산 영등동Ⅰ,Ⅱ,Ⅲ 익산 부송동 익산 부평Ⅰ,Ⅱ	
N2 (왕궁권)		완주 구암리	익산 왕궁리 익산 홍암리 익산 원수리	익산 광암리 익산 신용리 갓점	
N1 (봉동권)					
S5 (김제권)		김제 제상리A,B 김제 수록리C 김제 부거리Ⅰ 김제 상동동Ⅰ	김제 장산리 김제 내죽리 김제 양청리 김제 상동동Ⅲ	김제 수록리C 김제 부거리Ⅰ,Ⅱ 김제 검산동	
S4 (백구권)		김제 반월리·부용리	김제 반월리·부용리 김제 석담리B,D	김제 월봉리	
S3 (황방산권)	?	전주 성곡 전주 장동Ⅱ 전주 반월동265 전주 동산동 전주 여의동1 전주 원만성1,(A?) 전주 효자4	전주 반월동222-5 전주 동산동 전주 반용리 전주 팔복동 전주 만성동·여의동 완주 반교리 전주 마전Ⅲ·Ⅳ 전주 봉곡 전주 효자4 전주 대정 전주 평화동	전주 반월동265 전주 유상리 전주 장동Ⅱ 전주 여의동先史 완주 신풍-가 완주 옥정B 전주 척동 전주 효자5 전주 효자동복합 전주 중인동	전북혁신도시 일부(정문동, 중동 등) 전주 대정Ⅳ

시기 / 구역	청동기시대 유적				
	조기	전기	중기		후기
S2 (건지산권)		전주 필천리·오산리	전주 필천리·오산리 전주 송천동2가 전주 오송리	전주 송천동 전주 송천동97-20	
S1 (용진권)			완주 상운리	완주 운교	완주 상운리 완주 운교
E (고산권)					

넷째, 지석묘는 만경강 중류권의 구릉·평야지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군산 일원의 야산(N5), 봉동의 봉실산 일원(N1), 전주의 황방산 일원과 삼천 일원(S3), 소양천 일원(S2·S1), 상류권의 고산천 일원(E)에 분포한다. 익산 지역에서는 지석묘가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분포로 볼 때 만경강 유역권의 지석묘는 중류권의 낮은 구릉지대와 평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야산이 있는 서쪽의 군산 일대와 동쪽의 전주·완주 일대에서 보편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경강 유역권에서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전통성과 지속성은 전주천-황방산-삼천(S3구역)에서 나타난다. 조기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한 전기 단계 유적(동산동)을 비롯하여 가락동유형과 흔암리유형 단계의 문화상이 활성화되었고, 중기문화의 폭발적인 번성을 이루다가 소규모의 후기문화가 확인되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1년 집계에 근거할 때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중심지는 S3구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익산권인 N3구역 일원에서 특별한 유적이 조사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결과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유적의 시기별·구역별 분포 현황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2. 연구 성과와 문제 제기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9년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제기된 주요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고, 문제점이나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조기 문화요소의 존재 확인

전주 동산동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김규정(2016: 83-88)은 미사리유형 취락과 가락동유형 취락으로 구분하였다(圖 3).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를 구분의 근거로 삼았다. 그 시기는 2900B.P.를 전후(기원전 1300~1000년)한다고 하였다. 천선행(2019: 28-30) 역시 동산동의 미사리유형 취락을 전기에 두고, 익산 영등동과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규정은 조기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천선행은 조기 단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둘의 공통점은 이러한 편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산동 미사리유형의 시간적 위치를 전기에 둔 것이다.

이에 반해 김승옥(2016: 39)은 동산동의 미사리유형 취락을 조기 유적으로 판단하고 조기 후반에 등장하여 전기 전반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조기 단계 설정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유형이 시기차를 두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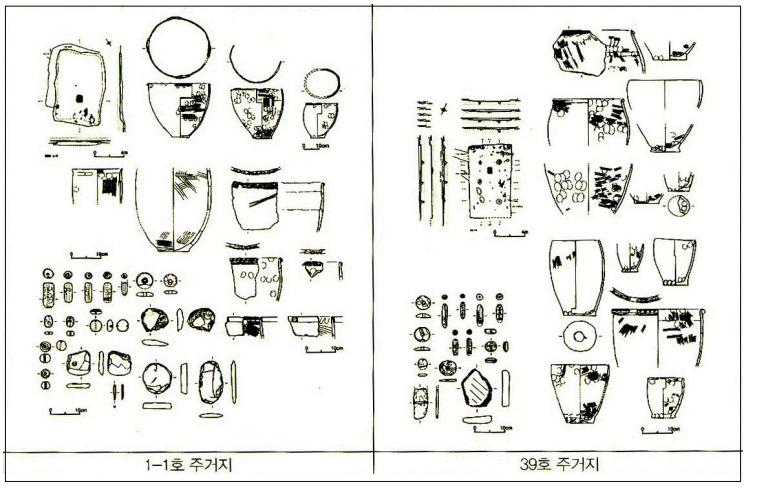


圖 3. 전주 동산동 전기 취락(김규정 2016)

만경강 유역권의 조기 단계는 획기 설정도 중요하지만, ① 돌대문토기문화로 대표되는 미사리유형의 전통을 확인한 점(익산 모현동2가 섬다리, 익산 영등동, 전주 동산동), ②미사리유형이 전기 단계까지 존속한 사실을 재확인한 점, ③좀 더 이른 시기로 소급되는 조기문화의 존재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은 동산동 유적을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으로 구분한다면 가락동유형의 정체는 무엇이고, 주거 형태(39호: 위석식노, 장축 2열 주공 등)와 복합 양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두 유형의 취락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늦은 시기의 미사리유형을 주체로 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천해 갔는가? 또는 어떻게 문화요소들의 복합(주거형태, 토기 등)이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고학적 접근과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2) 전기 단계 문화집단의 정체 파악

만경강 유역권에서도 전기 단계에 해당하는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이중구연과 구순각목문토기가 발견되는 1군/ 이중구연단사선계의 토기가 발견되는 2군/ 이중구연단사선문계 토기와 공열문 요소가 함께 발견되는 3군/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가 발견되는 4군으로 구분하거나(김승옥 2016: 40),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으로 대별하고 극소수의 역삼동유형 요소의 혼입으로 보거나(김규정 2016: 87), 토기문양상 돌대문계/가락동계/역삼동·흔암리계가 확인되지만 가락동유형이 압도적이고, 역삼동유형의 존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가락동유형의 변화에 따른 양상이라는 견해(천선행 2019: 29-30)로 정리된다. 특히 한 유적 당 주거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유적들이 많아 취락 규모의 현저한 차이 및 유기적인 관계성, 취락 간 위계관계 등이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천선행 2019: 30)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의 생업체계는 집약적 수전농경보다는 곡간의 저지대를 이용한 소규모 농경과 수렵·채집·어로가 조합된 혼합경제방식을 영위했을 가능성과 소규모 집단들로 하여금 이동성 농경취락의 점유방식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김승옥 2016: 42).

아무튼 전기 취락의 주체는 가락동유형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대세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만경강 유역권의 전기 단계는 늦은 시기의 미사리유형과 대부분의 가락동유형 또는 가락동유형의 변화형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13~10세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김규정은 대부분의 전기 유적을 가락동유형의 취락으로 간주한 반면, 천선행 역시 이에 동의하면

서도 나름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만경강 유역권의 가락동유형은 금강 유역권의 가락동유형과 관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금강 유역의 가락동유형에 온전히 포함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락동유형으로 볼 수 없는 문화요소들이 복합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적인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금강 유역의 주민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착민과의 관계를 통해 변형이 발생했다고 해석하였지만, 정작 '토착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발표자의 생각으로는 금강 유역 가락동유형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토착민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만경강 유역권 어디엔가 역삼동유형 등의 집단 또는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상통하므로 결국 A+B관계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그 시점이 금강 유역 어디 쯤에서부터 였거나 만경강 유역에 와서였거나 간에 이미 두 문화의 복합양상으로 전환된 상태라는 것은 자명하므로 온전한 가락동유형의 설정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가락동유형으로 대표되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거 내부시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은 만경강 유역권의 이른 시기(1기)에 해당하는 가락동유형의 주거가 역삼동유형 주거의 내부시설이라는 점에서 공열토기(발표자는 역삼동유형)의 부재를 단정지을 수 없다(홍밝음 2010: 30)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다시 말하면, 김규정과 천선행이 제시한 가락동유형 취락의 일정 부분은 역삼동유형과 복합화 과정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흔암리유형의 형성 단계 또는 이미 진입한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A+B=C라는 도식은 무리이겠지만, 흔암리유형을 탄생시키는 두 문화의 복합화 과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각 전개 및 흔암리유형의 전개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존재 속에서 그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흔암리유형의 전개를 같은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이종철 2015b: 151) 한다. 이는 전주 동산동 취락에서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주거(39호)가 왜 가락동식주거인가에 대한 의문과도 통하는 것이다.

흔암리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통합하거나 역삼동유형으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대세이지만, 엄연히 구분된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단위(문화요소 등)를 고려한다면 복합화 양상 등의 문화변동으로 나타나는 흔암리유형 또는 그러한 고고학적 양상의 단계 설정은 간과할 수 없다(이종철·정다운 2020: 326). 이는 A+B의 결과가 C일수도 있고 AB 또는 Ab 또는 Ba일 수도 있다. 융합적 관계로 변화될 수도 있고, 단순 교류를 통해 문화요소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융복합은 되었지만 집단에 따라 물질문화상의 지배적 양상은 대등할 수도, 각각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이 시기와 지역을 달리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은 자명하다.

3) 전기 단계 취락의례의 확인

전기 단계의 취락에서 의례 또는 제의와 관련되는 유구의 존재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2010~2011년에 완주 구암리(군산대학교박물관 2013)에서 방형의 환구를 갖춘 제의유구가 조사되었다. 구릉의 정상부에서 개구부가 있는 방형의 환구가 확인되었고, 그 중앙부의 제의유구에는 할석과 소토층이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할석들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불과 관련된 제의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

문 토기와 구순각목문 토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에서 검출된 탄소연대는 2940±30B.P.(제의유구)와 2930±30B.P.(환구)로 나타났다. 조사자는 환구와 가락동유형의 주거가 공존하는 시기, 환구가 폐기된 후 역삼동·흔암리유형의 주거가 등장하는 시기로 구분하였고, 김규정의 편년(전기Ⅱ기)을 인용하여 기원전 11~9세기로 판단하였다.

제의유구의 조사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였지만, 방형의 환구를 갖춘 제의유구가 과연 가락동유형 단계(1단계)에서만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조사자는 2단계에 1단계의 중첩이 없는 주거들이 지속되었는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다. 김규정(2014: 30)은 1단계의 주민들만이 제의유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출토유물상 공열토기의 존재와 주거지 중첩이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지만, 1단계와 2단계에 지속적으로 공반되는 특징적인 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락의례가 환구의 일부 폐기만으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구암리 취락은 ①토기상으로는 가락동유형이 지배적이지만, 주거 구조와 시설은 역삼동유형의 전통이며 실제로 4-1호에서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②1단계와 2단계는 단절적인 관계가 아니라 취락의례에서 환구+중앙부 의례유구가 공존하던 시기와 환구가 전부 또는 일부 폐기되고 중앙부 의례유구가 사용되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거의 동일한 토기문화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돌기형 꼭지가 붙은 발형토기의 존재를 들 수 있다. ③구암리 취락이 온전한 가락동유형 취락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주거 내부시설과 공열토기의 존재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복합화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4) 중기 단계의 거점취락 확인

만경강 유역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거점취락이 전주천 하류역에서 조사된 점이다. 바로 동산동 유적인데, 만경강 유역권에서 이 유적과 대등하거나 규모를 능가하는 유적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향후 익산권(특히 N3구역)에서 조사되지 않는다면 진안 여의곡 유적과 더불어 전북의 동서를 대표하는 거점취락으로 상정할 만하다.

발표자(2015a: 280-281)는 거점취락을 중심취락, 중핵취락 등과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①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근거지(충적대지 등)에 입지, ②규모·인구·사회체제·경제적 기반에서 상위취락으로서의 역할, ③위성취락과 같은 중·소규모 취락들의 존재, ④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분업화·전문화된 조직체계를 이룬 고도의 인적 구성, ⑤공간의 영역화(주거·생산·매장·저장·의례 등), 주거의 체계적인 배열, 무덤의 기획적 축조, 대규모 곡물 재배, 잉여의 관리체계 등 조직적으로 발달된 사회체제, ⑥유기적인 협력관계와 전달체계가 구축된 지역연계망의 형성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유한 취락은 지역별로 존재하며, 일반취락들과 함께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다.

表 3. 전주 동산동 취락의 공간 구성(이종철 2019)

<table>
<tr><th>대취락</th><th colspan="2">주거영역</th><th>생산영역</th><th>매장영역</th><th colspan="2">저장·보관영역</th></tr>
<tr><td rowspan="11">동산동
취락</td><td>북 취락</td><td>남 취락</td><td rowspan="8">천변 쪽에
밭(?)</td><td rowspan="8">• 전주천변 쪽
옹관묘군(12)
토광묘군(11)

• 북취락의 북쪽
650m 지점에
지석묘(1)

• 주요 매장지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td><td>서군</td><td>동군</td></tr>
<tr><td>단위주거군5</td><td>단위주거군6</td><td>관리
주86</td><td>관리
주76</td></tr>
<tr><td>단위주거 ○□</td><td>단위주거 ○□</td><td>굴립주
10</td><td>굴립주
1</td></tr>
<tr><td>대-중-소</td><td>초대-대-중-소</td><td>독립된
위치</td><td>남북취락
공동</td></tr>
<tr><td>굴립주건물</td><td>-</td><td colspan="2" rowspan="3">광장 내 5개 수혈-
2개의 방향성</td></tr>
<tr><td>평지 배경</td><td>저습지 배경</td></tr>
<tr><td rowspan="2">군집분포</td><td rowspan="2">열상·군집분포</td></tr>
<tr><td colspan="3">의례영역</td></tr>
<tr><td colspan="2">광장을 중심으로 열상·환상분포
광장 직경 50m</td><td colspan="3">공동의 장소 : 취락의 중심부
특정 제의영역의 존재 가능성(?)</td></tr>
<tr><td colspan="2">광장 서쪽으로 큰 골목(폭 25m)</td><td colspan="3" rowspan="2">제사유구(?) : 북→남 5개 수혈 시간성</td></tr>
<tr><td colspan="2">광장 서·동쪽으로 저장·보관영역</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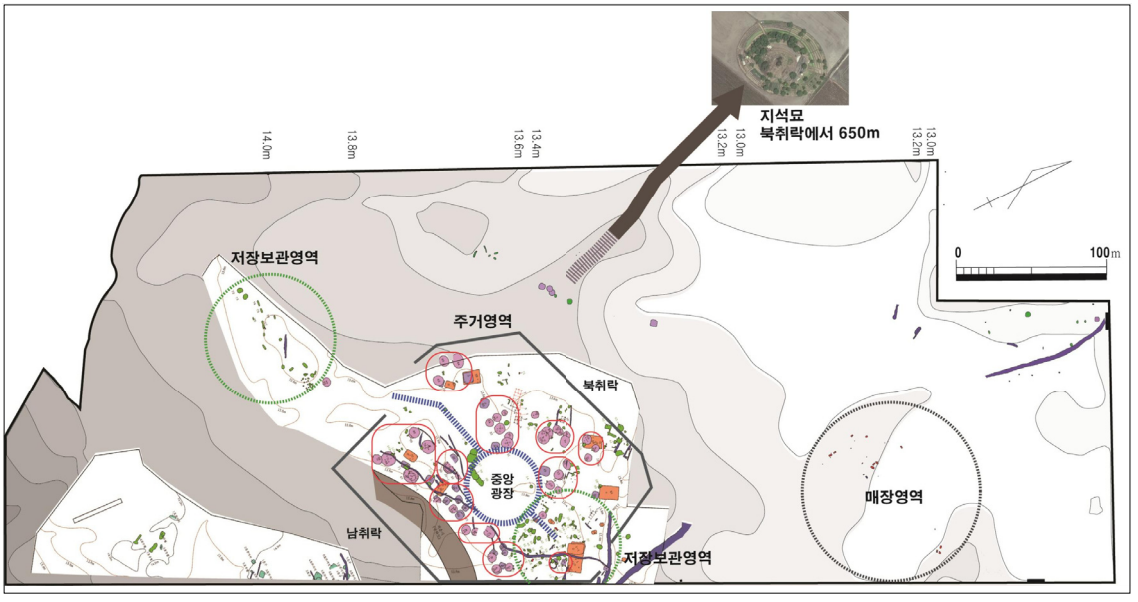


圖 4. 전주 동산동 취락의 공간 구성(이종철 2021)

동산동 유적의 기본적인 취락 개념은 이미 제시된 바 있지만(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이를 좀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취락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表 3)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추출할 수 있다(이종철 2019, 2021). ①송국리형문화 발전기의 취락으로서 기원전 7~6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

서부 지역의 거점취락, ②범람원인 전주천변과 특정 저습지(구하도?)를 배경으로 취락지 선택, ③1개의 대취락 내 2개의 단위취락(남/북)-광장-골목(大·小)-저장·보관영역-매장영역의 취락설계, ④단위취락 내 단위주거군(세대/가구 관계)의 결속력 유지, ⑤주거의 초대-대-중-소 체계 구축, ⑥제의 등과 같은 공동체의식을 고무하는 구심점으로서 마을 중앙에 광장 설계, ⑦저장·보관영역 관리체계 유지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⑧지석묘가 평지성의 낮은 능선을 따라 650m 지점에 있는 난산형(卵山形)의 독립 구릉에 조성되어 있어 특정 유력자를 위한 매장지와 옹관묘·토광묘 중심의 매장영역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⑨난산의 독립 구릉으로 연결되는 낮은 능선의 존재를 통해 취락민들의 삶터와 유력자의 매장지를 연결해주는 광의 개념의 묘도(墓道)를 상정할 수 있다(圖 4). 무엇보다도 ⑩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송국리형주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이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위가 동산동 취락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인 67호(60.7㎡)는 2개의 타원형구덩이와 6주가 설치된 증축·확장형 주거이고, 두 번째인 68호(59.5㎡)는 4주형이다. 68호는 기본 4주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이러한 건축기술은 전문기술자(장인)의 존재와 취락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판단된다.

동산동 거점취락은 전주천변의 하류역에 위치하는 대단위 충적대지를 배경으로 입지한다. 취락은 해발고도가 13~14m인 완만한 평지성 구릉상에 위치하는데, 본디 황방산으로부터 뻗어내린 완만한 줄기가 만성동-팔복동을 거쳐 동산동까지 이르는 최말단부에 해당한다. 앞 시기에 점유했던 돌대문토기문화의 취락과 동일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주거영역으로서의 환경적 가치를 상정할 수 있다. 황방산 일원을 비롯하여 전주천과 삼천에는 기원전 7~6세기대에 해당하는 중·소규모의 송국리형취락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어 동산동 취락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연계망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이종철·정다운 2020: 336-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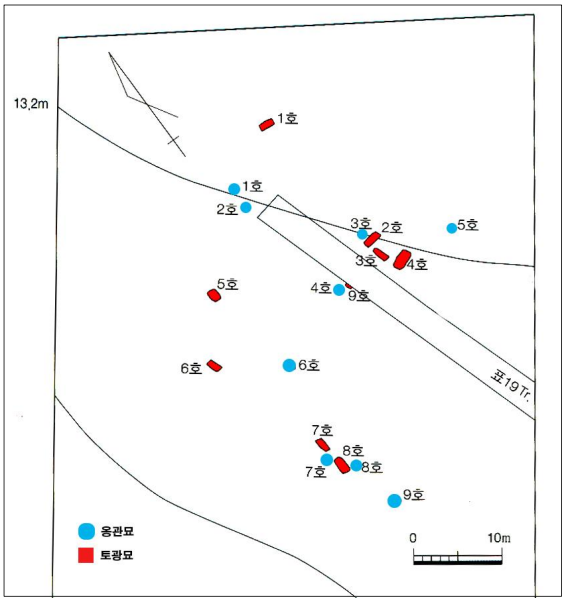


圖 5. 동산동 취락의 옹관묘·토광묘 묘역

동산동 취락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또는 과제도 있다.

첫째는 매장영역에 함께 조성된 토광묘군과 옹관묘군 중 옹관묘군의 성격이다(圖 5). 옹관묘로 활용된 토기는 전기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직립구연호인데, 과연 돌대문토기문화 집단의 옹관묘인지 아니면 소규모 가락동유형 집단의 무덤인지 또는 송국리형취락의 무덤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옹관묘가 전기에 해당한다면(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두 문화 집단 중 어디에 귀속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고, 송국리형취락에 귀속된다면(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이종철·정다운 2020) 옹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는 매장영역의 존재가 취락 규모에 비해 소략하다는 점이다. 취락의 점유기간을 고려할 때

지석묘군이나 송국리형 묘제(석관묘, 석개토광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매우 의문스러운 일이다. 비록 최근에 북취락에서 북쪽으로 650m 지점에 있는 난산형(卵山形)의 독립구릉 정상부에서 1기의 지석묘를 새로 찾았기(이종철·정다운 2020) 때문에 유력자 무덤의 존재는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圖 4 참조), 그 이상의 유력자 무덤과 석관묘·석개토광묘의 존재를 밝혀내는 것이 남아 있다. 황방산 일원의 지석묘가 발굴조사되지 않아 아직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발표자는 황방산 정상부와 주변에 밀집분포하는 기반식 지석묘들이 동산동 취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만성동·여의동 취락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동산동 취락이 주거의 분포와 취락 체계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은 사회적 위계를 설명하는 데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5)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 파악

만경강 유역권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 무덤이 정리되어 전반적인 양상이 파악되었다(천선행 2019: 37-38). 그에 의하면, 지석묘의 비중은 전북권 내에서 낮은 반면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 등 송국리형 묘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권에서는 석관묘·옹관묘·토광묘·석개토광묘가, 군산권에서는 석관묘·옹관묘, 전주와 완주권에서는 익산권과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옹관묘가 감소하고 석개토광묘가 증가한다. 김제권에서는 옹관묘·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취락마다 선호하는 묘제가 달랐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해석은 만경강 유역권이 금강 유역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즉 금강 중하류 지역(송국리형문화권의 중심지 또는 형성지)에서는 송국리형 묘제의 분포가 현저한 반면, 지석묘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서해안 지역이나 금강 상류 지역(주변부)으로 갈수록 두 묘제가 혼합되거나 지석묘가 비로소 활성화된다는 견해(김승옥 2001: 57-60)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송국리형 묘제와 지석묘의 관계를 중심부와 주변부의 순수-복합의 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문화요소의 원천적인 관계성은 불명확하지만,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유적들에서 송국리형 묘제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국지적인 양상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송국리형문화의 파급 속도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지석묘-송국리형문화 간 융복합 관계가 파급·전파·이주 등의 흐름상 자연스럽지만은 않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6) 후기 취락의 불명확성과 재인식의 필요

만경강 유역권의 대표성은 청동기와 철기문화에 있다. 초기철기시대로 인식되는 문화 단계의 물질문화들이다. 이러한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융성에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를 넌지시 논하는 것은 궁색하고 어색하기 이를 데 없다. 만경강 유역권 청동기시대문화에서 조기~중기까지만 거론되고 후기가 빠져 있거나 초기철기문화와 혼합 또는 점토대토기문화로 통합하여 논의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취락의 존재를 설정하여 논의하려는 것은 만경강 유역권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의 토착집단과 재지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의 후기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로 대표된다. 이 토기문화는 요령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집단의 결과로 보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이미 정착한 재지집단의 관점

에서는 외래문화가 된다. 그 시기는 기원전 8세기대까지 올려 보기도 하지만(이홍종 2006) 기원전 6세기(이창희 2010),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초(박진일 2007), 5세기대(이청규 2000, 中村大介 2008, 이형원 2011, 이종철 2015a 등), 기원전 4세기대(진영민 2016), 기원전 4~3세기(이건무 1994) 또는 300년경(박순발 1993)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는 탄소연대, 형식학적 접근, 그리고 정가와자 유적의 연대, 역사 기록 등에 근거한 연구자들의 편년관에 기인한다.

발표자(2015a)는 청동기시대 후기를 기원전 5~4세기로 구분하고, 남부 지역은 기원전 3세기까지 보는 입장이다. 기원전 3-2세기는 청동기문화의 바탕에 철기문화의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기원전 2세기는 철기시대에 해당한다. 남북으로 형성된 한반도에서 철기문화의 도입은 일시적이고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다 보니 기원전 3세기의 남부 지역은 여전히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금강 유역권과 만경강 유역권의 후기 단계는 기원전 5세기~3세기에 해당한다. 다만 원형점토대토기만 출토될 경우 기원전 5~3세기의 세부적인 구분이 쉽지 않고, 기원전 4~3세기의 원형점토대토기와 기원전 2세기대 일부에 해당하는 원형점토대토기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히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면, 기원전 2세기대에 해당하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유적들도 청동기시대 후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만경강 유역권의 주요 후기 주거 유적은 완주 상운리, 완주 운교, 전주 대정Ⅳ 유적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산 도암리 유적과 전북혁신도시 유적 일부(정문동, 중동 등)를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다. 혁신도시 유적과 상운리는 방형 주거를, 운교와 도암리는 송국리형주거를, 대정Ⅳ는 말각장방형의 주거를 사용하며, 공통적으로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한다. 이들은 대부분 기원전 4~3세기를 전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①순수하게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방형계 주거로 대표되는 집단(상운리), ②송국리형주거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복합되는 집단(운교), 그리고 ③말각장방형계 주거와 송국리형문화 요소+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복합된 집단(대정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 양상으로서 늦은 시기까지 점토대토기문화와 송국리형문화가 공존했음을(이종철 2000·2015a이형원 2005·2016)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군산 도암리는 폐기된 송국리형주거지의 매몰퇴적토상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노지가 조사된 사례로서 두 집단은 무관한 관계이지만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이종철 2014: 177)는 판단하에 송국국리형문화의 지속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대정Ⅳ 유적은 10기 정도의 주거로 이루어진 소규모 취락인데, 입대목 제의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후기 단계의 무덤 유적은 군산 선제리, 익산 다송리, 익산 오룡리, 전주 여의동(先史), 전주 원만성1, 전주 원장동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식동검과 검파형동기의 조합을 이루는 군산 선제리, 한국식동검과 조문경 또는 정(세)문경의 조합을 이루는 석개토광묘계와 적석목관묘계, 그리고 석곽묘(?)와 토광묘 등 다양한 무덤 유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기원이나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Ⅲ. 문화적 특징

지금까지 2016년과 2019년에 개최된 학술대회와 2021년까지의 다양한 조사 성과 등을 바탕으로 고고학적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동기시대 제문화의 취락구성이 파악된다.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전기-중기-후기 단계로 세분된다. 조기 단계는 아직까지 설정할 수 없다. 비록 전주 동산동의 돌대문토기문화가 조기문화에 속하기는 하지만 시기상으로 전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전기 단계에 존재하는 조기문화 전통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조기 단계의 설정은 시기상조이지만, 순창 원촌 유적의 존재와 전주 동산동·담양 태목리 유적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존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순창 원촌과 전주 동산동 유적의 사이에는 시간성, 문화적 전통성과 변화상이 존재하므로 조기, 조기와 전기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앞으로 조사될 여지는 있다.

전기 단계에는 늦은 시기의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미조사), 흔암리유형 또는 흔암리유형 단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단계는 송국리형문화 단계로 금강 유역권만큼이나 활성화되었으며, S3구역(황방산-전주천-삼천 일원)에서 가장 번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후기 단계는 순수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재지 적응, 송국리형문화의 지속 및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의 융복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다변화된 전기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기 문화는 미사리유형(돌대문토기 중심)과 가락동유형(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중심)에 집중된 형국이나 가락동유형의 취락들 중에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복합 단계 또는 흔암리유형 단계(시기)로 볼 수 있는 취락들이 존재한다. 다만, 전주 동산동 취락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의 주거군이었거나 단일 주거로 구성되었다

미사리유형은 동산동 유적에서 10여 기의 주거군으로 이루어진 (중)소규모 취락을 형성하였다. 전체 취락의 모습은 환상형(環狀形)에 가까운 형태로 완성되었다. 취락이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본디 충적대지 방향으로 뻗어나간 황방산 자락의 최말단 능선 정상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완전한 충적대지라기보다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능선부에 해당한다. 취락의 일정 시점에 독립적인 가락동유형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돌대문토기문화 일환 속에서 취락의 문화변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만경강 유역의 가락동유형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문이 조합된 토기로 대표되며, 위석식노의 부재와 장축 기둥열의 비활성화가 특징이다. 경기·충청 지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가락동식주거지와는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역삼동식주거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토광식노

또는 무시설식노가 설치된다. 역삼동식토기와의 복합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A, Ab, AB 등의 변화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삼동유형은 공열문+구순각목문토기가 대표적인데, 개별 토기는 복합 양상 속에서 확인되지만,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내륙에서의 독자적인 취락은 아직 조사된 바 없다. 이것을 역삼동유형의 부재로 인식하고 가락동유형의 대세로 간주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도 가락동유형 취락에서 나타나는 공열문토기를 역삼동유형 집단과의 교류 또는 문화요소의 유입 등으로 해석하고 있어 주변에 또는 조금 더 먼 곳에 역삼동유형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그 정체가 만경강 유역권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라 본다. 만경강 하류역 또는 서해안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군산 비응도에서는 역삼동 및 흔암리유형의 편린이 확인되기 때문에 충청 서해안 지역에 번성했던 역삼동유형이 서해안을 따라서 만경강 유역권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B, Ba, BA 등의 변화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흔암리유형은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다양한 복합 양상인 바, 아직까지 전형적인 고고학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두 문화의 복합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 내부시설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 형태, 토기 양상 등에서 A와 B의 지속적인 변화, Ab, AB 또는 BA, Ba, C 등의 형태로 시공을 달리 하여 변화한 다양한 결과들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경강 유역권의 가락동유형 취락은 대부분 이러한 복합 과정의 취락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첫 단계의 복합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변화 과정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락동유형의 토기 양상과 역삼동유형의 주거 내부시설이 조합을 이루는 것은 만경강 유역권의 지역적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3. 요령식동검문화가 확인된다.

만경강 유역권은 한국식동검문화의 번성을 대표하지만, 요령식동검문화의 편린도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요령식동검문화는 지석묘(석곽묘 포함)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송국리형문화와 시기를 같이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요령식동검문화의 흔적들은 대부분 익산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륵산성 출토 요령식동모(국립전주박물관), 전 익산 출토 요령식동모(원광대학교박물관), 용화산 출토 요령식동검 2점(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이 알려져 있다(圖 6). 미륵산성 출토품을 제외하면 지표채집이나 구입품에 지나지 않지만, 출토 위치나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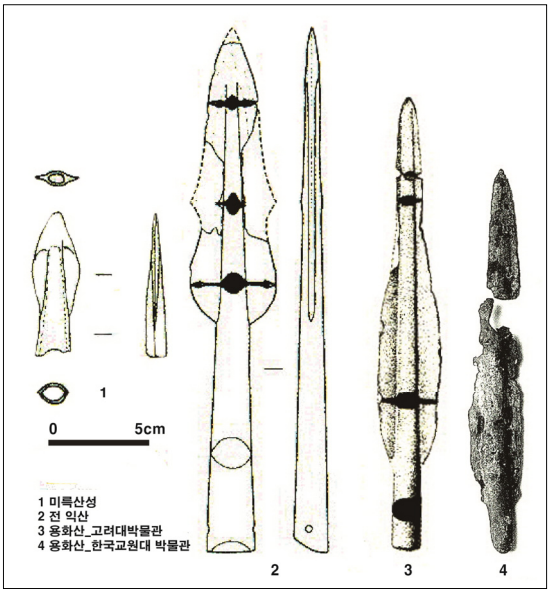


圖 6. 익산 출토 요령식동검문화 관련 유물

에서 유의미한 고고학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청동유물의 존재는 관련 유적의 존재를 암시해주는데, 지석묘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익산에서는 지석묘가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옛기록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1]. 따라서 지석묘 상석이 훼손되었거나 또는 송국리 동검묘와 같은 석관묘 계통이 예상될 수 있다. 또는 미륵산과 용화산 자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지와 구릉을 입지로 삼지 않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겠다. 또는 청동기의 제작이나 문물교류의 차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으며,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유력 집단의 존재 설정은 자연스럽다. 아무튼 이러한 청동기는 시기적으로 지석묘 문화 또는 송국리형문화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익산 지역에 유력한 지석묘 집단이나 송국리형취락의 존재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4. 중기 문화의 번성을 배경으로 거점취락과 지역연계망의 존재를 추출할 수 있다.

송국리형문화의 번성은 만경강 유역권의 대표성을 갖는다. 현재까지로는 S3구역의 황방산과 전주천-삼천을 배경으로 점유했던 송국리형취락군을 중심지로 삼을 만하다. 하류역의 충적대지를 배경으로 동산동 거점취락이 형성되었고,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송국리형취락이 점유하였다. 전주천의 지류인 삼천을 따라 역시 다양한 규모의 송국리형취락이 형성됨으로써 남북 방향의 하천을 따라 일방형의 지역연계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圖 7). 이 취락들의 탄소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7~6세기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만성동·여의동(만성지구) 일원의 취락은 이보다 약간 이르거나 늦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기적인 편차가 어느 정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취락 내부에는 송국리형 묘제와 소수의 지석묘가 축조되었으며, 황방산 일원과 삼천의 상류권에는 다수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계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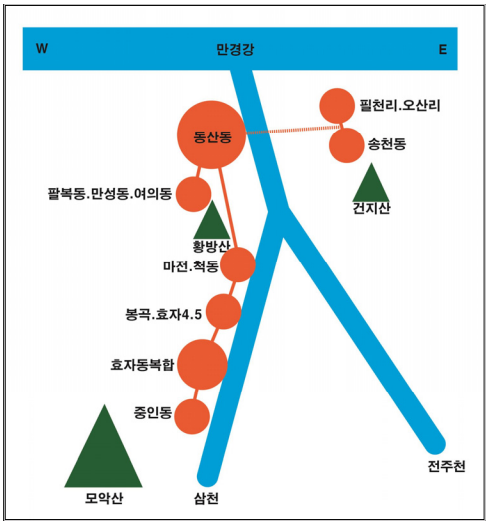


圖 7. 전주천 유역 거점취락과 일반취락의 일방형 지역연계망 도식

1)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가 쓴『동국이상국집』의「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는 11월 기사일(己巳日)에 마령→진안→운제→고산→예양(禮楊)→낭산(朗山)→금마(金馬)→이성(伊城)을 유람하던 중 낭산(익산 낭산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금마로 향하던 과정에 '지석(支石)'을 구경한 것을 기록해놓았다. 따라서 미륵산 서남쪽(낭산면-삼기면-금마면 사이) 어딘가에 지석묘(탁자식 또는 지석이 눈에 띄는 기반식)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익산 지역은 지석묘의 부재라기보다는 훼손 등으로 상석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륵산 주변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미륵산 주변에서 발견된 요령식동모와 요령식동검의 존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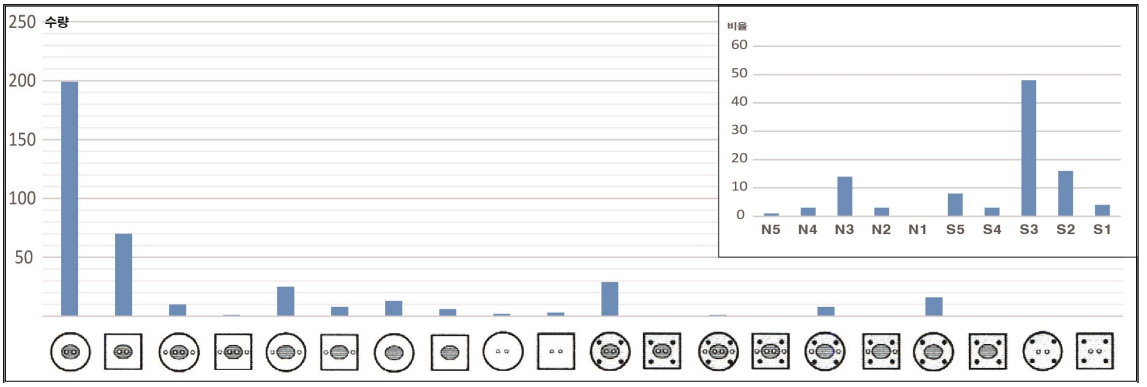


圖 8. 만경강 유역권의 송국리형주거 현황

금강 유역권의 중추적인 구역 중의 하나인 만경강 유역권에서는 59개 유적 395기의 송국리형주거가 집계되었다. 이들 가운데 평면 형태를 알 수 있는 391를 대상으로 주거 유형의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금강의 지류인 산북천 일원에도 많은 수의 송국리형취락이 분포하고 있으나 논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만경강 유역권에 입지하는 다양한 송국리형취락의 전체 양상과 구역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圖 8·圖 9).

만경강 유역권에서는 원형의 내주공식 주거(A①)가 압도적으로 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방형의 내주공식 주거가 뒤를 따르고 있으나 원형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주거의 원형과 방형의 비율이 71:29로 집계됨에 따라 원형 주거의 압도적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형의 4주+내주공식(A②), 원형의 외주공식(C①) 주거가 상대적으로 많이 축조되었다. 특히 4주형의 주거는 모두 원형에서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주거 양상은 금강 유역권의 현황(이종철 2015a: 78-80)과 거의 차이가 없다.

앞에서 만경강 유역권의 공간적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북으로 각각 5개 구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동쪽의 E구역(고산권)은 취락 조사 건이 없어 생략한다. 각 구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가장 많은 수의 주거와 가장 다양한 주거 형태가 확인된 곳은 전주 황방산 일원인 S3구역이다. ②취락 조사 보고가 없는 곳은 N1구역(봉동권)이며, 가장 적은 수량(또는 비율)은 N5구역(군산권)이다. ③주거 형태의 다양성은 S3·S2구역에서, 한 주거 형태(○A①)만 집중되는 단일성은 S1구역(용진권)에서 볼 수 있다. ④구역별 주거의 비율은 S3(황방산권)>S2(건지산권)>N3(익산권)>S5(김제권) 순이며, S1·S4·N2·N4 구역은 거의 비등하게 소규모로 나타났다. ⑤원형의 내주공식 주거(A①)는 모든 구역에서 압도적이거나 우월한 양상이지만, 유일하게 N4구역(서수-황등권)에서만 방형의 내주공식 주거가 우위를 점한다. 다만 수량이 적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⑥4주형의 주거는 S3구역(황방산권)에서 가장 활성화되었으며, 다음으로 S2구역(건지산권)이다. 나머지 구역에서는 거의 없거나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만경강 북쪽에서는 N3구역(익산권)에서만 확인되었다. ⑦내외주공식(B), 외주공식(C), 타원형구덩이식(D)이 상대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곳은 S3구역(황방산권)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주천-황방산-삼천을 배경으로 하는 S3구역이 만경강 유역권의 송국리형문화 중심지였을 가

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송국리형 취락을 다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은 앞으로 검토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송국리형주거의 내부구조에 근거한 기원에 대한 판단이다. 만경강 유역권의 송국리형문화는 전기 문화와의 문화적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의 옹관이 송국리형 묘제와 혼재하고, 장동Ⅱ 유적의 34호 주거지가 송국리형주거지의 시원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송국리형문화와 역삼동유형 간 접촉을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김승옥 2016: 45). 그러나 장동Ⅱ 34호는 방형의 소위 '동천동식주거'로 타원형구덩이가 생략되고 2개의 중심기둥만 설치되는 주거 형태(발표자의 E형)이다. 대구 동천동에서 대단위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송국리형주거의 변화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발표자(2002: 22)는 이미 이러한 주거 형태가 송국리형문화 중심권(금강 유역권)에서 김천-구미로 통하는 문화적 흐름 속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강 유역권은 송국리형주거의 모든 유형이 발견되고 있어 가장 다양한 주거문화를 이루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랜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기원지이자 중심권(이종철 2002)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4호와 같은 주거지를 송국리형주거지의 시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재호(부산대학교박물관 1995: 278)가 검단리 69호를 통해, 이형원(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181)이 반송리식주거지를 통해 전기문화에서 송국리형주거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두 주거지는 송국리형문화 주변부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주거지로서 문화변동과정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유행을 타고 있는 서울의 S문화요소가 철이 지난 뒤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이나 시골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간적으로는 늦은 시공간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더 오래돼 보이는 전통 때문에 S문화요소가 더 이른 시기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이다. 정작 제시된 반송리식주거지의 탄소연대가 송국리형문화의 이른 시기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이종철 2015a: 179)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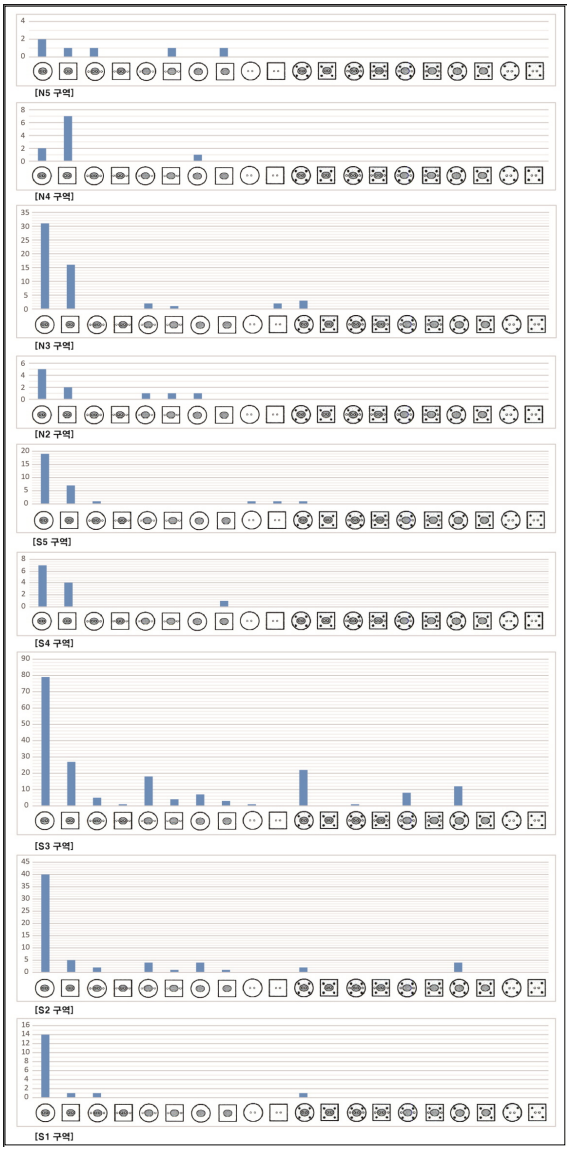


圖 9. 만경강 유역권 구역별 송국리형주거 현황

둘째, 송국리형주거의 방형과 원형에 대한 시간성 문제이다. 송국리형취락에서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에 대한 구분과 서열을 중시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휴암리식이 중첩관계상 송국리식보다 빨라 전기→중기로의 계기적 변천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고고학 자료가 된다. 후자는 중첩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자체가 일정한 시기나 획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의 축조와 폐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고고학적 매락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주거지가 함께 조사된 동산동 취락에서 중첩관계상 방형계(휴암리식)가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탄소연대상 시기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은 중첩에 따른 시간차는 존재할지라도 ①동일한 문화집단으로서 방형과 원형이라는 주거형태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여부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②방형계 주거의 점유 시기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지점에 존재했을 원형계 주거민들의 여정이 갖는 시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5. 송국리형 묘제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조성되었으나 지석묘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다.

송국리형문화의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분포 차이 및 관계성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혼합 양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적었고, 송국리형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입체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석묘와의 관계가 단절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진안 여의곡 유적의 조사 이후 장흥 갈두·신풍 등 대규모 취락 유적에서 지석묘가 주묘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기적인 다양성 속에서 호남 지역의 지석묘가 송국리형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이영문 2013: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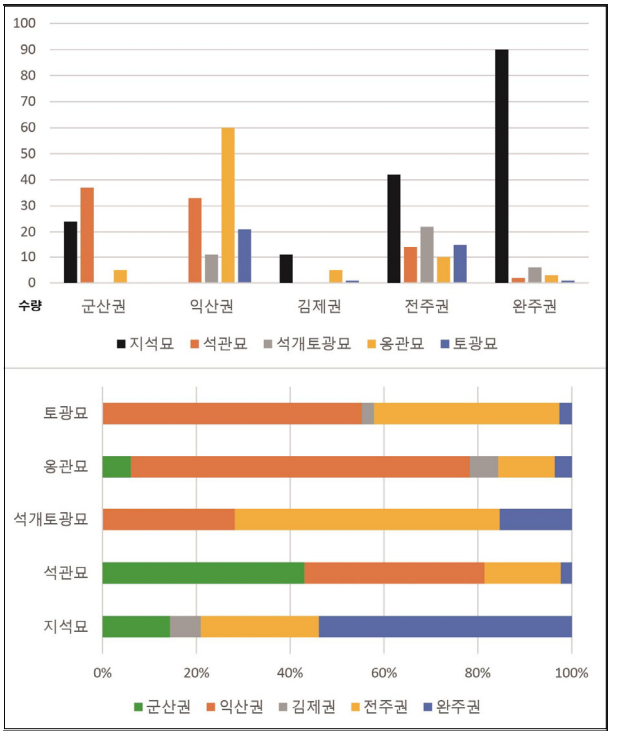


圖 10.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무덤 현황

하지만 지석묘와 송국리형문화의 관련성은 이미 영암 장천리 유적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최성락 1986), 두 문화의 시·공간성에 동일한 물질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호남 지역의 지석묘와 송국리형문화의 친연성이 거론되어 왔다(이종철 2002: 24). 다만 두 문화의 문화접촉에 의한 복합화 양상인지 아니면 동일 문화권의 한 요소로 작용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선행의 무덤 집계(2019)와 지역적 분포의 해석에 대해 발표자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볼 수 있었다. 지석묘를 반영하여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면 전혀 다른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다(圖 10)[2]. [圖 10]은 만경강 유역의 지역권별 무덤 현황과 각 무덤의 지역적인 비율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 것도 있어 비교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자료 축적을 기대한다. 먼저 ①지석묘는 서쪽(해안)에서 동쪽(내륙)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②석관묘는 서쪽(해안)에서 동쪽(내륙)으로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지석묘와는 정반대 양상이어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상으로 볼 수 있다. ③석개토광묘는 익산, 전주, 완주에 집중되는 경향이나 전주권에 좀 더 밀집하는 양상이다. ④옹관묘는 익산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무덤으로 대표성을 갖는다. ⑤토광묘는 익산권과 전주권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⑥군산권은 지석묘와 석관묘가 특징이다. ⑦익산권은 지석묘가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석관묘와 옹관묘의 높은 비중 속에서 모든 송국리형 묘제가 확인된다. ⑧김제권은 가장 적은 지석묘와 가장 빈약한 송국리형 묘제가 특징이다. ⑨전주권은 지석묘의 우세 속에서 송국리형 묘제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⑩완주권은 송국리형 묘제가 매우 적은 반면 지석묘의 수량이 압도적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금강 유역권이라고 하여 송국리형 묘제의 우세와 지석묘의 열세 또는 배타적 관계성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분포 및 혼합양상의 관계는 국지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확연하게 대비되는 익산권과 전주권은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圖 10). 그렇다면 익산권이 만경강 유역권의 중심지 또는 문화 형성지인가? 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하나는 그렇다 이다. 이 답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산동과 같은 전통성과 규모를 겸비한 취락뿐만 아니라 송국리와 같은 이른 시기의 취락군과 조합을 이루어야 하고 무덤들의 세트관계가 비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이다. 옹관묘에 편중된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전주권(S3·S2구역 일원)에서 보이는 무덤들의 비등한 관계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圖 10).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심권이라고 하더라도 무덤들이 세트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축조되기도 하며 지석묘와 조합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석묘가 송국리형문화의 한 요소로 언제부터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고, 송국리형문화 집단과는 다른 토착집단의 문화요소로서의 지석묘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역시 가려낼 필요가 있다.

한편 동산동 취락의 주요 무덤이 황방산 일원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지석묘라면,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의 거리는 대략 2~3㎞에 해당한다. 즉 취락 내에 존재하는 매장영역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락과 일정 거리를 둔 지점에 매장영역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주어진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취락 구성원의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정 장소를 조상신의 신성한 구역으로 설정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만경강유역권에서 보고된 지석묘들이 대부분 야산쪽에 밀집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완주권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

2) 지석묘의 발굴조사가 극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일단 청동기시대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황방산 일원에 분포하는 지석묘들이 송국리형취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이종철·정다운 2020)에 근거하여 만경강 유역권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지석묘를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변천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동 취락에는 주목할 만한 매장영역이 존재한다. 옹관묘군과 토광묘군이 하나의 매장영역을 이루는 공간인데, 옹관묘의 시기성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산동 취락의 매장영역은 유력자로 추정되는 지석묘의 영역과 토광묘+옹관묘가 조합을 이루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매장영역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조성되었다(圖 4, 圖 5). 그리고 다른 주요 매장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종철 2021: 41).

옹관묘는 직립구연호를 활용한 것이어서 전기 단계로 파악하기도 하지만(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취락 구성과 유구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송국리형취락 단계로 보기도 한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이종철·정다운 2020). 이 옹관묘가 전기 단계의 무덤이라면, 동산동 전기 취락 중 돌대문토기 단계의 주거민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옹관으로 사용된 직립구연호는 돌대문토기단계의 문화요소인가? 그런데 왜 주거지들에서는 이와 같은 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을까? 그럼 돌대문토기문화와 구분되는 가락동유형으로 설정되는 몇몇 주거가 옹관묘의 주체인가? 그럴 가능성 역시 적다. 이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준비되지 못하거나 옹관묘(직립구연호)와 전기 취락의 조합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동산동 취락의 옹관묘(직립구연호)를 전기 단계에 묶어두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발표자는 동산동 옹관묘의 시기성에 대해 이미 제시한 바 있지만(이종철·정다운 2020: 333-334), 문화접변적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동산동 취락이 만경강 유역권의 거점취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옹관묘군을 ①송국리형취락 단계로 보는 점, ②토광묘군과 동일한 매장영역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여기에 ③송국리형취락의 구성원들 가운데 전기 취락 소속원이 어떤 식으로든 공생했거나 상호교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가하고 싶다. 이는 두 문화의 복합이 만들어낸 결과로 이해했던 것(이종철 2015a)에서 좀 더 나아간 해석이다. 만약 그들이 존재했다면, 구분이나 구별(차별)의 관계였다기보다는 취락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이었다고 판단된다.

동산동의 돌대문토기문화 주거들에서 공열토기(1-2호), 송국리식토기(26호·71호), 삼각형석도(71호), 일단경석촉(16호), 유구석부(70호), 말각평저 병형(77호)과 완형 적색마연토기 등이, 송국리형주거에서 삼각만입석촉(17호), 직립구연호(3호·52호·63호·마2호·마3호) 등이 출토된다. 송국리형주거에서는 원형과 방형 모두에서 확인되며, 출토 빈도 역시 비슷하다. 특히 직립구연호는 수혈에서 출토빈도가 높은데, 구순각목문발과 삼각형석도(95호)와 공반하거나 돌대문토기문화 주거(56호)→송국리형주거(57호)→수혈(104호)의 중첩관계 속에서 수혈에서는 직립구연호가 내만구연발과 공반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직립구연호 자체는 돌대문토기 집단(취락)보다는 송국리형취락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직립구연호가 공반하는 주변의 송국리형주거는 완주 상운리 라-4호(○A①), 완주 신풍 가-2호(□A①), 완주 옥정 B-4호(○A①), 전주 효자5 B-4호(○D②), 익산 모현동 7호(□A①), 익산 영등동 Ⅰ-14호(○A①), 김제 수록리 5호(□A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결국 동산동 송국리형취락의 형성 과정에는 늦은 시기의 전기 취락 또는 전기 문화 집단과의 상호 문물·인적교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동산동 자체 내에서 또는 S3구역 일원에서 일어나 수 있는 교류의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동산동의 모든 옹관묘가 전기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6. 취락의례의 형성과 전승 관계가 밝혀지다.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구암리 제의유구는 구릉의 정상부에 개구부가 있는 방형의 환구와 중앙부에 조성된 할석과 소토층이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수혈로 구성된다. 제의유구는 가락동유형의 주거들과 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환구를 파괴하고 축조된 6호 주거지가 과연 다른 주거지들과 시기를 달리할 만큼 서로 다른 집단의 주민이었는가 또 6호 주거가 조성될 때 모든 환구가 폐기된 상태였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특히 6호 주거지에서만 유일하게 석검(2점 이상)이 출토되었고, 개구부에 근접하여 조성된 점은 제의유구와의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2개의 돌기형 꼭지가 붙은 발형토기(172)가 3호(54), 4호(81·82), 4-1호(127)에서 출토되는 점도 토기 제작과 전통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단서이다. 아울러 4-1호 주거지는 공열문+구순각목문토기와 공반한다(圖 11). 따라서 1단계와 2단계를 단절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환구의 폐기가 곧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의례의 담당 집단을 1~4호 주거민으로 한정하는 것(김규정 2014: 30)은 온전한 해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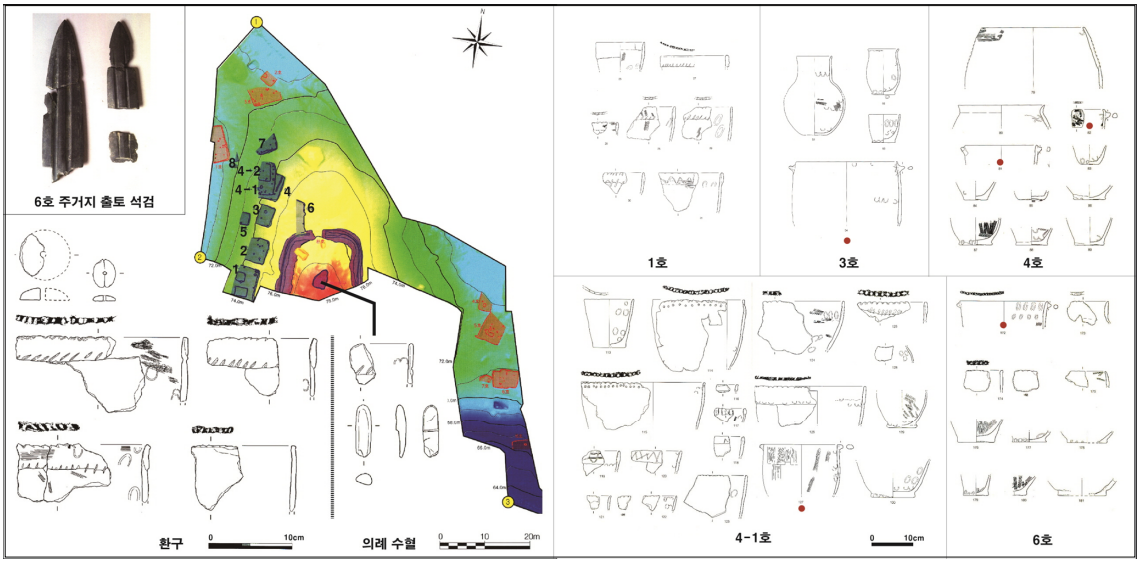


圖 11. 완주 구암리 의례유구와 출토유물 비교

동일 지점에서 반복되는 주거지의 중첩은 시기적인 지속성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지들과의 중첩을 이루는 환구와 중앙부 수혈의 조합은 처음에는 환구를 돌려 독립적이면서 경계의 상징성을 높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계의 상징성은 불필요했거나 일부가 매몰되고 폐기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암리 취락의 제의 핵심은 마을이 형성된 산정부(山頂部)에 구덩이를 파고 할석과 소토층이 반복되는 (의례)행위에 있다. 수혈 내 할석과 소토층의 존재는 의례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다. 할석을 깔고 불을 피웠거나 불을 피운 상태에서 할석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 그럼 불을 피웠을 때 환구 내부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환구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짓는 경계로 기능했을 가능성이다. 내부 진입이 가능한 자는 의례를 주재하는 유력자 또는 유력자와 그를 보좌하는 일정 수의 사람들일 수 있으며, 나머지(취락 구성원)는 환구 밖에서 조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취락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제의를 수행했을 가능성이다. 제의 수혈과 환구 사이는 각각 5m 내외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캠프파이어(campfire)와 같은 형태로 취락의 다수가 공간을 활용했을 수 있다. 또는 일정 부분은 환구 밖에서 조응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공동체적 행위는 구암리 취락의 전기간에 걸쳐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동기시대 중기인 송국리형취락에서도 수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제의가 확인된다. 전주 동산동 취락이 대표적이다. 동산동 취락에는 직경 50m 정도의 중앙 광장이 존재하며, 북쪽과 남쪽에 각각 단위취락이 조성되어 있다. 광장의 중앙부에는 의례유구로 보고된 5개의 연속된 수혈들이 존재하는데, 구암리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석재와 목탄이 무문토기 편, 적색마연토기, 석검편, 석촉, 석부, 석착, 석도 편, 갈판, 갈돌, 지석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5회 이상의 의례행위 일환인 인위적인 폐기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동산동 취락의 제의는 광장에서 집체적 성격의 유희체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취락과 북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을 장려하여 우열을 가리게 하거나 결속을 강화하는 통합적 성격의 의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의용 수혈에서 나타나는 목탄과 석재들은 불과 연관되는 것들로 구암리의 제의와 유사할 수 있다. 다만 의식 후 폐기와 매몰이 시기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던 구암리와는 차이가 있다. 결국 동산동 취락의 의례는 ①공동체적 의식의 일환인 점, ②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된 점, ③제의에 활용된 또는 제의를 위해 생활용구들을 폐기함으로써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에서 송국리형문화의 제의를 대표하는 사례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전주 대정Ⅳ 유적에서는 입대목 제의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이종철 2020)가 최근에 제시되었다. 대정Ⅳ 유적은 9기의 장방형계 주거가 환상배치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광장을 형성하는 취락으로, 광장의 한 쪽에 입목수혈이 조사됨으로써 입대목 제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입목수혈은 공간적 연계성·면적성과 수혈의 독립성·특수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2개의 장축노가 설치된 주거지들에서는 송국리식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토기 등이 출토됨에 따라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 양상을 보이는 단계임이 밝혀졌다(圖 12). 이



圖 12. 전주 대정Ⅳ 취락의 입대목 제의 상상도 (그림 필자)

를 통해 진안 여의곡, 김해 율하리, 고흥 한천리 등에서 제기된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입대목 제의가 청동기시대 후기까지 전승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화가 이루어진 취락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입대목 제의 유적이라는 고고학적 의의를 갖는다.

7. 후기 취락의 형성과 발전 양상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송국리형주거, 송국리형주거와 송국리식토기+원형점토대토기 복합, 방형의 원형점토대토기 출토 주거, 방형 주거에 원형점토대토기+송국리식토기 복합 등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만경강 유역권에서는 소수의 유적에서 이와 같은 양상만 나타나고 있어, 후기 취락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이다.

주거 밀도가 낮다는 것은 대규모 취락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인데, 소규모의 작은 취락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소규모 집단으로 분화된 소단위 취락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좀 더 가깝다. 또는 대규모 이주 집단의 거점은 다른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거점을 형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금의 상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입지에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은 후기 취락의 형성과 발전을 설정하고 구명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적응이 집체적 성격이 아니라 분화적 성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0기 정도의 대정Ⅳ 취락에서 거점취락과 같은 대규모 마을에서나 발견되는 입대목 제의가 존재하는 것을 보더라도 분화의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권역에서 조사된 수 많은 토광묘 집단의 취락을 아직까지 특정할 수 없는 현실은 집체적 성격의 취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기원전 5~3세기 동안 북방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점토대토기문화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 규모와 발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송국리형문화 집단은 모두 절멸했는지? 아니면 기층세력으로 잔존하여 한(韓)의 시기까지 토착집단으로서의 전통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Ⅳ. 맺음말

본 발표는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표자의 문제 제기와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정리해본 것이다. 다만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 중추적인 항목별 검토는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고고학자료의 한계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발표자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다음과 같이 압축정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그 해상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1. 청동기시대 전기-중기-후기 체계를 온전히 이룬다는 점이다. 조기 단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지만, 순창 원촌과 전주 동산동의 사례를 통해 하천과 충적대지를 배경으로 하는 곳에서 조사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2.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늦은 시기의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흔암리유형 단계(시기) 유적이 존재하는 반면, 온전한 역삼동유형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조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유형들은 대부분 문화변동과정을 거쳤거나 과정 중에 있는 혼합·복합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편년 체계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문화변동과정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타당한 해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취락의 규모와 분포는 대부분 소규모로 점상분포를 이룬다는 점에서 수준 이상의 취락체계로 발전했다고는 볼 수 없다.
3. 전기~중기 단계 어느 시점에는 요령식동검문화가 존재했거나 그러한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유력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익산권에 집중되어 있다.
4. 중기 단계에는 전주천-황방산-삼천을 배경으로 하는 S3구역이 중추적인 문화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청동기시대 기간 동안 가장 번성한 시공간적 특성을 가진다. 거점취락의 존재와 지역연계망 구축,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다양한 조합 관계, 전기 문화 집단 및 문물을 취락 구성요소로 흡수, 체계적인 취락설계와 사회적 위계체계 형성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색들은 만경강 유역권에서 청동기시대 문화를 별도로 이해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5. 송국리형 묘제와 지석묘의 상호관계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세트와 개별적(또는 선택적) 관계의 국지적인 양상일 수도 있다. 부여 송국리 일원과 그 주변의 관계가 익산권과 전주권의 관계와 같을 수 있으며, 영산강 유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고고학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적 파급에 따른 중심과 주변의 광의적 관점에서는 순수요소들의 감소와 선택적 존재에 기반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6. 후기 단계는 소수의 유적을 통해 취락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대규모이거나 체계적인 형태의 취락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숫적으로 적기 때문에 취락 자체가 적었거나 아직 조사되지 않은 유적 또는 완전히 새로운 입지에 조성된 취락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7. 논이나 밭과 같은 농경의 적극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기별로 나타나는 석도·갈판과 갈돌 등을 통해 농경이 행해졌을 가능성은 높다. 다량의 어망추, 석촉 등을 통해 어로·수렵·채집의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취락들 가운데 중상위 규모/체제의 취락들에서는 집체적 공동체의식의 제의행위가가 존재했다. 전기에는 환구와 수혈을, 중기에는 중앙 광장에 수혈을 설치해서 불과 할석을 활용하여 제의가 이루어졌다. 중기 단계의 동부 산악지대에서는 입대목 제의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문화 전통을 이어받은 후기단계 (중)소규모의 취락에서 계속 전승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卷23「南行月日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규정, 2014,「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례」,『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김규정, 2016,「전북혁신도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金承玉, 2001,「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硏究」,『韓國考古學報』45, 韓國考古學會.

김승옥, 2016,「전북혁신도시 부지 내 선사문화의 성격과 특징」,『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朴淳發, 1993,「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朴辰一, 2007,「粘土帶土器, 그리고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韓國靑銅器學報』 創刊號, 韓國靑銅器學會.

李健茂 1994,「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成立背景에 대하여-」,『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遺物을 通하여 본 社會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이영문, 2013,「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사 성과와 연구 과제」,『호남고고학회 20년, 그 회고와 전망』, 제21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李宗哲, 2000,『南韓地域 松菊里型 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全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이종철, 2002,「湖南地域 松菊里型 住居文化」,『韓國上古史學報』第36號, 韓國上古史學會.

이종철, 2014,「취락의 지역상-호남·제주 지역」,『취락 :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서경문화사.

李宗哲, 2015a,『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종철, 2015b,「섬진강 본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특징」,『先史와 古代』46, 韓國古代學會.

이종철, 2019,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단계」,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정치·사회 변동』,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이종철, 2020, 「만경강유역 송국리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과 변화에 대한 토론」, 『철기문화 시기의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철, 2021,「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 양상」,『韓國靑銅器學報』第二十八號, 韓國靑銅器學會.

이종철·정다운, 2020,「전주 황방산 일원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 유적 일원 유적 분포 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이창희, 2010,「점토대토기의 실연대-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철기의 출현 연대-」,『文化財』 제43권·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李淸圭, 2000,「遼寧 本溪縣 上堡村 출토 銅劍과 土器에 대하여」,『考古歷史學志』16, 東亞大學校博物館.
李亨源, 2005,「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 -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湖西考古學』12, 湖西考古學會.
李亨源, 2011,「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間性과 空間性」,『湖西考古學』24, 湖西考古學會.
李亨源, 2016,「忠淸西海岸地域의 粘土帶土器文化 流入과 文化接變」,『湖西考古學』34, 湖西考古學會.
이홍종, 2006, 「무문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中村大介, 2008,「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한국고고학보』68, 한국고고학회.
진영민, 2016,「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開始年代 再考」,『韓國靑銅器學報』第十八號, 韓國靑銅器學會.
천선행, 2019,「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조사성과」,『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崔盛洛, 1986,『靈巖 長川里 住居址Ⅰ·Ⅱ』, 木浦大學校博物館.
최완규, 2016,「전북 혁신도시의 역사와 문화」,『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2019,『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국립전주박물관 완주 지역특별전 기념 공동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2016,『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홍밝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湖南考古學報』36, 湖南考古學會.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완주 구암리 유적』.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蔚山 檢丹里 마을 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2015,『全州 東山洞 靑銅器時代 聚落』3권.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華城 盤松里 靑銅器時代 聚落』.
호남문화재연구원, 2015,『全州 東山洞遺蹟Ⅱ-나·다·라·마·저습지-』.
※단순 언급의 보고서는 생략함.

06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정 다 운
완주군청

Ⅰ. 머리말
Ⅱ.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현황과 분포
Ⅲ.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Ⅳ. 맺음말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정 다 운 (완주군 문화관광과)

Ⅰ. 머리말

만경강은 완주군(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 북부 일대를 가로질러 흐르며, 호남평야 형성에 근간이 되는 강이다. 만경강의 가장 큰 특징은 감조하천구간이 길며 전형적인 자유곡류하천이라는 점이다(전북의 하천과 주변문화 2016: 544).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만경강유역은 바닷물의 영향 범위에 따라 논농사가 유리했던 곳이 한정적이었으며, 고대 사람들의 생업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1].

만경강이 낮은 지대를 따라 자유롭고 끊임없이 흘러왔듯, 이 일대의 청동기시대 사람들 역시 환경에 적응하며 연속적으로 살았을 것이다.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는 최근 전주 동산동유적과 같은 대형 주거군이 확인되는 등 자료가 상당부분 축적되었으며, 그에 따라 만경강유역에 한정하여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살피는 연구 성과 또한 다수 발표되었다(김규정 2020; 김승옥 2016·2017; 천선행 2016·2019). 따라서 이러한 연구 성과들 이후의 새로운 유적의 보고가 미미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론 또는 획기적인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유적의 집적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에 부가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수준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간의 편년 연구를 다시 검토하기 보다는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현황과 분포를 살피고, 세부적으로 시기별 주거의 구성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청동기시대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조기의 미사리유형(기원전 15-13세기)과 전기의 가락동 · 역삼동 · 흔암리유형(기원전 13-10세기), 중기의 송국리 · 천전리 · 검단리유형(기원전 9-6세기), 후기의 수석리유형(기원전 5-4세기)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다만, 전북지역 내 조기의 미사리유형 주거는 순창 원촌유적에서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기의 토기전통이 확인되는 경우, 조·전기로 통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주로

1) 만경강 하구에서 삼례교까지와 그 사이의 지류 주변의 낮은 곳은 제수문(制水門)을 설치하지 않는 한 바닷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강의 본류인 삼례 하류부는 비옥한 충적평야임에도 불구, 저온지(低溫地)가 넓고 하천수에 염분이 함유되어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으며 홍수피해도 거듭돼 왔다. 따라서 제방축조·방조수문 설치 등 대규모 치수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20년대까지는 삼례지역 상류인 고산천과 소양천, 전주천, 삼천주변의 평야지대가 논농사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전북의 하천과 주변문화 2016: 545-546).

토기전통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동일한 유적 내에서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청동기시대 후기는 초기철기시대와 자료의 중복을 고려하여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를 대상으로 삼았다. 원형점토대토기는 기원전 2세기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대상 주거유적은 초기철기시대와 중복되지만, 그럼에도 원형점토대토기는 청동기시대 후기와의 연속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대표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현황과 분포

만경강유역에는 전북지역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주거군들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圖 1·2·3). 청동기시대 유적 수와 주거의 수는 조·전기 총 27곳 77기(表 2), 중기 77곳 510기(表 3), 후기 11곳 35기(表 4)가 확인되었다.

만경강유역의 지역별 유적과 주거의 수는 <表 1>과 같다. 조·전기 유적은 중기와 후기에 비해 유적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전북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의 수가 총 31곳인 것을 고려하면 만경강유역에 밀집양상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전기의 주거 유적은 동산동(18기)과 구암리(10기)를 제외하면 모두 10기 미만의 소규모 유적이다(圖 1). 즉,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통해 조·전기는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表 1. 만경강유역 지역별 청동기시대 유적 수와 주거 수(천선행 2020:56 재편집)

시기 \ 시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합계
청동기 조·전기	·	6(15)	8(17)	1(10)	13(35)	27(77)
청동기 중기	9(18)	10(50)	29(129)	6(36)	23(277)	77(510)
청동기 후기	·	2(8)	2(2)	3(7)	4(18)	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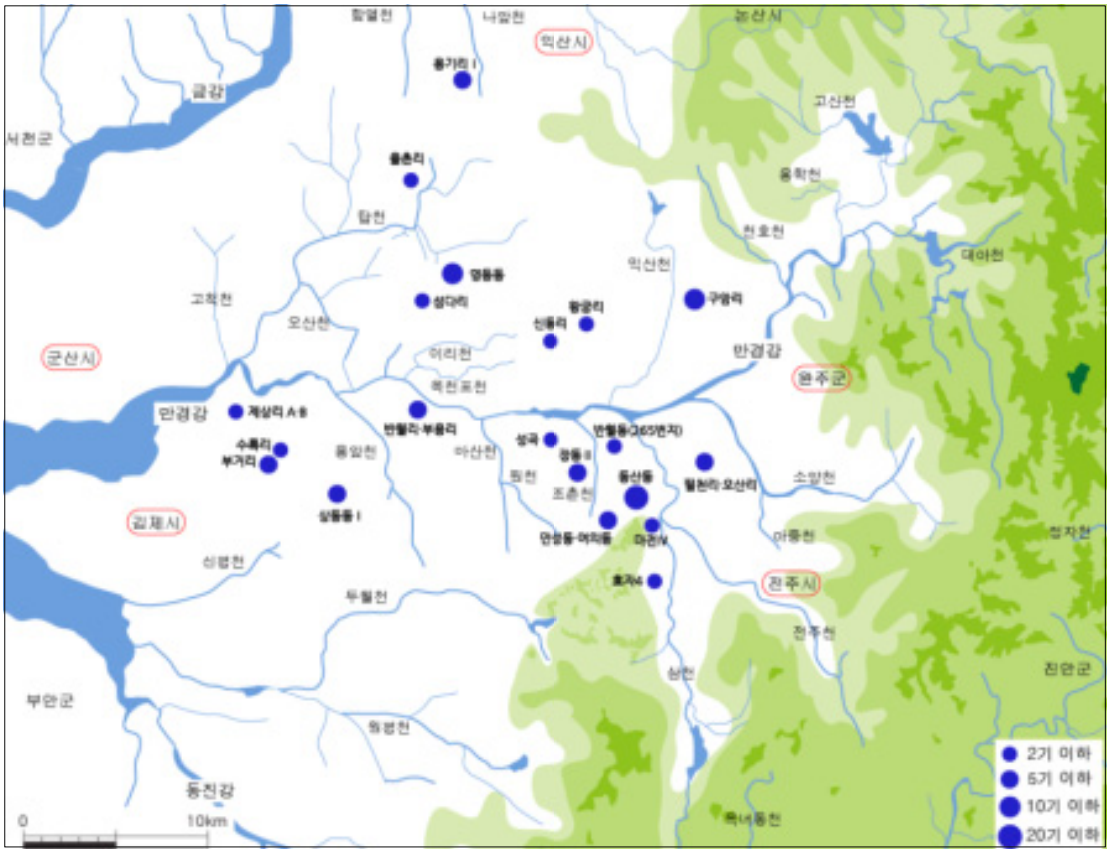


圖 1.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 분포

表 2.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현황

연번	지역	유적	주거수	입지 (해발고도)	평면형태[2]	면적 (수)	내부시설		문화유형	주요 출토유물
							노지	주혈		
1	익산	용기리 I	4기	구릉정상-사면 (25-29m)	(장)방형	소형(1) 중형(3)	토광 무시설	비정형	흔암리	구순각목+공열+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 어망추, 석촉, 합인석부, 지석 등
2		율촌리 분구묘	1기	구릉사면 (25m)	·		·	·	·	무문토기편, 유경식석촉
3		섬다리	2기	구릉정상 (12.5m)	(장)방형	소형(1) 중형(1)	무시설 토광	비정형	미사리	각목돌대문토기, 무문토기편 등
4		영등동 I 지구	6기	평지 구릉사면부 (20m)	(장)방형	소형(1) 중형(3)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 유경식석촉, 어망추, 방추차 등
5		영등동 II지구	1기	구릉정상부 (17m)	세장방	초대형	위석식	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문, 석검편, 석도편, 토제어망추, 방추차 등
6		영등동 III지구	1기	구릉정상부 (20m)	세장방	소형	·	비정형	가락동	무문토기편

연번	지역	유적	주거수	입지 (해발고도)	평면형태[2]	면적 (수)	내부시설		문화유형	주요 출토유물
							노지	주혈		
7		신동리 1지구	1기	구릉사면 (25m)	·	·	·	·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문, 토제어망추 등
8		무형리 고산Ⅱ	1기	구릉사면 (18.2m)	장방	소형	무시설	·	·	무문토기, 반월형석도, 석검 등
9	완주	구암리	10기	산지구릉 사면부 (75m)	(장)방형	중형(1) 소형(6)	무시설	비정형	흔암리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공열+구순각목문, 석촉, 반월형석도, 방추차, 어망추 등
10		장동Ⅱ	4기	평지구릉 (23-4m)	(장)방형	중형(3)	토광	·	흔암리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열+이중구연+단사선, 흑색마연토기, 어망추 등
11		마전Ⅳ	1기	구릉정상 (37m)	장방	중형	·	·	·	구순각목문, 토제어망추, 망치돌, 지석 등
12		동산동	18기	충적대지	(장)방형	초대형(1) 중형(2) 대형(4) 소형(11)	(석상) 위석 무시설 토광	정형 비정형	미사리	돌대문토기,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적색마연토기호 (무)각목돌대문, 심발형토기 토제어망추, 유구석부
13		오산리 붓내A	1기	구릉정상부 (37.3m)	장방	·	무시설	·	·	무문토기편
14		오산리 붓내C-1 (외부)	1기	구릉정상부 (32.3m)	방형	소형	무시설	·	·	·
15	전주	오산리 붓내C-1 (내)	2기	구릉정상부 (32.3)	(장)방	중형(1) 소형(1)	무시설	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석기 등
16		효자4	1기	구릉정상부 (48m)	장방	중형	무시설	·	흔암리	이중구연+단사선, 발화석 등
17		성곡	2기	구릉정상부 (30m)	(장)방형	중형	토광	비정형	가락동	호형 및 옹형토기, 이중구연+단사선, 어망추, 석착, 석도, 석촉, 석제방추차 등
18		여의동 1-1	1기	구릉정상부 (33.3m)	방형	소형	위석 무시설	비정형		호형토기, 석도 등
19		원만성A	1기	구릉사면 (40.1m)	·	·	·	·		직립구연호 등
20		원만성 1-1	1기	구릉정상부 (38.6m)	방형	중형	토광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21		반월동 (265번지)	2기	구릉정상-사면 (23.7-20.5m)	방형	중형	토광	정형 비정형	흔암리	무문토기편, 석촉 등
22		상동동Ⅰ	3기	구릉정상-사면 (16-19m)	방형 장방	중형(1) 대형(2)	토광	비정형 정형	가락동	적색마연토기,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단사선, 방추차, 석검, 어망추, 석도, 석촉 등
23	김제	제상리A	1기	구릉정상부 (17m)	방형	대형	토광	정형 (초석)	가락동	무문토기편, 석부, 망치 등
24		제상리B	1기	구릉정상부 (17.2m)	세장방	중형	·	정형 (초석)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방추차, 석촉 등

연번	지역	유적	주거수	입지 (해발고도)	평면 형태[2]	면적 (수)	내부시설		문화 유형	주요 출토유물
							노지	주혈		
25		부거리 Ⅰ-1	3기	구릉사면부 (20.1-20.6m)	(장)방형	소형(1) 중형(2)	무시설 토광	비정형 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방추차, 석도, 지석 등
		부거리 Ⅰ-2	2기	구릉정상부 (15m)	(장)방형	소형(1) 중형(1)	무시설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무문토기편 등
26		수록리 C지구	1기	구릉정상부 (22m)	장방	초대형	·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거치문, 방추차, 석촉, 토제어망추 등
27		반월리·부용리 (4구역)	4기	구릉정상-사면 (17.1-20.4m)	(장)방형	소형(1) 중형(2)	·	비정형	가락동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파수부, 갈판, 어망추 등

만경강유역에 자리 잡은 청동기시대 취락은 지류 사이사이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경강으로 합류되는 작은 지류들은 청동기시대 마을 사람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며, 그와 동시에 마을 간 경계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주거는 입지 선정에 따라 크게 충적지와 구릉지로 대별된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조·전기 주거는 충적지와 구릉 정상 및 사면부에 입지한다(表 2). 그 중 유일하게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조·전기의 거점취락인 동산동유적은 황방산에서 흘러내리는 구릉 최말단부와 북쪽의 만경강 사이에 위치한 해발 13~14m 내외의 평탄한 충적지에 위치한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33). 따라서 내륙의 수계를 따라 하천 충적지에 분포하는 조기의 돌대문토기문화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김재윤2004:35-6). 반면, 동산동을 제외한 유적의 입지는 대부분 저지성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구암리유적은 해발 75m의 산지구릉에 입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농경에 유리한 입지를 보이나, 취락이 소규모인 점과 주거의 분포 양상이 주로 단독 혹은 몇 기씩 소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규모 개간을 통한 농경보다는 소규모 경작지를 이용한 농경생활과 함께 수렵 · 채집 · 어로도 병행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박서현 2015:96). 만경강유역의 조·전기 주거는 지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주변보다 높은 미고지 또는 구릉지가 주거구역으로 선택되었으며, 주거 대부분이 구릉정상이나 능선을 따라 설치된다는 점에서 금강유역 가락동유형과 유사하다(천선행 2016:85).

중기 주거는 조·전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유적의 수뿐만 아니라 각 유적에 해당하는 주거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圖2, 表2). 총 77곳에서 510기가 확인되었고 형태 파악이 가능한 주거 수는 462기이다. 중기 주거의 입지는 충적지와 구릉 사면 및 정상부로 구분된다. 충적지에 입지하는 동산동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저지성 구릉의 능선과 사면에 입지한다(김승옥 2017:42). 또한 조·전기 주거와 마찬가지로 만경강 본류보다는 지류에 집중되며, 특히 전주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2) 형태 및 면적 분류기준(정다운 2015:28-29)
-형태: 방형(1.5미만) / 장방형(1.5~2.5미만) / 세장방형(2.5이상)
-면적: 소형(25㎡미만) / 중형(25-70㎡미만) / 대형(70-100㎡) / 초대형(10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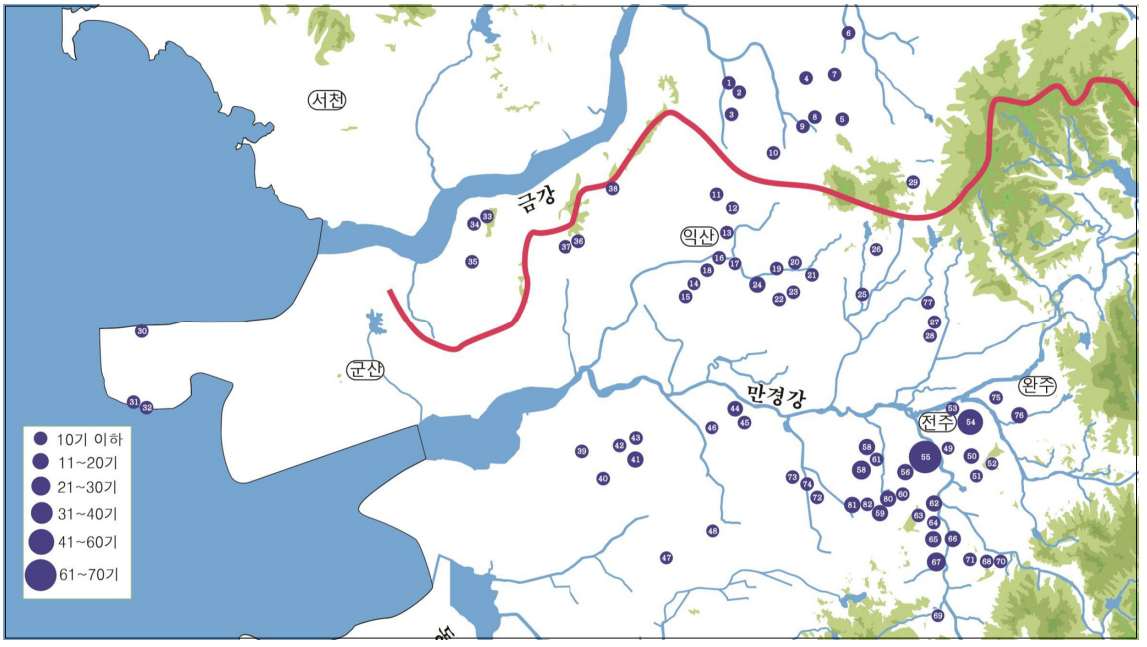


圖 2.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 분포

表 3. 만경강유역 청동기기대 중기 주거 유적 목록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해발고도)	주거 수	주거 형태[3]
1	익산	금성리		능선상단(36m)	1	A1(방형1)
2		와리 금성	가구역	구릉사면(21-23m)	2	A1(방형2)
3		와리 정동		구릉정상-사면(18-27m)	8(7)	A1(원형3·방형2), C1(원형1), A2(원형1)
4		어량리	가지구	구릉정상-능선(24-26m)	5(4)	A1(원형2), B1(원형2)
5		어량리 마산		구릉사면(28-42m)	8(5)	C1(원형3), D1(방형1), 기타(1)
6		무형리·어량리	무형리 고산2	구릉정상(17-18m)	3	A1(원형2),
7			어량리 중발(가)	구릉능선(16-18m)	4	A1(원형3), A2(방형1)
			어량리 중발(나)	구릉정상-사면(15-19m)	10(6)	A1(원형4·방형1), 기타(1)
8		삼담리 상북지		구릉정상-능선(23-27m)	5	A1(원형3), D2(원형2)
9		호암리	다구역	구릉사면(25-28m)	1	C1(방형1)
10		용기리 I		구릉정상-능선(28-30m)	3	A1(방형3)
		용기리 II		구릉정상(30m)	2	A1(방형1), C1(원형1)
11		율촌리 분구묘	1호	구릉정상-사면(25m)	3	A1(원형1), C1(방형1)
12		율촌리		구릉사면(11-12m)	2	C1(방형2)
13		보삼리		구릉정상-능선(28m)	1	A1(원형1)
14		장신리	I 구역	구릉정상-능선(15-18m)	4	A(원형3), A2(원형1)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해발고도)	주거 수	주거 형태[3]
15		송학리			2	A1(원형1), C1(원형1)
16		모현동	창고부지	구릉말단	1	A2(원형1)
17		모현동	교회부지	구릉능선(11-14m)	7	A1(원형1·방형3), C1(원형1), 기타(2)
18		모현동2가 Ⅱ	묵동	구릉정상-사면(12.6m)	1	A1(원형1)
			학동	구릉사면(15m내외)	2	A1(방형1), C1(방형1)
19		부평	Ⅰ구역	구릉정상(25m)	5(4)	A1(원형2), C1(원형1), 기타(1)
			Ⅱ구역	구릉정상(24.5m)	3	A1(원형3)
20		부송동 석치고개		구릉정상-사면(22-26.8m)	9(8)	A1(원형1·방형1), C1(원형2), E1(방형2), D2(원형1), 기타(1)
21		팔봉동		구릉사면(42-43m)	1(0)	
22		부송동		구릉사면	3(2)	C1(원형1), C2(원형1)
23		부송동 242-73		구릉사면(31-33m)	5	A1(원형3·방형1), 기타(1)
24		영등동	Ⅰ지구	구릉능선(18-20m)	6(5)	A1(원형2·방형1), C1(원형2), 기타(1)
			Ⅱ지구	구릉능선(16-18m)	3	A1(원형2), 기타(1)
			Ⅲ지구	구릉능선(19-20m)	7	A1(원형1·방형4), C1(원형2)
25		덕기동		구릉사면(32-33m)	2	A1(원형1), C1(원형1)
26		신용리 갓점		구릉정상(55m)	1	A1(원형1)
27		광암리·동촌리	광암리	구릉사면(46m)	2	A1(원형1), C1(방형1)
28		홍암리			1	C1(원형1)
29		원수리		구릉사면(67-71m)	6(5)	A1(원형4), D1(원형1)
30	군산	노래섬	나지구	구릉사면 (15.5~20.5m)	1	·
31		띠섬패총	Ⅰ지구B	구릉정상(5-9m)	1	기타(1)
32			Ⅱ지구A	구릉정상(7-10m)	1	·
33		여방리		구릉사면	1	D1(방형1)
34		도암리		능선사면(48m)	1	B1(원형1)
35		고봉리	Ⅱ	구릉능선(27-28m)	4(3)	A1(원형2), C1(방형1)
			D	구릉능선(35m)	1	A1(방형1)
36		축산리		구릉사면(24-27m)	2	A1(원형1), D1(원형1)
37		축산리 계남	2구역	구릉정상-사면 (21-26m)	2	A1(방형2)
38		관원리	Ⅰ	구릉사면 구릉정상(29m내외)	2	A1(원형1), A2(원형1)
			Ⅱ-가	구릉능선(32-33m)	1	A1(원형1)
			Ⅱ-나	구릉사면(21m)	1	C1(방형1)
39	김제	장산리(長山里)		구릉사면(20m)	1	A1(원형1)
40		양청리		구릉정상(10-15m)	3(1)	기타(1)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해발고도)	주거 수	주거 형태[3]
41		부거리·하정리	부거리Ⅰ-2	구릉정상(15-18m)	4	A1(원형3, 방형1),
			부거리 Ⅱ	구릉능선(22-26m)	9	A1(원형8), 기타(1)
42		내죽리		구릉사면-말단(20-23m)	4	A1(원형3), A2(원형1)
43		수록리	C지구	구릉정상-사면(22-23m)	9	A1(원형3·방형4), C1(방형1), E1(방형1)
44		반월리 · 부용리	4구역	구릉정상-사면(19-20m)	11	A1(원형7·방형1), C1(방형1), D1(원형1), 기타(1)
45		석담리	B구역	구릉정상부	2(0)	·
			D구역	구릉정상~사면	3	A2(원형1), 기타(2)
46		월봉리		구릉정상부	1	기타(1)
47		검산동		구릉정상(30m)	2	A1(원형2)
48		상동동Ⅲ		구릉사면(30m)	1(0)	·
49	전주	송천동	B지구	구릉정상-능선(26m)	1	A1(방형1)
50		송천동2가		구릉능선(29-33m)	16(13)	C1(원형2·방형1), D1(원형2) D2(원형1), 기타(7)
51		오송리		구릉정상(35-36m)	6	A1(방형5), 기타(1)
52		송천동 97-20		구릉사면(37-38m)	5	A1(원형2), D2(원형1), 기타(2)
53		필천리	붓내C-1(외)	구릉정상(32.3m)	4	A1(원형1·방형2), D1(방형1)
54		오산리	붓내A	구릉사면(36-37m)	4	A1(원형3·방형1)
			붓내C-1(내)	구릉정상(30-32.1m)	1	기타(1)
			화정A	구릉정상-사면(40m내외)	13(12)	A1(원형10), C1(원형1), A2(원형1)
			오매A-1	구릉정상(40m내외)	4	A1(원형2), C1(원형1), D1(원형1)
			오매A-2	구릉정상-사면(38-40m)	7	A1(원형6), C1(원형1)
			오매A-3	구릉정상-사면(36-38m)	17(15)	A1(원형10), C1(원형3), D2(원형2)
55		동산동	나·마지구 저습지 (호문연) Ⅰ·Ⅱ·Ⅲ (전북연)	충적대지(13-14m)	70(67)	A1(원형16·방형20), B1(원형1·방형1), C1(원형8·방형4), D1(원형4·방형3), A2(원형5), C2(원형1), D2(원형4)
56		반용리	Ⅰ구역	구릉사면(36m 내외)	2(1)	A1(원형1)
			Ⅱ구역		1	A1(원형1)
57		장동Ⅱ		구릉정상-능선(24-25m)	3	D1(방형1), E1(방형1), 기타(1)
58		만성동 · 여의동	원만성C	구릉능선-사면(34-36m)	6	A1(원형3), C1(원형1), A2(원형1), C2(원형1)
			만성동B	구릉사면(38m)	1(0)	·
			원만성A	구릉정상-사면(40-43m)	6(5)	C1(원형2), A2(방형1)
			만성동 원만성1-1	구릉능선-사면(39-40m)	5	A1(원형1), A2(원형2), B1(원형1), 기타(1)
			만성동 원만성1-2	구릉정상(39.4m)	5	A1(원형5)
			만성동 원만성1-3	능선사면(41-42m)	3(2)	A1(원형1), A2(원형1)
			만성동 원만성1-4	구릉능선(43.8m)	1	A1(원형1)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해발고도)	주거 수	주거 형태[3]
59		만성동 · 여의동	여의동1	구릉정상(33-34m)	7	A1(원형3), C1(원형2), A2(원형1), B2원형1)
			여의동2-2	능선사면(34-40m)	3	C1(원형1), C2(원형1), 기타(1)
			여의동2-3	구릉사면(33-34m)	3(2)	A1(원형1), C1(원형1)
60		만성동 · 여의동	여의동 용정1	능선(33.8m)	1	기타(1)
61		여의동		구릉사면(42m)	1	D2(원형1)
62		마전	Ⅲ구역	구릉정상(42m)	11	A1(원형9), B1(원형1), A2(원형1)
63		척동	Ⅰ구역	구릉정상(43m)	1	A1(원형1)
			Ⅱ구역	구릉정상-사면(35m내외)	2	A1(원형1), 기타(1)
64		봉곡	Ⅱ구역	구릉정상(49-50m)	3	A1(원형2), C1(원형1)
65		효자4	Ⅰ지구	구릉정상-능선(48-51m)	12	A1(원형7), C1(원형1), D2(원형2)
			Ⅱ지구	구릉사면(50m)	2	A1(원형1), C1(원형1)
			Ⅲ지구	구릉정상-능선(54-55m)	4	A1(원형1), A2(원형2), D2(원형1)
66		효자5	B구역	구릉말단(46-48m)	14	A1(원형1), E1(원형1), A2(원형2), C2(원형1), D2(원형6), 기타(3)
67		효자복합	신주Ⅰ	구릉정상(46-47m)	6	A1(원형2,방형1), A2(원형2), B1(원형1)
			함대Ⅰ	구릉사면(59.3m)	3(1)	A1(원형1), 기타(1)
			함대Ⅲ	구릉정상-사면(60-64m)	5	A1(원형2), A2(원형2) C2(원형1)
			함대Ⅴ	구릉정상-능선(59-62m)	5	A1(원형4), 기타(1)
			함대Ⅶ	구릉사면(57.4m)	1(0)	·
			함대Ⅷ	구릉사면(58.4m)	1	기타(1)
			함대Ⅸ	구릉사면(47-58m)	4	A1(원형3), A2(원형1)
68		평화동		구릉능선(62m)	1	A1(원형1)
69		중인동		구릉정상-사면(61-63m)	4	A1(원형2),C1(원형1), D2(원형1)
70		대정		구릉정상(57.8m)	1(0)	·
71		대정Ⅳ		구릉능선(58.5m)	1(1)	C1(원형1)
72	완주	신풍	가	구릉정상-능선(35-40m)	4	A1(방형3), C1(방형1)
73		반교리			2	A1(원형2)
74		옥정	B	구릉능선(30-40m)	4	A1(원형2,방형2)
75		상운리	라	구릉능선-사면(40-45m)	8	A1(원형5), B1(원형1), 기타(2)
76		운교	Ⅰ구역	구릉능선-사면(35-40m)	13(12)	A1(원형9), A2(원형1), 기타(1)
77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4]	2구역A	구릉사면(56-57m)	2	C1(원형1) D1(방형1)
			3구역A	구릉사면(55m)	1	C1(원형1)
			5구역F	구릉사면(47-49m)	3	A1(방형2), C1(원형1)

또한 조·전기 주거와 중기 주거는 입지분포의 양상이 비슷하며, 개별 주거는 능선 상부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발고도 상으로는 20~40m의 비교적 저평한 구릉에 전체 주거의 약 80%가 입지한다.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는 총 11곳에서 35기가 확인되었다(圖3, 表4). 중기 주거에 비해 취락 형성이 매우 빈약하며, 동시기 분묘유적의 발견에 비해서도 너무나 적은 수이다. 하지만 점토대토기문화기 취락의 부재는 호남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발굴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김규정 2020:44).

후기 주거는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 분포양상과 마찬가지로 낮은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에 입지하며, 모두 5기 이내의 소형취락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김승옥 2017:49). 또한 조·전기와 중기 주거의 분포양상이 겹치는 정도에 비해 후기 주거와는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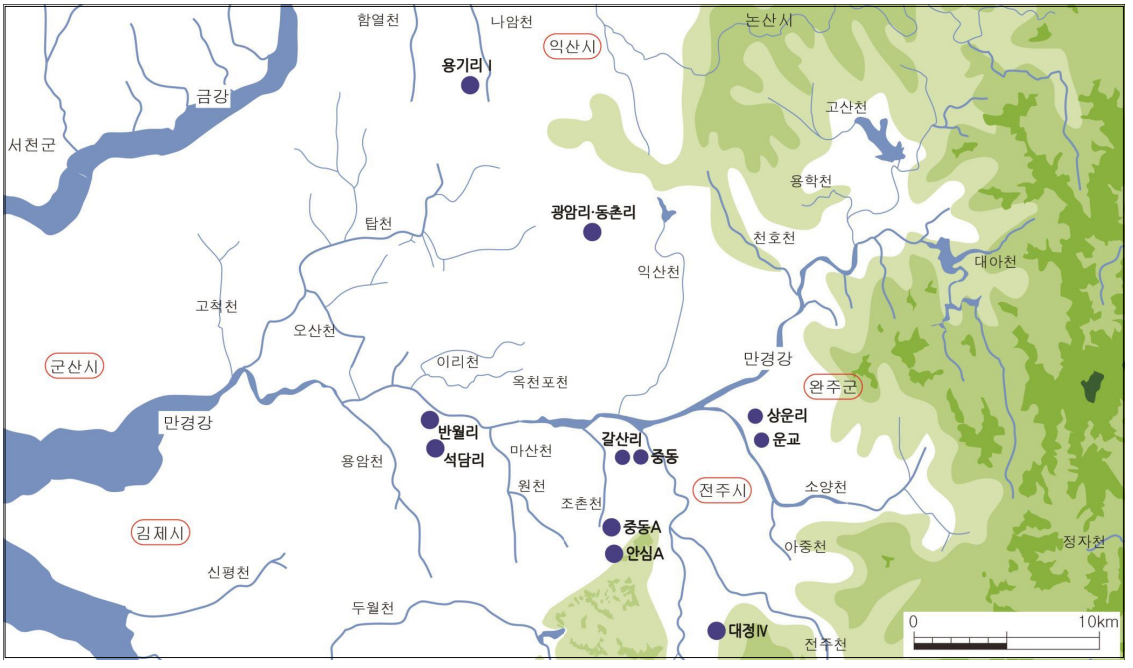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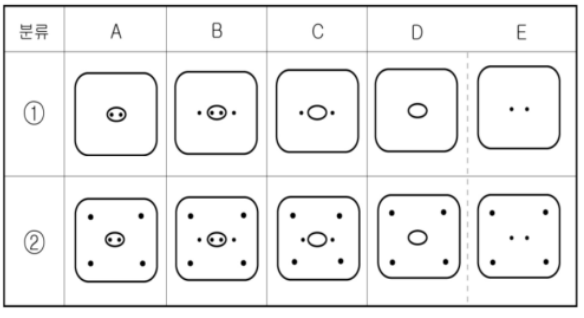


圖 3.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분포

3) 송국리형주거 분류(이종철 2000; 2016:67)



4)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유적 발굴조사 완료 결과보고서』.

表 4.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유적 목록

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	주거 수	평면 형태	내부시설	주요 출토유물
1	익산	용기리 I	구릉정상 (27m)	1	방형	수혈	조합식파수
2		광암리·동촌리 (4지점)	45.1m	1	말각방형	수혈·주혈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우각형파수, 방추차
3	김제	석담리 (B지구)	능선말단	2	(장)방형	노지·주혈	점토대토기, 파수부편, 무문토기편
		석담리 (D지구)	구릉사면	2	(말각)장방형	주혈	무문토기편, 시루편 두형토기(시굴)
4		반월리	능선-사면 (19-24m)	4	(말각)방형	수혈(4호)	파수부옹, 석창, 어망추
5	완주	갈산리 (가지구)	구릉사면 (31m)	2	말각방형	노지·수혈	원형점토대토기, 석제품 등
6		상운리 (나지구)	구릉정상 (35m내외)	4	방형	노지 (타원형, 소토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삼각형석촉 등
7		운교	구릉정상 (40m)	1	송국리형 (원형)	타원형수혈 (A2)	적색마연·원형점토대,두형토기, 뚜껑, 조합식우각형파수, 삼각형석촉
8	전주	안심	구릉사면 (33-34m)	2	원형계	-	심발형토기, 원형점토대·삼각형점토대, 파수부, 송풍관
9		중동 (4지구)	능선-사면 (38m내외)	5	장방형	주혈(5호)	원형점토대·삼각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두형토기, 토제방추차, 삼각형석촉
10		중동A (다지구)	구릉사면 (33m)	2	방형	-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11		대정Ⅳ	능선-사면 (58m내외)	9	(말각)장방형	수혈·주혈 노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어망추, 석창, 유경식석촉 등

Ⅲ.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1) 조 · 전기 주거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는 27개소 밖에 되지 않지만,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흔암리유형 문화가 모두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김규정 2011; 정다운 2015; 천선행 2016; 김승옥 2017: 38). 즉, 주거와 유물의 조합에서 전형적인 가락동, 역삼동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문화적 복합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에서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화유형들의 변화과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천선행 2016, 김승옥 2017). 그 내용은 만경강유역의 전기문화요소는 가락동유형의 토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역삼동유형이 가락동유형과 섞이지 않은 채 단독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금강유역에서 전파되어 가락동유형의 유입이 이루어진 다음 역삼동유형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천선행 2016:87-89, 김승옥 2017;40). 이러한 시각은 각 문화유형 집단 간의 영향과 문화 교류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조·전기 주거자료를 살핌으로서 주거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주거의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주거의 평면형태는 방형 26기, 장방형 30기, 세장방형 3기로 (장)방형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 면적은 2.95㎡의 소형부터 162.66㎡의 초대형까지 고르게 확인되는데, 이렇듯 면적의 차이가 넓게 확인되는 것은 [圖 4]와 같이 동산동 유적의 영향이 크다. 특징적인 것은 10㎡이하의 소형 주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 주거에 인접하여 소형 주거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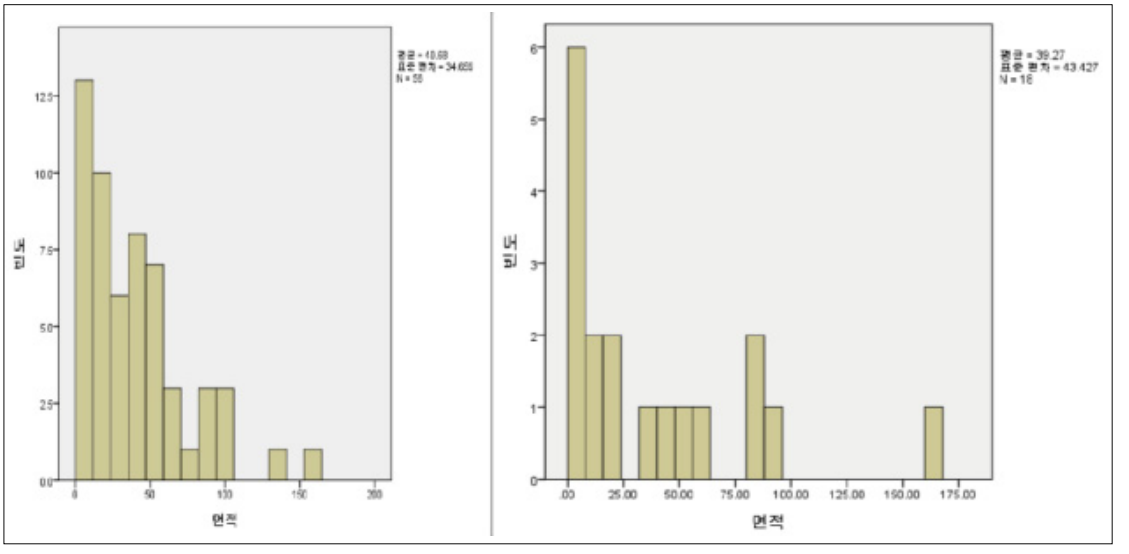


圖 4. 만경강유역(왼쪽) 및 동산동 유적(오른쪽)의 조 · 전기 주거 면적 분포

조·전기 주거의 내부시설은 노爐, 주혈, 저장수혈 등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주거 외부 및 내부의 구조를 추정하고 주거 유형 및 특징 파악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먼저 노는 총 56기 주거에서 확인되었으며, 축조방식에 따라 석상위석식, 위석식, 토광식, 무시설식으로 세분된다. 각 형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토광식이 29기(52%)로 가장 많고, 무시설식 21기(37%), 위석식 5기(9%), 석상위석식 1기(2%)로 집계된다. 석상위석식은 조기의 문화요소 중 하나로 이해되는데, 동산동 39호 주거지에서만 1기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위석식 노는 대체로 중대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무시설식은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 그대로 이용한 방식으로 그 형태가 부정형, 타원형, 방형 등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토광식 노는 한 주거지 내에 2기가 시설되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노 사이의 간격과 위치 등 배치하는 방식에서 유적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유적의 각 집단들은 노를 다루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혈은 12기 주거에서 정형성이 확인되었으며, 구조는 2열 5주공, 2열 3주공, 4주공, 중앙 1열식이 확인되는데(圖 5), 가락동 또는 역삼동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극히 소수의 자료가 확인되었다. 또한 비정형 주혈은 주거마다 개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저장수혈의 형태는 말각방형, 원형, 타원형 등 다양하며 규모 역시 각기 차이가 있다. 위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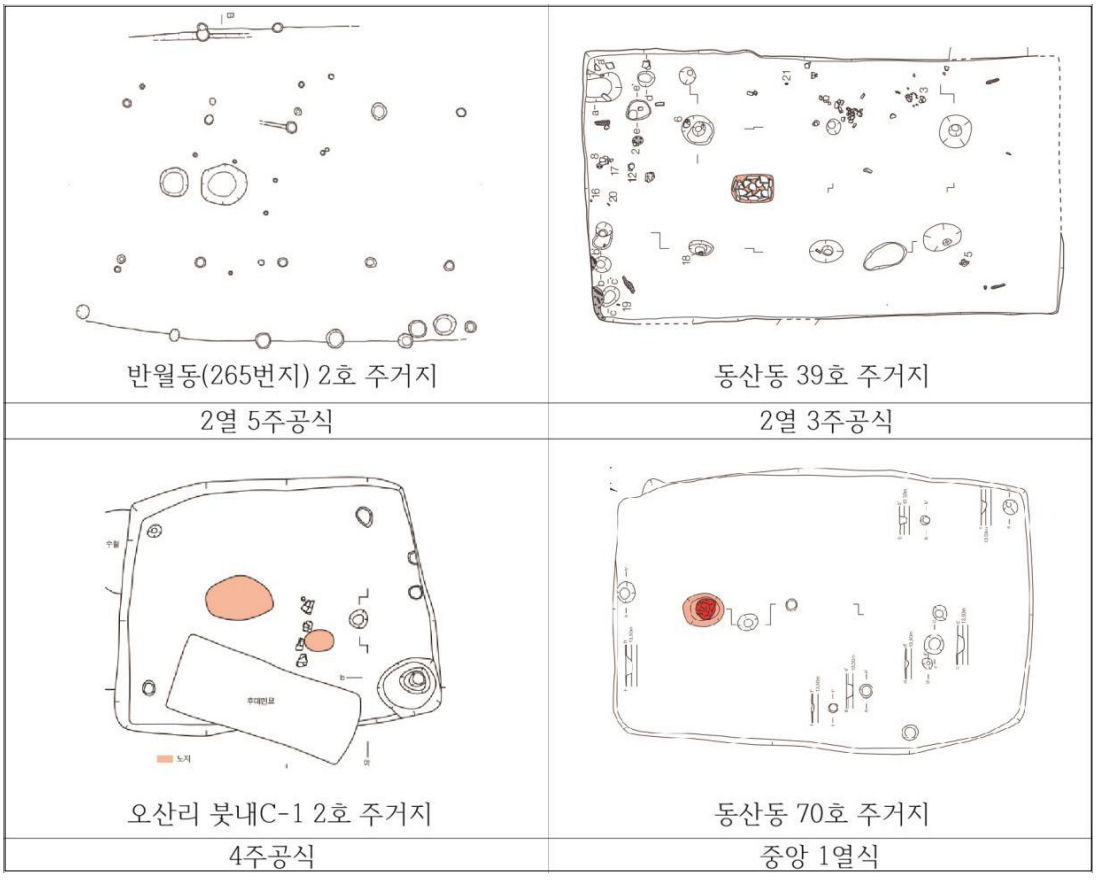


圖 5. 조 · 전기 주거 주혈 형식(이종철 · 정다운 2020:319 인용)

반적으로 노 근처나 노와 거리를 두고 벽을 따라 조성된다. 노의 위치가 주로 한쪽 단벽과 가깝게 조성되는 것과는 달리 저장수혈은 주거 내에서 필요에 따라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의 경우 주거지 중복 또는 후대 교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주거에서 확인되지만 저장수혈은 주거 내에 설치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다. 따라서 저장공의 설치 자체에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만경강유역 조·전기 주거의 출토유물은 주로 실생활용으로 사용되었을 어망추, 방추차와 같은 생업도구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다수의 어망추 출토는 주거의 입지가 만경강의 지류에 중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수심이 얕은 강가에서 어로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토기 양상은 동산동, 영등동, 섬다리 유적에서 돌대문토기가 확인되었으며, 동산동에서는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의 공반양상이, 영등동과 섬다리 유적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절상돌대문토기가 공반된다. 따라서 조기의 문화요소가 전기의 어느 시점까지는 공존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김승옥 2017:38),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동산동유적의 시기에 대해서는 어망추의 형태를 근거로 돌대문토기집단의 유입시기를 전기 이후로 설정한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천선행 2016:87). 이는 전주 동산동유적의 돌대문토기문화가 주변으로 파급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천선행 2019:

62)과 연관되는데, 필자는 동산동의 장방형 주거가 조기보다는 전기의 문화요소가 더 강한 취락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돌대문토기와 함께 확인되는 전기의 유형은 대부분 가락동유형으로, 시간적으로 전기의 늦은 시기까지 공존하는 역삼동유형보다는 앞선 전기 전반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만, 돌대문토기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미사리유형의 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장동Ⅱ, 성곡, 효자4, 만성동·여의동, 오산리 유적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확인되어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가락동유형의 전통이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의 성격까지 살펴본다면 완벽히 가락동유형으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조·전기 유적 중 장동Ⅱ유적과 용기리Ⅰ, 구암리유적에서 구순각목+공열+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가 확인되어 흔암리유형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만경강유역의 조·전기 주거는 현재까지도 자료의 분석에 있어 주거의 형태 및 유물상으로 문화유형을 구분하려고 했을 때(表 2), 적어도 현재까지 만경강유역에 한정해서는 결국 어떠한 유형이든 입지, 주거형태, 내부시설, 출토유물 등 명확히 들어맞는 유형설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이미 섞여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각 유형들이 동시 공존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전기 취락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산동 취락은 조·전기단계의 유일한 대규모 취락으로서 의미가 있다. 타 유적들에 비해 대규모이지만, 전기 단계에서는 분묘 또는 생산구역을 분리하는 등의 영역화나 위계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취락의 분포에서 중기의 광장으로 추정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는 것이 눈에 띈다(圖 6). 이러한 주거의 분포는 조·전기 취락에도 공지의 활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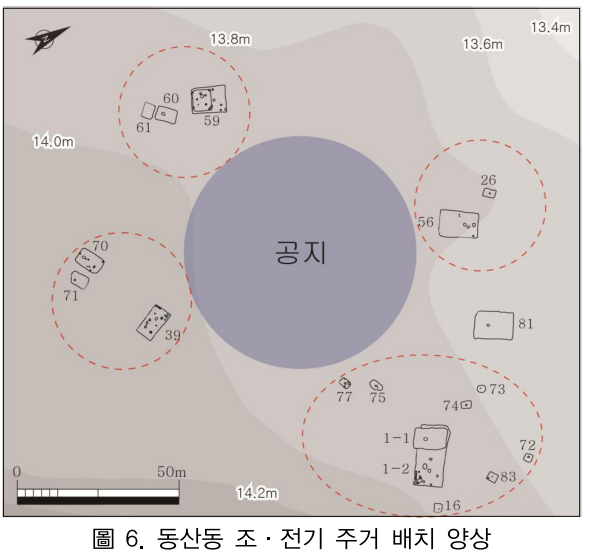


圖 6. 동산동 조·전기 주거 배치 양상
(김승옥 2017:38 필자 재편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산동 취락에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10㎡이하의 소형주거의 분포이다. 소형주거는 총 10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72·73·74·75·77호 주거는 가장 큰 주거인 1-1호 및 1-2호 주거를 중심으로 감싸듯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56호와 59호의 주변에도 소형의 주거가 배치되어 있다. 동산동유적의 보고자는 이 소형 주거지의 기능에 대해 1~2인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으며, 내부에 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주거로 분류하였고, 일반적인 주거가 아닌 의례공간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3권:8). 소형주거의 기능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대형주거와 소형 주거에서 확인된 노의 형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소형주거에서는 토광식 노와 무시설식 노만 확인되어 주거 규모에 따라 노지 선택을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외적으로 56호 주거지는 중형이며 토광식 노만 2기가 확인되었으나, 중기의 주거들이 그 위로 중복되고 있어 노지가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른 유적의 사례로는 섬다리유적의 1호(소형)와 2호(중형)가 서로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2호에서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고, 1호 주거는 내부 중앙에서 무시설식노지와 무문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전기 주거 구성을 파악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료들이지만, 동산동유적을 중심으로 10㎡이하 소형 주거의 기능에 대해 ① 대형주거의 부속시설(취사 또는 작업공간) ② 소수인원이 거주했던 주거공간 ③ 의례 공간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김제 수록리에서도 주거의 기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가 확인되었다(圖 7). 수록리 1호 주거는 구릉정상부에 입지하며, 주변으로 송국리형주거 9기가 조성되었다. 장축 4.1m, 단축 2.1m의 장방형의 초대형으로, 내부 중앙에 단시설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시설은 주거 조성시 풍화암반층을 의도적으로 남기고 다듬어 조성하였다. 유적의 보고자는 주거의 기능에 대해 단시설 이외의 다른 내부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취락의 제의 공간 또는 공동 집회시설로 추정하였다(군산대학교박물관 2014:170). 하지만 출토유물의 구성에서 주변의 송국리형 주거와 차이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1호 주거에서는 이중구연거치문토기, 반월형석도, 미완성석기, 마연도구,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고, 주변의 송국리형주거에서는 삼각형석도, 유경식석촉 등이 다수 출토되고 미완성석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토유물과 내부시설을 통해 수록리 1호 주거의 단시설은 도구 제작 등 작업 공간 등으로 사용된 전기의 다용도 공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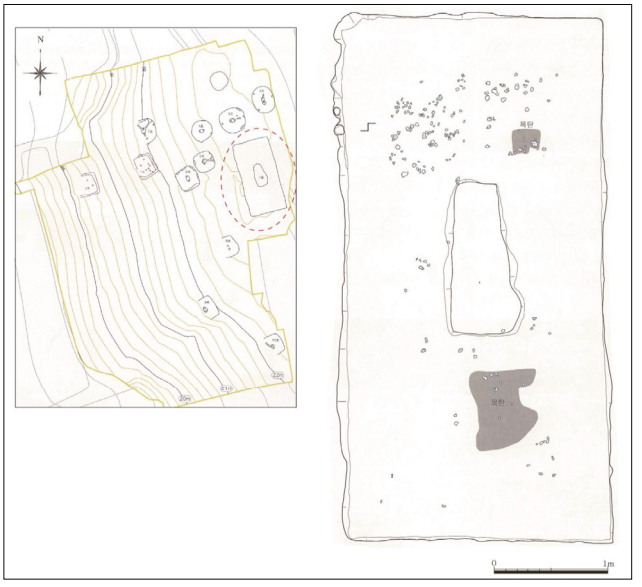


圖 7. 김제 수록리 1호 주거
(군산대학교박물관 2014:74 필자 재편집)

완주 구암리유적은 만경강유역에서 유일하게 해발고도 70m이상의 산지구릉에 위치하며, 환호가 확인되어 이 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특수한 기능에 대한 예시로 항상 언급되는 유적이다. 환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주변지역의 취락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천선행 2019:62). 주거는 총 10기가 확인되었는데 중복된 주거가 확인되어 유적의 시간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군산대학교박물관 2014:166), 출토유물을 통해 중복 주거인 4호와 4-1호 간의 시간차를 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천선행 2016:75). 3호, 4호, 4-1호, 6호에서 공통적으로 돌기형 꼭지가 달린 발형토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圖 8). 따라서 환호유구를 중심으로 배치된 10기의 주거는 단절적이지 않게 조성 및 영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기의 주거 집단이 사용한 분묘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전기 분묘

의 편년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데, 직립구연호 옹관묘에 대한 편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만경강유역에서 논의 가능한 자료는 동산동, 율촌리, 운교유적이며, 주거와의 공반 관계에서 송국리형 주거와 함께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만경강 일대의 자료가 적고, 직립구연의 요소가 전기 주거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전기의 옹관묘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 자료만을 토대로 옹관묘의 편년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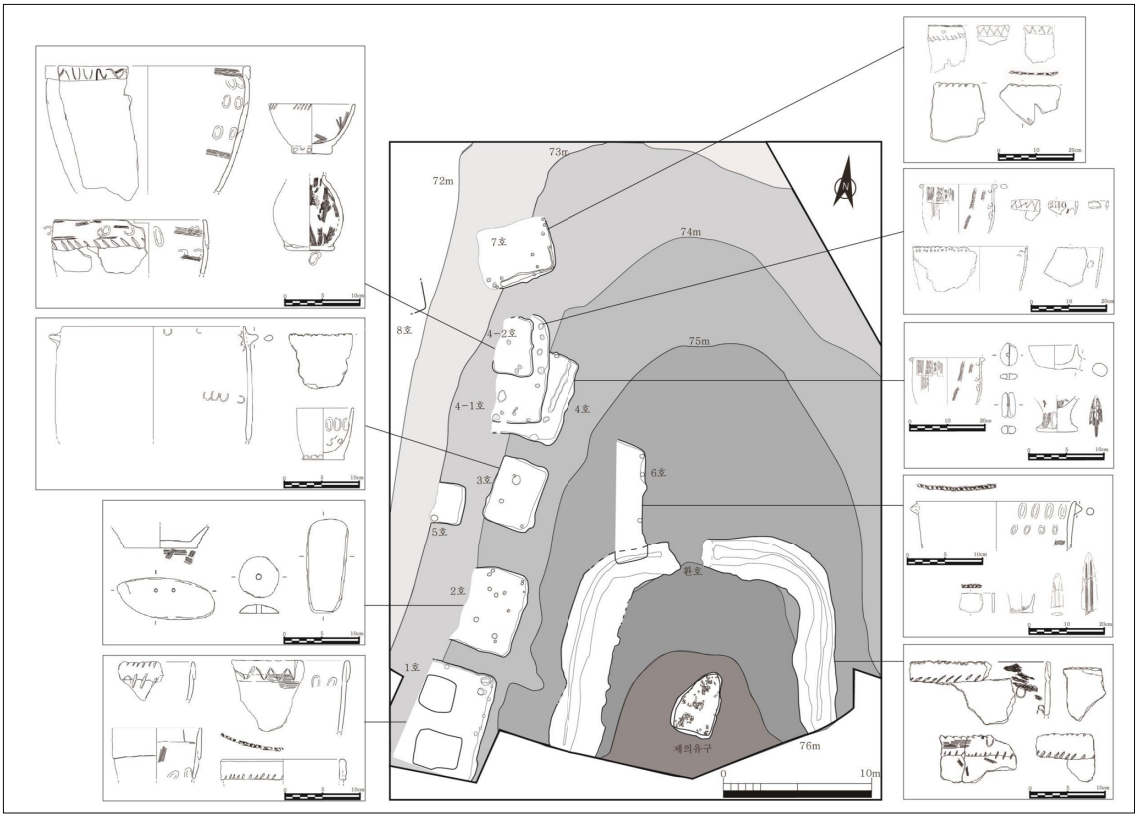


圖 8. 완주 구암리유적 주거 분포 및 주요 출토유물(김승옥 2017:42 필자 재편집)

2) 중기 주거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유적은 77개소에서 510동이 확인되었으며, 원형의 평면형태 내부에 타원형수혈이 조성된 송국리형 주거로 대표된다. 만경강의 상류와 중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몇몇의 대규모 취락을 제외하면 전기와 마찬가지로 10기 이하의 소규모이지만, 주거의 밀집도가 매우 높다. 또한 조·전기 주거 분포지역에 연속적으로 중기 주거가 입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圖 1·2).

중기 주거의 평면형태는 휴암리형(방형)과 송국리형(원형)으로 대별되는데, 이들의 선행관계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만경강유역의 경우 방형과 원형의 주거들이 공반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表 3), 주거 간 중복관계에서도 방형→원형의 일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확

인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적분포양상을 기준으로 취락지를 구분하여 주거 평면형태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만경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의 평면형태는 원형 330기, 방형 92기로 원형이 방형보다 3배 이상 많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 타원형수혈의 형태는 내주공(A형)이 형태파악 가능한 462기 중 267기(58%)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원형은 204기, 방형은 63기이다. 이 수치는 최근 보고된 유적들의 자료가 추가되었음에도 대체로 금강유역권 송국리형 주거 특징인 내주공식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원형계와 방형계의 비율이 3:1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종철 2015:78)과 동일한 양상이다.

表 5. 중기 취락지 구분 및 주요 유적

취락지 / 주요 유적	Ⅰ취락지 (익산)	Ⅱ취락지 (전주·완주)	Ⅲ취락지 (군산·김제)
유적명	부송동, 영등동, 무형리·어량리	동산동, 필천리·오산리, 만성동·여의동	부거리, 수록리 반용리·부용리

취락지 구분을 통해 지역별로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금강유역권과 가장 인접한 Ⅰ취락지(익산)의 경우 내주공식 원형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내주공식 방형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만경강유역 전체의 양상과 동일하다.

Ⅱ취락지는 동산동과 만성동·여의동, 필천리·오산리 등 유적이 가장 밀집된 취락지로서, 역시 내주공식(A형) 원형 주거가 45기로 가장 많지만, 내주공식 방형 주거 또한 22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방형주거는 A형 이외에도 C·D·E형이 소수 축조되었다. 이렇듯 Ⅱ취락지에서 방형 주거가 다수 확인되는 것은 동산동유적의 주거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동산동 취락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양상으로 해석된다(이종철·정다운 2020:303). 또한 동산동 67호(60.7㎡)는 6주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송국리형 주거이고, 동산동 68호(59.5㎡)는 4주형이면서 두 번째로 큰 송국리형 주거에 해당한다(이종철 2020:15). 이는 동산동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곧 금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에서 확인되는 형태 상 다변성의 특징(이종철 2015:79)이 만경강유역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원형 주거로 구성된 취락도 확인되는데, 효자동복합유적(25기), 만성동·여의동(36기), 오산리(46기), 효자4(18기)유적이 해당한다. 동산동과 같이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된 취락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주변으로는 비교적 형태가 통일된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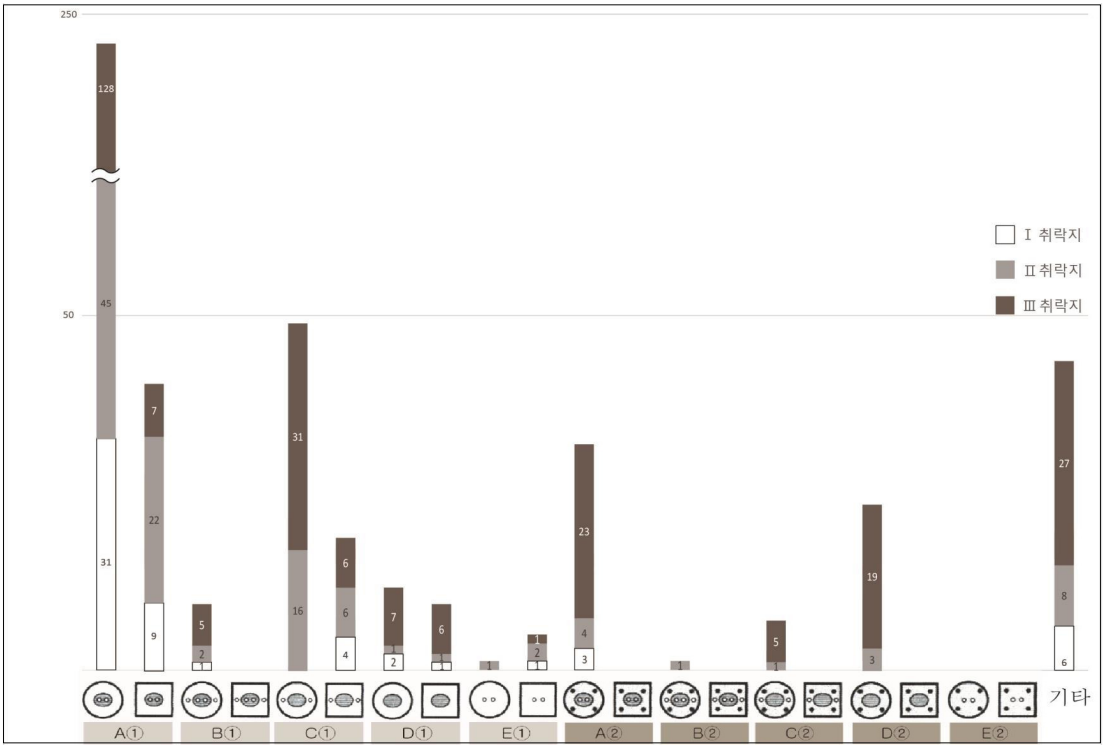


圖 9. 취락지별 송국리형 주거 형태분류

Ⅲ취락지는 Ⅰ·Ⅱ취락지에 비해 유적 수 및 주거 수가 현저히 적고, 주거 밀집도가 낮다. 다만, 반용리·부용리와 부거리유적에서 각 11기와 13기의 송국리형 주거가 확인되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반용리·부용리의 주거는 2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며, 원형의 내주공 및 외주공식 원형 주거가 다수 확인되었다. 송국리형 주거의 일반적 입지양상과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는데, 각 군집의 원형 주거들 사이에 방형 주거(A형·D형)가 1기씩 축조되어 있어 동시기를 영위한 주거로 판단된다. 또한 부거리유적은 2개 군집(Ⅰ-2·Ⅱ)이 확인되었는데, 13기 중 11기가 원형의 내주공식으로 동일하고, 그 면적 또한 비슷한 수준이어서 당시 주거 형태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수록리에서는 방형 주거가 8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 내부 타원형 수혈의 장축방향이 원형 주거는 동-서방향으로, 방형 주거는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주거 형태별 축조양상이 달랐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 두 유형의 주거 출토 유물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수록리를 제외하면 Ⅲ취락지 역시 원형의 내주공식(A형)의 주거가 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 평면형태가 반영하는 시간성에 대해서 중복 확인된 주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圖 9). 만경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의 형태 변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방형에서 원형으로의 변화가 상정되기도 하는데(천선행 2019:70), 대표적인 근거로 동산동에서 방형계 주거를 파괴하고 원형계 주거가 축조된 사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주거의 절대연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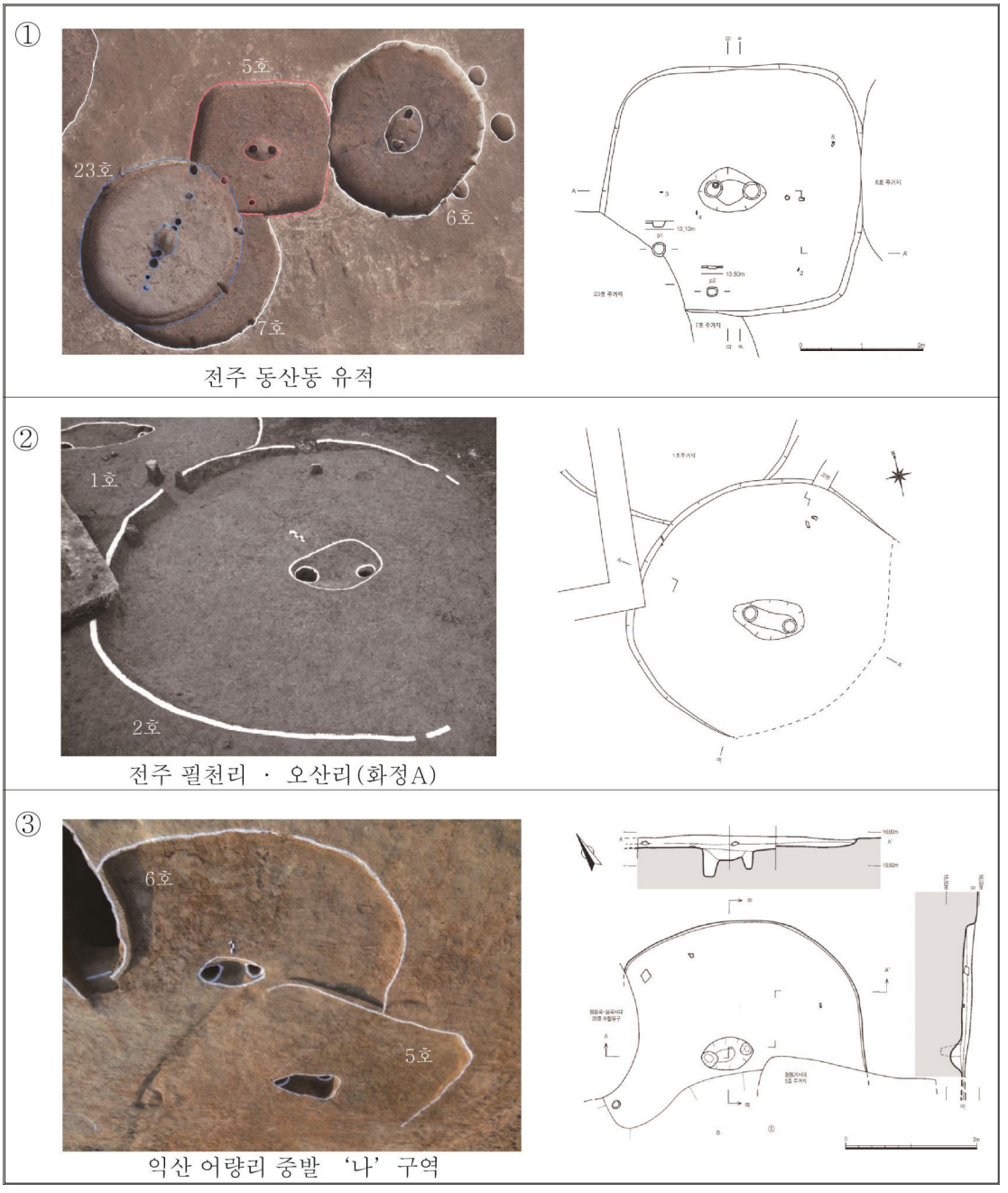


圖 10. 중기 주거의 중복양상

기 때문에(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3권:51) 방형→원형을 일반적인 변화로 상정하기는 어렵다(김승옥 2017:44). 또한 형태 변화에 대해 원형 주거를 파괴하고 방형 주거가 설치되는 사례(익산 원수리, 와리 정동)를 통해 평면 형태를 고고학적 시간차로 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천선행 2019:71).

중기 주거의 중복 관계는 총 3가지로 확인되는데, ①방형 주거를 파괴하고 원형 주거가 설치되는 사례, ②원형 주거를 파괴하고 원형 주거가 설치되는 사례, ③원형주거를 파괴하고 방형 주거가 설치되는 사례이다(圖 10). 또한 앞서 살폈듯이, 확실히 원형계의 주거가 우세하지만 같은 유적에서 원형계와 방형계가 공반 되는 경우가 상당 수 확인된다(表 3). 이러한 중복관계의 다변성은 결국 만경강유역 중기 주거의 특징으로서 방형 및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가 공존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Ⅱ취락지의 양상처럼 대체로 중기 후반에 이르면 원형계의 송국리형 취락이 만경강유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행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김승옥2017:44; 천선행 2019:70).

한편, 전주 척동유적(Ⅱ-1호)에서 부뚜막 시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온전한 송국리형 주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구분하였는데[表 3], 2호 주거(송국리유형)와 인접하고 있는 점과 방사성탄소연대 값을 통해 중기 주거로 이해할 수 있다(圖 11). 최근 광주 평동유적에서도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솥받침으로 사용한 부뚜막이 확인되어 원삼국시대 이전에 부뚜막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2:46). 이에 더하여 척동유적은 송국리형문화단계에 부뚜막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송국리형주거에서 노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혁신적인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이종철·정다운 2020:331). 따라서 이미 보고된 유적에 대해서도 만경강유역 중기 주거에서 감지되는 다양한 변화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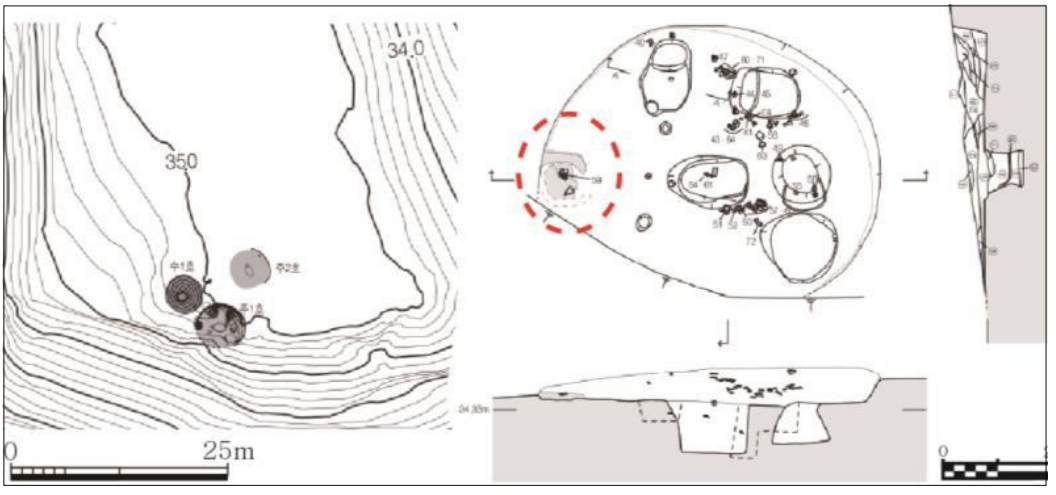


圖 11. 척동Ⅱ-1호 주거 부뚜막 시설(호남문화재연구원 2008:293-4, 필자 재편집)

3) 후기 주거

청동기시대 후기의 설정과 그 구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별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차의 쟁점사항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표지라 할 수 있는 점토대토기문화(수석리유형)의 시작 연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한국식(세형)동검문화와의 관계, 철기문화의 개시 연대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김승옥 2016:42).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주거의 분포를 확인하

고, 대표유적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자료는 분묘 자료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나며, 많은 연구자들은 대규모 분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주거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데(表6·圖10), ①송국리형 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유형(Ⅰ유형)과 ②방형계 또는 원형계 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유형(Ⅱ유형), ③(말각)장방형계 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형(Ⅲ유형)이다. 이들 주거의 출토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송국리식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삼각형석촉 등이 공반 된다.

表 6.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의 유형

구분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대표 주거	방형계 · 원형계	송국리형 주거	(말각)장방형계
표지 유물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 삼각형석촉	원형점토대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 삼각형석촉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석검, 석창, 유경식석촉
대표 유적	완주 상운리, 전주 중동 · 중동A	완주 운교 8호	전주 대정Ⅳ

Ⅰ유형은 완주 상운리·갈산리, 전주 중동·중동A 등 완주와 전주, 김제, 익산에 분포한다. 모두 5기 이하의 소규모 주거이며, 평면 형태는 방형계와 원형계가 확인된다. 원형계는 안심유적의 사례가 유일한데, 중복 주거로 반파된 채로 확인되어 내부시설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중동유적에서는 방형 주거 5기가 확인되었으며 능선 정상부와 사면부에 입지한다. 그 중 1호와 5호는 각각 동쪽과 남쪽에 단독 분포하며, 그 규모가 36.58㎡, 32.33㎡으로 다른 주거들에 비해 대형인 것이 주목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1호와 5호 사이에 서로 인접하여 입지하는 2·3·4호는 모두 10㎡이하의 소형이다. 또한 2·3·4호 주거 주변으로는 소형의 수혈 4기가 분포하고 있는데, 주거 및 수혈에서 출토되는 유물 양상은 비슷하여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Ⅰ유형 주거의 내부시설로는 주혈 및 수혈, 그리고 노가 확인되었는데, 송국리형주거와는 달리 모든 부분에서 정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갈산리(2호)와 상운리유적(나지구 2호)의 주거 내부중앙에 시설된 원형수혈은 동일한 양상이다. 또한 노 시설이 갈산리(1호)와 상운리(나지구 3호)에서 확인되었는데, 송국리형주거의 타원형 수혈 자리에 시설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송국리형주거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송국리형주거지의 소멸 과정과 점토대토기의 연관성을 보여준다(한수영 2020:356).



圖 12. 유형별 후기 주거 및 출토유물

Ⅱ유형은 완주 운교 8호 주거가 유일한데[5], 구릉 정상부에 자리하고 13기가 밀집 분포하는 주거군의 중심에 입지하며 가장 큰 규모이다. 인접한 다른 주거들과 중복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열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송국리형문화와의 연속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또한 만성동·여의동 유적은 순수 송국리형 취락으로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탄소연대의 중심연대가 기원전 5~4세기를 전후하는 일부 취락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송국리형 취락이 늦은 시기까지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한수영 2020:342). 즉, 송국리형주거가 청동기시대 후기까지 지속되면서 점토대토기와 복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Ⅲ유형의 대정Ⅳ유적은 주거 형태 및 내부 시설 등이 여타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와 상이한 점이 주목된다. 총 9기가 확인되었으며,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일련의 취락구조를 이루는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9:125). 주거는 모두 말각(장)방형으로 구분되며, 가장 대형인 6호(49.3㎡)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입지하고 있다. 또한 노지는 내부에 1개 또는 2개가 중앙에 가깝게 조성되었다. 주거의 평면형태와 노지양상이 수석리유형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 살펴본 주거 이외의 생활유구로는 수혈과 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의 양상은 원형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부호, 두형토기 등 주거 출토품 구성과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정문동(나지구)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우각형파수부호가 공반된 구 6기가 확인되었으며, 중동A(가지구)유적 수혈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파수부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와 구, 수혈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까지는 주거 자료보다 훨씬 많은 구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동유적(4지구)과 안심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 되어 후기 주거에서 시간적 변화양상이 감지된다. 이러한 현상은 수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완주 갈산리, 중동·중동A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 한다(김규정 2020:50).

결론적으로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집단은 중기에 비해 소규모화 되는 변화를 겪으며, 유물 구성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송국리형집단과 배타적인 관계보다는 접촉과 교류를 통해 연속적으로 문화를 형성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기와 후기 두 문화의 접촉에서 비롯된 흔적을 통해 송국리형문화가 점토대토기문화 단계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종철 2015:80).

5) 대정Ⅳ 유적 1호 주거(송국리유형) 출토 토기 중 점토띠 부착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호남문화재연구원 2019),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불포함으로 추후 검토가 요구되므로 제외하였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살펴본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특징은 다양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쟁점은 각 문화 간 교류 양상의 확인이다.

먼저 조·전기는 소규모의 집단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가락동·역삼동·흔암리유형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동산동유적을 비롯한 소수의 유적에서 주거 기능 분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기 주거는 전기에 비해 취락이 군집을 이루는 등 거점 취락이 등장하며, 전기 주거가 입지했던 곳에 중기 주거가 연속적으로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주거 형태에 반영된 시간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같이 결국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로 귀결되지만, 방형(휴암리형)과 원형(송국리형)이 공존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후기 주거는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방형계의 수석리유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운교 8호의 송국리형주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점과 최근 평화동 대정Ⅳ유적의 수석리유형과는 차이가 있는 주거가 다수 확인되었다. 앞으로 이 유적에 대한 논의는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의 특성 또한 문화접촉에 의한 다변화, 다양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지역에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 중 편년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문화 다양성으로 꼽았음에도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교류양상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연구자들의 성과에서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논문

김규정, 2020,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그 변화」, 湖南考古學報 第65輯, PP.38-75.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 第60輯, pp4-37.

김승옥, 2016,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韓國考古學報 第99輯, pp.40~77.

김승옥, 2017,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 -전북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第55號 PP.32-59.

김재윤, 2004,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韓國上古史學報 第46號, pp.31-70.

이종철, 2015,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철, 2020, 「청동기~철기시대 전북지역의 정치세력」, 전북사학 58호, PP.5-43.

이종철·정다운, 2020, 「전주 황방산 일원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 유적 일원 유적 분포 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2.

한수영, 2020, 「전주 황방산 일원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 유적 일원 유적 분포 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2.

천선행, 2016, 「湖南地域 前期無文土器文化의 實體와 展開」, 湖西考古學 35, pp.65-93.

천선행,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특징과 분포양상」, 湖西考古學 44, pp55-81.

- 주요 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완주 구암리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52.

_____, 2014, 『김제 수록리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56.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김제 반월리·부용리유적』, 調査硏究報告書 第134冊.

전북대학교박물관, 2010, 『上雲里Ⅲ -生活遺蹟 및 墳墓·綜合考察』, 全北大學校博物館 叢書 52.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全州 長洞Ⅱ遺蹟』, 遺蹟調査報告書 第30冊.

_____, 2014, 『김제 부거리 · 하정리 유적』, 遺蹟調査報告書 第78冊.

_____, 2015, 『全州 東山洞 청동기시대 聚落 1·2·3권』, 遺蹟調査報告書 第80冊.

_____, 2017, 『全州 筆川里·五山里遺蹟』, 遺蹟調査報告書 第89冊.

_____, 2018, 『全州 萬成洞·如意洞遺蹟』, 遺蹟調査報告書 第95冊.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全州 鳳谷·여매·尺洞遺蹟』, 學術調査叢書 第106冊.

_____, 2013, 『全州 中洞遺蹟』, 學術調査叢書 第160冊.

_____, 2013, 『完州 雲橋遺蹟』, 學術調査叢書 第173冊.

_____, 2015, 『全州 東山洞遺蹟Ⅰ』, 學術調査叢書 第186冊.

_____, 2019, 『全州 平和洞 大亭Ⅳ遺蹟 』, 學術調査叢書 第217冊.

- **단행본**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2016, 『전북의 하천과 주변문화』.

07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송 아 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Ⅱ.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의 현황과 특징
Ⅲ.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
Ⅳ. 맺음말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

송 아 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전북지역은 지형적으로 동부산간지대와 서부평야지대로 대별된다(김승옥 2017:33). 서부평야지대에 위치한 만경강유역권은 북으로는 금강정맥과 금강, 동으로는 호남정맥, 남으로는 모악지맥, 서로는 서해안과 접하는 자연지리적 환경 속에 있다(양영주 2013:). 선사시대의 만경강은 서해안에서부터 전북 내륙 깊숙이까지 이어지는 수운교통로이자(송종열 2015:53) 동부산간지역과 서부평야지대를 잇는 문화 결절지로서 역할하였다(천선행 2019:55). 이 일대는 해발 30m 이하의 낮은 구릉이 발달하고 강변 충적지와 너른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하고 증가하였다(천선행 2019:72).

한반도에서 사회·문화·경제적으로 큰 변혁을 일으켰던 송국리문화가 금강유역으로부터 호남지역으로 확산되었던 시기의 상한은 기원전 8~6세기이다(김규정 1999:103; 2016:193). 송국리문화의 하한은 기원전 4세기 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김규정 2016:193), 지역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기원전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천선행 2019:64). 청동기시대 중기 만경강유역권에서도 인구의 집중와 더불어 대형 취락의 형성, 취락 간의 분화, 거주 방식의 변화에 따른 주거지의 소형화, 무덤 축조의 심화, 도구 제작 기술의 변화, 생계수단의 다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원전 4~3세기에 이르면 동북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점토대토기문화의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2세기경 만경강유역권은 청동기시대 후기 세형동검문화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한수영 2011:22).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후기 문화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후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고대사회의 기저 문화(천선행 2019:78)라는 점에서 통시적인 연구대상이다. 그동안 만경강유역권의 송국리문화, 점토대토기문화, 세형동검문화, 초기철기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물질문화의 규명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다만, 각 문화별 물질자료의 현저한 차이와 단절성 때문에 관련 연구는 특정 문화나 시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도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정의나 시간적 범위가 한국 고고학의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김승옥 2017:48)인 것은 이러한 연구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 주제도 각 시

대의 시기를 세분하는 편년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문화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전형의 유물들이 교차 출토되는 양상이나, 부장유물의 차이를 부각한 질적인 해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만경강유역의 고대경관과 교통망, 생계경제를 복원하여 점토대토기문화집단의 이주 경로를 추정한 참신한 시도(송종열 2015:52-69)가 있어 주목된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도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송국리사회를 병합한 점토대토기집단의 우월성에 대해서만큼은 질적인 해석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한 듯하다.

물질자료에 대한 질적인 비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문화의 특징과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의 양적인 패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질자료의 변이와 그 분포 패턴에는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였던 사람과, 사람이 속한 사회적 시스템이 직·간접적으로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문화의 특징과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 대상은 무덤 자료이다. 무덤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산물로, 무덤이 쓰이지 않았거나 저조했던 이전 시기와 대비되는 중기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무덤은 이후 유입된 점토대토기문화나 세형동검문화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

한편, 비교는 비교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공간 분석 스케일의 설정을 필요로 한다. 현재 청동기시대 시기 구분안은 조기 설정 여부, 전기 세분 정도, 점토대토기문화와 세형동검문화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양하다. 본고는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을 통해 축조집단의 사회문화상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점토대토기문화와 세형동검문화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전-중-후 3분기 편년안을 시간적 틀로 삼는다. 전기 무덤에 대해서는 일단 만경강유역권에 전기로 볼 수 있는 무덤이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전기-중기 무덤 편년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별고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공간적으로 만경강유역권은 인접한 금강유역권과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천선행 2019:70-71), 이번 연구에서는 만경강유역권의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전주 5개 시군만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분석 내용은 1) 유적의 분포 양상, 2) 무덤의 입지 및 구조, 3) 부장유물의 조합과 형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만경강유역권 중기-후기 무덤의 분포 양상과, 중심분포권의 범위 및 밀도를 비교하여 집단의 공간 활용에 대한 통시적 변화를 살펴본다. 밀도 분석의 경우 아크GIS의 커널분석(kernel analysis)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무덤 자료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주거지 자료를 활용하여 당대의 주민이 매장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유구와 유물 분석은 관련 자료에 대한 양적인 패턴 분석을 시도하여 통계적인 특징을 추출한다. 자료의 분포 패턴에는 장지를 정한 뒤, 구조물을 만들고 부장품을 제작·사용하였던 사람들의 행위와 사회적 규범 등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분석된 내용은 1) 유적의 분포에 반영된 집단의 공간 활용, 2) 무덤축조 공정에 반영된 사회 규범, 3) 부장품 제작·사용에 반영된 계층의 통합과 분화라는 논점을 가지고 종합하여 고찰한다.

Ⅱ.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의 현황과 특징

1. 유적의 분포 양상

1) 중기-후기 무덤유적의 분포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공간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중기 무덤유적 52개소와 후기 무덤유적 50개소를 대상으로 중기-후기 무덤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기 무덤유적은 전주에 21개소 익산에 21개소가 분포하고 군산, 김제, 완주에 4개소 이하가 분포한다(표 1). 이와 비교해 후기 무덤유적은 전주, 익산, 완주에 각각 16개소 14개소 13개소씩 분포하고, 김제에 6개소 군산에 1개소가 분포한다. 지도를 통해 보면 후기 무덤유적의 공간적 분포는 중기 무덤유적이 활발히 축조되었던 전주, 익산지역으로 이어지는 한편, 전주 서쪽의 완주지역에 새로운 분포권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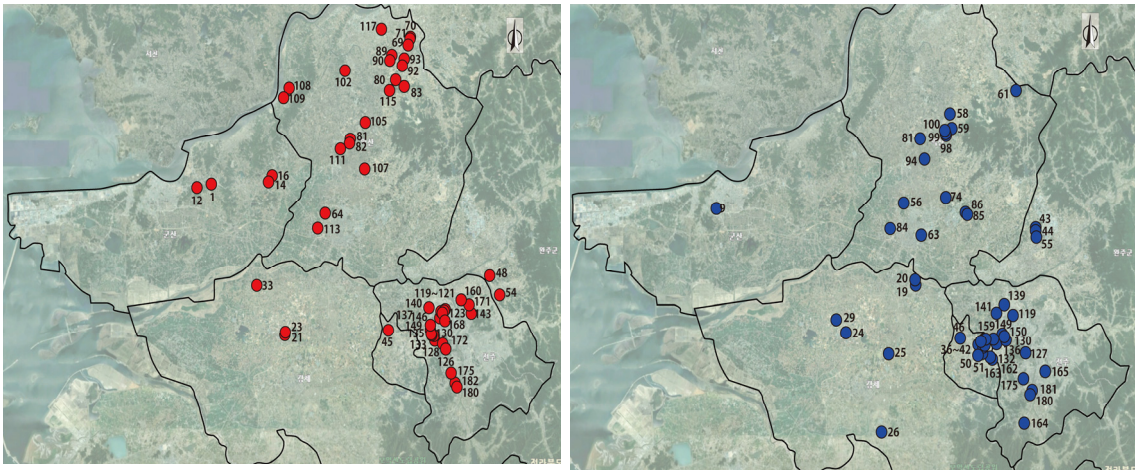


그림 1. 중기-후기 무덤유적 분포도: (左) 중기, (右) 후기 ※유적번호는 〈표 4〉와 동일

표 1.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유적 수

구 분	군 산	김 제	완 주	익 산	전 주	계
중기 무덤유적	4	3	3	21	21	**52**
후기 무덤유적	1	6	13	14	16	**50**

그런데 지역별 유적 개수와 무덤의 수량에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중기 무덤 279기와 후기 무덤 290기를 대상으로 아크GIS 커널분석(kernel analysis)을 이용해 무덤의 밀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적 분포도로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중기-후기 무덤의 주요 분포범위와 밀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었다(표 2, 그림 2). 현재까지 중기 무덤의 중심분포지역은 익산 무형리·어량리유적 일대와 군산 축산리유적일대, 전주 여의동·만성동·동산동유적 일대로 확인된다. 이에 비

해 후기 무덤의 중심분포지역은 완주 신풍, 익산 마동유적 일대로 중기 무덤과는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중심분포권을 형성하였다. 또한 중기 무덤은 익산, 군산, 전주지역 중심분포권들의 밀도가 주변에 비해 현저히 높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유적이 분산되어 분포하는 반면, 후기 무덤은 완주와 익산의 중심분포권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 높은 밀도로 집중 분포하는 양상임이 확인된다. 그로 인해 후기에는 소수의 중심 유적에서 대규모의 무덤이 축조되며 무덤군 규모의 분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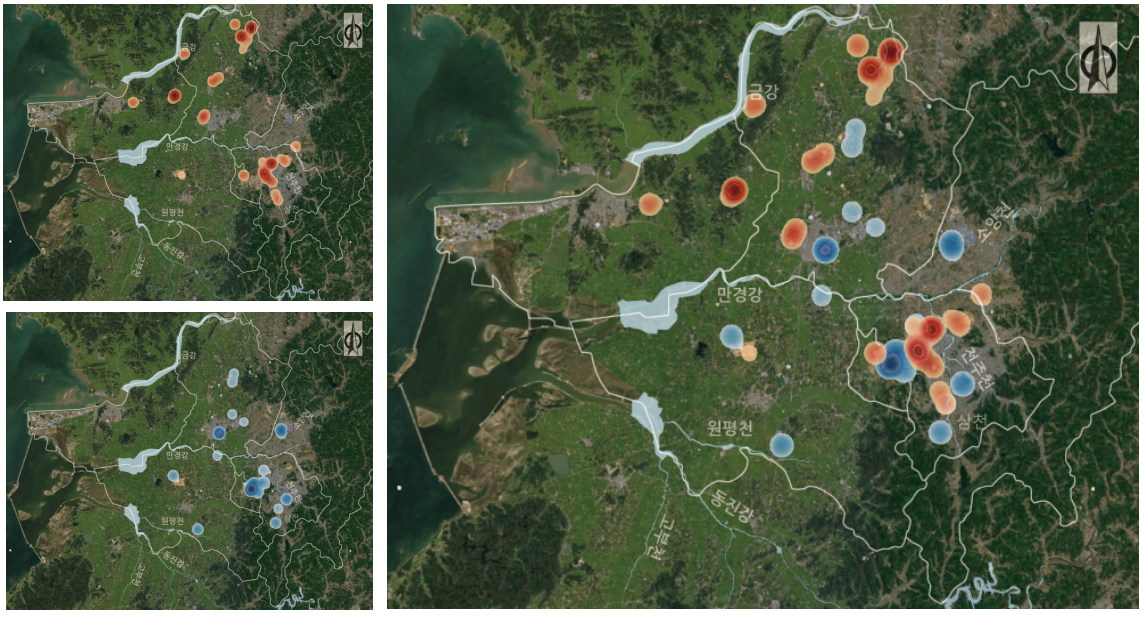


그림 2. 중기-후기 무덤의 중심분포권과 밀도: (左上) 중기, (左下) 후기, (右) 중후기

표 2.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 수

구 분	군 산	김 제	완 주	익 산	전 주	계
중기무덤	43	3	14	125	94	**279**
후기무덤	1	23	139	68	59	**290**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기무덤은 만경강을 기준으로 북쪽지역인 익산 북부일대(무형리, 어량리, 화신리 등)와 익산 중부일대(율촌리, 장신리 등), 군산 동부일대(축산리, 축산리 계남 등)에 분포한다. 반면 가장 큰 규모의 후기 무덤은 익산 남부일대(마동 등)에서 확인되며, 익산 중부일대(구평리, 오룡리, 서두리 등)에는 소규모로만 분포한다. 중기 무덤의 분포율이 높았던 군산지역에서는 둔율과 선제리유적 외에 후기 무덤이 확인되지 않으며, 중기 무덤의 분포율이 낮았던 지역인 완주 둔산리, 청등수계리에 큰 규모의 후기 무덤군이 형성된다.

흥미롭게도 만경강 남쪽지역에서는 그와 상반된 양상이 확인된다. 기존에 소규모의 중기 무덤이 소수로 분포하였던 김제지역에는 서정동, 수록리 등 중소규모의 후기 무덤군이 형성된다. 가장 현저한 변화는 전주 서쪽의 완주지역에서 나타난다. 이곳은 중기 무덤이 소규모로 분포하는 반교리유적 외에 중기 무덤군이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인데, 이후 신풍유적을 중심으로 갈동, 덕동, 중동 일대에 후기 무덤이 집중 분포하며 대규모 무덤군을 이루게 된다.

한편, 만경강 남쪽에 위치한 전주지역에서는 상이한 공간분포 패턴이 확인된다. 전주천 서쪽 일대에 위치한 여의동, 만성동, 동산동, 효자동유적은 만경강 남쪽 중기 무덤의 중심분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후기 무덤 또한 중기 무덤이 성행했던 여의동, 만성동유적이나 인접한 원장동, 중인동, 중화산동 등 동일한 권역에 중소규모로 입지한다. 이는 중기-후기 무덤이 서로 구분되는 공간에 분포하는 패턴을 보였던 만경강 북부의 익산·군산·완주지역이나 만경강 남부의 김제·완주지역과 달라 만경강 남부의 전주지역에서는 상이한 문화 변화 과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중기-후기유적 내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전술한 중기-후기 무덤의 공간적 분포 양상에 내포된 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 무덤과 주거유적의 주된 분포권 및 매장-생활공간의 구분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일부 동일유적에서 확인된 중-후기 유구들은 지역별로 어떠한 공간적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만경강유역권에는 후기 무덤유적에 비해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거유적의 수가 현저히 적다. 따라서 관련 분석은 중기 무덤 279기와 중기 주거지 545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3).

큰 스케일에서 중기 무덤과 주거지의 중심분포권은 거의 일치하되, 무덤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어 주거유적이 공간적으로 더 넓은 분포권을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주거지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중기 무덤과 주거유적의 공간적 분포상에서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다(그림 3). 만경강유역권 내 중기 주거지의 절대 수량 및 밀집도는 동산동, 효자동, 송천동유적을 중심으로 한 전주지역이 월등히 높다. 이 일대는 전주지역 무덤유적의 중심분포권과도 일치하는 곳이지만, 주거지의 수에 비해 무덤의 수가 1/3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만경강 남쪽 시군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간취되는데, 김제와 완주지역은 주거지의 수에 비해 무덤의 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만경강 북쪽의 익산지역은 만경강유역권 내에서 중기 주거지가 두 번째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무덤 간의 비율이 1:1로 유사하다. 다만 주거유적은 무덤유적처럼 익산 북부·중부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오히려 주거지의 수보다 무덤의 수가 2배가량 많아, 만경강 남쪽의 주거지-무덤 분포 비율과 대조를 이룬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기 무덤유적과 주거유적의 공간적 분포밀도 특징은 만경강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대비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만경강 북부지역은 중기 무덤의 밀도가 주거지에 비해 높고, 남부지역은 중기 무덤의 밀도가 주거지에 비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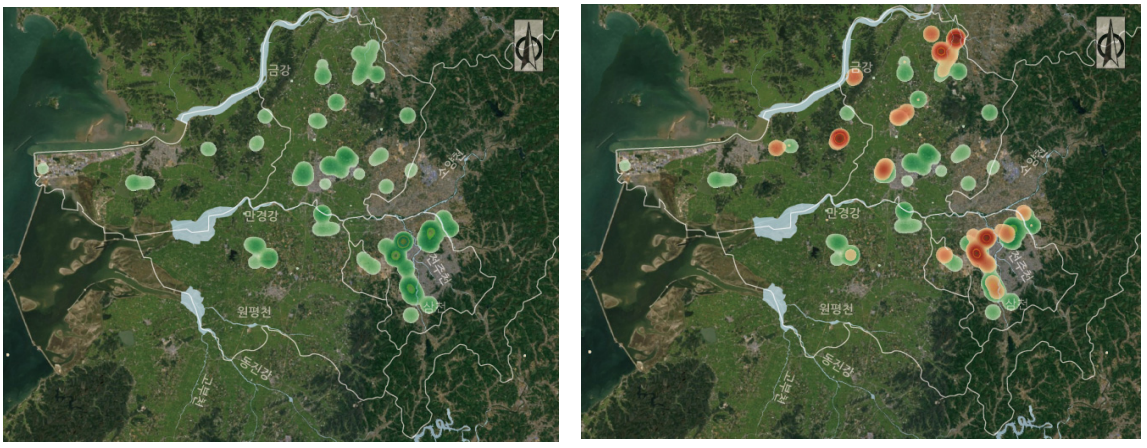


그림 3. (左) 중기 주거지의 중심분포권과 밀도, (右) 중기 주거지와 무덤의 중심분포권과 밀도

표 3.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 무덤과 주거지 수

구 분	군 산	김 제	완 주	익 산	전 주	계
무 덤	43	3	14	125	94	**279**
주 거 지	26	60	33	143	283	**545**

다음으로 유적 내에서 매장-생활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후기 무덤과 주거유적 185개소를 분석한 결과(표 4, 표 5), 중기 무덤군, 중기 주거지군, 후기 무덤군이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는 149개소 이상이었다. 물론 제한된 범위에 대한 발굴조사 때문에, 주변의 다른 유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부터 무덤과 주거지의 공간이 분리되는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유적 내에서 무덤과 주거지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매장공간과 생활공간이 어떻게 쓰였을까. 중기 무덤과 주거지가 함께 확인된 유적 21개소 중 양자가 같은 입지에 혼재해 있는 경우는 9개소이다. 그 중 익산 모현동2가유적 섬다리지구와 전주 여의동선사유적 2개소에서는 주거지와 무덤 간에 중복관계가 확인되어 동일한 입지에 주거지와 무덤이 시차를 두고 축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호가시권 안에서 매장과 생활공간을 뚜렷이 분할하여 사용하였던 경우는 14개소이다. 따라서 앞서 단독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거, 무덤유적들을 포함하여 청동기시대 중기는 매장공간과 생활공간의 구분이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한 유적 내에서 중-후기 유구가 함께 확인된 14개 유적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후기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패턴을 살펴보았다. 분석된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중-후기 유구가 동일한 공간에 입지하는 사례와 공간이 분할되는 사례의 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게 관찰된다는 점이다. 한 유적 내에 중-후기 유구가 공간을 분할하여 분포하는 경우는 김제 반월리4, 상동동Ⅰ, 완주 신풍Ⅰ가, 익산 마동Ⅰ, 부송동석치고개, 전주 효자동함대Ⅳ유적에서 확인된다. 이에 반해 중-후기 유구가 동일한 공간에 입지하는 사례는 익산 서두리1유적을 제외하고는 동산동쪽구름, 만성동 원만성A, 만성동 원만성(전북연), 여의동2-1, 중인동, 효자4Ⅲ, 효자동함대Ⅴ유적 등 대부분이 전주

지역이다. 이를 중기-후기 무덤 분포 분석에서 전주지역은 중기 무덤유적의 중심분포권에 후기 무덤유적이 분포하였던 양상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전주지역은 중-후기유적의 공간 분포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지형상에서도 중-후기 무덤이 동일한 입지에 혼재하거나 후기 무덤이 선대 유구를 파괴하고 위치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전주 동산동, 만성동, 여의동, 효자동 일대는 만경강유역권에서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유적이 가장 대규모로 분포하는 곳이다. 이처럼 중기 문화가 성행했던 지역에서 후기 무덤이 동일한 공간과 입지에 분포하는 특징은 눈여겨 볼만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후기 주거지 중 가장 대규모에 속하는 전주 대정Ⅳ유적의 경우도 중기 주거지가 입지했던 구릉 정상부에 9기의 후기 주거지가 위치해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만경강유역권 무덤 및 주거유적의 공간분포 분석 결과는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사회문화 변동 과정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시할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뒷장에서 종합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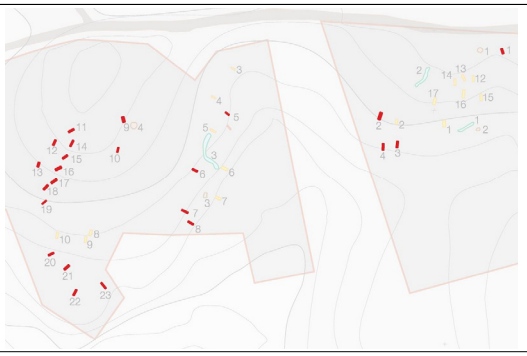
표 4.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후기유적 내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양상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무덤	주거	무덤					무덤	주거	무덤	
1	군산	고봉리 Ⅱ	1	3	-	중기공존	94	익산	어양동	-	-	1	분리
2		고봉리 D	-	1	-	분리	95		영등동 Ⅰ	-	6	-	분리
3		관원리 Ⅱ가	-	3	-	분리	96		영등동 Ⅱ	-	3	-	분리
4		관원리 Ⅱ나	-	1	-	분리	97		영등동 Ⅲ	-	7	-	분리
5		개사동	-	6	-	분리	98		오룡리 3	-	-	1	분리
6		옥정리	-	2	-	분리	99		오룡리 4	-	-	1	분리
7		미룡동	-	2	-	분리	100		오룡리 5	-	-	2	분리
8		도암리	-	1	-	분리	101		와리금성Ⅱ가	-	2	-	분리
9		둔율	-	-	1	분리	102		와리금성Ⅱ나	1	-	-	분리
10		띠섬 ⅠB	-	1	-	분리	103		와리정동	-	8	-	분리
11		띠섬 ⅡA	-	1	-	분리	104		왕궁리	-	4	-	분리
12		아동리	6	-	-	분리	105		용기리 Ⅰ	1	7	-	중기공존
13		여방리남전A	-	1	-	분리	106		용기리 Ⅱ	-	2	-	분리
14		축산리계남Ⅰ	5	-	-	분리	107		용연리	1	-	-	분리
15		축산리계남Ⅱ	-	2	-	분리	108		웅포리	7	-	-	분리
16		축산리	31	2	-	중기분할	109		웅포곰개나루	1	-	-	분리
17	김제	검산동	-	2	-	분리	110		원수리	-	6	-	분리
18		내죽리	-	4	-	분리	111		율촌리분구묘	8	4	-	중기공존
19		반월리 2	-	-	3	분리	112		율촌리	-	2	-	분리
20		반월리 4	-	15	1	중후기분할	113		장신리	8	4	-	?
21		부거리 Ⅰ-1	1	3	-	중기공존	114		팔봉동	-	1	-	분리
22		부거리 Ⅰ-2	-	6	-	분리	115		호암리 나	1	-	-	분리
23		부거리 Ⅱ	1	9	-	중기분할	116		호암리 다	-	2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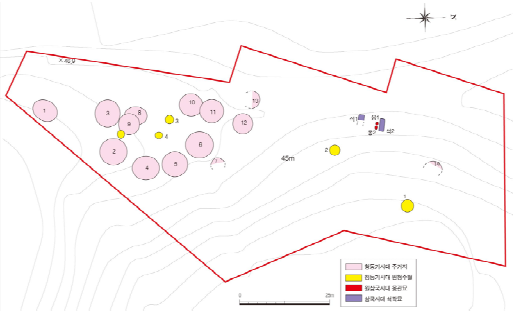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무덤	주거	무덤					무덤	주거	무덤	
24		부거리 XII	-	-	1	분리	117		화산리신덕	7	-	-	분리
25		상동동 Ⅰ	-	1	1	중후기분할	118		흥암리	-	1	-	분리
26		서정동 Ⅱ	-	-	10	분리	119		동산동쪽구름	1	-	1	중후기동일
27		석담리 B	-	2	-	분리	120		동산동취락	3	65	-	중기분할
28		석담리 D	-	3	-	분리	121		동산동 Ⅰ가	5	-	-	분리
29		수록리 A	-	-	7	분리	122		동산동 Ⅱ나	-	1	-	분리
30		수록리 B	-	9	-	분리	123		동산동 Ⅱ다	18	-	-	분리
31		양청리	-	3	-	분리	124		동산동 Ⅱ마	-	3	-	분리
32		월봉리	-	1	-	분리	125		동산동 Ⅱ저	-	1		분리
33		장산리(호남)	1	-	-	분리	126		마전 Ⅲ-1	6	11	-	중기분할
34		장산리(전북)	-	1	-	분리	127		마전 Ⅳ	-	-	1	분리
35		효정리	-	1	-	분리	128		만성동지석묘	6	-	-	분리
36		갈동 Ⅰ	-	-	4	분리	129		만성동 B	-	1	-	분리
37		갈동 Ⅱ	-	-	13	분리	130		만-원만성 A	5	5	2	중후기동일
38		갈산리	-	-	3	분리	131		만-원만성 C	-	6	-	분리
39		덕동 D-1	-	-	3	분리	132		만-원만성 Ⅰ	-	-	1	분리
40		덕동 F-1	-	-	2	분리	133		만-원만성 1-1	8	6	-	중기분할
41		덕동 G-1	-	-	1	분리	134		만-원만성 1-2	-	5	-	분리
42		덕동 G-2	-	-	1	분리	135		만-원만성 1-3	1	3	-	분리
43		둔산리서당 1	-	-	6	분리	136	전주	만-원만성 1-4	-	1	2	중후기동일
44		둔산리서당 2	-	-	19	분리	137		반룡리 Ⅰ	2	1	-	중기분할
45	완주	반교리 가	7	2	-	중기분할	138		반룡리 Ⅱ	-	2		분리
46		반교리 나	-	-	1	분리	139		반월동222-5	-	-	1	분리
47		상림리	-	-	-	분리	140		반월동265 1	3	-	-	분리
48		상운리 Ⅲ나	6	1	-	중복후행	141		반월동265 3	-	-	3	분리
49		상운리 Ⅲ라	-	8	-	분리	142		봉곡 Ⅱ	-	3	-	분리
50		신풍 Ⅰ가	-	5	57	중후기분할	143		송천동2가	1	16	-	중기공존
51		신풍 Ⅰ나	-	-	24	분리	144		송천동97-20	-	5		분리
52		옥정	-	4	-	분리	145		송천동 B	-	1	-	분리
53		운교 Ⅰ	-	13	-	분리	146		여의동선사	4	1	-	중기분할
54		운교 Ⅱ	1	-	-	분리	147		여의동용정	-	1	-	분리
55		청등수계리	-	-	5	분리	148		여의동 1		8	-	분리
56		계문동	-	-	1	분리	149		여의동 2-1	11	-	2	중후기동일
57		광암리	-	2	-	분리	150		여의동 2-2	-	4	1	분리
58	익산	구평리 Ⅱ	-	-	4	분리	151		여의동 203	-	3	-	분리
59		구평리 Ⅳ	-	-	1	분리	152		오-붓내 A	-	4	-	분리
60		금성	-	1	-	분리	153		오-붓내 C-1	-	1		분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무덤	주거	무덤					무덤	주거	무덤	
61		금곡	-	-	1	분리	154		오-화정 A	-	13	-	분리
62		덕기동	-	2	-	분리	155		오-오매 A-1	-	4	-	분리
63		마동 1	-	3	47	중후기분할	156		오-오매 A-2	-	7	-	분리
64		모현동섬다리	7	2	-	중기분할	157		오-오매 A-3	-	17	-	분리
65		모현동묵동	-	1	-	분리	158		오송리	-	6	-	분리
66		모현동학동	-	2	-	분리	159		원장동G	-	-	5	분리
67		모현동(창고)	-	1	-	분리	160		월평리	2	-	-	분리
68		모현동(교회)	-	7	-	분리	161		장동Ⅱ	-	7	-	분리
69		무형리고산Ⅱ	3	3	-	중기공존	162		중동A 다	-	-	10	분리
70		무형리포변가	15	-	-	분리	163		중동A 라	-	-	1	분리
71		무형리포변나	22	-	-	분리	164		중인동	-	5	9	중후기동일
72		보삼리	-	1	-	분리	165		중화산동	-	-	15	분리
73		부송동	-	3	-	분리	166		척동 Ⅰ	-	1	-	분리
74		부송동석치	-	9	4	중후기분할	167		척동 Ⅱ	-	2	-	분리
75		부송동242-73	-	5	-	분리	168		팔복동	1	-	-	분리
76		부평 Ⅰ	-	5	-	분리	169		평화동대정	-	1	-	분리
77		부평 Ⅱ	-	3	-	분리	170		평화동	-	1	-	분리
78		삼담리상북지	-	5	-	분리	171		필-붓내C-1	6	4	-	중복후행
79		삼담리호천가	-	5	-	분리	172		황방산지석묘	3	-	-	분리
80		삼담리호천나	2	-	-	분리	173		효자4 Ⅰ	-	12	-	분리
80		서두리1	3	-	1	분리	174		효자4 Ⅱ	-	2	-	분리
82		서두리2	3	-	-	분리	175		효자4 Ⅲ	3	4	1	중후기동일
83		석천리	2	-	-	분리	176		효자5 ⅠB	-	14	-	분리
84		송학리	-	2	1	분리	177		효자-신주Ⅰ	-	6	-	분리
85		신동리 6	-	-	1	분리	178		효자-함대Ⅰ	-	3	-	분리
86		신동리 7	-	-	2	분리	179		효자-함대Ⅲ	-	5	-	분리
87		신용리갓점	-	1	-	분리	180		효자-함대Ⅳ	3	-	2	중후기분할
88		쌍제리	-	4	-	분리	181		효자-함대Ⅴ	-	5	2	중후기동일
89		어량리 가	23	5	-	중기분할	182		효자-함대Ⅶ	2	1	-	중기분할
90		어량리 나	5	-	-	분리	183		효자-함대Ⅷ	-	1	-	분리
91		어량리 마산	-	8	-	분리	184		효자-함대Ⅸ	-	4	-	분리
92		어량리 상발	3	-	-	분리	185		효자동동모	-	-	-	분리
93		어량리 중발	2	4	-	중기공존	※ 유적의 구분은 조사구역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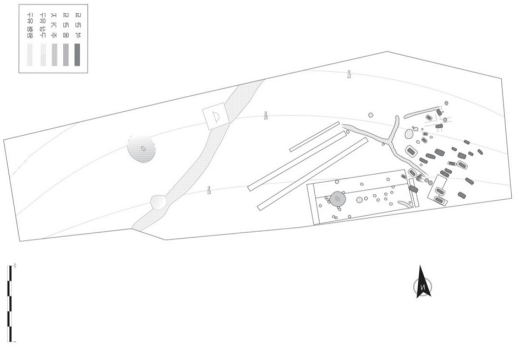
표 5.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후기유적 내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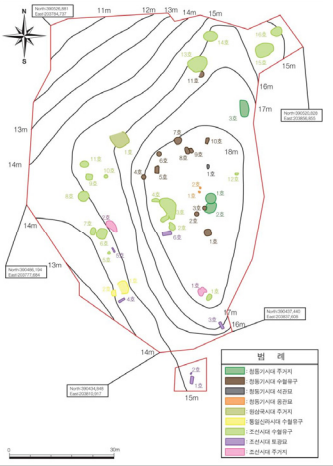
1. 무덤 공간분리 (완주 신풍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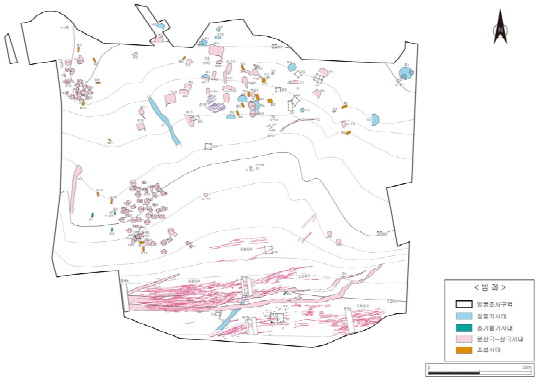
2. 주거지 공간분리 (전주 효자5유적)



3. 중기 무덤–주거지 공간분할
(군산 축산리유적)



4. 중기 무덤–주거지 공간동일
(익산 무형리 고산II유적)



5. 중기–후기유구 공간분할
(익산 부송동 석치고개유적)



6. 중기–후기유구 공간동일
(전주 중인동유적)

2. 무덤의 입지 및 구조

이번 장에서는 무덤 축조 과정에서 실천하였던 사람들의 행위이자, 역으로 그것을 제한하기도 하였던 사회적 규범의 특징 및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 569기의 종류와 입지 및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 중기-후기 무덤의 비교

(1) 무덤의 수량과 종류

만경강유역권에서 확인된 중기 무덤은 지석묘 12기, 석관묘 99기, 석개토광묘 45기, 토광묘 45기, 옹관묘 78기이다. 전체에서 석관묘가 35%로 절대 수량이 가장 많으나, 옹관묘와 석개토광묘+토광묘도 각각 28%와 32%로 확인되어 크게 세 종류의 무덤이 비슷한 비율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석묘는 단 4%에 불과한데, 만경강유역권은 여타 전북지역을 비롯한 다른 유역권에 비해 지석묘의 축조비율이 낮은 것(천선행 2019:71)으로 알려져 있다(표 6).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확인된 지석묘의 수를 참고한다면, 향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절대 수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비율상의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후기 무덤은 토광묘 264기, 옹관묘 26기로 토광묘가 전체의 91%에 달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무덤 종류가 선택되었고, 후기로 갈수록 무덤 양식의 통일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표 6.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전북지역 지석묘 현황(천선행 2019:71 수정 후 인용)　※( )=유적 수

구분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전주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수량	24 (12)	11 (4)	90 (35)	-	42 (11)	2178 (242)	84 (31)	36 (20	217 (64)	83 (36)	125 (31)	83 (35)	123 (34)	140 (51)

(2) 무덤의 입지, 장축방향, 규모

중기-후기 무덤은 입지나 장축방향에서도 다른 패턴을 보인다(그림 4). 중기 무덤은 51:49의 비율로 구릉정상부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였던 반면, 후기 무덤은 90% 이상이 구릉 사면부에 입지하였다. 또한 장축방향에 있어 중기에는 46:54의 비슷한 비율로 등고선과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무덤을 축조하여 시신의 안치 방향을 정했으나, 후기에는 97%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무덤 자리를 마련하고 시신의 안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 또한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정형화되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중기-후기 무덤의 기본 규모와 평면형태의 특징은 묘광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옹관묘는 비교군에서 제외하였다(그림 5). 중기 무덤의 장축길이는 평균 166cm 중위수 153cm, 단축길이는 평균 81cm 중위수 68cm이고, 후기 무덤의 장축길이는 평균 212cm 중위수 211cm, 단축길이는 평균 78cm 중위수 72cm이다. 중기-후기 무덤의 규모는 장축길이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중기 무덤의 장축길이는 후기 무덤에 비해 분산이 큰 특징을 가진다. 그로 인해 무덤의 평면형태가 중기에는 장방형~세장방

형으로 다양한 반면, 후기에는 세장방형으로 정형화되어 간다. 따라서 중기에는 시신을 안치할 때 무덤의 규모에 따라 신전장, 굴장, 세골장 등을 병행했고, 후기에는 신전장을 기본으로 하는 규범으로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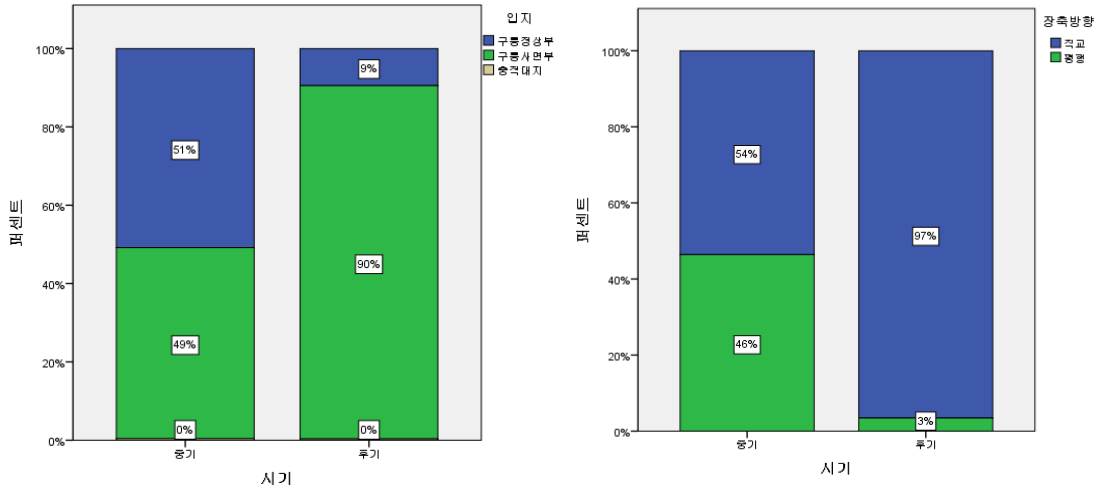


그림 4. 중기-후기 무덤의 입지(左)와 장축방향(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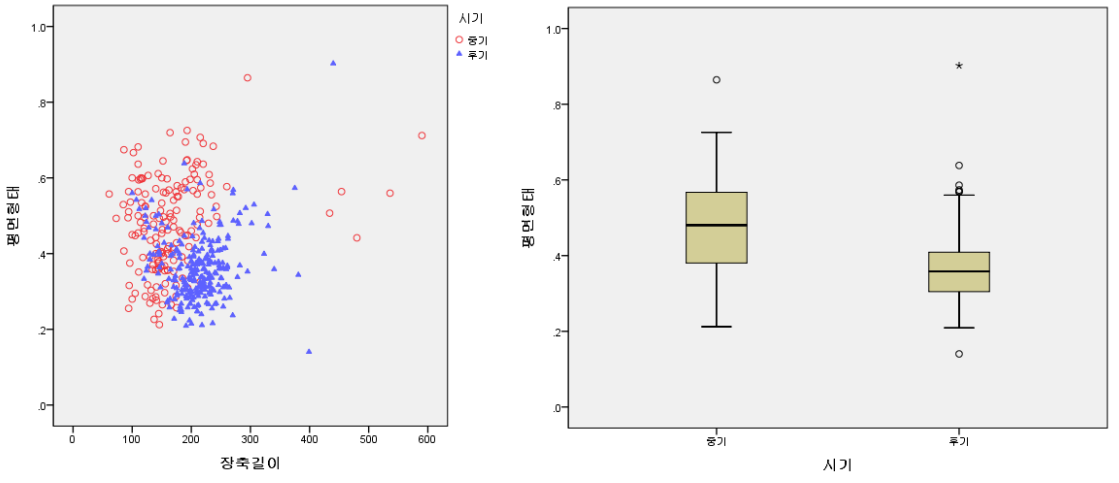


그림 5. 중기-후기 무덤의 규모: (左) x=장축길이 y=평면형태. (右) 평면형태

(3) 무덤의 구조

중기-후기 무덤의 구조에 대해서는 묘제가 동일한 토광묘(석개토광묘, 토광묘)와 옹관묘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중기-후기 토광묘 구조의 비교 요소로는 굴광방식, 묘광깊이, 시상대, 관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이 있다. 묘광을 굴광하는 방식에 있어 중기 무덤은 1단굴광과 2단굴광을 56:41의 비율

로 다양하게 사용한 반면, 후기 무덤은 1단굴광의 비율이 94%이상으로 매우 높다(그림 6). 하지만 묘광의 깊이는 역으로 후기 무덤이 깊은데, 후대 삭평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차별적인 수치이다. 이것은 중기-후기 집단이 시신을 매장하는 데 선호하였던 깊이의 차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기 무덤에서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다중 굴광은 묘광의 깊이를 깊게 굴광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행위여서, 양자의 깊이 차이는 무덤을 축조하는데 사용하였던 도구의 기능이나 효율성에서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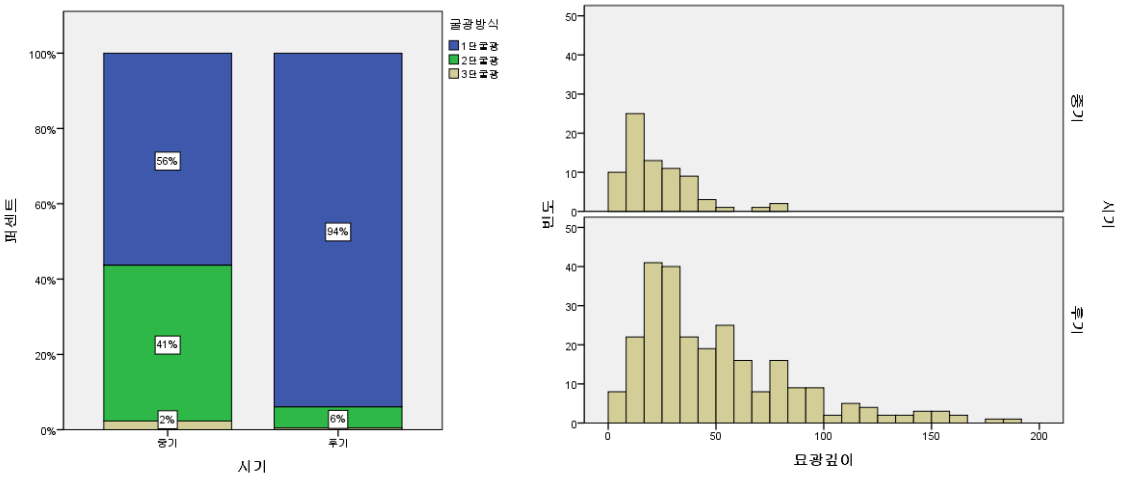


그림 6. 중기-후기 토광묘의 구조: (左) 굴광방식, (右) 묘광깊이

중기-후기 토광묘는 시상대와 관내시설의 설치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그림 7). 시상대는 시신이 안치되는 바닥시설인데, 중기 토광묘는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토기편과 할판석을 깔아 시상대를 마련한 비율이 상당하다. 반면에 후기 토광묘는 생토면을 정지한 후 바로 사용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 V자형의 토층양상이나 내부에서 확인되는 목질흔으로 보아 후기 무덤은 판재관이나 통나무관을 짜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였기 때문에 따로 시상대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 토광묘 중에는 바닥에 직경 20~30cm 정도의 수혈을 설치한 것이 11기가 확인된다. 이 수혈에 대해서는 시원적 형태의 요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토광에 바로 시신을 안치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배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 추정된다.

중기-후기 옹관묘 구조의 비교 요소로는 옹관의 정치형태와 묘광의 규모 그리고 옹관의 크기와 기형 등이 있다. 옹관은 단옹이나 2개 이상의 합구옹을 직치, 사치, 횡치하여 매납된다. 중기 옹관묘는 단옹을 직치하거나 사치하여 매납하는 방법이 81% 이상으로, 후기 옹관묘는 2개 이상의 옹관을 횡치하는 것이 96%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표 7).

표 7. 중기-후기 옹관묘의 정치형태

구 분	직치+단옹	직치+합구옹	사치+단옹	사치+합구옹	횡치+단옹	횡치+합구옹	계
중 기	**38**	2	**19**	2	3	6	70
후 기	-	1	-	-	2	**2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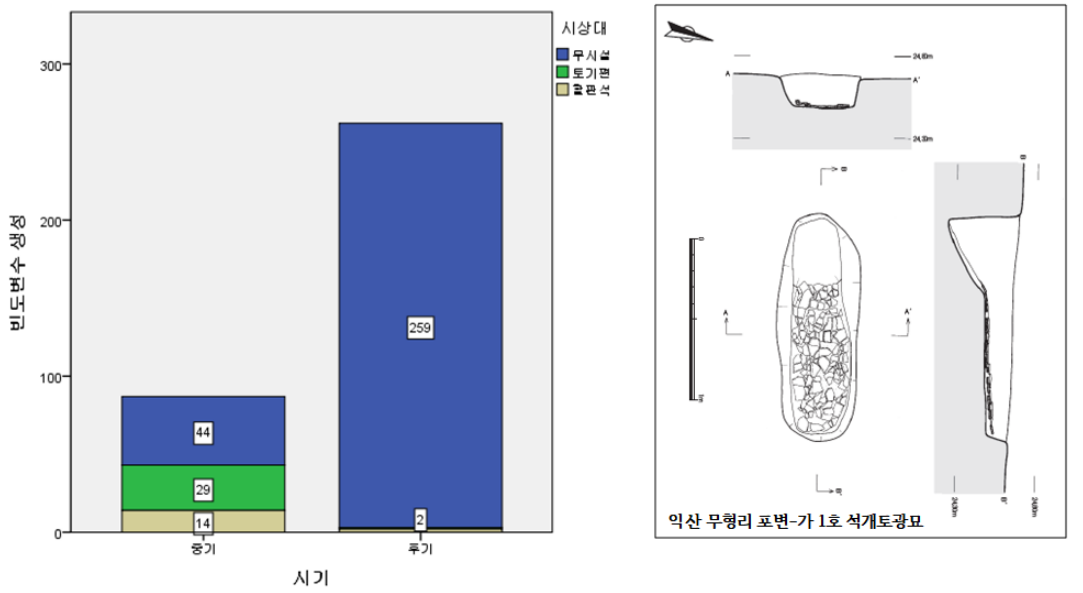


그림 7. 중기-후기 토광묘의 구조: (左) 시상대, (右) 토기편시상대와 수혈 설치 (석개)토광묘

그로 인해 옹관묘를 매납하기 위한 굴광의 형태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그림 8). 중기 옹관묘의 굴광은 평균 장축길이 62cm, 단축길이 51cm이고, 후기의 경우는 각각 91cm, 52cm이다. 평면형태 또한 중기 옹관묘는 장단비가 1에 가까운 원형이 많고, 후기 옹관묘는 길이비가 2:1 정도의 타원형이 많다. 이와 같은 특징은 옹관을 정치하는 방법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런데 최근 익산 어량리가1호·가4호·나1호, 용기리 I 1호, 완주 상운리나3호, 전주 동산동가1호, 동산동취락1-1호·1-2호, 반룡리 I -2호 옹관묘와 같이 중기 무덤 중 단옹이나 합구옹을 횡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기별로 옹관을 정치하는 형태에 주된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장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중기 옹관으로 분류된 횡치옹이나 합구옹 중 옹관의 크기나 기형이 일반적인 중기 토기와는 구별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끝으로 중기-후기 옹관묘 기형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려 한다. 옹관 104개 중 계측 가능한 것들을 수량 분석한 결과, 중기-후기 옹관은 전반적인 크기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균적으로 중기 옹관은 기고 46cm, 동최대경 35cm, 저경 11cm이고, 후기 옹관은 기고 37cm, 동최대경 34.5cm, 저경 8.2cm여서 중기 옹관이 후기 옹관보다 크기가 크다(그림 8). 시기별 옹관의 크기는 단옹이나 합구옹을 사용하였던 장법의 차이와 연관된다. 합구옹에 횡치를 선호하던 후기에 비해 중기는 주로 단옹을 직치한 까닭에 크기가 큰 것이다. 이에 비해 중기-후기 옹관의 구경은 너비가 평균 22cm, 21cm로 비슷하여, 구연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비율인 구경/동최대경과 목경/동최대경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중기 옹관은 동최대경에 비해 목과 구연이 좁은 호 형태이고, 후기 옹관은 동최대경과 목경, 구경의 너비에 큰 차이가 없이 바라지는 기형이 많았다(그림 9). 이러한 수치상의 특징은 구연부 형태를 분류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중기 옹관의 구연부는 내만외반한 비율이 59%로 가장 높고, 후기 옹관은 목이 직립하거나 직립외반하는 기형이 48% 정도

로 다수를 차지한다. 옹관의 구연부 형태도 결국 단옹을 직치·사치한 뒤 좁은 구연 위를 석개나 토개로 덮거나, 2개 이상의 옹관을 횡치하여 합구시키는 방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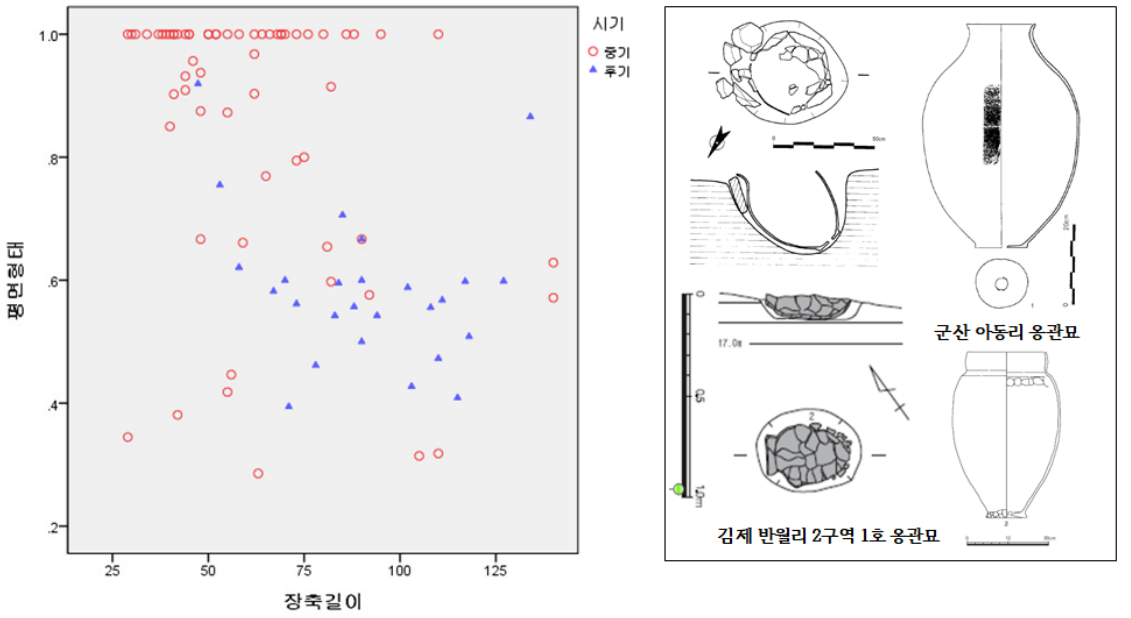


그림 8. 중기-후기 옹관묘의 규모 및 구조: (左) x=장축길이 y=평면형태 (右) 중기-후기 옹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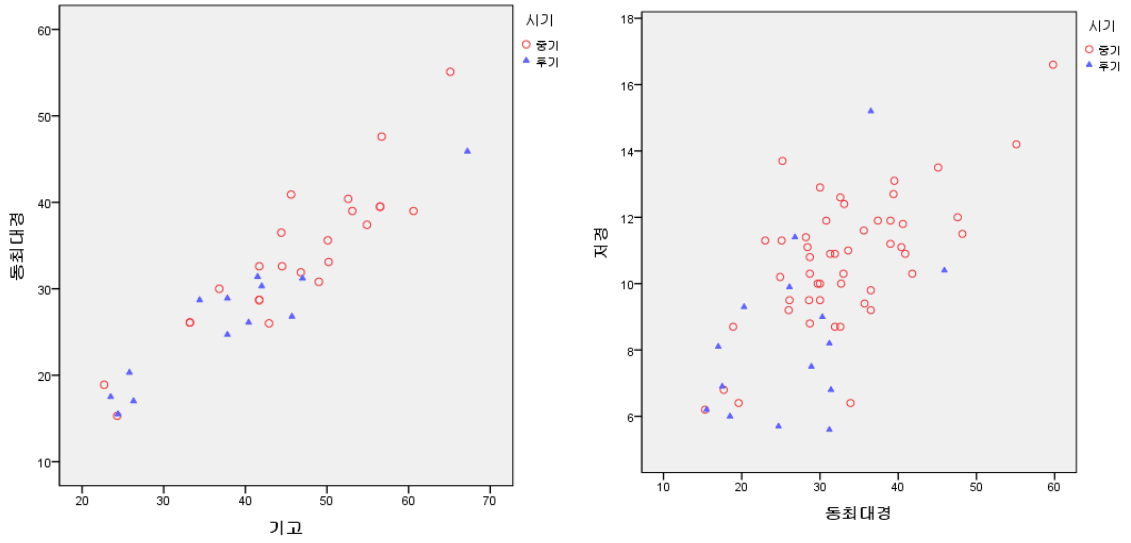


그림 8. 중기-후기 옹관의 크기: (左) x=기고 y=동최대경, (右) x=동최대경 y=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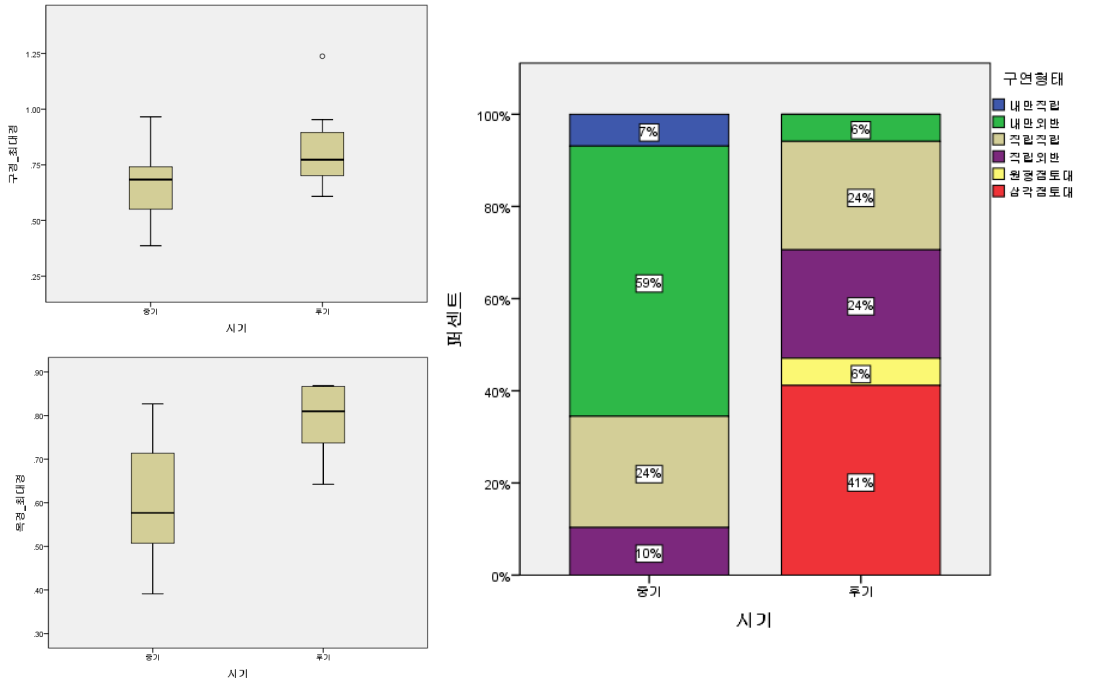


그림 9. 중기-후기 옹관묘 구연부 형태: (左上) 구경/동최대경, (左下) 목경/동최대경, (右) 구연형태

2) 중기 무덤의 지역별 비교

중기-후기 무덤의 종류, 입지, 장축방향, 규모, 구조 등을 검토한 결과, 중기 무덤에 비해 후기 무덤이 여러 요소에서 정형화된 규범을 따라 축조되었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만경강 유역권 전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양상이었던 중기 무덤의 특징이 세부 지역별로는 어떠한지, 그것은 유의미한 지역성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무덤의 수량과 종류

만경강유역권 내 중기 무덤 289기를 분석한 결과, 무덤의 수량이나 선호되었던 묘제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8). 무덤의 수는 익산지역이 125기로 가장 많고, 전주 94기, 군산 43기, 완주 14기, 김제 3기이다. 무덤의 절대적인 수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정도와 관련성이 깊지만, 중기 무덤의 분포율이 낮은 김제나 완주지역에서 후기 무덤이 상당수 확인된 것을 보면 비율상의 특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정량의 무덤군이 확인된 군산, 익산, 전주를 대상으로 묘제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선호된 무덤의 종류는 상이했다. 군산은 석관묘가 전체의 88%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정 묘제가 주를 점하는 모습이다. 익산은 석관묘 36%, 석개토광묘+토광묘 27%, 옹관묘 37%로 지석묘를 제외한 묘제들이 대동소이하게 쓰였다. 전주는 상대적으로 지석묘의 비율이 높고 석관묘는 15% 정도로 낮은 한편, 석개토광묘+토광묘가 52%로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석관묘는 지석묘의 하부구조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석관묘와 지석묘를 구분하여 묘제의 비중을 단정짓는 것은 유보한다.

표 8. 지역별 무덤 수

구 분	군 산		김 제		완 주		익 산		전 주	
	중 기	후 기	중 기	후 기	중 기	후 기	중 기	후 기	중 기	후 기
지 석 묘	-	-	-	-	1	-	-	-	11	-
석 관 묘	38	-	-	-	2	-	45	-	14	-
석개토광묘	-	-	-	-	6	-	15	-	24	-
토 광 묘	-	1	1	17	1	137	19	52	24	56
옹 관 묘	5	1	2	3	4	2	46	16	21	1
계	**43**	**2**	**3**	**20**	**14**	**139**	**125**	**68**	**94**	**57**

(2) 무덤의 구조

묘제의 수량이나 비율에서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는 바, 묘제별 입지나 장축방향, 규모, 구조상에서도 지역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무덤의 입지에서는 옹관묘가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는 비율이 특기하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묘제별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장축방향은 석관묘가 등고선과 평행하는 비율이 높고, 석개토광묘+토광묘가 등고선과 직교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시신을 안치하는 방향에서 지역 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중기 무덤의 지역적 특징은 각 묘제별 세부구조에서 확인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석관묘를 중심으로 지역별 중기 무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석관묘의 특징은 큰 틀에서 군산·익산지역과 전주지역이 대비되는 경향이 있지만, 구성 요소(속성)에 따라 세 지역 간의 유사도가 달라지거나 점이적인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석관묘의 평면형태는 평균 장축길이 144~155cm, 단축길이 68~74cm로, 장단비 0.47정도의 장방형이 일반적이다(그림 10). 군산·익산지역의 석관묘는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면, 전주지역에서는 장축길이 300cm, 단축길이 200cm 이상 큰 규모의 석관묘도 축조된다. 묘광은 대체로 1단으로 굴광하지만, 군산과 전주에서는 2단이상으로 굴광하는 비율이 각각 32%, 43%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묘광의 굴광방법은 석관묘의 규모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석관묘 규모의 차이는 관 부재와 관을 짜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석관묘의 관 부재는 판석형, 할석형, 혼축형로 구분되는데, 군산·익산의 석관묘는 97%이상이 판석으로 만들어졌고 전주는 판석형과 할석·혼축형이 43:57의 비율로 사용되었다(그림 10, 표 9). 따라서 자연히 석관을 짜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군산지역의 석관묘는 돌을 세로로 세워서 벽을 세운 입수적 형태가 46%로 가장 많고, 돌을 가로로 세운 와수적 형태가 29%, 양자를 섞은 입와수적 형태가 25%이다. 익산지역의 석관묘는 입와수적이 50%, 입수적이 32%, 와수적이 14%, 난적이 5%로 세부 방법상의 특징은 빈도를 달리하지만, 군산지역과 동일하게 돌을 세워서 관을 짜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전주는 할석을 눕혀 쌓아 올린 평적이 42%로 가장 많고, 난적도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입수적과 와수적은 각각 17%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무덤의 시상대를 설치하는 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역적 차이가 관찰된다(그림 11). 전주지역에서는 할판석을 깔아 시상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는 지역성을 갖는다. 군산지역에서는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한 비율이 89%로 대다수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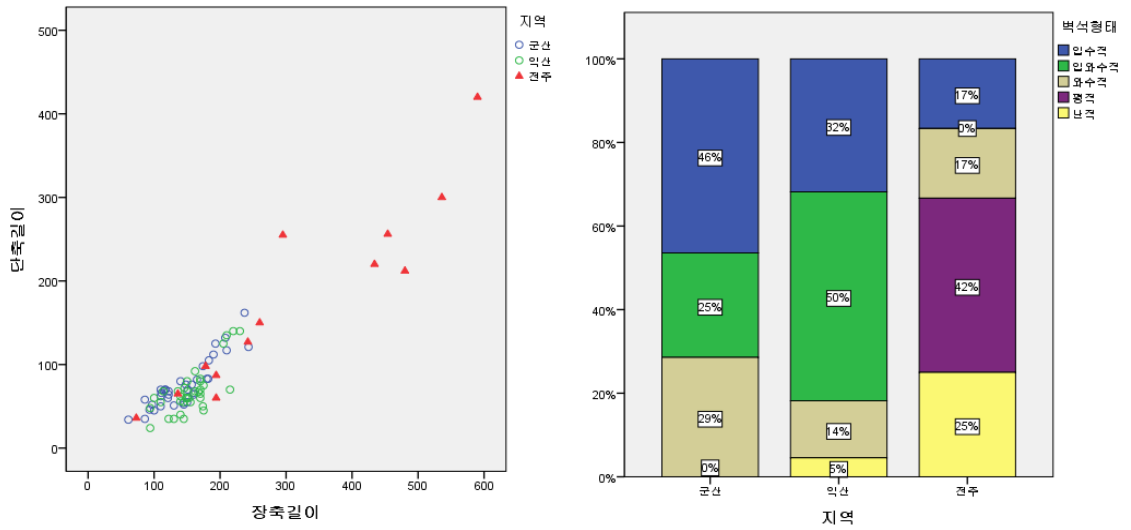


그림 10. 지역별 석관묘의 규모와 벽석형태: (左) x=장축길이 y=단축길이, (右) 벽석형태

지하고, 익산지역에서는 토기편시상대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으로, 깨어진 형태 그대로 토기편을 깔아 관대를 마련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 외 익산지역 석관묘의 특징에는 관내에 수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있다. 익산지역 석관묘에서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토기편 시상대나 관내에 설치된 수혈은 이 일대의 석관묘뿐만 아니라 석개토광묘, 토광묘에서도 두루 사용된다. 전주나 군산, 완주지역에서도 토기편시상대나 수혈을 설치한 석관묘가 존재하여 관련 요소의 점이적인 분포상이 확인되지만, 그것이 익산지역에서 높은 빈도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유의미한 지역색으로 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전주 동산동, 여의동, 필천리, 효자동 일대에서 할판석의 시상대를 설치한 석개토광묘와 토광묘가 존재하여, 지역성이 강한 무덤 구성 요소가 묘제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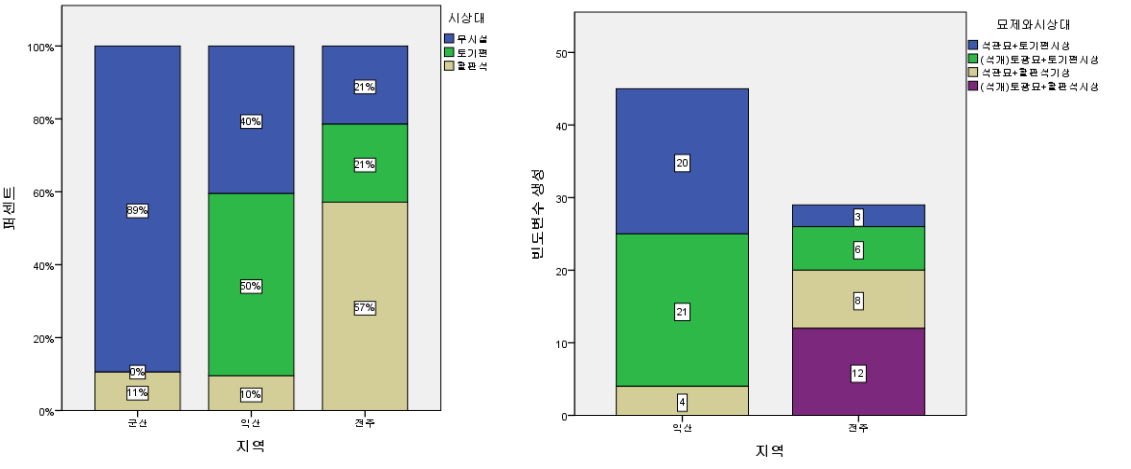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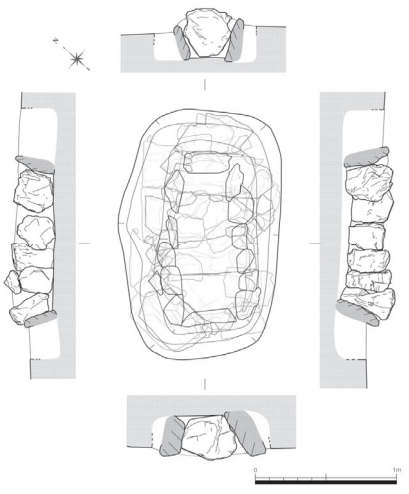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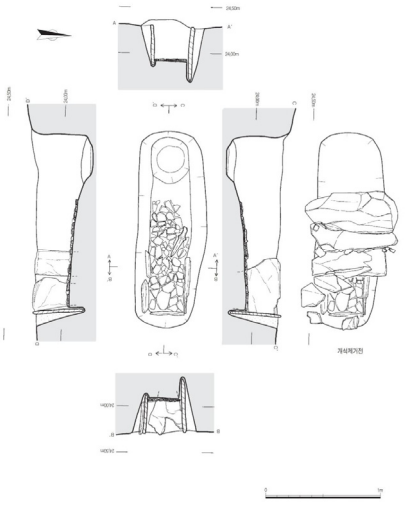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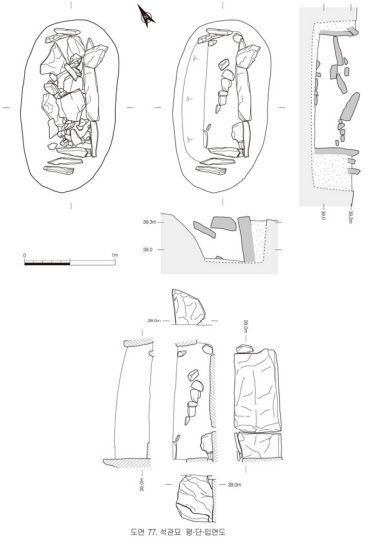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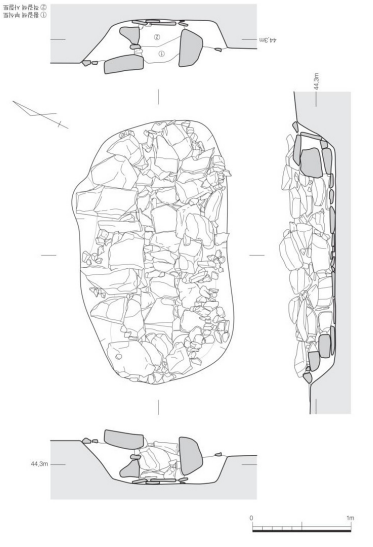


그림 11. (左) 지역별 석관묘의 시상대 (右) 익산–전주지역의 토기편 · 할판석시상대 설치 무덤 수

표 9. 지역별 중기 석관묘

	
군산 축산리 17호 판석형석관묘	익산 무형리 포변-2호 판석형석관묘
	
완주 상운리 나지구 판석형석관묘	전주 마전 1호 할석형석관묘

3. 부장유물의 조합과 형태

이번 절에서는 중기-후기무덤에서 유물을 부장되는 비율과 부장품의 수량, 조합,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먼저 중기-후기 무덤의 부장 여부를 살펴본 결과, 중기보다 후기에 부장유물을 무덤에 매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중기 무덤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51기에만 유물이 부장되었고 후기 무덤은 전체의 55% 즉, 절반 이상의 무덤에 부장품이 매납되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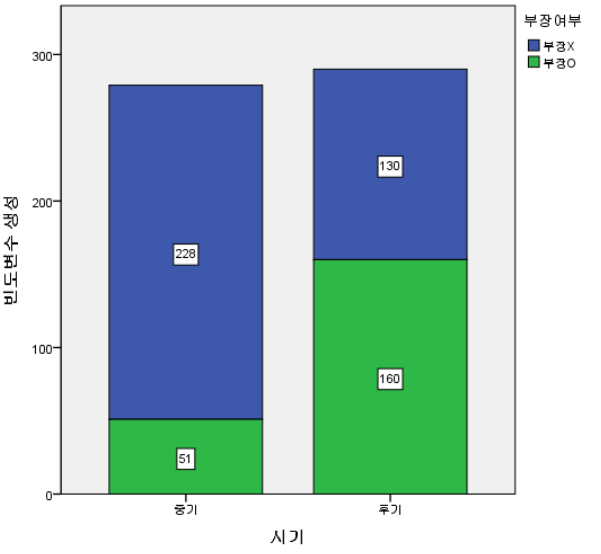


그림 12. 중기-후기 무덤의 부장 빈도

부장된 유물의 수량을 보면 중기에는 두 종류 이상의 물품을 매납한 경우가 단 4기에 불과하다. 만경강유역권 중기 무덤의 부장유물로는 석기나 토기, 옥기 중 한 점만이 매납되며 석기류의 비중이 높다. 부장된 석기는 석검 31기, 석촉 6기, 석부 2기, 석분 1기로, 석기류 중에서도 석검의 부장률이 월등히 높다. 그런데 부장품을 매납한 무덤은 그렇지 않은 무덤과 구분되긴 하지만, 석검을 부장한 무덤 간에 입지나, 규모, 구조상에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부장유물의 수량이나 조합, 종류 등에서도 다른 점이 거의 없어 석검 한 자루 이상의 차별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중기 무덤에 부장된 석검은 모두 일단병식석검이고, 형태 변형이 심한 익산 모현동2가 1호 석개토광묘 출토품을 제외하면 평균 검장 31cm, 신부 22cm, 병부 9cm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졌다. 석검의 형태적 특징은 신부과 병부 속성의 비율 비교를 통해 논의된 바 있는데(송아름 2017), 만경강유역권 석검은 큰 틀에서 금강유역 석검과 비율상의 특징이 유사하다. T자형이나 판상형도 더러 있지만, 이 일대 석검은 대개 심부 폭이 신부 폭보다 크게 과장되지 않고, 병두부와 심부가 1:1 대칭을 이루는 것들이다. 이러한 형태의 석검류는 낙동강·섬진강·영산강유역의 특징적인 석검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처럼 석검은 큰 스케일의 지역 간 비교에서는 차별화된 형태적 특징을 가지는데 반해, 만경강유역권 내에서는 세부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석검형태에 여러 변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역성으로 볼만큼 유의미한 패턴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유적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기 무덤과 대조적으로 후기 무덤들은 부장품의 종류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6개 가량이 부장되어 편차가 크다. 유물의 재질이나 종류 또한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로 다양해서 관련 제품을 만들거나 입수하기 위한 기술이 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만경강유역권 후기 무덤의 부장품 조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그림 13, 표 10). 후기 무덤에서 유물을 부장하지 않는 비율은 익산 61%, 전주 59%, 김제 48%, 완주 36%로, 완주의 무덤 부장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후기 무덤에서 관찰되는 높은 무덤 부장률은 부장품을 무덤에 매납하는 관습이 점

차 심화되었거나, 부장품을 매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부장유물의 조합을 살펴보면, 토기나 석기 등 단일 유물의 부장률은 김제 43%, 완주 35%, 익산 25%, 전주 22%로 확인된다. 청동기, 토기, 옥기를 부장한 비율은 김제 5%, 완주 23%, 익산 6%, 전주 19%로 완주와 전주의 부장률이 높다. 청동기가 부장된 무덤을 보면 청동기만을 부장하거나 토기·석기·옥기류와 함께 부장하는 등 다양한 부장 양상이 관찰된다. 만약 이를 기종이나 기형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비율이 높은 완주와 전주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를 다양한 조합으로 부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기, 석기 등 단일 유물의 부장률만 높은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완주, 전주 일대 무덤군에서는 한층 더 분화된 부장양상이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풍·덕동·갈동·원장동·만성동 일대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청동유물이 다수 확인되어 만경강유역권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지역이다. 사회의 복잡성이 진전되면 구분의 경계가 다층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완주와 전주지역에서 보여지는 높은 부장률과 부장유물 조합의 다양성은 무덤을 쓰고 부장품을 매납할 수 있는 계층 수의 증가와 그 안에서도 서로 상이한 조합과 수량의 물건을 부장하였던 계층 간의 분화를 반영한다.

끝으로 무덤에 부장된 철기 수량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완주와 익산지역에서 높은 빈도가 확인되었다(그림 13). 철기 유물이 출토된 무덤은 후기 무덤 중 비교적 확실한 시간성을 가진다. 다양한 철기유물이 출토된 신풍·갈동과 마동·신동리유적이 위치한 완주와 익산지역은 후기 무덤군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처럼 완주, 익산지역에서 철기유물을 부장한 무덤들이 다수 확인되는 것은 무덤 축조가 후기 문화의 중심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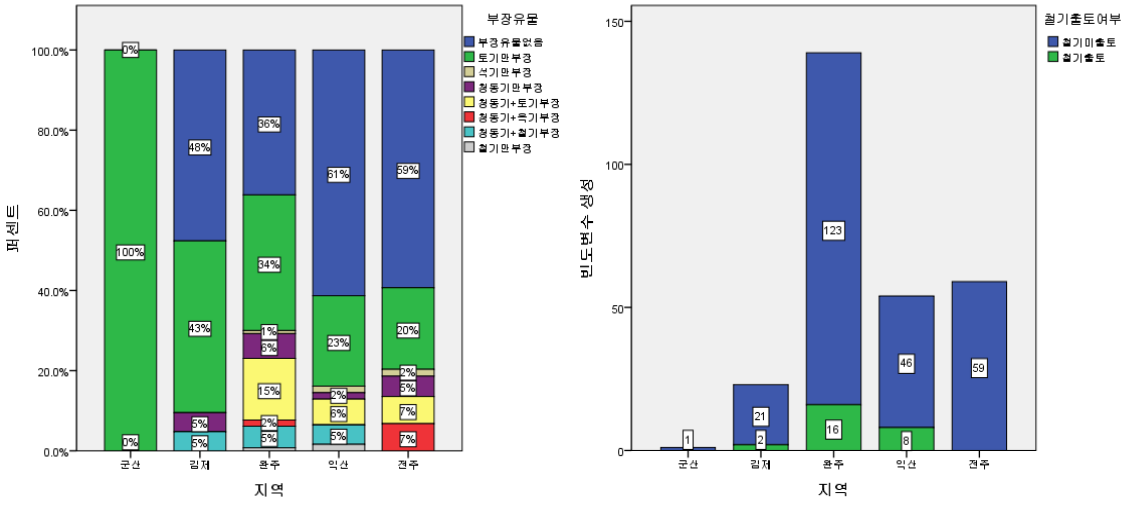


그림 13. (左) 지역별 후기 무덤의 부장유물 조합, (右) 지역별 후기 무덤의 철기 출토량

표 10. 만경강유역권 후기 무덤의 부장유물 조합

지역	유 구 명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지역	유 구 명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군산	둔율 1호	●						신풍Ⅰ가-41호	●				●
	반월리·부용리 2-1호	●						신풍Ⅰ가-42호	●	●	●		●
	반월리·부용리 2-2호	●						신풍Ⅰ가-43호	●			●	●
	부거리XII 1호	●						신풍Ⅰ가-44호	●				
	상동동Ⅰ 1호	●						신풍Ⅰ가-45호	●				
	서정동Ⅱ 1호				●	●		신풍Ⅰ가-47호				●	●
	서정동Ⅱ 2호		●			●		신풍Ⅰ가-48호	●				
김제	서정동Ⅱ 3호	●						신풍Ⅰ가-49호	●				
	서정동Ⅱ 5호	●						신풍Ⅰ가-51호					●
	서정동Ⅱ 6호		●	●				신풍Ⅰ가-53호	●	●	●	●	
	수록리A-1호				●			신풍Ⅰ가-54호	●			●	●
	수록리A-3호	●						신풍Ⅰ가-55호	●			●	
	수록리A-4호	●					완주	신풍Ⅰ가-56호	●				●
	수록리A-6호	●						신풍Ⅰ가-57호	●	●			●
	갈동Ⅰ 1호	●						신풍Ⅰ나-1호	●			●	
	갈동Ⅰ 2호	●		●		●		신풍Ⅰ나-2호	●				
	갈동Ⅰ 3호	●		●	●	●		신풍Ⅰ나-4호	●			●	
	갈동Ⅰ 4호	●				●		신풍Ⅰ나-6호	●				
	갈동Ⅱ 5호	●			●			신풍Ⅰ나-7호	●				
	갈동Ⅱ 6호	●				●		신풍Ⅰ나-10호	●			●	
	갈동Ⅱ 7호				●			신풍Ⅰ나-12호	●				
	갈동Ⅱ 8호	●			●			신풍Ⅰ나-19호	●				
	갈동Ⅱ 9호				●	●		신풍Ⅰ나-21호				●	
	갈동Ⅱ 10호	●						신풍Ⅰ나-22호	●			●	
	갈동Ⅱ 11호	●		●				신풍Ⅰ나-23호	●			●	
	갈동Ⅱ 13호	●						신풍Ⅰ나-24호	●				
완주	갈동Ⅱ 14호				●			계문동	●			●	●
	덕동D-1 1호	●	●		●			구평리Ⅱ 1호	●			●	
	덕동D-1 2호	●	●		●			구평리Ⅱ 2호	●				
	덕동D-1 3호	●						구평리Ⅱ 3호	●				
	덕동F-1 1호	●						구평리Ⅱ 4호	●				
	덕동F-1 2호				●			마동 1-1호	●				
	덕동G-1 1호	●			●		익산	마동 1-2호	●	●			
	덕동G-2 1호	●			●			마동 1-4호	●				
	둔산리 서당 1-3호	●			●			마동 1-5호	●				●
	둔산리 서당 1-4호				●			마동 1-6호					●
	둔산리 서당 1-5호				●			마동 1-7호	●	●			
	둔산리 서당 2-1호	●			●			마동 1-18호	●				
	둔산리 서당 2-3호	●						마동 1-19호	●	●			●
	둔산리 서당 2-4호	●			●			마동 1-23호	●				

지역	유 구 명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지역	유 구 명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둔산리 서당 2-5호	●						마동 1-24호	●	●			
	둔산리 서당 2-6호	●						마동 1-26호	●				
	둔산리 서당 2-8호	●						마동 1-27호	●			●	●
	둔산리 서당 2-12호		●					마동 1-28호	●				
	둔산리 서당 2-13호	●						마동 1-30호	●				
	둔산리 서당 2-14호	●			●			마동 1-31호	●				
	둔산리 서당 2-15호	●						부송동 석치고개 4호	●				
	둔산리 서당 2-17호	●			●			서두리1 1호				●	
	청등 수계리 1호	●						송학리		●			
	청등 수계리 2호	●						신동리 6-1호	●				
	청등 수계리 3호	●	●					신동리 7-1호	●			●	●
	청등 수계리 5호				●			신동리 7-2호	●				●
	반교리 8호	●						오룡리 3지점	●	●		●	
	신풍 I 가-2호	●			●			오룡리 4지점	●				
	신풍 I 가-3호	●						오룡리 5지점 1호	●	●		●	
	신풍 I 가-5호	●						오룡리 5지점 2호	●			●	
	신풍 I 가-7호	●						반월동 265 1-1호	●	●	●	●	
	신풍 I 가-8호	●						반월동 265 1-2호	●			●	
	신풍 I 가-9호	●						여의동 2-1지점 1호	●				
	신풍 I 가-10호	●						원만성 I -1호		●			
	신풍 I 가-11호	●						원만성1-4 1호	●	●	●	●	
	신풍 I 가-13호	●						원만성1-4 2호	●				
	신풍 I 가-15호	●						원장동G 1호			●	●	
	신풍 I 가-16호	●						원장동G 2호	●			●	
	신풍 I 가-19호	●			●			원장동G 3호	●			●	
	신풍 I 가-22호				●	●		원장동G 4호	●				
	신풍 I 가-24호	●						원장동G 5호	●			●	
	신풍 I 가-25호	●					전	중동A 다-1호	●				
	신풍 I 가-27호	●					주	중동A 라-1호				●	
	신풍 I 가-29호	●						중인동 1호	●				
	신풍 I 가-30호	●						중인동 3호	●				
	신풍 I 가-31호	●			●			중인동 5호				●	
	신풍 I 가-32호	●						중인동 6호	●				
	신풍 I 가-33호	●						중인동 7호	●				
	신풍 I 가-34호	●						중인동 9호	●				
	신풍 I 가-35호				●			중화산동 2호				●	
	신풍 I 가-36호	●				●		중화산동 8호	●				
	신풍 I 가-37호	●						중화산동 12호	●				
	신풍 I 가-39호	●						중화산동 14호	●				
	신풍 I 가-40호				●	●		효자4 Ⅲ지구			●	●	

Ⅲ.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

지금까지 본고는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을 변별하고, 무덤 자료에 내포된 중기-후기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유적의 공간적 분포, 유구의 입지 및 구조, 유물의 조합과 형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분석된 자료와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논의의 초점은 유적 분포에 반영된 집단의 공간 활용 방식, 무덤 축조 공정에 반영된 사회 규범, 부장품의 제작과 사용에 반영된 계층의 통합과 분화에 둔다.

1. 유적의 분포에 반영된 집단의 공간 활용

유적의 분포 패턴은 통시적·공시적으로 집단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고는 만경강유역권 내 중-후기 무덤유적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여, 당대 집단들이 만경강유역권에서 점유하였던 공간 패턴을 비교하였다. 공간적으로 중기-후기 무덤의 주요 분포범위와 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중기 무덤의 중심분포지역은 익산 무형리·어량리유적 일대와 군산 축산리유적일대, 전주 여의동·만성동·동산동유적 일대이고, 후기 무덤의 중심분포지역은 완주 신풍, 익산 마동유적, 전주 원장동·만성동 일대이다. 중기 무덤 중심분포지역은 여타 무덤분포 권역에 비해 현저한 차이의 밀도로 집중되지 않는다. 중기 무덤 축조집단은 익산 북부, 군산 동부, 전주 서부지역에 중규모의 거점을 두었으며, 인접한 범위에 중소규모의 무덤을 축조하며 분산되었던 모습이다.

이에 반해 완주와 익산지역에 거처한 후기 주민들은 완주 신풍, 익산 마동유적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밀도로 무덤을 축조해 나간다. 중소규모의 후기 무덤군은 익산 구평리, 오룡리, 서두리, 김제 서정동, 수록리 일대와 같이 중기 무덤군 입지한 공간의 인접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분포한다. 그로 인해 완주, 익산 일대의 중심 무덤군의 규모와 밀도는 김제와 익산 중부의 등 여타 후기 무덤군과 비교해 더욱 차별화되게 된다. 완주, 익산 일대의 후기 무덤군들은 대체로 중기 무덤군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후기 무덤군의 중심분포권을 이루는 완주 신풍·갈동·덕동, 익산 마동 일대는 중기 거점 무덤군의 외곽지역으로 중기 무덤의 분포율이 낮았던 지역이다. 이는 완주와 익산지역에 거처한 후기 주민들이 선주민이 축조한 중기 무덤군의 밀도가 낮은 공간을 선택하여 무덤군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주지역의 경우 만경강 남부지역에서 중기 무덤군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곳에 후기 무덤군이 조성되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동산동, 효자동, 송천동 일대는 만경강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만경강유역권 전체에서 중기 주거유적이 최대규모로 분포하였던 곳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만경강유역권 중기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분석에서 확인된 지역성이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중기 무덤과 주거지의 중심분포권은 거의 일치하되 무덤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주거지가 넓게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만경강을 중심으로 익산, 군산 등 북쪽지역은 무덤의 수에 비해 주거지의 수가 적고, 김제, 완주, 전주 등 만경강 남쪽지역은 무덤 수에 비해 주거지의 수가 현저히 많은 분포 패턴을 보인다. 특히 전주 일대는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기수의 주거지가 확인되며 중기 생활유적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중규모의 후기 무덤군이 입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기-후기 무덤과 중기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 양상에 내포된 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간 분석 범위를 낮춰 단일 유적 내에서 매장-생활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85개소의 유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중기 무덤군, 중기 주거지군, 후기 무덤군이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는 149개소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익산 용기리Ⅰ, 군산 고봉리Ⅱ 등 일부 유적에서는 중기 무덤과 주거지가 동일한 입지에 공존하거나 선후를 가지고 축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산 축산리, 전주 동산동, 반룡리Ⅰ, 원만성Ⅰ, 익산 모현동섬다리, 어량리 가구역 등 동일 유적 내 상호 가시권 안에 있는 주거지와 무덤군이 인위적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입지해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 중기부터 무덤과 주거지의 공간이 분리되는 경향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한편, 한 유적 내에 중-후기 유구가 입지해 있는 경우, 김제 상동동Ⅰ, 완주 신풍Ⅰ가, 익산 마동Ⅰ, 부송동석치고개 유적 사례와 같이 대개는 후기 무덤이 중기 유구과 공간을 달리하여 분포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효자 함대Ⅴ, 효자4Ⅱ, 여의동2-1, 원만성1-4, 원만성A, 필천리붓내C-1유적에서 중기 주거지가 입지한 공간에 후기 무덤이 혼재해 있거나, 중기 주거지를 파괴하고 후기 무덤이 중복후행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유적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주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전주지역에서는 후기 무덤군이 중기 주거유적 중심지에 조성되며, 미지형상에서도 기존의 중기 주거지를 파괴하거나 동일한 입지에 만들어졌던 맥락이 간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첫 번째는 후기 이주민이 선주민의 묘제가 입지해 있는 기존 점유지역을 피해 빈 공간으로 이동한 까닭에 완주지역과 익산 남부 일대로 먼저 정착했을 가능성이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밀도가 높은 중심권을 형성하였던 후기 이주민이 이후 인접 지역인 전주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여 선주민이 점유하고 있던 중심 공간까지 확보한 것이다. 이 가설은 완주, 익산지역 대규모 후기 무덤군의 초축 연대가 초기 이주민의 연대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하는데 난점이 있다.

두 번째는 후기 이주민이 애초에 선주민의 중심생활권역으로 이주하여 우세를 점한 다음 주변부로 이동하여 세력을 확장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서 집단의 이주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주민은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공백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주지의 중심생활권으로 이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심지를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선주민이 오랜 기간 정착하며 세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않고 인접 지역에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즉, 초기 이주민은 대규모의 중기 취락이 입지해 있던 전주지역에 정착하였고, 이후 인근의 완주지역이나 익산 남부지역으로 그들이 이동하거나 새로운 유이민이 유입되어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가설인 셈이다. 이는 유독 전주지역에 중기와 후기 유구가 동일한 입지를 공유하며 혼재해 있거나 후기 무덤에 의해 선대 유구가 파괴된 현상을 설명하는데 개연성을 제공한다. 또한 후기 무덤이 밀도 있게 입지해 있는 익산 마동·신동리, 완주 신풍·갈동유적에서 철기가 부장된 무덤들이 다수 확인되어 이 일대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점유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후기 문화가 들어오기 전 만경강유역권 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중기 문화의 지역성에 따른 다양한 정착 과정의 양상일 가능성이다. 이유를 명확히 알긴 어렵지만 자료가 보여주는 확

실한 패턴 중 하나는 중기 주민이 만경강유역 북쪽과 남쪽 일대의 공간을 달리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 때문일 수도 있으나, 각 지역에서 주를 점하는 유구가 시기와 종류를 달리해 분포하는 비율의 패턴은 확률적으로 유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위 가설들은 만경강유역권 중기-후기 유구의 분포 양상에 착안해 세운 초보적인 것들로, 관련 내용은 향후 유적 간 시기 분석 및 이론적 접근을 병행하여 발전시키기로 한다.

2. 무덤 축조 공정에 반영된 사회 규범

무덤은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과 당대의 죽음에 대한 관념을 담은 건축구조물로서, 무덤의 입지 및 구조에는 그 사회가 합의하여 행하고 제약을 받는 규칙이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무덤 축조방법 및 기술의 정형화 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당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회 규범의 특징과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무덤이라는 건축구조물은 축조 자체가 차별화의 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축조방법의 차이에서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축조 과정이 하나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된 경우에는, 부장유물이나 경관과 같은 다른 맥락을 통해 차별화가 시도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서 분석된 중기-후기 무덤의 입지 및 구조적 특징이 의미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만경강유역권에서 확인된 중기 무덤은 지석묘 12기, 석관묘 99기, 석개토광묘 45기, 토광묘 45기, 옹관묘 78기이다. 만경강유역권은 여타 전북지역에 비해 지석묘의 축조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동일한 송국리문화권에서도 자연·인문지리적 경계에 따라 다양한 묘제가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변형되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만경강유역권에서 확인되는 묘제들은 송국리형묘제라고 불리는 것들로, 금강과 만경강유역권을 중심으로 독특한 지역성을 가지며 분포한다. 이는 남한 지역에서 송국리문화와 함께 성행하였던 무덤을 짓는 행위가 지역별로 무덤을 달리 축조하는 방법으로서 지역 내적인 통합과 지역 외적인 차별화가 진전되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스케일을 달리하여, 만경강유역권 내에서 지역별 묘제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지역성이 감지된다. 군산지역은 석관묘가 절대 다수를 점하였고, 익산지역은 석관묘와 (석개)토광묘, 옹관묘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전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석묘의 비율이 높고, (석개)토광묘가 다수를 점하며 지역성을 보인다. 그리고 만경강 남쪽의 완주와 김제에서는 중기 무덤의 수량 자체가 적긴 하지만, (석개)토광묘의 비율이 높아 일정 부분 인접한 전주지역과 맥을 함께한다. 반면, 만경강유역권 후기 무덤의 종류는 토광묘가 전체의 91%에 달하며 굉장히 높은 통합도를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묘제가 선택되었던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무덤 양식의 통일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무덤의 입지 및 구조는 사자를 위한 장지의 선택과, 시신을 안치 방향,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관을 짜는 재료와 방법, 시신의 안치 형태, 무덤의 밀봉 방법, 무덤 영역의 표식과 구획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그 사회의 일원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동시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규범이기도 하다. 중기-후기 무덤은 묘제뿐만 아니라 무덤의 입지, 장축방향, 규모, 동일한 묘제의 세부 구조 전반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단순히 선택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의 분포 패턴에 반영된 선택지의 다양성이나. 규범의 정형성에서도 관찰된다. 실로

중기에는 무덤의 입지나 장축방향,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변이가 확인되는 반면, 후기에는 구릉 사면부에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장축길이 2m 정도의 세장방형 토광묘를 설치하는 방식이 일률성 있게 실천된다. 무덤의 구조에서도 중기 무덤은 시상대를 마련하는 작업, 관재를 선택하여 벽석을 만드는 작업, 관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관을 정치하는 방법 등의 공정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 중 해당 지역의 관습성·전통성이 강한 특징은 무덤의 종류를 초월해 적용된다.

그동안 청동기시대 중기 무덤의 다양성에 비해, 후기의 토광묘는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현상기술 측면 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후기 사회문화의 화려한 부장유물만큼이나, 이제는 하나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된 무덤의 축조행위에는 그 사회의 규범과 그것이 얼마나 복합화된 사회의 산물인지가 담겨있다.

3. 부장품 제작 · 사용에 반영된 계층의 통합과 분화

부장은 매장의례를 위해 제작된 물건이나 일상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시신과 함께 무덤 안에 매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장품은 기본적으로 매장의례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더 이상 그 물품이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도 사자를 위해 소비되는 재원이다. 이와 같은 소비재의 종류와 수량에는 각 집단과 사회마다 각기 다른 맥락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을 단순히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된 유물의 재질과 종류, 수량, 조합, 형태적 특징은 그 사회의 도구 제작 기술과 시스템 및 노동력의 분화 수준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동시기 무덤 부장유물의 종류, 수량, 조합 및 형태적 특징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는가에 따라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었던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와, 사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차별화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만경강유역권 중기-후기사회는 무덤에 유물을 부장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다. 중기에는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일부 무덤에만 부장품이 매납되는 반면, 후기에는 전체의 55% 즉, 절반 이상의 무덤에 1점 이상의 부장품이 매납된다. 무덤을 쓸 수 없는 다수와 무덤을 쓰는 소수로 구분되던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무덤을 쓰고 그중에서 물건을 부장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구분되는 구조로 변화했다면,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분화와 통합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만약 부장된 유물의 종류, 수량, 조합 및 형태적 특징에서도 다양성이 크게 확장되었다면 한층 더 세분된 분화와 통합을 의미한다.

만경강유역권 중기 무덤에는 석기나 토기, 옥기 중 한 점만이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전 지역에서 석검의 부장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부장품을 매납한 무덤은 부장품이 없는 무덤과 구분되긴 하지만, 석검 한 자루를 부장한 것 외에는 무덤의 입지나, 규모, 구조상에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한편, 이 일대의 일단병식석검 형태는 금강유역권의 그것과 유사하여 낙동강이나 섬진강·영산강유역에서 만들어진 석검과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중기 사회에서 무덤을 축조하고 부장품으로 석검을 사용하였던 집단들은 석검의 제작과 사용에 있어 지역 간의 차별화와 지역 내적인 통합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석검은 일률적으로 제작된 공산품이 아니기에, 각각의 형

태에서 무작위적인 변이들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이는 세부 지역성으로 구분될 만큼 유의미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후기 사회에서는 다양한 재질과 기종의 유물들이 부장품으로 활용되며, 그 수량 또한 1점에서 16점 이상으로 편차가 크다. 유물의 조합 또한 단일 유물을 매납한 것에서부터 토기+석기+옥기+청동기+철기를 매납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를 기종이나 기형별로 구분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진다. 이와 같은 부장유물의 다양한 조합은, 여러 조합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분화를 보여준다. 특히 후기사회에서 무덤은 이전 시기보다 무덤을 축조하고 사용하는 규범의 정형성이 진전되면서 사회구성원의 다수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구별짓기 행위는 무덤 시설보다 사자와 사자의 가족이 사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던 부장 유물의 양상에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로 후기 무덤문화의 중심지인 완주 신풍유적에서는 전체 무덤의 64%에 부장유물이 매납되었고, 조합별 부장률이 토기·석기 34%, 청동기 포함 28%, 청동기 단독 6%, 청동기와 옥기 2%로 상이하게 분포하여 무덤 간의 부장양상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부장품 자체가 보여주는 질적인 차이 못지않게, 후기 사회가 중기보다 훨씬 더 다층화되고 복잡한 사회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Ⅳ. 맺음말

이 글은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 자료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장지를 정하고, 무덤 구조물을 축조하고, 부장품을 매납하였던 사람들의 행위에 담긴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익산 무형리·어량리, 군산 축산리, 전주 여의동·만성동·동산동 일대에 무덤군의 중심분포권이 형성되었다. 무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청동기시대 중기는 그 자체로서 이전 시기와 대비되며, 생활공간과 매장공간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간활용방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의 무덤군은 중심분포권의 밀도가 주변과 비교해 현저히 높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무덤군이 분산되어 분포하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후기에는 완주, 익산 남부와 같이 중기 무덤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 중심분포권이 형성되었으며 그 일대를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 높은 밀도로 무덤군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전주지역에서는 중기 무덤 분포권에 후기의 중규모 무덤군이 분포하며, 중기 무덤·주거지가 입지한 공간에 후기 무덤들이 혼재하거나 중복후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확인된다. 전주지역은 대규모의 중기 취락이 입지하며 만경강유역권 생활공간의 차별적인 중심지를 형성했던 곳이다. 이에 본고는 중기-후기 유구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설명하는 가설로서,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서 집단의 이주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주민의 생활중심지를 공략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선주민이 오랜 기간 정착하며 세를 가지고 있던 곳에서는 더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인접 지역에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했던 두 집단의 사회적 특징을 무덤의 구조와 부장유물의 양상을 통해 가늠해 보았다. 중기 무덤은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토광묘, 옹관묘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지역별로 선호했던 무덤의 종류는 물론 같은 묘제의 세부구조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가 확인된다. 중기에는 무덤축조 관습을 가진 송국리문화집단이 각지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의 환경과 집단의 선호도에 따라 무덤축조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지역 단위로 실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후기에는 지역을 초월한 무덤 양식의 통일성이 나타나며 무덤 구조상에서도 편차가 줄어든다. 즉, 무덤의 축조가 하나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면서 동일한 사회적 규범을 공유하는 것인데, 이는 그것이 얼마나 복합화된 사회의 산물인지를 내포하고 있다.

부장유물의 출토양상에서도 중기에는 전체의 일부 무덤에만 부장품이 매납되며 부장품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기 무덤 부장품으로 주로 사용된 석검의 특징은 같은 유적 내나 소지역별로는 관찰되지 않고, 금강유역권(만경강유역권 포함)-낙동강유역권-섬진강·영산강유역권과 같은 큰 스케일에서 지역 내적인 통합화와 지역 간의 차별화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 후기에는 부장품이 매납된 무덤의 비율이 증가하며 지역 내 무덤 간 부장 양상의 편차가 매우 크고 다양해진다. 이는 무덤을 쓸 수 없는 다수와 무덤을 쓰는 소수로 구분되던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무덤을 쓸 수 있는 계층으로 통합되는 한편 부장품을 매납하는 양상에서는 한층 더 분화되며 다층화된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규정, 199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호남고고학보 9.
김규정, 2016, 「제4장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서울: 서경문화사.
김승옥, 2017,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전북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5.
송아름, 2017, 『남한지역 마제석검 형태 변이의 시·공간적 분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종열, 2015,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 과정」, 호남고고학보 50.
양영주, 2013,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울: 서경문화사.
천선행,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특징과 분포양상」, 호서고고학 44.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보 39

08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황 재 훈
충남대학교

Ⅰ. 머리말
Ⅱ. 섬진강 일대 유적 분포와 특징
Ⅲ. 탐진강 일대 유적 분포와 특징
Ⅳ. 섬진강-탐진강유역 취락과 무덤의 전개
Ⅴ. 맺음말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황 재 훈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Ⅰ. 머리말

본 발표의 목적은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유적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섬진강-탐진강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을 정리하여 분포 밀도 및 입지 양상에 있어 몇 가지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취락과 무덤의 시간성과 변천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남한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섬진강 일대 청동기문화는 미사리유형을 비롯 이른 시기의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휴암리-송국리유형 및 중기 이후 여러 물질문화가 공존하며 주변 지역과의 문화접촉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겪으면서 전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발표의 말미에서는 주거 구조와 무덤 형식, 토기 양상, 방사성탄소연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문화의 시간적 추이를 살피기로 한다. 아울러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적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섬진강 상류와 인접한 금강 상류 일대, 동부의 황강·남강유역 일대, 남부의 전남 남해안일대에서 조사된 중요 유적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섬진강 일대 유적 분포와 특징

섬진강은 길이 222km. 유역면적 4,914㎢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하천이다. 진안군 백운면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을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들어간다. 주요 지류로 오수천과 요천, 보성강이 있는데 각각 순창군 적성면, 곡성군 곡성읍, 곡성군 오곡면에서 합류한다. 섬진강 본류와 지류 주변에는 구석기시대 이래 많은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과 무덤은 충적지 및 주변 낮은 구릉 일대에서 발견된다. 세부 지역별 유적의 특징과 문화적 성격을 변별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지류를 기준으로 상류역의 임실지역, 중류역의 남원-순창-곡성-구례지역, 보성강유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섬진강유역의 취락과 무덤

1) 상류역

임실지역에서는 중기 이후의 취락만이 발견되고 있다(표 1). 외량 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 20기가 조사되었다(그림 1). 일부 주거지 일부 주거지 내부에는 구덩이나 주혈 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타원형수혈과 기둥구멍을 갖춘 송국리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면적은 모두 20㎡ 이하의 소형에 해당하며, 짧게 외반된 구연의 호형토기, 내경도가 높은 내만구연발의 토기상을 보이는바 중기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갈마리 해평유적에서는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주거지 6기, 방형계주거지 8기가 조사되었다. 양자는 공간을 달리하여 분포하는데 방형계는 유적의 서편 구릉 사면, 휴암리식/송국리식은 동편 구릉 능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출토 토기 양상에서도 양자 간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직립구연의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 나팔형으로 바라진 천발이 발견되는데 비해 송국리식 주거지에서는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된 구연의 호형토기, 내경도가 높은 내만구연발이 출토되어 양자 간 시간적 격차를 감지할 수 있다.

한편 임실 외량2, 망월촌과 대곡리 유적에서는 중기 늦은 시기 토기 기형 및 제작 기법상의 변화가 관찰되는바 주목을 끈다.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하는 호형토기, 내경도 높은 심발형토기, 토기 외면의 빗질 또는 목리 정면 기법, 편평한 저부, 전용뚜껑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정읍 상평동, 장수동, 고창 신대, 석교리, 봉산리 황산, 부곡리 연동, 삼인리 유적 등지의 송국리식 주거지에서 다수 확인되는 요소들인바 중기 늦은 시기 전북 서부지역의 토기제작 기술의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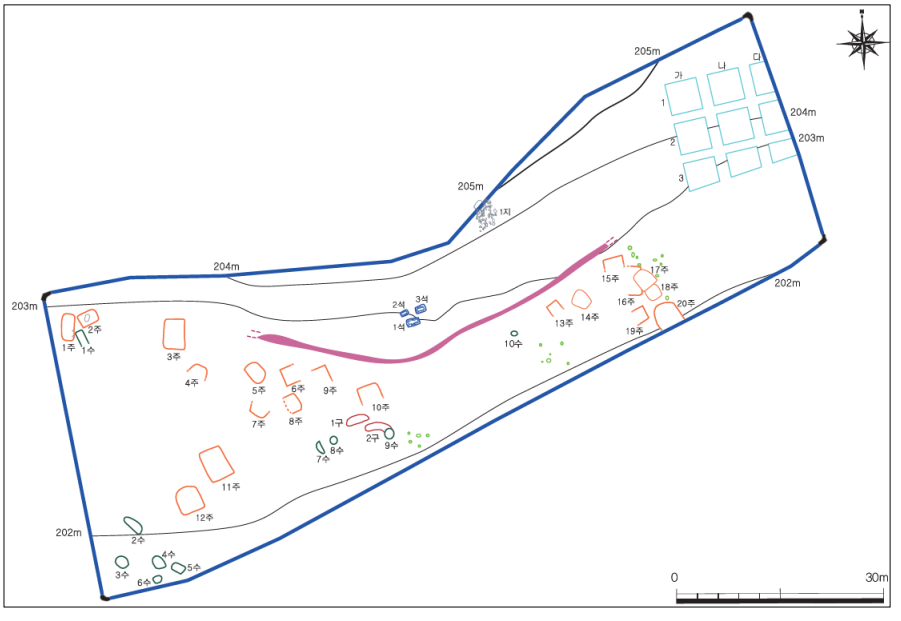


그림 1. 임실 외량2 유적의 유구분포도

표 1. 섬진강 상류역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휴암: 휴암리식 방형, 송국: 송국리식 원형)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주거(시기)	토기	탄소연대(bp)
1	임실 외량2	20	구릉 사면	장방형(중기)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3호: 2500±40 10호: 2410±30 11호: 2470±40 13호: 2550±30 14호: 2490±40 16호: 2520±30 20호: 2430±30
2	임실 갈마리 해평	14	구릉 능선~사면	휴암/송국/방형(중기)	공열, 구순각목,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6호: 2490±30
3	임실 도인리	7	구릉 능선	송국(중기)	외반구연호, 내만/직립구연발	2호: 2600±50 6호: 2580±50 7호: 2570±50
4	임실 대곡리	5	구릉 정상~사면	휴암/송국(중기)	직립/외반구연호	1호: 2510±25 3호: 2480±25
5	임실 망월촌	5	구릉 사면	휴암/송국(중기)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뚜껑	·
6	임실 덕치리	1	구릉 사면	송국(중기)	·	·

다음으로 무덤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2). 지금까지 불과 2개소의 유적 13기의 유구만이 조사되어 섬진강 상류일대 무덤의 지역적 특징이나 시간성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외량2 취락에서는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이 동일 지점에서 확인되어 무덤군의 시간성을 살피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그림 1). 전술하였듯 외량2 유적에서 발견된 장방형 주거지는 유구유물상을 종합하여 볼 때 중기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무덤군은 등고선방향과 나란하게 호형으로 조성된 길이 57m, 폭 1.3m의 석렬유구를 경계로 북편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북쪽 경계부에 지석묘 1기가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18m 떨어져 석관묘 3기가 위치한다. 지석묘는 상석이 이동되고 하부구조의 유실이 심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매장주체부는 지상 위석식 구조로 보이며 주변으로 포석형 묘역시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관묘는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모두 지하 판석형이며 상부구조로 2~3중의 개석과 봉분이 시설되어 있다. 2호에서 종방향 목리흔이 남아있는 동체편이 확인되는데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무문토기의 정면 기법과 동일하다. 3기 모두에서 탄소연대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2390~2470 bp값이 얻어졌다. 지석묘의 구조, 석관묘 출토유물과 탄소연대 등을 종합해볼 때, 외량 취락의 늦은 시기 조영된 무덤군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석묘와 석관묘가 동일 지점에서 공존하는 사례는 임실 운정리유적에서도 확인된다. 구릉 정상 평탄부에서 지석묘 5기와 석관묘 4기가 분포하는데 지석묘는 남북 2열, 석관묘는 동서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지석묘는 1~4개 정도의 지석이 놓인 기반식으로 이중 2기에서는 지하 토광형, 위석형 매장주체부가 확인된다. 4기의 석관묘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1호의 경우 수매의 개석, 판석형 매장주체부, 바닥시설(토기) 등이 확인된다. 지석묘와 석관묘의 구조, 출토유물 양상을 통해 볼 때 운정리 유적 또한 외량 무덤군과 비슷한 중기 늦은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섬진강 상류역 일대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탄소연대(bp)
1	임실 외량2	4	구릉 말단~평탄	지석묘1	포석형 묘역? 위석형	·	1호: 2470±30 2호: 2450±30 3호: 2390±30
				석관묘3	다중개석, 봉분 지하 판석형 석관	무문토기	
2	임실 운정리	9	구릉 정상	지석묘5	지하 토광(이단) 위석형(기반식)	·	·
				석관묘4	지하 판석형 석관	내만구연발, 일단경촉	

2) 중류역

섬진강 중류, 오수천~요천일대의 청동기문화는 여타지역에 비해 매우 풍부하다. 순창 원촌에서는 미사리유형, 남원 고죽동에서는 역삼동/흔암리유형, 곡성 오지리와 대평리를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는 휴암리단계의 취락들이 발견되었다(표 3). 특히 순창 백산리, 순천 죽내리유적에서는 이 일대 전-중기 전환기의 유구유물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순창 백산리에서는 (장)방형계 주거지 5기와 휴암리식 방형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장방형계인 3호에서는 단사선문토기와 구순각목토기, 직립구연발이 출토되었으며 2765±25bp의 탄소연대값이 얻어져 방형계가 휴암리식 주거지에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모든 주거지의 면적이 20㎡ 이하의 소형만이 조성되어 있어 전기 취락으로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백산리 방형계 주거지들은 전기 후반의 역삼동/흔암리식 장방형주거지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형태로 생각된다.

순천 죽내리에서는 2기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중기 이른 시기의 토기상을 살필 수 있다. 두 주거지는 중첩을 이루는데 1호는 휴암리식 방형, 2호는 유실이 심하지만 방형계로 추정된다. 전자에서는 긴경부의 직립구연호, 후자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 공열토기 등이 출토되는바 휴암리식 주거지보다 다소 이른 시기로 생각된다.

곡성 오지리유적은 휴암리식 방형주거지만으로 구성된 단일 취락으로 5호를 제외한 19기의 주거지 모두 타원형구덩이 양단에 맞물려 기둥구멍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적 통일성이 보여진다. 휴암리식 주거의 특성상 토기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시간적 위치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렬토기, 내경도가 크지 않는 직립구연 심발, 직립구연호, 나팔형으로 바라진 천발이 출토되는바 중기 전~중엽경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례 봉북리유적의 유구유물 양상은 오지리유적과 상당히 흡사한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조성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중류역 일대에서는 전기~중기 이른 시기에 속하는 미사리유형, 역삼동/흔암리유형, 휴암리단계 취락들이 분포하는데 상류 일대와는 달리 중기 늦은 시기의 (장)방형계 주거지나 송국리식 원형주거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별 유적분포의 특징은 섬진강 일대 청동기문화의 확산과 전개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섬진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주거(시기)	토기	탄소연대(bp)
1	순창 백산리	5	충적대지	장방형/휴암(중기)	구순각목, 단사선	3호: 2765±25
2	순창 원촌	2	충적대지	장방(전기), 휴암(중기)	돌대문	·
3	순창 동촌	2	구릉 사면	장방형(중기)	·	·
4	남원 고죽동	3	구릉 사면	(세)장방(전기)	구순각목공열, 단사, 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 이중구연단사공열, 직립구연호	·
5	남원 광평	2	구릉 사면	중기(휴암B)	직립/내만구연발	·
6	곡성 대평리	29	충적대지	장방형/휴암(중기)	·	·
7	곡성 오지리	20	충적대지	휴암(중기)	공열, 직립구연, 직립구연호	4호: 2670±60 6호: 2650±50 12호: 2640±60 14호: 2710±50
8	구례 봉북리	3	충적대지	휴암/방형(중기)	공열, 내만구연발. 직립구연호,	2호: 2960±80 3호: 2560±50
9	순천 죽내리	2	구릉 사면	방형/휴암(중기)	이중구연단사, 공열 직립구연호	1호: 2790±130

섬진강 중류역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무덤은 지석묘와 석관묘로 상류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현재 4개소의 유적 1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표 4). 특히 섬진강 일대 무덤에서는 묘역시설을 갖춘 지석묘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속성은 지석묘의 시간적 변화상을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금강유역을 비롯 황강-남강유역 지석묘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바 섬진강유역 지석묘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묘역시설과 지석,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기초하여 섬진강 중류 일대 무덤의 지역적 특징과 시간적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원 용정동에서는 장축 6.3m, 단축 4.0m 규모의 묘역시설이 설치된 묘역식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이른바 유사석곽형(하인수 1992)으로 할석을 지상에 연접하여 놓아 장방형의 공간을 마련한 구조를 보인다. 이 같은 형식의 지석묘는 황강-남강유역에서 다수 발견되는데 특히 거창 산포 지석묘군에서는 매장주체부 및 세부 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다. 우선 산포 지석묘군에서의 중복관계를 통해 지상의 유사석곽형의 매장주체부가 지하 할석형 석관에 비해 시기적으로 후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늦은 시기에는 할석을 지상에 간단히 둘러놓은 방식의 위석형으로 변화한다. 이와 연동하여 묘역시설은 대형의 적석형에서 중소형의 포석형으로 축소되고 간략화되는 방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용정동 지석묘는 산포 지석묘군의 2단계 이른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창 내동리 구릉 사면에서 발굴된 2기의 지석묘는 후대 재사용으로 인한 하부구조의 훼손으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용정동 지석묘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관찰된다. 특히 1호의 경우 지상 매장주체부 구조이며 상석 아래 4기의 지석과 함께 포석형 묘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바 용정동 지석묘와 동일한 시점이거나 약간 늦은 형식으로 볼 수 있겠다.

순창 무수리 지석묘군에서는 지석묘 4기와 석관묘 5기가 조사되었는데 양자는 15m 정도의 거리

를 두고 각각 북동쪽과 남서쪽에 분포한다. 상석이 놓인 1호의 경우 포석형 묘역시설을 갖춘 위석형으로 보이며 나머지 4기는 지하 할석형 석관으로 상부에는 평면 타원형 묘역시설 및 구획석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석관묘는 지하 할석형으로 할석과 천석을 혼용하여 1~2단 정도 뉘어 쌓아 매장주체부를 구축하였다. 무수리에서 조사된 묘역식 지석묘는 섬진강 본류 일대에서는 가장 이른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진안 안자동 1·9호나 합천 저포리 8호와 같은 전기 후반의 지석묘보다는 한 단계 늦은 중기 전반 즈음의 무덤으로 비정할 수 있겠다.

구례 봉복리에서 조사된 3기의 지석묘는 상석 아래 입방형의 중대형 석재 1~4개 정도를 상석 가장자리에 놓은 위석식의 구조로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다만 3호의 경우, 일부 묘역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나머지 1·2호에 비해 약간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섬진강 중류역 일대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1	순창 내동리	2	구릉 사면	지석묘2	포석형 묘역 위석형	·
2	순창 무수리	9	충적대지	지석묘4	포석형 묘역, 구획석 지하 할석형 석관	공열토기
				석관묘5	지하 할석형 석관	·
3	남원 용정동	2	충적대지	지석묘1	포석형 묘역 위석형	·
				석관묘1	지하 판석형 석관	
4	구례 봉북리	3	충적대지	지석묘3	위석형, 기반식	일단경촉

3) 보성강유역

순천 대곡리 도롱유적은 휴암리식/송국리식 주거지 20기와 장방형주거지 50여기가 조사된 섬진강 일대 최대규모의 취락이다. 주거지의 중복관계에 기초하여 크게 2단계 구분할 수 있는데 하층에는 휴암리식 방형, 송국리식 원형, 장방형주거지 세 형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층에는 장방형주거지만이 확인된다(이근욱 1993). 안재호(1992)는 토기의 기형과 주거지 구조의 변화상을 통해 편년을 실시하였는데, Ⅰ기에는 공열토기, 내만 또는 직립 구연의 심발, 경부가 긴 호형토기가 주로 확인되지만 Ⅱ기가 되면 심발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의 비중이 높아지며 호의 구연부도 짧아지는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곡리Ⅱ기에 속하는 48호 주거지의 탄소연대 측정값인 2270±90 BP는 보성강유역 청동기시대 하한에 있어 중요한 절대연대 기준을 제공한다.

많은 주거지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평면형태 및 내부 구조, 토기와 석기 형식에 있어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여타 유적에 비해 존속기간이 짧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 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판정할 수 있는 유구유물 양상은 뚜렷하지 않지만 일부 주거지에서는 순창 백산리나 순천 죽내리와 같은 전-중기 전환기의 과도기적 형태를 살필 수 있다. 해당 주거지가 많지는 않지만 서5호, 서9호, 서53호, 광22호, 광27호 주거지의 경우 경부가 긴 직립구연의 호형토기와 공열토기가 확인되는바 도롱 취락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장 늦은 시기의 문화내용도 살필 수 있는데 특히 토기상에 있어서의 변화가 매우 다채롭다. 예컨대 축약

된 굽 없이 편평한 저부에서 완만한 사선을 이루어 동체부와 연결되며, 동최대경이 중위에 형성되어 장동형의 기형을 보이는 기형의 변화를 보인다. 호형토기의 구연은 짧게 외반 또는 직립하며 발형토기의 내경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토기 외면에는 빗질 정면, 목리 조정과 같은 정면 수법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이 같은 기형과 정면 기법의 변화는 영산강유역 중기 늦은 시기 송국리식 토기 제작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전용뚜껑의 등장은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 표지유물로 생각된다.

곡성 유정리 유평에서는 방형계 주거지 2기와 송국리식 원형 2기가 조사되었다. 양자 모두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구연된 호형토기, 내만구연토기 등이 공반하고 있으며 석검, 석도, 석촉의 형식 및 출토양상도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양자간 시간적 격차는 없어 보인다. 화순 복교리에서 조사된 송국리식 원형주거지 또한 동일한 토기양상을 보인다.

한편 보성강 상류의 보성 옥평리 유적에서는 역삼동식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는데 보성강유역 전기 문화의 확산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면적 83㎡의 대형 세장방형으로 내부에는 무시설식 노지와 저장공, 벽구 등이 시설되어 있다. 2770±50 bp의 탄소연대 값이 산출되었으며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시문된 직립구연의 발형토기 등의 문화내용을 종합해볼 때 옥평리 주거지는 탐진강유역 전기 문화와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겠다.

표 5. 보성강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주거(시기)	토기	탄소연대(bp)
1	곡성 유정리 유평	4	구릉 사면	방형/송국(중기)	외반구연호	·
2	순천 대곡리	72	충적대지	장방형/휴암/송국(중기)	공렬, 직립구연발, 직립구연호, 내만심발, 외반구연호, 뚜껑	10호: 2380±100 48호: 2270±90
3	화순 복교리	2	충적대지	송국(중기)	외반구연호	2950±120
4	보성 용정리 활천	2	구릉 정상	방형(중기)	·	수혈: 2340±50
5	보성 거석리 구주	1	구릉 사면	휴암(중기)	·	1호: 2560±50, 2420±50
6	보성 옥평리	2	구릉 정상	장방형(전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	1호: 2770±50

섬진강 일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석묘가 분포하는 지역은 보성강유역인데 80~90년대 동복대과 주암대 수몰지구, 호남고속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발굴조사 등을 통해 500여기가 넘는 무덤이 조사되었다(표 6). 보성강유역은 금강 상류-섬진강 본류, 황강·남강의 낙동강유역, 영산강-탐진강유역, 그리고 남해안지역으로 연결되는 청동기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섬진강 일대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보성강유역 지석묘의 지역적 특징과 시간적 변화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래에서는 보성강 일대 지석묘군의 입지와 분포양상, 상·하부 구조, 출토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석묘군은 동복천이 합류되는 보성강 중류역에서 가장 높은 군집밀도를 보인다. 섬진강 본류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석묘군은 충적대지와 곡간평지에서 열을 지어 분포하는데 일부는 구릉지대와 산사면에 입지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같은 입지의 차는 지석묘 구조의 시간성을 강하게 반영

하는데 예컨대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이른 시기 지석묘는 매장주체부의 보호를 위해 묘역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릉지대에 입지하는 늦은 시기 지석묘는 상대적으로 지형적 문제의 위험도가 낮은바 점차적으로 묘역시설보다는 지석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기반식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석묘의 시간적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매장주체부, 묘역시설, 지석 등의 세부 구조를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며 아울러 배치패턴이나 분포밀도의 추이에도 주목해야 한다.

순천 우산리 내우와 우산리, 죽산리 다군 지석묘군은 30기 이상의 많은 무덤이 조사되었고 하부구조의 변이도 다양하여 보성강유역 지석묘의 변화상을 살피기에 적합한 고고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지석묘는 상석이나 묘역부와 같은 상부구조의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선축된 무덤을 고려해야 하는바 집단묘역의 조성시 전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군집밀도가 높은 무덤군일수록 일정한 방향으로의 축조순서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성강유역 최대 지석묘군인 우산리 내우유적은 묘역시설과 지석의 형태, 매장주체부의 축조방식 및 장축방향, 마제석검의 형식 및 출토유물 양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북쪽 무덤열에서 남쪽 방향으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영문 1999, 황재훈 2006, 2012, 김승옥 2007). 이 같은 무덤의 축조순서에 근거하여 유구유물의 시기별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석묘군을 종합해보면 크게 4단계의 계기적인 변천상을 설정할 수 있다.

1단계의 지석묘는 보성강 중류역의 일부 지석묘군에서만 발견되는데 장방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매장주체부 구조를 보인다. 2단계부터는 무덤의 구조적 변이가 다양화되고 다층화 된다. 1단계 매장주체부의 구축은 석재를 뉘어쌓는 방식만이 사용되었지만 2단계부터는 횡적과 수적을 혼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발견된다. 묘역시설의 평면형태는 점차 타원형의 비중이 증가하며 적석부 내에는 상석의 가장자리를 받치는 1~3개 정도의 지석이 관찰되기도 한다. 3단계는 새로이 판석형 매장주체부가 등장하지만 여전히 할석형과 혼축형의 비중이 더 높다. 상석을 받치는 지석의 개수는 보다 증가하며 크기도 더욱 커지는데 이 같이 지석이 뚜렷한 지석묘일수록 묘역시설은 축소되어 있다. 3단계 또 다른 특징은 출토유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파형동검, 마제석검과 석촉 등 무기류 부장이 주를 이루는 1~2단계와 달리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석착 등 농공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상 3단계 유구유물상의 변화의 주요 원인은 송국리문화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이 시기 지석묘 매장주체부에서 보이는 판석형 석관과 이단토광의 구조는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선택적 수용(김승옥 2001)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른 시기 선형으로 분포되었던 무덤열은 점차적으로 3~7 정도의 무덤군이 환상으로 배치되기 시작한다. 한편 4단계로 향할수록 위석형 구조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는 묘역시설의 간략화와 지석의 뚜렷화라는 이원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 거창 산포, 합천 저포리 지석묘군 등 강-남강유역에서 다수 발견되는 유사석곽형 지석묘(하인수 1992)는 지상식으로 장방형 매장주체부를 이룬다. 그런데 유사석곽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실제 적석 묘역시설의 중앙부에 매장 공간을 마련한 구조이다. 따라서 묘역시설의 적석부가 낮아질수록 매장주체부 또한 얕아지며 묘역부가 간략화되면서 매장주체부는 평면 타원형의 연접된 위석식으로 변화하며 최종적으로 분리된 위석식 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표 6. 보성강 일대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1	곡성 연화리	4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판석형 석관 할석/혼축 석관묘, 옹관묘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곡옥
2	곡성 현정리	13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기반식	구순각목공열, 유경석검, 석촉, 석도, 석겸
3	곡성 유정리 유평	9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묘역)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착, 석부
4	곡성 공북리 구룡3	13(2)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일단병검, 석촉, 석부, 검파두식
5	곡성 공북리 구룡2	15(3)	충적대지		
6	곡성 공북리 구룡1	7(1)	충적대지		
7	곡성 연반리 전기	2	산기슭	포석형 묘역, 구획석 기반식	무문토기, 뚜껑, 석도, 석부
8	곡성 연반리 다	4(3)	충적대지	위석형, 기반식	·
9	곡성 연반리 가	4(3)	산기슭		석부
10	순천 대치리	12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착
11	순천 요곡리 오원 다	1	산기슭	구획석 지하 할석형 석관 위석식, 기반식	·
12	순천 요곡리 오원 나	5	산기슭		·
13	순천 요곡리 오원 가	7(9)	산기슭		심발형토기, 석부
14	순천 비룡리 나	5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
15	순천 비룡리 가	1	충적대지		·
16	순천 광천리 원동	6(2)	충적대지	지하 할석형 석관	·
17	순천 대광리 신기	19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묘역), 기반식(묘역)	적색마연토기, 석촉, 유구석부
18	순천 오봉리 아	15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묘역)	적색마연토기,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도, 석착, 관옥
19	순천 오봉리 라	34(15)	충적대지		
20	순천 오봉리 다	14	산기슭		
21	순천 신평리 금평	12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일단병검, 석촉, 석도
22	순천 대곡리 한실	3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석촉
23	순천 덕산리 죽산	8	산기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석촉
24	순천 우산리 곡천	16(14)	산기슭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일단병검, 석촉
25	순천 대곡리(대한)	30(4)	구릉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유경석검, 석촉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26	순천 대곡리 도롱	15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석촉, 석도
27	순천 우산리 내우	70(58)	구릉 대지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위석형, 판석 석관묘	비파형동검,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유구석부, 석도
28	순천 우산리	42(40)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묘역), 기반식(묘역)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도, 석착
29	순천 월산리 반월	10	구릉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
30	순천 월산리 사비	13	구릉 대지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일단병검, 석촉, 석도, 방추차
31	보성 덕치리 신기	26(15)	구릉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비파형동검,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유구석부, 석착, 석도
32	보성 죽산리 하죽 다	40(31)	충적 대지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향 석관 위석형, 기반식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유구석부, 석착, 석도, 방추차
33	보성 죽산리 하죽 나	15	충적 대지		
34	보성 죽산리 하죽 가	11	충적 대지		
35	화순 창랑리 창랑	14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36	화순 장학리 장항	3	충적 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혼축형 석관	적색마연토기, 채문토기, 석검, 어망추
37	화순 월산리 월평	16(2)	산기슭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석도, 석착
38	화순 독상리 독상	3(2)	충적 대지	·	·
39	화순 절산리 장선	9	충적 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석촉, 관옥
40	화순 사수리 대전	27(16)	구릉 사면	지하 할석형/혼축형 석관 위석형	일단병검, 석촉, 석도
41	화순 복교리 복교	13(8)	충적대지	포석형 묘역 구획석 지하 할석형 석관 위석형	석촉, 석부, 어망추
42	보성 봉갑리 고수월	14	구릉 사면	지하 할석형/혼축형 석관 위석형	석촉, 석도
43	보성 시천리 살치 나	17(16)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일단병검, 석촉, 유구석부, 어망추
44	보성 시천리 살치 가	23(14)	평지		
45	보성 거석리 구주	4	산기슭	·	·
46	보성 용정리 활천	15	구릉 정상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할석 석관묘, 위석형(기반식)	관옥
47	보성 도안리 안적	33(3)	구릉 사면	할석 석관묘	석도

Ⅲ. 탐진강 일대 유적 분포와 특징

탐진강은 전라남도 3대강의 하나로 유역면적 862.5㎢, 총연장 56km에 이른다. 영암군 금정면과 장흥군 유치면의 경계에 위치한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장흥, 강진을 지나 남해 도암만으로 흘러든다. 유치천, 옴천천, 부산천과 금강천, 강진천 등 크고 작은 지류들은 유치면, 장흥읍, 강진읍을 지나면서 합류한다. 유역에는 용반평야, 부산평야, 장흥평야, 강진평야를 형성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 취락과 무덤은 충적대지와 낮은 구릉 일대에 분포한다. 지류를 기준으로 상류역의 유치천~옴천천 일대, 중하류역의 평화천과 금강천~도암만 일대로 구분하여 세부 지역별 유적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류역

유치천 일대 구릉 말단부의 평탄부와 충적대지에서는 많은 수의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신풍과 갈두 유적은 탐진강 일대 가장 큰 취락에 해당한다(표 7). 양자는 약 3㎞ 정도 떨어져 있는데 두 유적 사이와 주변의 곡간평지에는 다수의 지석묘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두 유적 모두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주거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지점 내 생활영역과의 공간을 구분하여 무덤영역을 조성한 중기 이후 취락 구조의 정형성이 살펴진다. 그런데 양자는 주거 형식과 주거지의 배치형태, 토기 기형과 정면 기법에 있어서의 비율적 차이가 관찰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편차는 두 유적 간 시간적 선후관계, 시기별 존속기간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갈두 취락은 동쪽부터 서쪽 방향으로 갈두 가지구, 갈두 지석묘 가군, 갈두 나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충적대지상에 위치한 갈두 가지구와 나지구의 주거지는 열을 지어 배치하는 반면 중앙의 갈두 지석묘 가군 동편의 주거지는 구릉 말단부에서 2~3기씩 군집하는 분포양상을 보인다.



그림 2. 갈두유적의 유구분포도

가지구에서는 16기가 조사되었다. 3기만이 송국리식 원형주거지이며 나머지는 모두 (말각)방형계이다. 주거지에서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석촉과 석부를 비롯하여 석재, 선형석기, 격지 등 석기제작관련 유물이 출토품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량 출토되는 토기의 대부분은 축약된 굽이 형성된 무문토기의 저부이며 직립구연 호형토기, 내만구연 심발의 파편이 일부 확인된다. 나지구에서는 19기가 조사되었는데 4호를 제외하면 모든 주거지가 휴암리식 방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의 형식과 배치패턴, 토기 형태와 석기 구성에 있어 가지구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두 지점의 (말각)방형계 주거군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조성된 동시기 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송국리식 원형주거지와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지석묘 가군의 동편 구릉 사면과 말단부에서는 10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전술하였듯 가·나지구의 주거지 배치와 달리 2~3기가 군집되어 있으며 기형을 알 수 있는 토기편이 상당수 출토되어 주목을 끈다. 후대 삼국시대 주거지 및 고분들과 중복된 탓에 주거지의 유실이 심한 편이나 방형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갈두 유적 전체적인 주거 양상과 대차 없다. 그런데 출토 토기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감지된다. 구연이 강하게 외반구연 호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내만구연발 등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의 저부는 축약된 굽 없이 평저 형태이며 동체 외면에는 빗질 정면 흔적을 관찰된다. 후술한 신풍유적의 유구유물 양상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지겠지만 이러한 측면은 갈두 취락의 시간성과 결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1기의 주거지가 조사된 신풍유적은 갈두 취락과 달리 송국리식 원형 비율이 높은데 휴암리식 21기, 송국리식 30기가 확인된다. 취락은 구릉 사면부와 평탄지에 입지하는데 갈두 지석묘 가군 취락과 유사하다.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주거지는 유구배치나 출토유물에 있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감지된다. 휴암리식은 2~5기의 주거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등고선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열을 지어 배치되는 반면, 송국리식은 4~7기가 반원형 또는 타원형을 그리면서 군집을 이룬다.

양자의 토기상도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데 전자에서는 주로 석기제작관련 유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소량의 토기편의 경우 대부분 축약된 굽이 형성된 심발과 직립구연의 호형토기만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후자에서는 (말각)평저에 짧게 외반한 호형토기와 내경도가 강한 심발이 발견되는데 토기 외면에는 대부분 빗질 정면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이상 두 유적의 입지와 주거지 배치패턴, 출토유물 양상을 종합하여 갈두와 신풍 취락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종합해보자. 우선 갈두 나·가 지구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갈두 Ⅰ기)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구릉지역으로 확대(갈두 Ⅱ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풍 취락은 갈두 지석묘 가군 동편의 취락과 대체로 병행하거나 약간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갈두 Ⅱ기즈음 신풍 유적에서도 휴암리식 주거지가 조성(신풍 Ⅰ기)되며 얼마지 않아 송국리식 원형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취락으로 변모(신풍 Ⅱ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탐진강 상류역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주거(시기)	토기	탄소연대(bp)
1	장흥 신풍	51	구릉 사면~평지	휴암/송국(중기)	직립/외반구연호, 직립/내만구연발	1호: 2520±60, 2520±60 2호: 2450±80 3호: 2560±40, 2570±80, 2680±80 14호:2410±40, 2420±40, 2470±40 21호: 2490±60, 24호: 2460±60 27호: 2530±40 40호: 2560±80
2	장흥 갈두 가	16	충적대지	휴암/송국/ 장방(중기)	직립/외반구연호, 직립/내만구연발, 점토대토기	5호: 2280±40 8호: 2520±40
	장흥 갈두 나	19	충적대지			
	장흥 갈두 지석묘 가	10	구릉 사면~평지			
3	장흥 상방촌B	1	충적대지	휴암(중기)	내만구연발	

탐진강유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석묘가 분포하는 지역은 상류 일대인데 탐진댐 수몰지구 발굴조사로 인해 260여기의 지석묘가 조사 되었다(표 8). 섬진강-보성강유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석묘군은 충적대지와 곡간평지, 구릉 사면에서 열을 지어 분포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신풍리와 송정리 일대에서는 무려 180기가 넘는 무덤이 발굴되어 무덤 입지와 분포, 구조적 변천상을 살필 수 있으며 주변에 인접한 주거군과의 비교를 통해 시기적 병행관계나 편년적 위치를 파악하기에도 용이하다. 묘역시설과 지석, 매장주체부를 비롯한 무덤 구조와 부장유물, 무덤의 배치 패턴을 종합하여 볼 때 크게 3단계에 걸친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1단계의 지석묘는 갈두와 신풍유적에서 일부 발견되는데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구조이다. 그런데 보성강유역의 1단계 지석묘에 비해 묘역의 규모가 작고 적석된 석재의 양도 적은 편이다. 이는 매장주체부 주위로 넓게 묘역부를 시설하는 형태가 아닌 석관의 벽석과 토광 사이의 공간을 할석을 이용하여 석축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토광이 클수록 묘역시설도 넓게 나타나며 평면형태 또한 토광과 석축의 형태에 따라 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

2단계 지석묘에서도 묘역시설이 확인되지만 대부분 작은 판석이나 할석을 평면 타원형으로 포석한 형태가 많으며 추가적으로 구획석을 시설한 사례도 발견된다. 지석은 더욱 커지며 개수도 많아져서 묘역시설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진다. 매장주체부는 지하 혼축형과 판석형 석관, 반지하 또는 지상 판석형 석관 등으로 다양한 구조적 변이를 보이며 송국리형 묘제의 특징인 이단 토광 구조와 다중 개석도 적잖게 확인된다.

1단계와 2단계의 지석묘는 열을 지어 선형 분포하지만 3단계에 들어서면 열의 외곽에 장축 방향을 달리하여 군집 배치된다. 3단계 무덤은 위석형 지석묘와 판석/할석 석관묘가 공존하는데 전자가 다수를 점한다. 포석형 묘역시설을 갖춘 석관묘도 확인된다. 위석형은 중소형 할석을 연접하여 둘러놓은 형식과 대형 석재 3~4개 정도를 분리하여 놓은 형태가 있는데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탐진강 상류역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1	장흥 신풍리 신풍	34	평지	적석형/포석형 묘역, 구획석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지상 판석형 석관 위석형, 판석 석관묘(묘역)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도, 석착, 어망추
2	장흥 송정리 가	31	구릉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지상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위석형(묘역), 할석 석관묘	유경석검, 석촉, 석부, 어망추
3	장흥 송정리 나	25	평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묘역), 기반식	석촉, 무문토기
4	장흥 송정리 갈두 가	61	구릉	포석형 묘역, 구획석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 기반식(묘역)	유경석검, 석촉, 석부, 관옥, 어망추, 방추차
5	장흥 송정리 갈두 나	8	구릉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판석 석관묘	석촉, 유구석부
6	장흥 송정리 갈두 다	25	평지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묘역), 기반식	외반구연호, 석촉, 유구석부, 어망추
7	장흥 용문리 공수평	1	평지	·	·
8	장흥 용문리 당산	4	구릉	·	·
9	장흥 단산리 외검	1	평지	지하 할석형 석관	·
10	장흥 오복리 오복동	23	평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할석 석관묘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부
11	장흥 대리 상방촌	5	평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석검, 석촉
12	장흥 대리 하방촌 가	1	구릉	기반식	·
13	장흥 대리 하방촌 나	9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할석 석관묘	·
14	장흥 대리 하방촌 다	10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할석 석관묘	곡옥
15	장흥 대리 하방촌 라	19	평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 기반식(묘역)	무문토기

2. 중하류역

중하류역에서는 전기의 주거지가 발견되는데 탐진강-남해안지역 전기 문화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유구유물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장흥 삼산리 화산유적에서는 모두 9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4기(전남문화재연구원 1·2·10호, 대한문화재연구원 1호)는 전기에 해당한다(표 9). 주거지는 구

릉 능선부와 사면부에 위치하는데 유실이 심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평면 세장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내부에는 토광형 노지와 벽구, 기둥구멍, 초석 등이 시설되었다. 전기 주거지 중 장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2호가 유일한데 최대 22.6m에 이른다. 나머지 3기 중 2기의 경우 11~14m 정도의 장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의 주거지는 대체로 대형 (세)장방형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이중구연공열단사선문, 공열문 등이 시문된 발형토기와 직립구연의 호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탄소연대 측정은 전1호·2호에서 검출된 시료 8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자 3개는 2690~2750 bp, 후자 5개는 2730~2960 bp의 범위를 보인다. 한편 도암만 일대 강진 호산 저습지유적에서도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보성강유역의 옥평리 주거지에서도 유사한 유구유물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탐진강-보성강-남해안 일대 전기 문화의 성격을 살필 수 있다.

상기 삼산리 화산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와 송국리식 (원형)주거지도 조사되었는데 출토유물이 영성하여 시간성 파악이 어렵다. 벽구가 설치된 장방형 주거지는 중기 이른 시기로 추정되며 소형의 방형주거지와 송국리식 주거지는 이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진 수양리유적에서는 1기의 휴암리식 방형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동최대경이 구연 가까이에서 형성된 직립/내만구연 심발과 직립구연 또는 약간 외반한 호형토기만이 출토되는바 중기 이른 시기로 편년할 수 있겠다.

표 9. 탐진강 중하류역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시기	토기	탄소연대
1	장흥 삼산리 화산(전남)	10	구릉 사면	세장방형	구순각목이중구연공열, 공열, 직립구연호	1호: 2750±50, 2690±40, 2750±40 2호: 2940±50, 2890±40, 2960±40, 2730±40, 2920±40
				장방형(중기)	외반구연호	3호: 2460±50 4호: 2490±40 7호: 2370±40
				송국(중기)		
	장흥 삼산리 화산(대한)	1	구릉 사면	세장방형(전기)	이중구연단사선	
2	강진 수양리	1	구릉 사면	휴암(휴암)	직립구연호, 내만구연발	

탐진강 중류~도암면 일대에서는 소수의 지석묘만이 발굴되었다(표 10). 지석묘는 상류지역과 달리 구릉지대 또는 산기슭에 입지한다. 지석묘와 석관묘의 구조적 측면과 출토유물에 기초하여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류지역의 2단계와 3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로 볼 수 있는 포석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 또는 혼축형 석관 구조는 강진 수양리 지석묘군에서만 일부 확인될 뿐 대부분의 무덤들은 3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늦은 단계의 위석식 지석묘나 판석 석관묘에서는 마연장경호와 두형토기도 출토되었는데 탐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무덤의 하한연대 및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0. 탐진강 중하류역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1	장흥 삼산리 화산	5(11)	구릉 사면	지하 할석/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 기반식	적색마연장경호, 유경식석검, 마제석촉
2	장흥 충렬리	12(5)	구릉	·	·
3	강진 수양리	20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묘역), 기반식(묘역)	두형토기, 마제석촉
4	강진 영복리	17(10)	산기슭	지하 할석형 석관 할석 석관묘 위석형	마제석촉, 유구석부, 석착, 어망추

Ⅳ. 섬진강-탐진강유역 취락과 무덤의 전개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문화는 다른 권역에 비해 전기 유적의 분포밀도가 극히 낮으며 중기의 경우 방형계 주거지의 비율이 원형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타원형구덩이가 없는 비송국리계 (장)방형 주거지가 많이 발견되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무덤의 경우 지석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른바 송국리형 묘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지석묘 상·하부구조의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며 송국리형 석관묘의 고유 특징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상 주거와 무덤에서 살펴지는 몇 가지 문화적 특징은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지역성과 시간적 전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취락과 무덤의 전개과정을 세부적으로 논하고, 주변지역인 금강 상류와 낙동강유역, 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중기 후엽의 취락 및 무덤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적 특징을 좀 더 부각하고자 한다.

1. 주변 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

B형계 휴암리-송국리식 주거 형식의 밀도, 장방형 주거지의 시간성, (묘역식) 지석묘의 분포밀도를 감안한다면 섬진강유역은 금강 상류, 낙동강(황강-남강)유역과의 문화적 상사성을 살필 수 있다. 금강 상류의 경우 송국리식 원형주거지가 많이 발견되었지만, B형계의 비율이 높으며 무엇보다 (묘역식)지석묘가 다수 분포한다. 황강 일대의 경우 B형계의 휴암리식-송국리식 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가 공존하며, 남강유역에서도 장방형주거지가 발견되는데 특히 B형계의 휴암리식 방형주거지의 최밀집지이다. 더불어 양자 모두 (묘역식)지석묘의 분포밀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1) 낙동강유역

낙동강 일대 산청 사월리와 하촌리, 거창 대야리 등의 취락과 합천 저포리, 거창 산포 등의 지석묘군은 섬진강-보성강유역 취락과 무덤의 시간성과 지역적 전개과정을 살피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산청 사월리 취락은 주거지 중복관계와 출토토기 양상을 통해 총 3기로 설정할 수 있다. Ⅰ기는 전기 후반으로 평면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단사선, 공렬토기, 직립구연호, (경부가 긴)적색마연호 등이 출토된다. Ⅱ기는 중기 중엽으로 (장)방형계 주거지와 휴암리/송국리식 주거지(B형)가 혼재하는데 일부 공렬토기와 함께 내만구연발, 천발형토기가 확인된다. Ⅲ기인 중기 후반에는 (장)방형계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데 다양한 경부와 구연의 외반구연호가 많이 발견된다.

한편 거창 대야리 취락의 Ⅰ기는 송국리식 원형주거지(A, B형), Ⅱ기는 (장)방형계 주거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내만구연과 직립/외반구연호, 천발, 후자에서는 (짧은 구연의)외반구연호 일색인바 각각 사월리Ⅰ기와 사월리Ⅱ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청 하촌리 취락은 전기(Ⅰ기)와 중기(Ⅱ기·Ⅲ기)로 구분된다. Ⅰ기는 대형 장방형주거지로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채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직립구연호, 내만/직립구연발이 확인된다. Ⅱ기는 이른바 하촌리형 주거지(김병섭 2011)로 대표되는데 이중구연토기, 구순각목공열, 공열, 구순각목, 직립구연호, Ⅲ기는 B형의 휴암리/송국리식 주거지가 혼재되며 내만구연발, 외반구연호가 출토된다. 인접한 갈전리 취락은 하촌리식 주거지가 조성된 Ⅰ기와 B형 휴암리/송국리식 주거지 위주의 Ⅱ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하촌리 Ⅱ기, 후자는 하촌리 Ⅲ기와 동시기로 볼 수 있다.

합천 저포리의 강안 충적대지에 위치한 E지구 지석묘군에서는 8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는데 세 시기(저포리 Ⅰ·Ⅱ·Ⅲ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저포리 Ⅰ기에 속하는 8호는 장방형의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 구조로 남한지역에서 발견되는 가장 이른 형식의 지석묘이다. 적색마연토기를 비롯하여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석촉, 즐형석도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 후반으로 비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포리 Ⅱ기는 이른바 유사석곽형(하인수 1992)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3~5호와 묘역시설이 설치된 지하 판석형 석관 구조의 7호인데 이중 5호는 저분구형태의 적석 묘역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Ⅱ기 중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저포리 Ⅲ기는 지하 판석형 석관(다중개석)의 6호와 유사석곽의 1~2호인데 특히 후자는 (분리형)위석형-기반식으로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는 구조이다.

거창 산포 지석묘군 또한 충적대지에 입지하는데 하층에는 전술한 전기 역삼동식 주거지가 위치하며 상층에는 33기의 무덤이 동서방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한다. 남북 5열의 지석묘는 대부분 묘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매장주체부는 소수의 지하 할석형 석관, 지상 판석형 석관이 있으며 대부분은 유사석곽형 또는 위석형에 해당한다. 더불어 무덤열의 외곽에는 (무묘역의) 지하 석관 6기가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상 무덤의 구조 및 출토석검·석촉에 근거하여 총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포 Ⅰ기는 중기 전엽으로 묘역식의 지하 할석형 석관, Ⅱ기는 묘역식의 지상 석관과 유사석곽, Ⅲ기는 위석형과 석관묘로 중기 후엽으로 비정할 수 있겠다.

사월리 취락 구릉 정상에 위치한 무덤군은 사월리 Ⅱ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Ⅲ기까지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덤 구조(무묘역의 지하 할석형 석관과 판석형 석관)와 부장유물(석검·석촉과 적색마연토기)에 따라 사월리 Ⅰ기, Ⅱ기 무덤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중기 중엽, 후자는 중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거창 대야리 Ⅰ·Ⅱ기 무덤 또한 사월리 Ⅰ·Ⅱ기와 병행하는바 대야리와 사월리유적은 동시기 공존한 취락으로 볼 수 있겠다.

2) 금강 상류역

섬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문화는 금강 중하류(공주-부여-논산) 일대 전-중기 유적의 지역적 분포를 비교해 볼 때 많은 점을 시사한다. 먼저 이들 지역에서는 타 권역에 비해 전기 취락의 분포밀도가 현저히 낮으며 전기에 속하는 무덤도 찾아지지 않는다. 전기 취락의 경우라도 중기로의 연속적인 점유 없이 단절된 양상을 보인다. 즉 섬진강과 금강 중하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은 전기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과가 아닌 중기 이후 문화의 확산 및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기 이후 양 지역은 차별적 전개과정을 겪는다. 우선 주거지의 형식에 있어 커다란 편차가 발견되는데 송국리식 원형 주거지가 절대다수를 점하는 금강 중하류역과 달리 섬진강유역은 휴암리식 방형, 장방형주거지의 비율이 높으며 타원형 구덩이와 기둥구멍의 형식 또한 전자의 경우 A형계 위주이지만, 섬진강 일대에서는 A형계와 함께 B형계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무덤의 형식과 분포는 두 지역 간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고고 자료이다. 이른바 송국리형 묘제(김승옥 2001)인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토광묘는 부여-공주-논산 일대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부 형식이 발견된다(김승옥 2006, 황재훈 2021). 이에 반해 섬진강 일대에서는 묘역식지석묘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지석묘가 밀집분포 한다(김승옥 2007, 황재훈 2012). 물론 두 지역은 송국리식 주거 구조를 비롯한 송국리형 묘제, 지석묘, 토기와 석기 등 여러 문화요소를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 형식이나 밀도에 있어서는 뚜렷한 지역적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금강 중하류역과 달리 금강 상류 일대는 섬진강-보성강유역의 청동기문화와 많은 지점에서 공통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용담댐 수몰지구 발굴조사로 인해 진안 일대에서는 지석묘, 석관묘 등 총 160기 이상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김승옥(2004b, 2007)은 Ⅰ기에서 Ⅳ기에 이르는 무덤의 형식분류와 변천과정을 실시하였다. Ⅰ기의 지석묘는 저분구형의 장방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분포한다. 무덤 구조를 비롯하여 이단병식 석검과 삼각만입촉, 적색마연토기 등의 출토유물을 종합하여 볼 때 전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Ⅱ~Ⅲ기는 단독묘인 Ⅰ기와 달리 여러 무덤이 연접된 형태를 보이는데 장방형 또는 타원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나 지상의 할석형/혼축형/판석형 석관 구조를 보인다. Ⅳ기에는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가 동일묘역내 혼재하는데 묘역시설 및 매장주체부에 있어 구조적인 혼합 양상도 관찰된다. 지석묘의 묘역시설은 소형화되며 지상의 위석식이 새로이 확인된다. 지하식 석관의 경우 이단토광이나 다중개석이 설치되기도 한다.

섬진강-보성강유역에서는 아직까지 합천 저포리 8호나 진안 안자동(전북대) 1호, 안자동(전주박) 9호, 수좌동 1호, 풍암 14호·16호와 같은 전기 후반의 무덤이 찾아지지 않는데 이 원인은 이 일대 전기 취락의 낮은 분포밀도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기 전엽부터는 보성강 일대를 중심으로 지석묘군이 조영되기 시작하며 중엽 이후 섬진강 상류, 탐진강-남해안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 시기 또 하나의 문화적 파급을 살필수 있는데 금강유역으로부터의 송국리형 묘제의 영향이 그것이다. 이는 전술한 금강 상류역의 무덤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데 지석묘 매장주체부에는 이단토광이나 다중개석과 같은 송국리형 묘제의 요소 일부가 채용되며 일부 무덤군에는 송국리형 석관묘와 옹관묘가 동일 묘역에 조성되기도 한다. 중기 후엽에 이르면 오랜 기간 하부구조로서 기능했던 묘역

시설 대신 (대형의 구형)지석이 놓이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지상식·지하식)매장주체부가 공존한다.

3) 남해안지역

상기 무덤의 변화상은 전남 남해안지역 유적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데 특히 보성 송국리 지석묘군에서 그 전개과정을 잘 살필 수 있다. 지석묘 20기, 석관묘 5기 등 모두 25기의 무덤이 동일 구릉 사면에 혼재되어 분포한다. 묘역시설과 지석, 매장주체부 등 상·하부 구조와 부장유물을 기준으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송곡리 Ⅰ기는 묘역시설과 다수의 지석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 구조의 지석묘로 일부에서는 이단토광과 다중개석의 특징이 관찰된다. 송곡리 Ⅱ기는 주로 지하 매장주체부 없이 대형의 지석만이 놓인 위석형 또는 기반식 지석묘가 다수를 점하며 지석묘 사이에 축조된 5기의 석관묘도 이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특징으로 보아 송국리 Ⅰ기는 중기 중엽, Ⅱ기는 중기 후엽으로 편년 가능하다.

순천 가곡동 고지·원가곡 지석묘군에서는 4개군 25기가 조사되었다. 보성 송곡리 지석묘군의 무덤 구조 및 변천 양상과 비교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Ⅰ·Ⅱ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곡동 Ⅰ기는 묘역시설과 구형 지석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 위주로 일부 무덤의 매장주체부는 이단으로 굴광되어 조성되었으며 다중개석이 확인된다. 이 시기 일부 무덤에서 출토되는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는 남해안지역 전기 무문토기문양의 늦은 하한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가곡동 Ⅱ기는 위석형과 석관묘가 혼재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늦은 시기로 갈수록 괴석형의 상석 아래 대형의 구형 지석이 놓인 전형적인 기반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곡동 지석묘군 남서쪽에는 가곡동 취락이 위치하는데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주거지 27기가 조사되었다. 휴암리식 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 공렬토기와 직립구연발, 직립구연호형,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며, 송국리식 주거지에서는 빗질정면된 내만구연발과 외반구연호가 확인된다. 주거지 중복관계상 B형이 A형에 선행하며 토기기형과 문양, 정면 기법을 종합하여 볼 때 송국리식이 후행한다. 따라서 가곡동 취락 Ⅰ기는 휴암리식 주거지 단계로 가곡동 지석묘군 Ⅰ기, 송국리식 주거지가 조성되는 가곡동 취락 Ⅱ기는 가곡동 지석묘군 Ⅱ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 선평리 강청유적은 충적대지에 입지하는데 주거지 11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방형계로 대부분 휴암리식이며 내부시설이 없는 장방형주거지가 2기 확인된다. 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열문이 시문된 발형토기와 함께 경부가 긴 직립/외반구연의 호형토기가 출토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층위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장방형과 내부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된 주거지(C형), 후자는 휴암리식 주거지(B형)이 확인된다. 1단계에 속하는 8호 주거지에서 직립구연의 호형토기와 공렬토기가 출토되며 2890±40 BP의 탄소연대가 얻어지는바 중기 전엽이나 전-중기 전환 시점으로 판단된다.

광양 칠성리 유적은 충적대지에 위치하는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18기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휴암리식 주거지(B형) 8기, 방형계주거지 10기가 확인되는데 후자의 경우 북쪽 구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전자와의 시간적 격차를 짐작할 수 있다. 휴암리식 주거지(4-2호) 위로 방형계주거지(4-1호)가 조성된 사례가 확인되며 휴암리식 주거지에서는 공열문이 시문된 심발형토기, 직립 또는 내만구연의 심발형, 방형계에서는 외반구연호가 출토되는바 양자의 선후관계를 살필 수

있다. 광양 용강리 기두유적에서는 24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휴암리식 방형과 송국리식 원형으로 양분되며 타원형수혈과 기둥구멍에 따라 세부적으로 A형, B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지 간 중복관계을 통해 볼 때 원형주거지가 방형계에 선행하며(3-1호 → 3호, 20호 → 20-1호)한다. 특히 송국리식 원형(B형+4주식)인 20-1호 주거지 출토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짧게 외반된 호형토기와 뚜껑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후자는 주로 영산강유역 송국리식 원형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기종이다(황재훈 2009, 2017). 완형토기나 무문토기 저부와 구분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뚜껑의 경우 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며 강한 손누름으로 인해 외저면 가장자리가 돌출되어 있어 마치 자기의 굽을 연상케 한다. 영산강유역에서는 늦은 시기에 새로운 기종으로 등장하며, 점토대토기관련 유물과도 공반되고 있는바 기두유적 또한 늦은 시기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상 낙동강유역과 금강 상류, 남해안지역 일대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중기 후엽의 취락과 무덤군의 시기 및 세부편년, 주거형식과 토기 양상, 무덤 구조를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전기의 역삼동식 주거지는 중기 전엽 하촌리식과 장방형계로 이어지며, 뒤이어 휴암리식 주거가 유행한다. 중기 중엽 송국리식 주거가 새로이 등장하여 휴암리식과 공존하다, 중기 후엽 휴암리식은 소멸되며 송국리식과 (장)방형계 주거지 일색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더불어 지석묘 구조의 점진적인 변이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후반 저분구형의 적석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구조는 중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묘역시설의 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매장주체부의 축조재료와 방식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는데 특히 중기 중엽 송국리형 묘제의 확산은 지석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기 후엽으로 갈수록 묘역시설은 대부분 소멸되며 매장주체부의 구조 또한 간소화되면서 위석형 또는 기반식 지석묘가 다수를 점하게 된다.

표 11. 주변지역 주요 취락과 무덤군의 편년

시기	세부	입지	취락			무덤	
			유적	주거지	토기	유적	구조
전기	후반	구릉 평지	산청 사월리Ⅰ 산청 하촌리Ⅰ 거창 산포Ⅰ	역삼동식	이중구연, 구순각목, 공열, 직립구연호	진안 안자동Ⅰ 진안 풍암Ⅰ 합천 저포리Ⅰ	(적석)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중기	전엽	평지	산청 하촌리Ⅱ 산청 갈전리Ⅰ 순천 강청Ⅰ	하촌리식 장방형 휴암리식	이중구연, 구순각목, 공열, 직립구연호	진안 안자동Ⅱ 진안 여의곡Ⅰ 합천 저포리Ⅱ 거창 산포Ⅰ	(적석)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중엽	평지 구릉	산청 사월리Ⅱ 산청 하촌리Ⅲ 거창 대야리Ⅰ 순천 강청Ⅱ 광양 칠성리Ⅰ 광양 용강리Ⅰ	휴암리식 송국리식	공열, 구순각목, 직립구연호, 내만구연발	진안 여의곡Ⅱ 합천 저포리Ⅲ 산청 사월리Ⅰ 거창 산포Ⅱ 거창 대야Ⅰ 보성 송국리Ⅰ	(포석)묘역 지하 판석형 석관 (무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송국리형 묘제
	후엽	평지 구릉	산청 사월리Ⅲ 거창 대야리Ⅱ 순천 가곡동Ⅱ 광양 칠성리Ⅱ 광양 용강리Ⅱ	송국리식 (장)방형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뚜껑	산청 사월리Ⅱ 거창 산포Ⅲ 거창 대야Ⅱ 보성 송국리Ⅱ 순천 가곡동Ⅱ	(무묘역) 석관, 토광 위석식, 기반식 송국리형 묘제

2. 섬진강-탐진강유역 취락과 무덤의 전개

미사리유형에 해당하는 순창 원촌 유적은 주거 구조를 비롯하여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섬진강 일대 가장 이른 시기로 비정된다. 다음으로 역삼/흔암리유형 유적들은 섬진강 중류와 보성강과 탐진강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는데 유적유구 모두 극소수에 불과하며 문화내용 또한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사리유형과의 시간적 격차나 섬진강-탐진강 일대 전기 유적 간 선후관계나 확산양상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금강 상류 일대 전기 후반부터 축조되기 시작하는 묘역식 지석묘의 시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섬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겠다.

취락의 입지와 주거지 출토 석기를 통해 볼 때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의 생계경제는 농경과 수렵·채집, 어로 등이 복합된 체계를 보인다. 취락에서는 1~3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으로 대형주거지는 세대공동체의 성원이 공동거주하는 주거방식(김승옥 2006)을 영위하였음을 보여준다.

중기에 접어들면 석도를 비롯한 목재가공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생계경제에 있어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변화상을 반영한다. 취락의 입지 변화, 주거 수의 증가, 생활영역(저장공간, 생산공간)과 매장영역의 구분, 주거 배치의 패턴화와 같은 취락 경관의 변화 또한 이를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가 된다. 취락내 주거지는 대부분 중소형화되는데 이는 세대공동체의 성원이 독립거주하는 주거 방식(김승옥 2006)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섬진강-탐진강 일대 무덤군은 입지를 비롯하여 군집 내 공간배치, 밀도와 수량에 있어서 시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개별 무덤의 묘역시설, 지석, 매장주체부 축조방식, 부장유물에서도 상호 유기적 변이를 살필 수 있다. 섬진강 일대에서 아직까지 전기 후반으로 비정할 수 있는 무덤(군)이 발견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석묘군 중기 이후부터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덤군의 특징과 개별 무덤 구조, 출토유물의 시간성을 종합하여 크게 3단계에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취락의 편년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바 중기 전엽, 중엽, 후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섬진강-탐진강 일대 취락과 무덤군의 시기별 취락과 무덤군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표 12>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전기는 전반의 미사리단계와 후반의 역삼동단계로 양분할 수 있는데 상한은 기원전 13세기, 하한은 기원전 9세기 정도로 볼 수 있다. 전기에 해당하는 취락은 섬진강 본류와 보성강, 탐진강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에 해당하는 지석묘군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기는 남한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9~8세기를 상한으로 한다. 장방형계 주거지와 휴암리식 주거지가 공존하며 전기에 이어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등이 시문된 발형토기와 직립구연호로 구성된 토기 양상을 보인다. 무덤으로는 적석형 묘역시설의 지하 할석형 석관 구조의 지석묘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중기 중엽에는 송국리식 주거 형식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휴암리식과 공존한다. 발형토기의 구연부 문양은 대부분 소멸하지만 공열문이 일부 잔존하는 가운데 발과 호 모두 기형의 변화를 겪는다. 무덤의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지석묘의 묘역시설은 점차 축소되는 대신 지석은 보다 뚜렷해진다. 또한 송국리형 묘제의 영향에 의해 굴광 방식과 매장주체부 축조 재료와 기법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기 후엽에 들

어 다시 (장)방형계 주거 양식이 등장하며 외반구연호와 내만구연발, 뚜껑 등으로 구성된 토기 양상을 보인다. 지석묘의 묘역시설은 대부분 소멸되어 판석/할석형 또는 토광형의 매장주체부 구조가 많이 보이며, 더불어 송국리형 묘제와 함께 기반식 지석묘가 널리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섬진강-탐진강 일대 취락과 무덤군의 편년

시기	세부	입지	취락			무덤	
			유적	주거지	토기	유적	구조
전기	13 B.C. 전반	평지	순창 원촌	미사리	돌대문		
	11 B.C. 후반	구릉	남원 고죽동 보성 옥평리 장흥 삼산리	역삼동	이중구연, 구순각목, 공열, 직립구연호	·	(적석)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중기	8 B.C. 전엽	평지	순창 백산리 I 순천 죽내리	장방형 휴암리	이중구연, 구순각목, 공열, 직립구연호	보성 덕치리 I 보성 죽산리 I	(적석)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5 B.C. 중엽	평지 구릉	임실 해평 I 곡성 오지리 순천 대곡리 I 장흥 갈두 I	휴암리 송국리	공열, 직립구연호, 내만구연발	순창 무수리 I 보성 덕치리Ⅱ 보성 죽산리Ⅱ 장흥 갈두 I	(포석)묘역 지하 판석형 석관 (무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송국리형 묘제
	3 B.C. 후엽 2 B.C.	평지 구릉	임실 외량2 임실 해평Ⅱ 순천 대곡리Ⅱ 장흥 신풍	송국리 (장)방형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뚜껑	임실 외량2 임실 운정리 장흥 갈두Ⅱ 장흥 신풍	(무묘역) 판석/할석형 석관, 토광 위석식, 기반식 송국리형묘제

Ⅴ. 맺음말

지금까지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유적의 현황과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전-중기, 중기 이후로 구분하여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타 지역과 달리 전-중기 유적 간 계기적이고 연속적인 발전과정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 일례를 제외하면 전기와 중기 취락 간 시공적 중복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무덤군 또한 그러한데 주변지역인 금강이나 낙동강유역 지석묘군의 경우, 전기 후반 이래 중기 전엽 또는 중~후엽까지 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영된다. 그러나 섬진강~보성강, 탐진강유역 일대 지석묘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전기에 조성된 무덤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든 무덤들은 중기 전엽 이후 축조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문화는 소수 전기 미사리, 역삼/흔암리유형유적의 산발적인 분포후 시공적 단절을 보이다가 중기 역삼동유형과 휴암리 물질문화의 결합된 형태로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둘째, 중기 이후 방형, 장방형, 휴암리식, 송국리식 주거지와 같은 주거 구조, 직립구연/외반구연

호, 직립구연/내만구연 발, 구순각목공렬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 등의 토기 양상이 나타나며 세부 토기 기형과 정면 방식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관찰된다. 이 같은 물질문화의 다양성은 시간적 변이와 지역적 변이가 결합된 결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취락 유적에서는 휴암리와 송국리식 주거지 간 선후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방형계 주거지의 경우 중기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되는바 시간적 위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세부 지역별, 유적별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비롯하여 출토 토기의 문양과 기형, 정면기법을 종합한 편년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아울러 중기 지석묘군에서도 다양한 무덤 형식, 배치패턴, 유물 양상이 확인되는데 크게 두 차례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특히 중기 중엽 지석묘에서 감지되는 구조적 변이(판석형 석관, 이단토광, 다중개석 등)와 농·공구의 부장, 군집단위의 변화는 금강유역 송국리문화의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상술한 물질문화 특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동기시대 섬진강-탐진강 유역은 여러 지역적 문화 특질이 서로 맞물린 문화적 혼합지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특히 중기에 들어 이 같은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역삼동유형, 휴암리 물질문화, 송국리유형, 점토대토기문화 등 여러 문화요소가 혼재된 점이지대적 성격을 보인다. 금강 상류와 낙동강유역으로부터 지석묘 문화가 유입되며, 다시 전북 서부 및 영산강유역, 남해안지역으로 전파된다. 또한 하촌리형이나 휴암리 B식, 구순각목토기, 공렬토기 등의 문화요소는 낙동강유역으로부터 유입되며, 이후 금강과 영산강유역으로부터 송국리식 원형 주거문화를 비롯하여 토기 제작 기술, 매장주체부 축조 기법 등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문화적 현상은 백두대간과 호남정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섬진강 일대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폐쇄성이 강하다는 그간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있는 고고학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규정, 2019,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일고찰, 호남고고학보62
김병섭, 2011, 남강유역 하촌리형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경남연구4
김승옥, 2001,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45
김승옥, 2004a,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51
김승옥, 2004b, 용담댐 무문토기시대 문화의 사회조직과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19
김승옥, 2006,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24
김승옥,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박덕재, 2012, 보성강유역 지석묘문화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재호, 1992, 송국리유형의 검토, 영남고고학11
이근욱, 1993, 보성강유역 집자리의 성격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14
이동희, 2002,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와 발전단계, 호남고고학보15
이영문, 199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연구의 성과와 과제, 호남고고학보9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이종철, 2015, 섬진강 본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특징, 선사와 고대46
조진선, 2004, 전남지역 지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변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43
조진선, 2008, 탐진강유역 지석묘의 형식과 변천, 호남고고학보30
하인수, 1992, 영남지방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 가야고고학논총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황재훈, 2006, 전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53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서고고학20
황재훈, 2010, 호서-호남지역 송국리식 토기의 시·공간성, 한국고고학보77
황재훈, 2012, 섬진강유역 지석묘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75
황재훈, 2017, 영산강유역 송국리식 토기의 특징과 변천, 호남고고학보56
황재훈, 2021,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과 전개, 호서고고학48

09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김 진 환
해원문화재연구원

Ⅰ. 머리말
Ⅱ. 섬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Ⅲ. 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Ⅳ. 맺음말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김 진 환 (해원문화재연구원)

Ⅰ. 머리말

호남지역의 수계는 호남지역만을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수계가 있으면, 충청권과 경상권이 포함되는 금강, 섬진강, 낙동강수계가 있다. 이외 서해와 남해로 유입하는 전라남해권 수계와 서해권 수계의 하천이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0: 19).

본 발표는 섬진강유역과 탐진강유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을 파악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유역별 주거의 특징과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청동기시대 조기~후기까지이다[1]. 공간적 범위는 수계를 기준으로 섬진강유역과 탐진강유역을 대상으로 한다. 섬진강은 상류인 진안에서 하류인 광양만까지의 범위를 포함하며, 지역적으로는 전북 순창·임실·남원과 전남 곡성과 구례, 광양을 포함한다[2]. 탐진강유역은 전남 장흥과 강진 일대로 부산천, 옴천천, 유치천, 금강천을 비롯한 지류를 포함한다.

Ⅱ. 섬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과 장수군 장수읍의 경계인 팔공산(八公山, 1,151m)에서 발원하여 전라남·북도의 동쪽 지리산 기슭을 지나 남해의 광양만(光陽灣)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강은 진안군 발원하여 백운면과 마령면 등에 충적지(沖積地)를 발달시키며, 성수면에서 구불구불하게 흘러 임실군 운암면에서 갈담저수지로 흘러든다. 순창군 적성면에서 오수천(獒樹川), 남원시 금지면과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의 경계에서 요천(蓼川), 곡성군 오곡면 압록(鴨綠)에서 보성강(寶城江)과 합류하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서부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경계를 이루며 광양시 골약면의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섬진강유역의 권역별 경사분석결과 20~60%에 해당하는 면적은 유역 면적의 56.6%를 차지할 만큼 대체적으로 경사가 급하다. 평균 경사는 32.57%이다[3].

---

1)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의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규정(2016)의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보성강유역과 남해안의 순천, 광양은 본고에서 제외하였으며, 호남정맥을 기준으로 구 승주군일대는 섬진강수계에 포함하였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섬진강유역은 넓게 보면 보성강유역을 포함한 광양만 주위의 순천, 광양, 여수, 하동 등 광범위한 권역으로 볼 수 있지만, 금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섬진강의 본류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적 현황 및 분포

섬진강유역에서는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16개 유적 126기이며, 조기~중기 주거지는 확인되고 있지만, 후기 주거지는 조사된 바 없다.

1) 조·전기 유적

현재까지 조사된 조·전기 유적은 5개 유적(9기)으로 다른 유역권에 비해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다.

표 1.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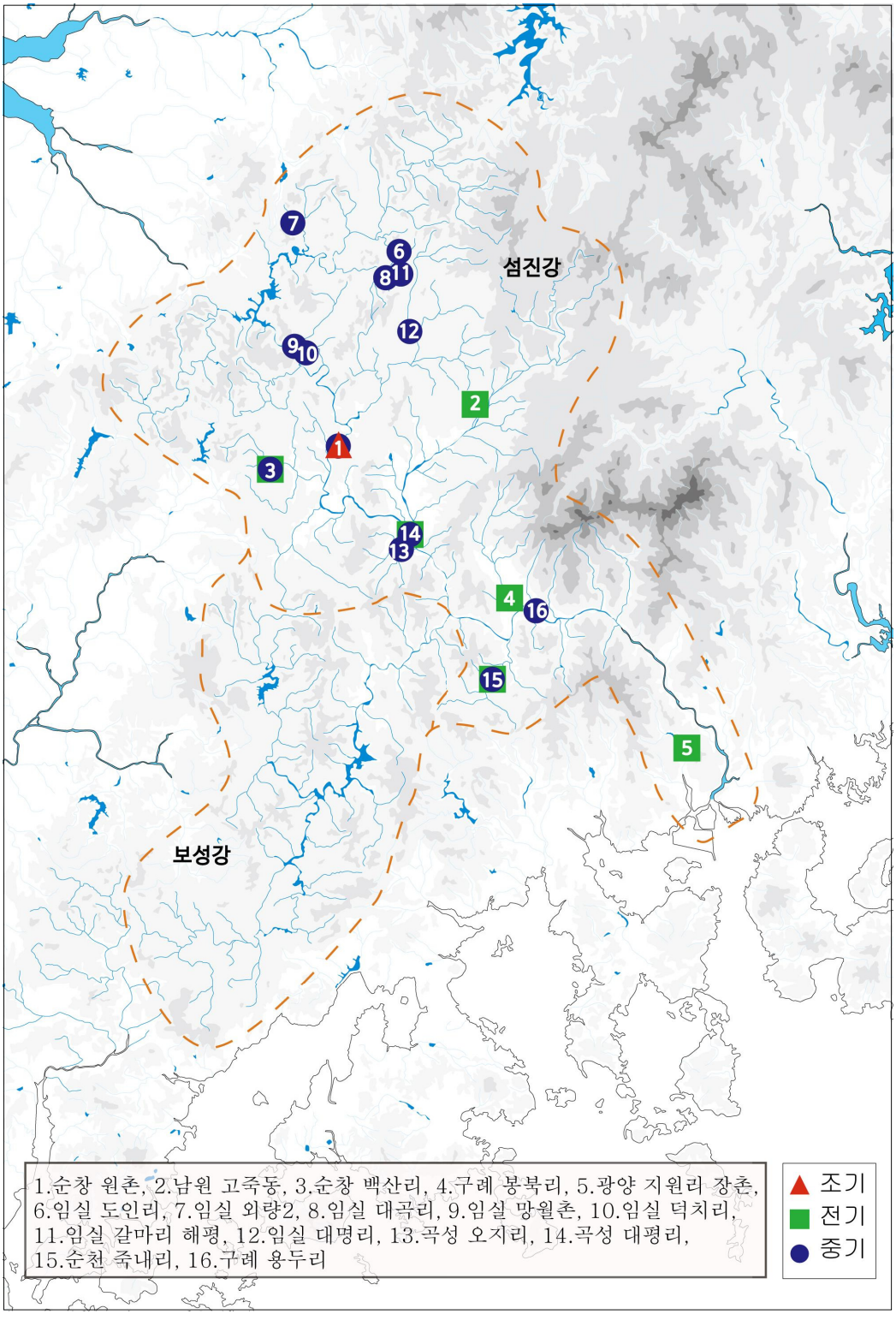
시기	분포	유적명	내용		공반유구	성격	입지
				미상			
조기	중류역	순창 원촌	1		신석기시대 수혈 적석노지	미사리유형 (석상위석식노지)	충적지
전기	중류역	남원 고죽동	2	1		역삼동 흔암리	구릉
		순창 백산리	1		수혈 18기, 구2기	역삼동 흔암리	충적지
		구례 봉북리	2	1	야외노지, 집석유구, 지석묘	역삼동 흔암리	충적지
	하류역	광양 지원리 장촌	3		지석묘, 수혈	역삼동 흔암리	구릉

조기의 주거유적은 중류역에 순창 원촌 유적뿐이다. 순창 원촌 유적에서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방형주거지와 Ⅰa식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런 전형적인 미사리식주거지는 호남지역에서 최초의 예이다(김규정 2013).

전기의 주거유적은 중류역에서 남원 고죽동, 순창 백산리, 구례 봉북리 유적 그리고 하류역에서 광양 지원리 장촌 유적이 조사되었다.

남원 고죽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1호 세장방형, 2호 장방형이며, 내부시설은 주혈이 확인되었다. 보고자에 의하면 불에 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무시설식노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토기의 경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선공열구순각목, 공열구순각목, 단사선문, 공열문, 구순각목문, 단사선구순각목문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기는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는 중앙에 화덕으로 보고된 타원형 구덩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물은 저부만 출토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2기의 주거지와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규정 2019).

순창 백산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6기, 수혈 18기, 구 2기가 조사되었다. 3호 주거지에서 구순각목토기편과 단사선문토기편이 출토되어 전기 주거지로 판단되며, 6호 주거지는 흔암리식 주거지이다.



도 1.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분포도

구례 봉북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 야외노지, 집석유구, 구, 수로,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전기로 판단하지만 주거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김규정(2013)과 홍밝음(2013)은 각각 봉북리 1호와 봉북리 1호, 2호, 3호를 전기 단계로 보았다. 그러나 이종철(2015)은 공열토기와 심발형토기의 전통은 영남지역과 연계되는 섬진강 유역권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전기로 보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절대연대를 적용하면 2호 주거지는 전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표자는 출토유물과 절대연대를 근거로 1호와 2호가 전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광양 지원리 장촌 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와 수혈 6기, 구상유구 1기,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3기는 모두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장방형과 방형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로 무시설식 노지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공렬문토기(1호, 2호)와 단사선문토기편(3호)이 출토되었다.

조·전기 주거유적은 중류역과 하류역에 분포하며 아직 상류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유적의 입지는 충적지와 구릉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그 수가 소략하여 전체적인 양상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2) 중기 유적현황

중기의 주거유적은 상류역에서 7개 유적, 중류역에서 6개 유적 총 13개 유적(115기)이 조사되었다.

중기 주거유적은 송국리문화단계로 전 유역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들 역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이종철 2015: 35).

표 2.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유적 현황(※전기유적과 동일함)

시기	분포	유적명	내용			공반유구	입지
			송국리	순수 방형계	미상		
중기	상류역	임실 도인리	7				구릉
		임실 외량2		20		수혈, 구, 석곽묘, 지석묘	구릉
		임실 대곡리	3		2	수혈, 소성유구	구릉
		임실 망월촌	4		1	구	구릉
		임실 덕치리	1				구릉
		임실 갈마리 해평	6	8			구릉
		임실 대명리	1		4		구릉
	중류역	순창 원촌※	1				충적지
		순창 백산리※	1	3	1		충적지
		곡성 오지리	20			수혈, 구	충적지
		곡성 대평리	18	9	2	수혈	충적지
		순천 죽내리	1		1		구릉
		구례 용두리	1				구릉

임실 도인리 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4] 7기가 구릉 정상부에서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발형토기와 호형토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저부편이다. 석기는 석검편, 석촉, 갈판, 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타원형수혈 주변에서 소결된 점토덩어리와 마연도구, 갈돌, 갈판 등 석기 제작에 사용되는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임실 외량2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0기, 수혈 10기, 구 2기, 석렬유구, 석관묘 3기, 지석묘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2개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서쪽은 주거지 12기, 수혈, 구상유구가 확인되며, 주거지는 반원형의 형태로 배치되어 주거지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수혈은 주거지의 하단부에 집중 조성되어 있다. 동쪽은 주거지 8기, 수혈 1기가 조사되었으며, 서쪽 군집과 유사하게 반원형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식주거지의 특징인 타원형수혈이 없는 순수 방형계이며, 14호 · 18호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발형토기와 호형토기가 대부분이며 적색마연토기와 소형토기도 출토되었다. 석기는 석촉, 석부, 석도, 방추차, 지석, 연석과 다량의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미완성석기와 석재는 석기 출토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60%가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석렬유구는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축조되었는데 내부에 분묘군, 외부에 생활유구가 분포하고 있어 분묘공간과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시설로 보고 있다.

임실 대곡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5기, 소성유구 1기,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송국리식주거지는 3기이며 유물은 구연부편, 저부편, 동체부편, 적색마연토기와 삼각형석도, 석부편, 지석,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임실 망월촌 유적에서는 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4기가 송국리식주거지이다. 유물은 발형토기와 호형토기, 석검, 석촉, 석착, 석부, 홈돌 등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의 경우 화재폐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량의 유물과 함께 단시설이 조사되었다. 단의 상면에서는 흑도와 완형에 가까운 유병식석검이 출토되었으며, 석검과 인접한 바닥면에서 석기의 제작흔적으로 추정되는 석재편들이 확인되었다.

임실 덕치리 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무문토기편과 석촉, 미완성석촉,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임실 갈마리 해평 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6기와 타원형수혈이 확인되지 않는 순수방형계 주거지 8기가 조사되었다. 각 주거지는 유적의 동서로 나누어 각각의 군집을 이루어 입지한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 대부분은 저부편이며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은 발형토기의 내만구연, 외반구연이다. 내만구연은 무문이 중심이지만, 10호에서 공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 천발이 6점 출토되는데 모두 순수 방형계 주거지에서만 출토된다. 석기류는 118점이 출토되었는데, 완제품 형태를 보이는 석촉 7점, 굴지구 1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0점은 석기 제작 관련 유물로 유적의 성격 역시 석기 제작과 관련된 취락으로 보고 있다.

임실 대명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5기가 조사되었으며, 송국리식주거지는 2기이다. 유물은 발형토기가 주를 이루며, 타원형구덩이와 주변에서 석기 제작과 관련된 다량의 석재와 박편이 출토되었다.

곡성 오지리 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20기와 수혈 4기, 수로 등이 조사되었다. 수로를 경계로

4) 송국리식주거지 각 형식은 주거지의 평면형태(방형Ⅰ식, 원형Ⅱ식)와 타원형구덩이, 중심주혈의 위치에 따라 A식, B식, C식, D식으로 구분된다(김규정 2013).

동쪽과 서쪽에 군집을 이루며 남-북방향의 열상배치를 보인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발형토기 이외에 대부분 저부편이며, 18호 주거지에서 공열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석기류에서 미완성석기와 석재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석기제작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평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29기, 수혈, 구, 소성유구, 주구묘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이고, 송국리형 주거지 18기, 노지가 있는 주거지 8기, 미상 2기이다. 주거지의 중복은 8호와 9호, 11호와 12호, 15호와 16호, 17호와 18호 주거지에서 확인된다. 노지가 설치된 15호와 17호를 각각 송국리식주거지인 16호와 18호가 파괴하고 축조하였고, 노지가 없는 9호를 송국리식주거지인 8호가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11호 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가 있는 12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공열토기, 발형토기, 어망추, 석검편, 석촉, 석착, 삼각형석도, 부리형석기, 연석, 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공열토기는 15호(노지)와 21호(송국리식)에서 출토되었으며, 19호 주거지의 경우 타원형구덩이와 주변에서 다량의 박편이 출토되어 석기제작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 죽내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어 송국리식주거지 1기만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 호형토기와, 석착, 홈돌 등이 있다.

구례 용두리 유적에서는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편과 석촉, 석착, 지석, 미상석기, 박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기구성상 석기제작 및 가공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섬진강유역은 상류역에 감입곡류 하천과 충적지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중류역인 곡성과 구례 일원에 가장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하류역으로 갈수록 충적지의 미발달과 협소한 곡간지형을 특징으로 한다(이종철 2015). 상류역의 중기 주거유적은 모두 임실군에서 확인되며, 7개 유적 모두 구릉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중류역의 중기 주거유적은 구릉과 충적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20기 이상의 중규모 취락은 충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주거지의 편년

1) 조·전기 편년

조기 주거는 미사리유형의 순창 원촌 1호 주거지가 유일하며 절대연대 자료가 없어 가락동유형(익산 영등동 Ⅰ-17호)보다 앞선 시기로 편년(양영주 2013: 315)하거나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유적들의 연대를 참고하여 기원전 15~14세기(홍밝음 2013: 329)로 여기기도 하였다. 2015년 전주 동산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절대연대와 비교하여 조기 하한을 2900BP로 편년(김규정 2016: 183)하였다.

호남지역 전기 편년은 김규정(2007, 2011, 2013, 2019), 양영주(2009, 2013), 홍밝음(2010, 2013), 김문국(2010), 정다운(2015), 천선행(2016)에 의해 실시되었다.

김규정은 호남지역 전기를 절대연대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가락동유형은 기원전 13~10세기, 역삼동·흔암리유형은 기원전 12~9세기로 편년하였다(김규정 2013: 31). 섬진강유역 전기는 절대연대로 보면 상한은 순창 동촌과 구례 봉북리에서 얻어진 2900BP로 볼 수 있으며, 하한은 순창 백산

리에서 얻어진 2700BP로 편년하였다. 이를 역연대로 환산하면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유적은 남원 고죽동 1호 주거지로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올려 볼 수 있으며, 고죽동 2호 주거지와 구례 봉북리는 기원전 9세기로 보고 있어(김규정 2016: 190) 섬진강유역의 조·전기는 기원전 12~9세기로 보았다(김규정 2019: 13).

양영주(2009, 2013)는 전북지역 전기를 전반-중반-후반으로 구분하였다. 중반은 역삼동·흔암리유형 I 기에 해당하며 세장방형주거지에 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유물은 이중구연의 요소에 단사선, 공열, 구순각목 등 복합문양이 시문되며, 순수 공열문만 시문된 토기도 출토되며, 남원 고죽동 1호 주거기가 이에 해당한다. 후반은 역삼동·흔암리유형II기에 해당하며 주거지 규모가 소형화·규격화되며 노지가 사라지고 유물은 순수 공열토기와 무문양토기, 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된다. 구례 봉북리 유적이 해당한다.

홍밝음(2010, 2013)은 가락동유형을 분석하여 호남지역 전기를 4기로 구분하였다. 흔암리유형이 청동기시대 전기 I 기부터 등장하지만 II기와 III기에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본격적으로 접촉이나 융화해 나가면서 III기에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 남해안지역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3기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11~10세기로 보았다.

정다운(2015: 78)은 전기 주거와 분묘의 토기유형과 토기문양으로 살펴본 단계설정, 그리고 유적의 절대연대를 조합하여, 호남지역의 전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섬진강유역의 남원 고죽동 1호를 III단계(기원전 10세기 전후)에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주거유형은 방형의 소형주거지와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가 확인되고 출토 토기의 문양요소는 이중구연 I +단사선a+공열문b, 공열문a가 해당한다.

천선행(2016: 89)은 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에 금강유역의 가락동유형이 만경강유역권으로 유입되고, 2단계부터 남강유역의 역삼동·흔암리유형이 서남해안권으로 유입되며, 두 지역을 주축으로 2·3단계부터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보았다. 서남해안권의 무문토기문화가 섬진강유역으로 유입된 대표적인 유적은 남원 고죽동 유적으로 문양구성, 주거의 평면형태와 구조 등이 유사성이 높다고 하였다.

섬진강유역 조·전기 편년에서 순창 원촌 유적에 대해서는 토기, 주거지 구조 등 조기로 편년함에 이견은 없으나 조기의 유일한 유적으로 비교 대상과 절대연대의 부재로 연구자간의 시각차가 있다.

전기 주거에 대해서는 섬진강유역권이 역삼동·흔암리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편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중기 편년

섬진강유역의 중기 편년은 이종철(2015), 김규정(2013, 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종철은 기원전 9세기 대의 잠정적 취락형성기, 기원전 8~6세기의 본격적 파급·정착기(발전기), 기원전 5~3세기의 정착·쇠퇴기로 상정하였다.

김규정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절대연대 자료를 통해 볼 때 대체로 2700BP~2300BP로 편년하였다(김규정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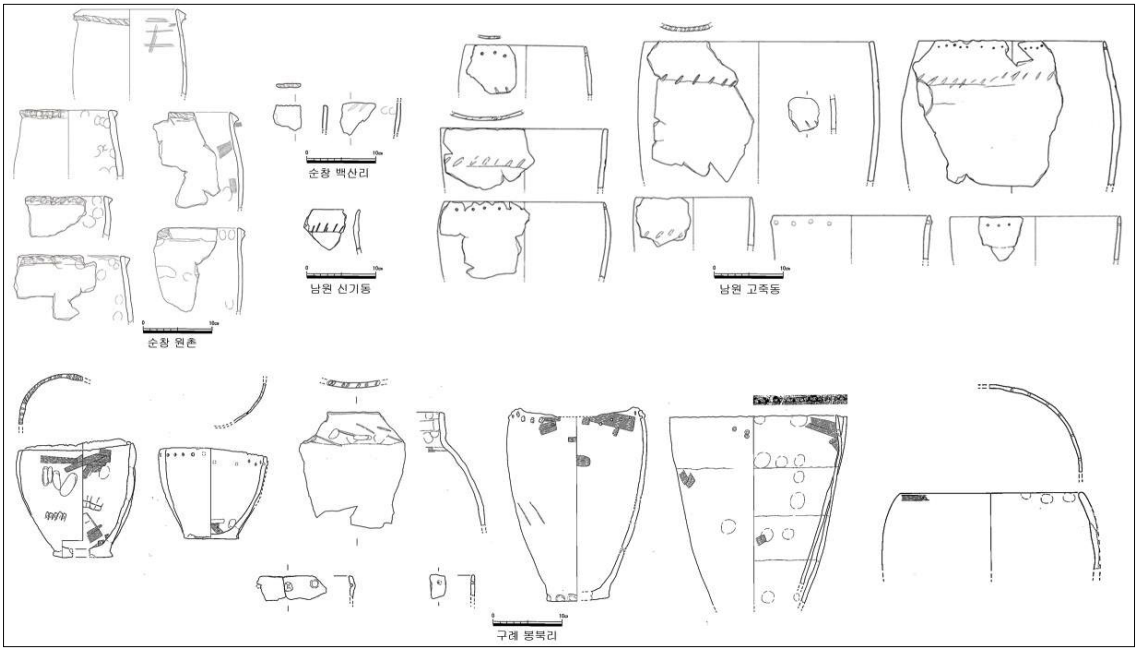
두 연구자 모두 절대연대를 근거로 편년하고 있으며, 최근 김규정의 편년 근거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다.

표 3.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유적 절대연대 자료(김규정 2019 인용)

유적	유구	유형	역연교정용(BP)	보정연대(BC)		비고
				1δ 역연대범위(68.2%)	2δ 역연대범위(95.4%)	
임실 망월촌	1주	ⅡA	2200±50	360~270(40.5%)	390~150(93.3%)	
	2주	ⅡA	2490±60	770~520	790~410	
			2510±60	700~540(50.1%)	800~480(88.6%)	
임실 도인리	2주	ⅡB	2600±50	830~750(60.5%)	850~730(66.5%)	
	6주	ⅡB	2580±50	820~750(46.2%)	840~530(95.4%)	
	7주	ⅡB	2570±50	810~740(39.8%)	830~530(95.4%)	
임실 외량2	3주	장방형	2500±40	650~540(42.2%)	800~480(95.4%)	
	10주	방형계	2410±30	520~400(68.2%)	550~400(81.3%)	
	11주	장방형	2470±40	760~510(68.2%)	770~430(95.4%)	
	13주	장방형	2550±30	850~750(51.5%)	810~740(54.9%)	
	14주	장방형	2490±40	700~540(54.6%)	790~430(95.4%)	
	16주	장방형	2520±30	650~550(37.7%)	800~540(95.4%)	
	20주	방형계	2430±30	550~410(61.5%)	590~400(69.2%)	
	3지	지석묘	2470±30	670~610(20.8%)	770~430(95.4%)	
	2지	지석묘	2450±30	560~430(35.0%)	670~410(68.7%)	
	1지	지석묘	2390±30	490~400(66.1%)	550~390(81.3%)	
임실 대명리	1주	ⅡC	2430±30	540~410(60.4%)	600~400(71.0%)	
			2500±30	650~540(47.8%)	790~510(95.4%)	
			2430±30	540~410(60.4%)	600~400(71.0%)	
			2510±30	650~550(45.0%)	790~530(95.4%)	
			2410±30	520~400(68.2%)	550~390(81.0%)	
	3주	원형	2410±30	520~400(68.2%)	550~390(81.0%)	
			2430±30	540~410(60.4%)	600~400(71.0%)	
			2440±30	550~410(50.0%)	600~400(64.5%)	
	4주	원형	2380±30	510~430(45.4%)	540~390(92.5%)	
			2460±30	600~500(28.6%)	670~410(68.8%)	
			2390±30	510~400(68.2%)	550~390(89.9%)	
	5주	ⅡA	2500±30	650~540(47.8%)	790~510(95.4%)	
			2430±30	540~410(60.4%)	600~400(71.0%)	
			2470±30	600~520(27.4%)	770~480(87.0%)	
			2480±30	670~530(46.9%)	770~530(90.9%)	
			2540±30	800~750(34.7%)	800~730(39.4%)	
			2440±30	550~410(50.0%)	600~400(64.5%)	
임실 갈마리 해평	6주	ⅡA	2490±30	650~540(45.9%)	790~510(95.4%)	
임실 대곡리	1주	?	2509±25	644~590(32.8%)	695~539(71.8%)	
	3주	ⅡC	2480±25	599~541(50.1%)	768~508(71.8%)	
	1소	소성	2489±25	651~545(49.4%)	774~511	
곡성 오지리	4	ⅠA	2670±60	895~795	980~760	
	6	ⅠA	2650±50	850~780(60.0%)	920~760	
	12	ⅠA	2640±60	700~540(52.0%)	800~480(91.2%)	
	14	ⅠB	2710±50	900~815	980~790	
곡성 대평리	3주	ⅠA	2370±40	510~390(68.2%)	550~380(87.4%)	
	11주	장방형	2410±40	540~400(67.01%)	600~390(75.02%)	
			2250±40	300~230(42.6%)	400~200(95.4%)	
	16주	ⅠA	2350±40	420~380(39.4%)	550~360(92.1%)	
			2500±40	700~540(54.6%)	790~490(92.2%)	
			2270±40	290~230(34.7%)	330~200(55.8%)	
	17주	장방형	2290±40	400~350(46.1%)	410~340(52.2%)	
	23주	ⅠB	2180±40	400~350(46.1%)	410~340(52.2%)	
			2290±40	300~210(48.5%)	400~200(94.5%)	
	27주	노지	2240±40	300~210(48.5%)	400~200(94.5%)	
			2050±40	120~10AD(65.8%)	180~50AD(95.4%)	
			1960±40	AD~90AD(64.68%)	50BC~130AD(95.4%)	
순천 죽내리	1주	ⅡA	3260±135	1688~1408	1881~1215	
			2790±130	1185~811	1365~764	

3) 주거지의 전개 양상과 특징

섬진강유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조기 주거유적인 순창 원촌 유적이 조사되어 이른 시기부터 청동기시대 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조·전기 주거지 조사예가 많지 않고 밀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호남지역 전체적인 전개 양상은 파악이 되나 섬진강유역에 한하여서는 해석에 무리가 있다.



도 2. 섬진강 중·상류역 청동기시대 조·전기유적 출토 토기(김규정 2019 인용)

호남지역 청동기문화의 지역별 차이는 호남지역 중앙부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호남정맥이라는 자연·지리적 환경에 의해 서부지역은 가락동식토기 문화권, 동부지역은 역삼동·흔암리식토기 문화권이라는 두 개의 문화권으로 분류하였다. 섬진강유역은 동부지역 역삼동·흔암리식토기 문화권에 속하며 영남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김규정 2013). 그러나 전기문화의 발생 또는 유입, 파급 등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천선행(2016)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호남지역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흔암리유형이 복합적 양상을 띠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편년을 검토하고 전기무문토기문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섬진강유역의 전기문화는 남강유역에서 파급된 역삼동·흔암리토기 문화가 서남해안권에서 3단계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는 송국리형문화로 대표되며, 조·전기에 비해 유적이 급증하고 취락의 규모도 조·전기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중기취락은 섬진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기 이상의 주거지로 구성된 중규모 취락이 확인되고 있어 정주성 취락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이종철 2015: 35).

중기의 주거지는 13개 유적에서 115기가 조사되었으며, 형식분류가 가능한 주거지는 106기이다.

이중 송국리식 주거지는 64기, 순수 방형계 주거지는 40기가 조사되었다.

表 4[5]를 보면 상류역에서는 원형계가, 하류역에서는 방형계가 다수를 차지한다.

송국리식 주거지 각 형식은 ⅠB 〉 ⅠA 〉 ⅠC · ⅡA 〉 ⅡB 〉 ⅠD 〉 ⅡC 순으로 확인되며, ⅠD식 · ⅡD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ⅠB식의 주 분포권은 영남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호남과 호서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형식으로 섬진강유역에서 ⅠB식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은 섬진강유역 송국리유형이 영남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규정 2019: 20).

표 4. 섬진강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식주거지 각 형식

지역	유적	수량	Ⅰ(방형)				Ⅱ(원형)				비고
			A	B	C	D	A	B	C	D	
상류역	임실 도인리	7					3	4			
	임실 외량2										
	임실 대곡리	3					1	1	1		
	임실 망월촌	4	2		1	1					
	임실 덕치리	1				1					
	임실 갈마리 해평	6			1		4	1			
	임실 대명리	1						1			
중류역	※순창 원촌	1	1								
	※순창 백산리	1	1		1						
	곡성 오지리	20	1	18	1						
	곡성 대평리	18	4	10	4						
	순천 죽내리	1									
	구례 용두리	1		1							
계		64	9	29	8	2	8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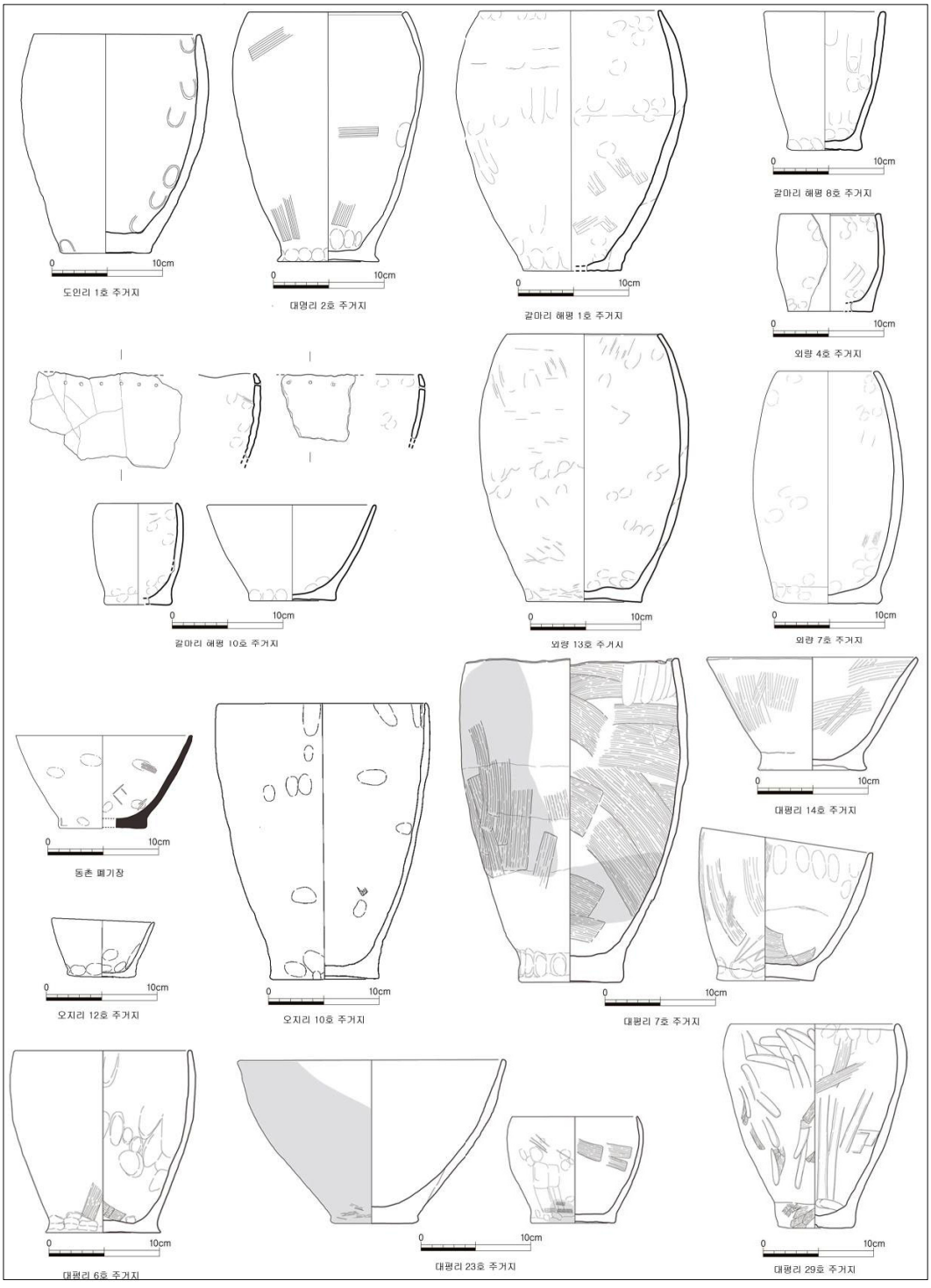
섬진강유역 중기유적 출토유물은 재지계(圖 3)와 송국리계(圖 4)로 분류할 수 있다. 재지계는 전기의 특징적인 역삼동·흔암리식토기와 직립구연 심발형토기가 주를 이룬다(김규정 2019). 전기의 특징적인 공열토기는 섬진강 상류의 갈마리 해평 10호 주거지, 섬진강 중류인 곡성 오지리와 대평리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섬진강유역 중기는 외반구연 송국리식토기의 출토 빈도가 낮고, 재지의 직립구연 심발형토기 출토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기의 특징적인 문양요소가 중기까지 지속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재지전통이 중기 이후에도 지속됨을 알 수 있다(김규정 2019).

섬진강유역 중기로 편년되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직립구연 심발형토기와 천발은 임실 외량2 유적, 임실 갈마리 해평 유적, 순창 백산리 유적, 곡성 대평리 유적에서 순수 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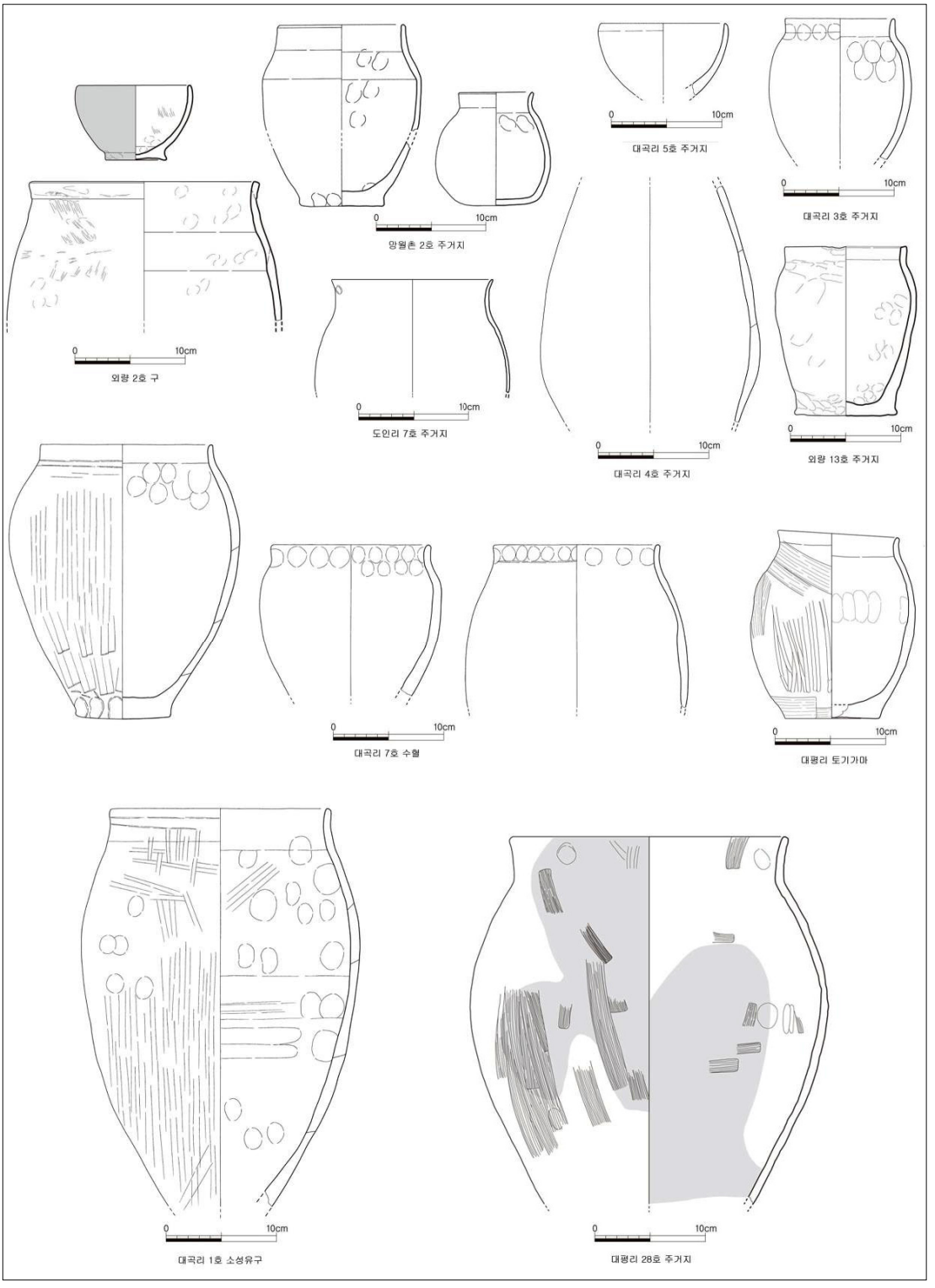
재지계 유물이 주로 출토되는 순수 방형주거지를 섬진강유역의 전기 토착집단의 계보를 잇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임실 외량2 유적, 갈마리 해평 유적, 망월촌 유적에서는 미완성석기, 석재편과 다수의 박편이 확인되고 있어 석기제작 관련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갈마리 해평 유적의 경우 순수 방형주거지는 석기제작과 관련된 공방으로 보고 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순수 방형주거지와 송국리식주거지의 관계를 시간성, 정체성의 가능성도 있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외에 이종철(2015: 50)은 '서로 구분되는 동일 문화집단'으로 표현하였다.

5) 송국리식 주거지 형식은 김규정(2013: 90)의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 3. 섬진강유역 중기유적 출토 재지계 토기(김규정 2019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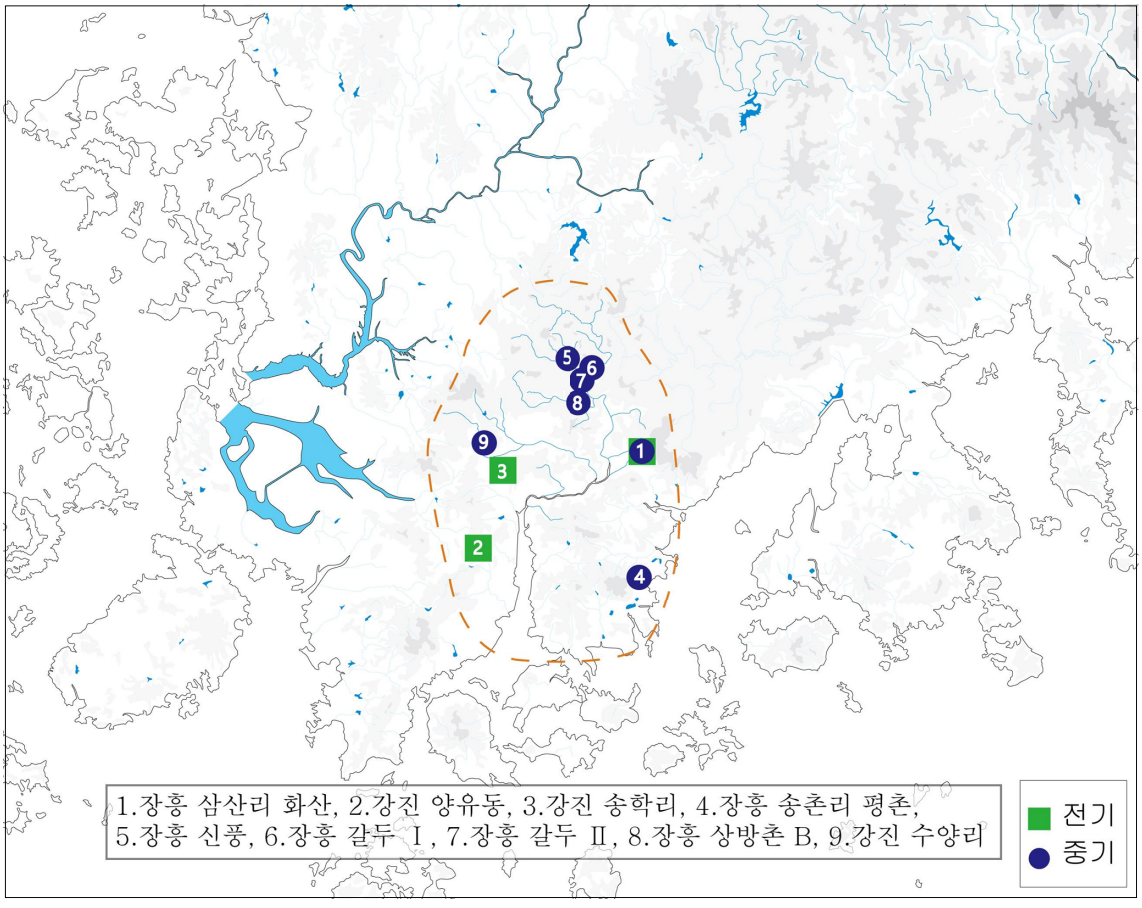


도 4. 섬진강유역 중기유적 출토 외반구연 송국리식토기(김규정 2019 인용)

Ⅲ. 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전라남도의 3대 강의 하나인 탐진강 유역에는 용반평야 · 부산평야 · 장흥평야 · 강진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장흥군 유치면 · 부산면 · 장흥읍을 지나면서 유치천 · 제비내 · 부산천 등과 합류하여 강진군의 군동면 · 강진읍을 지나 도암만(道巖灣)으로 흘러 들어간다. 심한 곡류를 하며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이 많다. 홍수 때 많은 토사를 하류로 운반함으로써 하상이 상승하여 다시 홍수를 유발한다. 하구에는 조수의 영향으로 하폭이 좁고 구릉지가 인접하고 있어 직류하도를 이루나, 현재는 간척공사로 하도가 많이 정비되었다.[6)]

탐진강유역은 수계상 영산강유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탐진강유역 또는 남해안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금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탐진강유역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 5. 탐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분포도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 유적 현황 및 분포

탐진강유역에서 조사된 청동시대 주거지는 9개 유적 113기가 조사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탐진댐 수몰지구에서 확인된 송국리형 주거와 지석묘로 구성된 대단위 취락만이 확인되었으며, 2010년 전후로 전기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표 5. 탐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현황

시기	유적명		내용	공반유구	성격	입지
전기	장흥 삼산리 화산	1구역	3	신석기시대 적석유구, 지석묘	역삼동 흔암리	구릉
		2구역	1	함정유구 2	역삼동 흔암리	구릉
	강진 양유동		1		역삼동 흔암리	구릉
	강진 송학리		1		역삼동 흔암리	구릉
중기	장흥 삼산리 화산(1구역)※		2	지석묘, 수혈	송국리유형	구릉
	장흥 송촌리 평촌		1		송국리유형	구릉
	장흥 신풍		51	지석묘군	송국리유형	충적지
	장흥 갈두	Ⅰ	35	지석묘군	송국리유형	충적지
		Ⅱ	10	지석묘군	송국리유형	충적지
	장흥 상방촌 B		2	지석묘, 수혈	송국리유형	충적지
	강진 수양리		1	지석묘	송국리유형	구릉

1) 전기유적

탐진강유역에서 조사된 전기 주거지는 3개 유적에서 6기가 조사되었다.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조사 되었다. 1구역에서 주거지 10기, 지석묘 5기, 석실 11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사면에 위치하여 하단부가 유실되어있으며, 전체 벽면이 잔존하지 않는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2기(1호, 2호), 원형계 2기(3호, 4호), 나머지는 방형계로 보인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1호, 2호에서 노지, 벽구, 주공이 확인되었으며, 10호에서 노지와 벽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1호에서 단사선문, 구순각목+단사선문 토기와 방추자, 석착,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2호에서는 구순각목, 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토기와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3호, 4호 주거지는 중앙에 타원형수혈이 있는 송국리식 주거지이며, 무문토기편과 석촉,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화산 유적 2구역에서는 주거지 1기와 함정유구,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내부시설로 벽구와 초석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완형과 지석이 출토되었다.

강진 양유동 유적에서는 (세)장방형의 주거지에서 벽구, 저장공, 주공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 구순각목+단사선문 토기와 석착,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강진 송학리 유적에서는 장방형의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공이 확인되

었으며, 유물은 구순각목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2) 중·후기 유적

탐진강 수몰지구에서 조사된 유적을 제외하고는 강진 수양리 유적과 장흥 송촌리 평촌 유적에서 송국리식 주거지 각 1기가 조사되었다.

장흥 송촌리 평촌 유적에서는 송국리식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다. 원형의 내주공식이며, 연석이 출토되었다.

장흥 신풍 유적에서는 주거지 51기, 수혈, 적석유구, 지석묘, 석실이 조사되었으며, 지석묘군은 유적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식 주거지이며, 평면형태는 원형 39기, 방형 1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중앙의 타원형구덩이과 벽구, 저장수혈, 출입시설, 단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촉, 석착, 연석, 지석, 용도불명석기 등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40호 주거지에서 관옥 191점이 출토되었고, 14호 주거지에서는 25점의 어망추가 집중되어 출토되었다.

장흥 갈두 유적에서는 Ⅰ-가, Ⅰ-나지구, Ⅱ지구로 나뉘어 2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유적 주변에 4개의 지석묘군이 위치한다. 주거지 45기와 수혈 10기, 지석묘 94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식 주거지이며, 평면형태는 원형 8기, 방형 34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소군집으로 분포하며, 군집 가운데 공지가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시설과 출토유물은 신풍유적과 유사하다.

장흥 상방촌 B유적에서는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1호는 방형의 송국리식 주거지이며, 2호는 육각형의 지상식 주거지이다.

강진 수양리유적에서는 주거지와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형태는 방형이며, 유물은 발형토기와 호형토기 그리고 석촉, 지석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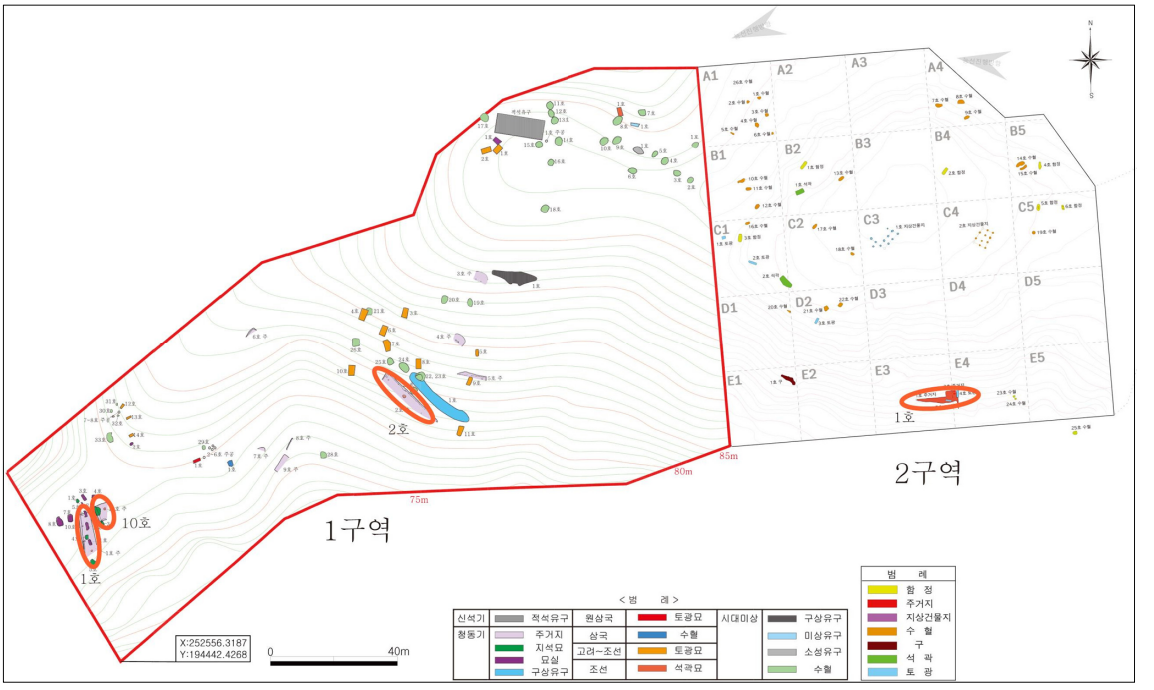
2) 시기별 양상과 특징

(1) 전기 주거 양상

탐진강유역에서 확인된 전기 주거지는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 강진 양유동 유적, 강진 송학리 유적에서 조사되었다.

장흥 삼산리 유적에서는 전기 주거지가 4기가 확인되고 동시기로 추정되는 함정유구[7]가 조사되어 주거지의 배치와 입지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삼산리 화산 유적은 동쪽의 사자두봉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말단 구릉에 위치하며, 주거지는 구릉의 남쪽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주거지간 간격은 1구역 1호와 2호는 약 100m, 1구역 1호와 2구역 1호는 약 150m이다. 함정유구들은 구릉의 정상을 따라 선상으로 분포하고 주거지는 구릉 하단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7)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 2구역 조사자는 주거지와 함정유구가 입지를 달리하여 중첩되는 양상이 없고 절대연대 측정치(1961~1781 cal BC)를 근거로 동시기 유구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절대연대 측정치가 안정적이지 않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도 6.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유구배치도)

전기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에 따라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하며, 규모는 대, 중, 소형으로 구분한다. 탐진강 유역의 전기주거지 잔존상태로는 정확한 양상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규모는 소형(삼산리 화산 1구역 10호, 강진 양유동)과 대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주공, 노지, 벽구, 초석,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된다. 노지는 무시설식과 토광식이 확인된다. 화산 1구역 1호 주거지에서는 토광식 2기, 무시설식 1기가 주거지 중앙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산 1구역 2호 주거지에서는 토광식노지 1기가 북동쪽 벽으로 치우쳐져서 확인되었다. 화산 1구역 10호 주거지는 중앙에 북쪽으로 치우쳐 무시설식 노지가 있다. 강진 송학리 1호는 주거지 장축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노지 2기와 양 단벽 쪽에서 각각 1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토광식이다. 노지의 형태는 원형 또는 부정형으로, 토광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주거지 중앙 또는 안쪽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벽구는 강진 송학리를 제외하고 모든 주거지의 잔존하는 벽면에서 확인된다.

주공은 주거지 내부주공과 벽주공으로 구분되며, 주공간의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은 강진 양유동 1호에서 확인되었다.

초석은 삼산리 화산 2구역 1호 주거지에서 벽구에서 30~40㎝ 이격되어 확인되었다, 초석은 편평한 판상형 석재를 바닥면에 그대로 놓고 사용하였다. 초석을 사용한 전기 주거지는 담양 태목리(호문연, 2010), 장성 장산리(호문연, 2015)에서 확인된 예가 있다.

탐진강유역의 주거유적은 단독 또는 3기이상의 군집을 이루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이다. 내부시설로는 1기 이상의 노지가 설치되며 정형성 없이 주공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역삼동·흔암리유형 취락의 특징(김규정 2013)과 유사하다.

표 6. 섬진강유역 전기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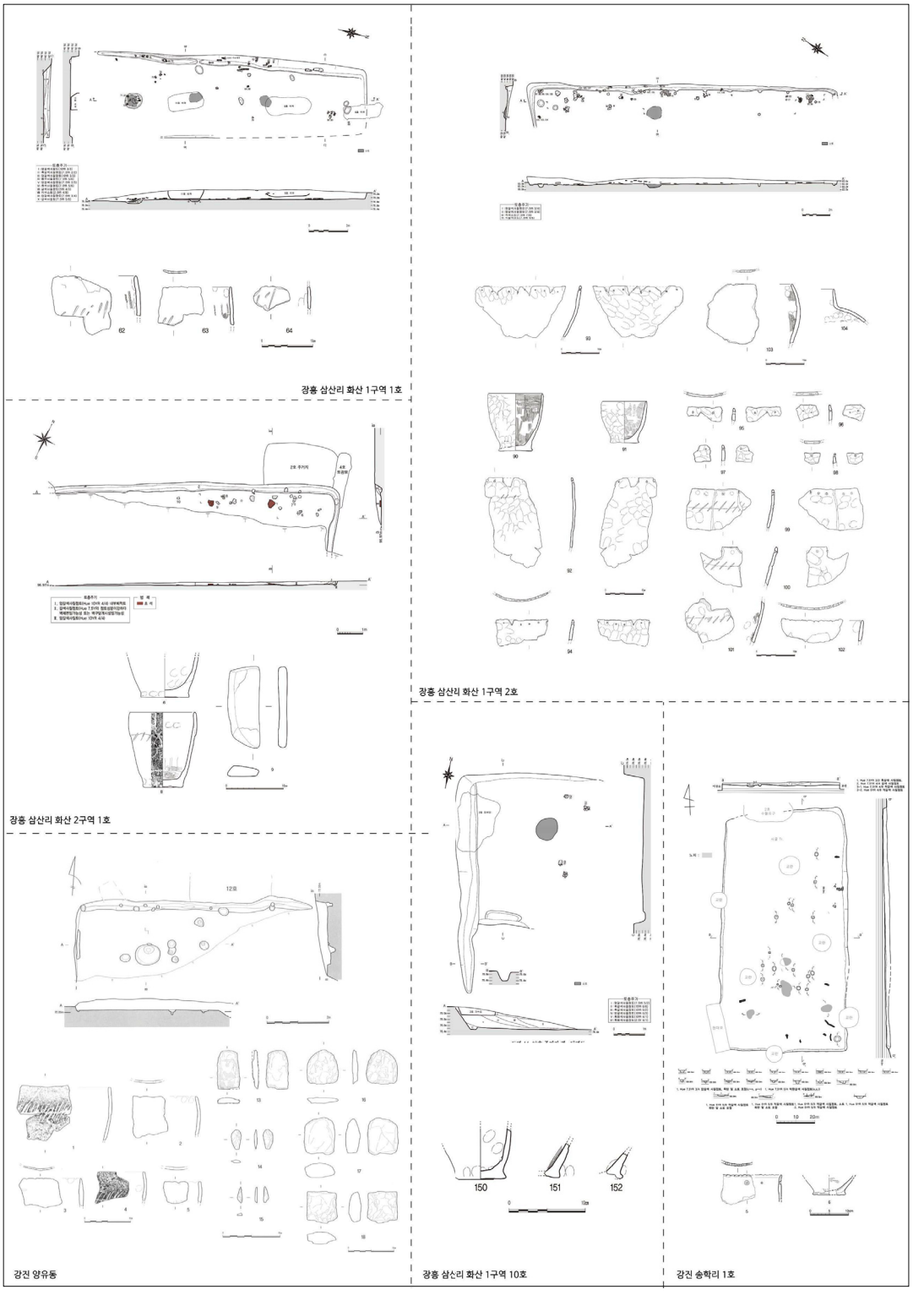
유적명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			면적 (㎡)	내부시설				
				장축	단축	깊이		주공	노지	벽구	초석	수혈
장흥 삼산리 화산	1구역	1	(세)장방형	(1410)	422	50	(59.50)	○	3	○		○
		2	(세)장방형	2258	(312)	40	(70.44)	○	1	○		
		10	(장)방형	(355)	(250)	23	(8.87)	○	1	○		
	2구역	1	(세)장방형	(1120)	(272)	27	(30.46)			○	2	
강진 양유동		1	(세)장방형	(740)	(266)	14	(19.68)	○		○		○
강진 송학리		1	장방형	1268	662	38	83.94	○	4			

전기 토기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구분되며 가락동유형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역삼동·흔암리유형 공렬문토기로 대표된다.

탐진강유역 전기주거지 출토 토기문양은 표 7과 같다. 삼산리 화산 1구역 2호, 2구역 1호, 강진 양유동 주거지 출토 토기들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토기로 홍밝음(2010)의 분류에 따르면 ⅢC에 해당하며 남원 고죽동 1호, 보성 옥평 1호, 광주 산정동 1호, 함평 신흥동 5호, 순천 마륜 1-3호 주거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표 7. 섬진강유역 전기주거지 출토 토기 문양

유적명	유구 번호	단사선	이중구연 단사선	공열문	구순각목 공열	이중구연 단사선 공열문	각목문
장흥 삼산리 화산(1구역)	1	3					1
	2		1	2	4	3	2
	10						
장흥 삼산리 화산(2구역)	1		1				
강진 양유동	1		2				3
강진 송학리(2구역)	1				1		



도 7. 탐진강유역의 전기 주거지 및 유물

절대연대는 삼산리 화산 1구역 1, 2호에서 9개가 측정되었다. 연대는 1호가 2,750±50, 2,690±40, 2,750±40이며, 2호는 2,940±50, 2,890±40, 2,960±40, 2,730±40, 2,920±40이다. 1호는 2,700BP, 2호는 2,900BP로 비교적으로 안정된 연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8.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 방사성탄소연대 및 고고지자기

유적	유구	역연교정용 (BP)	보정연대(BC)	고고지자기 북각(도)	비고
장흥 삼산리 화산	1구역 1호	2,750±50	1,004~810	53.8	50도 청동기시대 전기~ 60도 청동기시대 중기
		2,690±40	912~798		
		2,750±40	980~8116		
	1구역 2호	2,940±50	1,313~1,002	51.6	
		2,890±40	1,212~972		
		2,960±40	1,313~1,041		
		2,730±40	941~807		
		2,920±40	1,261~1~01		

탐진강유역의 전기주거지는 유물이 빈약하고 절대연대와 비교할 만한 자료도 많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유물과 절대연대를 근거로 하면 홍밝음(2013)이 편년한 3기에 해당한다. 3기는 만경강유역권에서 출토된 가락동유형이, 영산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지역권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다. 토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며, 단사선이 이중구연부 상면~동체부에 걸쳐 시문되는 비율이 높고, 이중구연의 길이는 4㎝ 이상만 출토된다. 절대연대를 참고한 이 시기의 절대연대는 대체로 B.C 11~10세기로 추정해볼 수 있다.

탐진강유역의 전기 주거유적은 주거지의 형태와 유물로 보아 역삼동·흔암리문화에 해당하며, 남해안의 역삼동 흔암리문화와 영산강유역의 가락동유형이 접변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중·후기 전개양상

탐진강유역 청동기 중·후기는 송국리형문화로 대표된다. 김규정(2003, 2013), 이종철(2008, 2010, 2015), 박수현(2004), 신상효(2007)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주거지가 확인된 장흥 신풍, 갈두 유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새로 조사된 유적이 수가 많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략적인 취락의 특징과 편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종철(2008, 2010, 2015)은 장흥 신풍·갈두 유적의 주거지 면적을 분석하고 각 군으로 나누었다. 갈두 유적의 각 군집 중 초대형 주거지(가-13)를 집회 장소로 보고 인접한 중형(14) 주거지와 소형 주거군은 우두머리 혹은 대인(大人)과 같은 성격의 구성원과 연관된 주거군으로 보았다. 신풍 유적은 초대형 또는 대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3개군으로 구분되며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주거의 배분을 공간적 활용과 주거의 배치에 따라 적용한 듯하지만, 세부적인 배치는 정형성을 가지고 있지 않

다. 취락은 1군과 2군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중핵적 위치는 1군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1군의 계속적인 확장과 3군의 성장으로 주거군을 일렬로 축조하는 방식으로 채워감으로서 취락이 확장되고 주거군의 밀도가 높아졌다고 보았다.

신풍·갈두 유적은 인접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주거양상을 보이고, 순수하게 송국리형 주거지로만 이뤄진 취락이다. 그리고 주거군의 군집화현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거점취락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철 2015).

김규정(2013)은 장흥 신풍·갈두유적을 주거지와 분묘가 공존하는 취락유형으로 보았다. 주거군과 분묘군이 일정한 공간을 달리하여 분포하고 있고 서로 공간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시기에 주거군과 공간을 달리하여 분묘군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갈두 유적에서는 주거지와 지석묘가 소단위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지석묘도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는 휴암리식 주거지와 송국리식 주거지가 모두 조사되었는데 신풍과 갈두 유적이 조사된 탐진강 상류지역은 중기의 단일 취락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후기 주거유적의 편년은 신풍유적의 절대연대를 근거로 할 때 유적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았으며(호문연 2006), 갈두 유적은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하여 성장한 집단으로 보았다(이종철 2010). 갈두 취락의 경우 주거지의 중복관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유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주거지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로 볼 때 기원전 4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김규정 2016).

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는 매우 획일적인 또는 보수적인 주거형태를 보인다. 평면형태는 방형계와 원형계가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주공 일색의 주거형식이라는 점에서 영산강유역의 주거경향과 유사하다.(이종철 2010)

Ⅳ. 맺음말

섬진강, 탐진강 유역은 호남지역의 영산강, 만경강 유역만큼 많은 조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순창 원촌, 남원 고죽동, 장흥 신풍, 갈두와 같이 한 시기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적들로 인해 주목받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섬진강, 탐진강은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역삼동·흔암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인접지역인 영남지역, 영산강유역, 금강유역에서의 유입이 짐작된다. 중기 역시 영남과 금강유역에서의 문화유입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동성 가운데 주거유형의 보수성과 토기문화의 재지성도 확인된다.

본 발표의 목적은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의 청동기 주거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자 하였으나, 발표자의 역량 부족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확인에 그쳤다. 이외 주거와 함께 분묘, 생업 등은 추후 과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전라 · 제주편』.

김규정 2003,「장흥 송정리 갈두유적 조사개보」, 『제46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김규정 2013,『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규정 2016,「제4장 호남지역」,『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김규정 2016,「제4장 호남지역」,『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김규정 2019,「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일고찰」,『호남고고학보』62.

김문국 2010,『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 고찰』,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현 2004,『장흥 신풍리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철 2008,「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탐진강유역의 고고학』제16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이종철 2010,「전남 남해안의 송국리형 주거문화」,『한국청동기학보』6호, 한국청동기학회.

이종철 2015,『송국리형문화의 聚落體制와 發展』,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철 2015,「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전개」,『섬진강유역의 고고학』제23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양영주 2013,「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정다운 2015,『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시공간적 전개양상』,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선행 2016,「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의 실체와 전개」,『호서고고학』35. 호서고고학회.

홍밝음 2010a,『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밝음 2010b,「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호남고고학보』36.

홍밝음 2013,「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문화의 변천과정」,『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10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강 동 석
국립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Ⅱ.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Ⅲ. 군집 유형을 통해 본 지석묘 사회의 역동성
Ⅳ. 지석묘 사회의 성장 배경
Ⅴ. 맺음말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 분포, 구조, 관계를 중심으로 -

강 동 석 (국립문화재연구소)

Ⅰ. 머리말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 지석묘는 전남 지방의 청동기시대 문화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의 동복댐·주암댐 수몰지구, 2000년대 초 탐진댐 수몰지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지석묘의 제속성은 전남 지방 지석묘의 형식과 변천(이영문 1987; 2002b, 지건길 1990, 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마제석검과 비파형동검 연구(이영문 1991; 2002a), 영역권 설정(이영문 1993b; 2002b), 인구의 결집과 확산(황재훈 2009) 등, 국내 지석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와 더불어, 섬진강, 탐진강 유역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진선(2008)과 황재훈(2012), 박덕재(2012)는 지석묘 형식 변천과 군집, 유물 검토를 통해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 지석묘의 계기적 발전 과정을 논하였으며, 김경택(2004)은 지석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와 수량에 기초하여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 유역 지석묘 사회의 신분 구조를 추론하였다. 한편 김진영(2012)은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검, 옥을 교역품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탐진강 유역 지석묘 사회의 지역 간 교류상을 재구성하였으며, 이종철(2012)은 탐진강 유역의 송국리형 취락과 지석묘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처럼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의 지석묘 연구는 매우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결과 두 유역권의 지석묘는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영산강 유역, 여수반도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섬진강에서 탐진강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시간적·공간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조진선 2008, 황재훈 2012). 이러한 인식은 주로 지석묘 형식과 출토유물, 입지, 분포의 변화상, 그리고 이를 기초로 설정한 계기적 발전 단계에서 찾아지는 상사성과 상이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물과 유구, 유적 자체를 문화의 형성, 전파, 확산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여기에는 지석묘를 축조하거나 유물을 부장하고, 매장 의례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접근은 결여되어 있다.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권에서 볼 수 있는 고고학적 현상의 발현과 지역 간 유사성은 실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적 행위의 관점에서 지석묘의 제속성과 분

포 패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섬진강·탐진강 유역에서 지석묘를 축조하며 고유의 지역 문화를 형성하였던 사람 또는 사람들 간의 동질성과 역동성,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먼저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을 살펴보고, 기존에 다루어졌던 지석묘 군집 양상의 재검토와 GIS, SNA를 이용한 지석묘 분포 패턴 분석을 통해 지석묘 사회의 구조와 네트워크, 상호 관계 등을 재구성해 보기로 하였다.

Ⅱ.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1. 지석묘 분포 현황

본 발표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는 섬진강 유역권 가운데 발굴조사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보성강·주암댐 유역권[1]과 탐진강 유역이다. 이 두 유역권은 수자원단위지도에서 별개의 대유역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권역이 접해 있고, 지석묘 문화의 상호 연관성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시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남 지방의 지석묘는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준으로 2,428개소, 18,910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강동석 2012). 이 가운데 섬진강·탐진강 유역에는 전남 전체의 16.2%에 해당하는 394개소, 3,173기의 지석묘가 분포하며, 중·소규모의 군집이 단위 밀집군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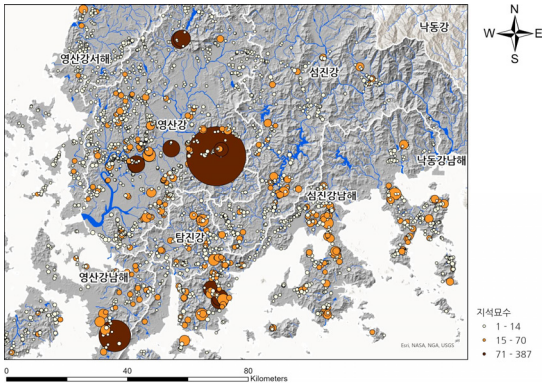


그림 1. 전남지역 지석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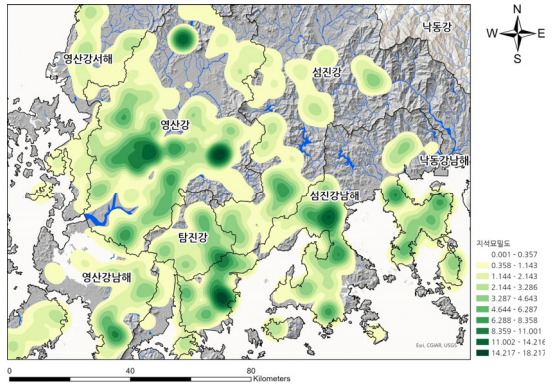


그림 2. 전남지역 지석묘 분포 밀도

섬진강·탐진강 유역에서 확인된 지석묘군은 1~12기, 13~35기, 36~66기에 해당하는 군집을 각각 대, 중, 소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이를 표준유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군집에 속하는 지석묘군은 전체 322개 군집 중 모두 9개소이며, 주암댐과 주암댐 상류, 탐진댐과 탐진댐 중류역에 집중 분

1) 본 발표에서 언급하는 섬진강 유역권은 보성강·주암댐 유역권을 의미하며, 섬진강 본류(이종철 2015), 섬진강 중·상류(김규정 2019)와 구별된다.

포한다. 중군집은 42개소이며, 보성강 하류, 주암댐 하류, 경백수위표, 탐진강 하류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확인된다. 소군집은 322개소로,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섬진강·탐진강에서 발굴조사된 지석묘는 강진 수양리 수암, 장흥 충렬리, 보성 용정리 활천 가군을 제외하면, 모두 동복댐, 주암댐, 탐진댐 수몰지구에서 확인된 것들이며, 55개 군, 808기에 달한다. 이 지석묘들은 보성강, 동복천, 탐진강의 본류를 따라 분포하는 것들로, 유역 전역의 지석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석묘의 형식과 구성, 군집 양상, 분포와 입지적 특징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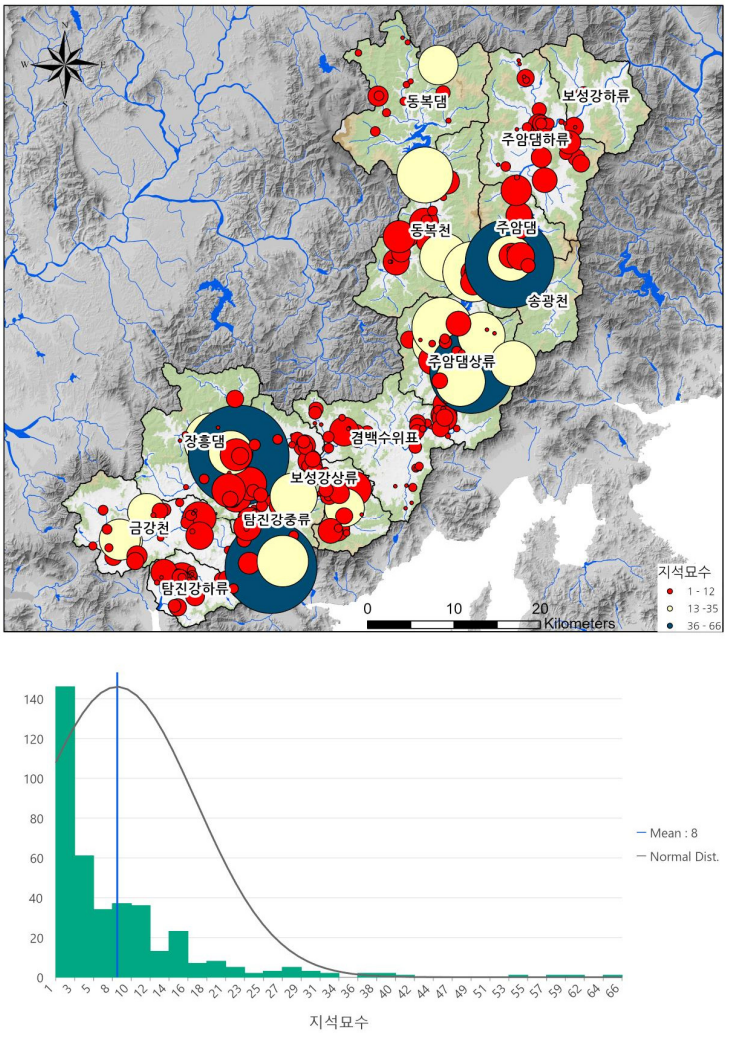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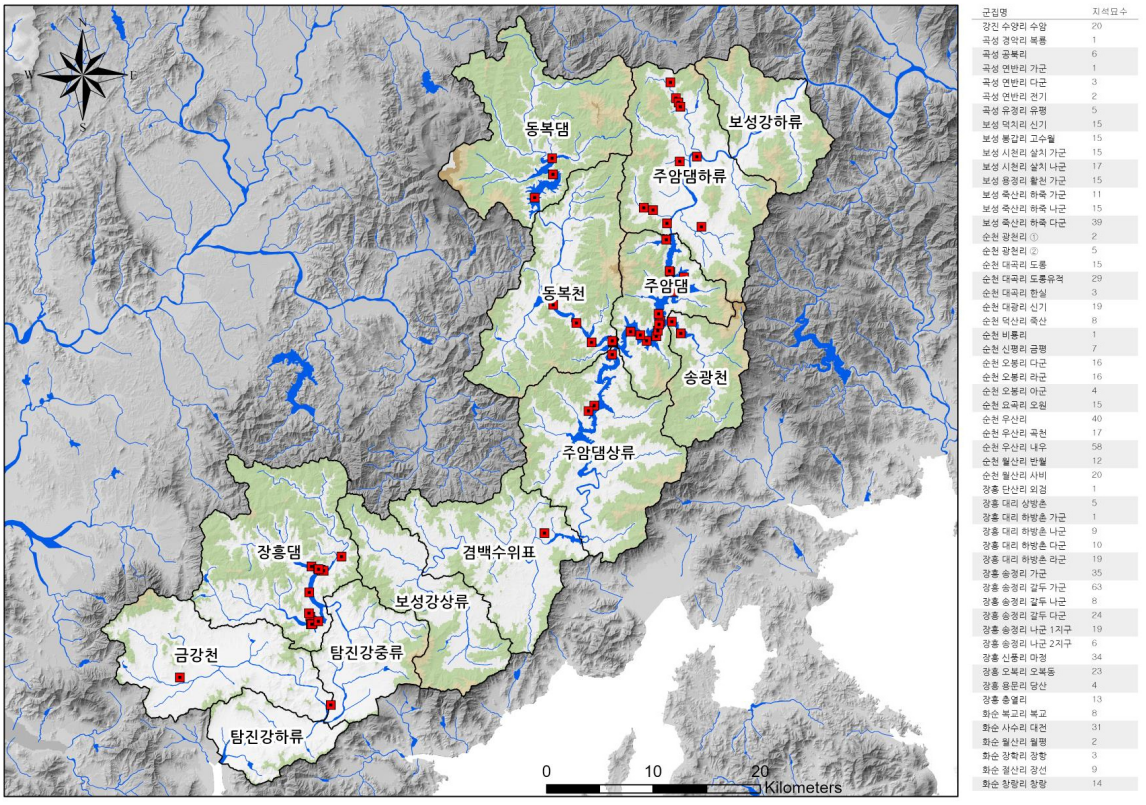


그림 3. 섬진강 · 탐진강 유역 지석묘 군집 규모



군집명	지석묘수
강진 수양리 수암	20
곡성 경악리 복룡	1
곡성 공북리	6
곡성 연반리 가군	1
곡성 연반리 다군	3
곡성 연반리 전기	2
곡성 유정리 유평	5
보성 덕치리 신기	15
보성 봉갑리 고수월	15
보성 시천리 살치 가군	15
보성 시천리 살치 나군	17
보성 용정리 활천 가군	15
보성 죽산리 하죽 가군	11
보성 죽산리 하죽 나군	15
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	39
순천 광천리 ①	2
순천 광천리 ②	5
순천 대곡리 도룡	15
순천 대곡리 도룡유적	29
순천 대곡리 한실	3
순천 대광리 신기	19
순천 덕산리 죽산	8
순천 비룡리	1
순천 신평리 금평	7
순천 오봉리 다군	16
순천 오봉리 라군	16
순천 오봉리 아군	4
순천 요곡리 오원	15
순천 우산리	40
순천 우산리 곡천	17
순천 우산리 내우	58
순천 월산리 반월	12
순천 월산리 사비	20
장흥 단산리 외점	1
장흥 대리 상방촌	5
장흥 대리 하방촌 가군	1
장흥 대리 하방촌 나군	9
장흥 대리 하방촌 다군	10
장흥 대리 하방촌 라군	19
장흥 송정리 가군	35
장흥 송정리 갈두 가군	63
장흥 송정리 갈두 나군	8
장흥 송정리 갈두 다군	24
장흥 송정리 나군 1지구	19
장흥 송정리 나군 2지구	6
장흥 신풍리 마정	34
장흥 오복리 오복동	23
장흥 용문리 당산	4
장흥 충열리	13
화순 복교리 복교	8
화순 사수리 대전	31
화순 월산리 월평	2
화순 장학리 장항	3
화순 절산리 장선	9
화순 창랑리 창랑	14

그림 4. 섬진강 · 탐진강 유역 발굴지석묘 현황

2. 지석묘의 지역적 특징

1) 지석묘 형식

전남 지방 지석묘의 형식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매장주체부의 위치(지상형, 지하형, 반지하형)와 장폭비(장방형, 세장방형), 묘곽의 축조 방법(석곽형, 혼축형, 석곽형, 위석형), 묘역시설(적석형, 포석형, 무묘역형), 지석의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이영문 1993a, 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지석묘의 제속성과 형식은 장법과 장송 의례,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시간성과 공간성을 반영하고 있어 지석묘 문화의 지역적 특성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형식 설정을 위해 취사선택하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분류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별도로 형식 분류안을 제시하는 대신, 지석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속성을 간취하여 섬진강과 탐진강 지석묘의 특징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망자의 안치라는 매장의례행위를 감안할 때, 지석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자를 직접 안치하는

묘곽의 축조와 외형의 완성일 것이다. 먼저 묘곽은 망자가 일상에서 분리되어 저승으로 들어가는 소위 '경계 넘기'를 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묘곽의 축조 재료 선정이나 축조 기법은 오랜 사회적 전통에 의해 형성된 관습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교는 문화적 전통의 유사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남 지방에서 확인되는 석곽형, 혼축형, 석관형, 위석형의 분포수와 비율은 섬진강과 탐진강의 지석묘 문화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지석묘의 외형도 망자 안치와 수반한 사회적 관습의 공유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석은 망자의 안치 공간과 상석을 분리시켜 주고, 외형적으로 상석이 웅장하고 위용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이영문 2002b: 123), 매장 풍습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지석은 묘역시설이 간략화되면서 상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황재훈 2012: 136). 하지만, 지석의 출현은 이러한 구조적인 기능과 함께, 망자에 대한 기억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석묘 축조 전통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지석의 설치는 묘곽으로부터 상석을 분리하여 죽은 자의 공간을 보호하고, 외형을 보다 돋보이게 하여 망자가 생존에 지니고 있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망자로부터 영속된 권력을 이양받은 수장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새로운 장례 풍속의 생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지석묘의 묘곽 축조 방법과 지석을 지닌 기반식 지석묘의 존재는 매장의례와 관련한 문화적 전통의 공유 양상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발굴지석묘를 대상으로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권에서 확인된 석곽형, 혼축형, 석관형, 위석형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1>은 매장주체부 묘곽 형태별로 조사된 지석묘 수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섬진강, 탐진강 유역에서 모든 형태의 묘곽이 확인되며, 석관형을 제외하면 각 묘곽형의 점유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두 유역권의 거주민들이 매장 공간을 축조하는 수법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묘곽의 분포 현황은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 묘곽형은 축조 군집의 위치와 축조 수가 다르지만, 유역권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천들이 합수되는 순천 우산리, 장흥 송정리 일대에서는 모든 형태의 묘곽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두 유역권의 거주민들이 시신 안치 공간을 축조하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매장 풍습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 지방 지석묘의 매장주체부 축조 재료는 할석→혼축→판석 순으로 점차 대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황재훈 2006), 사회적 관습의 변화도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이 동일한 맥락에서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표 1. 섬진강 · 탐진강 유역 지석묘 묘곽형 수량과 비율

구분	섬진강		탐진강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석곽형	133	43.0	86	38.9
혼축형	61	19.7	37	16.7
석관형	23	7.4	31	14.0
위석형	92	29.8	67	30.3
계	309	100	22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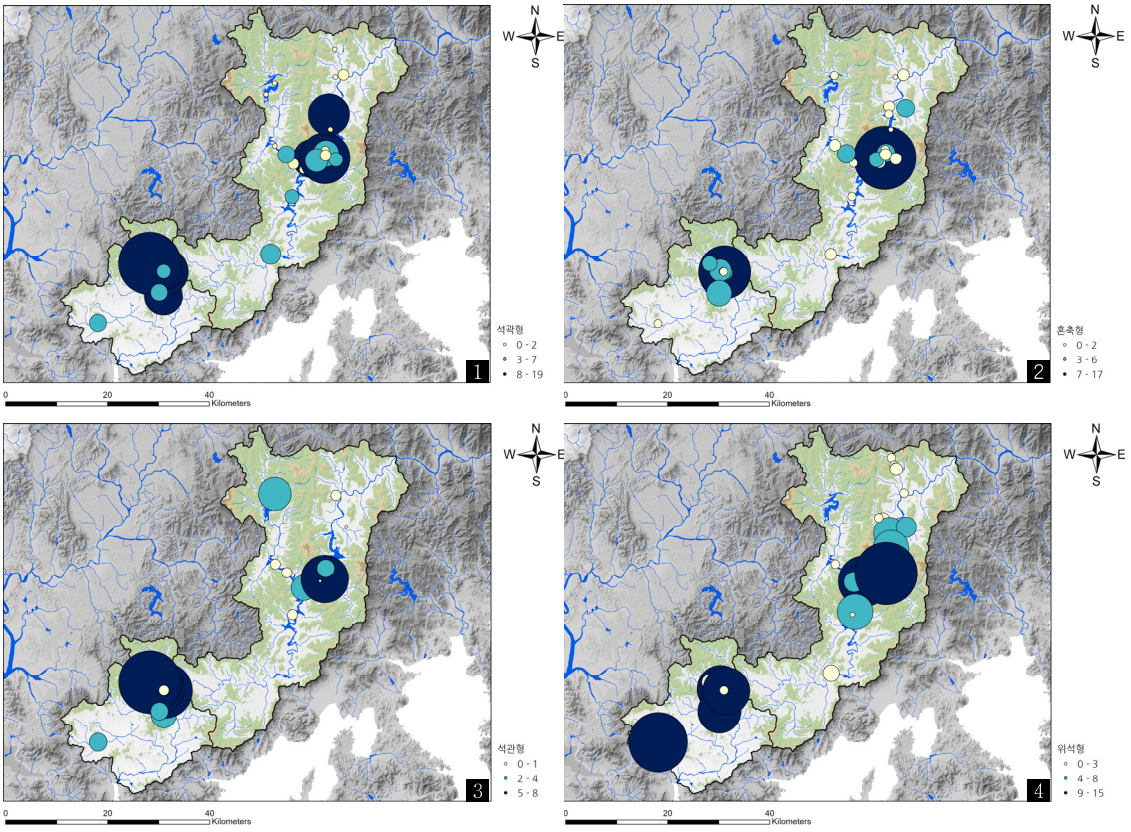


그림 5. 섬진강 · 탐진강 유역 지석묘 묘곽형의 분포 현황

한편 지석의 설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석묘 축조 기술 전통의 변화와 함께, 매장 관습의 변화, 망자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석을 가진 지석묘, 즉 기반식 지석묘의 차별적 분포는 동일한 사회 관념과 문화의 공유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6>은 섬짐강·탐진강 유역 발굴지석묘 가운데 기반식 지석묘가 확인된 군집의 분포와 그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발굴지석묘 55개 군집 가운데 섬진강 18개, 탐진강 9개 군집에서 기반식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유역권의 모든 군집에서 기반식을 축조하지는 않았지만, 전역적 분포 양상을 볼 때, 기반식 축조와 관련한 매장 방식을 상호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출토유물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의 지석묘는 형식별 분포와 밀집도에 근거하여 섬진강에서 탐진강으로 확산되었고, 출토유물의 검토를 통해 시간적 전개 양상도 논의되었다(조진선 2008, 황재훈 2009). 하지만, 지석묘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는 문화 확산을 논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거나, 유역권별로 지역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석검, 석부, 석도, 토기 등을 재검토하여 두 유역권 지석묘 문화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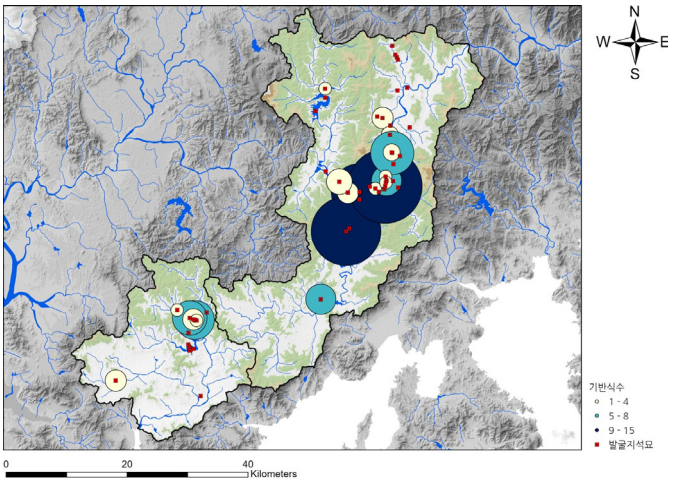


그림 6. 섬진강 · 탐진강 유역의 기반식 지석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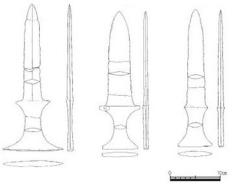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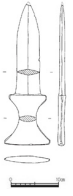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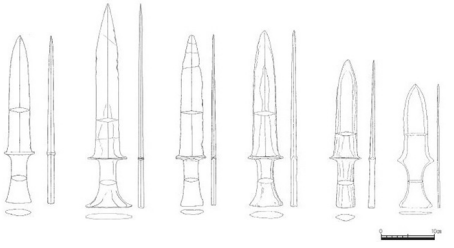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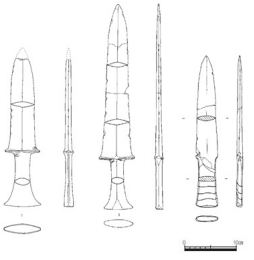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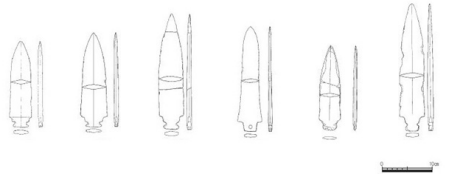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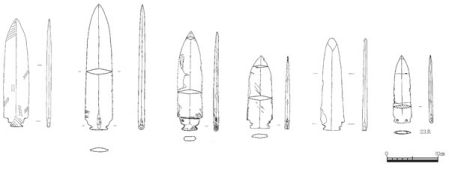
먼저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검은 유병식 41점, 유경식 26점으로, 모두 67점에 해당한다(표 1). 이영문(1997; 2002b)의 석검 형식분류안에 따르면, 유병식 석검은 병부가 단을 이루고 있는 Ⅱa식과 돌대가 있는 Ⅱb식, 검신과 병부가 구분만 있는 Ⅲa식이 확인된다. Ⅱa식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Ⅱb식 9점, Ⅲa식이 3점 출토되었다. 한편, 유경식 석검은 26점이 출토되었는데, 짧고 넓은 경부 양쪽 끝에 홈이 파여진 Ⅱa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검신 끝에 경부가 없이 바로 홈만 파여진 Ⅱb식, 넓은 경부에 구멍이 있는 Ⅱc식, 경부만 있는 Ⅱd식이 일부 보인다.

표 2. 섬진강 · 탐진강 유역 지석묘 마제석검 출토 현황 *( )는 유물수

유역권	지석묘군	유병식		유경식형식		합계
		형식	수량	형식)	수량	
섬진강 유역	곡성 공북리	Ⅱb	2			2
	곡성 유정리 유평	Ⅱa	1	Ⅱd	2	3
	보성 덕치리 신기	Ⅱa(1)/Ⅱb(1)/Ⅲa(1)	3	Ⅱa/(1)Ⅱb(1)	4	7
	보성 죽산리 하죽 가군	Ⅱb	1			1
	보성 죽산리 하죽 나군	Ⅱb	1			1
	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	Ⅱb	5	Ⅱa	5	10
	보성 용정리 활천 가군	석검편	1			1
	보성 시천리 살치 가군	석검편	1			1
	보성 시천리 살치 나군	Ⅱb	1			1
	순천 신평리 금평	Ⅱb	2			2
	순천 오봉리 다군	Ⅱa	1			1
	순천 오봉리 라군	Ⅲa	1	Ⅱa	1	2
	순천 우산리	Ⅱa(1)/Ⅱb(1)	2			2
	순천 우산리 곡천	Ⅱa(1)/Ⅱb(1)	2			2
	순천 우산리 내우	Ⅱa(3)/Ⅱb(5)/Ⅲa(1)	9	Ⅱa(3)/Ⅱc(1)	6	15
	순천 월산리 사비	Ⅱb	1			1
	화순 사수리 대전	Ⅱb	1			1
	화순 창랑리 창랑	Ⅱa	1	Ⅱa	2	3
소계			36		20	56
탐진강 유역	장흥 송정리 갈두 가군	Ⅱb	1	Ⅱa	2	3
	장흥 송정리 가군			Ⅱa	2	2
	장흥 신풍리 마정	Ⅱb	2	Ⅱa	1	3
	장흥 오복리 오복동	Ⅱa/Ⅲa	2	Ⅱc	1	3
소계			5		6	11
합계			**41**		**26**	**67**

이상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검의 형식을 보면, 유역권 전역에서 유병식은 Ⅱa식과 Ⅱb식, 유경식은 Ⅱa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형식은 소수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15점의 석검이 출토된 우산리 내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석묘군은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석검의 형식적 특징과 제작 기술을 대변해 준다. 이 점에 주목하여 우산리 내우 출토 석검을 기준으로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로 하겠다(표 3). 탐진강 유역의 장흥 오복리 오복동 7호 지석묘에서 확인된 유병식 석검 Ⅱa식은 심부와 병두부의 끝이 잘려 있고, 병부로 이어지는 단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우산리 내우 22호 지석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또한, Ⅱb식의 경우에도 심부에 돌대가 있고 T자형 병부를 가진 형태적 유사성이 간취된다. 한편 탐진강 유역에서 확인된 유경식은 옥복리 오복동 23호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Ⅱa식에 해당하는데, 길이가 짧고 넓은 경부와 검신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표 3. 섬진강 · 탐진강 유역 마제석검 비교

구분	섬진강 유역(순천 우산리 내우)	탐진강 유역
유병식		
		
유경식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볼 때, 두 유역의 석검은 동일한 제작 기술 전통 하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석검 제작 전문 집단의 존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공급과 수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석검의 출토 수와 지석묘의 군집 규모로 미루어 보아, 석검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였던 것은 우산리 내우, 죽산리 하죽, 덕치리 신기 등이 위치한 보성강, 동복천 합수 지점 일대의 집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검의 형식별 변천은 유병식의 경우, (손준호 2008, 이재운 2011, 최성훈 2015). 심부에 단이 있는 심부유단식(Ⅱa식)이 절이 있는 심부유절식(Ⅱb식)보다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섬진강, 탐진강 유역에서는 유단식과 유절식이 모두 확인되고 있어 계기적 전개 과정에서의 유역 간 선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각 유역권 내에서 석검 형식별 제작과 사용 시기의 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석도와 석부 등 석기류의 출토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순천 월산리 사비 지석묘군을 제외하면, 모두 삼각형석도이며, 전역적 분포 양상을 보인다(그림 7의 좌). 석부도 마찬가지로 순천 요곡리 오원, 장흥 오복리 오복동에서 출토된 유공석부 2점을 제외하면, 모두 유구석부이다(그림 7의 우). 이처럼 송국리문화유형의 표지적인 석기라고 할 수 있는 삼각형석도, 유구석부의 출토는 송국리문화유형이 섬진강, 탐진강 유역의 지석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기반한 사회경제적 변화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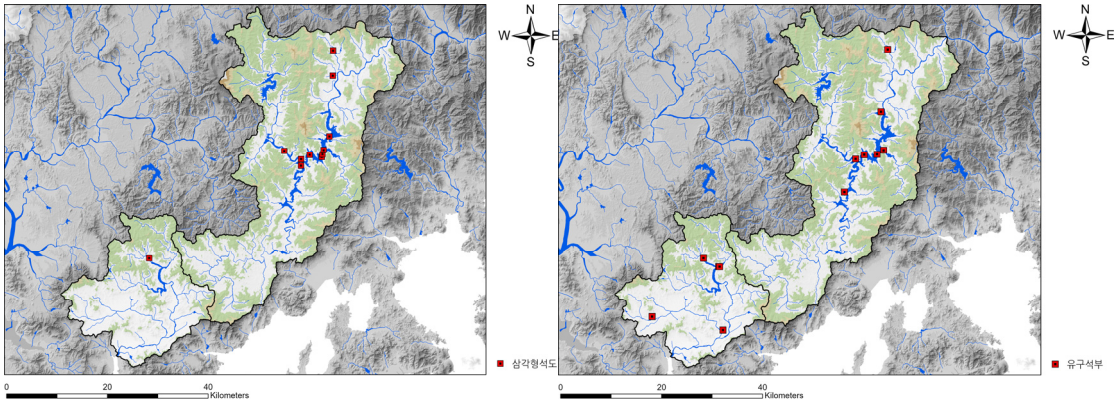


그림 7. 섬진강 · 탐진강 유역 삼각형석도(좌), 유구석부(우) 출토 현황

이밖에 지석묘에서는 공렬토기, 적색마연토기, 채문토기, 점토대토기, 흑도 등이 출토되었다. 공렬토기는 순천 우산리 곡천 4-2호 석곽형 묘곽 내에서 출토되었다. 이 지석묘군과 인접한 순천 대곡리 도롱·한실의 송국리형 주거지에서도 공렬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청동기시대 중기 단계에 공렬토기로 대표되는 역삼동 유형의 재지적 전통 요소와 새로운 송국리유형 간의 상호 복합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섬진강 유역권의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이영문 2002b, 이종철 2015). 한편, 탐진강 유역권에서는 역삼동유형의 토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주거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섬진강 유역과 같은 토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점토대토기와 흑도는 탐진강 유역권의 장흥 송정리 가군 서4호에서 출토되었다. 섬진강 유역권에서는 이 시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섬진강 유역과 인접한 곳에서 세형동검, 검파두식 등 동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탐진강 유역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 지석묘에서 공렬토기, 점토대토기, 흑도 등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석묘 부장유물의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이다. 이를 통해 볼때 두 유역권에서 지석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된 것은 청동기시대 중기부터이며, 송국리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성장과 변화가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Ⅲ. 군집 유형을 통해 본 지석묘 사회의 역동성

앞서 지석묘 제속성에 해당하는 묘곽형의 구성과 축조 비율, 공간적 분포, 그리고 석검과 석도, 석부의 출토 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권의 지석묘 문화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두 유역권은 석곽형-혼축형-석관형으로 이어지는 묘광의 변천 과정, 심부유단식-심부유절식 석검의 시기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시적 관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내부에서는 자체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지석묘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인 군집 패턴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회적 역동성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지석묘군은 지석묘의 배치와 구성을 기준으로, 크게 열상과 비열상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 군집에 위석식지석묘들이 축조된 Ⅰ유형과 열상의 군집+위석식지석묘군으로 구성된 Ⅱ유형, 그리고 비열상군집과 위석식지석묘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 Ⅲ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Ⅰ유형은 열을 지어 축조된 군집과 접하여 무질서하게 지석묘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군집들 사이에 위석식지석묘가 축조된 유형이다. 대표적인 예는 순천 우산리 내우 지석묘이며, 장흥 송정리 갈두 가군, 신풍리 마정 지석묘군 등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그림 9). 이 유형 지석묘군의 축조 순서와 관련하여, 황재훈(2006; 2012)은 우산리 내우의 축조 순서를 지석묘 형식별 분포, 유단·유절식 석검, 삼각형석도, 유구석부의 출토 양상, 지석의 설치 등을 근거로 축조 순서를 추정된 바 있으며, 조진선(2008)도 지석묘 형식 분포 양상을 근거로 소군집 단위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와같은 유구와 유물의 형식적 속성에 근거하여 축조 과정을 논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전통 질서의 유지와 유력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권력 구조 재편의 결과물이라는 관점, 즉 구조화 이론과 실천 이론에 입각하여 지석묘 배치 양상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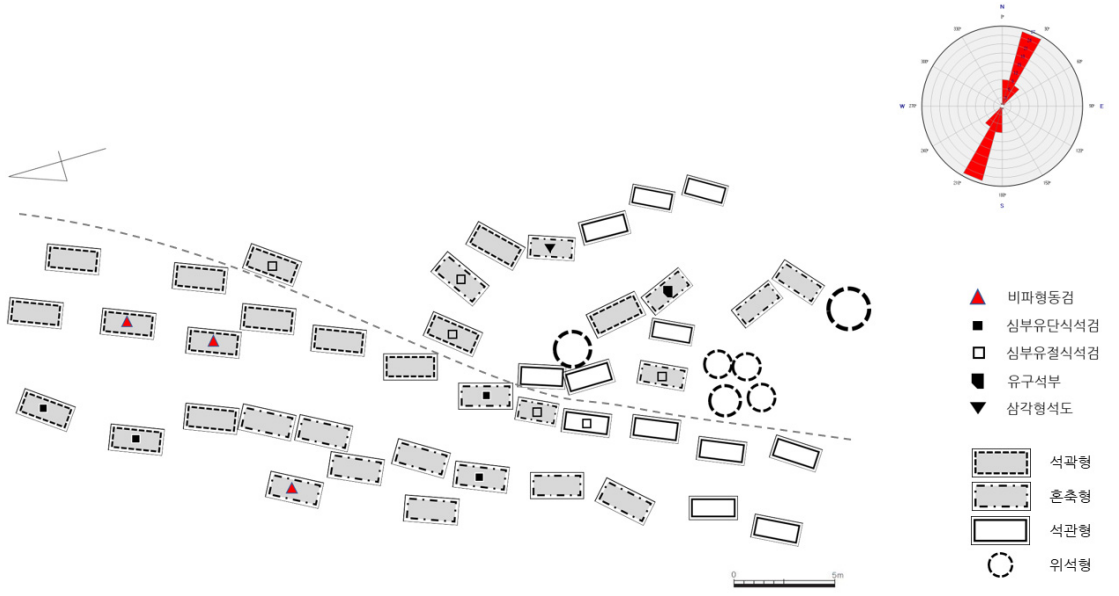


그림 8. 순천 우산리 내우 지석묘군의 배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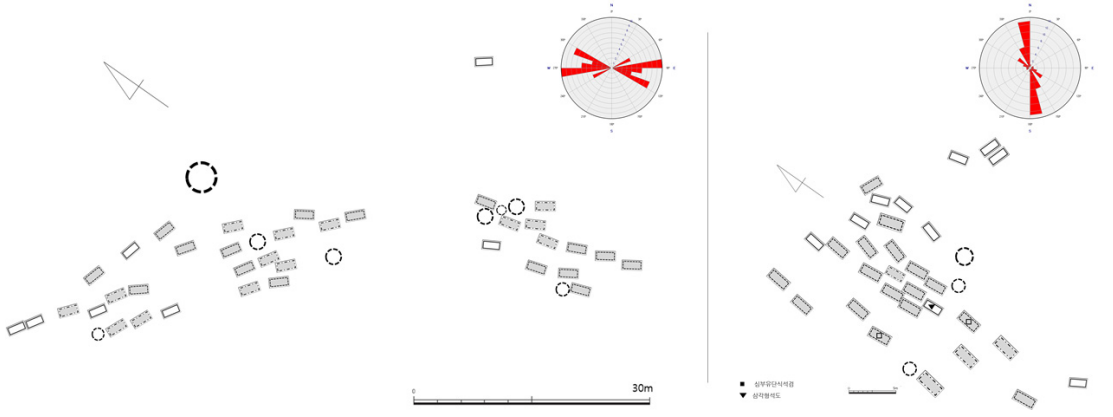


그림 9. 장흥 송정리 갈두 가군(좌), 신풍리 마정 지석묘군(우)

매장의례는 단지 죽은 자를 안치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나 서열, 권력 관계를 합법화하는 한편,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매장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권력 구조를 재합리화하거나 재조정되는 실천의 장이 되기도 한다(김종일 2004: 13-15). Ⅰ유형 지석묘의 열상 배치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며, 선조와 다르지 않은 영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선형 구조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석묘 축조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기존 질서에 종속된 매장 의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

체성과 공동체성이 재형성되었을 것이며, 유력자는 지석묘 축조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망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력을 이양받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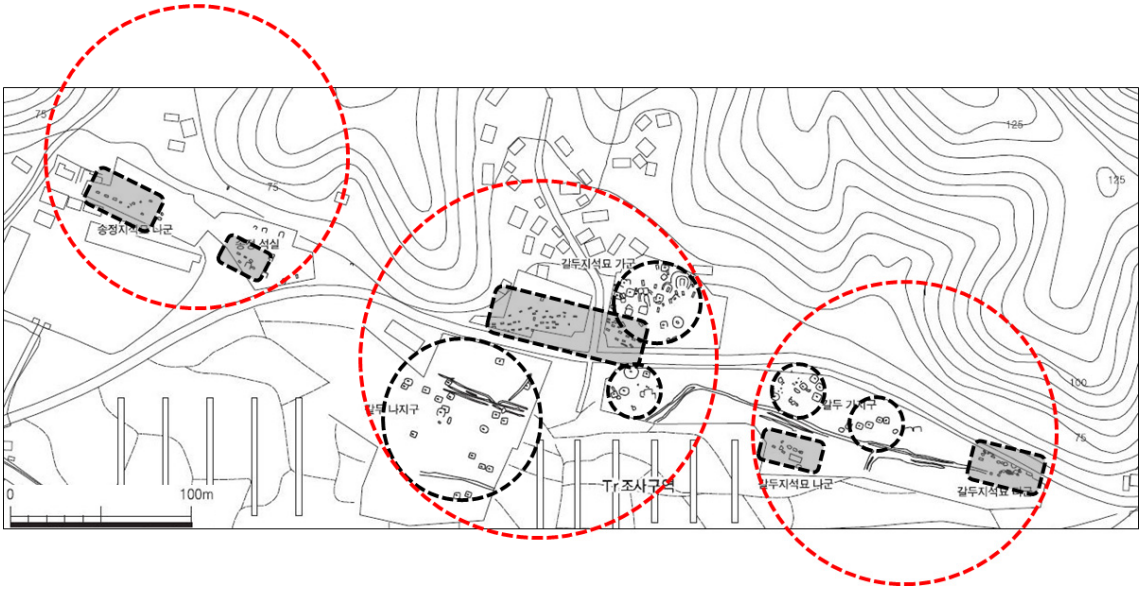


그림 10. 장흥 송정·갈두유적 지석묘군과 주거군 배치도

여기에서 유력자는 주거군을 단위로 하는 집단의 리더일 수 있다. 지석묘군과 주거군이 함께 조사된 장흥 송정·갈두 유적을 살펴보자(그림 10). 갈두 유적에서는 세 개의 지석묘군과 5개의 주거군이 확인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갈두 지석묘 가군을 중심으로 3개의 주거군이 근접해 있고, 갈두 지석묘 나군과 다군 근처에 2개의 주거군이 위치한다. 이와 같은 지석묘군-주거군과의 근접 관계에 기초해 볼 때, 복수의 주거군이 하나의 지석묘군을 공동의 매장의례공간으로 조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거군은 주거집단을 구성하며, 사회조직, 생산, 교환뿐만 아니라, 사회 변천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분절적 출계집단을 나타낸다(김승옥 1998: 5-11). 즉, 지석묘 피장자는 이와 같은 주거군을 이루고 있는 집단의 리더이며, 강력한 출계집단의 유력자로 볼 수 있다.

우산리 내우를 비롯한 단위 사회에서 처음으로 지석묘 축조를 주도하였던 세력과 안치되었던 피장자는 이러한 출계집단의 유력자였다고 본다. 집단의 리더의 죽음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낙담, 불안, 공포 등을 야기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또 다른 리더는 공동체의 사기를 높이고 연대감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석묘 축조라는 협업적 매장 의례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석묘 축조 행위를 주도하였던 리더는 장송의례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였을 것이다. 즉, 특정 출계집단의 유력자는 선조 유력자의 죽음과 지석묘 축조라는 정치적 사건을 통해 권력의 이양과 영속적 지위의 획득을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추인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출계 집단 리더의 죽음을 매개로 한 영속적 권위의 유지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역사적 연속성을 따르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선형 또는 열상의 지석묘 축조로 배치 구조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부상한 유력자는 그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설득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며, 외래 집단과 접촉하여 선진 기술에 대한 정보나 초자연적인 특질을 지닌 외래품의 입수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김승옥 1998: 18, 티모시(김경택 역) 2008: 207-214). 우산리 내우의 경우, 동일한 열상 구조를 이루는 지석묘에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었으며, 기존 석곽형과는 다른 형태의 혼축형, 석관형 묘곽 등이 확인된다. 비파형동검의 부장은 특정 자원에 대한 차별적 접근 권한이 있었고, 외래 집단과의 접촉을 통한 새로운 지식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산리 내우에서 지석묘를 축조하며 등장한 유력자는 비파형동검이라는 청동기의 입수,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이념의 조작을 통해 노동력 통제와 관련한 그들의 영속적 지위를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혼축형, 석관형 묘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할석의 넓은 면을 이용하거나 판석을 이용하여 축조하는 혼축형, 석관형의 묘곽은 주지하다시피 송국리형 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묘곽 축조 방식이며, 지석묘 축조를 주도하였던 유력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습득한 장례 지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력자는 외래 집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독점적 접근 권한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확대해 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열상의 지석묘 배치를 따르는 사회적 전통과 질서를 준수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매장의례에 의해 과거-현재-미래로 연속되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산리 내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열상 구조의 변화이다. <그림 8>에서 보듯이 빗금을 경계로 기존과 다른 무질서한 군집 패턴이 보인다. 가장 후대에 축조되었다고 보이는 위석식지석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혼축형, 석관형의 묘곽이며, 심부유절식 석검,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등 송국리유형의 표지적 요소가 나타난다. 열상의 지석묘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보이지만, 기존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무덤은 단순히 과거 사회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의 산물이자 사회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 또는 이념적 기제로서 역할을 한다(김종일 2004: 22). 지석묘 축조 배치 구조의 변경은 전통적인 매장의례 질서를 뒤흔드는 사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유발하였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취락공동체 내에서 지석묘를 축조하는 새로운 유력 출계 집단의 등장으로 해석된다.

공동체 내 출계집단은 지석묘를 축조하는 의례 행위나 경제적·군사적 행위 과정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노동력 확보와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김승옥 1998: 13). 이러한 경쟁적 관계는 복합도 진전에 따라 중앙 위계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다양한 권력의 원천들을 제도화한다(티모시(김경택 역) 2008: 36). 우산리 내우의 경우, 열상의 전통적 지석묘 축조 질서 준수와 그에 따른 영속적 지위의 인정이 권력의 원천이 되었다고 본다. 즉, 열상의 지석묘 축조 메커니즘을 따르는 유력자와 집단은 다른 출계집단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우위에 있었고, 전통적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세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쟁 체제 내에서 권력을 추구하려는 야심찬 개인이나 집단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기존 세력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의 결과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었던 전통 질서의 파괴, 즉

영속성을 지니고 있던 기존 지석묘 축조 질서의 대전환이었다고 생각된다. 섬진강, 탐진강과 같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던 대하천은 우주의 자연적 질서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하천의 흐름에 맞추어 열상으로 지석묘를 축조하는 행위는 초자연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었으며, 유력자와 그 집단들에게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데올로기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열상의 지석묘군 자체가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이며, 정체성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 질서의 파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유력 개인 또는 집단의 생성을 보여 주는 것이었고, 통치 이념과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질서 군집에서 확인된 유구, 유물의 현상을 볼 때, 이와 같은 사회 질서의 대전환을 꾀하였던 전략적 행동의 원천은 외래품의 차별적 소유와 송국리문화와 같은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었을 것이다. 특히, 송국리문화는 도작농경이라는 경제체제와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생업경제의 변화와 정치경제적 잉여 확보는 유력 집단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세력을 추종하고, 사회 변화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실천 이론에 근거한 고고학적 모델에서 한 마을 내에서 특정 출계집단이 다른 집단의 통제를 시도할 때, 그들 중심으로 전체 사회를 통합하는 한편, 다른 집단과 차별화를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진다(김승옥 1998: 5). 즉,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이나 권위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의 전통적 신념과 가치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 권력을 확대시키려고 한다. 지석묘 사회에서 사회적·이념적 질서가 작동하는 장소는 공동의 매장의례공간, 즉 지석묘 축조 장소가 된다. 이를 벗어난 매장 행위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념적 질서 체제를 생성하는 것이고, 지석묘를 매개로 영속적인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구성원들에게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력 개인과 집단은 정치적 주도권 확보와 세력의 확대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였지만, 기존의 사회구조 내지 사회 체제를 상징하는 열상의 지석묘가 축조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부상한 수장층은 기존 지석묘 축조 질서를 흔들어 새로운 권력 구조의 생성과 재편을 가시화하는 한편, 조상 숭배와 전통적 권위의 상징 장소인 지석묘 군집 내에 새로운 영속적 지위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통합과 질서 유지를 시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산리 내우를 비롯한 Ⅰ유형의 지석묘 군집에는 위석식지석묘가 축조되어 있다. 이들은 별도의 군집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열상 또는 비열상 구조 내에 개별적으로 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위석식지석묘는 지석의 연접 정도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남 지방에서 가장 늦은 단계에 축조된 형식에 해당한다(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그리고 위석식 형식은 묘역부+지석+지하매장주체부의 구조(우산리 곡천 3-1, 우산리 3·6호)에서 묘역부+지석(시천리 살치 1·2·10호) 또는 구획석+지석(오봉리 라 14호)의 구조를 거쳐 무묘역의 위석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묘곽형들과 같이 조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황재훈 2012). 하지만, 위석식은 거의 대부분 매장주체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 축조된 지석들 사이에 배치된 점으로 보아, 기존의 열상 또는 비열상의 지석묘 축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매장 풍습으로 보인다.

우산리 내우의 위석식지석묘 분포 패턴을 보면, 이는 사실상 비열상 군집으로 대표되는 사회 질서의 재편 이후에 등장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징 체제를 대변한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대부분 매장주체부가 없는 위석식의 특징에 근거하여 지석묘의 성격을 무덤으로서의 기능 상실, 한 집

단의 묘역 상징물 내지는 기념물로 본 이영문(2002b)의 주장이 주목된다. 즉, 지석묘 축조라는 장송의례는 더 이상 산 자들의 사회를 조직하는 기제로 활용되지 않았고, 사회적 연대감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석묘 축조 공간은 여전히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화된 장소였으며, 과거에 지석묘 축조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의 체험은 집단적 기억으로 작용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매개체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위석식의 축조는 비록 장송의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상들이 매장된 신성한 장소에 '공간 순서'와 상관없이 지석묘를 축조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위석식지석묘는 또 다른 유력자에 의해 사회조직의 새로운 구조화가 진행된 결과이며, 새로운 정치권력의 재현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Ⅰ유형의 군집 패턴에 대해 전통적 사회 질서의 유지와 새로운 유력 집단의 등장, 기념물 축조를 통한 사회구조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열상의 지석묘 축조는 공간 순서에 따라 장송 의례를 행함으로써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비열상의 군집은 권력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전통적 가치 체계 내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시화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위석식지석묘의 공간 순서를 무시한 배치 구조는 장송의례가 아닌 기념물 축조 행위로서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다.

Ⅱ유형은 열상의 지석묘 배치와 위석식이 혼재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그림 11). 섬진강, 탐진강 유역에서 모두 13개 군집이 이 유형에 속한다. 앞서 열상의 구조는 공간 순서를 따라 연속적으로 지석묘를 축조하여 전통적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Ⅱ유형은 Ⅰ유형과 달리, 비열상의 군집이 보이지 않고, 위석식지석묘의 배치만 확인된다. 이는 섬진강·탐진강의 모든 지석묘 축조가 Ⅰ유형과 같은 사회 변화를 거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우산리 내우, 송정리 갈두와 신풍리 마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바꾸어 새로운 정치 권력의 등장을 가시화하려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유형의 군집을 조영하였던 공동체는 역사적 연속성과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과 같이 석곽형 묘곽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순천 오봉리 라군, 장흥 오복리 오복동, 송정리 가군에서 볼 수 있듯이 석곽형, 혼축형, 판석형 묘곽이 함께 열을 지어 축조된 것으로 보아, 사회 내부적으로 우산리 내우와 유사한 정치권력 유지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석식의 배치 구조를 보면,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군집을 형성하거나 기 축조된 지석묘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위 공동체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지석묘 군집 내에 위석식지석묘라는 기념물 축조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려는 유력자의 정치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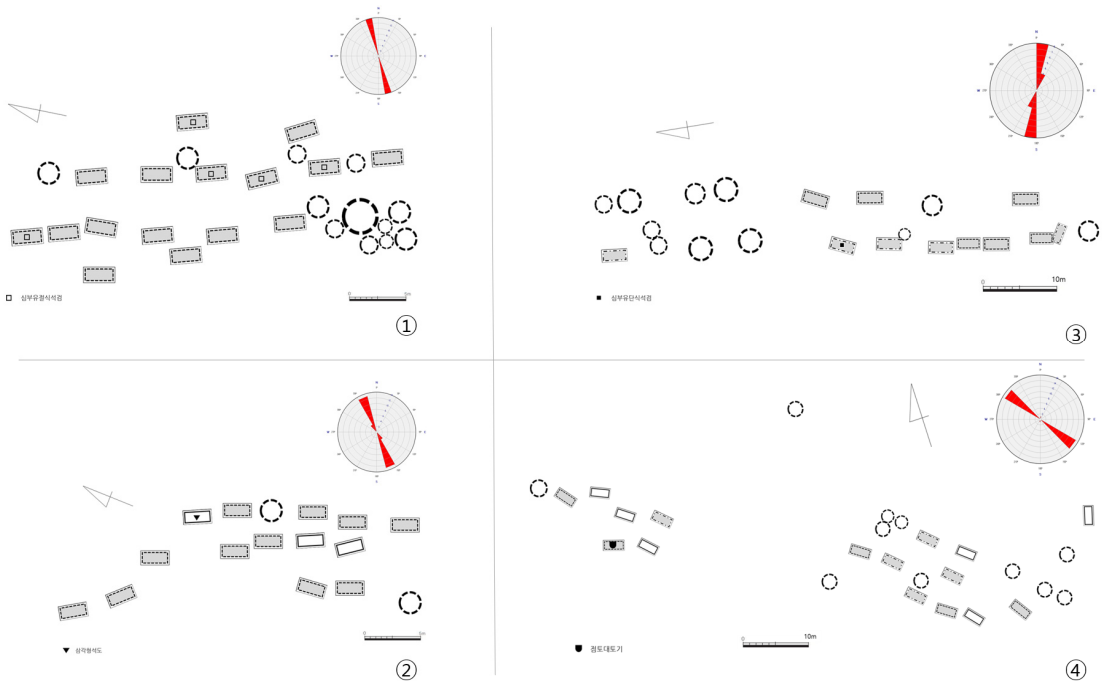


그림 11. Ⅱ유형 지석묘군(①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 ②순천 오봉리 라군, ③장흥 오복리 오복동, ④장흥 송정리 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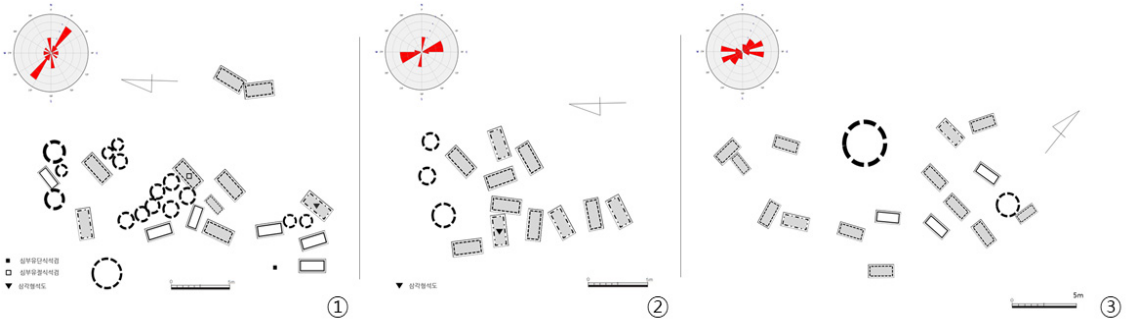


그림 12. Ⅲ유형 지석묘군(①순천 우산리, ②순천 대곡리 도롱, ③장흥 하방촌 라군)

Ⅲ유형은 지석묘가 무질서하게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며, Ⅰ·Ⅱ유형과 동일하게 위석식이 배치된 유형이다. 순천 우산리, 대곡리 도롱, 보성 봉갑리 고수월, 화순 사수리 대전, 장흥 대리 하방촌 라군 등 모두 9개소에서 확인된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유형에 속하는 지석묘군에는 석곽형, 혼축형, 석관형 묘곽이 장축방향을 달리하며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위석식지석묘는 앞서 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군집 내에 축조되어 있다. 이 유형은 우산리 내우와 같이 송국리문화를 적극 수용한 신흥 유력집단이 등장한 이후에 하천의 흐름을 따라 열을 지어 지석묘를 축조하는 전통적

매장 풍습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Ⅰ·Ⅱ유형의 세력과 같이 과거의 집단적 체험과 기억 전달을 매개로 사회가 유지되는 체제가 아닌, 조상과의 역사적 영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시간적으로는 Ⅰ유형에서 비열상의 군집이 조영되었던 시점이거나 그 이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Ⅱ유형의 군집과 공시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석식의 분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맥락에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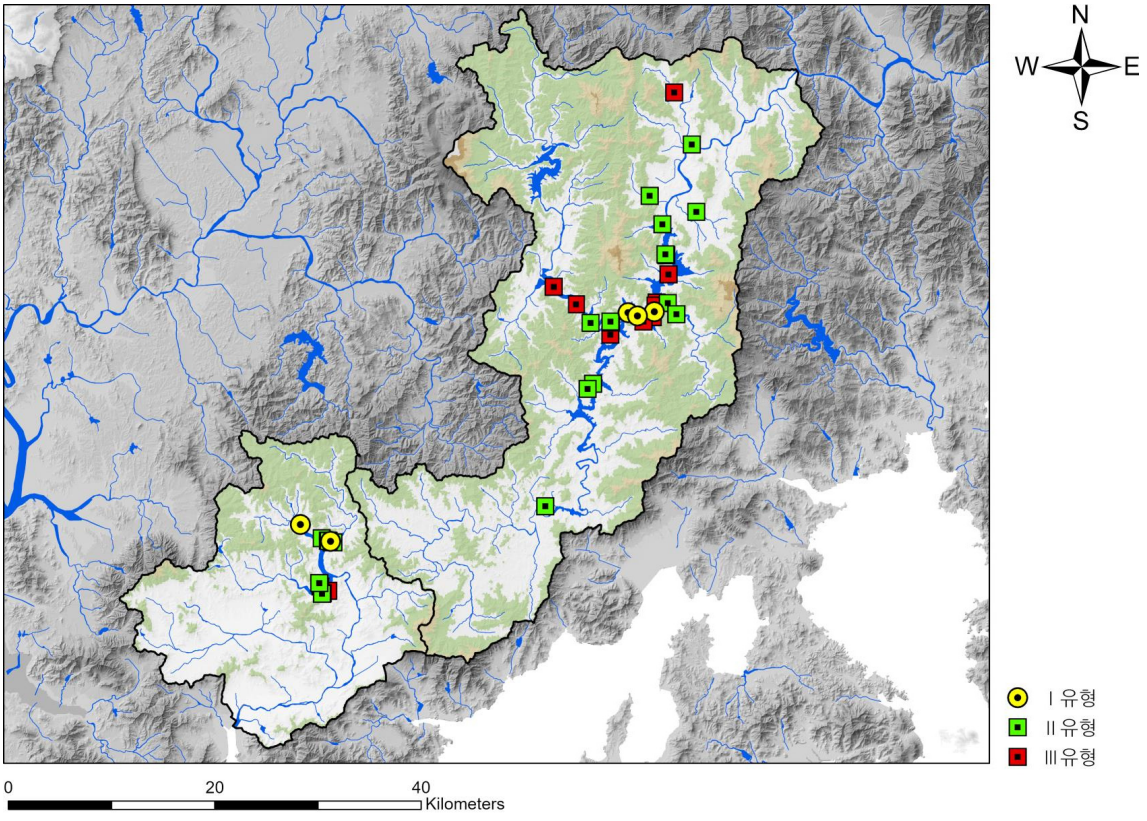


그림 13. 섬진강 · 탐진강유역 지석묘 군집 유형 분포

이상으로, 묘곽이 확인된 발굴지석묘를 중심으로 섬진강·탐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지석묘 군집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군집 패턴은 시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정치권력의 규모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권력의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석묘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 준다. 즉, Ⅰ유형의 군집을 조영한 집단은 두 유역권에서 지석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될 시점부터 존재하였던 사회공동체로서 정치권력의 추구와 확대라는 경쟁적 관계에서 송국리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성장한 진취적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Ⅱ유형 조영 집단은 전통적 사회 체제와 질서, 영속성을 중시하였던 단위공동체로 상정할 수 있다. Ⅲ유형은 Ⅰ유형의 사회적 질서 전환 과정을 경험한 새로운 세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으로, 열상의 배치를 이루는 Ⅰ·Ⅱ유형보다는 시기적으로 이후에 조영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모든 유형의 군집

에서는 위석식지석묘가 축조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섬진강·탐진강 유역권 대부분의 지석묘군에서 위석식이 축조되었고, 지석묘 축조의 마지막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Ⅰ유형과 Ⅱ유형이 먼저 조영되고, Ⅲ유형의 비열상 군집이 생성되고, 마지막으로 위석식이 배치되는 시간적 순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3>은 이러한 군집 유형의 분포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Ⅰ유형에 속하는 군집은 모두 5개군으로 섬진강은 우산리 내우 일대에 집중해 있으며, 탐진강에서는 송정리 갈두, 신풍리 마정 지석묘군이 이에 속한다. 이들 지석묘군은 두 유역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군집으로 앞서 설명한 Ⅰ유형 조영 집단의 역동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Ⅱ유형은 전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Ⅲ유형은 Ⅰ유형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Ⅲ유형 축조 집단이 Ⅰ유형의 비열상 지석묘 축조를 경험한 추종 세력으로 상정한 것과 부합된다. Ⅰ유형의 조영 집단은 섬진강·탐진강 유역권에서 전통적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 내부에서의 경쟁과 차별화, 통합의 과정을 거쳐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공동체로 인식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역동적 사회 변화를 초래하였던 배경에 대해 공간적 상호작용과 사회 네트워크 중심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Ⅳ. 지석묘 사회의 성장 배경

-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

앞서 본 바와 같이, Ⅰ유형의 군집 조영 집단은 섬진강·탐진강 유역권에서 국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각 유역권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본다. 또한 두 유역권 지석묘의 문화적 동질성을 통해 볼 때, 지석묘 축조 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諸공간적 차원에서 특정 집단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외부 집단과 연계된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물류, 교통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단위공동체가 좀 더 역동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다양한 정치권력 확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공간적 상호작용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지석묘 사회의 성장 배경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국지적 차원의 지석묘 분포 패턴에 대해 검토해 보자. 앞서 본 Ⅰ유형과 같은 군집을 형성한 집단은 최초에는 일상적으로 자원을 개척하고 인접한 집단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였던 국지적 단위에서 정치경제적 우위를 점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국지적 단위는 <그림 14>의 지석묘 밀도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표준유역권과 일치한다. 이를 감안하여 국지적 분석 단위는 표준유역권으로 설정하고, Ⅰ유형의 지석묘군이 위치한 주암댐유역권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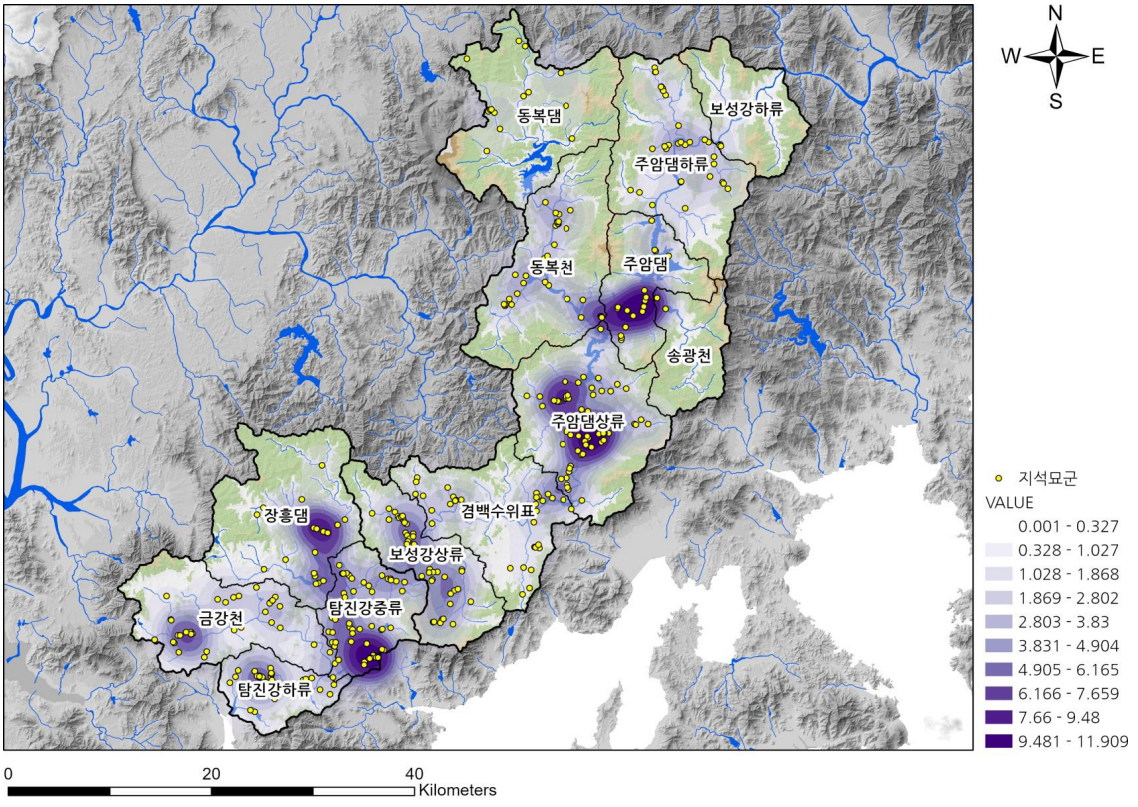


그림 14. 섬진강 · 탐진강 유역 지석묘 밀도분석 결과

주암댐 유역에서 지석묘 축조 집단의 공간적 상호작용은 유역 내에서의 가시권과 사회 네트워크 중심성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주암댐 유역에는 우산리 내우가 가장 큰 군집을 형성을 하고 있고, 유역 내에 중·소 군집들이 다수 분포한다(그림 15). 이들 지석묘 간의 가시권은 <그림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주암댐 유역에 분포하는 지석묘 군집 간의 가시권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상생활권으로 간주되는 반경 1㎞를 기준으로 누적가시권을 분석한 것인데, 우산리 내우를 중심으로 한 반경 권역은 4개의 가시권이 중첩된 지점에 해당한다. 이는 우산리 내우은 인접한 지석묘 축조 집단과 일상적인 생활권에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것은 세력의 성장 과정에서 회유, 설득, 강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권력 확대 전략을 구사하여 추종 집단의 규모를 쉽게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가시성 확보에 유리한 환경은 우산리 내우와 같은 대규모 지석묘 군집을 형성하였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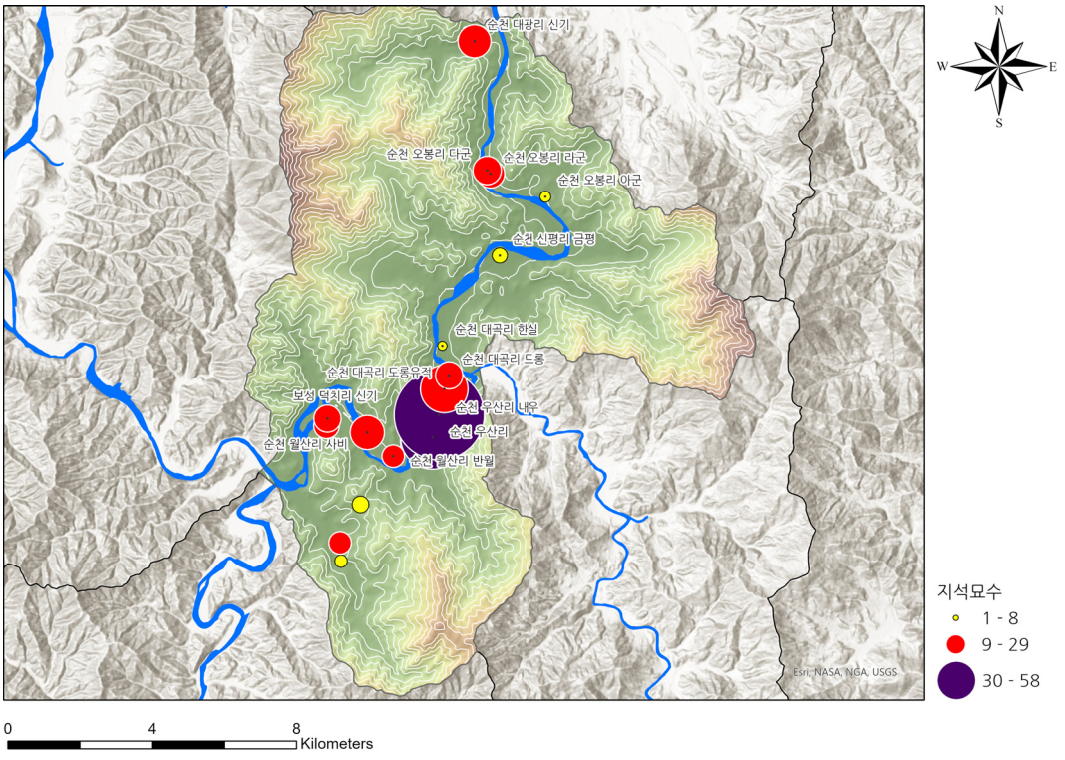


그림 15. 주암댐 유역 내 지석묘군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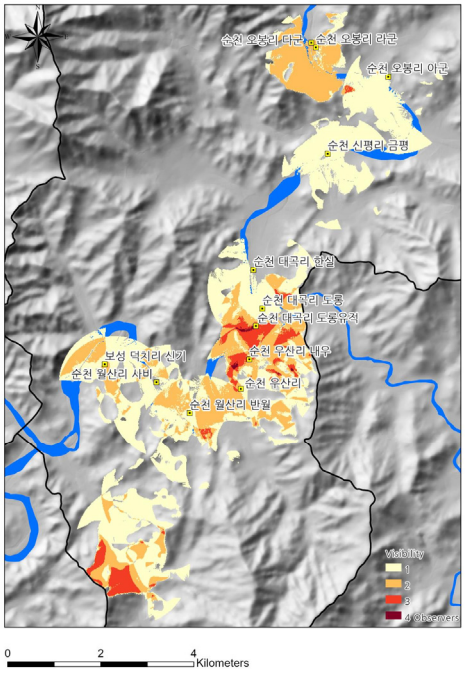


그림 16. 주암댐유역 지석묘군 간 가시권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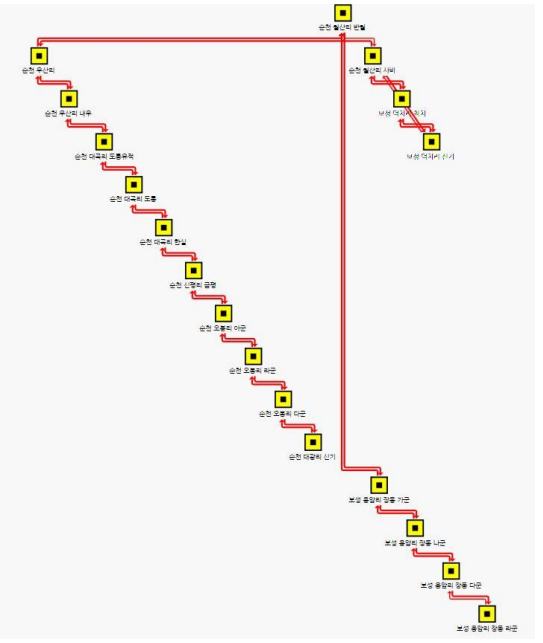


그림 17. 주암댐유역 지석묘 SNA분석결과

표 4. 주암댐 지석묘군 근접중심성

군집명	근접중심성
순천 우산리	10.000
순천 우산리 내우	10.000
순천 월산리 반월	9.710
순천 대곡리 도롱유적	9.710
순천 대곡리 도롱	9.178
보성 용암리 장동 가군	8.481
순천 대곡리 한실	8.481
보성 덕치리 신기	8.171
순천 월산리 사비	8.171
순천 신평리 금평	7.701
보성 용암리 장동 나군	7.363
보성 덕치리 척치	6.907
순천 오봉리 아군	6.907
보성 용암리 장동 다군	6.381
순천 오봉리 라군	6.147
보성 용암리 장동 라군	5.537
순천 오봉리 다군	5.447
순천 대광리 신기	4.820

한편, 우산리 내우는 이와 같은 일상생활권 내의 통제력뿐만 아니라, 국지적 차원에서 정보, 권력, 영향력,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림 17>은 주암댐 내에 분포하는 지석묘군집을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며, <표 4>는 이를 근거로 근접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군집은 우산리와 우산리 내우이다.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공간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접근이 유리한 '글로벌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강동석 2019). 다시 말하면, 우산리 내우를 중심한 지역은 최상위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 구성단위 간의 교류, 물적 자원이나 정보의 교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차별적 조건 하에 우산리 내우는 국지적 차원에서 사회 변동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차원에서도 보성강 유역의 주도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국지적 공간 단위에서 사회적 자원의 확보와 통제력을 지녔던 우산리 내우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차원의 중심 세력으로도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의 정치적 경쟁에서 공간적 위치는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 지역 내에서 중심지역에 위치하는 공동체는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 등 물리적 자원의 접근에 유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경쟁의 성패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김승옥 1998: 22). 이와 같은 공간적 위치의 우위 관계는 앞서 본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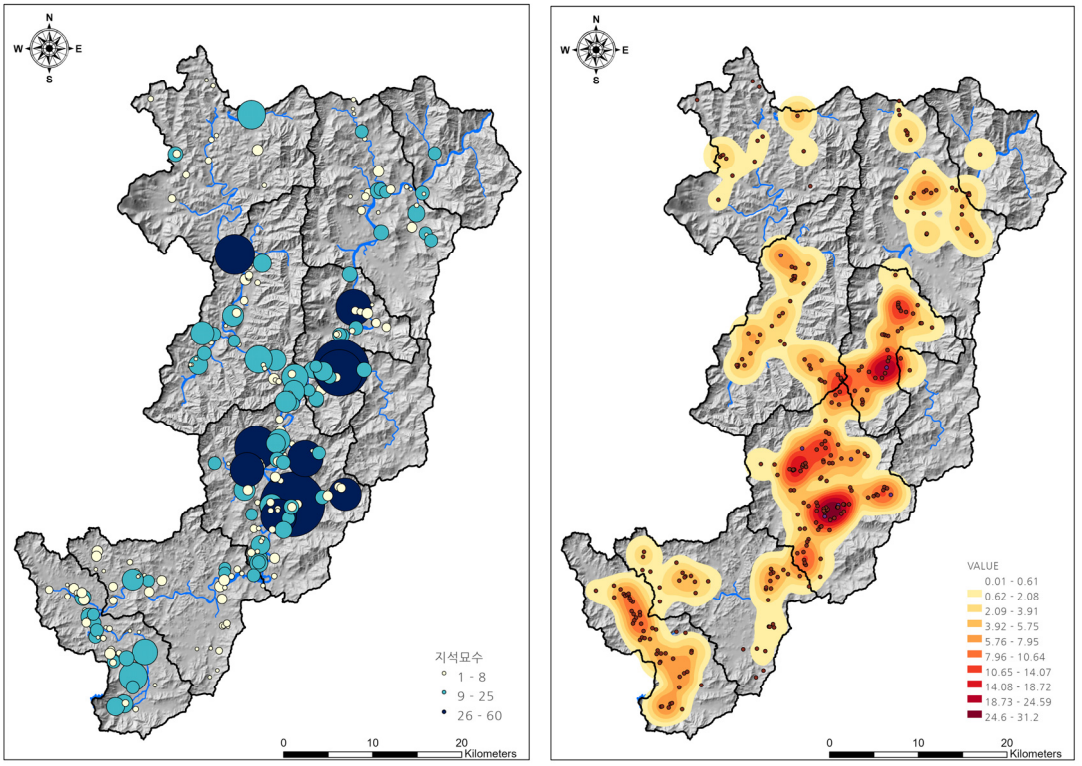


그림 18. 섬진강 유역 지석묘 군집 규모와 지석묘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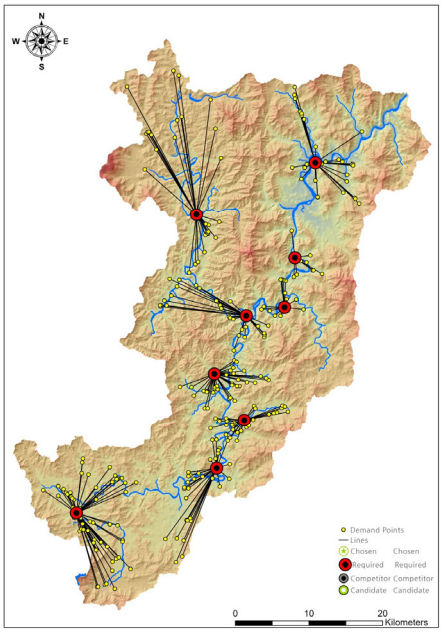


그림 19. 섬진강유역 지석묘군 간의 입지-배분모델 분석 결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지석묘 축조 세력 간의 경쟁적 관계를 상정해 보기 위해 <그림 18>과 같이 군집의 규모와 지석묘 밀도를 근거로 대표적인 지석묘군을 설정하였다. 대표 군집은 모두 9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대표 군집이 국지적 차원에서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전제 하에 주변 지석묘군과의 상호 작용을 입지-배분 모델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그림 19). 입지-배분 모델에 적용한 함수는 최대커버함수(Maximize Coverage)로 각각의 대표 군집을 중심으로 모든 지석묘가 연계되도록 설정하였다. 지석묘 군집의 크기와 밀집도는 인적 자원의 집중과 상호작용 강도의 크기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보나 물적 자원의 유통에 차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각 대표 군집의 축조 집단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국지적 차원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심지들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상호 경쟁 또는 연대하며 물적 자원이나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정치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섬진강 유역 지석묘 사회의 네트워크로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유통되었던 것은 비파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외래품이었으며, 송국리문화의 장송의례, 농경과 관련한 선진 기술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섬진강 유역 지석묘 사회의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높고, 지역적 차원의 조직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은 <그림 20>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 이곳은 동복천, 보성강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 일대와 보성강-고흥반도를 연계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각각 우산리 내우와 덕치리 신기, 문양리 양지가 위치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섬진강 유역에 우산리 내우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외에 보성강 상류에 위치하며 전남 남해안 지역과 교류하고 있었던 문양리 세력 등, 2개의 중심 집단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들 중심 세력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외래품 입수나 정보 접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주체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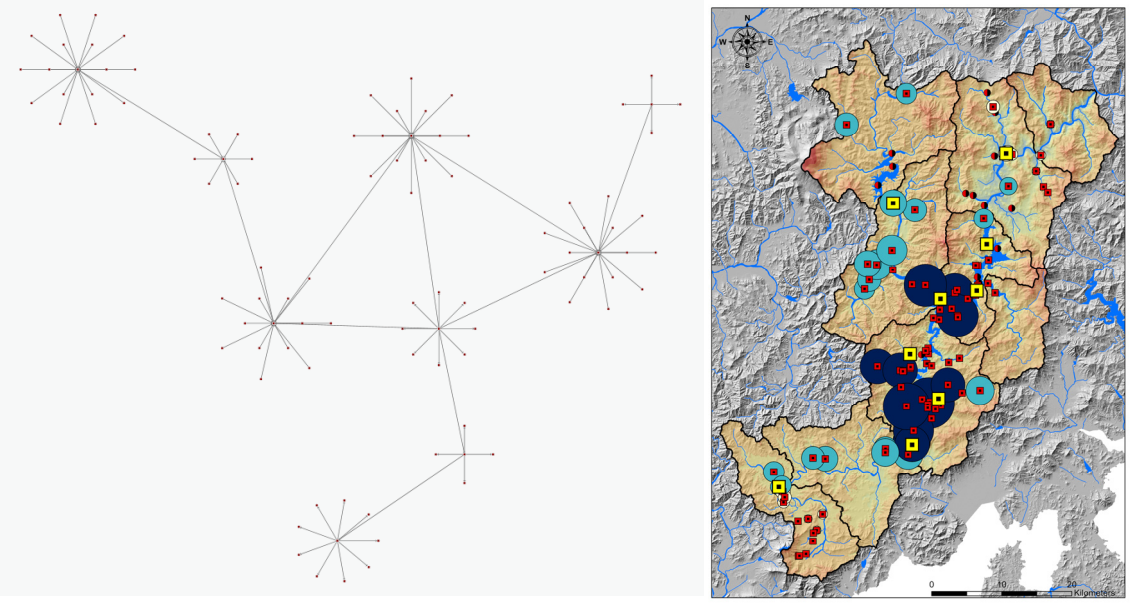


그림 20. 섬진강유역 사회 네트워크망와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2) 네트워크망은 소군집의 경우, 근접한 중군집과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여 네트워크 조직망 구성 시 제외하였다. 즉, 지석묘 군집 규모와 밀도를 기준으로 선정한 중심지석묘군과 중군집 지석묘 간의 상호작용망을 구성하였다.

Ⅴ. 맺음말

이상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간취되는 문화적 동질성과 사회 내부의 역동성, 그리고 국지적·지역적 경쟁 관계 속에서 대규모 군집을 형성하였던 단위공동체의 성장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석묘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지석묘와 유물의 형식 분류, 지석묘의 입지와 분포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를 기초로 계기적 발전 단계를 설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석묘 축조라는 매장의례를 공유하고 있었던 섬진강, 탐진강 유역 사람들의 전통적 가치 공유 양상과 역동적 사회 변화상을 검토해 보았다.

지석묘 형식에 대한 재검토에서는 묘곽의 축조와 외형의 완성에 주목하여 매장의례 문화의 공유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유역은 석곽형, 혼축형, 석관형, 위석형의 축조 비율이 거의 동일하였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시신 안치 공간의 축조 기술과 매장 풍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두 유역권은 기반식의 비율도 대체로 일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석을 설치하여 외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망자에 대한 기억과 영속적 지위를 상기시키려는 매장의례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섬진강·탐진강 유역의 지석묘군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군집 패턴은 시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정치권력의 규모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권력의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섬진강·탐진강 유역 지석묘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 준다. 특히, Ⅰ유형에서는 열상의 지석묘 배치로 대변되는 전통적 사회 질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치권력의 등장을 차별화하는 한편, 공동체의 매장의례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을 시도한 사회구조의 재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밖에 Ⅱ유형과 Ⅲ유형에 나타난 공간 순서는 유력 개인 또는 집단의 전통적 가치 추구 의지와 기념물 축조를 통한 또 다른 방식의 사회 질서 유지와 공동체성 강화 전략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섬진강유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Ⅰ유형과 같이 섬진강·탐진강 유역에서 역동적 성격의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집단이 국지적·지역적 차원에서 위신재와 선진 기술, 정보를 통제하는 중심 세력으로서 공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諸공간적 차원에서 특정 집단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외부 집단과 연계된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물류, 교통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단위공동체가 좀 더 역동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한 정치권력의 확대 전략 구사를 통해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석묘 군집 패턴과 군집의 규모 등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석, 2012, 「GIS를 이용한 남한지역 지석묘의 분포현황 분석」, 『동북아시아 지석묘』 4,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강동석, 2019, 「지석묘사회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 검토 - GIS와 SNA를 이용한 영산강중류역과 여수반도의 비교-」, 『한국상고사학보』 105, 한국상고사학회.

김경택, 2004, 「보성강 유역 지석묘사회의 연구 -지석묘 피장자의 위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주류성.

김규정, 2019,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일고찰 -섬짐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62, 호남고고학회.

김승옥, 1998, 「복합사회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일례」, 『호남고고학보』 8, 호남고고학회.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무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송국리 유적 형성과정에 대한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적 접근-」, 『국사관논총』 104, 국사편찬위원회.

김진영, 2010, 「청동기시대 탐진강유역의 문화교류 양상과 교통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박덕재, 2012, 「보성강유역 지석묘문화에 대한 연구 -주암댐 수몰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준호, 2009, 「호서지역 마제석검의 변화상」, 『호서고고학』 20, 호서고고학회.

얼, 티모시(김경택 역), 2008, 『족장사회의 정치 권력』, 도서출판 考古.

이영문, 1987, 「전남지방 지석묘의 성격 -분포 및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20, 한국고고학회.

이영문, 1997, 「전남지방 출토 마제석검에 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24, 한국상고사학회.

이영문, 1991, 「한반도 출토 비파형동검 형식분류 시론」, 『박물관기요』 7, 단국대학교.

이영문, 1993a, 「전남지방 지석묘사회의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문, 1993b, 「전남지방 지석묘사회의 영역권과 구조에 관한 검토」, 『선사와 고대』 5, 한국고대학회.

이영문, 2002a,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 주류성.

이영문, 2002b,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이재운, 2011,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검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철, 2012,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특징과 편년」, 『호남고고학보』 42, 호남고고학회.

이종철, 2015, 「섬진강 본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특징」, 『선사와 고대』 46, 한국고대학회.

피어슨, 마이크 파커(이희준 역), 2009, 『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

조진선, 2004, 「전남지역 지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분류 시론 -1990년대 이후의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43, 한국상고사학회.

조진선, 2008, 「탐진강유역권 지석묘의 형식과 변천」, 『호남고고학보』 30, 호남고고학회.

지건길, 1990, 「호남지방 고인돌의 형식과 구조」, 『한국고고학보』 25, 한국고고학회.

최성훈, 2015, 「전남 동남부지역 지석묘사회 변천과정」, 『한국청동기학보』17, 한국청동기학회.
황재훈, 2006, 「전남지방 지석묘의 형식분류와 변천 -개별 지석묘군의 축조순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상고사학보』53, 한국상고사학회.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서고고학』20, 호서고고학회.
황재훈, 2012, 「섬진강유역 지석묘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75, 한국상고사학회.

1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한 수 영
호남문화재연구원

Ⅰ. 머리말
Ⅱ.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특징
Ⅲ.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Ⅳ. 향후 논의과제
Ⅴ. 맺음말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한 수 영 (호남문화재연구원)

Ⅰ. 머리말

불과 20여년 전 까지만 해도 초기철기시대 자료는 간헐적으로 발견된 적석목관묘에 불과하였으며, 전적으로 자료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고고학 연구의 미씽링크로 불려 왔다. 호남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호남지역에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알려진 것은 100여년 전으로 1920년 일제 강점기에 완주 상운리 근처에서 세형동검이 수습보고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광주 신창동 옹관묘가 발굴조사되었고,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세형동검과 동과 등 다수의 청동유물이 신고되었다. 70년대에는 화순 대곡리와 완주 상림리유적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80년대 후반에는 함평 초포리유적과 광주 신창동, 해남 군곡리유적 등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완주 갈동과 신풍유적, 나주 구기촌유적 등 다수의 분묘유적이 조사되면서 현재는 한반도 초기철기문화 연구에 있어 호남지역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호남지역의 초기철기문화는 점토대토기문화와 세형동검문화가 조성된 후에 철기가 들어오면서 완성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유물은 점토대토기이다. 호남지역은 지형과 수계를 기준으로 만경강유역권, 고창과 영광의 서해안권,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동부내륙을 포함한 섬진강유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유적은 만경강과 영산강의 중상류에 밀집되어 있다. 해안과 인접한 강의 하류가 아니라 중상류에 유적이 밀집 조성된 것은 점토대토기문화가 서해를 통해 들어와 내륙수로인 강을 주 교통로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본고에서는 점토대토기를 기준으로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전개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논의점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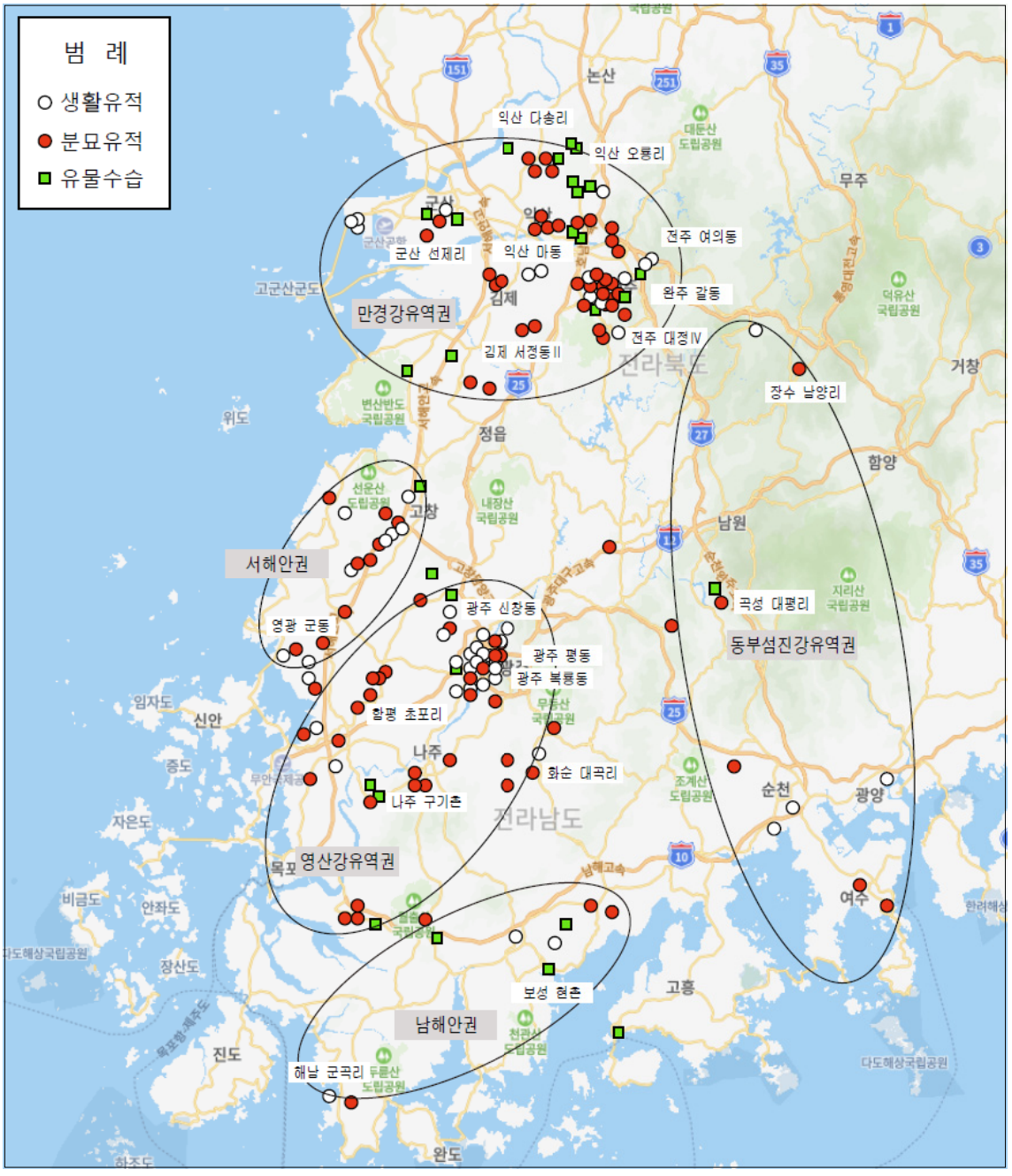


그림 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유적 분포현황

표 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

(주:주거지, 수:수혈, 토:토광(목관)묘, 적:적석목관묘, 옹:옹관묘, 지:지석묘, 석:석관묘)

구분	유적명	조사내용			구분	유적명	조사내용		
		생활유적	분묘유적	기타			생활유적	분묘유적	기타
만경강유역권	완주 상운리	주4,수3			동부섬진강유역권	고창 황산	수1		
	완주 운교	주1				영광 군동	주1	주구토1,토2	
	완주 갈산리	주2,수3	옹2			진안 군상리	주1		
	완주 덕동	수8,구13	토7			장수 남양리		적5	
	완주 둔산리 서당		토25			순창 동촌		토1	
	완주 수계리 청등		토5			곡성 대평리	주,수,구	주구토11,토1	
	완주 신풍	소성유구	토81			곡성 공북리		지1	
	완주 신풍			유물포함층		곡성 연반리		지1	
	완주 갈동	수2, 구상유구1	토17			순천 덕암동			패총
	완주 용흥리	수2				순천 연향동 대석	주3		
	전주 반월동		토3			순천 평중리 평지		지1	
	전주 여의동		석개토1			순천 대곡리	주		
	전주 만성동·여의동		토3,적4			여수 안골		지4	
	전주 만성동		토1			여수 웅천동 웅동		토1	
	전주 원장동		토5		영산강유역권	광주 신창동	구	옹53	저습지, 가마
	전주 중동	주5, 수4		유물포함층		광주 금호동	수1	토1	
	전주 중동C		옹1	유물포함층		광주 수문	주1,수3		
	전주 중동A	주1,수12,구19		유물포함층		광주 신촌	수22		
	전주 정문동	수7,구9				광주 오룡동	구3		
	전주 안심	주2				광주 치평동	구2		
	전주 마전	수6,구6	토1			광주 평동	주9,수혈군	토1	
	전주 효자4		적1			광주 매월동		지4	
	전주 중화산동		토15			광주 운남동		옹4	
	전주 대정Ⅳ	주9,수5				광주 관등	수1	토1	
	전주 평화동 대정	수1				광주 성덕		토7	
	전주 중인동		토9			광주 뚝뫼	주1		
	전주 중인동 하봉		토1			광주 수문		토1	
	전주 척동	수1				광주 하선	수3		
	익산 구평리Ⅳ	수1	옹			광주 장자		옹3	
	익산 구평리Ⅱ		토4			장성 월정리		토2	
	익산 서두리1	수1,구1				장성 환교		토1	
	군산 선제리		적1			나주 복암리	수23		
	군산 건장산		옹1			나주 운곡동	주1,수7	지1	
	익산 다송리		적1			나주 월양리		지1	

구분	유적명	조사내용		
		생활유적	분묘유적	기타
	익산 오룡리		토4	
	익산 신동리		토3	
	익산 마동		토33,옹14	
	익산 송학리		토1	
	익산 평장동		토1	
	익산 계문동		토1	
	익산 어양동		옹1	
	익산 부송동 석치		토4	
	익산 광암리·동촌리	주1.수6		
	김제 서정동		토5	
	김제 서정동Ⅱ		토6,옹4	
	김제 산치리		토1	
	김제 수록리		토7	
	김제 부거리		토1	
	김제 반월리	주4,수8,구2		
	김제 석담리	구3		
	부안 원천리	수7		
서해안권	정읍 정토		토2	
	정읍 백양		토1	
	고창 율계리	주1		
	고창 왕촌리		석1	
	고창 죽림리		지1	
	고창 산정리	수7		
	고창 성남리	수3,구1		
	고창 교운리	수1		
	고창 연수동			유물포함층
	고창 운곡리			유물포함층

구분	유적명	조사내용		
		생활유적	분묘유적	기타
	나주 운곡동	수13	지2	저습지
	나주 도민동		토1	
	나주 구기촌		토10	
	나주 수문	수2		패총
	함평 자풍리	수11,구3	토1	가마
	함평 고양촌	수24		
	함평 마산리 표산		토1	
	함평 상곡리		석6,적1	
	함평 초포리		적1	
	함평 당하산		토1,옹3	
	함평 소명동	주1		
	무안 인평		옹1	
	영암 엄길리		지1	
	영암 장천리		지1	
	영암 서호리		지1	
	화순 백암리	주1	적1	
	화순 황새봉	주3		
	화순 내평리		토1	
	화순 대곡리		적1	
남해안권	해남 황산리		석1	
	해남 군곡리	주1		패총
	강진 수양리		지1	
	장흥 행원	주1		
	장흥 송정		지1	
	장흥 갈두	주3		
	장흥 신풍	수2		
	보성 우산리 현촌		토3	

Ⅱ.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특징

1. 생활유적

생활유적은 유구의 성격상 주거지와 수혈·구·유물포함층·패총 등으로 구분되며, 만경강유역은 생활유적보다 분묘유적이 많고, 영산강유역은 분묘유적에 비해 생활유적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대규모 취락유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거지 가운데 5~10기 내외의 군집을 이루는 유적은 전주 중동과 대정Ⅳ·광주 평동유적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2기 내외의 소규모 단위이다. 주거지는 형태에 따라 원형과 말각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와 말각장방형의 수석리식주거지, 방형과 타원형 주거지로 나눌 수 있다.

점토대토기 유적은 군산 도암리나 완주 운교유적과 같이 송국리형주거지군 가운데 1~2기에서 점토대토기나 두형토기가 소량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송국리형주거지는 초기철기시대로 오면서 퇴화·소멸되는데, 지역에 따라 그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거지의 깊이가 낮아지고, 평면형태는 원형에서 말각방형으로 바뀌며, 바닥중앙에 타원형수혈과 중심주공이 있는 전형적인 형태에서 중심주공이 없어지고 타원형수혈만 있다가 이마저도 소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타원형수혈 자리에 노지로 추정되는 소토부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만경강유역은 원형에서 말각방형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영산강유역은 말각방형이 많은데, 이는 금강유역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방형이 증가하는 송국리문화 양상(이종철 2015:102-103)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각방형에 타원형수혈이 퇴화된 양상은 완주 상운리와 갈산리유적에서 나타나며, 광주 평동유적에서는 말각방형에 타원형수혈과 중심주공이 있다가 중심주공이 소멸되는 과정이 확인된다.

수석리식주거지는 그동안 경기도와 호서지방에서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가 호서지방보다 늦게 출현하는 근거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전주 평화동 대정Ⅳ유적에서 수석리식주거지군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대정Ⅳ유적은 만경강의 지류인 삼천유역의 충적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좁은 범위에 1기의 송국리형 주거지와 수석리식으로 불리는 9기의 말각장방형계 주거지, 수혈 5기가 밀집분포하고 있다[1]. 주거지의 규모는 장축 450~500㎝, 단축 330~430㎝, 면적 17~19㎡ 정도이나, 서남쪽에 위치한 6호는 장벽 길이 920㎝, 면적 49㎡의 대형을 이루며, 6호를 중심으로 등고선을 따라 3~4기 내외의 소형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장축선상을 기준으로 1기에서 2기 내외의 노지가 있으며, 소형 주공과 부분적으로 벽구가 시설되어 있다. 출토된 유물은 송국리식 토기 외에 원형점토대토기옹·흑도장경호·두형토기·완·석제 검파두식 등이 공반되었다(그림 2).

1) 전주 평화동 대정Ⅳ유적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의하면 송국리형주거지는 2470±40BP(보정연대 BC770~BC430), 말각장방형계 주거지는 2570±50BP(보정연대 BC830~BC540)에서 2430±40BP(보정연대 BC600~BC400)로 측정되어, 말각장방형 주거지와 송국리형주거지가 동시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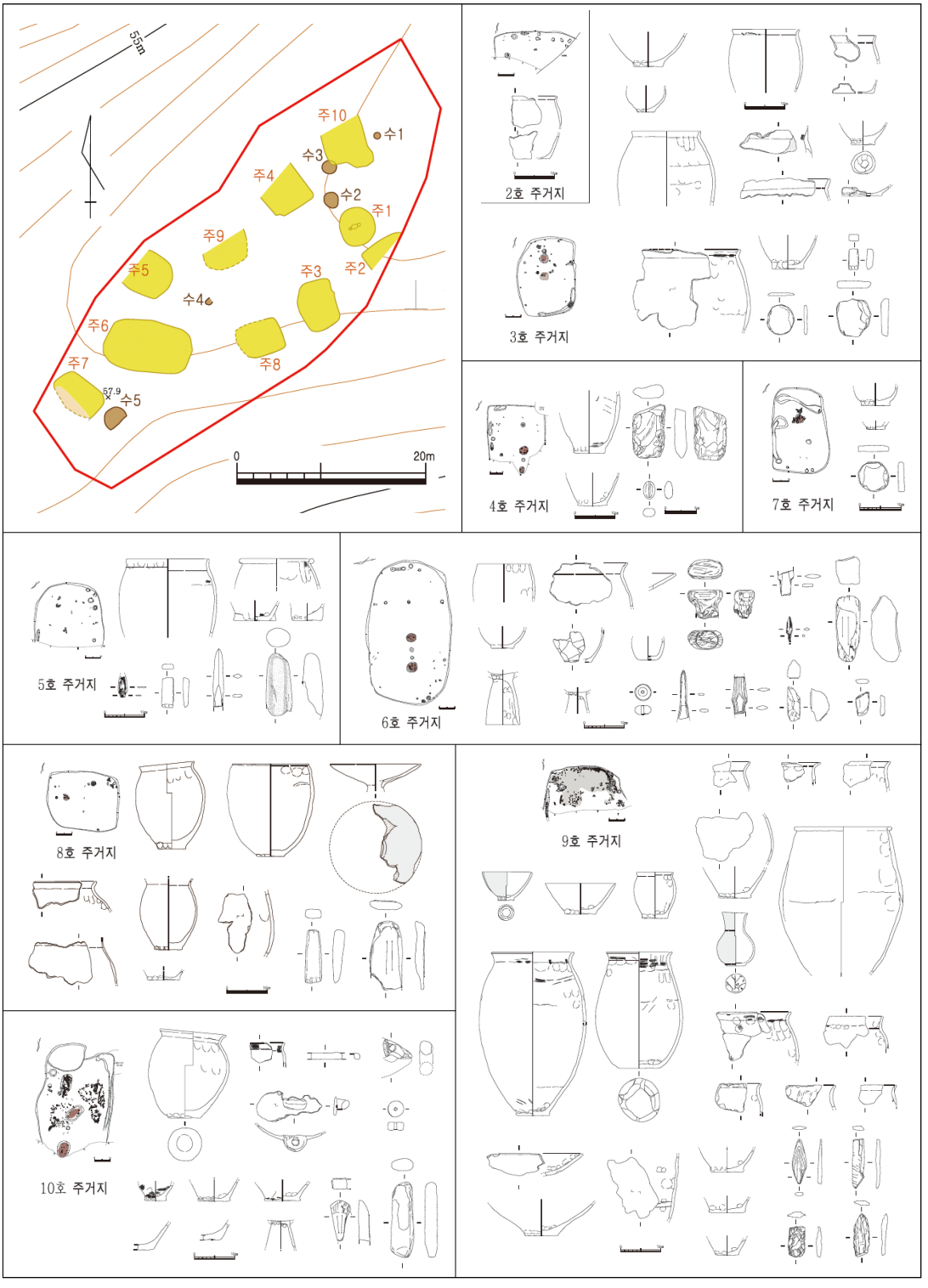


그림 2. 전주 평화동 대정Ⅳ유적 말각장방형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타원형 주거지는 전주 안심유적과 진안 군상리, 곡성 대평리, 광주 평동 등에서 확인되는데, 곡성 대평리 1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이 시설되어 있다. 타원형의 평면형태는 섬진강유역권에서 주로 확인되며, 이 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서부지역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출현하고 있다.

방형 주거지는 전주 중동유적이 대표적으로, 기존의 송국리형 주거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전형적인 점토대토기 주거지로 의미가 있다. 주거지는 구릉의 사면부에 약 250m의 범위에 걸쳐 모두 5기가 조성되었다. 중앙부에 소형의 주거지 3기와 수혈 4기가 밀집되어 있고, 동서 양쪽으로 약 100m 정도 거리에 대형의 주거지가 각각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소형과 대형의 구분이 뚜렷한데, 소형은 한 변의 길이가 200~300㎝, 면적 5.4~7.6㎡를 이루고, 대형은 한 변이 500~680㎝, 면적은 32~36㎡를 이룬다. 잔존 깊이는 70~128㎝로 깊은 편이며, 내부시설은 2기에서만 부정형의 바닥수혈과 외부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원형과 삼각형 점토대토기·두형토기·조합식우각형파수 등 주변 일대의 유적과 동일하나, 편평삼각석촉 21점이 출토되어 특징적이며, 주거지 하단부의 유물포함층에서 기와와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수혈유구는 대정Ⅳ·중동·평동유적에서는 주거지군과 같이 조성되고, 내부에서 목탄이 검출되어 저장기능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의 수혈유구는 규모나 형태가 다양하고, 유실이 심해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영산강유역에서는 평동유적을 비롯해 광주 신촌과 함평 고양촌유적과 같이 수혈유구가 집중된 양상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일부 수혈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주 운곡동 Ⅱ-7호 수혈은 부정형의 평면에 소토와 탄화곡물을 비롯하여 흑도장경호 등이 출토되어 의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유구가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특정유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구는 만경강유역에서 보다 많이 확인된다. 만경강유역에서도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는데, 갈동유적은 등고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구상유구로 부를 수 있으며, 전주 정문동과 중동A유적은 경사면과 나란하고, 인위적으로 굴착한 흔적이 없으며, 출토된 유물 역시 대부분 소형편으로 유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혈유구나 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로 주거지 출토유물과 동일하며, 완만한 사면부에 유수에 의해 구가 형성될 정도면 당시 구지표가 경작이나 생활면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주거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혈유구나 구가 분포하는 지역에는 동일한 구역에서 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분묘유적

세형동검이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분묘로는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진 석관묘·지석묘가 있고,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주구토광묘가 등장하고 있지만, 주를 이루는 유형은 토광(목관)묘와 옹관묘, 적석목관묘이다.

토광(목관)묘는 초기철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며, 특히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주로 구릉의 서사면과 남사면에 분포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지형을 따라 사면과 나란하게 위치하다가, 점차 등고선과 평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시간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10㎝ 정도의 소형부터 380㎝의 대형까지 다양하며, 잔존깊이 역시 20㎝

미만부터 180㎝ 정도까지 편차를 보인다. 묘광 내부는 관의 유무에 따라 직장묘와 목관묘로 나뉘고, 목관묘는 다시 판재관과 통나무관으로 구분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토광(목관)묘는 묘광의 규모가 작고, 직장묘가 주로 조성되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고, 묘광의 규모나 부장품에 있어 무덤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로 갈수록 유적의 군집과 묘광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평면은 세장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넓어지며, 목관의 빈도가 높고, 부장품이 풍부해지면서 무덤간의 격차가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한수영 2011:8-16).

주요유적으로 만경강 상류의 완주 둔산리·수계리, 전주 중인동·중화산동유적이 있으며, 중상류역에 완주 갈동과 덕동·신풍, 전주 반월동·원장동유적 등이 밀집되어 있다. 중류와 하류에는 익산 신동리와 마동유적을 비롯하여, 김제 서정동·수록리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서해안권에서는 정읍 정토와 백양유적에서 비교적 시기가 이른 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영산강유역권에서는 장성 월정리와 나주 구기촌이 대표적이다.

옹관묘는 지석묘·석관묘 등과 함께 송국리문화를 대표하는 분묘의 유형으로 청동기시대에는 단옹직치나 단옹사치의 형식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오면서 이옹횡치, 혹은 단옹횡치 등 횡치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료의 증가로 청동기 중기 이후부터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유적인 전주 동산동에서는 단옹직치와 단옹사치 뿐 아니라 이옹횡치와 이옹직치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옹관의 형태가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수영 2017:7-8). 옹관으로 사용된 기종은 다양한 크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옹과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봉상파수부호, 발형토기, 시루 등이 사용되다가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옹형토기와 호형토기 중심으로 바뀌며, 동일한 기종이라 하더라도 부장용으로 사용된 토기보다 크기가 큰 편이다.

옹관묘는 만경강과 영산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토광(목관)묘에 비해 수량이 많지 않고,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만경강유역은 상류에 비해 유적 조성시기가 늦은 중상류와 하류를 중심으로 1~2기 내외로 확인되다가, 김제 서정동Ⅱ유적이나 최근 조사된 익산 마동유적과 같이 옹관묘의 수량도 증가하며 토광(목관)묘와 동일한 묘역에 조성된다. 영산강유역에서는 함평 당하산과 광주 신창동유적이 대표적이다.

점토대토기나 세형동검 등이 부장되는 지석묘는 영산강유역권을 비롯해 서해안권·섬진강유역권·남해안권에서 확인되며, 석관묘는 고창 왕촌리와 함평 상곡리유적에서 흑도장경호와 경형동기 등이 출토되어 송국리식 무덤에 새로운 유형의 유물이 부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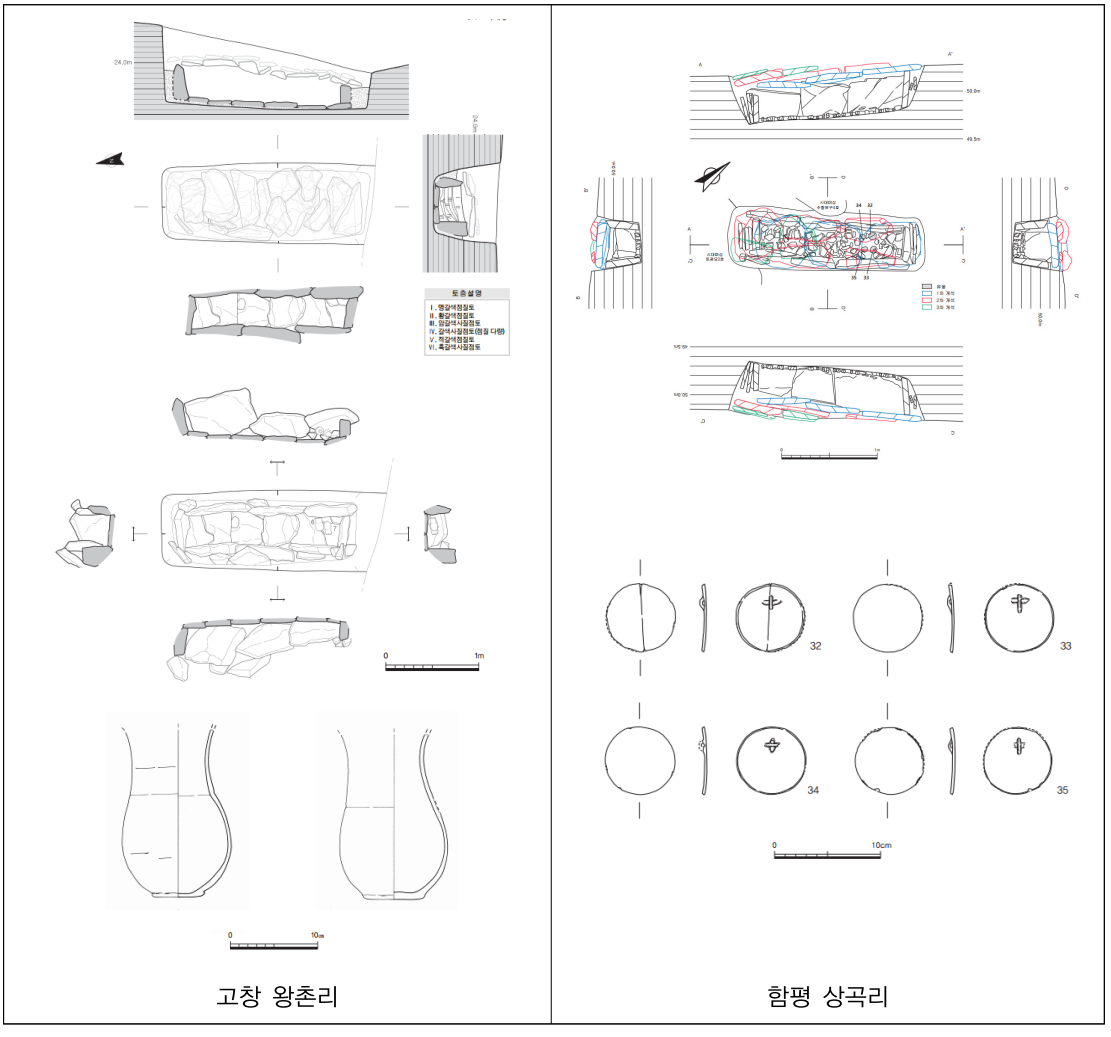


그림 3. 고창 왕촌리 · 함평 상곡리 석관묘와 출토유물

다량의 부장품이 출토되어 수장층의 상징으로 알려진 적석목관묘는 초기철기시대를 특징짓는 분묘의 대표유형이다. 그러나 적석목관묘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가 많았으며, 용어 자체에 석관묘·적석석관묘·석곽묘·적석석곽묘·목관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함평 초포리유적 보고서에는 ① 토광을 깊게 한 뒤 할석으로 네 벽을 쌓아 석관을 만들거나 목관과 묘광 사이를 할석으로 메우고, ② 관과 묘광의 뚜껑을 나무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고, ③ 상부에 적석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④ 지하 2m 정도 깊이에 바닥을 설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무덤을 적석석관묘(또는 적석목관묘)로 명명하고 있으나, 유구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적석목관묘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적석목관묘 유형은 새로운 물질문화의 유입과 함께 아직 초기철기문화가 정형성을 갖추기 전에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금강유역, 만경강유역, 영산강유역 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후 초기철기문화가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토광(목관)묘가 주 묘제로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적석목관묘는 규모도 줄어들고, 적석이나 이단 굴광의 특징도 약해지면서 점차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형식이나 용어를 세분해서 접근하기 보다 초기철기시대 전기 다량의 유물이 부장되는 유형의 무덤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호남지역에서는 만경강유역과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만경강유역에서 적석목관묘로 분류된 무덤은 익산 다송리, 군산 선제리, 전주 효자4유적, 전주 만성동·여의동 원만성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군산 선제리를 제외하면 유물의 부장이 많지 않고, 오히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무덤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영산강유역은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 화순 백암리유적 등이 있으며, 팔주령·쌍두령·조합식쌍두령 등의 청동방울과 정문경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Ⅲ.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유구와 출토유물을 통해 그 흐름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원형 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는 유적에서 원형과 삼각형이 공존하는 유적, 삼각형 점토대토기 일색인 유적으로 전개되며, 주요유적을 기준으로 크게 4단계로 전개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 Ⅰ기-원형점토대토기의 유입

점토대토기문화가 호남지역에 유입되는 단계로 재지문화인 송국리문화에 원형점토대토기군을 비롯하여 이형청동기와 조문경 등의 외래문화가 공반된다. 만경강유역에서는 군산 선제리와 전주 평화동 대정Ⅳ·여의동·중인동유적 등이 있으며, 서해안권역의 정읍 정토와 고창 왕촌리, 영산강유역의 함평 상곡리유적을 들 수 있다. 유적은 대부분 송국리문화권에 조성되고 있어 점토대토기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유이민 집단과 기존의 송국리문화 집단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두 문화가 융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송국리형주거지와 수석리식주거지로 구분되며, 군산 도암리와 완주 운교 등에서는 내주공과 타원형수혈을 갖춘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에 원형 점토대토기나 두형토기편이 소량 공반된다. 수석리식주거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으로 초기철기시대 유적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원형 점토대토기나 소형의 흑도장경호, 배신이 사선을 이루는 단각 공심형 두형토기, 환상과 조합식파수 등이 공반되는데, 점토대토기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고 대부분 송국리식 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분묘유적은 송국리형 무덤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토광묘가 그대로 사용되거나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새롭게 들어온 유물이 부장된다. 고창 왕촌리와 함평 상곡리는 재지의 석관묘에 소형의 흑도장경호와 경형동기가 부장되며, 군산 선제리에서는 다량의 세형동검과 함께 검파형동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검파형동기의 특징만으로 보면 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군산 선제리-아산 남성리 순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파형동기가 출토된 유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관묘이며,

파손이 심한 예산 동서리를 제외하면 대전 괴정동이나 아산 남성리는 묘광의 길이가 310~330㎝, 너비 180~280㎝, 깊이 200~240㎝의 규모를 이루고 있어 함평 초포리 보고서에 제시된 적석목관묘의 특징에 부합된다. 그러나 군산 선제리는 길이 219㎝, 너비 64㎝, 깊이 54㎝로 묘광의 규모가 작고, 할석을 주로 사용하는 적석목관묘와는 차이가 있으며, 판상형 석재로 조성되어 구조상 석관묘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완주 반교리와 전주 여의동에서는 기존의 무덤보다 규모가 대형화된 석개토광묘에 목관이나 흑도장경호·조문경·선형동부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송국리식 무덤은 만경강을 경계로 북부는 석관묘, 남쪽은 석개토광묘와 토광묘의 비중이 높고, 석관묘나 석개토광묘에 비해 토광묘가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조성되면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이 초기철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수영 2019:15-16). 토광묘의 전통은 전주 중인동과 중화산동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목관을 사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세장방형의 토광묘에 청동기편이나 점토대토기가 부장된다. 중인동과 중화산동유적은 10여기 내외의 군집양상을 보이지만 부장율도 낮고 유물도 빈약하며, 규모나 부장품에 있어 무덤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입기의 연대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대정Ⅳ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환상파수+조합식우각형파수+단각공심형두형토기 등과 함께 일단경식 석촉 등 보령 교성리 출토유물과 상당부분 비슷하고, 석제 검파두식은 만경강유역에서 확인된 검파두식 가운데 가장 이른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검파두식은 기원전 4~3세기로 편년된다(오강원 2004:15). 또한 호서와 호남지역에서는 배신과 대각이 사선을 이루는 공심형의 단각 두형토기가 공통적으로 가장 이른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대정Ⅳ유적에서는 이러한 두형토기 외에 요령 윤가촌 두형토기와 유사한 대각이 공반되어 이 역시 편년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전주 여의동유적에서 출토된 조문경은 볼록경으로 3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조진선 2008:47), 함평 상곡리에서 출토된 경형동기는 대전 괴정동이나 예산 동서리에 비해 소형으로, 두께가 두껍고 뉴 속성이 변연뉴라는 점에서 중국 동북지방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대전 괴정동류를 모방한 것으로 기원전 3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 있다(오강원 2017:82-83). 따라서 호남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된 시점은 금강유역 보다는 늦지만 큰 시기차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원전 3세기 전엽을 중심으로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중엽경으로 볼 수 있다.

2. Ⅱ기-원형점토대토기의 발전과 청동기의 최성기

점토대토기문화는 호서지방의 원형점토대토기단계, 전북지방의 원형+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전남지방의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로의 변화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Ⅱ기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발전하며, 분묘에 청동유물이 다량 부장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만경강유역의 생활유적은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가 말각방형으로 바뀌면서 내주공이 없어지고, 타원형수혈만 남거나 소토화된 경향을 보인다. 주요 유적으로는 완주 상운리와 갈산리의 주거지가 있으며, 갈동유적의 구상유구도 Ⅱ기에 포함된다. 출토된 유물은 전체적으로 Ⅰ기와 비슷하지만 점토대토기군의 비중이 보다 늘어나고, 석기류는 줄어든다. 영산강유역은 만경강유역보다 한 단계 늦

은 특징을 보이는데, 송국리식 토기와 석제품이 주를 이루는 송국리형주거지에 원형점토대토기가 소량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주 운곡동유적이 대표적이다.

분묘는 적석목관묘와 토광(목관)묘가 주묘제를 이룬다. 만경강유역에서는 석관묘나 이단석개토광묘가 사라지고 전주 만성동·여의동유적에서는 대형 적석목관묘가 조성되며, 전주 원장동이나 완주 덕동유적을 중심으로 토광(목관)묘군이 점차 증가한다. 특히 만경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유적이 집중되면서,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차이를 통해 수장층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영산강유역에서는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유적과 같이 풍부한 유물이 부장된 적석목관묘가 조성된다.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토기류는 흑도소호·흑도장경호·원형점토대토기·대부소호 등 Ⅰ기에 비해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고 있으며, 무문토기도 여전히 부장된다. 가장 큰 특징은 세형동검과 동과·동모 등의 무기류와 장방형동부·유견동부·동사·동착 등의 공구류, 팔주령·쌍두령·간두령·정문경과 같은 의기류 등 수량 및 종류가 풍부한 청동기가 부장된 점이다.

이와 같이 Ⅱ기에는 수석리식 주거지·석관묘·석개토광묘 등이 사라지고, 유적에서 출토되는 송국리식 토기의 비율도 낮아진다. 만경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의 퇴화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영산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가 계속 조영되면서 송국리형주거지에 원형점토대토기군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한다. 빈약한 생활유적에 비해 분묘는 영산강유역에서 적석목관묘가 조성되고, 만경강유역은 토광(목관)묘가 점차 주묘제를 형성해 나간다. 영산강유역을 비롯하여 서해안권과 남해안권에서는 지석묘 혹은 지석묘 주변에서 점토대토기나 청동유물들이 보고되지만, 대부분 소형 편이거나 수량이 적고, 중심군을 형성하지 않아 점토대토기문화의 단계나 성격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Ⅱ기는 세형동검과 정문경을 비롯하여 초기철기 분묘의 시기구분(김진영 2018; 조진선 2005; 조진선 2016, 한수영 2015)과 세형동검·다뉴경·동과·동모·동부 등 세형동검문화가 완성된 시점인 부여 구봉리유적의 연대를 참고하면(김일규 2019), 기원전 3세기 후엽에서 기원전 2세기 초반경으로 편년된다.

3. Ⅲ기-삼각형점토대토기의 발전과 철기의 출현

Ⅲ기가 되면 삼각형 점토대토기와 철기의 출현으로 물질문화의 변동이 확연하게 나타나며, 유적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만경강유역에서는 완주 갈동과 신풍유적을 비롯해 전주 중동·정문동유적 등 생활유적이 조성되며, 영산강유역에서는 신창동유적과 평동유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만경강유역 생활유적은 송국리형주거지가 사라지고 전주 중동유적의 방형주거지가 등장하며, 이외에 중동유적과 인접한 중동A와 정문동유적 등에서 다량의 수혈과 구가 조성된다. 이러한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송국리식 토기에서 본격적으로 점토대토기 일색으로 바뀌면서 이전 단계에 비해 유물 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기종도 다양해진다. 점토대토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지만, 점토대의 단면은 원형·타원형·삼각형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점토대의 단면으로는 유물의 속성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양상은 점토대토기가 소멸하는 Ⅳ기까지도 이어진다. 두형토기는 사선형 배신은 사라지고 완형의 배신부가 주를 이루며, 공심형 단각 외에 실심형 장각 등 다양한 대각이 제작된다. 석기는 편평삼각형석촉이 대부분이며, 토우와 원판형 토제품이 공반된다. 광주 평동

유적에서는 말각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며,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

분묘유적은 적석목관묘가 사라지고, 목관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광(목관)묘군이 주묘제를 이루며, 소량이지만 횡치 합구식의 옹관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분묘에 부장된 토기류는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유사하지만 흑도장경호가 월등히 많고, 동일 기종이라 하더라고 크기가 작아 부장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풍유적에서는 40여 점에 가까운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길이에 비해 전체적으로 폭이 넓고, 동체 역시 편구형을 띠는 신풍유적의 특징적인 흑도장경호가 제작되며, 이러한 기형은 Ⅳ기에 해당하는 김제 서정동Ⅱ유적이나 나주 구기촌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청동기는 간두령을 제외하고 방울류는 사라지며, 공구류부터 점차 철기로 대체된다. 부장품이 줄어든 대신 규모와 입지의 우월성 등에서 수장층의 특징이 반영되는데, Ⅱ기에서는 세형동검과 정문경 등 다량의 청동유물이 수장층의 무덤에 부장되었다면, Ⅲ기에서는 철기의 출현과 함께 청동기가 다량 부장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즉, 철기의 등장으로 위세품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무덤에 부장된 양상으로 볼 때, 정문경의 상징성이 변화하는데, Ⅱ기의 정문경은 한 무덤에 2~3매 정도 다수가 부장되며, 최상급의 청동기와 다량의 유물이 공반되어 수장층의 무덤을 상징하고 있다. 정문경 문양은 세선에 여러 복합문양이 시문되며, 부장된 위치는 피장자의 머리나 상체 쪽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Ⅲ기에는 정문경의 크기나 문양의 패턴이 규격화된다. 대표적으로 완주 갈동 5호와 신풍 가-43호 정문경을 들 수 있으며, 정문경이 부장된 무덤은 규모가 중소형급이고, 공반유물은 없거나 빈약해진다. 정문경의 부장위치 또한 피장자의 하단부나 발치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Ⅱ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규격화된 정문경은 횡성 강림리나 양양 정암리, 일본 약산 등에서도 보이는데, Ⅱ기의 정문경이 수장층의 상징이라면, Ⅲ기의 정문경은 만경강유역이 제작의 중심지를 이루면서 교역의 대상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Ⅲ기의 가장 큰 특징은 철기의 출현으로 주조철부와 철겸, 단조로 제작된 철도자 등이 부장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풍유적 가-57에서는 편평삼각형석촉과 동일한 철촉이 출토되었으며, 가-40호에서는 소형의 철편이 수습되었는데, 이러한 철제품은 자체 제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Ⅲ기는 대규모 군집을 이루는 토광(목관묘)군과 방형 주거지의 조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와 철기로 대표된다. Ⅲ기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로 편년되며,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교류양상은 앞에서 언급한 정문경과 이 시기에 출토된 다양한 외래계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완주 일대의 물질문화는 장수 남양리와 경주 죽동리유적 뿐 아니라 만경강 하류, 고창과 영산강유역으로도 이동하면서 Ⅳ기로 이어진다.

4. Ⅳ기-삼각형점토대토기의 소멸

Ⅳ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소멸기로 만경강유역은 중상류에 위치한 완주와 전주 일대에 유적이 사라지고, 만경강 중하류와 고창과 영광 등의 서해안권,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유적이 조성된다.

생활유적은 중심유적이나 정형성을 보이지 않아 유구의 특징도 뚜렷하지 않다. 김제 반월리유적에서는 주거지·수혈유구·구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는 350㎝ 내외의 말각방형계이며,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2호에서는 노지로 추정되는 소토부가 확인되었다. 섬진강유역권의 곡성 대평리유적 1호 주거지에서도 소토부가 확인되어 이 단계부터 주거지 내에 노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월리유적 수혈은 평면이 원형·타원형·방형 등으로 다양하며, 전체적으로 소토부와 목탄층이 확인되어 소성유구로 보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우각형·봉상형 파수, 시루와 옹형토기, 호형토기, 대각이 낮은 두형토기와 소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고창지역에서는 율계리와 연수동·황산유적 등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시루·두형토기 등이 공반되고 있으며, 영산강유역에서는 신창동유적과 평동유적 등이 계속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 광주 오룡동과 운남동·치평동을 비롯하여 함평 고양촌, 해남 군곡리유적 등 유적의 수량과 분포범위가 증가한다.

분묘는 토광(목관)묘와 옹관묘, 주구토광묘가 조성되는데, 토광(목관)묘는 김제 서정동Ⅱ유적과 최근 조사된 익산 마동, 나주 구기촌유적이 대표적이다. 서정동Ⅱ유적과 마동유적에서는 토광(목관)묘와 옹관묘가 동일한 묘역에 조성되었으며, 특히 옹관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옹관묘는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도 53기가 확인되었는데, 합구된 묘광의 길이는 60~134㎝ 내외를 이루고 있다. 옹관묘는 Ⅲ기에 비해 Ⅳ기 옹관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간적인 변화상을 보이며,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옹관이 모두 소아묘로 조영되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주 구기촌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등과 함께 단조철기, 우각형동기 등이 공반되어 초기철기 분묘 가운데 가장 늦게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조합식우각형파수의 빈도가 낮아지면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점차 외반되는 홑구연으로 변화하고, 파수는 우각형이나 봉상파수가 주를 이룬다. 두형토기는 Ⅲ기에서는 단각·장각 등 다양한 형태의 두형토기가 제작되는 반면, Ⅳ기에는 수량이 적고, 대각의 높이가 낮아지며, 배신의 구경도 줄어드는 소형이 다수를 이룬다. 또한 소량이지만 실심형의 장각과 광나팔형·호선병형 등의 대각부가 제작되고 있어 늦은 시기의 특징을 보이며, 이외에 납작한 뚜껑과 시루가 공반된다.

분묘는 군집을 이루는 양상이 이어지나, 수장층으로 대표되는 무덤의 특징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창원 다호리나 대구 팔달동유적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수장층에 부장되는 유물의 수량은 빈약한 편이다. 따라서 Ⅲ기 이후부터 초기철기문화의 중심세력이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중심세력이 형성되지 않고, 이러한 경향이 기원 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소멸되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만경강유역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기원전 1세기 경을 그 하한으로 볼 수 있으며, 영산강유역은 나주 구기촌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다호리유적과 비교 가능한 우각형동기나 대구 팔달동 101호 출토품과 유사한 삼각형동기 등을 참고하면 기원후 1세기경까지 소멸기로 편년된다.

Ⅳ. 향후 논의과제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는 그동안 세형동검이나 철기문화를 비롯하여 분묘와 생활유적, 패총, 의례와 대외교류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술적으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김경칠 2009; 김규정 2021; 김상민 2020; 김승옥 2016; 김진영 2021; 장지현 2015; 최성락·김건수 2002; 최완규 2014 외). 초기철기문화는 중국 동북지역 뿐 아니라 산동반도와 양자강유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하지만,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자료의 1차적인 해석과 국내의 교류양상 등 아직 많은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기철기시대의 연구과제는 최성락(2000, 2013)에 의해 이미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앞으로 논의점에 대하여 몇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수석리식주거지의 정의

앞에서 살펴본 전주 대정Ⅳ유적은 말각장방형에 장축노가 시설되어 있으며, 원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한 흑도장경호, 환상형파수,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는 최근 아산만유역을 중심으로 한 호서지방 보고서에 의하면 수석리식으로 구분된다.

수석리유형 혹은 수석리식은 이청규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다. 이청규는 당시 양양 오산리와 보령 교성리,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20여기 안팎의 유적을 종합하여 水石里-燕岩山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원형점토대 구연의 심발형토기와 환형손잡이는 수석리식, 원형점토대 구연과 조합식우각형손잡이의 호형토기는 교성리식으로 세분하였다(이청규 1988:72-78). 이후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은 주민이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중국 심양 공주둔 후산 1호 주거지가 그 모델로 제시되었으며(박순발 2003:62-69), 수석리·교성리·반계리 등 수석리유형이 출토되는 유적을 외래계 취락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외래계 주거지에서는 중국 요령지역에서 유입된 벽부노 또는 장축노가 확인되며, 이를 곧 수석리식주거지로 명명하였다(이형원 2015:95-98). 호서지역 보고서에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송국리형(휴암리형)이 아니면 대부분 수석리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전주 대정Ⅳ유적 역시 수석리식주거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정Ⅳ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송국리식 토기가 주를 이루며, 점토대토기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이다. 이러한 양상은 대정Ⅳ유적과 비슷한 아산만 일대에서도 확인되는데, 수석리식으로 명명된 유적의 대부분은 재지의 무문토기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벽부노는 없고 모두 장축노이다. 요동지방의 모델로 제시된 공주둔 후산 주거지는 벽에 붙은 노지의 위치 뿐 아니라 草泥土를 이용한 지상식 구조도 특징적인데, 대정Ⅳ유적이나 아산만 일대 유적에서 확인된 장축노의 형식은 평면 원형계의 토광형과 무시설석이며, 서천 추동리유적은 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수석리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서는 바닥이나 벽가를 따라 소주공이 배치되어 있는데, 노지와 주공 등의 양상은 역삼동유형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박순발도 언급하였듯이 요령지방 점토대토기 주거지는 공주둔 후산유적을 제외하고 비교자료가 없는 실정이다(박순발 2003). 따라서 중국 요령지방 점토대토기 주거지의 양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

았기 때문에 공주둔 후산유적이 점토대토기 주거지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형점토대토기 주거지의 유형을 설정할 당위성은 충분하나 벽부노의 위치만 선택하여 장축노까지 확대해석하고, 노지가 없는 주거지까지 수석리식주거지로 분류하기에는 외래계 주거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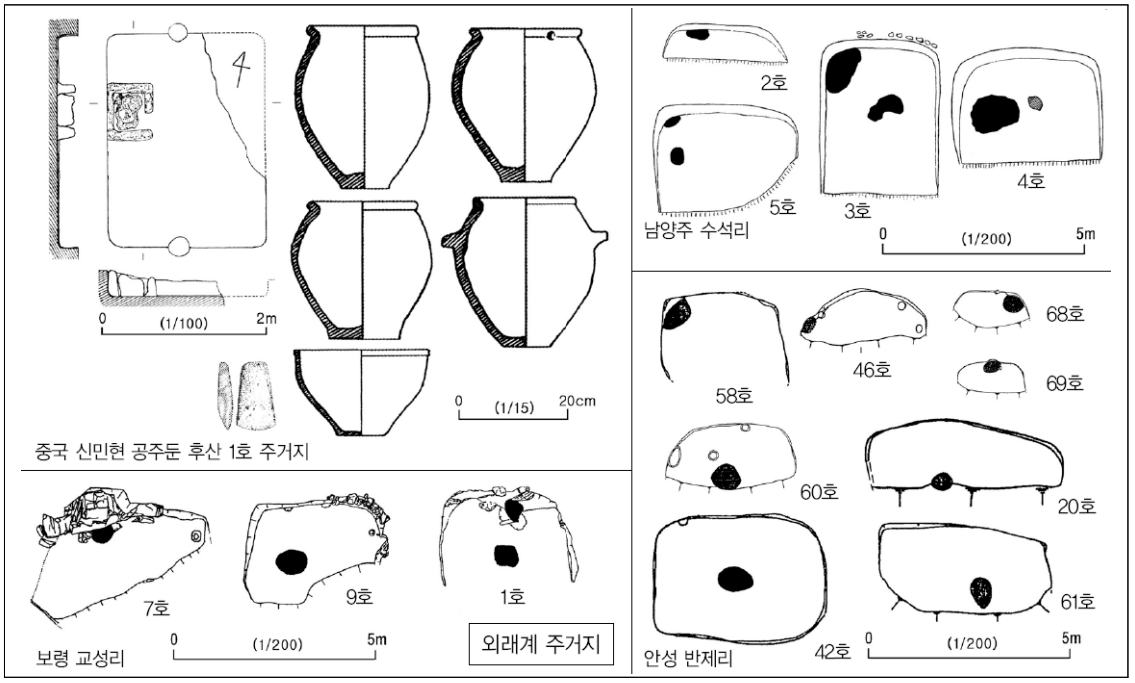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신민현 공주둔 후산 1호 주거지와 수석리식 주거지(이형원 2016, 도면2)

2. 호남지역의 대외교류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대외교류는 중국 동북지방과 관련된 점토대토기군·세형동검·다뉴경, 연나라와 관련된 전국계 철기문화, 세형동검문화의 일본 구주지역 전개양상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 외에도 초기철기시대에는 급변하는 중국 정세 속에서 중국식동검·칠기·철경동촉·화폐·한경 등 다양한 외래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익산 오룡리유적에서 출토된 엽맥문경은 집안 오도령구문과 단동 조가보유적 등과 비교가 가능하며,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는 낙랑토기 및 야요이계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지역 외에 동사의 기원은 중국 남부지방(윤태영 2010), 통나무관은 중국 서남부 지역과의 관련성이 제시된 바 있다(이재현 2003). 한반도 내에서도 서북한 지역 및 평양, 아산만 일대, 금강유역, 영남지방과 관련된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 유물을 제외하고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교류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자료 가운데 청동기 제작과 관련하여 전주 안심, 전주 마전,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는 송풍관이 출토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전주 안심유적과 마전유적의 송풍관은 마

형의 장식 흔적이 남아 있어 영성 소흑석구나 능원 삼관전 중 요서지방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요서지방과의 관련성은 영성 소흑석구 석곽묘와 군산 선제리 출토 검파두식의 부장양상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통해 한반도 검파두식과 소흑석구 유적과의 관련성이 언급된 바 있다(허준양 2013; 한수영 2019). 물론 요서지방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요동지방 외에 보다 다양한 교류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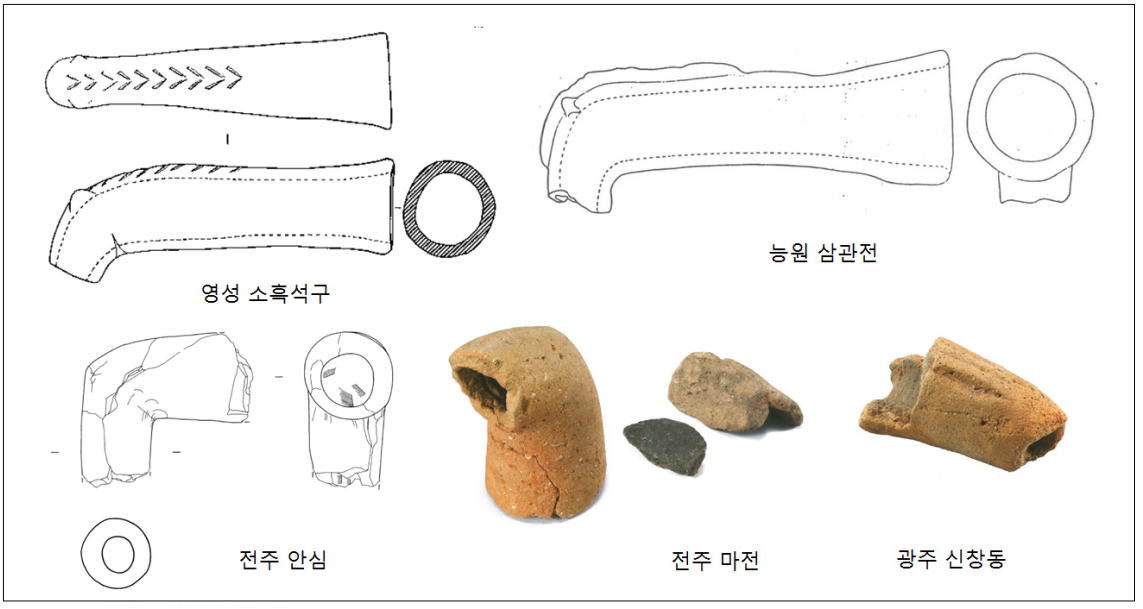


그림 5. 중국 요서지방과 호남지역 송풍관 자료

또한 앞에서 살펴본 전주 중동유적에서는 주거지 하단부에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층에서 평기와 7점이 출토되었으며, 이와 함께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평기와는 모두 암키와로 두께는 1.3~1.7㎝로 얇은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여 점토대 토기와 동일하며, 연질소성으로 색조는 적갈색을 띠고 있다. 무문양으로 측면에는 와도흔이 뚜렷하며, 일부에서는 사절흔으로 추정되는 제작기법이 관찰된다. 그동안 국내 기와는 한사군 설치 이후 평양 일대에서 출토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도 기와의 사용은 일반적이지 않아 자료가 많지 않다. 중동유적의 기와는 지속적인 동북아시아의 대외 교류망 속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기와 자료와 비교검토를 통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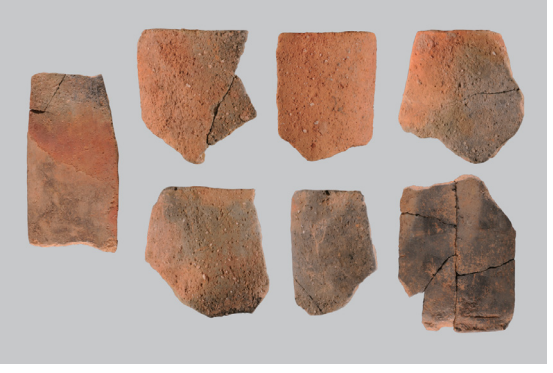


그림 6. 전주 중동유적 평기와

야요이계 토기는 일부 편으로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으나 구연부가 외경하거나 덧붙이는 형태를 보이며, 동체부에는 침선이나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토기는 城ノ越式이나 須玖Ⅰ式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 또한 전주 정문동유적에서 출토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는 편구형 동체를 이루는 다른 파수부호와 달리 동체부에서 급격히 축약되어 저부로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기형도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외래계 유물은 주로 중국이나 북쪽에서 내려온 유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야요이계 토기는 만경강유역의 청동유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국제관계에 있어 상호교류인지, 전파인지 그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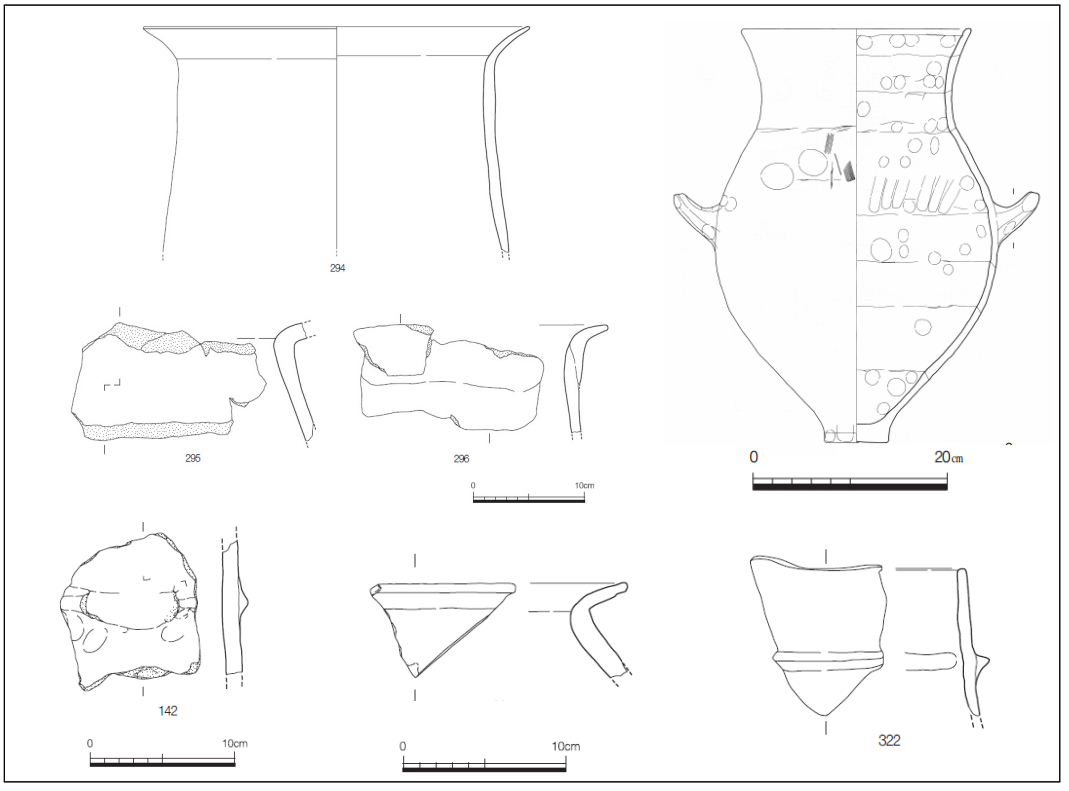


그림 7. 전주 중동 · 정문동(우상)유적 야요이계 토기

3. 제철유적에 대한 연구

초기철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철기의 출현인데, 철기는 그동안 연하도유적이 중심이 되어 전국계 철기의 유입과 그 유입시기가 언제인지에 주로 논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연하도 유적의 연대가 확실치 않다는 반론도 많으며, AMS연대도 연구자마다 의견이 상이하다. 더욱이 유구에 부장된 연대로 볼 것인지 제작된 연대에 기준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도 시기폭이 클 수 밖에 없다.

초기철기유적 가운데 가장 빠른 철기유물은 완주 갈동과 신풍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주조철

2) 편년 자료는 井上主稅, 2006, 「嶺南地方 출토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을 참고하였다.

부와 철겸, 철착, 철사, 철도자, 철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풍유적에서 출토된 철촉은 재지문화에서 보이는 편평삼각형석촉에서 재질만 철로 바뀌었으며, 가-40호에서는 소형 철편이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와 철기의 제작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경강유역에서 제동 이후 제철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며, 이러한 철촉과 철편은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다수의 제철유적이 보고되고 있다(곽장근 2017). 아직 초기철기시대 제철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만경강유역 유적의 부재는 철기가 본격화되면서 제철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초기철기문화가 가장 먼저 유입된 지역에서 철기 제작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앞으로 철기의 제작과 제철유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과 같이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는 전체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유구나 유물의 변화 양상은 만경강유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후 서해안권이나 영산강유역, 동부섬진강유역권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송국리문화의 소멸도 만경강유역에서 먼저 나타나며, 영산강유역이나 동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확인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만경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이 중심을 이루며, 발전과정은 4기로 살펴볼 수 있다.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의 말각장방형계,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지는 전주 중동유적의 방형주거지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타원형수혈이나 내주공이 사라지면서 말각방형으로 바뀌고, 말각방형에서 점차 방형으로의 변화양상을 보인다. 동부섬진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타원형으로 바뀌는 지역적인 특징을 보인다. 노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에서 1~2기의 장축노가 조영되지만 이는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전통으로 이해되며, 삼각형점토대토기 소멸기인 Ⅳ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한다.

분묘는 Ⅰ기에는 송국리식 무덤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토광묘에 점토대토기나 검파형동기· 경형동기 등의 청동유물이 부장되며, Ⅱ기에 본격적으로 적석목관묘와 토광(목관)묘가 조성되면서 세형동검·정문경 등의 풍부한 청동유물이 제작된다. Ⅲ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철기로 대표되며, 토광(목관)묘가 주묘제로 조영되고 청동유물의 부장이 감소하며 위세품이 철기로 대체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따라서 Ⅲ기에 전반적인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준왕의 남래와 그로 인한 마한사회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Ⅳ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소멸기로 무덤군은 조성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수장급의 무덤이 부재하며, 이러한 양상은 기원후 2세기까지 이어진다. 꾸준히 1~2세기 자료도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철기시대 이후 유적의 부재는 제철유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곽장근, 2017,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57.

김경칠, 2009, 『湖南地方의 原三國時代 對外交流』, 학연문화사.

김규정, 2021, 『호남지역 마한 성립기 주거지 일고찰』, 『湖南考古學報』67.

김상민, 2020, 『동북아 초기철기문화의 성립과 고조선』, 서경문화사.

김승옥, 2016,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韓國考古學報』90.

김일규, 2019, 「평장리 출토 漢鏡을 통한 세형동검문화기의 기년 연구」, 『韓國考古學報』111.

金珍英, 2018, 「榮山江流域 鐵器時代 文化 硏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김진영, 2021, 『호남지역 마한시기 패총의 변천과 역사적 함의』, 『湖南考古學報』67.

朴淳發, 2003, 「粘土帶土器文化의 定着 過程」,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9회 추계 학술발표회.

오강원, 2004, 「遼寧~韓半島地域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의 劍炳頭飾 硏究」, 『동북아역사논총』2.

吳江原, 2017,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의 경형동기 연구」, 『한국청동기학보』20.

윤태영, 2010, 「扶餘 九鳳里遺蹟 出土 鉈에 대한 考察」, 『考古廣場』7.

李南珪, 2002,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 樣相-樂浪 設置以前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36.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종철, 2015,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 학연문화사.

李淸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1.

李亨源, 2015, 「住居文化로 본 粘土帶土器文化의 流入과 文化變動-江原 嶺東 및 嶺西地域을 中心으로-」, 『韓國靑銅器學報』16.

李亨源, 2016, 「忠淸西海岸地域의 粘土帶土器文化 流入과 文化接變」, 『湖西考古學』34.

장지현, 2015,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과 특징-생활유적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51.

井上主稅, 2006, 「嶺南地方 출토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硏究』, 學硏文化史.

趙鎭先, 2008, 「多鈕粗紋鏡의 形式變遷과 地域的 發展過程」, 『韓國上古史學報』62.

趙鎭先, 2016, 「多鈕精文鏡의 型式變遷과 意味」, 『韓國上古史學報』94.

趙鎭先, 2016, 「세형동검문화의 일본열도 파급」, 『湖南考古學報』53.

최성락·김건수, 2002,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 배경」, 『湖南考古學報』15.

최성락, 2000, 「호남지역의 철기시대-연구현황과 과제-」, 『湖南考古學報』11.

최성락, 2013,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연구현황과 전망」, 『湖南考古學報』45.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湖南考古學報』39.

韓修英,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硏究」, 全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한수영, 2017, 「완주 신풍유적을 중심으로 본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湖南考古學報』56.

한수영,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문화 전개 양상」, 『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한국청동기학회.
한수영, 2019, 「묘제를 통해 본 점토대토기문화기 호남지역의 전통과 변형」, 『동북아 초기 역사시대 물질문화의 접촉과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
許俊亮, 2013, 「劍把形銅器의 製作技法」,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연구발표자료집』7.

12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김 진 영

고대문화재연구원

Ⅰ. 머리말
Ⅱ. 초기철기시대 편년과 분포유형
Ⅲ. 지형 및 권역 설정
Ⅳ. 유적 검토
Ⅴ. 맺음말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김 진 영 (고대문화재연구원)

Ⅰ. 머리말

초기철기시대는 한국고고학에서 사용되는 시대구분 용어로, 철기시대 초기와 원삼국시대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헌사에 등장하는 실체를 적용하는 등 연구자간 견해가 다양하다. 고고학사전에서 의하면, 청동기시대에 이어서 새로이 유입된 철기문화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즉 한반도에서는 철기의 유입과 이미 정착되어 있던 발달된 청동기문화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초기철기문화에 후기 청동기문화를 포함하여 B.C. 300년부터 서력기원 전후까지를 초기철기시대로 설정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철기시대 초기 또는 초기철기시대란 중원지역으로부터 철기가 수용되는 시기부터 삼한(마한·진한·변한)이 정립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포함하는데, 대체로 기원전 4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1세기 전반까지의 기간을 그 대상 시기로 한다. 이 시대는 토기와 무덤, 금속기 등에서 물질자료의 변화가 확인되고, 이 시대의 묘제로는 석관과 목관이 알려져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앞 시기의 묘제인 지석묘가 부분적으로 잔존하는데, 대부분은 석관묘와 목관묘이다(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2009).

초기철기시대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뚜렷한 정치체가 형성된 기원전 3~2세기를 물질문화만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명칭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역사적·문헌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고조선시대” 라는 시대개념을 명명하기도 하였다(이청규 2007; 송호정 2007; 정인성 2019; 조진선 2020). 이 같은 개념은 우리 역사에서 기원전 2세기경까지 가장 강력했던 대표 국가인 고조선을 내세우는데 적합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되던 시기였음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초기철기시대는 250년 정도로 고고학적 시대구분 중에서 가장 짧게 존속하지만, 선사사회에서 고대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대전환의 시작은 철기문화의 유입과 연동하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의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발달정도에 따라 2개 군으로 구분되며, 점토대토기와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공반한다. 하나는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공구류 중심이 출토되는 1군이고. 발달된 청동기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원전 4·3~기원전 2세기경으로 편년되고, 호남지역에서는 만경강유역에서 집중된다. 다른 하나는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것과 함께 단조기범의 무기류가 출토되는 2군이고,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하며, 기원전 2세기 후반경에 영산강유역에 집

중되어 출현한다. 이와 같이 유사한 문화권을 지닌 호남지역 내에서도 시기적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전남지역과 같이 철기유물 출토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로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을 짐작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연구는 발굴조사 자료의 영세성이 연구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자료를 수합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 확인되고, 소규모로 산발적인 점상분포를 보이며, 점유양상은 이전시대나 이후시대와는 다르게 마치 아수라장과 같다. 이같은 혼재된 양상은 초기철기시대의 양상을 논함에 있어서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고고자료와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글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고,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가 확산하는 시점에 맞추어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초기철기시대 편년과 분포유형

1. 토기와 상대편년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 물질문화는 점토대토기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것은 신요소만이 부각된 측면이 강하며, 무문토기 등의 토착문화와 공반하고, 점차적으로 현지화되어 간다. 점토대토기는 초기연구에서 한강유역발생설(이백규 1974; 한상인 1981)이 주장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요령지방에서 조형을 찾고 있다(박순발 1993·2004; 이건무 1994; 박진일 2000; 이청규 2000; 이형원 2005; 임설희 2010). 평양 남경 3호 주거지 출토 토기를 이중구연으로 보느냐 점토대토기로 보느냐에 따라 서북한지역 경유설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크게 발전하여 남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점토대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에서 계기적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로 변화되고, 대체적으로 점토대의 접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노미선 1998; 이재현 2002; 신경숙 2005; 국립광주박물관 2007; 박진일 2010; 임설희 2015; 김진영 2021). 점토대토기는 무문토기와 공존하면서 토착 무문토기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출현 이후에 기종의 변화와 토착 무문토기의 소성도, 제작기법, 태토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변화된 토기를 풍납동식토기, 중도식토기, 경질무문토기, 후기무문토기 등으로 칭해졌다. 경질무문토기[1]는 김양옥에 의해 처음으로 칭해졌으며(김양옥 1976), 최성락에 의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다(최성락 1993). 해남 군곡리패총 보고서에서는 무문토기의 범주에 경질무문토기를 포함하였고(목포대학교박물관 1987~1989),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를 계승한 토기로 이해하면서 삼각형점토대토기를 경질무문토기의 개념에 포함하였다(최성락 1993·2002)

1) 풍남토성에서 처음 출토되어 풍납리식 무문토기라 칭해졌으며, 무문의 의미를 무문토기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여 이후 춘천 중도유적에서 출토되어 중부지역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로 칭해졌다. 경질무문토기는 4개 지역군(한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 동진강유역)을 직접 답사하여 수집한 시료 15,000여점을 대상으로 태토의 조성분석, 흡수율측정, 경도측정, 성형방법, 제작수법, 문양, 색상, 두께측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무문토기와는 소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칭하였다(김양옥 1976, 「한반도 철기시대토기의 연구」, 『백산학보』 20, 백산학회).

경질무문토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해석적 효과보다는 혼선과 오류를 야기하기 때문에 통합적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이숙임 2003; 노혁진 2015; 이창희 2020[2]). 전국계토기문화의 일환으로 보면 요녕-한반도 서북지방을 거쳐 한반도 각지로 전파하면서 재지의 토착무문토기와 접변 및 상호작용의 관점과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그 양상을 파악하고 유형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노혁진 2015).

전남지역에서 점토대토기 특히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철기문화의 확산에 따른 인과관계가 밝혀진 토기이고, 현지의 토착무문토기와 접변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무문토기보다 발전된 토기를 생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남지역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광주 신창동저습지에서 초출하여 해남 군곡리패총에서 현지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김진영 2015; 이정호 ;). 따라서 유적의 중요성과 상징성 등으로 보아서 신창동식토기와 군곡리식토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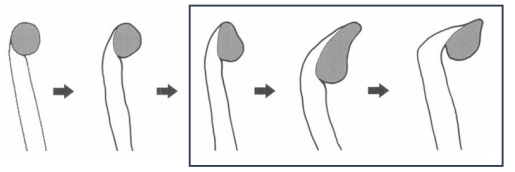
신창동식토기는 삼각형점토대가 부착된 토기군을 지칭하며, 군곡리식토기는 홑구연으로 변화된 토기군으로 경질무문토기로 칭해졌던 토기를 일컫는다. 이것은 전남지역에서 무문토기 이후에 등장하는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고, 전남지역만이 아닌 호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춘 용어라고 본다. 그러면 전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에 확인되는 토기는 무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등이며,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상대적 선후관계가 인정되고, 서로 단절적이지 않으며, 공반관계를 이루면서 연속적으로 발전한다.

먼저, 원형점토대토기가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는 기원전 5~4세기경으로 보고 있지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반영한 경우는 기원전 7세기경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 호남지역 출토 원형점토대토기 형식은 Aa식과 Ab식으로 구분하고,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전엽~기원전 1세기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신창동식토기가 등장하면서 소멸해간다. 군산 도암리주거지와 나주 운곡동 Ⅰ-5호 수혈 출토품이 가장 이른 Aa식으로 보았다(김진영 2021a,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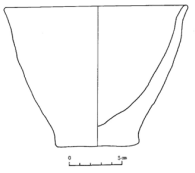
신창동식토기는 광주 신창동저습지 Ⅰ기층에서 초출하는데, 원형점토대토기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로의 계기적 변화가 확인되었고(국립광주박물관 2007). 점토대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단면형태가 다양해지고 시간성을 반영한다. 신경숙은 점토대를 2형식으로 구분하였고(신경숙 2002, 50~91쪽), 임설희는 속성의 조합관계를 통하여 11개의 설정하였고(임설희 2010, 7~14쪽), 김진영은 5형식으로 설정하였다(김진영 2021b). 신창동식토기의 연대는 광주 신창동저습지 Ⅰ기층의 연대인 기원전 2세기 후반 무렵부터 지역에 따라 기원후 2~5세기까지 존속한다. 대표적 유적이 광주 신창동 저습지 기층과 해남 군곡리패총 Ⅱ기층이며, 해남 군곡리패총 출토 신창동식토기의 특징은 지두흔이다. 지두흔은 점토대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면기법으로 홑구연화와 관련되고, 현지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점토대토기의 홑구연화는 기원전 1세기 중엽~기원전후에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임설희 2010, 35). 해남 군곡리패총 Ⅱ기층에서 출토된 신창동식토기에서는 홑구연화 과정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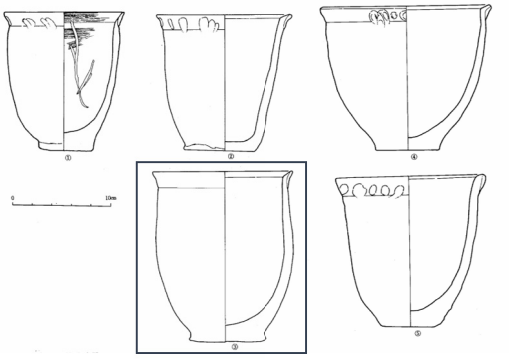
2) 제28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이창희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용어 문제를 '호남과 영남의 통합적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이 혼란은 남한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기하였다. 이에 필자는 호남지역 내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가 초출하는 유적이 광주 신창동저습지이므로 영남지역의 늑도식토기와 같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신창동식토기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 공감대를 공유하였다.



① 점토대토기 구연부 및 점토띠 단면의 속성변화(국립광주박물관 2007, 70) ㅁ신창동식



② 해남 군곡리패총 Ⅰ기층 출토



③ 해남 군곡리패총 Ⅱ기층 출토

도 1. 신창동식토기

보고서(보고서 표1)에는 Ⅱ기층의 11~9층에서 출토된 발형토기는 '구연부 누르기수법'과 '흔적 지움'이라고 기록되었고, □ 안의 발(도 ?)은 '단면삼각형구연의 흔적을 지운 흔'이라고 기록되었다(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26·27). Ⅱ기층(11~9층)의 편년이 기원전 2세기 후반~기원전 1세기 중반경이므로, 홑구연화는 기원전 1세기 중반이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창동식토기에서 점토대 하단부에 지두흔을 강하게 남기며,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은 지역에 따라 기원후 2~5세기까지 존속하고, 신경숙은 이러한 것을 홑구연화로 이해하고 기원후 2세기 전반 이후로 보았다(신경숙 2005, 75). 이와 같은 신창동식토기의 일부 형식은 본고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도 1-①의 □의 속성을 지닌 신창동식토기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경숙의 ⅡA식, 임설희의 Bb식과 Bc식, 김진영 Ba식과 Bb식, Bc식이 해당한다.

신창동식토기의 홑구연화는 군곡리식토기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단선적이지는 않다. 해남 군곡리패총 Ⅰ기층에서 출토된 발(도 1-②)은 무문토기와 유사하며, 도면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동체부 하단과 저부 이음에 깎기 수법'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군곡리식토기에 해당한다. 경질무문토기(군곡리식토기) 상한은 기원전 1세기 무렵으로 상정하였고(이강승 외 1996; 신경숙 2005; 최성락 2013), 기원후 2·3세기경까지 존속하면서 신창동식토기와 타날문토기 등과 공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진영 시기구분안에서 Ⅰ~Ⅲ기에 해당된다(김진영 2018).

2. 절대연대

고고학에서 과학적 연대측정법이 활발해진 이후에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반영하는 연구경향이 강하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여전하지만, 하나의 챕터로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의 신뢰도가 95%이상인 경우에도 100~300년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어서 상대연대와 일치하지 않는 듯하지만, 보정연대의 상한과

하한도 50~300년 정도 시간적 간격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연대와 일치하는 범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전남 서부지역			전남 동부지역		
	유적 및 유구	절대연대	출토유물	유적 및 유구	절대연대	출토유물
	광주 수문 5호 주	2610±50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	2560±120	청동유물일괄			
		2400±50				
		2470±50				
		2200±90				
		2170±50				
2400	광주 수문 8호(송.주)	2310±60				
	나주 운곡동 Ⅰ-청-4호(송.주)	2380±60				
2300	광주 평동 A-60호 주	2310±60		곡성 대평리 16호 주	2270±40	무문토기저부,어망추,홈도구연부, 석촉
	광주 평동 A-87호 주	2310±50		곡성 대평리 17호 주	2290±40	무문토기저부,어망추,삼각형석도
	광주 평동A495호 수혈	2290±60		곡성 대평리 23호 주	2180±40 2190±40	무문토기저부,어망추
	광주 평동A368호 수혈	2200±60		곡성 대평리 27호 주	2240±40 2205±40 1960±40	무문토기,삼각형석도, 유구석부
2200				보성 조성리 월평 4-1호 주	2190±50	
	나주 운곡동 Ⅰ-청-18호	2130±60	원형A2식,무문토기, 석촉	여수 화동리 안골 17호 석곽	2120±30	무문토기, 홈도
	나주 운곡동Ⅱ-7호 수혈	2110±50	흑도장경호AⅠ식, 발	여수 화동리 안골 39호 원형유구	2150±60	
	광주 신촌 나-7호 수혈	2130±50	무문토기	여수 화장동 가-3호 주	2150±30	
2100				여수 화장동 나-27호 주	2100±40	
	광주 평동 B-3호 주	2010±50		곡성 대평리 45호 수혈	2050±30	무문토기, 고배대각
				여수 화동리 안골 26호 석곽	2040±50	석촉, 어망추
				여수 화동리 안골 28호 석곽	2020±20	무문토기, 석검, 어망추
				여수 화장동 나-8호 주	2020±60	
2000	광주 신창동 2007-Ⅳ-4호 주	1980±60		곡성 대평리 50호 수혈	1960±30	무문토기
				곡성 대평리 1호 소성유구	1950±40 1950±30	
				곡성 대평리 토기가마 연소부	1970±40	
				곡성 대평리 토기가마 소성부	2160±30	
				곡성 대평리 토기가마 천정부	2270±40	
				곡성 대평리 토기가마 천정부	1940±30	
				광양 칠성리 3호 주	1930±40	
				광양 칠성리 22호 주	1960±80	
				광양 인동리 인동 6호 주	1980±30	
1900				광양 칠성리 12-4호 주	1810±60	
				광양 인동리 인동 7호 주	1874±24	
1800				광양 인동리 인동 15호 주	1724±22	

도 2.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절대연대

Ⅲ. 지형 및 권역 설정

1. 권역설정



도 3. 산경도(㈜천재교육 한국지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지형, 기후, 토양 등과 같은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인문환경을 결정한다. 전남지역은 대한민국 남서단 일대를 아우르는 행정구역으로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전라남도라 칭해졌다. 이러한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에는 『산경표(山經表)』에서 확인되는 1대간(大幹)과 1정간(正幹), 그리고 이로부터 가지 친 13정맥(正脈)으로 우리 조상들의 산줄기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전남은 북쪽에서 뻗어 내린 호남정맥에 의해서 동-서로 크게 갈라져서 전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전남지역의 지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써 바다와 접해 있는 지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남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색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은 지형적으로 산지지형의 특색과 평야지형의 특색이 반영된 곳이며, 서쪽은 평야지형을 이루고, 동쪽은 산지지형을 이룬다. 지리적으로는 서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해 있어 해안지형을 이루며,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은 대륙과 해양이 제공해주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초기철기시대에는 해양을 이용한 신통로가 열리는 시기이며, 이로 인하여 유적의 입지조건에 대륙과 해양의 특색이 반영됨으로써 인문환경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해양적 특색을 반영하였다.

지형적 특색에 따라서는 호남정맥에 의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구분되고, 서부지역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수계를 이루며, 동부지역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분수계를 이룬다. 지리적 특색에 따라서는 내륙권과 해안권으로 세분되며, 서부내륙권과 서부해안권, 동부내륙권과 동부해안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전남지역 공간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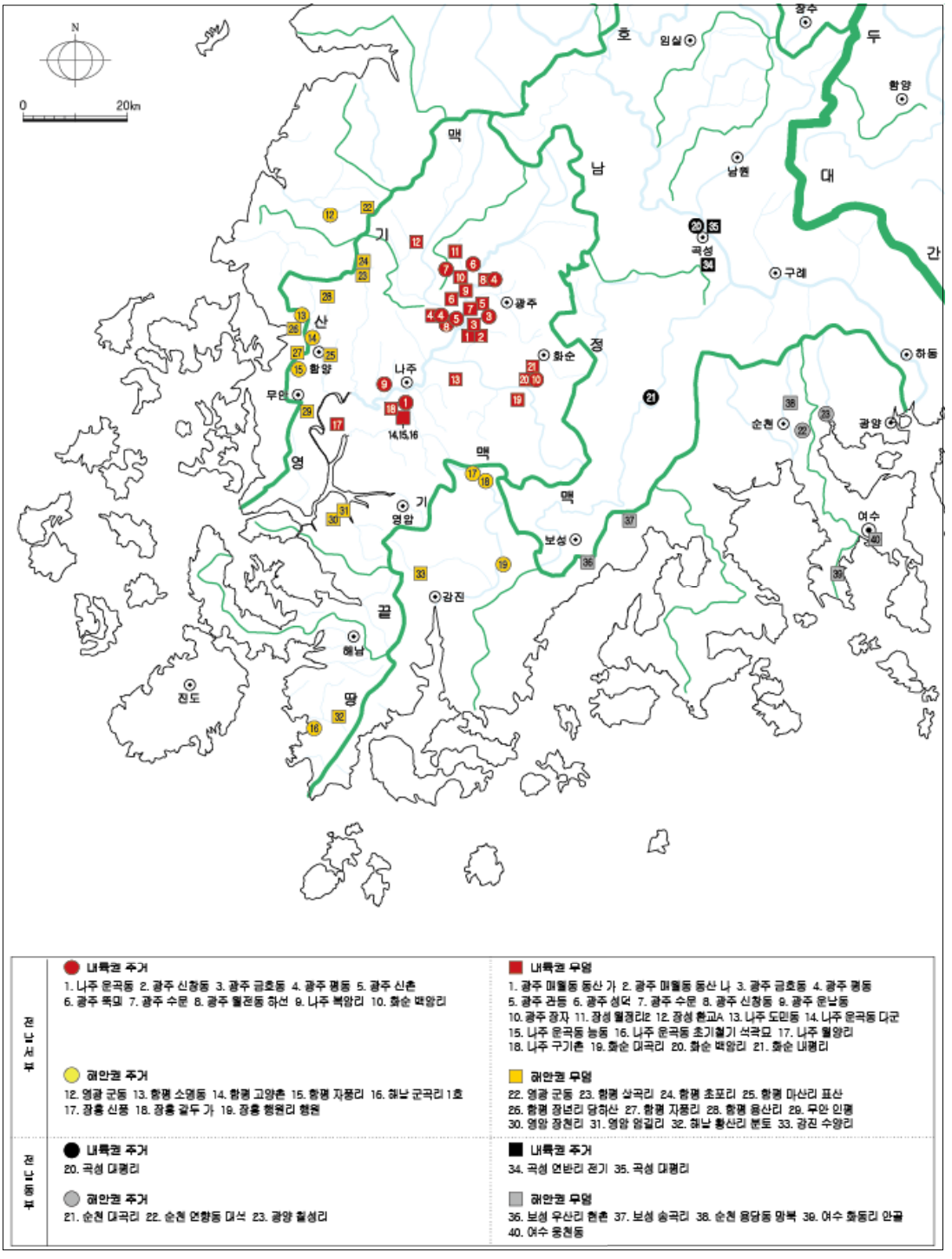
구분	서부지역			경계	동부지역		
	내륙권	경계	해안권		해안권	경계	내륙권
해당지역	담양, 장성, 광주, 나주, 화순, 함평 일부	방장산(743m)-장암산(482m)-승달산(318m)	영광, 함평 일부, 신안, 목포, 영암, 진도, 해남, 강진, 장흥,	추월산(731m)-백아산(810m)-모후산(919m)-가지산(510m)-천관산(723m)	보성일부, 순천일부, 여수, 광양	초암산(576m)-백운산(1,222m)-구봉산(472m)	곡성, 구례, 보성 일부, 순천 일부

먼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구분은 추월산(해발 731m)-백아산(해발 810m)-모후산(해발 919m)-가지산(해발 510m)-천관산(해발 723m)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경계를 이룬다.

전남 서부지역은 범영산강유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륙권과 해안권으로 구분되는데, 그 경계는 추월산(해발 731m)-방장산(해발 743m)-장암산(해발 482m)-승달산(해발 318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구분하였다. 내륙권은 영산강의 중·상류에 해당되는 담양, 장성, 광주, 나주, 화순, 함평 일부 등이 해당된다. 해안권은 해안과 접한 곳으로 영산강하류가 포함된 영광, 함평 일부, 신안,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완도, 강진, 장흥이 해당된다. 장흥은 지리적으로 전남 서부와 동부지역의 점이지대에 해당되는 곳으로 고고학적 양상에서도 확인되지만, 전남 서부지역과의 유사성이 더 크고, 일부 지석묘가 배모양으로 채석된 점등으로 보아 해양권으로 판단하였다.

전남 동부지역은 범섬진강유역권으로 내륙권과 해안권으로 구분되는데, 그 경계는 천관산(해발 723m)-모후산(해발 919m)- 백운산(해발 1,222m)-구봉산(해발 472m)으로 이어지는 서-동방향의 산줄기로 구분하였다. 내륙권은 곡성, 구례, 보성 일부, 순천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해안권은 보성일부, 고흥, 순천일부, 여수, 광양이 해당되고, 장흥의 천관산(해발 723m)에서 경남 하동의 섬진강 하구까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산줄기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지방의 동일한 생활 문화권역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 같은 구분은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즉 산줄기는 물을 건너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이어진다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원칙과도 상통한다. 물길을 통한 사람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으로써 바다는 단순한 생계경계가 아닌 생산경제로의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이전 시대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경관을 제시해 주었다. 신통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를 연결해 주었고, 대내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도 4.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분포도

3. 분포유형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점유양상은 분포 수와 유물상에 따라 정리되며,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 거점형(Ⅰ형) : 집중적이거나 대규모로 확인되는 사례로 유물상으로 보아서는 광주 신창동저습지나 옹관묘지와 해남 군곡리패총 등이 해당되지만, 확인된 주거지나 무덤의 수는 대부분 5기 미만이다. 외래유물 등과 같이 유물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포함하였다. -현지화형(Ⅱ형) : 토착의 송국리취락이나 지석묘 등에서 확인되는 사례로 5기 미만의 점상분포를 보인다.
- 단일형(Ⅲ형) : 단일로 주거군이나 무덤을 형성하고 점상과 면상분포를 이룬다.

Ⅳ. 유적 검토

1. 주거지

주거지는 인간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곳으로 생활의 흔적이 녹아든 공간이다. 전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로 조사된 것은 많지 않으며, 소규모이고, 주변에서 수혈들과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수혈들 중에는 평면형태나 출토유물 등에서 주거지와 차이가 없는 주거용들이 확인되고, 주거지의 부속시설 등으로 보이는 것들도 상당하다.

전남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는 여러 형태가 혼재되며, 송국리형주거지, 원형계, 방형계 등이 확인된다. 점유유형은 거점형, 현지화형, 단일형이 모두 확인되고, 혼합되어 확인되기도 하며, 주거지로 확인된 경우는 대체로 점상분포를 보이지만 수혈군이 확인된 경우는 면상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1) 서부지역

表 2. 전남 서부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구분			입지	내용	유물	점유유형	동범위		비고
							유구	유물	
서부지역	내륙권	나주 운곡동	구릉	송국리형 Ⅰ기 수혈 7기	송:원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석촉, 지석, 연석 수: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등	Ⅱ형	송국리형취락 지석묘 저습지	원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두형토기 등	1·Ⅱ기
		광주 신창동	구릉	원형/화덕, 중심주공	군곡리식토기	Ⅱ형	저습지 옹관묘군 환호, 토기가마 등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외래유물 등	2·Ⅲ기
		광주 금호동	구릉	수혈	무문토기, 두형토기, 석부	Ⅲ형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석기	Ⅱ기

구분			입지	내용	유물	점유유형	동범위		비고
							유구	유물	
		광주 평동	평지	방형/주공, 수혈 85기	주: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수: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흑도, 군곡리식토기, 시루, 소형토기 등	Ⅰ·Ⅱ형	송국리형취락 토광묘	무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석기 등	2·Ⅲ기
		광주 신촌	평지	수혈 2Ⅱ기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흑도, 무문토기, 파수	Ⅲ형	구		2·Ⅲ기
		광주 뚝뫼	구릉	(원형)/벽구, 벽주공	조합식파수, 두형토기, 발	Ⅲ형	-	-	Ⅲ기
		광주 수문	구릉	송국리형 수혈	송: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수: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개 등	Ⅱ형	송국리형취락	무문토기, 석기 등	2·Ⅲ기
		광주 월전동하선	평지	수혈8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철기 등	Ⅲ형	-	-	Ⅲ기
		나주 복암리	평지	수혈 23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등	Ⅰ·Ⅲ형	구	복골 등	2·Ⅲ기
		화순 백암리	구릉	송국리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석기, 옥	Ⅱ형	적석목관묘 송국리형 주거지	청동기류 일괄 무문토기 등	Ⅲ기
		화순 삼천리 황새봉	평지	송국리형 원형Ⅲ기/ 노지, 벽구, 수혈	신창동토기, 군곡리식토기	Ⅱ형	-	-	Ⅲ기
	해안권	영광 군동	구릉	방형 Ⅰ기	무문토기, 지석	Ⅱ형	토광묘 옹관묘 주구토광묘	흑도	Ⅲ기
		함평 소명동	구릉	송국리형	무문토기, 개, 석기 등	Ⅱ형	송국리형취락	무문토기, 석기 등	Ⅲ기
		함평 고양촌	구릉	수혈 24기	신창동식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소형토기 , 시루 등	Ⅲ형	석관묘		Ⅲ기
		함평 자풍리	구릉	수혈 1Ⅰ기	두형토기, 장경호, 개, 석촉 조합식파수, 우각형파수	Ⅲ형	토기가마 주구	두형토기 등	Ⅲ기
		해남 군곡리 1호	구릉	원형	신창동식토기, 두형토기, 시루, 파수부토기	Ⅲ형	패총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등	Ⅲ기
		장흥 신풍	구릉	수혈Ⅱ기(원형 부정형),2.4호	원형점토대토기, 석기	Ⅱ형	송국리형취락 지석묘	무문토기, 옥, 석기 등	Ⅱ기
		장흥 갈두 가	구릉	송국리형 Ⅲ기	원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석착, 석촉	Ⅱ형	송국리형취락 지석묘	무문토기, 석기	Ⅱ기
		장흥 행원리 행원	구릉	(방형계)/ 바닥다짐	신창동식토기, 파수부호, 군곡리식토기, 소형토기	Ⅲ형	-	-	Ⅲ기

먼저 전남 서부지역은 전남지역의 양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다. 서부내륙권은 전남지역에서 점유양상이 가장 높은 권역이며, 11개소가 조사되었다. Ⅰ~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되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상류쪽인 광주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주거지는 광주와 나주에서 주로 조사되었고, 점유양상은 대부분 현지화형을 보이지만, 단일형도 확인된다, 송국리형주거지와 수혈 등이 확인되고 있다. Ⅰ기 유적은 나주 운곡동 수혈(타원형)에서 확인되었고, 동시기의 저습지 등 확인되기도 하였다. Ⅱ기 유적은 나주 운곡동유적에서는 Ⅱ-33호 송국리형주거지(원형)와 광주 평동유적과 광주 수문유적, 광주 신촌유적 등에서는 확인된 수혈이 있고, 동범위 내에 거리를 두고 송국리형취락과 공존한다. 광주 평동과 광주 수문유적의 점유양상은 송국리형주거지가 분포하는 범위의 외곽에 분포하고, Ⅲ기에는 송국리형취락 내로 현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광주 평동유적에서 수혈군은 5개 정도의 밀집된 군을 이루며 분포하는데, 수혈이 밀집되는 부분에서는 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광주 신촌유적은 단일형에 속하며, 동범위내에서 수혈 2개군이 500m정도의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는데, 수혈의 규모나 평면형태 등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혈군들은 1~Ⅱ기에 속하는 구가 수혈군을 둘러싸는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계 혹은 구획의 의미로 해석되며, 미조사지역으로 유적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 신촌의 구들은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새로운 구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경계를 위한 공간분할, 방어, 배수 등과 관련된 수로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 복암리유적에서도 수혈과 구 등이 유사하게 확인되었고, 5기의 구가 2~8m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중으로 유구들을 둘러싸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계, 방어 등의 환호 또는 환구시설로 추정된다.

Ⅲ기는 광주 신창동, 광주 평동, 광주 신촌, 나주 복암리 등에서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가지고 확인되는 사례들이 많다. 점유유형은 거점형도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광주 평동유적에서는 거점형과 현지화형이 혼합되어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단일형은 대부분 수혈로 보고된 유적들로 유구수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Ⅱ기에 비해 규모가 커지고, 하천과 인접한 평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광주 월전동 하선, 광주 신촌 등이 해당된다. 현지화형은 구릉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광주 수문, 화순 백암리 등이 있다. 광주 평동과 광주 수문유적에서는 Ⅱ기에 송국리형주거지 외곽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Ⅲ기에는 송국리형주거지군 내로 들어오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광주 평동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의 특징적 요소들이 이탈하거나 노지가 확인되거나 평면형태가 이형화되는 등 매우 복합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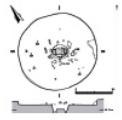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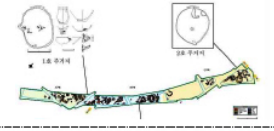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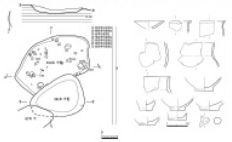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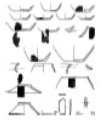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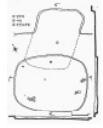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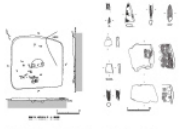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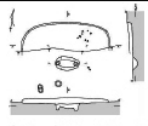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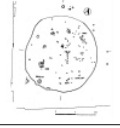
서부해안권에서는 8개소가 조사되었고, 양상은 서부내륙권과 유사하며, 원형계와 방형계,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Ⅱ기와 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된다. Ⅱ기 유적은 장흥 신풍과 갈두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점유양상은 현지화형에 속한다. 장흥 신풍유적에서는 2호(원형)와 4호(부정형) 수혈이 확인되었고, 장흥 갈두유적 가군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인 4호(방형)·7호(장방형)·9호(원형)주거지가 있다. 장흥 건산리유물산포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등이 수습되었고, 해남 군곡리패총 Ⅰ기층도 있지만 관련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Ⅲ기 유적은 함평 소명동과 함평 고양촌, 영광 군동 등으로 현지화형과 단일형이 확인된다. 함평 고양촌유적은 수혈 내에서 시루 등과 같은 일상용기가 확인되어 대부분 주거용으로 볼 수 있고, 함평 자풍리유적의 수혈은 주거용도 일부 있지만 규모와 형태 등에서 주거지보다는 관련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2) 동부지역

동부지역에서는 3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수적으로는 서부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확인되는 양상은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 내륙권에서는 곡성 대평리와 순천 대곡리유적 등이 조사되었으며, Ⅱ기와 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된다. Ⅱ기 유적은 곡성 대평리유적이 해당하고, 일부 송국리형주거지들과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점유유형은 단일형으로 추정되고, 환호, 목책열, 무덤 등이 동범위 내에서 면상분포를 보인다. 주거지 Ⅱ기와 다수 수혈에서 원형점토대토기 A2식과 두형토기 A식과 B식, 조합식파수, 뚜껑, 소형토기, 석기류 등이 일상용기들이 다수 출토되었으나, 상당수의 수혈은 평면형태 등에서 주거용보다는 부속시설 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7호 수혈에서는 소토부가 확인되어 주거용으로 보이고,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는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고, 소성유구는 서부해안권의 함평 자풍리 신풍에서 확인된 토기가마와 유사하다. Ⅲ기 유적은 순천 대곡리에서 확인되었으며, 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해안권에서는 Ⅲ기 유적이 확인되며, 순천 연향동 대석유적의 송국리형주거지로 그 이후까지 존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表 3. 전남 동부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구분			입지	내용	유물	점유유형	동범위		비고
							유구	유물	
동부지역	내륙권	곡성 대평리	평지	장방형 원형/부뚜막식 수혈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식파수, 소형토기 등		송국리형취락, 토기가마,수혈 주구토광(석관)묘		Ⅱ기
		순천 대곡리	평지	장방형/	뚜껑, 무문토기 등				Ⅲ기
	해안권	순천 연향동 대석	구릉	송국리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송국리형취락		Ⅲ기

구분	서부		동부	
	내륙권	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I	  나주 운곡동 5호 수혈		곡성 대평리 23호	
II	  나주 운곡동 33호			
	  광주 평동 수혈	  함평 소명동 3호 주	  대곡리14호	
	  장흥 신풍 2호 수 장흥 갈두 4호 주	 함평 마산리 표산	 대곡리 12호 	
III	  광주 수문 5호 주	  함평 고양촌 수혈	 곡성  대평리 17호 주	
	  광주 평동58호 주	  해남 군곡리 1호 주	 대곡리 한실43호 	광양 칠성리 3호 주

도 5.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시기별 주거

2. 무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당대 사회가 지닌 무형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무덤은 지석묘, 적석목관묘, 석관묘 등의 돌무덤계와 토광묘, 주구(석개)토광묘 등의 토광묘계, 옹관묘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점유양상이나 분포상 등에서 주거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1) 서부지역

表 4. 전남 서부지역 초기철기시대 무덤

구분			입지	돌무덤계			토광묘계		옹관묘	점유양상	동범위	출토유물	비고
				지석	적석목관	석관(곽)	토광	주구토광					
서부	내륙권	광주 매월동 동산 가	구릉	1석곽						Ⅱ형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편	Ⅱ기
		광주 매월동 동산 나	구릉	2토광,석곽						Ⅱ형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편,두형토기편 무문토기편, 석재	Ⅱ기
		광주 금호동	구릉				(1)			Ⅱ형	지석묘	청동편, 저부편, 이형석기, 지석	Ⅱ기
		광주 평동					1			Ⅱ형		무문토기, 석기	
		광주 관등	구릉				1			Ⅱ형		원형점토대토기	Ⅱ기
		광주 성덕	구릉				7			Ⅱ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등	Ⅲ기
		광주 수문	구릉				2			Ⅱ형		신창동식토기2, 뚜껑. 방추차, 흑도장경호, 장경호2	Ⅲ기
		광주 신창동	구릉						53	Ⅰ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파수부호, 석촉, 석부 등	Ⅲ기
		광주 운남동	구릉						4	Ⅲ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파수부호 등	Ⅲ기
		광주 장자	구릉						3	Ⅱ형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무문토기	Ⅲ기
		장성 월정리Ⅱ	구릉				2			Ⅲ형		석검, 편평촉2, 흑도장경호 등	Ⅲ기
		장성 환교A	구릉				1			Ⅲ형		무문토기편	Ⅱ기
		나주 도민동	구릉				1			Ⅲ형		원형점토대토기	Ⅱ기
		나주 운곡동 다군	구릉	1						Ⅱ형	지석묘 채석장	세형동검편, 석촉, 철착	Ⅱ기
		나주 운곡동 능동	구릉	1								지석 등	
		운곡동 초기철기석곽묘			1	보고서				Ⅲ형		원형점토대토기	Ⅱ기
		나주 월양리	구릉	1	2	1				Ⅱ형	지석묘	지:신창동식토기편 관:석검편	2·Ⅲ기

구분			입지	돌무덤계			토광묘계		옹관묘	점유양상	동범위	출토유물	비고
				지석	적석목관	석관(곽)	토광	주구토광					
	해안권	나주 구기촌	구릉				10			Ⅰ형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철서, 철모, 철부, 철검, 검파두식, 삼각형동기,검초부속품, 칠기테두리금구, 검파두식, 우각형동기 등	Ⅲ기
		화순 대곡리	구릉		1					Ⅰ형		세형동검5, 팔두령2, 쌍두령1,동부,세문경2,동사	Ⅱ기
		화순 백암리	구릉		1					Ⅰ형		세형동검3, 동과, 세문경,석촉,관옥,흑도편	Ⅱ기
		화순 내평리	구릉				1			Ⅲ형	구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편, 저부편	Ⅱ기
		함평 상곡리	구릉		1	1				Ⅰ형		경형동기	Ⅰ기
		함평 초포리	구릉		1					Ⅰ형		세형동검5,중원식동검, 동과3,동모2,유견동부, 동사,동착,간두령,쌍두령, 병부동령,지석,검파두식, 세문경,곡옥	Ⅱ기
		영광 군동	구릉				2	1	1	Ⅲ형		원형점토대토기, 개, 석기, 흑도	Ⅱ·Ⅲ기
		함평 마산리 표산	구릉			1 군집	1			Ⅲ형	주거지 환호 등	관:원형점토대토기편 등 토:흑도장경호저부, 저부, 세형동검편	Ⅱ·Ⅲ기
		함평 장년리 당하산	구릉				2		3	Ⅲ형		토:군곡리식토기 호 옹:무문토기, 파수부호 등	Ⅲ기
		함평 자풍리	구릉				1	주구만 3		Ⅲ형		토:신창동식토기, 흑도장경호 주:신창동식토기, 두형토기, 군곡리식토기, 봉상파수, 석기 등	Ⅲ기
		함평 용산리	구릉			4	석개3			Ⅲ형		석촉, 관옥, 토기편	Ⅱ·Ⅲ기
		무안 인평	구릉						1	Ⅲ형		파수부옹, 신창동식토기	Ⅲ기
		영암 장천리	구릉	1						Ⅱ형	지석묘	세형동검, 검파두식, 유구석부	Ⅱ기
		영암 엄길리	구릉	1						Ⅱ형	지석묘	신창동식토기, 흑도장경호	Ⅲ기
		해남 황산리 분토	구릉			1				Ⅱ형	지석묘	석검편	Ⅱ기
		강진 수양리	구릉	1						Ⅱ형	지석묘	두형토기편	Ⅱ기

서부지역에서는 33개소가 조사되었고, 분포비중 등 여러 면에서 서부지역의 주거지와 양상과 유사하다. 서부내륙권에서는 21개소가 조사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Ⅱ기와 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되며, 광주와 나주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Ⅱ기에는 지석묘, 토광묘, 적석목관묘 등이 확인되고, 점유양상은 현지화형과 단일형, 거점형이 확인된다. 현지화형은 지석묘에서 확인되며 광주 매월동지석묘, 나주 운곡동 지석묘, 나주 월양리 지석묘 등이 있다. 대부분 매장주체부 주변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나 두형토기편 등이 출토되고 있다. 나주 월양리지석묘에서는 매장주체부에 적석목관묘 등의 요소가 확인되기도 한다단일형은 토광묘와 적석목관묘가 Ⅰ기 정도 확인되는 점상분포를 보인다. 거점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적석목관묘에서 확인되고, 화순 대곡리 등에서 발달된 청동기가 일괄로 출토되었다. 단일형은 토광묘에서 확인되고, 나주 도민동과 화순 내평리, 광주 평동 등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Ⅲ기에는 옹관묘가 새롭게 나타나는데, 광주 신창동옹관묘군에서 수적으로 거점형을 이루고,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운남동, 광주 장자 등으로 연결되며 5기 미만이 단일형을 이루며 분포한다. 나주 구기촌에서는 토광묘 10기로 구성된 집단묘가 출현하고, 2군 철기를 중심으로 하는 부장상을 보인다.

서부해안권에서는 12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인 양상은 서부내륙권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묘제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다. Ⅰ~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된다. Ⅰ기 유적은 함평 상곡리석관묘 등이 해당되고, 경형동기 4점이 출토되었고, 인접하여 적석목관묘가 함께 조사되었으나 유물은 부장되지 않았다. Ⅱ기 유적은 함평 초포리의 적석목관묘와 영광 군동 토광묘, 함평 마산리 표산 석관묘, 영암 장천리 지석묘, 강진 수양리 지석묘, 해남 황산리분토 등이 해당된다. 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는 청동기류를 비롯한 14종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서부내륙권의 화순 대곡리와 유사하나. 더 다양한 구성을 이룬다. 영광 군동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A2-a식은 전남지역 토광묘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 함평 마산리 표산 석관묘에서도 유사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영암 장천리 저석묘에서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이 출토되었고, 강진 수양리지석묘에서는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해남 황산리 분토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석검편은 나주 월양리 23호 석관묘에서 출토된 것과 석질과 형태가 동일하고, 유구구조도 유사하다. Ⅲ기 유적은 영광 군동, 함평 마산리 표산, 영암 엄길리지석묘, 강진 수양리 지석묘, 무안 인평, 함평 당하산 등이 해당된다. 영광 군동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고, 무안 인평과 함평 장년리 당하산 등에서는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함평 용산리에서는 석개토광묘들이 조사되었는데 부장유물이 없어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개석사이에서 찰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 동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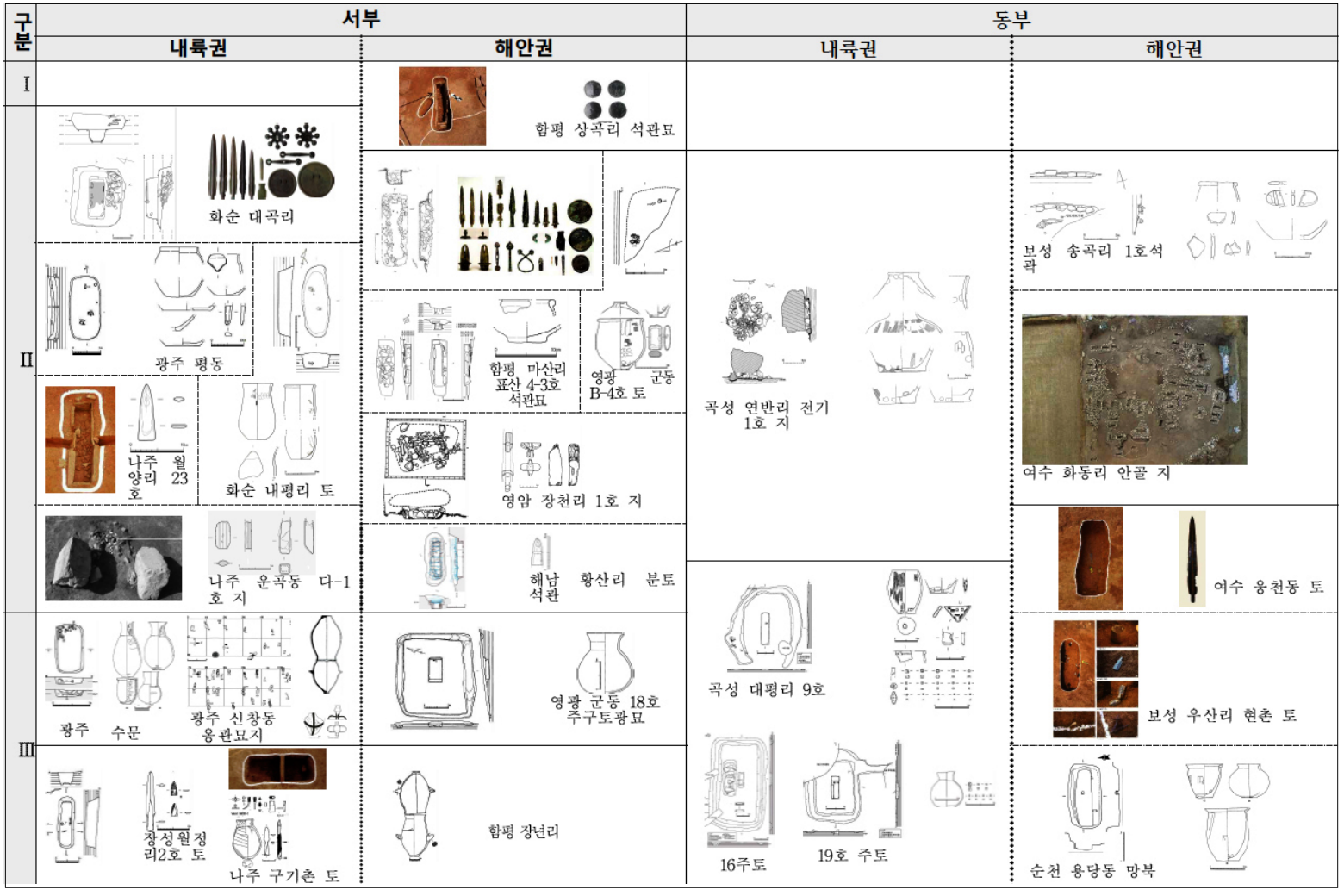
동부지역에서는 7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유적의 수적으로는 서부지역과 차이를 보이지만, 유사한 측면이 확인된다. 동부내륙권에서는 Ⅱ~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곡성에서 확인되었다. Ⅱ기 유적은 곡성 연반리 전기 지석묘와 곡성 대평리 등에서 확인된다. 곡성 대평리에서는 주구토광묘가 군집을 이루며 확인되었는데, Ⅲ기에 중심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원형점토대토기편 등이 출토되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6호 주구토광묘의 주구에서 조합식파수와 지석이 출토되었고, 15호(매장주체부 확인안됨) 주구(원형)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11호에서는 매장주체부 내

퇴적토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출토되었고, 주구에서 완형의 발(저부 투공), 다면옥, 유리옥 12점, 석옥 1점, 삼각형석도,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영광 군동 18호 주구토광묘와 유사한 폐쇄형의 주구를 가진 주구토광묘(19호, 22호, 32호)가 확인되었다. 19호에서는 단경호 1점과 유리옥 6점과 환옥 1점이 부장되었는데, 단경호은 북단벽쪽에서 정치된 채 부장되어 영광 군동 흑도와 형태적으로나 부장된 양상이 거의 동일하다. 22호와 32호에서는 토광묘의 퇴적토에서 저부편이 출토되었을 뿐 부장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주구토광묘 중 16호(폐쇄형)와 20호는 석개를 사용하여 토광묘 상부를 덮었고, 매장주체부에서 부장유물은 없고, 16호 개석사이에서 관옥 1점이 출토되었고, 20호에서는 주구 내에서 삼각형석도편이 출토되었다.

동부해안권에서는 Ⅱ~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되었으며, 수적으로 미약하다. Ⅱ기는 서부해안권과 인접한 보성 송곡리지석묘 등에서 확인되고, 여수 화장동 안골 지석묘에서 확인된다. Ⅲ기에는 보성 우산리 현촌과 여수 웅천동에서 토광묘 등이 확인된다. 보성 우산리 현촌에서는 신창동식토기, 세형동검2, 동모, 검파두식, 재갈편, 석촉, 주조철부, 철착이 부장되었고, 여수 운천동 토광묘는 지석묘와 나란히 축조되었는데, 세형동검이 부장되었다.

表 5. 전남 동부지역 초기철기시대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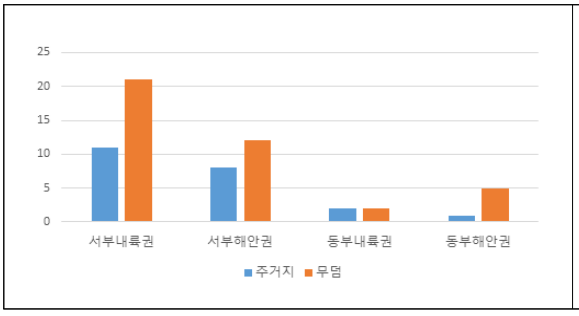
구분			입지	돌무덤계			토광묘계		옹관묘	점유양상	동범위	출토유물	비고
				지석	적석목관	석관(곽)	토광	주구토광					
동부	내륙권	곡성 연반리 전기	구릉	2						Ⅱ형	지석묘	뚜껑, 홍도편, 무문토기편, 삼각형석도	Ⅱ기
		곡성 대평리	평지				1	11 석개2		Ⅲ형		조합식파수, 석기류, 옥, 어망추 등	Ⅱ·Ⅲ기
	해안권	보성 우산리 현촌	구릉				3			Ⅰ형		신창동식토기, 세형동검2, 동모, 검파두식, 재갈편, 석촉, 주조철부, 철착	Ⅲ기
		보성 송곡리	구릉			1				Ⅱ형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편	Ⅱ기
		순천 용당동	구릉				1			Ⅱ형		신창동식토기, 홍도	Ⅲ기
		여수 화동리 안골	구릉	4						Ⅱ형	지석묘		Ⅱ기
		여수 웅천동	구릉				1			Ⅱ형	지석묘	세형동검	Ⅲ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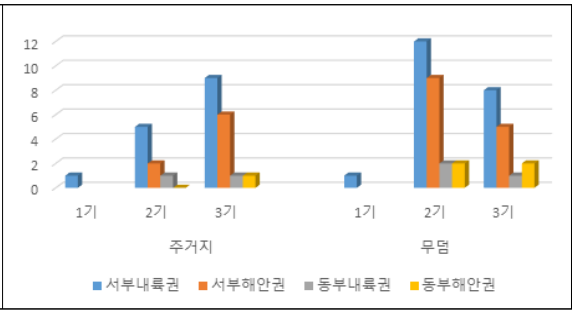
도 6.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시기별 무덤

3. 주거지와 무덤의 관계

전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와 무덤은 분포는 전체적으로 서부지역에 집중되고, Ⅰ기의 유적들도 서부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Ⅱ기가 되면 전남지역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여전히 서부지역에 편중되고, 이러한 현상은 Ⅲ기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주거와 무덤은 이원화되어 조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일정한 공간에 분포하는 집약도도 낮다.



도 7. 전남지역 권역별 비중



도 8. 시기별 주거와 무덤 비중

주거군과 무덤군의 연관성을 살피기에는 지금의 자료로는 허술한 부분이 있으며, 현재까지 주거군과 무덤군이 연관성을 갖고 확인되는 유적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유적명	생활유구				무덤						비고
			송국리형	원형계	방형계	수혈	돌무덤계			토광묘계		옹관묘	
							지석묘 및 석곽	석관묘	적석목관묘	토광묘	주구토광묘		
서부	내륙권	광주 수문	◎	–	–	◎	–	–	–	◎	–	–	
		광주 월전동	–	–	–	◎	–	–	–	–	–	–	
		광주 금호동	–	–	–	◎	–	–	–	◎	–	–	
		광주 평동	◎	–	–	◎	–	–	–	◎	–	◎	
		광주 신촌	–	–	–	◎	–	–	–	–	–	–	
		월전동 하선	–	–	–	◎	–	–	–	◎	–	–	
		나주 운곡동	◎	–	–	◎	◎	–	–	–	–	–	
동부	해안권	화순 백암리	◎	–	–	–	–	–	◎	–	–	–	
		함평 고양촌	–	–	–	◎	–	–	–	–	–	–	
		함평 자풍리	–	–	–	◎	–	–	–	◎	주구	◎	
		군곡리	–	◎	–	–	◎	–	–	–	–	–	
	내륙권	곡성 대평리	–	◎	–	–	–	–	–	–	◎	–	

전남지역에서는 상당수 유적들이 조사되었지만, 주거지와 무덤을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례는 드물다.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 송국리형주거지와 토광묘, 원형계주거지와 주구(석개)토광묘 등이 확인되며,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토착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혼재되는 현지화형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1~Ⅲ기 이후까지도 확인되는데,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은 여러 곳에서 조사되며, 나주 운곡동유적을 통하여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나주 운곡동에서 Ⅰ지구에서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형식의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된 수혈(타원형)이 송국리형취락(구릉 능선부를 따라 분포)과 10m 정도 떨어진 동일한 구릉상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다수의 지석묘군이 분포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추론할 만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같은 구릉에서 Ⅱ기에 수로와 저습지에서 흑도장경호와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남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Ⅱ지구 구릉의 송국리형주거지와 의례행위와 관련된 폐기장 기능의 수혈도 확인되고, 운곡동 지석묘 다군 1호에는 철착을 바닥석 아래에 부장하였고, 적석 내에 원형점토대토기 한 개체를 부장한 무덤이 확인되었다. 또한 채석장에서는 철제도구를 이용해 시문된 암각화들이 있고, 능동지석묘군에서는 동일한 세선문을 지석에 시문하였다.

송국리형주거지 또는 수혈과 토광묘의 관계는 광주 수문, 광주 평동, 광주 월전동 등에서 확인되는데, 송국리형주거지군이 분포하는 주변에 인접한 수혈들에서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 광주 평동유적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에서 변이성이 확인되고, A-390호와 415호 수혈에서 야요이계토기(판부식)이 출토되었고, A-310호 수혈에서는 볏짚으로 만든 돗자리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신창동식토기 등이 출토되거나 다수의 수혈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와 무문토기, 석기류 등이 공반되었지만, 이에 비해 관련 무덤은 토광묘로 소수에 불과하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석관묘나 군곡리식토기를 사용한 10여기의 옹관묘 등를 포함하더라도 수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편, 화순 백암리에서는 적석목관묘와 인접하여 송국리형주거지가 중첩되어 확인되었는데, 후행하는 상층주거지에서 신창동식토기가 출토되었다. 하층과 상층 주거지의 시간적 차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층 주거지에서 황갈색사질점토층이 상층 주거지의 바닥 정지면으로 확인된 점과 타원형구덩이와 양단주공의 위치가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층 주거지가 폐기된 후, 바로 상층주거지가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조현종·은화수 2005, 33). 따라서 하층 송국리형주거지는 백암리 적석목관묘와 동시기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형계주거지와 주구(석개)토광묘의 관계는 곡성 대평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송국리형주거지들이 확인되었으나 동시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에 비해 무덤군의 양상이 월등하고, 환호나 목책열 등이 조사되어 유적은 이전 시기에 보기 힘든 취락의 면모를 갖추었고, 무덤군의 존재로 보아서는 조사지가 확장조사된다면 대규모 주거군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곡성 대평리에서는 새로운 양상의 주거와 무덤과의 관계가 제시된 유적으로 새로운 집단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서부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보이는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주구토광묘가 초출한 영광 군동에서는 동범위 내에서 방형계주거지와 함께 확인된 바 있으며,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가능성은 언급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해남 군곡리에서 원형계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지석묘가 기원후에도 존속하는 것이 확인

되기도 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다수의 주거지와 무덤이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에 대한 해석적 접근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주거지든 무덤이든 토착문화를 기반으로 신요소들을 수용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주거영역과 매장영역 등 취락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은 서부지역에서는 광주 평동이, 동부지역에서는 곡성 대평리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 두 유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양상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다른 시대에 비하여 집약된 자료가 많지 않아 양상과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남 서부지역에 집중되고, 여러 유형의 요소들이 혼재되어 1~2기 정도가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은 명쾌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역시 선사사회에서 고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모습이며, 복잡다기한 시대적 상황이 당대의 고고자료에는 내재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3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정 수 옥
문화재청

Ⅰ.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조사 현황
Ⅱ. 전북지역 지역별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 현황
Ⅲ.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양상과 지역성
Ⅳ. 맺음말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 조사 현황 및 분포 양상을 중심으로 -

정 수 옥 (문화재청)

Ⅰ.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조사 현황[1)]

그동안 전북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처음으로 발견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다. 1920년 전주군 초포면 운상리(현재는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일대에서 세형동검 1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조선총독부 1931). 해방 이후에는 1964년 익산 용제리 이제마을에서 세형동검 봉부, 동과, 동착, 동제엽형삭기, 토기편 등이 발견신고 되었다(김원용 1968). 1967년에는 익산 오금산유적의 세형동검과 다뉴세문경이 소개되었다(김원용 1967). 유물의 단편적인 조사에 불과하지만 점차 전북지역 고대 문화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전주 황방산에서 세형동모 1점이 발견신고 되었고(전영래 1973), 1975년에는 익산 다송리유적의 석관묘 1기에서 토기와 청동기 그리고 다량의 옥기가 수습되었다(전영래 1975). 완주 상림리유적에서는 청동검(동주식동검) 26점이 발견되었다(전영래 1976).

1980년대에는 1984년 남원 세전리유적에서세형동검(윤덕향 1986), 1987년 익산 평장리유적에서 동검, 전한경, 동모, 동과가 발견되었다(전영래 1987). 1985년에는 전주 여의동유적의 토광묘에서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의 토기류와 동검, 세문경, 동부 등의 청동기류가 수습되었다(전영래 1989). 그리고 1989년에 장수 남양리유적에서 청동기가 일괄로 출토되었다(지건길 1989). 초기철기문화를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이 점차 확인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정식 발굴조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발견신고에 따른 수습조사를 통해 간헐적으로 청동기가 확인되어, 1980년대까지는 유적 및 유물의 성격과 출토맥락을 명확히하기 어려워 기초적인 이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는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우선 군산의 비응도패총(전북대박물관 · 목포대박물관 2002), 띠섬패총(원광대박물관 2001), 가도패총(충남대박물관 2001), 노래섬패총(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원광대박물관 2002), 남전패총(국립전주박물관 1995)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시간 폭을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1) 본 발표문에 수록된 유적현황 관련 자료들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전북지역 마한문화-성립기편』(2020)을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또한 1997년 장수 남양리유적에서 적석목관묘 4기가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그리고 동검, 다뉴세문경, 검파두식 등의 청동기류와 함께 철부, 철사, 철착의 철기류가 처음으로 발굴되었으며, 청동기와 철기의 공반 양상을 통해 청동기가 감소하고 철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단계로 제시되었다(전북대박물관 2000). 1990년대 말까지 고창 광대리(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산정리(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 성남리(Ⅰ)(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6), 전주 여의동(전주대박물관 1990), 군산 도암리(전북대박물관·군산대박물관 2001), 김제 석담리유적(군산대박물관 2002)의 분묘 및 생활유구에서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두형토기 등의 특징적인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익산 신동리유적에서는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 그리고 철부가 확인되었다(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2000년대에 유적의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특히 전북혁신도시 발굴에 따른 성과가 두드러진다. 큰 주목을 받은 곳은 완주 갈동·갈동(Ⅱ)(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2009), 상운리(전북대박물관 2010), 신풍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이다. 갈동유적은 두 차례 발굴을 통해 구상유구 4기와 수혈 2기 그리고 토광묘 17기가 조사되었으며, 60여 점의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기류는 세형동검, 동경, 동모, 동부 등과 함께 세형동검 거푸집까지 확인되었다. 토기, 청동기, 철기, 옥기(유리)가 공반하여 출토된 유구도 조사되어 초기철기문화의 전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상운리유적은 세 차례 발굴을 통해 주거지 4기, 구상유구 2기, 수혈 3기에서 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의 토기류가 확인되었다. 신풍유적에서는 81기에 이르는 토광묘가 발굴되었다.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의 토기류, 간두령, 세문경 등의 청동기류, 철부, 환두도자, 철사, 철착 등의 철기류 그리고 과학적 분석 결과 납바륨유리로 판명된 유리장신구까지 출토되어 초기철기시대 유물의 출토 양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완주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중인동(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마전(Ⅰ)·(Ⅱ)·(Ⅳ)(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효자4(Ⅲ)(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중화산동(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장동(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원장동(G)(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중인동하봉(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중동(4)·(5)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등 많은 초기철기시대 유적에서 토광묘, 적석목관묘,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군산 둔율(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익산 어양동(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신막(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오룡리(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고창 율계리(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연수동(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김제 산치리(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서정동(군산대박물관 2016), 장화동유적(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등 곳곳에서 유적과 유물이 발굴조사되었다. 다만, 고고학적 자료는 증가되었지만,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의 분묘유적은 풍부한 반면 생활유적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대체로 분묘자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이후로도 발굴조사가 활발히 수행된다. 완주 운교유적의 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 적색마연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 다양한 토기가 확인되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완주 갈산리유적의 주거지와 분묘에서도 점토대토기와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가 주로 발굴되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완주 수계리청등(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둔산리서당유적(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에서는 토광묘가 군집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장품으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안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중동(A)(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원만성(A)(전북문화

재연구원 2018), 만성동·원만성(1-4)(전북문화재연구원 2018), 여의동(2)(전북문화재연구원 2018), 반월동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9) 등이 발굴되었다.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완주와 전주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밀집도와 유물의 수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인접한 익산과 김제지역에서도 유적이 다수 확인된다. 익산 서두리(1)(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구평리(Ⅱ)·(Ⅳ)(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계문동(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송학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광암리·동촌리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8) 등과 김제 상동동(Ⅰ)(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서정동(Ⅱ)(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수록리(군산대박물관 2014), 반월리·부용리(2)·(5)유적(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까지 포함하면 만경강 일대에 상당히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군산, 고창, 정읍, 진안 등지에서도 계속해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다.

Ⅱ. 전북지역 지역별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 현황

전북지역은 지형적으로 서부는 평야지대와 동부는 산간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지형적 구분에 따른 고고 자료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부권역 일대에는 송국리문화가 발달했지만, 동부권역은 지석묘 문화가 상대적으로 번창했다. 또한 전북 동부권은 전남의 영산강과 섬진강, 영남의 남강유역을 이어주는 문화적 점이지대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김승옥 2019).

특히 전북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유적 주변의 주요 수계를 살펴보면 만경강, 동진강, 주진천 등이 있다. 이는 전북지역 연구에 있어서 수계와 산계는 지역권 설정의 중심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한다.(김승옥 2000). 이들 주요 수계를 통해서 활발한 문화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많은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북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86개소이다.[2] <그림 1>과 <그림 2>에서와 같이 만경강지류에 속하는 익산, 전주, 완주, 군산지역에서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진강 지류로 고창지역에서 유적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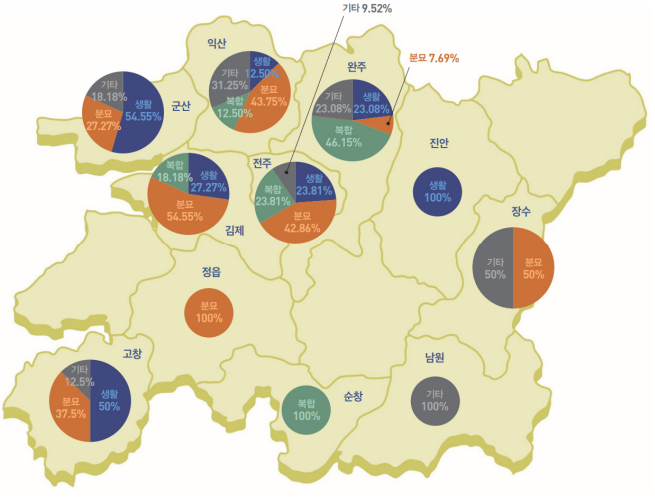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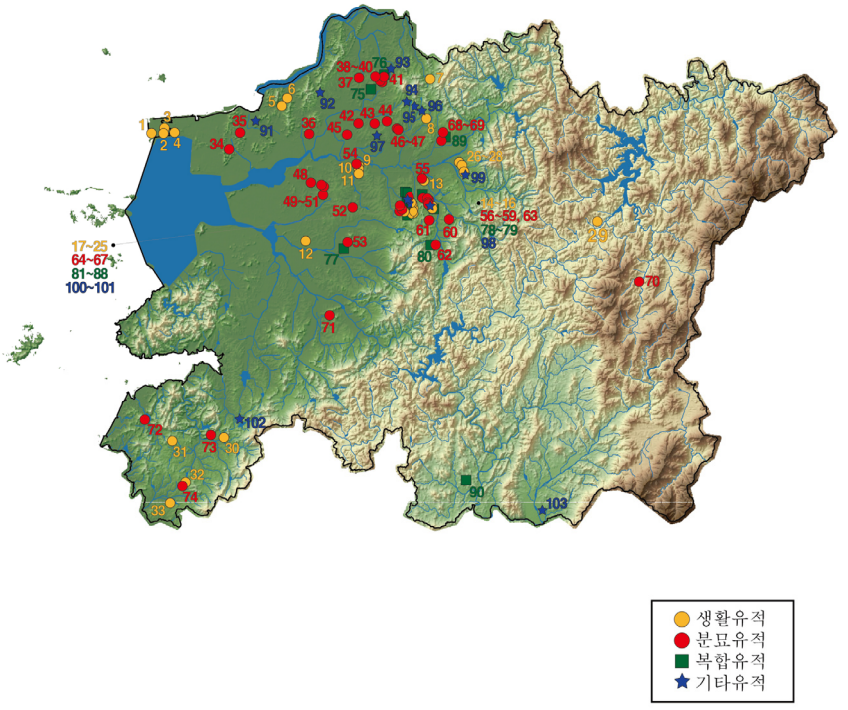


그림 1.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

2) 발견신고 및 지표조사로 확인된 유적도 포함된 유적 현황이다.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생활유적

1. 군산 비응도패총
2. 군산 띠섬패총
3. 군산 노래섬패총
4. 군산 가도패총
5. 군산 도암리유적
6. 군산 남전패총
7. 익산 신막유적
8. 익산 광암리-동촌리유적
9. 김제 반월리-부용리(5)유적
10. 김제 반월리유적
11. 김제 석담리유적
12. 김제 장화동유적
13. 전주 반용리유적
14. 전주 마전(Ⅰ)유적
15. 전주 마전(Ⅱ)유적
16. 전주 척동유적
17. 전주 중동(4)유적
18. 전주 중동(5)유적
19. 전주 정문동(가)유적
20. 전주 정문동(나)유적
21. 전주 중동A (가)유적
22. 전주 중동A (나)유적
23. 전주 중동A (라)유적
24. 전주 안심유적
25. 완주 신풍(다)유적
26. 완주 상운리(나)유적
27. 완주 용흥리유적
28. 완주 운교유적
29. 진안 군상리유적
30. 고창 율계리유적
31. 고창 연수동유적
32. 고창 성남리유적
33. 고창 산정리유적

분묘유적

34. 군산 선제리 108-16번지유적
35. 군산 둥율유적
36. 군산 건장산유적
37. 익산 다송리유적
38. 익산 오룡리(3)유적
39. 익산 오룡리(4)유적
40. 익산 오룡리(5)유적
41. 익산 구평리(Ⅱ)유적
42. 익산 계문동유적
43. 익산 어양동(Ⅱ)유적
44. 익산 부송동 석치고개유적
45. 익산 송학리유적
46. 익산 신동리(6)유적
47. 익산 신동리(7)유적
48. 김제 산치리유적
49. 김제 수록리유적
50. 김제 부거리(Ⅷ)유적
51. 김제 부거리(다)유적
52. 김제 상동동(Ⅰ)유적
53. 김제 서정동유적
54. 김제 반월리-부용리(2)유적
55. 전주 반월동유적
56. 전주 여의동유적
57. 전주 여의동(2-1)유적
58. 전주 여의동(2-2)유적
59. 전주 원만성(A)유적
60. 전주 중화산동유적
61. 전주 효자(Ⅲ)유적
62. 전주 중인동유적
63. 전주 만성동 동경출토지
64. 전주 원장동(G)유적
65. 완주 갈산리(나)유적
66. 완주 신풍(가)유적
67. 완주 신풍(나)유적
68. 완주 둔산리 서당(1)유적
69. 완주 수계리 청동유적
70. 장수 남양리(나)유적
71. 장수 지도유적
72. 고창 왕촌리유적
73. 고창 죽림리지석묘
74. 고창 광대리유적

복합유적

75. 익산 서두리(1)유적
76. 익산 구평리(Ⅳ)유적
77. 김제 서정동(Ⅱ)유적
78. 전주 만성동-원만성(1-4)유적
79. 전주 마전(Ⅳ)유적
80. 전주 중인동 하봉유적
81. 전주 중동(C)유적
82. 전주 중동A (다)유적
83. 완주 갈동유적
84. 완주 갈동(Ⅱ)유적
85. 완주 갈산리(가)유적
86. 완주 덕동(D)유적
87. 완주 덕동(F)유적
88. 완주 덕동(G)유적
89. 완주 둔산리 서당(2)유적
90. 순창 동촌유적

기타유적

91. 군산 조촌동 채형동검
92. 군산 관원리 매납유적
93. 익산 연동리 한경
94. 익산 오금산유적
95. 익산 왕궁리 동모
96. 익산 평장리유적
97. 익산 용제리 이제유적
98. 전주 효자동 동모
99. 완주 상운리 채형동검
100. 완주 덕동 유물산포지
101. 완주 상림리 매납유적
102. 고창 송룡리 동검
103. 남원 세전리 채형동검

그림 2.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 현황

유적 성격별로 살펴보면 생활유적에서는 주거지 24기, 수혈 110기, 구상유구 7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400여 점이며 대부분이 토기이다. 분묘유적에서는 토광묘, 적석목관묘, 옹관묘 등의 무덤 246기가 조사되었으며,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청동기, 철기, 옥기류 등 다양한 종류가 1천여 점에 이른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을 생활유적, 분묘유적, 복합(생활+분묘)유적, 기타(발견신고 및 지표수습)유적으로 분류해서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완주, 전주, 익산에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 외 고창, 군산, 김제에서도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확인된다. 특히 완주, 전주, 익산 지역은 만경강유역권에 속하며 대규모 군집묘, 중요 청동유물 등이 확인되는 곳으로 고대문화의 유입과 확산의 중심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산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6개소이다. 패총을 포함한 생활유적이 11개소이며, 분묘유적이 3개소이다. 이 밖에 매납유적과 발견신고된 유적이 각 1개소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리적 위치상 생활유적으로는 패총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군산 선제리 108-16번지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유구로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검파형동기, 세형동검, 소형동부, 동사, 동착, 관상동기, 흑색마연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환옥이 출토되었다. 선제리 적석목관묘는 바닥에 편평한 할석을 전면에 부석하였고, 벽은 판상형 할석을 이용하여 세우고 그 위에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다.

익산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22개소이다. 생활유적 4개소, 분묘유적 11개소이며, 복합유적 2개소이다. 이 밖에 발견신고 유적이 5개소로 확인되었다. 대규모 취락이나 군집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생활유적은 광암리·동촌리유적과 신막유적에서 조사되었다. 광암리·동촌리유적 주거지 내부에서 발형토기편 및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 두형토기 대각편 등의 토기류, 수혈 내부에서 무문토기편, 우각형파수부편, 두형토기 대각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 간 이격거리가 40~130m에 이르는 산발적 분포양상을 보인다. 신막유적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수혈 주변에서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를 수습하였다. 해당 유구는 시굴조사 성격으로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출토유물 양상을 통해 초기철기시대의 유구로 추정하였다.

분묘유적은 구평리, 다송리, 부송리석치, 서두리, 신동리, 오룡리 유적 등이 있으며, 다송리유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광묘이다. 계문동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청동 검파두식과 철촉, 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와 철기가 공반되는 양상은 주변에 위치한 신동리유적의 토광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구평리(Ⅱ)유적에서는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세형동검, 원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구평리(Ⅳ)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옹관묘 1기와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다송리유적은 1975년 석관묘 1기가 발견 신고되었으며, 내부에서 다뉴조문경 2점, 청동단추 2점 등의 청동유물을 비롯하여 관옥 및 약간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부송동 석치고개유적은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는데 4호 토광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서두리(1)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유구는 토광묘 1기와 수혈 1기가 조사되었으며, 토광묘 내부에서 동사, 수혈 내부에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및 고배 대각편,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송학리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토광 내 양 단벽에 홈이 패어져 있어 목곽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부에 무경식의

삼각편평촉 2점이 출토되었다. 삼각편평촉은 원형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이 공반하는 적석토광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동리유적은 오금산(125m)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의 말단부에 형성되어 있다. 초기철기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내부에서 흑도장경호편, 세형동검, 검파두식, 점토대토기, 철부, 무문토기 저부편, 2호 토광묘에서 점토대토기, 철사가 출토되었다. 세형동검 및 점토대토기와 더불어 철부와 철사가 공반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오룡리유적은 구릉의 정상부에서 토광묘 4기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및 흑도장경호의 토기류와 세형동검, 삼각형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김제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4개소이다. 생활유적 6개소, 분묘유적 7개소, 복합유적 1개소로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은 반월리유적, 반월리·부용리유적, 석담리 유적 등에서 주거지와 수혈,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반월리유적에서는 주거지 4기가 남쪽 기슭 중단부 이상, 수혈 10기는 남쪽 기슭 중단부 이하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모두 방형이며, 1호 주거지 동벽에서 화덕 추정지, 2호 주거지 북서벽의 주공, 4호 주거지 타원형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 파수부대옹편, 방추차, 어망추, 석창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는 10기 모두 바닥에 불에 탄 굵은 모래층 위에 형성된 목탄층 위에 토기가 남아있어 소성과 관련 있어 보이며, 내부에서는 점토대토기호, 두형토기, 흑도장경호, 무문토기호 등이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은 반월리·부용리유적, 부거리유적, 서정동유적 등 다수 확인되었다. 반월리·부용리유적에서 목관묘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옹, 저부, 무문토기 발 등이 있다. 서정동유적에서는 토광묘 5기가 확인되었는데, 10m 이내로 밀집도가 매우 높다. 토층상 토광묘 내부에는 목관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세문경, 동착, 동부 등이 출토되었다. 서정동(Ⅱ)유적에서는 토광묘 6기, 옹관묘 4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경사면과 나란하게 동-서 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며, 10m 이내로 소형 군집을 이루고 있다.

전주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29개소이다. 생활유적 12개소, 분묘유적 10개소, 복합유적 5개소이다. 이 밖에 발견신고유적 1개소와 지표수습으로 확인된 유적 1개소가 있다.

마전유적은 구상유구, 수혈 등의 생활유적과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그 외에 안심유적, 정문동유적, 중동유적 등에서 수혈과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었데, 내부에는 대부분 무문토기, 호형토기, 심발형토기, 점토대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은 마전, 만성동, 반월동, 여의동, 원장동, 중동, 중인동유적 등 다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만성동·원만성(1-4)유적에서는 적석목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1호 적석목관묘는 2단 굴광되었는데, 하단광이 상단광보다 좁게 굴착되었으며, 적석부와 내부토에서 흑색마연 단경호와 동착, 동사편, 동경편, 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1단 굴광된 2호 적석목관묘는 삼국시대 석축묘와 중복되어 남벽이 파괴되었으며, 유물은 두형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만성동에서는 개간된 밭에서 다뉴세문경과 흑도장경호가 발견되면서 조사되었다. 경작하면서 유구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목관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는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기에서 세형동검, 동사, 관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 외에도 반월동유적, 여의동유적, 원장동유적, 중인동유적 중화산동 유적 등에서 토광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완주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9개소이다. 생활유적 4개소, 분묘유적 5개소, 복합유적 7개소이다. 이 밖에 매납유적 및 발견신고유적이 각 1개소이며, 유물산포지 1곳이 확인되었다. 생활유적

으로 갈산리유적, 덕동유적, 둔산리서당유적, 신풍유적, 용흥리 유적 등에서 주거지 및 수혈이 다수 확인되었다.

분묘유적은 완주, 갈동, 갈산리, 덕동, 둔산리서당, 수계리청등, 신풍유적 등 다수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신풍이나 갈동유적에서는 대규모 군집묘가 확인된다.

신풍(가)유적은 해발 53m의 독립된 구릉에 해당한다. 초기철기시대 유구는 토광묘 57기가 확인되었다. 가지구의 토광묘는 구릉의 작은 골짜기를 경계로 크게 5개 군집으로 구분된다. 1·2군은 유물 출토율이 낮은 편이며, 3·4·5군은 청동기·철기류 및 유리장신구가 부장되며 유물 부장양상에서 다양성을 보인다. 3군에서 청동기가 증가하고 철기가 등장하는 양상을 보이며, 규모가 큰 22·35호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공반하여 출토된다. 4군에서는 청동기·철기류 외에 석촉과 유리장신구가 부장되는데, 유물의 종류를 달리하여 2점 이상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5군은 각 유구의 부장품에서 유물의 다양성 및 출토량이 풍부하며,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단 1기를 제외하고 모두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54호 토광묘에서 간두령 2점이 출토되었다. 신풍(나)유적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24기가 조사되었다. 7기의 토광묘에서 목관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점토대토기옹, 흑도장경호, 파수부호 등의 토기류가 단독부장되는 경우와 동경, 동검, 동사, 동착 등의 청동기류와 각 1점씩 공반되어 출토되는 양상이 보이며, 특히 23호에서 동경·동검·검파두식·동과·동부·동사 등의 청동유물이 집중적으로 부장되었다.

갈동유적은 토광묘 4기와 수혈 1기, 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 청동촉의 청동기류, 철겸, 철부의 철기류, 흑도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점토대토기, 대부호 등의 토기류를 비롯하여 세형동검 거푸집, 환형유리, 관옥 등이 확인되었다. 갈동(Ⅱ)유적은 토광묘 13기와 구 3기가 확인되었다. 세형동검이 출토된 14호 토광묘를 중심으로 10여 기의 토광묘가 군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6기의 토광묘에서 동경, 세형동검, 동모, 동부, 동사 등의 유물이 단독 또는 토기 및 철기류와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구는 경사가 급한 구릉의 북쪽과 동쪽에 형성되었는데, 내부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 및 미완성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장수의 분묘유적 1개소만 확인되었다. 남양리(나)유적에서 적석목관묘 4기, 수습지(적석목관묘 추정) 1곳이 확인되었다. 1차 조사는 1989년 주민 발견신고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교란된 상태로 축조 당시의 유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1997년 조사에서 4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다. 내부에는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지역과 달리 군집을 이루고 있다.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검파두식, 동경, 동모, 철부, 철착, 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정읍의 분묘유적 1개소가 확인되었다. 정토유적은 적석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1호 적석토광묘에서 흑도장경호 1점과 원형점토대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순창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1개소이며, 생활유구와 분묘유구가 모두 확인된 복합유적이다. 동촌유적에서 토광묘 1기는 구릉의 중단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묘광 바닥에는 목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토기류를 제외한 세형동검, 동부, 동착, 동사,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고창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8개소이다. 유물포함층에서 유물이 확인된 유적을 포함해서 생활유적 4개소, 분묘유적 3개소이며, 이 밖에 발견신고유적 1개소가 확인되었다. 진안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개소이며, 주거지가 확인된 생활유적이다. 남원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1개소이며, 세형동검 1점이 수습된 발견신고유적이다.

표 1. 지역별 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 및 출토유물

연번	유적명	유구	분묘	생활	중요유물
1	군산 가도A패총	문화층		1	점토대토기
2	군산 가도E패총	패각층		1	점토대토기
3	군산 건장산	옹관묘	1		점토대토기, 우각파수부토기
4	군산 관원리	매납			동모, 철검, 흑색마연토기
5	군산 남전패총	패각층		1	점토대토기
6	군산 노래섬패총(나)	문화층		1	점토대토기, 흑도소호, 우각형파수편
7	군산 노래섬패총(다)	문화층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8	군산 노래섬패총(라)	문화층		1	점토대토기
9	군산 도암리	주거지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10	군산 둔율	토광묘	1		흑도장경호
11	군산 띠섬패총(Ⅰ)	패각층		1	점토대토기
12	군산 띠섬패총(Ⅱ)	패각층		1	점토대토기
13	군산 비응도A패총	패각층		1	점토대토기
14	군산 비응도B패총	패각층		1	점토대토기
15	군산 선제리 108-16번지	적석목관묘	1		검파형동기, 동검, 동부, 동사, 동착, 흑색마연장경호, 점토대토기, 환옥
16	군산 조촌동 세형동검	발견신고			세형동검
17	익산 계문동	토광묘	1		무문토기, 검파두식, 철도자, 철촉
18	익산 광암리·동촌리(4)	주거지, 수혈		4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발형토기, 두형토기대각편, 우각형파수부편
19	익산 광암리·동촌리(7-A)	수혈		1	토제방추차
20	익산 광암리·동촌리(11)	수혈		2	무문토기, 두형토기
21	익산 구평리(Ⅱ)	토광묘	4		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22	익산 구평리(Ⅳ)	옹관묘, 수혈	1	1	옹, 심발, 무문토기
23	익산 다송리	석관묘	1		조문경, 청동단추, 청동원형장신구편, 벽옥제관옥
24	익산 부송동 석치고개	토광묘	4		점토대토기
25	익산 서두리(1)	토광묘, 수혈	1	1	옹형토기, 발형토기, 고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우각형파수부호, 동사, 석촉, 반월형석도, 석재, 갈판
26	익산 송학리	토광묘	1		석촉
27	익산 신동리(6)	토광묘	1		흑도장경호
28	익산 신동리(7)	토광묘	2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동검, 검파두식, 철사, 철부
29	익산 신막	수혈		1	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30	익산 어양동(Ⅱ)	옹관묘	1		점토대토기
31	익산 연동리 한경	발견신고			한경
32	익산 오금산	발견신고			세형동검, 다뉴세문경
33	익산 오룡리(3)	토광묘	1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석촉
34	익산 오룡리(4)	토광묘	1		장경호

연번	유적명	유구	분묘	생활	중요유물
35	익산 오룡리(5)	토광묘	2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조문경, 석촉
36	익산 왕궁리	수습			동모
37	익산 용제리 이제	발견신고			동검 봉부, 동과, 동착, 동제엽형삭기, 토기편
38	익산 평장리	발견신고			동검, 전한경, 동모, 동과
39	김제 반월리	주거지, 수혈		1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편, 뚜껑, 우각형파수, 고배편
40	김제 반월리·부용리(2)	목관묘	2		점토대토기
41	김제 반월리·부용리(5)	수혈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42	김제 부거리(Ⅻ)	토광묘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43	김제 부거리(다)	토광묘	1		
44	김제 산치리	토광묘	1		발형토기, 석촉
45	김제 상동동(Ⅰ)	토광묘	1		점토대토기
46	김제 서정동	토광묘	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무문토기, 세문경, 동부, 동착, 동사
47	김제 서정동(Ⅱ)	토광묘, 옹관묘. 구상유구	10	3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무문토기, 소호, 세형동검, 검파두식, 철겹, 철부, 철모, 석촉, 관옥
48	김제 석담리(B)	구상유구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장경호, 우각형파수
49	김제 석담리(C)	구상유구		1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우각형파수
50	김제 석담리(D)	구상유구		1	두형토기, 무문토기, 우각형파수, 어망추, 석촉
51	김제 수록리	토광묘	7		소호, 동부
52	김제 장화동	수혈		1	점토대토기, 흑도소호
53	전주 마전(Ⅰ)	구상유구		2	점토대토기, 장경호, 고배, 조합식우각형파수
54	전주 마전(Ⅱ)	수혈, 구상유구		7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고배, 석촉, 연석, 지석
55	전주 마전(Ⅳ)	토광묘, 수혈	1	3	점토대토기
56	전주 만경동 동경출토지	토광묘	1		흑도장경호, 동검, 세문경, 동사, 검파두식, 관옥
57	전주 만성동·원만성(1-4)	적석목관묘, 구상유구	2	3	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 적색마연토기, 두형토기, 동검, 다뉴세문경, 동사, 동착, 관옥, 환옥, 석기
58	전주 반용리	수혈		1	점토대토기
59	전주 반월동	토광묘	3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검파두식, 동착, 유리옥, 환옥, 관옥, 마제석촉
60	전주 안심	주거지		2	점토대토기, 심발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송풍관, 방추차
61	전주 여의동	토광묘	1		흑도장경호, 조문경, 선형동부, 동착, 동과
62	전주 여의동(2-1)	토광묘	2		무문토기
63	전주 여의동(2-2)	토광묘	1		
64	전주 원만성(A)	적석목관묘	2		
65	전주 원장동(G)	토광묘	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세문경, 동부, 동사, 동과, 검파두식
66	전주 장동	지표수습			점토대토기
67	전주 정문동(가)	수혈, 구상유구		6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심발형토기, 두형토기, 파수, 대각편, 방추차
68	전주 정문동(나)	수혈, 구상유구		10	무문토기, 호형토기, 심발형토기, 두형토기, 대각편, 파수, 방추차, 토우, 토제품

연번	유적명	유구	분묘	생활	중요유물
69	전주 중동(4)	주거지, 수혈		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고배, 조합식우각형파수, 토제방추차, 청동제품, 석제품, 석촉
70	전주 중동(5)	수혈		1	무문토기
71	전주 중동A (가)	수혈, 구상유구		11	무문토기, 두형토기, 파수, 대각
72	전주 중동A (나)	수혈, 구상유구		8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파수, 대각편, 토제품
73	전주 중동A (다)	토광묘,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1	9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대각편
74	전주 중동A (라)	구상유구, 유물포함층		7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파수, 대각편
75	전주 중동(C)	옹관묘, 유물포함층	1	1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무문토기, 두형토기, 동검
76	전주 중인동	토광묘	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77	전주 중인동 하봉	토광묘, 구상유구	1	1	점토대토기, 흑도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동부
78	전주 중화산동	토광묘	15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발형토기, 동검, 반월형석도
79	전주 척동	수혈		1	점토대토기
80	전주 효자동 동모	발견신고			동모
81	전주 효자4(Ⅲ)	적석목관묘	1		동검, 세문경, 옥, 유리장신구
82	완주 갈동	토광묘, 수혈, 구상유구	4	3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고배, 뚜껑, 파수, 방추차, 세문경, 동모, 동부, 동촉, 동사, 철부, 철사, 철겸, 동경용범, 환형유리
83	완주 갈동(Ⅱ)	토광묘, 구상유구	13	3	점토대토기, 발형토기, 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84	완주 갈산리(가)	옹관묘, 주거지, 수혈	2	5	점토대토기, 발형토기, 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석제품
85	완주 갈산리(나)	토광묘	1		
86	완주 덕동유물산포지	지표수습			동착 용범
87	완주 덕동(D)	토광묘, 구상유구, 수혈	3	5	점토대토기, 소호, 흑도소호, 무문토기, 대부호, 우각형파수, 동검, 동경, 동부, 동착, 동사, 무경식석촉, 지석
88	완주 덕동(F)	토광묘, 구상유구, 수혈	2	9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두형토기, 우각형파수, 검파두식, 동과, 석촉
89	완주 덕동(G)	토광묘, 구상유구	2	8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우각형파수, 두형토기대단편, 동검, 동부, 동경, 석기편
90	완주 둔산리 서당(1)	토광묘	6		흑도소호, 동검, 동부, 동사
91	완주 둔산리 서당(2)	토광묘, 수혈	19	16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발형토기, 소호, 두형토기, 동검, 동사, 동부, 석촉, 갈판형석기
92	완주 상림리	매납			동주식동검
93	완주 상운리(나)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9	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두형토기
94	완주 상운리 세형동검	발견신고			세형동검
95	완주 수계리 청등	토광묘	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가락바퀴
96	완주 신풍(가)	토광묘	57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세문경, 동사, 동착, 동과, 동관, 검파두식, 철촉, 철도자, 환두도자, 철부, 철사, 철착, 유리장신구세트
97	완주 신풍(나)	토광묘	2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세문경, 동부, 동사, 동착, 동과, 검파두식
98	완주 신풍(다)	건물지, 수혈, 소성유구, 구상유구		11	무문토기, 파수, 반월형석도, 석촉

연번	유적명	유구	분묘	생활	중요유물
99	완주 용흥리	수혈		15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장란형토기편, 방추차
100	완주 운교	주거지		1	점토대토기, 심발형토기, 적색마연토기, 뚜껑, 조합식우각형파수, 석촉
101	장수 남양리(나)	적석목관묘, 수습지	4(1)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세문경, 동모, 동착, 철부, 철착, 철사, 검파두식
102	정읍 정토	적석토광묘	2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103	순창 동촌	토광묘, 주거지, 구상유구, 수혈, 폐기장	1	9	세형동검, 동부, 동착, 동사, 무문토기, 홍도, 지석, 석부, 석촉, 방추차, 어망추
104	고창 광대리	토광묘	1		무문토기 장경호
105	고창 산정리	수혈		7	무문토기편, 점토대토기편, 파수, 석촉
106	고창 성남리(Ⅰ)	수혈, 구상유구		2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107	고창 송용리 동검	발견신고			세형동검
108	고창 연수동	유물포함층		1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시루
109	고창 왕촌리	석관묘	1		흑도장경호
110	고창 율계리	수혈		4	점토대토기, 고배, 방추차
111	고창 죽림리지석묘	지석묘 매장주체부	1		점토대토기
112	진안 군상리	주거지		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113	남원 세전리 세형동검	발견신고			세형동검

Ⅲ.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양상과 지역성

앞서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조사 현황과 분포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묘유적이 생활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익산, 전주, 완주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유적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구제발굴에 의해 조사된 유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설명하거나 중심지역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전북지역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문화는 마한의 성립기 물질문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준왕의 정착지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이 마한의 성립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발표자는 준왕의 남천과 함께 새롭게 유입되는 또 다른 물질문화의 유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회상으로 유구의 군집화, 유리·철기와 같은 새로운 소재의 등장 등으로 보고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분묘유적 중 적석목관묘와 토광묘, 생활유적 중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된 유적들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3, 표3·4).

적석목관묘는 군산, 익산, 장수, 전주에서 확인된다. 장수 남양리유적에서만 4기가 군집을 이루고

대부분 1기씩 확인되며, 출토유물도 토기, 청동기, 철기, 구슬 등 유물이 모두 확인되었다.

토광묘의 경우 만경강과 동진강까지 서부지역 다수에 분포하고 있으며, 낮은 구릉 정상부나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완주, 전주, 김제, 익산 등지에서 조사되었는데, 완주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의 군집묘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토기, 청동기, 철기, 옥기, 석기 등 다양하다. 청동기는 완주 갈동, 덕동, 둔산리 서당, 수계리청등, 신풍, 익산 계문동, 서두리, 신동리, 오룡리, 전주 만성동, 여의동, 반월동, 원장동, 김제 서정동, 수록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철기는 완주 갈동, 신풍, 익산 계문동, 신동리, 김제 서정동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슬은 완주 갈동, 신풍, 전주 만성동, 반월동, 원장동, 김제 서정동에서 출토되었다. 유물의 조합상으로 보면 완주 갈동과 신풍유적에서는 토기류,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류, 철부, 구슬이 공통적이 확인되고, 익산은 구슬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전주는 철기가 출토되지 않지만 청동기와 다량의 구슬이 함께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군산, 김제, 순창, 완주, 전주에서 11개 유적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낮은 구릉 정산부나 사면부에 입지하고 있고, 전주와 완주지역에서 주거지가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분묘유적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부분 토기류가 출토되었으나. 전주 안심유적에서는 송풍관편이 출토된 바 있다.

한편 주거지는 조사 사례가 적으나 수혈 유구는 모두 23개유적에서 110기가 조사되었다.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완주와 전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완주 용흥리 유적에서는 철부 1점이 출토되었다.

한편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을 지도에 표시하고 QGIS의 밀도추정분석을 해보았다(그림4). 대상 유적은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48개소, 생활유적 3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대는 발굴조사보고서 및 연구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집도는 미발굴 지역에 대한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오류도 분명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향성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의 유적별 밀도추정도를 살펴보면 초기철기시대 전북지역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분묘유적과 생활유적 모두 완주와 전주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유적으로 완주 갈동, 둔산리 서당, 신풍, 전주 중인동, 중화산동에서 10~80여기 이상의 대규모 집단묘가 확인되었고, 주거 및 수혈유구가 완주 덕동, 용흥리, 둔산리 서당, 전주 중동 마전, 김제 반월리, 고창 산정리에서 15기이상의 취락군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완주와 전주 일원에서 군집화된 분묘군과 생활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토유물에서도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호, 발 등의 다양한 토기류, 동검, 동모, 검파두식, 간두령, 정문경 등의 청동기류, 철부, 철도자, 철촉, 철사 등의 철기류, 유리 및 관옥, 거푸집 등 출토유물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다량의 물질문화가 나타나는 양상이다.[3)]

뿐만 아니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거푸집, 덕동 유물산포지에서 확인된 동착 거푸집 등은 이 일대가 청동기 제작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안심유적 1호주거지와 마전유적 4호구에서 출토된 송풍관에서 제련과 관련된 생산시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한수영 2020).

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에 대한 유적 분포현황조사 및 고지형 분석을 실시하여,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유적 41개소를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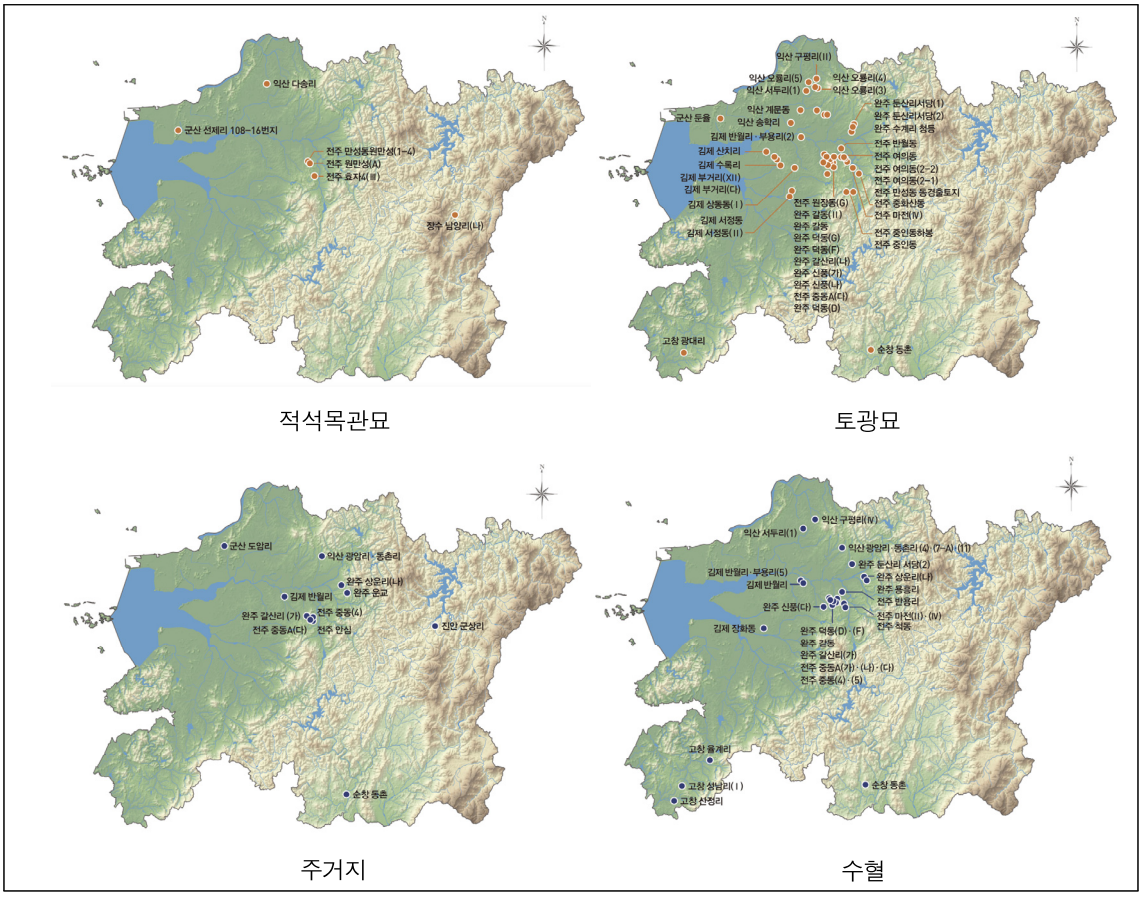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유구별 분포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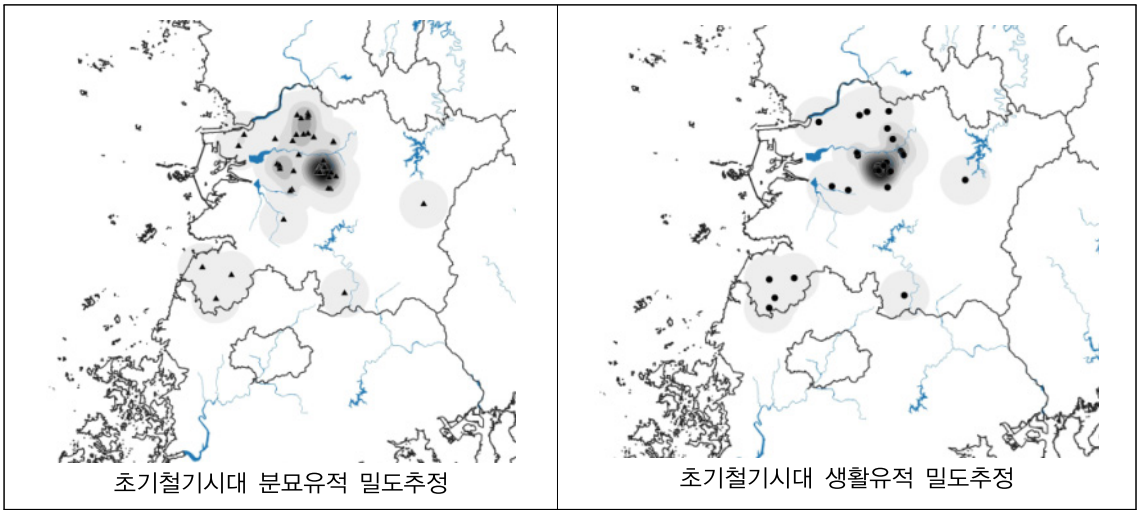


그림 4. 초기철기시대 분묘 및 생활유적 분포 비교

표 3.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분묘 출토 유물 현황

유적명	유구종류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유리옥			광물옥		석제품
	토광묘수	적석목관묘수	옹관묘수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호	우각파수부토기	원통형토기	발형토기	대부발	흑색토기	적색마연토기	호	소호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대부소호	옹형토기	시루	두형토기	방추차	철부	철겸	철사	철착	철촉	봉부	철도자	환두도자	철제품	동검	다뉴조문경	다뉴세문경	검파두식	검파형동기	동과	동모	동사	동부	동착	동촉	동관	동포	간두령	관상동기	동검거푸집	청동원형장신구	동기편	환형유리	유리제관옥	유리제환옥	관옥	환옥	
고창 광대리	1				1																																																			
군산 건장산			1	1				1																																															
군산 둔율	1					2																																																	
군산 선제리 (108-16번지)		1		1		1																											8				3			1	1	1					1								131	
김제 반월리·부용리	2			3	1									1									1																																	
김제 부거리	2			1	2																																																			
김제 산치리	1									2																																														3
김제 상동동	1			1																																																				
김제 서정동	5			1	1	1																													1					2	1	1														
김제 서정동(Ⅱ)	6			1	1	1									1		1		1					2	1				1				1			1																		2		4
			4	5											2					3																																				
김제 수록리	7				4																																				1															
순창 동촌	1																																1							1	1	1														
완주 갈동	4			6	2	4		1										1						3	2																		3					2			2			1		
완주 갈동	13			1	5	3				1			1											4		1							1		2				1	1	1									2				2		
완주 갈산리	1		2	1				2		1																																														
완주 덕동	7			3		2	1					1			1			1															3	1	1	1		1		2	2	1														3
완주 둔산리 서당	25			2	4	5				2		1			1																		5							2	2															1
완주 수계리 청등	5			1		1				1													1										1																							
완주 신풍	81			15	4	42	1	3	1	3	1	8		2					1					5		1	1	3		3	2	1	5		8	2		2		5	1	3		1		2					2	19	87	5		3
익산 계문동	1				1																							2		1						1																				
익산 구평리(Ⅱ)	4			5								3																					1																							
익산 구평리(Ⅳ)			1							1										1																																				
익산 다송리		1																																1											2				1					93	17	

유적명	유구종류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유리옥			광물옥		석제품
	토광묘수	적석목관묘수	옹관묘수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호	우각파수부토기	원통형토기	발형토기	대부발	흑색토기	적색마연토기	호	소호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대부소호	옹형토기	시루	두형토기	방추차	철부	철겸	철사	철착	철촉	봉부	철도자	환두도자	철제품	동검	다뉴조문경	다뉴세문경	검파두식	검파형동기	과	모	사	부	착	촉	관	포	령	상동기	동검거푸집	청동원형장신구	편	환형유리	유리제관옥	유리제환옥	관옥	환옥	
익산 부송동석치고개	4			2																																																						
익산 서두리 (1)	1																																					1																			
익산 송학리	1																																																							2
익산 신동리	3			2	1	1																		1		1						1			1																							
익산 어양동 (Ⅱ)			1	2																																																			
익산 오룡리	4			3	3	3																										3	1																									8
장수 남양리		4		1		1																		3		4	1					2		1	2			2			1												4		4		
전주 마전 (Ⅳ)	1				1																																																			
전주 만성동 동경출토지	1					1																										1		1	1				1																4		
전주 만성동 원만성 (1-4)		2		1								1	1									2										2		1				2		1											1			1	55		2
전주 반월동	3			1	2	1																													3				1														7		40	3	2
전주 여의동	4				1	1																											2							1	1																
전주 원만성 (A)		2																																																						
전주 원장동 (G)	5			1												1	2															8		2	4		1		2	1													8	22		10
전주 중동A (다)	1			3	2																																																		
전주 중동 ©			1		1			1																																															
전주 중인동	9			3	4	2																										1																								
전주 중인동하봉	1			2								1																												1																
전주 중화산동	15			1	2																											2																								1
전주 효자4 (Ⅲ)		1																														1		1																				5	1	
정읍 정토[4]		2		1		1																																																	
합계	221	11	10	72	41	75	2	8	1	11	1	15	2	1	3	1	3	2	2	3	1	2	2	18	3	7	2	5	1	4	2	1	47	5	18	16	3	4	3	20	13	11	3	1	2	2	1	2	1	3	4	30	96	233	152	13

4) 보고서에서는 적석토광묘로 보고되었다.

표 4.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 현황

연번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수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파수	파수부호	우각파수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원통형토기	발형토기	대부발	흑색토기	적색마연토기	호	소호	직구호	편구호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대부소호	호형토기	옹형토기	옹	시루	두형토기	대각	뚜껑
1	군산 도암리	주거지	7	4	3																										
2	김제 반월리	1호 주거지	1																							1					
		2호 주거지	2		2																										
		3호 주거지	3		1						2																				
3	완주 갈산리	1호 주거지(가)	5	1	3																	1									
		2호 주거지(가)	4		3								1																		
4	완주 상운리	1호 주거지(나)	9	1	4						2																		1	1	
		2호 주거지(나)	3		3																										
		3호 주거지(나)	7	4	2																									1	
		4호 주거지(나)	1		1																										
5	완주 운교	8호 주거지	55	2	31					2			7			3													1	2	7
6	익산 광암리·동촌리	kc001호 주거지(4)	8	1	3								2																	2	
7	전주 안심	1호 주거지	6	3	2								1																		
		2호 주거지	8	2	5					1																					
8	전주 중동	1호 주거지(4)	67	14	29	2	1			5							5												1	9	1
		2호 주거지(4)	23	5	14						1															1			1		1
		3호 주거지(4)	29	6	14		1			5							1													2	
		4호 주거지(4)	9	4	3												2														
		5호 주거지(4)	41	6	20			1		4							1												3	3	
9	전주 중동A	1호 주거지(다)	53	9	22		2			5	8																			7	
10	진안 군상리	2호 주거지	2	1	1																										
합계			343	63	166	2	4	1	0	22	13	0	11	0	0	3	9	0	0	0	0	1	0	0	0	2	0	0	7	27	9

완주와 전주 일원에 확인된 유적의 분포, 물질문화의 다양성은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성과에 주목하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20년에 완주 갈동유적과 전주 황방산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와 고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이 일원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유적은 45개소, 유물산포지는 28개소에 이른다.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그림 5>와 같이 청동기시대(25개소)·초기철기시대(5개소)·원삼국시대(11개소) 신규 유물산포지 41개소를 새롭게 확인하였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새로 5개소가 확인되어 황방산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 모두 24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완주 반교리 갈동 유물산포지G는 기존에 보고된 갈동 유물산포지F를 포함하여 북쪽으로 확장된 구역으로 유물산포지는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릉의 정상부(해발 37m)와 북사면 일원에 해당된다. 정상부에는 수목장과 민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유적의 입지상 구릉의 정상부(반교리23-30)를 중심으로 하는 북사면(반교리 23-24 번지)에서 두형토기 대각을 비롯한 무문토기편이 수습됨. 두형토기 대각과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초기철기시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 무문토기는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능선에 조성된 생활유적이거나 무덤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완주 반교리 갈동 유물산포지H는 호남고속도로와 전주 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갈동 유적이 위치한 구릉과 동일한 사면부로 갈동 유적의 서쪽에 자리하는 지점으로 해발 41m 내외의 구릉 정상부와 남사면부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임야와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이식과 민묘조성 등으로 부분적으로 교란된 상태이다. 토기편은 호형토기 계통으로 추정되며, 토기편 주변에서 소토흔으로 추정되는 바닥면이 확인되어 생활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 삼동 유물산포지A는 천잠산(해발 159m)에서 황방산(해발 217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남동쪽 사면부에 위치한다. 비교적 경사가 심한 편으로 묘지와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점토대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사면부에서 수습되었는데, 소형편으로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기는 어려우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단면 역시 전형적인 원형과는 차이가 있다. 유적은 구릉의 정상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 중동 유물산포지A는 천잠산에서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서 북서쪽으로 흘러내린 잔구성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넓은 충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는 해발 30m 내외의 동서로 긴 구릉 형태로 남아 있다.



완주 갈동 유물산포지G 위치



완주 갈동 유물산포지G 수습유물



완주 갈동 유물산포지H 위치



완주 갈동 유물산포지H 수습유물



전주 중동 유물산포지A 위치



전주 중동 유물산포지A 수습유물



전주 척동 유물산포지A 위치



전주 척동 유물산포지A 수습유물

그림 5.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초기철기시대 신규 유적(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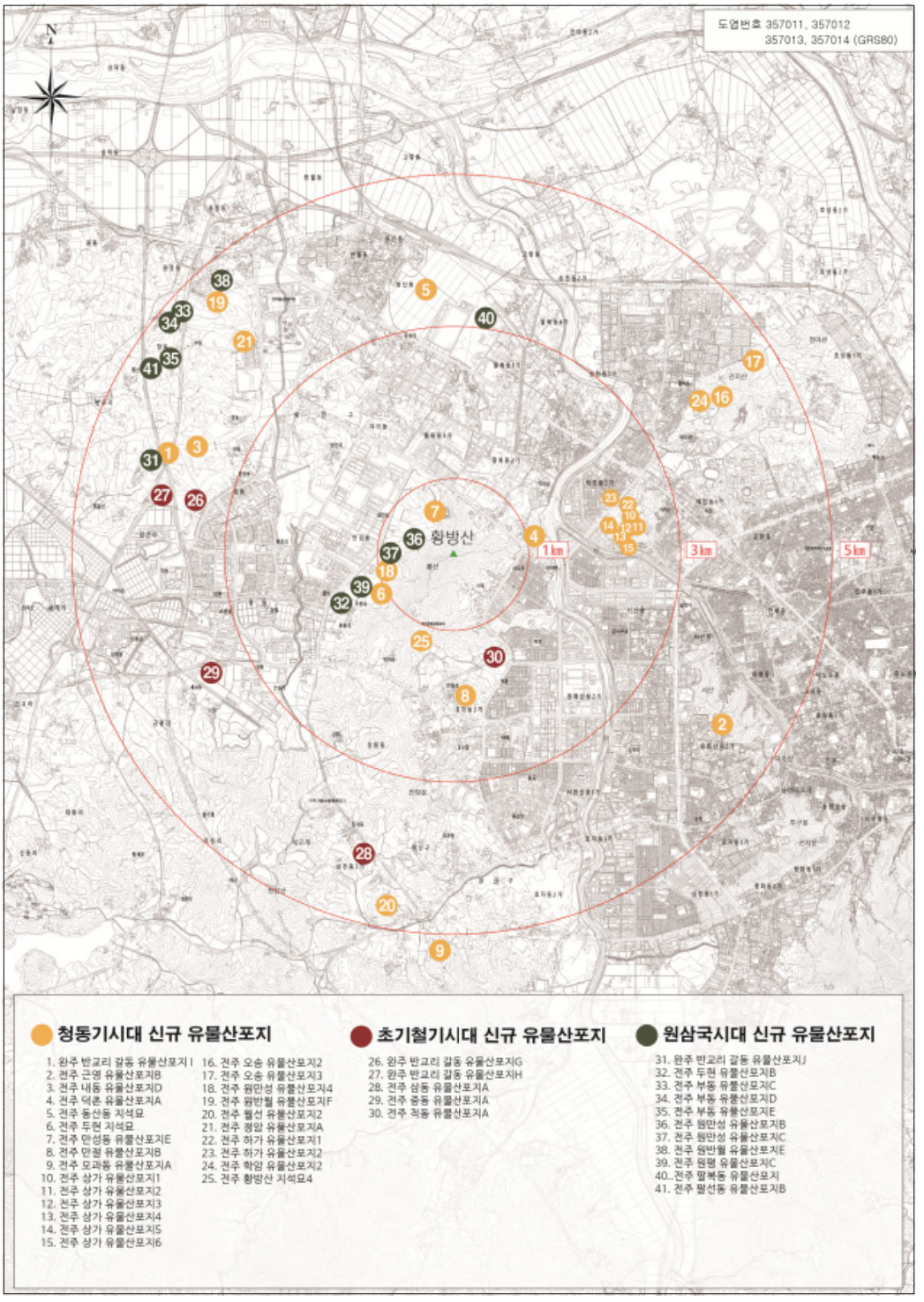


그림 6.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청동기 ·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신규 유물산포지(4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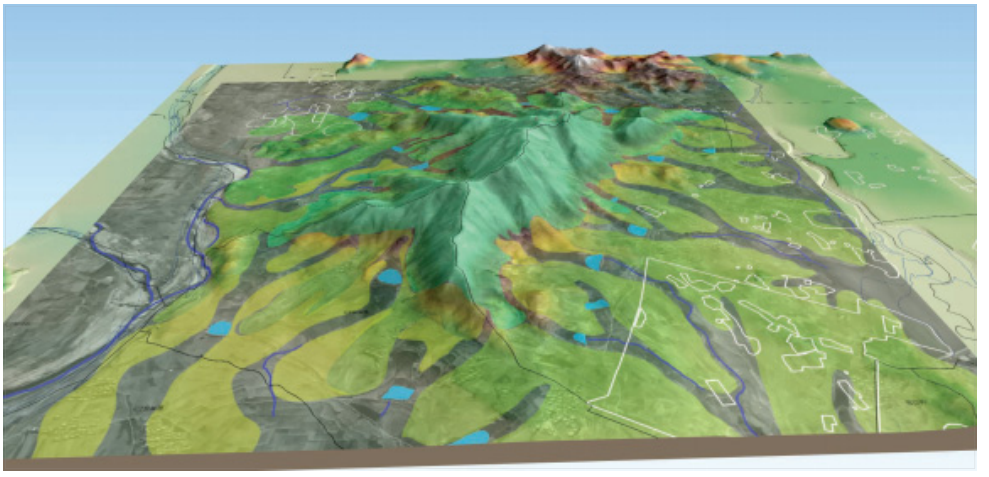
전주 중동 유물산포지A 주변은 국립축산원 부지로 조성되면서 원지형이 삭토되었으나, 본래 중동 유물산포지A는 현재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정상부(해발 40m)를 둔 단독구릉을 이루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산책로 등이 조성되었으나 비교적 원지형이 잘 남아 있으며, 산책로 주변으로 원형의 점토대토기편을 비롯하여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로 보아 생활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주 척동 유물산포지A는 유연로와 천잠로가 만나는 사거리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황방산 자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린 사면의 말단부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다가 전주천으로 이어짐. 능선의 사면부에서 점토대토기의 점토띠와 무문토기편을 비롯하여 선문이 타날된 회백색경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능선을 중심으로 묘역이 조성되면서 중앙부는 부분적으로 삭토된 것으로 판단되며, 무문토기편은 무덤구역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동쪽경계 부분에서 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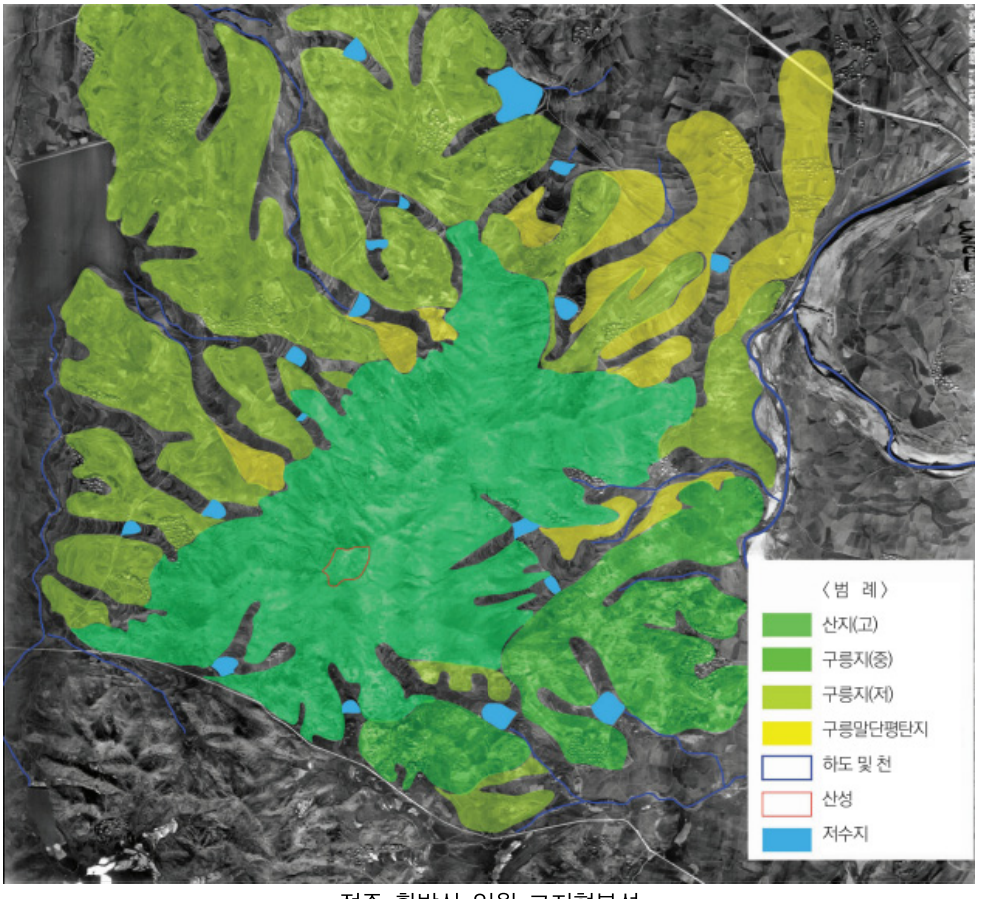
한편 이 일대에 대한 고지형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을 통해 황방산 일원은 산지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황방산과 그 일원은 구릉의 말단부에서 미지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완주 갈동유적은 구릉지형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황방산의 구릉지형 사이에 형성된 곡부에는 곳곳으로 지천이 흐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곡저부에서 지천을 막아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이는 황방산의 수원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며, 이전부터 이 곡저부 지형이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이러한 입지는 구릉지에 존재하는 유적과 관련한 경작지 등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황방산에서 주변을 조망하고 황방산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곡부를 활용하여 관개시설이 축조되고 낮은 구릉지를 중심으로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완주 갈동유적과 그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유적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갈동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의 지형을 살펴보면 구릉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유적은 구릉의 정상부를 지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가지 능선이 펼쳐져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을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구릉지형이 연결되고 있으며, 유적이 입지한 곳을 중심으로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주변으로의 이동에도 좋은 조건이다. 이와 관련한 유적간 네트워크 관계는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형적 입지 조건은 당시의 토광묘를 축조하기에 좋은 여건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특히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새롭게 확인된 유물산포지도 기존 갈동유적 인접지역으로 산포지가 확인되는 점에서도 지형적 입지와 매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주 황방산 일원 3D지형도 복원



전주 황방산 일원 고지형분석

그림 7. 전주 황방산 일원 고지형 분석 복원도(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Ⅳ. 맺음말

이상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발굴조사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분포와 지역별 · 유구별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만, 발표자가 짧은 기간동안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사업을 담당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문을 작성하였기에 짧은 식견으로 논리적 비약이나 잘못된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집성하고 새롭게 확인된 유적들과 분석 내용등은 향후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많은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련의 연구 성과를 통해 만경강 일대가 초기철기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되고 있다. 지금껏 주로 초기철기시대의 분묘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부장품과 함께 사회적복합도, 정치체, 위계, 정체성, 등의 커다란 고고학적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점차적으로 생활유적을 포함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초기철기시대와 관련한 이해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에 관한 많은 부분은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향후 체계적인 분석과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a, 『전북지역 馬韓 문화-성립기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b,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분포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전주박물관, 2016,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유적, 유물, 발굴 그리고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2015, 『완주 상림리 靑銅劍』.

국립전주박물관·(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금강의 새로운 힘 2100년 전 완주 사람들』.

국립청주박물관, 2019, 『한국의 청동기 자료 집성(Ⅰ,Ⅱ,Ⅲ)』.

완주군청·국립전주박물관, 2019,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완주군, 2018, 『완주군 만경강유역 고고유적』.

전라북도박물관, 1973, 『全北遺蹟調査報告 第2輯』, 普光出版社.

전라북도박물관, 1975, 『全北遺蹟調査報告 第5輯』, 普光出版社.

전라북도박물관, 1976, 『全北遺蹟調査報告 第6輯』, 普光出版社.

전라북도박물관, 1979, 『全北遺蹟調査報告 第10輯』, 普光出版社.

권오영, 2014, 「고대 한반도에 들어온 유리의 고고, 역사학적 배경」, 『韓國上古史學報』第85號, 韓國上古史學會.

權五榮, 2017, 「韓半島에 輸入된 琉璃구슬의 變化過程과 經路 -初期鐵器~原三國期를 중심으로-」, 『湖西考古學報』第37輯, 湖西考古學會.

金奎正, 2004,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檢討 - 圓形粘土帶土器를 中心으로 -」, 『湖南文化財硏究』 제4호, (財)湖南文化財硏究院.

金周弘, 2007, 「古代 琉璃玉 製作技術 硏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정, 2017, 「점토대토기문화기 석재사용 분묘 검토 - 호서·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 『韓國靑銅器學報』第20號, 韓國靑銅器學會.

김규정, 2020,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그 변화」, 『湖南考古學報』第65輯, 湖南考古學會.

김규정, 2020, 「주거지로 본 마한성립기의 호남」, 제28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湖南考古學會.

김상민, 2020, 「철기로 본 마한성립기의 호남」, 제28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湖南考古學會.

金承玉 외, 2004, 「완주 상운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한국고고학대회』 제28회, 韓國考古學會.

김승옥, 2016,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韓國考古學報』第99輯, 韓國考古學會.

김승옥, 2017,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 -전북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第55輯, 湖南考古學會.

김승옥, 2019, 「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 『湖南考古學報』第63號, 湖南考古學會.

김승옥, 2020, 「만경강의 물질문화와 마한의 성립」 『전북지역 馬韓 문화-성립기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송종열, 2016, 「점토대토기문화 시기의 전북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 학술대회, 湖南考古學會.
유철 외, 2012, 「전주 만성동 초기철기시대 유적」, 2012년 유적조사 발표회, 韓國考古學會.
최완규, 2016, 「전북 혁신도시의 역사와 문화」, 제24회 호남고고학 학술대회, 湖南考古學會.
최완규, 2020, 「마한성립기의 호남」, 제28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湖南考古學會.
한수영, 2014, 「完州地域을 中心으로 한 多鈕細文鏡의 展開樣相」, (財)湖南文化財硏究院.
한수영,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수영, 2016,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제24회 호남고고학 학술대회, 湖南考古學會.
한수영, 2020, 「전주 황방산 일원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분포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14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

정윈페이 (鄭雲飛)
中國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

정윈페이 (中國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초록: 벼 재배는 동아시아 문명 발전의 물질적 기반이다. 1970 년대 허무두 유적지(河姆渡遺蹟地)에서 출토된 벼는 중국이 벼 재배의 기원지 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벼 재배가 인도에서 기원하였다는 학설을 뒤집었고 벼농사를 특징으로 하는 장강 유역도 황하 유역과 함께 중화 문명의 발상지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고고학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량주(良渚) 유적, 만 년 전의 논벼, 대규모 고대 논 등이 발견되며 중국 문명사의 여러 공백을 채웠고, 벼 재배의 기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국제사회는 벼 재배가 만 년 전 장강 중하류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데 동의한다. 식물 고고학, 농경 유적 고고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고고학 작업은 중화 문명의 여정과 문명사회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키워드: 벼 재배의 기원, 다양성 중심, 지리 구분법, 벼 유물, 농경 유적

Abstract : Rice cultivation is the major basis for developing civilization in East Asia. A large number of archaeological remains of rice unearthed at Hemudu site in the 1970s proved that rice cultivation originated in China, different from the origin in India in past common, and suggested that the Yangtze regions, like the Yellow River regions, was one of birthplace of Chinese civilization. Recent discoveries of, the archaeological Ruins of Liangzhu City, the rice remains over 10 thousand years old, and huge paddy fields have filled many gaps in the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and constantly updated the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rice cultivation, being traced back to 10000 years ago in the middle and lower regions of the Yangtze in international consensus. archaeobotany, archaeological paddy field and others, multi-disciplinary archaeologies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process of Chinese civilization and the establishing civilized society.

Keywords : Origin of rice cultivation; Center of diversity; Geographical differentiation; Archaeological rice; Chinese Civilization

농업은 인류가 고차원적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농업이 없이는 혈거(穴居)나 이주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잉여생산물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에 도시 혁명도 산업혁명도 없었을 것이며 현대 사회의 풍족한 물질과 다채로운 정신문명도 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밀과 보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구어내었고, 쌀과 조는 중화 문명을 키워내었다. 옥수수와 감자는 아메리카 문명이 수수는 아프리카 문명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농경 시스템은 세계 각지의 문명사회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밑거름이다. 그렇기에 농업의 발생은 인류(사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며 세계 모든 문명의 발전과 형성의 출발점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섭취하는 쌀은 옥수수, 밀과 함께 세계 식량 작물 생산량에서 3 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작물이다. 만년 이상의 재배 역사를 지닌 쌀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명 발전의 물질적 토대이다. 중국 고고학의 발전은 벼 재배의 기원과 중화 문명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재배식물이론과 벼 재배의 기원

벼 재배의 기원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는 구소련의 니콜라이 바빌로프(Nikolai Ivanovich Vavilov)를 꼽는다. 그는 1916 년부터 1940 년까지 24 년간 180 번에 걸친 과학 고찰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40 번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 50 여 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발자취를 남기며 25 만여 개의 재배 식물 및 근연 식물(近緣植物)의 표본과 종자를 수집하였고, 형태학, 세포학, 유전학, 질병 저항성 및 생태 환경 적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리 구분법으로 그들의 분포 상태를 관찰한 결과 재배 식물 종의 분포가 전 세계적으로 고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부 지역은 품종이 다양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종의 변이가 집중된 지역을 기원 중심지, 유전자 중심지 또는 유전 다양화 중심지라고 칭하였다. 이 중심지는 우성 유전자의 빈도가 높고 인류가 최초로 재배 식물을 가꾸기 시작한 원시형의 기원 중심지다. 그렇게 재배된 식물이 원시형의 기원 중심지에서 변두리 지역으로 퍼졌는데, 식물 간의 격리와 자가 수정의 결과로 차츰 열성 유전자가 나타나고 증식하며 변종의 수도 줄어들었다. 열성 유전적 형질에 뒤덮인 지역은 해당 식물의 2 차 기원 중심지가 된다. 그는 또 전 세계를 중국, 힌두스탄, 중동, 지중해, 에티오피아, 멕시코 남부, 중미, 남미 등 8 곳의 재배 식물 기원 중심지로 나누었다[1, 2].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재배 작물 기원 이론에서 인도를 아시아 벼 재배의 기원 중심지로 보고, 중국을 2 차 기원 중심지로 보았다. 인도를 벼의 고향으로 믿은 데는 그곳에 다양한 종의 야생벼(野生稻) 뿐만 아니라 잡초 같은 생김새에 self-seeding 을 위해 곡식알이 여물면 바로 떨어지는 잡초의 일반적 특성을 지닌 보통벼가

[1] 런번밍(任本命) Nikolai Ivanovich Vavilov[정기 간행물], 유전, 2003, (6): p3~4
[2] H. N. 바빌로프 저, 둥위천(董玉琛) 역, 주요 재배식물의 세계 기원 중[전문 서적], 베이징: 농업출판사, 1982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야생벼와 재배벼를 연결하는 몇 가지 중간 품종도 인도에서 발견되었다. 인도 재배벼의 종은 다른 지역의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해당 품종은 유전적으로 중국 및 아시아의 기타 2 급 재배지의 품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인도의 재배 식물은 그 종류가 중국만큼 다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인도의 벼가 중국으로 퍼져 수천 수백 년 동안 주요 식량 작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세계 농업에서 열대 인도가 지니는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3].

벼 재배의 인도 기원설은 세계 농업 기원 연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1928 년 일본 학자 가토 시게모토(加藤茂苞)는 처음으로 현대 과학적 방법을 채택하여 벼 종자의 형태, 잡종 결실성(結實性) 및 품종 간 혈청 반응의 차이를 근거로 아시아 재배 벼를 일본형과 인도형의 두 아종(亞種)으로 나누고 각각을 인디카(O. sativa subsp. indica)와 자포니카(O. sativa subsp.Japonica)로 명명하였다[4,5]. 1970 년대 일본 학자 와타베 다다요, 나카가와라 마사히로 등은 야생벼와 재배벼의 유전자원(遺傳資源) 조사, 아이소자임 분석, 페놀 반응, 수정 경쟁(受精競爭) 유전자의 지리적 분포 등의 연구를 통해 인도 아삼, 미얀마 북부, 중국 윈난에서 라오스 그리고 태국 북부 일대의 동남아 산지가 벼 종자의 다양성 및 변이의 중심지란 사실을 발견하고, 벼 재배가 인도 아삼과 중국 윈난에서 시작되었다는 학설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벼 재배가 아삼과 윈난 일대에서 시작되어 여러 큰 강과 계곡을 따라 각지로 퍼졌다고 믿었는데, 남쪽으로는 홍허(紅河)와 메콩강을 따라 동남아로 퍼졌고, 서쪽으로는 브라마푸트라강을 따라 인도 북부 평원으로, 동쪽으로는 장강을 따라 장강 유역으로 계속 퍼지며 일본에 닿았다는 것이다[6, 7]. 위에서 보듯이 1970 년대 이전까지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지리 구분법이 벼 재배의 기원이란 연구 분야를 이끌어 왔기에 어디서든 인도 기원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일찍이 벼 재배의 인도 기원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1946 년 장쑤성 농업과학원의 저우스루(周拾錄)는 안후이(安徽) 차오후(巢湖)에 현대 자포니카 벼의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야생 '연못 벼(塘稻)'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중국도 벼 재배의 기원지이며, 자포니카 벼는 중국에서, 인디카 벼는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유명한 농학자인 딩잉(丁穎)은 역사학, 언어학, 인종학, 식물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중국이 벼 재배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재배벼의 기원지라고 믿었다. 화난의 광저우 부근 및 광시 시강(西江) 유역 등에서 번식하는 보통 야생벼와 현대 재배 인디카 벼가 생물 형상 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밀접한 친연 관계가 있어 교배가 가능한데, 이것이 재배벼의 조상이라 여겼다. 그는 화난 지역에서 벼 재배가 시작된 후, 처음에는 인디카 벼로 진화하였다가 북쪽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따뜻하고

[3] Mittre, V., .Palaeobotanieal evidence in India[전문 서적]. In (Sir Joseph Hutchinson, ed.) Evolutionary Studies in World Crops: Diversity and Change in the Indian Sub-continent, pp. 3-30.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4] 가토 시게모토, 마루야마 요시오, 다양한 벼 종 간의 유연관계에 관한 혈청학적 연구[정기 간행물], 큐슈 제국 대학 농학부 학예 잡지, 1928, 3:1

[5] 가토 시게모토, 코사카 히로시, 잡종 식물의 결실도(結實度)에서 볼 수 있는 벼 품종의 유연관계[정기 간행물], 큐슈 제국 대학 농학부 학예 잡지, 1928, 3:2

[6] 와타베 다다요 저, 인사오팅(尹紹亭) 역, 도미지로(稻米之路)[전문 서적], 윈난: 윈난인민출판사, 1982

[7] 나카가와라 마사히로, 稲と稲作のふるさと, 고금서점(古今書店), 1985

시원한 기후 조건에 적응하며 자포니카 벼로 진화하였다고 추측하였다[8, 9]. 중국은 일찍이 한대(漢代)부터 벼를 인디카와 자포니카로 명확히 구분하였는데 각각 가토 시게모토가 제시한 두 아종에 해당하나 원산지 명명 우선 원칙, 역사적 근거 그리고 과학성에 따라 인디카 아종 O. sativa subsp. hsien 과 자포니카 아종 O. sativa subsp.Keng 으로 불러야 마땅하다[10]. 벼 재배 인도 기원설이 주류였던 시대에 중국 학자들의 관점은 국제 학술계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다.

2. 중국 고고학이 이끌어 낸 벼 재배 기원에 대한 인식 변화

1921 년, 스웨덴의 앤더슨(Johan Gunnar Andersson)은 몐츠현(澠池縣) 양사오촌(仰韶村)에서 도기(陶器) 조각에 벼 껍질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를 근거로 양사오 문화의 주민들이 이미 쌀 재배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중국 벼 재배 기원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11]. 1955 년 이후 장한(江漢) 평원의 후베이성(湖北省) 징산(京山) 취자링(屈家嶺), 톈먼(天門) 스자허(石家河), 우창(武昌) 팡잉타이(放鷹台) 등 신석기 시대 후기 유적지의 건축 자재에서 나온 홍소토(紅燒土)에 대량의 벼 껍질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발굴 작업을 지휘하던 담당자는 이 벼 유적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우한대학 생물학과와 중국농업과학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기관에서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저명한 농학자 딩잉이 이 벼 유적을 관찰하며 형태가 온전한 벼를 대상으로 형태 측정 및 현대 재배 품종과의 비교 작업에 착수한 결과 홍소토에 섞인 벼와 현대 재배 자포니카가 동일한 품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근거로 중국 신석기 시대의 조상들이 이미 벼 재배를 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12]. 장강 유역의 신석기



그림 1. 허무두 유적 제 4 층에서 출토된 벼와 뼈로 만든 농기구

[8] 딩잉, 중국 벼의 기원[정기 간행물], 중산대학 농학원 농예 특집, 1949, 7
[9] 딩잉, 중국 재배벼의 기원 및 변천[정기 간행물], 농업학보, 1957, 8(3): p243~260.
[10] 딩잉, 중국 고대 자포니카와 인디카 벼 종의 재배 및 분포에 관한 논의와 재배벼 종 분류법 예보[정기 간행물], 중산대학 농학원 농예 특집, 1949, 6
[11] Andersson, J. G. Children of the Yellow Earth: Studies in Prehistoric China[전문 서적], Broadway House, Landon, 1934
[12] 딩잉, 장한 평원 신석기 시대 홍소토에서 발견된 벼 껍질에 관한 고찰[정기 간행물], 고고학보, 1959, 4: p.31~34

시대 후기 벼 유적에 대한 연구도 인디카 벼가 북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기후 조건에 적응하며 자포니카 벼로 진화하였다는 이론에 근거를 제공한다.

1970 년대 허무두 유적 발굴은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사 연구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1973 년과 1978 년 저장성(浙江省)의 문물을 연구하던 고고학자들은 저장성 위야오시(餘姚市)에 자리한 허무두 유적지에서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시대적, 지역적 특색을 지닌 대량의 도기, 돌, 뼈, 나무 등으로 만든 그릇과 고상식(高床式) 가옥 등을 발견하였다. 현장에서는 쌀, 도토리, 마름, 복숭아, 멧대추, 조롱박, 가시연밥 등의 식물 유적과 사슴, 물소, 돼지, 코뿔소, 아시아 코끼리, 어류 등의 동물 유골도 출토되었는데, 이는 황하 유역 선사 시대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벼농사, 축산, 채집, 사냥 등 경제적인 요소가 공존하였던 선사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의 최초 연대 데이터는 지금으로부터 7 천 년 전이다. 특히 제 4 층에 있는 수십 개의 탐사 구역, 400 ㎡가 넘는 범위 내에서 벼, 벼 껍질, 벼 줄기, 벼 잎 등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두께가 10~40cm 로 각기 달랐고, 가장 두꺼운 부분은 70~80cm 에 달하였다. 허무두 유적지에서 발견된 벼는 이미 탄화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온전한 형태의 쌀알을 골라낼 수 있었는데, 이 쌀알들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현대 품종만큼 고르지 않고 까끄라기가 있었다. 또한 제 4 층에서 뼈로 만든 농기구 등 생산 공구도 출토되었다(그림 1)[13]. 저장 농학원의 유슈링(游修齡)은 허무두 유적 제 4 층에서 출토된 탄화미(炭化米)의 형태와 이삭 껍질의 털을 검정하고 연구하여 허무두 유적에서 출토된 벼가 재배벼의 인디카 아종 중 후기의 논벼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재배된 벼였다[14]. 허무두 유적에서 출토된 벼는 이른 연대와 압도적인 출토량으로 중국이 벼 재배의 기원지라는 사실에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며 당시 정설로 받아들여진 벼 재배 인도 기원설을 뒤집었고, 벼 재배를 특색으로 하는 장강 유역이 황하 유역과 함께 중화 문명의 발상지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15]. 허무두 유적지에서 발견된 재배벼와 그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로 허무두 문화는 벼 재배의 기원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허무두 유적이 발견된 후 중국은 벼 재배 기원에 관한 고고학 연구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1980 년대 말, 1990 년대 초 장강 중류 리양평원(澧陽平原) 9 천 년 전의 펑터우산(彭頭山)[16], 8 천 년 전의 바스당(八十墱)[17], 7 천 년 전의 청터우산(城頭山)[18], 화이허(淮河) 상류 9 천 년 전의 우양(舞陽) 자후(賈湖) 및 화이허 하류 7 천 년 전의 가오유(高郵) 룽추좡(龍虬莊) 등 여러 유적지에서 꽤 많은 양의 탄화미, 도기 상의 벼의

13 저장성 문물관리위원회, 저장박물관, 허무두 유적 제 1 기 발굴 보고서[정기 간행물], 고고학보, 1978, 1: p.39~110

14 유슈링, 허무두 유적 제 4 문화층에서 출토된 벼와 뼈 농기구에 대한 몇 가지 견해[정기 간행물], 문물, 1976, 4: p.20~23

15 유슈링, 허무두 유적에서 출토된 벼를 근거로 한 중국 재배벼의 기원, 분화 및 전파에 관한 시론[정기 간행물], 작물학보, 1979, 5(3): p.1~10

16 후난성 문물 고고학 연구소, 후난 리현 펑터우산 신석기 시대 초기 유적 발굴 브리핑[정기 간행물], 문물, 1990, (8): p.17~29

17 장원쉬(張文緒), 페이안핑(裴安平), 리현 멍시(夢溪) 바스당에서 출토된 벼 연구[정기 간행물], 문물, 1996, (8): p.36~41

18 구하이빈(顧海濱), 후난 청현(澄縣) 청터우산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논벼 및 그 유형[정기 간행물], 고고학, 1996, (8): p.81~89

흔적, 꽃가루 등 재배벼와 관련된 유물이 연달아 발견되며 벼 재배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에 새로운 고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벼 재배 기원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특히 후난 다오현(道縣) 위찬옌(玉蟾岩) 유적[19]과 장시 완넨현(萬年縣) 셴런둥(仙人洞) 유적에서 만 년 전의 재배벼와 재배벼 식물석[20]이 발견되면서 장강 중류에서 벼 재배가 시작된 시기를 만 년 전으로 앞당겼다.

21 세기 초 장강 하류에 자리한 저장성의 고고학자들이 중요한 돌파구를 찾아내었는데 바로 허무두 문화보다 훨씬 더 이전의 콰후차오(跨湖橋)문화와 푸장(浦江) 상산(上山) 유적으로 대표되는 신석기 시대 초기 상산 문화 유적을 발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장강 하류 벼 재배의 역사는 2 천여 년이나 앞당겨지며 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21, 22]. 수년간의 조사와 발굴 끝에 19 개의 신석기 초기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저장 중부에 자리한 푸장, 진화(金華), 이우(義烏), 융캉(永康), 우이(武義), 룽유(龍游), 셴쥐(仙居), 성저우(嵊州), 린하이(臨海) 등의 현(縣)과 시(市)의 해발 약 40~100m 의 구릉과 분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연대는 기원전 11,000 년부터 지금으로부터 8,500 년 전까지이다. 이 유적지들은 공통된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 도기는 표면에 붉은 옷을 입혔고, 바탕흙에 다량의 숯 부스러기가 섞여 있었으며 벽이 두꺼웠고 큰 대야 형태가 가장 많았다. 석기는 갈판(磨盤), 석구(石球), 갈돌(磨棒)이 주를 이루며 소량의 타제 석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유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구덩이를 팠다는 점이 유적의 주요 특징으로 그 수가 꽤 많았다. 상산 문화 유적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협탄도기(夾炭陶器)의 자토(瓷土) 혼합제에 다량의 이삭 껍질과 벼 식물석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도기 조각은 푸장 상산 유물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그림 2)[23]. 고고학 작업의 진전과 식물 고고학의 발전에 따라 융캉 후시(湖西), 셴쥐 샤탕(下湯), 이우 차오터우(橋頭) 등의 유적지 토양에서 탄화미와 벼알 가지 등 논벼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그림 3). 검정과 연구 끝에 이 유물들은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야생벼를 채집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길들여가며 인공으로 재배한 군락을 수확한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장강 하류 지역이 공통으로 만 년 이상의 수도 재배(水稻栽培) 역사를 지녔다[24]는 점은 거듭 벼재배가 장강 하류에서 기원하였다는 사실에 유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

[19] 장원쉬, 위안자룽(袁家榮), 후난 다오현 위찬옌 고대 재배벼에 관한 초기 연구[정기 간행물], 작물학보, 1998, 24(4): p.416~420

[20] Zhijun Z , The Middle Yangtze region in China is one place where rice was domesticated: phytolith evidence from the Diaotonghuan Cave, Northern Jiangxi[정기 간행물], Antiquity, 1998, 72 (278): p.885-897

[21] 정원페이, 장러핑(蔣樂平), 정젠밍(鄭建明), 저장 콰후차오 유적의 고대 벼 유물에 관한 연구[정기 간행물], 중국수도과학, 2004, 18(2): p.119~124

[22] 정원페이, 장러핑, 상산 유적에서 출토된 고대 벼 유물과 그 의의[정기 간행물], 고고학, 2007, (9): p.19~25

[23] 저장성 문물 고고학 연구소, 상산 문화: 발견과 기술[전문 서적], 베이징: 문물출판사, 2016

[24] Zheng Y, Crawford G W, Jiang L , et al, Rice Domestication Revealed by Reduced Shattering of Archaeological rice from the Lower Yangtze valley[정기 간행물], Scientific Reports, 2016, 6(28136):28136.



그림 2. 상산 유적 도기 조각에서 발견된 벼 유적



그림 3. 센쥐 샤탕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미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벼 유적은 장강 하류, 장강 중류, 심지어는 화난의 일부 지역까지도 벼 재배의 기원중심지에 포함되는, 중국에서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25]. 최근 재배벼 및 야생벼 조상 종의 전체 유전자 모델을 분석한 결과 중국 주강(珠江) 유역 광시(廣西) 지역의 야생벼가 매우 풍부하고, 유전적 거리도 현대 재배벼와 가장 가까워 이들이 밀접한 친연관계(親緣關係)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곳이 재배 자포니카 벼를 최초로 가꾼 지역으로 판명 났다. 이것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유입된 후 현지 야생배와 교배되어 재배 인디카 벼로 진화한 것이다[26]. 현재는 화난 지역의 신석기 후기 일부 유적지에서만 벼 유적이 발견되어 화난 기원설이 재차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화난 주강 유역에 대한 고고학 작업에 새로운 과제와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3. 장강 유역 문명사회 형성의 기반을 공고히 한 벼 재배의 발전

량주 문화로 대표되는 장강 하류 신석기 후기 유적에 관한 고고학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탄화 벼(쌀), 이삭 껍질, 벼알 가지 등 논벼의 유적이 여럿 발견되었다. 유적지의 여러 기능별 구역을 조사한 결과, 이삭 껍질(수량이 매우 많고 대부분이 조각 형태임)과 벼알 가지가 많았고, 탄화미도 수량이 꽤 많았다. 식물석 등 현대 분석 기법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고고학 유적에서 조상들이 쌀을 생산하고 이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쌀이 량주 문화 조상들의 주요 식량원이었으며, 벼 재배가 량주 문화 시대 농경 문화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적지에서는 벼 외에도 조롱박, 참외, 복숭아, 매실, 살구, 감, 마름, 가시연밥 등이 발견되었는데, 연구 결과 당시 이미 많은 식물이 인공적으로 재배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7, 28]. 쌀 생산을 중심으로 박, 과일, 채소를 재배하는 강남 특유의 농경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2009 년 위항구(餘杭區) 린핑(臨平) 마오산(茅山)의 벼농사 유적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4,500 년 전의 대규모 고대 논이 발굴되어 신석기 후기 량주 문화 시기의 벼 재배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발견된 고대 논은 풍부한 유물과 함께 매우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수로, 하천 둑, 도로, 관개 수로, 논두렁(좁은 길) 등 논 관리 및 관개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었고, 돌칼, 돌 화살촉 등 조상들이 농사에 사용하였던 도구가 출토되었으며, 주거지에서는 돌 쟁기 등 농업용 도구도 발굴되었다. 남북으로 뻗은 논두렁과 동서로 놓인 관개 수로는 대략 남북으로 놓인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과 가까운 형태의 논배미를 형성하였는데, 그 면적은 통상 약 1,000 ㎡로 최대 면적은 거의 2,000 ㎡에 달한다[29]. 최근에는 위야오 스아오(施岙) 유적 발굴 작업 중에 80,000 ㎡가 넘는 량주 문화 시기의 고대 논이 발견되었는데, 도로망(논길)과 관개 시스템이 모여

25 옌원밍(嚴文明), 중국 벼농사의 기원에 관한 재론[정기 간행물], 농업 고고학, 1989, 2:p.72~83

26 Huang, X.H., Kurata, N., Wei, X.H, A map of rice genome variation revealsthe origin of cultivated rice[정기 간행물], Nature, 490: p.497-501

27 정원페이, 천쉬가오(陳旭高), 참외의 기원에 관한 고고학 연구 - 장강 하류에서 출토된 오이속(Cucumis) 종자를 바탕으로, 저장성 문물 고고학 연구소 학술지, 제 8 집, p.578~585, 베이징: 과학출판사, 2006

28 Zheng Y, Crawford G W, Chen X, Archaeological Evidence for Peach (Prunus persica) Cultivation and Domestication in China[정기 간행물], Plos One, 2014, 9

29 정원페이, 천쉬가오, 딩핀(丁品), 저장 위항 마오 유적의 고대 논 경작 유적에 관한 연구[정기 간행물], 제 4 기 연구, 2014, 34(1): p.85~96

‘우물 정자(井)’ 형태의 논배미를 형성하며 완벽에 가까운 논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로써 선사 시대 논과 벼농사 발전에 대한 학계의 인식을 거듭 새롭게 하였다(그림 4). 마오산과 스아오 유적에서 발견된 논은 일정한 틀을 지니고 넓게 이어져 큰 구역을 이루었으며 대형 관개 시설을 갖추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벼농사가 지금으로부터 5,000 년 전 신석기 시대 후기 장강 유역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진보하였고, 당시 이 일대의 인류가 조직화된 농업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4. 량주 문화 고대 논(위: 위항 마오산 유적, 아래: 위타오 스아오 유적)

신석기 시대 후기 유적에서는 돌 쟁기, 돌삽, 돌칼, 나무 삽 등 벼 재배 및 생산에 이용하는 도구가 출토되었다. 함께 출토된 탄화 벼(쌀)는 이전보다 입자가 훨씬 크고, 고대 논에서 발견된 잡초의 종자도 그 수가 줄었으며, 토양에 대량의 숯 부스러기가



그림 5. 모자오산 동쪽 비탈에 자리한 식량 창고에서 출토된
탄화미, 이삭 자루, 새끼줄, 목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볼 때, 화경수누(火耕水耨)를 특징으로 하는 벼농사가 경작, 제초, 우량종 육종 등에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벼 재배 및 생산 기술의 진보는 식량 생산량을 끌어올렸는데 고대 논의 토양에서 벼 식물 오팔의 밀도를 이용한 결과 량주 문화 후기의 쌀 생산량은 1 묘(畝, 약 666.7 ㎡)당 140kg 으로 추정된다. 이는 허무두 문화 초기 생산량의 2.5 배이다. 2011 년 량주 유적 모자오산(莫角山) 유적의 동쪽 경사면에서 식량 창고가 발견되었는데, 12,000kg 이상의 벼가 매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2017 년에는 모자오산 서남쪽에 자리한 츠중사(池中寺) 유적지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더 큰 식량 저장 시설을 발견하였는데, 벼 매장량이 10 만 kg 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30]. 높은 토지 생산성과 식량 매장량으로 볼 때, 량주 문화 시기의 농업이 이미 다양한 식량을 생산하고 더 많은 잉여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여 노동 분업, 고도화 그리고 문명사회 진입에 탄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사회 대변혁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량주 문화는 높은 수준의 옥 세공, 정교한 그림이 새겨진 마광흑피도(磨光黑皮陶), 전체적으로 윤을 낸 석기, 섬세한 칠목기 등을 특징으로 한다. 무덤에서 출토된 옥그릇, 옥기, 무기 등 부장(副葬) 옥기(玉器)의 수량, 조합 및 규격이 각기 다르고, 옥그릇 위에 신, 인간, 짐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계급 차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밀한 석기, 도기, 목기 및 방직물 등은 수공업의 발전과 사회적 분업의 수준을 보여주고, 다양한 규모의 부락 형태와 장례 제도는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2007 년 저장 위항 량주진에서 둘레가 약 7km, 면적이 약

[30] 정원페이, 량주 문화 시기의 사회 생업 형태와 벼농사[정기 간행물]. 남방문물, 2018, (1): p.93~101

3km^2 인 량주 고성(古城) 발견되었는데, 성벽의 기초는 폭이 60~100m 이고 바윗돌을 기초로 깔았다[31]. 고성 주변에서는 제방을 중심으로 높은 댐과 낮은 댐이 결합한 대형 수리(水利) 시스템 유적이 발견되었다[32]. 량주 고성, 수리 시스템, 출토된 유물, 부락의 형태, 장례 제도 등은 량주 사회에 강력한 힘을 지닌 사회 정치적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이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자원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총괄하고 동원하여 대규모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량주 사회는 이미 국가의 형태, 종교, 도시 등 문명사회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량주 고성의 존재는 중화 문명 5 천 년 역사를 실증한다. 2019 년 7 월 6 일 량주 고성이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량주 고성이 중국 신석기 시대 후기에 존재한, 벼농사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며 사회 분화와 종교 체계를 갖춘 초기 지역 국가의 형태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장강 유역이 중국 문명의 기원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는 선사 시대 장강 유역의 지역 국가가 형성되는 데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학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벼 재배의 기원과 선사 시대 벼 재배 발전에 관한 깊이 있는 고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세계 문명에 공헌하는 중국 벼 재배 문화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31] 류빈(劉斌), 왕닝위안(王寧遠), 정윈페이 등, 2006~2013 년 량주 고성 고고학의 주요 성과[정기 간행물], 동남문화, 2014, (4): p.31~38

[32] 왕닝위안, 항저우시 량주 고성 외곽 수리 시스템에 관한 고고학 조사[정기 간행물], 2015, 1: p.3~13

中国考古改变稻作起源和中国文明的认知

郑云飞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浙江，杭州，310012，zhengzira@qq.com）

摘要：稻作是东亚地区文明发展的物质基础，。20 世纪 70 年代河姆渡遗址出土稻谷证明中国是稻作起源地，颠覆了稻作起源印度之学说，确立以稻作农业为特色长江流域与黄河流域一样，同为中华文明的发祥地。近年来中国考古取得丰富成果，良渚古城遗址、一万年以前水稻遗存、大规模的古稻田等发现填补了中国文明史的许多空白，不断更新了稻作起源的认识，稻作起源于一万年以前的长江中下游已经成为了目前国际的共识。植物考古、农耕遗迹考古等多学科考古工作在阐释中华文明进程和文明社会形成中发挥着越来越重要的作用。

关键词：稻作起源；变异中心；地理区分法；稻谷遗存；农耕遗迹；

Abstract：Rice cultivation is the major basis for developing civilization in East Asia. A large number of archaeological remains of rice unearthed at Hemudu site in the 1970s proved that rice cultivation originated in China, different from the origin in India in past common, and suggested that the Yangtze regions, like the Yellow River regions, was one of birthplace of Chinese civilization. Recent discoveries of， the archaeological Ruins of Liangzhu City, the rice remains over 10 thousand years old, and huge paddy fields have filled many gaps in the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and constantly updated the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rice cultivation, being traced back to 10000 years ago in the middle and lower regions of the Yangtze in international consensus. archaeobotany, archaeological paddy field and others, multi-disciplinary archaeologies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process of Chinese civilization and the establishing civilized society.

Keywords：Originof rice cultivation; Center of diversity; Geographical differentiation; Archaeological rice; Chinese Civilization

农业是人类社会向高级形态发展的物质基础，没有农业，人类就不能摆脱穴居和迁徙不定的生活，就不可能有剩余的产品，社会就不会向前发展，就不会有后来的城市革命和工业革命，现代社会丰富多彩的物质和精神文明就无从谈起，如大小麦成就了两河流域文明，大米、小米孕育了中华文明，玉米、土豆等找久了美洲文明，高粱则是非洲文明发展的物质基础，等世界各地的文明社会发展无一不是立足于农耕系统成立之基础，可以说农业起源是人类(社会)历史中的一次革命性事件，是世界一切文明的发展和形成的出发点。水稻是世界重要的粮食作物，全世界有一半以上人口食用稻米，与玉米和小麦一起，占据世界粮食作物产量的前三位，水稻已经有 1 万年以上的栽培历史，是包括中国在内的东亚地区文明发展的物质基础，中国考古事业的发展已经在阐释稻作起源和中华文明形成中发挥了重要的作用。

一、瓦维洛夫栽培植物理论与稻作起源

稻作起源科学研究最具有影响力的当属前苏联学者瓦维洛夫（Nikolai Ivanovich Vavilov），他从 1916 年至 1940 年 24 年间瓦维洛夫进行了 180 次科学考察,其中 40 次在国外。考察的国家和地区有 50 多个，亚洲、欧洲、非洲、北美洲、南美洲，都留下他的足迹，采集了 25 万余份栽培植物及其近缘植物标本和种子，并从形态学、细胞学、遗传学、抗病力和适应生态环境能力方面入手，地理区分法观察分布状态，发现栽培植物物种在世界各地的分布很不平衡，有些地区种类很丰富，有些地区则很贫乏。他将物种变异最丰富的集中地区称为起源中心或基因中心，或遗传多样化中心，认为中心地区显性基因频率高，是栽培植物最初被人类驯化的地点，也就是原生起源中心。当这些已驯化的植物,由原生起源中心向四周扩散到边缘地区，由于植物间的隔离和本身自交结果，隐性基因逐渐发生并繁育，多样化减少，在被隐性基因性状植物所控制的地区，即形成该种植物的次生起源中心，并将全世界划分出中国地区、印度斯坦地区、中东地区、地中海地区、埃塞俄比亚地区、墨西哥南部及中美洲地区、南美地区等八个栽培植物起源中心地区[1, 2]。瓦维洛夫的栽培作物起源理论中把印度作为亚洲栽培稻起源原生中心，把中国等作为次生起源中心，他认为印度之所以成为稻米的故乡，乃是由于在那里有许多种野生稻和长得像野草、并具有野草的一般特性，即在谷粒成熟时随即脱落以保证自播的普通稻谷；那里还发现了若干连接野生稻和栽培稻的中间性品种；印度栽培稻品种的差别是世界上最显著的，其稻谷各品种的良好的遗传优势是中国和亚洲其它次级栽培区不能比拟的；尽管印度栽培植物的种类上不如中国多，但它的稻谷传到中国，并在过去的千百年来成为其主要的粮食作物，彰显热带印度在世界农业上的重要地位 [3]。

稻作起源于印度在世界农业起源研究领域产生了深远的影响，并长期处于主导地位。1928 日

---

1 任本命．尼古拉·伊万诺维奇·瓦维洛夫[J]． 遗传，2003，（6）：3-4.
2 H. N. 瓦维洛夫著，董玉琛译．主要栽培植物的世界起源中[M]．北京：农业出版社，1982.
3 Mittre, V., .Palaeobotanieal evidence in India[M]. In (Sir Joseph Hutchinson, ed.) Evolutionary Studies in World Crops: Diversity and Change in the Indian Sub-continent, pp. 3-30.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本学者加藤茂苞首先采用现代科学方法，从稻种形态、杂种结实性和品种间的血清反应的区别，将亚洲栽培稻划分为日本型与印度型两个亚种，分别定名为 *O. sativa* subsp. *indica* 和 *O. sativa* subsp.*Japonica*[4, 5]。上世纪 70 年代年日本学者渡部忠世、中川原捷洋等通过野生稻和栽培稻种质资源调查、同工酶分析、酚反应、受精竞争基因的地理分布等研究发现，印度阿萨姆、缅甸北部、中国云南到老挝、泰国北部一带的东南亚山地是稻种的多样性与变异中心，提出稻作起源于印度阿萨姆和中国云南地区的学说，认为稻作在阿萨姆-云南一带起源后，沿各条大江大河谷地向各地传播，沿着红河和湄公河向南传入东南亚，沿着布拉马普特拉河向西传入印度北部平原，沿长江向东传播到长江流域，继续向东传播扩展到日本地区[6, 7]。在上世纪 70 年代以前瓦维洛夫的地理区分法主导国际上稻作起源研究领域，随处可见到印度起源说的印记。

中国学者很早就对稻作起源印度学说提出了质疑，如 1946 年江苏省农业科学院周拾录根据在安徽巢湖存在具有现代粳稻生物性状的野生“塘稻”，认为中国也是稻作起源地，推测粳稻起源中国，籼稻可能起源于印度；著名农学家丁颖通过历史学、语言学、人种学、考古学、植物学等综合考察，认为中国具有悠久水稻栽培历史，是栽培稻的起源地，华南的广州附近以及广西西江流域等地区繁衍生长的普通野生稻和现代现代栽培籼稻在生物形状有许多相似之处，亲缘关系密切，可以相互杂交，是栽培稻的祖先；推测在华南地区开始栽培化后，先演化为籼稻，在北上传播过程中，适应温凉气候环境条件，由籼稻演化为粳稻[8, 9]；中国汉代就已经有明确的水稻分类，有籼稻和粳稻之分，它们分别与加藤繁苞提出的两个亚种相对应，应该根据原产地命名优先原则、历史依据和科学性定名为籼亚种 *O. sativa subsp. hsien* 和粳亚种 *O. sativa subsp.Keng*[10]。中国学者的观点在稻作印度起源说为主流的时代并没有国际学术界引起很多关注。

二、中国考古改变了稻作起源的认知

1921 年，瑞典人安特生（AnderssonJ. G)在河南渑池县仰韶村进行发掘，发现在一块粗陶片上印有稻壳的痕迹，据此安特生认为仰韶文化的居民已会种稻，拉开了中国稻作起源考古学研究的序幕[11]。1955 年以后江汉平原的湖北省京山屈家岭、天门石家河、武昌放鹰台等新石器时代晚期遗址发现来自建筑物材料的红烧土中夹杂大量的稻谷壳，主持考古工作的负责人意识到稻谷遗存的重要性，交由武汉大学生物系和中国农业科学院进行分析鉴定。著名农学家丁颖对这

4 加藤茂苞，丸山吉雄．稻之不同种类间类缘之血清学研究[J]，九州帝国大学农学部学艺杂志，1928，3:1
5 加藤茂苞，小坂博．由杂种植物之结实度所见之稻品种之类缘[J]．九州帝国大学农学部学艺杂志，1928，3:2
6 渡部忠世著，尹绍亭译．稻米之路[M]．云南：云南人民出版社，1982
7 中川原捷洋，稲と稲作のふるさと，古今書店，1985
8 丁颖．中国稻之起源[J]．中山大学农学院农艺专刊，1949，7
9 丁颖．中国栽培稻种的起源及其演变[J]．农业学报，1957，8（3）：243—260．
10 丁颖．中国古来粳籼稻种栽培及分布之探讨与栽培稻种分类法预报[J]．中山大学农学院农艺专刊，1949，6
11 Andersson, J. G. Children of the Yellow Earth: Studies in Prehistoric China[M]. Broadway House, Landon, 1934.

些稻谷遗存进行观察，对完整的稻谷进行了形态测定和与现代栽培品种进行比较，认为红烧土中的稻谷与现代栽培粳稻品种相同，我国在新石器时代先民已经发明种植稻谷[12]。长江流域新石器时代晚期稻谷遗存的研究也成为了北上传播适应温凉气候环境条件籼稻演化为粳稻理论的依据之一。

上世纪 70 年代河姆渡遗址发掘是稻作起源和中国文明史研究上的一个里程碑。1973 年和 1978 年浙江省文物考古工作者对位于浙江省余姚市的河姆渡遗址进了两次发掘，出土了大量具有时代和区域特色的陶质、石质、骨质、木质等器



图 1. 河姆渡遗址第四层出土稻谷与骨耜

物，以及干栏式建筑的遗迹等，遗址中还出土稻米、橡子、菱角、桃子、酸枣、葫芦、芡实等植物遗存和鹿、水牛、猪、犀牛、亚洲象、鱼类等动物遗存，是一种完全不同于黄河流域的史前文化新类型，展现了稻作农业、家畜饲养、采集、狩猎等经济成分并存的史前社会风貌，碳十四年代测定的最早年代数据为距今 7000 年左右。特别是在遗址第四层地层的十几个探方，四百余平方的范围内，普遍发现有稻谷、谷壳、稻杆、稻叶等遗存堆积，厚度从 10-40 厘米不等，局部最厚处可达 70-80 厘米。其中稻谷虽然已经炭化，但从中还可以分拣出完整的稻谷颗粒，这些稻谷颗粒大小不一致，不如现代品种整齐，个别谷粒有芒。另外，在第四层还出土了骨耜等生产工具（图 1）[13]。浙江农学院游修龄对遗址第四层出入炭化谷的形态以及颖壳上稃

12 丁颖．江汉平原新石器时代红烧土中的稻谷壳考查[J]．考古学报，1959，4：31-34
13 浙江省文物管理委员会，浙江博物馆．河姆渡遗址第一期发掘报告[J]．考古学报，1978，1：39-110

毛进行鉴定和研究，认为河姆渡遗址出土的稻谷属于栽培稻的籼亚种中晚稻型的水稻，是世界上最早栽培稻[14]。河姆渡遗址出土稻谷以古老年代、丰富数量，可靠证据证明中国是稻作起源地，颠覆了稻作起源印度之说一统天下的局面，确立以稻作农业为特色长江流域与黄河流域一样，同为中华文明的发祥地[15]。河姆渡遗址栽培稻谷的发现和研究引起了国际上广泛关注，从此稻作起源研究舞台上不能缺少河姆渡文化的身影。



图 2. 上山遗址陶片中的稻谷遗存

河姆渡遗址发现以后，中国成为了稻作起源考古学研究的热点。上世纪 80 年代末 90 年代初，在长江中游澧阳平原 9000 年前的彭头山[16]、8000 年前的八十垱[17]，7000 年前的城头山[18]，以及淮河上游 9000 年前的舞阳贾湖和淮河下游 7000 前的高邮龙虬庄等遗址，相继发现了数量较多的炭化米、陶器上的稻谷印痕、花粉等栽培稻的相关遗存，增加了稻作起源于中国的新考古材料，丰富了稻作起源的新认识，特别是湖南道县玉蟾岩遗址[19]和江西万年县仙人洞遗址发现在万年以前的栽培稻谷和栽培稻谷植硅石[20]，把长江中游开始栽培水稻时间上溯稻 1 万年以前。

[14] 游修龄．对河姆渡遗址第四文化层出土稻谷和骨耜的几点看法[J]．文物，1976，4：20-23
[15] 游修龄．从河姆渡遗址出土稻谷试论我国栽培稻的起源、分化与传播[J]．作物学报，1979，5（3）：1-10.
[16] 湖南省考古所．湖南澧县彭头山新石器时代早期遗址发掘简报[J]．文物，1990，（8）：17-29.
[17] 张文绪，裴安平．澧县梦溪八十垱出土稻谷的研究[J]．文物，1996，（8）：36-41.
[18] 顾海滨．湖南澄县城头山遗址出土的新石器时代水稻及其类型[J]．考古，1996，（8）：81-89.
[19] 张文绪，袁家荣．湖南道县玉蟾岩古栽培稻的初步研究[J]．作物学报，1998，24（4）：416-420.
[20] Zhijun Z . The Middle Yangtze region in China is one place where rice was domesticated: phytolith evidence from the

21 世纪初地处长江下游的浙江省考古取得重大突破，发现了比河姆渡文化年代更早的跨湖桥文化和以浦江上山遗址为代表的新石器时代早期上山文化遗址，把长江下游稻作历史往前推进2000 多年，上溯到万年以前[21, 22]。经过多年调查和发掘，目前已经发现新石器时代早期遗址达19 处，它们分布在浙江中部的浦江、金华、义乌、永康、武义、龙游、仙居、嵊州、临海等县市的一些海拔 40-100m 左右丘陵小盆地，年代距今 11000 BC–8500 年。这些遗址有共同文化特点，陶器以表面施以红衣、胎土内含大量炭屑、壁厚，最多器形为大型的陶盆；石器以石磨盘和石球、石棒为主，伴随出土少量的打制石器；遗迹以储藏坑遗迹为主要特点，数量较多。上山文化遗址还有一个特点，在夹炭陶器陶土掺合料中含有大量的颖壳和水稻植硅石，据粗略统计，这种类型陶片在浦江上山遗址占总数 80%以上[23]（图 2）。随着考古工作推进和植物考古开展，已经从永康湖西、仙居下汤、义乌桥头等遗址土壤中浮选出炭化米和小穗轴等水稻遗存（图3），经鉴定研究，这些稻遗存不是采集于栖息在自然生境的野生稻，而是收获于经历了相当长时间驯化的人工栽培群落，长江下游地区同样具有万年以上的水稻栽培驯化历史[24]，再次为稻作起源长江下游提供了有力证据。



图 3. 仙居下汤遗址出土的炭化米

Diaotonghuan Cave, Northern Jiangxi[J]. Antiquity, 1998, 72 (278): 885-897.

[21] 郑云飞，蒋乐平，郑建明．浙江跨湖桥遗址的古稻遗存研究[J] ．中国水稻科学, 2004, 18(2):119-124．

[22] 郑云飞，蒋乐平．上山遗址出土的古稻遗存及其意义[J]．考古，2007，(9)：19-25．

[23]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上山文化：发现与记述（M）．北京：文物出版社，2016．，

[24] Zheng Y， Crawford G W， Jiang L , et al. Rice Domestication Revealed by Reduced Shattering of Archaeological rice from the Lower Yangtze valley[J]. Scientific Reports, 2016, 6(28136):28136.

长江中下游地区万年古稻遗存的发现表明，长江下游，长江中游，甚至华南部分地区可以归属于一个大的栽培稻起源中心，是中国最早开始稻作农业的地区[25]。最近，栽培和野生祖先种的全基因模式分析结果发现我国珠江流域广西地区的野生稻资源丰富，而且遗传距离与现代栽培最近，有十分密切的亲缘关系，是栽培粳稻最早的驯化地区，传入南亚和东南亚后，与当地野生稻杂交发展出栽培籼稻[26]。目前华南地区只有在一些新石器时代晚期的遗址中发现稻谷遗存，华南起源说再次提出引起学术界关注，也对华南珠江流域考古工作提出了新课题和期待。

三、稻作发展夯实了长江流域文明社会形成的基础

在长江下游以良渚文化为代表的新石器时代晚期遗址的考古工作中普遍发现了炭化稻谷(米)、颖壳和小穗轴等水稻遗存，根据调查遗址不同的功能区块,或以颖壳（数量极多，且绝大部分为碎片）和小穗轴居多，或以炭化米数量为多，

如果应用植硅石等现代分析技术，几乎所有考古遗址中都可发现先民生产和利用稻米的痕迹，可以说稻米是良渚文化先民的食物主要来源，稻作生产是良渚文化时期农耕文化的主要内容。除了稻米以外，遗址中还发现葫芦、甜瓜、桃、梅、杏、柿、菱角、芡实等遗存，从研究结果看许多植物当时均有可能已经被人工栽培[27, 28]，基本形成了以稻米生产为主体，并种植瓜、果、蔬菜为特色的江南稻作农耕文化体系。

2009 年余杭区临平茅山遗址稻作农耕遗迹发掘出大规模距今 4500 年左右的大规模古稻田生动展示了新石器时代晚期良渚文化时期稻作生产。古稻田遗迹丰富，稻田特征清晰，发现有河道、河堤兼道路、灌溉水渠以及田埂（小路）等与稻田管理操作和灌溉有关的遗迹，出土了石刀、石箭镞等先民从事农作活动留下的器具，在居住遗址还发现石犁等农具。由南北向的田埂和东西向的灌溉水渠，构成了大致呈南北向长方形或近平行四边形的田块，田块面积通常约在 1000 平方米左右，最大的面积近 2000 平方米[29]。最近在余姚施岙农耕发掘中发现了八

25 严文明．再论中国稻作农业的起源(J)．农业考古，1989，2：72-83．

26 Huang, X.H., Kurata, N., Wei, X.H. A map of rice genome variation revealsthe origin of cultivated rice(J). Nature, 490: 497-501

27 郑云飞，陈旭高．甜瓜起源的考古学研究-从长江下游出土的甜瓜属（Cucumis）种子谈起．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学刊，第八辑，578-585．北京：科学出版社，2006．

28 Zheng Y, Crawford G W, Chen X . Archaeological Evidence for Peach (Prunus persica) Cultivation and Domestication in China[J]. Plos One, 2014, 9.

29 郑云飞．陈旭高，丁品．浙江余杭茅山遗址古稻田耕作遗迹研究[J]．第四纪研究，2014，34(1)：85-96.



图 4. 良渚文化古稻田（上：余杭茅山遗址，下图：余姚施岙遗址）

万多平方米的良渚文化时期的古稻田，由路网（阡陌）和灌溉系统组成“井”字形田块，，构建成一个比较完善的稻田系统，再次刷新了学术界对史前稻田和稻作农业发展的认识（图 4）。茅山和施岙遗址这种大区块、规格化、连成片、有大型灌溉设施的稻田遗迹特点反映出经过几千年发展至 5000 年前的新石器时代晚期，在长江流域已经形成了比较成熟的稻作农业，跨入了具有社会组织管理的农业社会。

在新石器时代晚期遗址中出土石犁、石铲、石刀、木铲等稻作生产工具；出土炭化稻谷（米）粒形明显变大；古稻田杂草种子减少，土壤含有大量的炭屑等等，反映了以火耕水耨为特点的稻作农耕在耕作、除草、良种选育等技术上的进步。稻作生产技术进步提高了粮食产量，利用古稻田土壤稻植硅体密度估测茅山良渚文化晚期稻田产量在每亩 140 千克左右，是河姆渡文化早期产量的 2.5 倍。2011 年在对良渚遗址群莫角山遗址东坡发现了一个粮仓遗迹，估算埋藏稻谷有 12000 千克以上；2017 在莫角山西南侧的池中寺遗址钻探发现了更大的粮食储存设施遗迹，估算稻谷埋藏量达 10 万千克[30]。如此高的土地生产率和粮食储藏量足见良渚文化时期的农业已经能够生产丰富多彩的食物和提供更多剩余粮食产品，为社会分工和复杂化，以及进入文明社会奠定了坚实的物质基础，折射出一场社会大变革的到来。



图 5. 莫角山东坡粮仓遗迹出土的炭化米、穗柄、草绳、木炭

[30] 郑云飞．良渚文化时期的社会生业形态与稻作农业[J]．南方文物， 2018，(1)：93-101

良渚文化以高水平的制玉工艺、精美刻画的磨光黑皮陶、通体磨光石器、精致漆木器等为物化特征的良渚文化，墓中出土的琮、璧、钺等随葬玉器数量、组合和规格的不同以及琮上的神人兽面纹显示了社会成员等级差别存在，制作精细的石器、陶器、木器和纺织等表明手工业发展和社会分工细化；不同规模的聚落形态和埋葬制度反映了社会形态发生激烈变革。2007 年浙江余杭良渚镇者发现了方圆约 7 公里，面积约 3 平方公里的良渚古城，城墙基础宽 60-100 米，为石块铺垫[31]。在古城周围还发现以水坝为主体，高坝、低坝相结合的大型水利系统工程遗迹[32]。良渚古城、水利系统、出土器物、聚落形态、埋葬制度等充分表明良渚社会具有一个强大有力的社会政治组织，能够统筹和调动社会人力、物力、财力等各种资源，进行大规模的社会基础工程建设。良渚社会已经具备国家形态、宗教信仰、城池等文明社会要素，业已跨入文明社会。良渚古城的发现实证中华五千年文明史。2019 年 7 月 6 日良渚古城遗址成果列入世界遗产名录，世界遗产委员会会议认为：良诸古城遗址展现了一个存在于中国新石器时代晚期的以稻作农业为经济支撑、并存在社会分化和统一信仰体系的早期区域性国家形态，印证了长江流域对中国文明起源的杰出贡献。稻作是史前长江流域区域性国家形成的物质基础，加强多学科协作，深入开展稻作起源和史前稻作发展的考古研究，清晰展现中国稻作文化对世界文明的贡献。

[31] 刘斌，王宁远，郑云飞等．2006-2013 年良渚古城考古的主要收获[J]．东南文化，2014,（4）:31-38
[32] 王宁远．杭州市良渚古城外围水利系统的考古调查[J]．考古，2015，1:3-13．

15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미야자토 오사무 (宮里修)
日本高知大学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미야자토 오사무 (日本高知大學)

Ⅰ. 머리말

彌生 청동기문화는 東北亞細亞 靑銅器文化가 맨 끝 땅에서 變容된 것이다. 中國東北地方에서 형성된 銅劍, 多紋鏡, 車馬具 등을 특징으로 하는 琵琶形銅劍文化가 주변으로 전파되며 문화권 외곽인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細形銅劍文化가 탄생했다. 세형동검문화는 이윽고 日本列島에 전해지고 彌生社會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야요이 사회에서 武器나 銅鐸은 원래 기능을 잃고 상징성이 폭주하듯이 심하게 巨大化되었다. 크게 보면 야요이 청동기문화는 形骸化와 거대화를 특징으로 하지만 처음에는 여러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었다.

본고는 한반도 청동기문화와 일본 야요이 청동기문화를 비교하면서 야요이 청동기문화의 출현기 양상과 당초 잠재되었던 다른 변용 가능성 및 한반도와 대조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 銅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변천과 지역적 특징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중국동북지방에서 영향을 받아 비파형동검의 지방 양식으로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비파형동검문화권 중에서 변두리에 위치하며 그 청동기는 독자적으로 변화해서 세형동검문화라는 나머지 지역과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진 청동기문화가 되었다. 그것이 야요이 청동기문화의 祖型이 되었다. 한반도 청동기문화는 동검을 중심으로 한 무기 型式을 연대 기준으로 해서 비파형동검기인 Ⅰ期 , 세형동검기인 Ⅱ期, 철기移行期인 Ⅲ期로 나눈 시기 구분이 세부적으로는 논쟁이 있지만 널리 공유되어 있다(宮里修 2010).

본고는 주로 Ⅱ기의 한반도 청동기문화와 야요이 청동기문화를 對比하고자 한다. 역사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Ⅰ기도 아울러 검토한다. 이하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Ⅰ기와 Ⅱ기 내용을 정리해서 야요이 청동기문화 탄생의 前提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 정리에 있어서는 청동기문화의 남북지역 차이 및 호서 · 호남지역의 우위성을 염두에 둔다.

1. Ⅰ기의 양상

Ⅰ기에는 중국동북지방, 그 중에서도 遼東地方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에서 청동기가 나타났다. 중국동북지방에서는 靑銅彝器, 車馬具, 武器類를 모두 구비하는 老哈河유역(小黑石溝遺蹟, 南山根遺蹟)을 지역적 核으로, 大凌河유역에서 조립식 비파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가 형성되고 주로 동검이 東方에 전파했다. 즉 청동기는 무기로서 전파되었다.

한반도에서 맨 처음에 나타난 초기 동검은 요동지방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벌써 데포르메가 인정되는 驛洞 石棺墓(도2-1 · 2) 같은 모습이었다. 한반도에서 무기로 수용된 청동기는 무문토기시대 사회에서 석검을 포함한 劍 문화를 발달시켰다. 동검 및 검 문화는 처음부터 남북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남북 지역 경계는 팽이형토기가 전파된 범위로 생각하면 북부 청동기문화의 범위는 한강유역권까지(洪川 芳良里유적, 平昌 下里유적) 를 포함할 수 있다.

먼저 동검에 주목하면 한반도 북부에서는 처음에는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요동지역과 同型同大의 것으로 이입되었다(도2-7 · 8). 그 후 동검의 비파형 모양이 축소되어 봉부가 늘어지고 찌르는 기능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도2-12 · 13). 봉부 신장에 독특한 어레인지를 가한 西浦洞式 동검도 생겼다(도2-10 · 11). 한반도 북부에서는 검신에 대해서는 요동지방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 한편 세형동검에 연결되는 구조적인 변화도 있다. 검파두식에 관해서는 중국동북지방의 자루끝 상자형 부분에 枕形 검파두식을 삽입한 구조에 대해, 판 모양 반부에 바닥이 평평한 검파두식을 묶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이런 북부에 비하여, 한반도 남부의 동검은 처음부터 등대 날 연마가 미약하고 자돌 기능에 대한 요구가 약하였다(도2-9). 변화되는 가운데 더 실용성을 소홀히 하여 비파형동검의 형태적 특징만 강조한 肥大化 데포르메가 생겼다(도2-20). 검파두식에서도 마찬가지로 馬蹄形 검파두식의 비대화 데포르메를 확인할 수 있다(도2-3).

한반도 북부에서는 동검은 독자성을 발휘하면서 실용성을 향상 시키도록 변화되고 한반도 남부에서는 실용성을 상실하면서 상징성을 늘리도록 변화되었다. 비슷한 양상은 동모나 석검에서도 보여서 남북 사이의 무기에 대한 현저한 태도 차이가 인정된다.

銅鉾는 상대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반도 북부에서도 당초부터 연마한 날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한 데포르메가 생겼다(도2-28). 출현기의 동모가 동검보다 무기로서의 역할이 낮았던 것 같지만 그 후는 봉부 신장에서 서포동식 동검과 같은 독자적인 표현을 하면서(도2-29 · 30), 전체적으로는 直刃化되어 세형동모로 변화되었다(도2-32).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는 당초 시작한 데포르메를 더 한층 비대화 시켜 동검보다 形骸化가 진행되었다(도2-31).

石劍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의 팽이형토기 문화권에서는 석검은 有莖式(도2-16 · 17) 을 중심으로 樋로 등대를 모방하듯이 동검에 비긴 의미를 주어 동검과 같은 조립 구조로 동검과 마찬가지로 실용성을 구비했다(손준호 2006, 宮里修 2012). 한반도 남부의 석검은 有柄式의 존재가 주목되고 역동(도2-1)과 같은 馬蹄形 검파두식을 일체적으로 표현한 유병식석검이 등장했다(도2-15). 유병식석검은 검신이야말로 直線的으로 좁게 변화되지만 자루 兩端 돌기가 강조되고(2-18), 두드러지게 거대화되는 가능성이 잠재된 무기로 존재했다(도2-19). 달성 평촌리 20호 석관묘에서는 허리 우측에 佩用한 위치에서 길이 63cm의 유병식석검이 출토되어서 보이는 행위에 사회적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장용준 · 平郡達哉 2009).

Ⅰ기는 요동지방과 보조를 맞추면서 실용적으로 독자적인 무기문화를 형성한 한반도 북부와 실용성보다 상징성을 강조한 남부와의 지역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2. Ⅱ기의 양상

비파형동검이 기능성을 유지한 대로 변화된 연장선상에서 세형동검이 성립되었다. 세형동검은 중국동북지방의 동검 변화 방향과 달리 봉부가 짧고 抉入部를 연마로 표현하듯이 비파형동검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식으로 성립되었다. 검파두식을 보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판상반부에 결박하는 구조를 전제로 입주식이라는 새 형식이 탄생했다.

세형동검은 龍興里式(도2-12 · 13)과 弧山里式(도2-14)이 融合해서 성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세형동검의 성립지역을 생각할 때, 정형화 이전 단계인 다양한 변이를 보인 세형동검은 東西里유적이나 南城里유적 같은 호서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도2-21~24). 세형동검은 차라리 요동에서의 영향이 오래 미약했던 주변부인 호서지역에서 성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체계

호서지역에서는 세형 청동무기 이외에도 異形靑銅器나 多鈕細文鏡 등 세형동검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군이 성립되고 청동기의 생산량도 현저히 증대되었다. 土范으로 대표되는 새 기술 이입이 청동기의 多樣化, 價値骸系 編成, 生産量 增大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기왕의 石范은 문양이 없는 칼 제품 중심, 신래의 토범은 유문인 祭祀具 중심이라는 구분도 생겼다. 劍把形銅器나 喇叭形銅器를 비롯한 이형청동기는 원래 차마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여 제사구로 변질되었다. 이형청동기는 최고난도 기술을 구사해서 생산된 물건으로서 청동기 체계의 최상위 자리를 잡았다. 다뉴경은 기왕의 조문경이 새 기술 아래에서 모두가 통합되어서 세문경이 탄생했다. 종래대로 샤먼 같은 지도자의 물건으로 이형청동기에 따른 격이 주어졌다. 실용성보다 信仰세계와 맺어진 토범 제품은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한 사회 상위 계층에만 미치는 기물로서 사회의 격차를 표출했다.

Ⅱ기에는 Ⅰ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청동기가 제작되고 청동기 생산력의 향상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이 많이 생산된 것이 세형동검이었다. 시기에 따라 세형동검 형식이 정형화되고(도2-25 · 26) 그 때까지 요동과의 관계가 깊었던 한반도 북부도 세형동검문화권에 포함되고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권은 청천강을 경계로 크게 분할되었다. 세형동검문화의 청동무기는 Ⅰ기부터 계승된 동검과 동모가 있고 약간 늦어서 동과가 나타났다. 세가지의 비율을 비교하면 동검이 압도적으로 많고 동모가 동검의 30%정도이며 동과는 더 적다. 동검이 무기의 중심으로 세형동검의 성립에 따라 석검이 거의 자취를 감춰서 劍은 동검에 일원화되었다. Ⅱ기 이후의 동검 전체 변화에 주목하면 약간 늦게 금속제 검파두식이 나타나고 다음 Ⅲ기에는 칼집 존재가 현재화되듯이 동검은 단계적으로 시각적 노력에 힘을 주게 된다. 장식성을 중요시하지만 여전히 실용성이 유지되는 것도 주목된다.

Ⅱ기에는 호서 · 호남이 핵심 지역이 되고 한반도 북부와 영남 지방과의 지역 차이를 생기게 했다. 청동기의 지역차를 낳은 최대 원인은 토범 기술의 유무이다. 이형청동기나 다뉴세문경의 靈力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대 배경에서 비법인 토범 기술을 가진 호서 · 호남 지역은 청동기의 보유 및 유통을 독점해서 사회 관계상에서 우위적인 입장을 치지했다. Ⅱ기중에서 이형청동기가 바깥 지역에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세문경 같은 경우에도 밖에 유통된 것은 중형경(B식), 소형경(C식)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열도에 전파된 청동기는 다뉴세문경과 검파두식의 併行關係(도3)에 따르면 Ⅱ3기 전후가 된다(宮里修 2013 · 2014). 岸田유적 자료(도4-16) 때문에 재검토가 요구되지만 한반도 청동기문화 Ⅱ3기와 야요이 중기 초두와의 접점이 야요이 사회에서의 청동기 출현을 생각하는 중요한 점이 된다.

Ⅲ. 야요이 문화의 청동기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출현이 그렇듯이 새로 등장한 원료인 청동은 주로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무기로 인해 사회관계도 많이 바뀌었고 덧붙여 청동기를 제작하기 위한 경제 관계(여러 원료나 소재 획득)도 새 사회관계를 표출하였다. 이하 彌生 사회에서의 청동기 출현 양상을 위에서 정리한 한반도 청동기문화 Ⅰ기 · Ⅱ기 양상과 대비하면서 검토하겠지만 호남지역과의 관계를 주제로 하기 위해 近畿지방을 중심으로 한 銅鐸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야요이 전기는 대략 한반도 청동기문화 Ⅰ기와 평행된다. 먼저 彌生 前期에 廣義의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문화에 속한 마제석검이 전해져왔다. Ⅱ기는 대략 彌生 中期前半에 해당되고 그때로부터 비로서 청동기 자체가 본격적으로 전해져왔다.

1. 무기의 수용

야요이시대를 일으킨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농경문화복합은 주로 영남지방에서 玄界灘연안의 北部九州에 전래되었다. 농경문화복합 중에서 마제석검, 마제석촉이 포함되어서 일본열도 사람들이 처음 무기를 손에 들었다.

磨製石劍, 磨製石鏃은 부장품으로 확인된 사례가 많은데, 마제석촉 경우에는 新町 24호묘(志摩町敎育委員會 1987)나 宮ノ前 12호묘(前原町敎育委員會 1989)에서 인골에 박힌 사례가 있고 대인 무기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제석촉 자체는 차차 사라지고, 繩文시대 이래의 타제석촉이 다시 주류가 되지만 화살을 대인 무기로 하는 새 문화는 야요이 사회에 정착되었다.

한편 야요이 사람들이 무기로 손에 든 처음의 劍은 한반도 남부의 유병식 마제석검이었다. 坪村里 20호묘(도2-19)가 같은 비대화 가능성을 내포한 型式이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동검에도 석검에도 劍에 대해서는 많은 상징성을 주었다. 일본열도에서도 청동기의 본격적 전파 이전인 야요이 전기에 있어서 유병식 석검을 實戰 무기로 사용한 적극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야요이 사회는 석검을 많은 상징성을 가진 물건으로 수용했지만 그후의 석검은 단면 菱形의 검신이 두꺼워지고 자루 양단 돌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변화되어 실용적으로 재지화된 석검은 야요이 중기의 청동기 수용에 대응한 듯이 戰鬪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スダレ(수다레) K-3(穗波町敎育委員會 1976)처럼 戰鬪 피해자의 사례가 급증한다.

한반도 청동기문화 Ⅰ기에 평행하는 단계에는 今川遺蹟(津屋崎町敎育委員會 1981)처럼 동촉이나

동검 슴베를 재가공한 동착이 출토되었지만 자료가 적고 단편적이다. 기타의 청동기와 관련된 자료는 석검과 조합된 검파두식이나 木劍(도4-1) 같은 仮器로만 확인된다.

2. 초기 청동기의 양상

야요이 시대에서의 청동기 출현은 북부구주에서 무덤의 부장품으로 확인된다. 甕棺 型式(常松幹雄 2011)으로는 金海式(新)부터 시작된다. 앞서는 시기(伯玄式)에 甕棺墓에서는 마제석촉 등이 출토되고 청동기 이전인 전기적 양상을 보인다(도3-2 · 3). 맨 처음의 청동기 한 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吉武高木3號木棺墓(福岡市教育委員會 1996)의 銅劍, 銅鉾, 銅戈, 多鈕細文鏡이 잘 보여준다(도4-9~13). 吉武高木 3號木棺墓는 동반된 부장 小壺로 金海式(新)甕棺 시기로 평가된다. 金海式(新)甕棺墓에서 청동기가 출토된 사례는 吉武遺蹟群(福岡市教育委員會 1996)에 많고 키타 福岡市 岸田遺蹟(福岡市教育委員會 2015)이나 古賀市 馬渡 · 東ヶ浦遺蹟(古賀市教育委員會 2006)이 있다. 馬渡 · 東ヶ浦2호 옹관묘에서는 동검2, 동모, 동과가 있고(도4-23~27) 세문경이 없지만 吉武高木 3호 목관묘와 같은 조합이다.

세가지 청동무기는 각각 다른 가치를 주어줬다. 最古 형식인 세형 단계의 분포를 보면 동검은 西日本 일대에 널리 있고 동과는 구주내에 머무르고 동모는 福岡平野 일대에 한정된다. 세가지는 분포 범위가 뚜렷이 다르고 그후의 武器形祭器 동향을 아울러 보면 동모가 최상위이고 동과, 동검이 그 다음 순서이다(岩永 1997). 동모는 양이 적고 부장될 때는 동검 등 키타 청동기가 동반된 경우가 많다(도4-17~20). 한편 청동기가 단독으로 부장될 때는 동검인 경우가 많다(도4-4 · 7).

청동기 수용 당초부터 야요이 청동기에는 재지화가 진행되었다고 지적되었다(岩永□省三 1994). 有耳 동모, 扁平 脆弱한 동과가 그 대표이다. 한반도의 동모는 無耳로 目釘孔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의 有耳 동모는 많은 것이 Ⅲ기 이후이고 가장 올라가는 것으로 Ⅱ4기의 水村里遺蹟(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7)이 있다. 야요이 청동기에서도 無耳有節의 동모(도4-22)가 있기는 하지만 有耳3條節帶(도4-19)나 有耳1條節帶(도4-9 · 18 · 23)가 일반적이다. 동모의 耳(고리)는 한때 자루 着装을 위한 장치로 생각되었지만 현재로는 장식을 매달리는 부위로 이해된다. 편평 취약한 동과는 "明器 銅戈"(橋口達□也 2007)라고도 불린 실용하지 못 하는 것이다(도4-28~31). 金海式甕棺의 당초 시기부터 나타나고 둘 형식 후의 汲田式甕棺 시기에 걸쳐서 유문 편평한 모양으로 정형화된다(도4-30 · 31). 명기 동과는 토범으로 제작된 가능성이 지적되고(村松洋介 2008) 청동기 생산이 시작된 당초 야요이 사회에서 실시된 여러가지 시도 중의 하나이다.

잘 알다시피 야요이시대의 青銅武器는 武器形青銅祭器로 변질되었다. 동모와 동과는 細形, 中細形, 中廣形, 廣形 순으로 실용성을 形骸化 시키면서 대형화되고, 동검은 細形, 中細形, 中廣形, 平□形 순으로 마찬가지로 실용성을 상실하면서 대형화 및 異形化되었다.

한편 형태화, 대형화와는 다른 방향성이 적어도 弥生時代 中期中까지의 청동무기에는 인정된다. 동검은 장식성을 늘리는 방향이 있고 동과는 야요이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이 기대하게 되었다.

3. 동검의 장식성

맨 처음 형식인 세형동검은 당초 實戰用 무기로 사용되어서 永岡 95號 甕棺(筑紫野市敎育委員會 1990)이나 隈 · 西小田 3地點 K55(筑紫野市敎育委員會 1993)에서 보이듯이 살상 행위에 사용되었다. 受傷 인골에 동반된 석검 사례도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동검 등장에 따라 석검을 포함한 劍을 사용한 전투가 일반화되었다. 劍을 사용한 행동 및 전투가 큰 사회적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은 吉野ヶ里墳丘墓(佐賀縣敎育廳文化財課 1992)나 柚比本村區畫墓(佐賀縣敎育委員會 2003)에서 보이듯이 동검을 가진 사람이 모아서 특별한 매장 구획을 형성했다. 隈 · 西小田遺蹟에서는 구획묘역내 피장자는 서로 血緣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田中良之 2000) 차라리 구획묘내 피장자는 밖의 공동묘지 사람들과 혈연관계를 가진다. 구획묘내 피장자는 여러 사회 집단에서 武勳으로 뽑힌 英雄墓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溝孝司 1999).

동검에서도 위의 상황에 대응한 역할이 기대되어서 형태화와는 다른 장식화 경향이 생겼다. 동검은 초기 단계부터 등대와 주연부 날에 너비 좁은 줄무의 모양을 연마를 만들었다(도4-7 · 12). 한반도에서는 東西里遺蹟 등에서 유례가 있어서 한반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하여튼 당초부터의 장식성에 대한 의식을 볼 수 있다.

岸田 K0473에서는 M立柱形c式 검파두식(도4-16)이 출토되고 청동기 수용 · 제작의 당초부터 야요이 사회에서는 토범을 사용한 독자적인 造形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야요이 사회에서의 독자적인 청동기 제작의 시도는 須玖タカウタ(타카우타)遺蹟(春日市敎育委員會 2017)에서 잘 볼 수 있다. 須玖タカウタ遺蹟은 북부구주의 큰 청동기 제작 공방 및 王墓 造營地인 春日丘陵 北西 변두리에 위치한다. 5차 조사로 발견된 1호 수혈 일원에서 그때까지 몰랐던 내용의 세형단계 토범 및 석범이 출토되었다. 토범이 32점, 석범이 8점이 있고 토범에는 동과와 동모 혹은 동검이 있고 키타 검파두식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있다. 석범에는 동모, 동검과 다뉴경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있다. 석범을 사용한 유병식 동검이나 다뉴경은 아직 몰랐던 조형으로 당초는 청동기 제작에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범으로는 원래 석범을 주로 한 동과나 M立柱形c式 탄생과 관련된 검파두식이 있어서 기술적인 점에서도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범 기술을 응용해서 창출한 독자적인 동검이 有柄口式 銅劍이다(도5-1 · 3). 원래 조립 구조인 검신, 슴베 고정부, 검코, 자루, 반부, 검파두식을 모두 청동으로 일체로 제작한 것이다. 吉野ヶ里 SJ1002 출토품(도5-3)을 관찰하면 검신과 슴베 고정부에는 장축 방향에서 어긋남이 인정되어서 완성된 청동 검신을 자루 부분을 만들 때 용범에 포함해서 함께 주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검파두식과 반부의 결합은 아마도 따로따로 만든 원형을 결합해서 용범을 제작하여 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체로 동검을 제작한 제품을 시기가 내려가는 三雲南小路 1호 옹관묘(도5-5)에 계승된 다음에 철검 자루에 도입되었다.

동검을 꾸미는 의식은 칼집에서 발휘되어 柚比本村SJ1137에서 발견된 鞘付 銅劍(도5-4)은 붉은 옻칠을 바른 칼집에 관옥을 열상에 끼워서 높은 장식성을 발휘했다. 묘역을 구성한 나머지 옹관묘에서는 中細形 동검과 금속성 검파두식의 조합이 확인되고 동검의 형해화 및 대형화 방향과 장식성을 높이는 방향이 중세형 단계까지는 공존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검은 나머지 청동무기와 마찬가지로 형태화 및 대형화라는 변화를 이루지만 수용부터 型式 變

化가 진행되는 가운데 즉 甕棺 型式의 金海式(新)부터 須玖式까지 기간에 劍의 사회적 의의의 상승에 따라 武威 상징으로 동검의 장식성을 높이는 동향을 볼 수 있다. 청동무기는 결과적으로 거대한 祭器가 되는 것으로 검 장식은 야요이 청동기의 徒花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동검은 구주 밖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일본 中國·四國地方에서 발견된 세형동검, 중세형동검에는 자주 元部에서 쌍구멍을 확인할 수 있다(도5-2). 이전에는 자루를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쌍구멍 위치를 검토하면 대부분이 자루에서 3cm정도 사이를 두어 있어서 장착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인정된다(吉田廣 2014). 동검을 모방한 木劍을 보면 보통 검 자루보다 훨씬 긴 자루가 장착된 것이 주목된다. 그것을 근거로 中國·四國地方의 동검은 원래 劍의 사용법에서 떠나서 긴 자루로 창 같이 사용되었다고 해석되었다(吉田廣 2014). 쌍구멍은 마멸 흔적으로 장식을 매달거나 동모와 비슷한 모습을 상정되었다. 즉 최상위 기종인 동모를 입수 못하는 中國·四國地方에서는 동검에 긴 자루가 매달리는 장식으로 동모의 대용품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中國·四國地方은 실용적인 타제 석검과 동검을 충실히 모방한 동검형 석검을 구비한 지역으로 劍의 문화 자체는 널리 침투되는 가운데 동검에는 특별한 역할을 개대해서 돌로 실현한 實戰 세계와 청동으로 실현한 상징 세계가 분리된 양상을 볼 수 있다.

4. 戈의 중시

戈는 彌生人에 특별히 애호되고 야요이 사회에서 독특한 가치가 주어졌다. 동과 기원지인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원래 戈는 중국의 鉤兵이 기원이고 戰車나 步兵의 무기로 생겼다. 車馬具의 발달이 저조한 遼東지방에서 한반도에 이르러 자루가 짧은 박는 무기로 정형화되고 일본열도에 전파되었다. 일본열도에서는 戈는 길이 50~60cm정도의 자루(도6-19·20)에 장착해서 戈의 선단부를 주요한 사용 부위로 해서 敵한테 봉부를 박는 것으로 사용했다. 실용무기로 사용한 세형 단계로부터 전술한 바와 같이 편평 취약한 明器 銅戈(도6-1)를 제작하였고 당초부터 나머지 무기와 다른 성질을 엿볼 수 있다. 石戈도 활발히 제작되고 먼저 동과 모방품(도6-10)으로 시작하고 원하는 기능에 따라 有胡式(도6-12·14·15), 目釘式(도6-11·13·16·17)이라는 각 형식이 전개되어 지역마다 다양한 석과가 사용되었다(寺前直人 2006). 주로 銅鐸을 제작하고 무기 제작이 저조한 近畿지방에서도 近畿型 동과(도6-4)가 지역 型式으로 성립되듯이 戈는 야요이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長野縣 柳澤遺蹟(長野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12)에서 九州型 1점, 近畿型 6점의 매납이 확인되듯이 동과는 멀리 東日本까지 미치고 또는 東日本에서는 독자적인 目釘型 石戈(도6-17)나 異形化된 有角石器(도6-18) 등 戈 문화가 야요이 사회의 넓은 범위에 침투된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철기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먼저 鐵戈 제작이 시도되었고(도6-9), 반대로 철과를 모방한 동과도 제작되었다(도6-7·8). 模擬戰과 같은 제사에서의 사용이 상정된 木戈(도6-21)도 확인할 수 있고(中村 1996) 戈는 여러가지 재료로 具象化되고 서로 양향을 주고받기하면서 야요이 사회에 깊이 침투되었다.

銅戈는 나머지 청동무기와 부장시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된다. 세형 및 중세형 동과의 부장에서는 동과를 피장자 머리 부근에 두거나 혹은 관 밖에 두는 경향을 볼 수 있다(吉田廣 2015). 이런 동과의 취급 특히 棺外 부장은 동과가 맡은 境界 수호의 역할을 표시한다고 해서 무기형 청동

기의 특징인 청동기 매납의 선구가 되었다는 가능성이 지적된다(春成秀爾 2016). 동과에 의한 경계 수호는 더 넓은 지역간 관계에서도 인정된다. 중세형 및 중광형 동과의 복수 매납은 福岡平野의 남측 진입로인 二日市 地峽帶 주변에서 현저히 집중된다(岩永省三 1997, 宮里修 2019). 철과도 비슷한 분포 경향을 보이며 戈가 福岡平野의 경계 지역에서 그 역할을 기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주변 지역에서는 무기 부장에서도 嘉麻市 鎌田原遺蹟(嘉穗町教育委員會 1997)이나 日田市 吹上遺蹟(日田市教育委員會 2006)에서 보이듯이 무기 중에서도 동과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인정된다. 石戈의 분포가 三郡山地 以東인 구주 동북부에 집중된 것도 관련된 현상이다(宮里修 2019). 구주 밖에 전파된 동과는 長野縣 柳澤遺蹟은 예외로 해서 南四國에 한정된 것도 특이한 특징이다(宮里修 2019). 南四國에 집중된 것은 周防灘沿岸 지역과 南四國의 전통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지만(宮里修 2020), 하여튼 戈가 넓은 지역에서 나머지 무기와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된 사람이 무기를 손에 들 때 오른 손에 戈, 왼 손에 盾를 가진 표현이 정형화되었던 것도 중요하다(深澤芳樹 1998, 小林青樹 2008). 戈와 방패를 가진 인물 회화는 토기(도7-2 · 3 · 5~8 · 11), 동탁(도7-1 · 4), 옹관(도7-9), 鐸形 토제품(도7-10)에서 그려진다. 자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오른 손에 戈, 왼 손에 방패가 정형화된 표현이고 자주 머리에 깃 장식이 있기 때문에 샤먼의 치장이나 행동의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那珂遺蹟의 사례(도7-9)는 사람이 누락하여도 같은 표현이 성립된 점이 중요하다. 야요이 사회의 중심 시기는 彌生 中期後부터 後期前으로 청동무기에는 벌써 제기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 세계에서 어떤 戈를 가지냐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戈와 방패를 가진 종교적 지도자의 존재가 西日本을 중심으로 한 넓은 범위에서 공통되었다는 것이 야요이 사회와 청동기를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하다.

Ⅳ. 맺음말

이상 기원지인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의 흐름을 정리해서 야요이 청동기문화의 전제 조건을 파악하고 무기로 수용된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와는 크게 다른 가치를 가지면서 변화된 것을 내타냈다. 특히 잘 알려져 있는 형태화 및 대형화와 다른 측면에 주목해서 武威를 강조하는 사회 상황에서 동검의 장식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戈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야요이 사회에서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을 내타냈다. 이러한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와 야요이 청동기문화의 분리는 세형동검문화의 가장 중요한 물건인 이형청동기가 전파되지 않고 세문경도 마음대로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야요이 사회에서는 청동기에 기대되는 靈力을 무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주제로서는 銅鐸과의 관련도 추구해야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또는 청동기의 형태, 취급, 가치를 생각할 때 철의 출현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잘 언급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石川日出志, 2018, 「磨製石戈と彌生文化」,『季刊考古學』143, 雄山閣

岩永省三, 1994, 「日本列島産青銅武器類出現の考古學的意義」,『古文化談叢』33, 九州古文化研究會

岩永省三, 1997, 『歷史發掘7　金屬器登場』, 講談社

小林青樹, 2008, 「盾と戈をもちいた儀礼」,『彌生時代の考古學7　儀礼と權力』, 同成社

田中良之, 2000, 「墓地から見た親族·家族」,『古代史の論点2　女と男, 家と村』, 小學館

常松幹雄, 2011, 「甕棺と副葬品の變貌」,『彌生時代の考古學3』, 同成社.

寺前直人, 2006, 『武器と彌生社會』, 大阪大學出版會

中村友博, 1996, 「武器形祭器」,『彌生文化の研究第8卷 祭と墓と裝い［第2版］』, 雄山閣

橋口達也, 2007, 『彌生時代の戰い』, 雄山閣

春成□秀爾, 2016, 「銅鐸の埋納」,『季刊考古學』135, 雄山閣

深澤芳樹, 1998, 「戈を持つ人」,『みずほ』24, 大和彌生文化の會

溝口孝司, 1999, 「北部九州の墓制」,『季刊考古學』67, 雄山閣

宮里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宮里修, 2012, 「コマ形土器から花盆形土器へ」,『古代』128, 早稻田大學考古學會

宮里修, 2013, 「日韓青銅器文化の併行關係と東北アジアにおける位置」,『技術と交流の考古學』, 同成社

宮里修, 2014, 「朝鮮半島／韓半島青銅器文化の列島における受容と展開」,『瀨戶內海考古學研究會第4回公開大會予稿集』, 瀨戶內海考古學研究會

宮里修, 2018, 「高知縣立歷史民俗資料館所藏の琵琶形銅劍について」,『高知縣立歷史民俗資料館研究紀要』22

宮里修, 2019, 「太平洋沿岸地域の交流—南四國と銅戈—」,『彌生時代における東西交流の實態—廣域的な連動性を問う—』, 西相模考古學研究會·兵庫考古學談話會合同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宮里修, 2020a, 「周緣の銅戈」『彌生時代の東西交流』, 六一書房

宮里修, 2020b, 「출현기의 한반도 청동기」,『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집』, 한국고고학회

村松洋介, 2008, 「銅戈의 編年과 製作技術—韓日 兩地域의 比較—」,『考古廣場』3, 釜山考古學研究會

吉田廣, 2011, 「武器形祭器」,『講座日本の考古學6 彌生時代(下)』, 青木書店

吉田廣, 2014, 「彌生青銅器祭祀の展開と特質」,『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85

吉田廣, 2015, 「銅戈の副葬」,『みずほ別冊2　彌生研究の交差点』, 大和彌生の會

吉田廣, 2016, 「日本列島の初期青銅器文化」,『季刊考古學』135, 雄山閣

손준호, 2006,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書景文化社

장용준·平郡達哉, 2009, 「有節柄式 石劍으로 본 無文土器時代 埋葬儀禮의 共有」, 『韓國考古學報』72, 韓國考古學會

보고서

小郡市教育委員會編, 1986, 『三國の鼻遺蹟Ⅱ』
春日市教育委員會編, 2017, 『須玖タカウタ遺蹟3』
嘉穗町教育委員會編, 1997, 『原田ㆍ鎌田原遺跡』
古賀市教育委員會編, 2006, 『馬渡ㆍ束ヶ浦遺跡1』
佐賀縣教育委員會編, 2003, 『柚比遺蹟群3』
佐賀縣教育廳文化財課編, 1992, 『吉野ヶ里』
志摩町教育委員會編, 1987, 『新町遺蹟』
筑紫野市教育委員會編, 1990, 『永岡遺跡Ⅱ』
筑紫野市教育委員會編, 1993, 『隈ㆍ西小田遺蹟』
津屋崎町教育委員會編, 1981, 『今川遺跡』
長野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編, 2012, 『中野市柳澤遺跡』
日田市教育委員會編, 2006, 『吹上Ⅳ』
福岡市教育委員會編, 1996, 『吉武遺跡群Ⅷ』
福岡市教育委員會編, 2015, 『岸田遺跡2』
穗波町教育委員會編, 1976, 『スダレ遺跡』
前原町教育委員會編, 1989, 『長野川流域の遺跡群Ⅰ』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編, 2007, 『公州 水村里遺蹟』

挿図出典

図1は筆者作成
図2ㆍ4～7は各報告書より作成
図3は宮里 (2014) を改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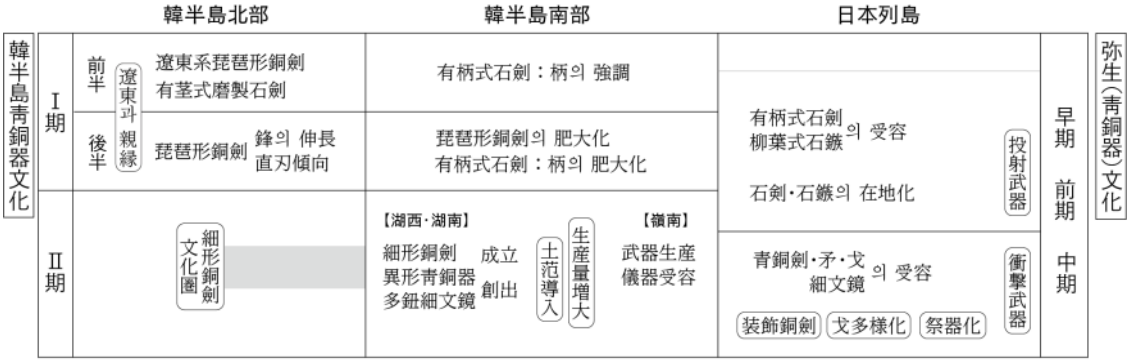


圖 1. 한일 청동기문화의 시기적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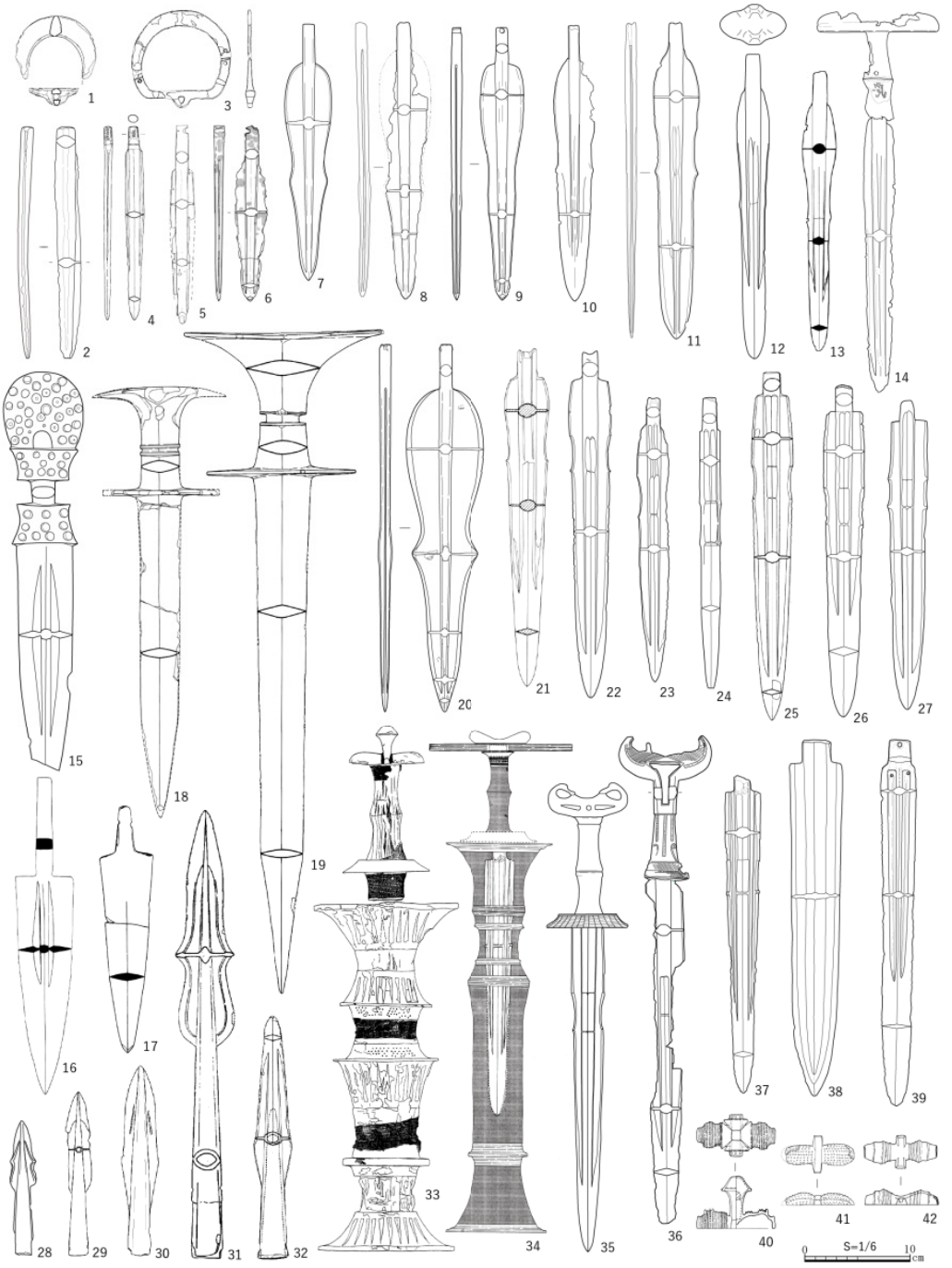


圖 2. 한반도의 동검 관련자료

(1・2. 廣州市驛洞石棺墓, 3. 金海市蓮池支石墓, 4. 春川市牛頭洞石棺墓, 5. 舒川郡烏石里周溝石棺墓, 6. 大田市比來洞 1 号支石墓, 7. 延安郡琴谷洞, 8. 洪川郡芳良里, 9. 金陵郡松竹里 4 号支石墓側, 10. 平壤市西浦洞, 11. 平壤付近, 12. 平壤市新成洞石棺墓, 13. 价川郡龍興里石棺墓, 14. 載寧郡弧山里, 15. 昌原郡平城里, 16. 大同郡美林里, 17. 信川郡良長里, 18. 清道郡陳羅里 1 号支石墓, 19. 大邱市坪村里 20 号石棺墓, 20. 清道郡礼田洞, 21·24. 礼山郡東西里石槨墓, 22. 大田市槐亭洞石槨墓, 23. 扶餘郡蓮華里石槨墓, 25. 大邱市晩村洞土坑墓, 26·42. 大同郡上里, 27. 平壤市貞栢洞 M2, 28. 德川市南陽里 16 号住居址, 29. 大同郡硯谷里, 30. 高原郡弥屯里, 31. 湖林博物館蔵, 32. 伝尚州, 33. 平壤市貞栢洞, 34. 慶州市舍羅里 M130, 35. 大邱市飛山洞石槨墓, 36. 佐賀県唐津市柏崎甕棺墓, 37. 黄州郡黒橋里, 38. 平壤市貞栢里採土場, 39. 伝金海, 40. 金海市良洞里 M55, 41. 尚州郡洛東里)

(青銅器文化) 韓半島			日本列島 (彌生時代)		
槐亭洞 東西里 南城里	細形武器成立 異形青銅器出現	Ⅱ1期	前期末		
九鳳里	多鈕細文鏡成立 銅戈出現	Ⅱ2期	中期初	細形青銅武器	吉武高木3号木棺墓 馬渡·東ヶ浦2号甕棺墓
大谷里		Ⅱ3期			
草浦里 南陽里 葛洞	鑄造鐵器出現	Ⅱ4期	中期前葉	中細形青銅武器	吉野ヶ里墳丘墓 柚比本村墳丘墓
			中期中葉		吉武樋渡墳丘墓
茶戸里M1 龍田里 坪里洞 漁隱洞 勒島245住 朝陽洞M38	鐵製武器出現 武器의 裝飾的變化·退化 中原文物出現 彌生青銅器의 副葬	Ⅲ期前	中期後葉	漢鏡登場	須玖岡本D地点 三雲南小路
			中期末葉	中廣形青銅祭器 平形銅劍	立岩10号甕棺墓
良洞里M427 塔洞 舍羅里M130 良洞里M162 老圃洞M33	深樋式銅劍·金海式銅矛 彌生青銅器의 副葬 青銅文化衰微	Ⅲ期後	後期	廣形青銅祭器	桜馬場

* 彌生時代의 時期区分은 常松(2011)

圖3. 韓半島青銅器文化와 彌生文化의 併行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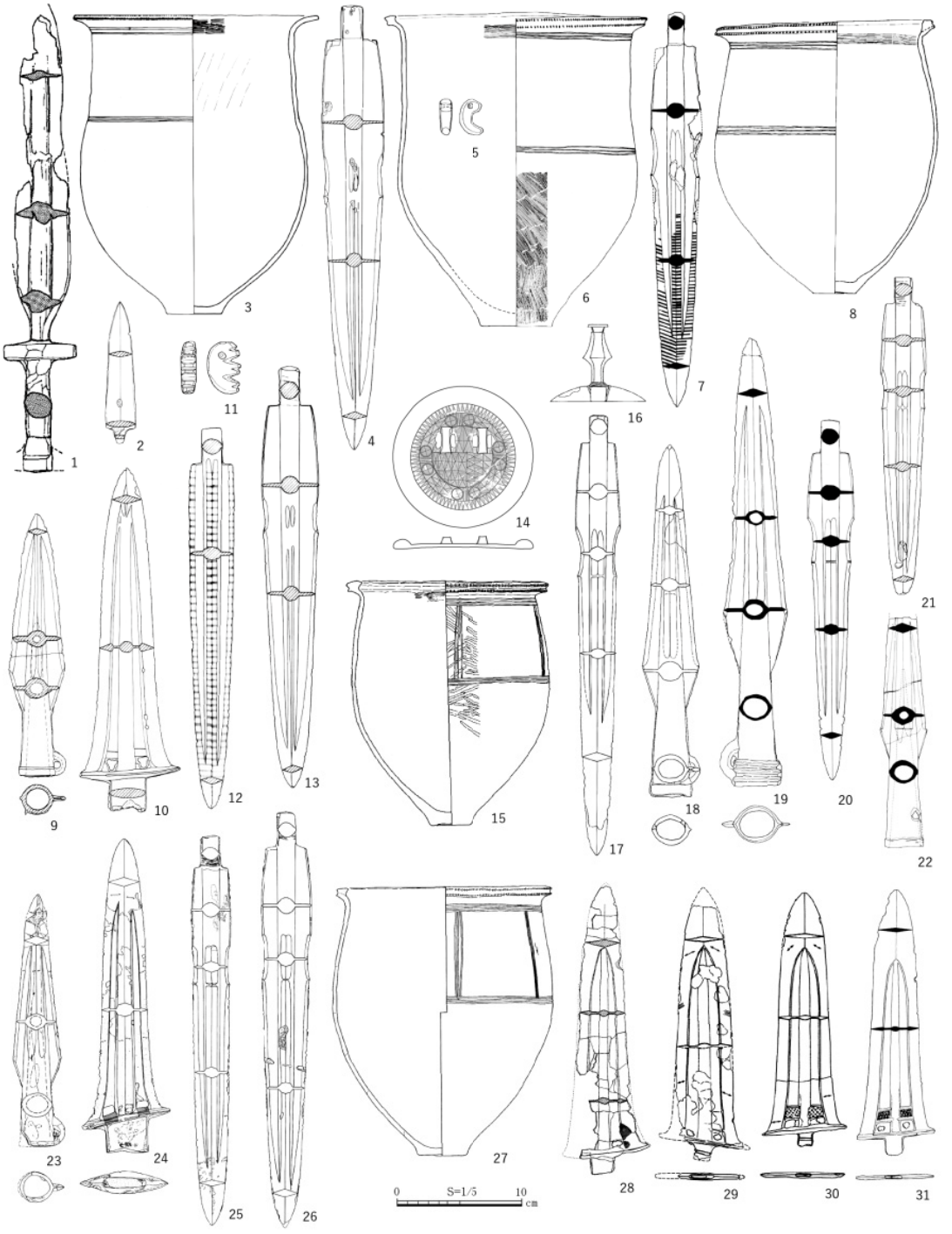


圖 4. 일본열도의 초기 청동기

(1. 福岡市比恵, 2・3. 福岡市吉武高木 K125, 4~6. 吉武高木 K117, 7・8. 吉武大石 K140, 9~14. 吉武高木第 3 号木棺墓, 15~18. 福岡市岸田 K0473, 19・20. 吉武大石 K45, 21. 吉武高木 K116, 22. 吉武大石 K67, 23~27. 馬渡・東ヶ浦 K2, 28. 福岡市有田 2 号甕棺, 29. 糸島市久米 23 号甕棺, 30. 宗像市朝町竹重 28 号木棺, 31. 吉武大石 K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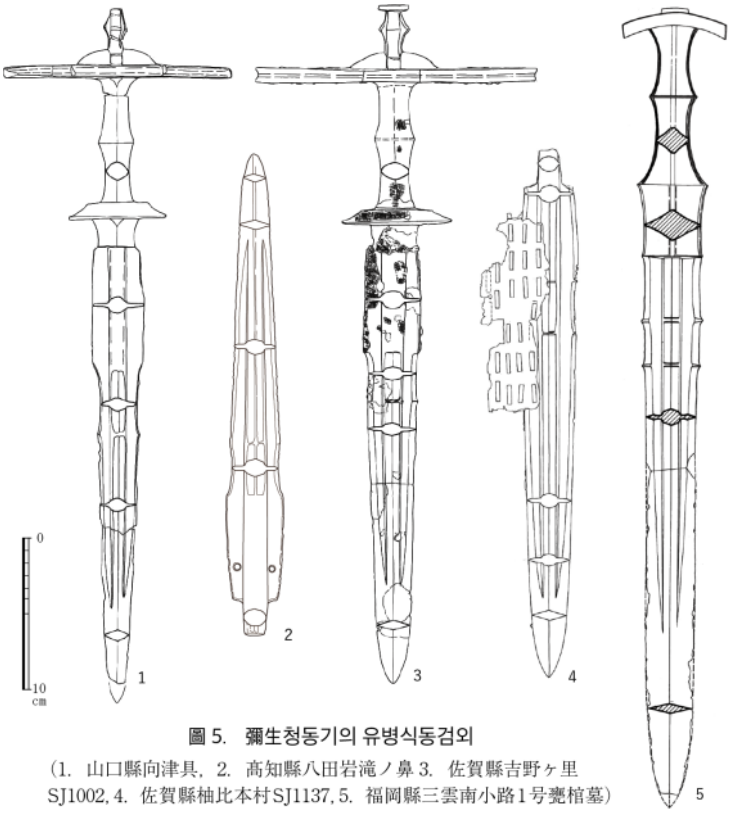


圖 5. 彌生청동기의 유병식동검외

(1. 山口縣向津具, 2. 高知縣八田岩滝ノ鼻 3. 佐賀縣吉野ヶ里 SJ1002, 4. 佐賀縣柚比本村SJ1137, 5. 福岡縣三雲南小路1号甕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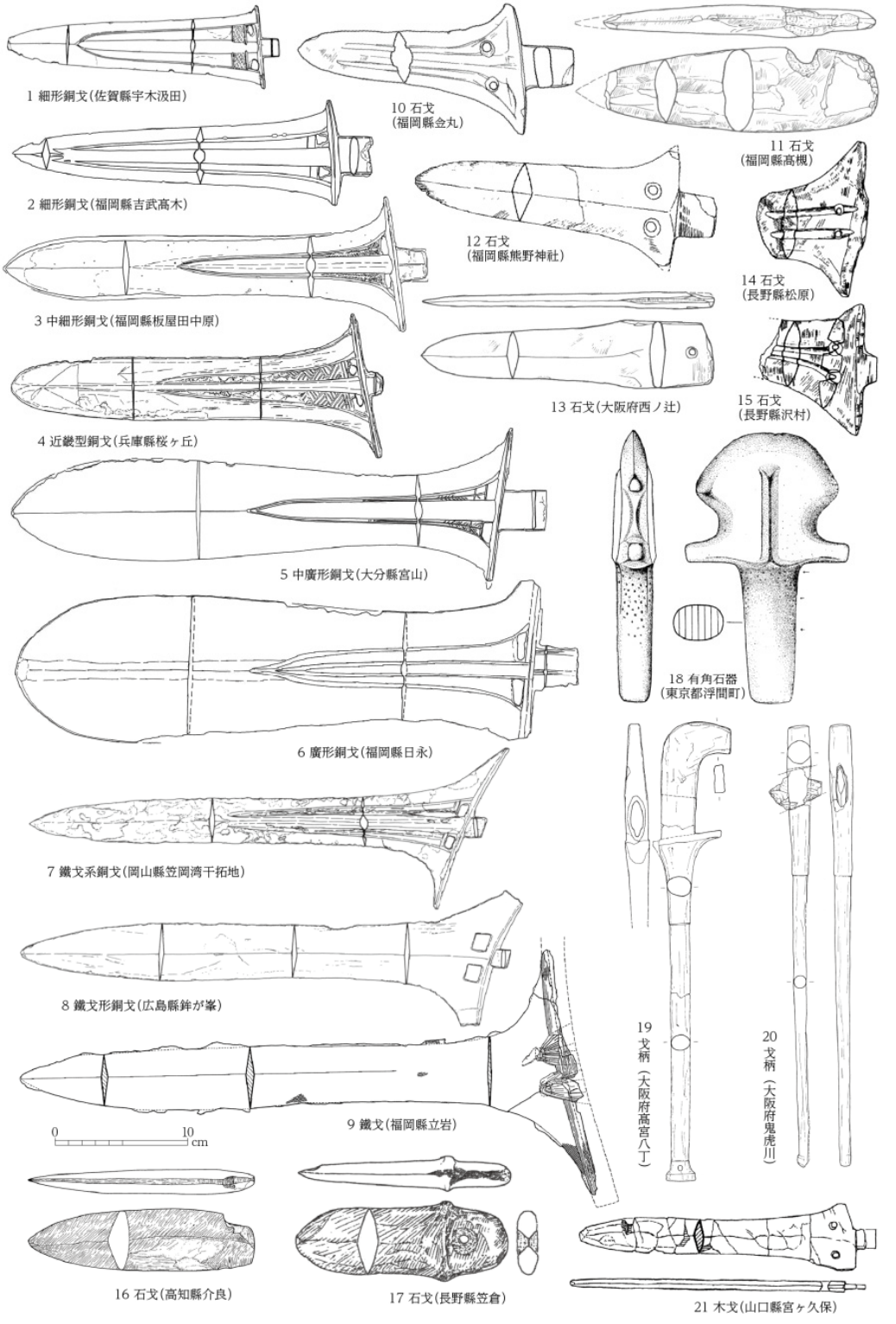

1 細形銅戈(佐賀縣宇木汲田)
2 細形銅戈(福岡縣吉武高木)
3 中細形銅戈(福岡縣板屋田中原)
4 近畿型銅戈(兵庫縣桜ヶ丘)
5 中廣形銅戈(大分縣宮山)
6 廣形銅戈(福岡縣日永)
7 鐵戈系銅戈(岡山縣笠岡湾干拓地)
8 鐵戈形銅戈(広島縣鉾が峯)
9 鐵戈(福岡縣立岩)
10 石戈
(福岡縣金丸)
11 石戈
(福岡縣高槻)
12 石戈
(福岡縣熊野神社)
13 石戈(大阪府西ノ辻)
14 石戈
(長野縣松原)
15 石戈
(長野縣沢村)
16 石戈(高知縣介良)
17 石戈(長野縣笠倉)
18 有角石器
(東京都浮間町)
19 戈柄(大阪府高宮八丁)
20 戈柄(大阪府鬼虎川)
21 木戈(山口縣宮ヶ久保)
0
10 cm

圖 6. 彌生時代의 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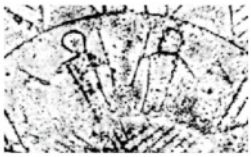
1 福井縣井向1号銅鐸



2 奈良縣清水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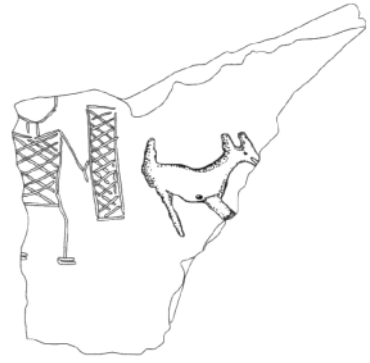
3 奈良縣清水風



4 奈良縣石上2号銅鐸



5 佐賀縣瀨ノ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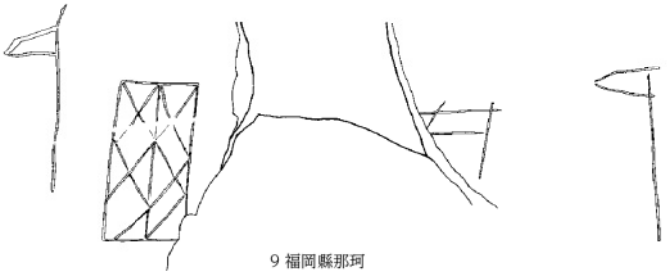
6 奈良縣平野



7 鳥取縣日吉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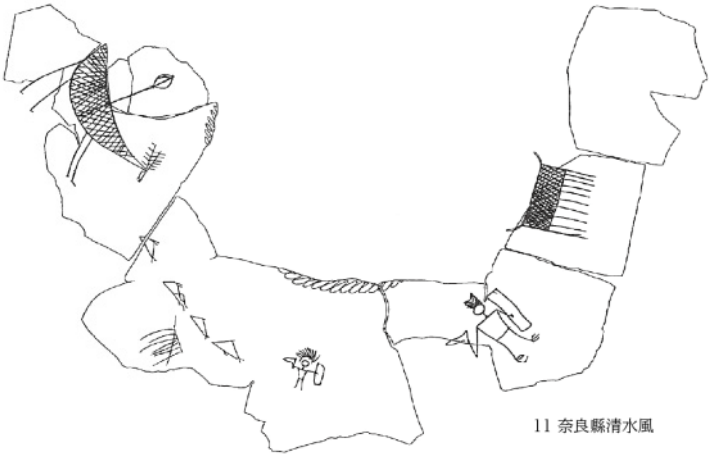
8 奈良縣唐古・鍵



9 福岡縣那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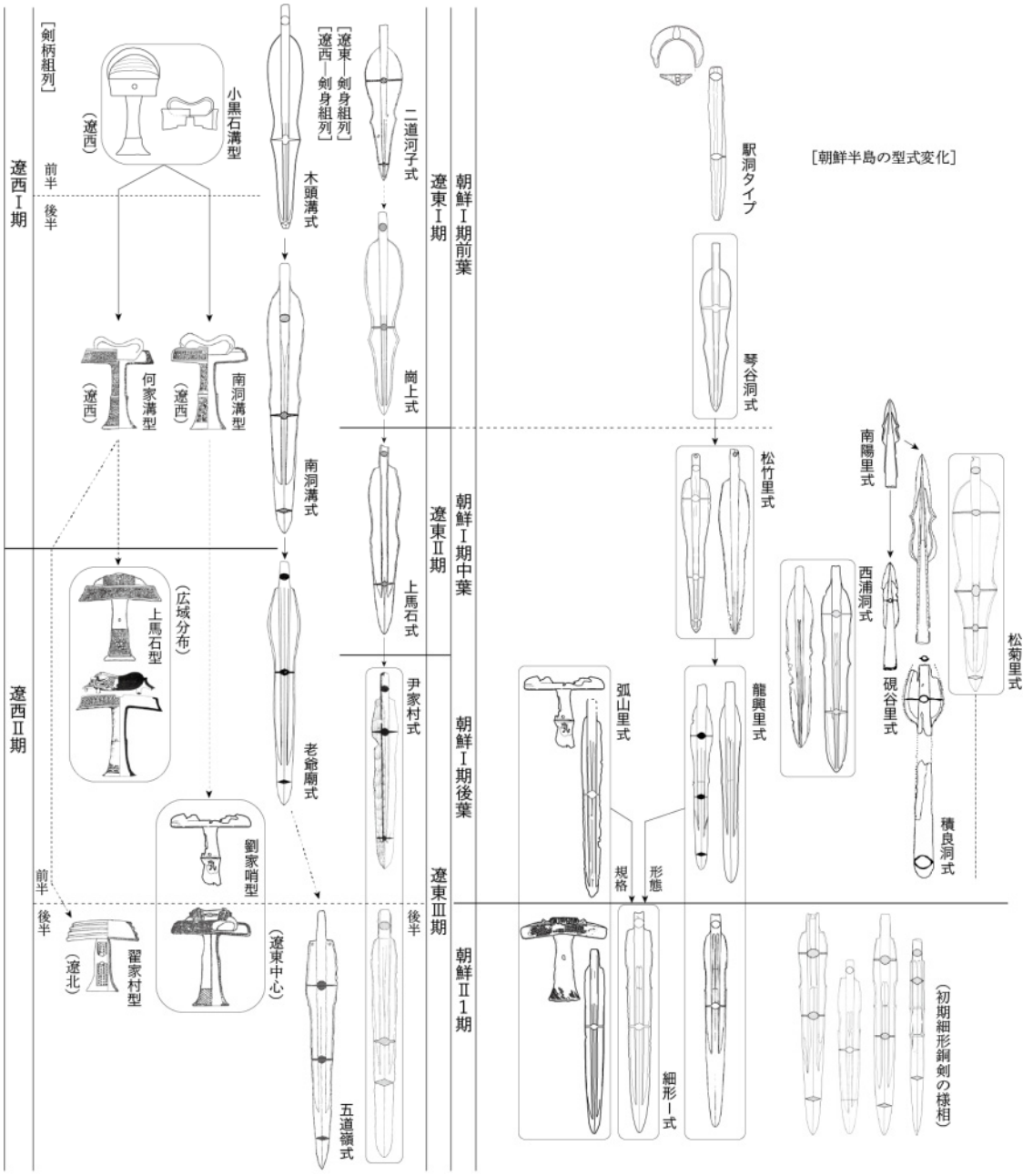


10 佐賀縣川寄吉原



11 奈良縣清水風

圖 7. 그려진 戈



第８図　琵琶形銅剣の変遷（宮里 2008 を改変）

16

토론문

1.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
   윤 호 필 (상주박물관)

2.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
   천 선 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

3.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토론문
   이 동 희(인제대학교)

4.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에 대한 토론문
   조 진 선 (전남대학교)

5. 「중국고고학에서의 벼농사기원의 변화와 중국문명의 인식」에 관한 토론문
   김 권 구 (계명대학교)

6.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에 관한 토론문
   김 권 구 (계명대학교)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

윤 호 필 (상주박물관)

본 토론문은 국제학술대회 주제인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중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것으로 3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지며, 각각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문화(김규정)’,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이재언)’,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이동곤)‘이다. 따라서 토론은 기본적으로 각 주제별 발표문에 따라 질문을 드리지만, 일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3분의 발표자에게 공통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에 대한 토론

발표문은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해 취락과 분묘에 대한 연구현황을 연구사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양상을 시기별로 검토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농경문화에 대해서도 약간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다. 따라서 발표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호서·호남지역에 분포하는 송국리식주거지는 내부구조가 타원형구덩이와 양단에 주혈을 갖춘 A형식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데, 그 중에서도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83%가 A형식이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이러한 이유에는 영산강유역에서 송국리식주거지가 가장 많이 조사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영산강유역에 A형식이 유독 많이 분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이 확인되는데, 이들 주거지의 선후관계는 일부 유적조사(광주 수문리유적)와 연구성과(유향미 2006)를 통해 원형에서 방형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발표자는 양자의 중복사례가 극히 드물어 영산강 유역 전체의 양상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형이 빠르고 원형이 늦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간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지역의 주거(취락) 양상을 발표한 이재언 선생님은 오히려 원형에서 방형으로 이행하는 것이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특징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분묘의 설명에서 석관과 묘광 사이에 작은 할석으로 뒷채움한 것이 함평 덕림리 백양 지석묘의 특징으로 파악하셨는데, 이러한 매장주체부의 구조가 영산강유역 전체의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산강유역 내에서의 지역적 특징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지석묘 매장주체부의 형태와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기에 비해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이러한 변화가 영산강 전체적인 현상인지 국지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농경은 유적조사사례는 없고 농경구나 출토곡물, 토기압흔, 지방산분석 등을 통해 농경의 흔적을 일부만 확인될 뿐 적극적인 조사나 연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경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자도 제시하였지만, 경작지의 주요 입지인 충적지나 곡저지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조사사례는 없지만 취락과 분묘의 분포와 밀집도를 볼 때 영산강유역에서 대규모의 경작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에 대한 토론

발표문은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취락)'에 대해 연구사와 유적 분포양상을 정리하고 주거유적의 시기별 양상을 검토하여 주거의 편년과 특징을 파악한 것으로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연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표문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산강유역 주거유적의 현황을 보면, 조·전기는 영산강 중·상류(담양·광주·나주)를 비롯한 황룡강, 함평천에서 확인되며, 중·후기유적은 지류에 해당하는 지석천, 영암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의 수량도 전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지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산강의 상류지역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의 분포와 밀집도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발표자의 검토 결과 중에서 지형적으로나 주거의 분포배치 형태에서나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거지의 평면형태(원형과 방형) 변화에 대해서는 앞서 김규정 선생님의 토론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발표자께서도 함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자는 방형 주거지에 대해 주목하여 주거지의 계기적인 변화와 함께 문화유입에 따른 공백 지역을 점유하면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전기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문화유입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접변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전북 및 호남 동부권의 경우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정된 공간에서 발전하는 방향성으로 이해하고, 영산강유역의 주거지군은

대부분 소형에 속하며 주거 배치의 불규칙성, 각 수계별 상위의 중형 및 대형주거군(광주 수문, 평동, 덕림동 을림)의 존재는 경쟁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유가 가능한 주변 환경을 통해 각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통합되며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배경에는 전기부터 새로운 문화요소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산강유역의 주거문화는 분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역성이 강하게 나타나야 하며,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요소들이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내 주거유적의 특징적인 분포양상과 각 지역별 특징적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자는 호남지역의 관점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중점, 거점취락의 양상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영산강유역에서는 거점취락을 상정하기에는 차별화된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인된 주거지의 수가 많고 전기부터 후기까지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쳐 유적이 확인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중기에는 주거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분포상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뚜렷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거점취락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취락간 상호 네트워트 형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권 선생님이 발표한 지석묘 검토결과에서도 지석묘는 일정 지역에 중심 밀집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초대군집 또는 대군집 중심으로 주변에 중·소군집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밀집분포지는 지석묘 축조집단이 일정한 범위를 형성하면서 지역적으로 영역권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거점취락에 대한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역환경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에 대한 토론

발표문은 '영산강유역권의 지석묘'에 대해 최신의 연구성과와 많은 지석묘유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특징과 지역성을 검토한 것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석묘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발표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산강유역에서 지석묘와 취락은 송국리문화 시기인 중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확산합니다. 발표자는 지석묘의 분포에서 영산강 중·하류지역인 나주·영암 전역에 주로 분포하고, 화순군을 제외한 상류로 갈수록 400여기 이하로 적어진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석묘의 전파와 이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한 취락의 경우는 분포범위가 지석묘와 반대로 중·하류지역보다는 상류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취락과 분묘의 관계로 볼 때 영산강에서의 분포양상은 일반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탁자식지석묘는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중부와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형식으로 남부지역에서는 확인되는 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영산강유역권에서는 60기 정도가 확인되며, 주로 서해안과

영산강하류지역에 분산되어 분포합니다. 이렇게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는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규모와 형태, 배치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북부지역에서 확인되는 탁자식지석묘와 영상간유역권에서 확인된 탁자식지석묘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형지석묘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지석묘 형태 중 하나인데, 분포권을 보면 탁자식지석묘의 분포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형태나 규모의 변화양상도 탁자식지석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지역에서는 탁자식지석묘와 주형지석묘가 상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대형 기반식지석묘 중 매장시설이 없는 것을 상징지석묘로 설정하여 검토하였는데, 용어 그대로 상징적 기능을 가진 지석묘라고 볼 때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고 나아가 그 상징성에 따른 기능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국제학술대회 주제가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으로 호남지역 청동시대 문화를 새로운 자료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문화양상을 재검토하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3분의 발표자께서는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가 만경강유역권이나 섬진강·탐진강유역권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세부 주제별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영산강유역권에서 많은 취락과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발표자들께서는 유적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취락은 지리적으로 교통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유구 및 유물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의 취락과 분묘에서도 이러한 상호 관련된 요소나 유물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청동기시대 중기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주거지와 함께 분묘도 급격히 증가하며, 분묘에서는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도 축조되지만, 지석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분묘의 종류에서 지석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호남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은 지석묘뿐만 아니라 석관묘의 비중도 상대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산강유역에서 지석묘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발표자가 있으시면, 그 원인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는 조·전기(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흔암리유형), 중기(송국리문화, 송국리유형), 후기(점토대토기문화, 수석리유형)의 문화가 모두 나타나는 지역으로, 취락(주거지)과 분묘(지석묘)의 변천으로 볼 때 각 시기별 문화는 다음 시기로 넘어갈 때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이어지거나 융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각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

천 선 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이번 학술대회의 2부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문화와 관련하는 '만경강 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이종철),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정다운),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묘제'(송아름)의 세 발표에 대한 토론이 토론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표인 '만경강 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는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조전기~후기까지 주거, 취락, 묘제를 아우르며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만경강유역 청동기문화의 특징을 두루 살피고 있다. 나머지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과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묘제' 발표는 첫 번째 발표에서 다루어진 세부 주제 즉 취락, 묘제로 나누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두 발표 내용이 전자의 발표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각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풀어나가는 쟁점이 유사하기도 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의 확산과 분포확대, 전기 취락의 소규모 점적 취락, 중기 이후 거점취락의 형성 및 대중소 취락망(취락연계망) 형성, 그리고 중기 만경강유역 취락구조와 금강유역 송국리문화(취락 및 묘제)와의 친연성, 송국리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양상, 취락 제의의 연속성, 중기-후기 무덤 분포와 밀도 변화 및 지역별 무덤 형식과 구조, 부장상의 차이와 변화 등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따라서 세 발표를 아울러 의견이 상이하거나 발표자의 추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1. 만경강유역 전기 문화를 구성하는 실체에 대한 질의_이종철 선생님, 정다운 선생님

만경강유역 전기 문화의 형성 문제는 가락동유형에 무게를 두느냐, 가락동유형 및 역삼동·흔암리유형의 문화접변으로 볼 것이냐로 집약된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토착민(신석기시대인)[1]과의 관계에서 변형된 것으로 판단하고, 발표자는 후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이의 발생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자료 처리 방식의 차이, ②유형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이다. 먼저 ①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공렬토기의 존재, 주거 내부시설에서 초석이나 위석노가 없음을 근거로 든다. 즉 자료의 유무를 해석의 근간으로 삼아 다양한 유형의 공존으로 파

1) 이와 관련하여 이종철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토론자의 논문에서 이야기한 '토착민과의 관계'에서 토착민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발표자의 견해로는 토론자가 말한 토착민은 역삼동유형 등의 집단 또는 그 영향으로 추정되므로 만경강유역 전기문화의 영향으로 온전한 가락동유형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토론자 논문 내용과 상이한바, 정정해두도록 한다. 토론자는 만경강유역 전기문화의 형성을 금강유역 가락동유형이 파급되어 변형된 형태로 파악하므로, 토착민이 역삼동유형 주민이어서는 그러한 논지가 성립될 수 없을뿐더러, 논문 어디에서도 토착민을 역삼동유형 주문집단으로 이야기 한 바가 없다. 오히려 '토착 신석기시대인'으로 명시해 두었는바, 발표자의 오독으로 판단된다.

악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공렬토기가 문양이 있는 토기편 150여점 가운데, 5점[2]이고 출토되는 단계가 대체로 3단계 및 4단계인 점, 공반하는 대다수는 가락동식토기인 점 등 만경강유역 내 공렬토기의 비율과 공반상 및 출토시기를 근거로 가락동유형의 변형을 파악한다. 공렬토기를 제외하면 발표자 주장의 근거는 주거 내부시설에만 있다. 위석노나 초석열이 돌대문토기문화 및 가락동유형과 상관성이 높은 것은 사실하지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②발표자는 흔암리유형 설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만경강유역의 전기문화 실체를 흔암리유형으로 규정한다. 발표내용상으로는 만경강유역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들어와 복합되었는지, 다른 곳에서 복합된 흔암리유형이 만경강유역으로 유입되었음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읽을 수 없다. 토기는 가락동식인데 주거 내부시설이 역삼동유형이라는 문구와 역삼동유형 단독의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에 가까운 듯하다.

그러면 발표자가 말하는 흔암리유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기에 설정된 흔암리유형일까요 시간적 의미의 흔암리유형일까요, 흔암리식토기문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발표자의 유형 의미에 따라 만경강유역 전기 문화를 이해하는 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형은 유물복합체, 동시성, 제작사용집단을 요건으로 규정되나 실제 인식하는 방식은 토기나 주거 구조 차이에 있다. 따라서 전통적 정의에 따른 흔암리유형은 전기 문화 대부분을 포함하게 되고 남한 전역이 동일한 전통을 가진 제작 집단으로 규정되게 된다. 다양한 지역문화를 흔암리식토기문화로 유연하게 엮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시성을 부여하고 동일한 전통을 가진 제작사용집단으로 규정하기에는 한반도 내 지역문화의 전개과정이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형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기존의 흔암리유형이라는 의미로 만경강유역을 바라본다면 지역문화의 실체를 추구하는 데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 토론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발표자가 흔암리유형을 시간적 의미로 사용한다면, 금강유역에서도 가락동유형을 중심으로 전기 후반에는 구순각목 등이 나타나고 초석 없는 주혈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자료를 시간적 의미의 흔암리유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발표자가 말하는 '흔암리유형 단계(시기)'와 토론자가 말하는 금강유역 가락동유형의 유입이라는 결과는 상반되지 않는다. 세 번째 흔암리식토기문화로 해석한다면,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흔암리식토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경강유역 전기문화가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어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유입되었다면 어디의 흔암리유형이 유입되었는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취락 구조와 기능_정다운 선생님

청동기시대 조·전기 취락 기능과 구성에 대해 동산동유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전기단계 소형주거의 기능을 일상용 주거시설로 보지 않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중대형 주거와 소형주거 간의 노지 형식 차이를 지적하며, 소형주거에서 토광식이나 무시설식 노만 확인되어 규모에 따라 노지 선택을 달리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동산동유적만으로 볼 때도 중대형주

2) 용기리 Ⅰ-2호(1점, 이사구공, 4단계), 장동Ⅱ Ⅰ-9호(1점, 이사구공, 3단계), 동산동 1-2호(1점, 구공, 1단계), 구암리 4-1호(2점, 구공, 4단계)의 5점이다.

거에서 무시설식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거규모와 노지형태의 상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며, 아울러 주거 규모와 노지형태의 상관성이 소형 주거의 기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한다.

3. 중기 주거유적의 형태와 관련한 자료 확인_정다운 선생님

중기 주거유적을 Ⅰ취락지, Ⅱ취락지, Ⅲ취락지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부연설명 부탁드린다. 그리고 각 취락지의 원형 및 방형의 비율에서 기존 연구와 많은 차이가 확인된다. 가령 Ⅰ취락지에서 원형 54기, 방형 36기라고 설명하면서 원형이 우세한 점은 만경강 전체 양상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경강유역에서 원형은 방형에 비해 3배정도 많은데, 위 수치로는 원형보다 방형의 비중이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과연 이러한 수치를 만경강유역의 일반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Ⅱ취락지에서 원형 내주공식 45기, 방형 내주공식 22기라고 하여 방형주거가 많은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의 이전 집계로 보면 Ⅱ취락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원형은 149기, 방형은 33기로 확연한 차이가 나고 오히려 원형의 비율이 높고, 이종철 선생님 발표내용에서도 Ⅱ취락지에 해당하는 S3, S2구역에서 원형 내주공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발표자의 위 수치가 어떻게 도출된 것이며, Ⅱ취락지 전체에서 과연 방형이 많다는 결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종철 선생님에게도 해당하는 질의로 위 결과대로라면 만경강유역에서 전체적으로 원형이 많은 것은 분명하나 지역별 차이가 드러난다. 만경강유역의 전체 틀 가운데 취락군 별로 원형과 방형의 비율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린다.

4. 전주 척동유적(Ⅱ-1호)의 시간성_이종철 선생님, 정다운 선생님

척동유적 Ⅱ-1호 송국리형주거 내에서 부뚜막이 확인되는 것과 관련하여, 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발표자는 송국리문화 단계에 부뚜막이 출현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후기의 취락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송국리형주거가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되며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척동의 사례를 통해 송국리형주거가 하한이 늦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해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5. 만경강유역 직립구연호 옹관묘의 시기_송아름 선생님

직립구연호 옹관묘에 대하여 옹관의 기형을 근거로 전기로 편년하기도 하고, 주변에 송국리유형 취락이 전개되고 있어 중기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이종철 선생님은 후자에, 정다운 선생님은 2015년 석사논문에서는 전자에, 이후에는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으며, 송아름 선생님은 별다른 언급 없이 후자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 의견을 부탁드린다.

6. 주거와 무덤 분포양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_송아름 선생님

중기 주거와 무덤 간 비율에서 만경강 북부는 무덤이, 남부는 주거의 밀도가 높다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계된 무덤에서 지석묘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석묘를 감안하면,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전북 지역에서 모두 무덤 밀도가 높아진다. 지석묘를 포함한 양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다음으로 중기 주거와 무덤 간 비율에서 익산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1:1분포를 보이고 다만 주거유적이 무덤유적처럼 익산 북부 및 중부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 차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군산, 익산, 전주 지역의 분명한 차이가 확인된다. 군산지역은 1유적(축산리)에서의 무덤 밀집도가 높은 양상, 익산지역은 대형취락을 형성하는 영등-부송지구에서는 오히려 무덤의 출토예가 없고 중형취락 분포지에서만 무덤 밀도가 높으며, 전주지역은 비율 차이는 있지만 대형취락 등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 무덤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 결과는 익산지역에 한하여 볼 때, 만경강유역 취락분석 양상과 차이가 분명하다. 이처럼 만경강유역 내 무덤 밀도 차이 및 취락과 무덤 간의 분포 밀도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7. 주거와 무덤의 공간 분리 여부_송아름 선생님

주거와 무덤의 공간이 점차 분리되어 가는 양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과정과 시점 및 양상을 확인하는 실질적 문제에 있어, 분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발표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제한된 발굴범위로 인해 동일한 유적인데 다른 유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주거와 무덤이 함께 있더라도 주거수가 극히 적은 경우, 그 유적의 주거를 기능검토 없이 일상생활용 주거라고 보고 혼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표자가 예로 든 익산 모현동2가 섬다리지구, 전주 여의동은 무덤과 주거가 중복되는데, 동일한 입지에 주거지와 무덤이 시차를 두고 축조되었다면 과연 이 유적을 무덤과 주거의 입지 혼재라고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무덤과 주거의 공간 분리 여부도 중요하지만, 당시 지역 집단들이 매장구역 조성과 관리를 개별집단별로 해온 것인지 아니면 여러 집단의 공동 관리인지 등의 관계성이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8. 만경강유역 지역별 무덤 구조 차이_이종철 선생님, 송아름 선생님

지석묘를 비롯하여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 소지역별 비율차이가 분명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만경강유역이 송국리형묘제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지역집단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 무덤 조성이 달라진다고 두리뭉실하게 해석한 바 있다. 이종철 선생님도 토착집단의 선택적 결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송아름 선생님 발표에서는 무덤 형식 외에도 석관묘를 짜는 방법, 시상대 설치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송국리묘제라는 큰 틀 속에서 나타나는 만경강유역 무덤 형식과 구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토론문

이 동 희 (인제대학교)

1. 공통 질문(황재훈, 김진환)

1) 송국리형 주거지의 하한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시기구분에 있어 전기, 중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후기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다. 이는 송국리형 주거지를 모두 중기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순천 연향동유적의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사례가 주목된다. 따라서 송국리형주거지는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발표자들이 중기 후엽으로 파악한 토기나 송국리형 주거지는 사실상 기원전 3세기 이후의 초기철기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섬진강유역의 경우, 점토대토기가 희소하기에 후기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섬진강유역으로의 점토대토기의 확산이 제한적이었다면 다수의 토기는 종래 무문토기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송국리형 주거지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면 같은 맥락에서 지석묘도 존속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섬진강유역에서 가장 늦은 단계의 위석식 매장주체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기원전 3-1세기대에 섬진강유역에서 호남서부지역과 같은 적석목관묘나 토광묘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표 1〉 호남지역 송국리형 문화의 하한 관련 자료

유적명	유구	보고자 편년	편년의 근거	편년의 문제점
전주 송촌동2가	송국리형주거지 13기	청동기시대	방사성탄소연대(기원전 8-5세기)	두형토기출토, 퇴화형의 송국리형 주거지
고창 산정리	송국리형주거지8기, 수혈 30기	청동기시대	송국리형주거지	무문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의 동반
고창 율계리	송국리형주거지5기	청동기시대	송국리형주거지	원형점토대토기+무문토기의 동반 초기철기시대 수혈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물이 거의 차이가 없음
	수혈 4기	초기철기시대	점토대토기출토	

유적명	유구	보고자 편년	편년의 근거	편년의 문제점
함평 소명	송국리형주거지 8기	청동기시대	송국리형주거지	3호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개와 함께 석촉,석착,석도,유구석부 동반
광주 수문	송국리형주거지 31기	청동기시대	송국리형주거지	무문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5호) 퇴화형의 송국리형 주거지
나주 운곡동	송국리형주거지 75기	청동기시대	송국리형주거지 방사성탄소연대(기원전 7-5세기)	Ⅰ-11호 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뚜껑 출토 다-1호 지석묘에서 세형동검,주조철착,석촉 공반
장흥 갈두	송국리형주거지,지석묘 다수 동반	청동기시대	송국리형주거지 방사성탄소연대(기원전 8-7세기)	3기주거지에서 변형 원형점토대토기출토: 기원전2-1세기(임설희 2010) 점토대토기+무문토기 장흥,강진 지석묘의 하한연대는 기원전후(조진선 2008)
임실 망월촌	송국리형 주거지 5기	청동기시대	방사성탄소연대(기원전 7-3세기)	주거지에서 흑도 및 뚜껑 출토 퇴화형 송국리형 주거지

〈표 2〉 호남지역 늦은 단계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

유적명	늦은 단계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
전주 송촌동2가	타원형 구덩이와 주공이 희소(13기 중 6기만 작업공 확인), 타원형 구덩이가 없는 주거지는 소형인 경우가 많다.
고창 산정리	주거지가 소형이고, 공반된 수혈유구 출토유물은 주거지 출토유물과 동일 30기의 수혈유구 중 7기에서 무문토기와 함께 삼각형점토대토기 출토
고창 율계리	송국리형 주거지와 타원형 수혈은 소형. 수혈과 송국리형주거지는 인접하면서 중복되지 않아 동시대일 것
함평 소명	송국리형 주거지가 소형이 다수이고 비정형적. 즉, 찌그러진 타원형구덩이가 많고 주공이 없거나 타원형구덩이가 중심이 아닌 한쪽에 치우쳐 있음
광주 수문	주공이 없는 타원형주거지가 주거지 한쪽에 치우쳐 위치(24,28호) 타원형구덩이의 축조,변형(26호), 타원형구덩이와 주공이 미확인(29호)
나주 운곡동	퇴화형의 소형 송국리형 주거지 다수. 타원형 구덩이가 주거지 한쪽에 치우친 경우, 타원형구덩이가 소형이거나 타원형 구덩이 주변에 주공이 없는 경우, 타원형구덩이가 없는 경우
임실 망월촌	3호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 외부로 상당한 거리(1m)를 두고 주공이 확인되고, 5호 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는 없이 주공만 확인

상기한 바와 같이, 늦은 단계의 송국리형의 주거지의 특징은 전형적인 사례에 비해 정형성이 떨어지는데,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늦은 시기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은 타원형구덩이와 주공이 퇴화되어 보이지 않거나 전형적인

모습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타원형 구덩이가 없는 주거지는 규모상 소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늦은 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 등이 확인되어 어느 정도 구분되는 사례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착안한다면, 무문토기와 삼각구연점토대토기를 포함한 경질무문토기를 늦게까지 사용한 송국리형주거지의 하한을 내려볼 수 있다.

이렇듯 비정형적이고 퇴화된 송국리형주거지의 공반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적지 않게 출토되어 그 하한을 기원전후한 시기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기원후 1-2세기까지 내려볼 수도 있다.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하한을 2세기까지로 보는 견해(이창희 2013)가 참고된다.

2) 송국리형 문화(후기)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

호남지방에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지만 관련 주거 유적의 조사는 희소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실제 그러한지 아니면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면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파악한다.

그런데,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기원전후시기의 옹관묘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송국리형 외반구연토기가 공반되는 양상은 점토대토기뿐만 아니라 종래 무문토기가 장기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기원전 4-3세기대에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호남지역(특히, 전남지역)은 기원전후시기까지 장기간의 과도기를 거쳤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종래 초기철기문화를 점토대토기문화(한국식동검문화기)의 존재로 일원화한 기존 편견이 오히려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초기의 공백기를 초래한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재지 송국리형 문화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국, 점토대토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취락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도 초기철기시대 취락유적은 찾기 어렵다.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초기에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양상은 기층사회의 분묘인 옹관묘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기 합구식 옹관묘는 광주 신창동 53기, 광주 운남동 2기, 무안 인평 1기, 함평 장년리 3기, 익산 어양동 1기 등이 조사되었는데, 합구식에 사용된 옹관은 대부분 송국리형 토기와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결합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호남(서부)권은 기원전 1세기경에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무문토기(송국리형 외반구연토기) 공반상을 보면,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었더라도 적어도 기층사회에서는 기원전 1세기까지 무문토기문화가 지속된 것이다.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하한을 조금 더 내려보면 기원후 1세기까지 될 수도 있다.

문화적 단절로 보지 않는다면 보성강유역에 이른 시기의 점토대토기는 없고 종말기의 삼각구연점

토대토기만 있다. 보성 석평유적이나 남원 세전리유적이 이를 대변한다. 즉, 송국리형 다음 단계에 늦은 단계 점토대토기만 보이는 것은 송국리형 주거문화와 늦은 단계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문화는 상호 계기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섬진강유역권은 점토대토기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송국리형 후기 문화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는 논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요컨대, 지석묘가 집중된 전남지역 지석묘가 청동기시대 이후 초기철기시대에도 지속되듯이 송국리형 주거지가 집중된 호남지역의 경우, 송국리형 주거지를 일괄적으로 청동기시대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단계 구분하여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선사시대의 방사성탄소연대, 원사·역사시대의 방사성탄소연대

송국리형 주거지의 하한은 대개 방사성탄소연대에 근거하여 기원전 4-3세기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원전 3세기 이후는 초기철기시대라는 시대 개념이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 설정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원형·삼각형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가 기원전 8-5세기까지 올라가고 있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의 신뢰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점토대토기(세형동검) 출토 유적에 대한 AMS 측정사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절대연대는 기원전 7-5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정연대는 기원전 9-5세기에 이른다. 방사성탄소연대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세형동검문화는 기년명문이나 漢鏡과 같은 절대연대가 확실한 유물들이 있고 이 유물들로 보아 기원전후경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에서 이러한 연대를 보이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형동검문화기의 방사성탄소연대는 실연대보다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세형동검문화의 상한연대를 기원전 5세기 이전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세형동검문화의 한반도 유입시기는 역사적인 맥락과 한반도에서 세형동검문화의 전개과정을 고려해서 기원전 300년경으로 볼 수 있다(조진선 2005).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면, 방사성탄소연대는 상한연대로 보아야 하고 조금 더 내려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점토대토기 출토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의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광주 수문유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호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무문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5호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보정연대가 기원전 820년 혹은 600년으로 나왔다. 5호주거지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의심없이 이 편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삼각구연점토대토기를 감안하면 송국리형주거지의 편년이 전반적으로 너무 상향되어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유적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를 그대로 채택한다면 기존에 기원후 3-5세기대로 편년된 주거지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편년과는 큰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유물의 형식학적 순서배열도 흐트러 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최성락·강귀형 2019).

요컨대, 기년명이나 교차편년할 자료가 없는 先史時代에는 방사성탄소연대가 아무런 제약없이 그대로 인용되지만 원사·역사시대의 방사성탄소연대치는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기년명문이나 漢鏡과 같은 절대연대가 확실한 유물들과의 교차편년을 통해 신중한 편년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송국리형주거지는 방사성탄소연대로 측정되어 연대가 상향되고, 원삼국시대 이후의 유적연대는 기년명에 의해 편년되다 보니 그 중간에 위치한 초기철기시대의 공백기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섬진강 · 탐진강유역권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황재훈)

1) 지석묘와 석관묘가 동일 지점에서 공존하는 사례는 임실 운정리유적이다. 즉, 지석묘 5기와 석관묘 4기가 분포하는데 지석묘는 남북 2열, 석관묘는 동서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지석묘와 석관묘는 묘제만 다를 뿐만 아니라 장축방향이 다른데 성별이나 계층의 차이로 볼 수 있는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남성은 주로 지석묘에 매장되고 여성은 토광묘에 매장되는 경우가 있어 참고된다.

2) 화순 복교리 송국리형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는 2950±120이고, 보성 옥평리 장방형 주거지의 연대는 2770±50이다. 그런데 발표자는 외반구연호가 출토된 전자를 중기로 보고,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토기가 출토된 후자를 전기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주거형태·토기조합상과 절대연대가 부합하지 않는 사례이다. 이는 보성강유역에서 송국리형 주거지의 상한을 올려야 하는 문제와 전기문화의 보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

3. 섬진강 · 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김진환)

1) 섬진강유역권의 공열토기와 심발형토기의 전통이 경남서부권과 연계된다는 점에서도 경남서부권(남강유역권)과 전남동부권(섬진강유역권)은 긴밀히 연결된다. 그런데, 섬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이른 단계의 주거유적은 인접한 남강유역권에 비해 매우 희소한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이를테면, 섬진강유역권이 문화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신석기문화가 오래 지속되었고 신문화의 유입이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4. 섬진강 · 탐진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강동석)

1) 발표자는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지석묘군에 대해 1-12기, 13-35기, 36-66기에 해당하는 군집을 각기 대,중,소로 구분하였다. 2만기에 달하는 전남지역은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데, 2천기 정도에 불과한 경남지역의 경우, 15-20기 정도면 대군집에 속한다.

면적에서 대차없는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에서 지석묘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2) 발표자는 “지석묘 피장자는 주거군을 이루고 있는 집단의 리더이며, 강력한 출계집단의 유력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자도 이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단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남강유역을 보면,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520기이고 묘는 180여기다. 1기의 주거지를 한 世帶로 보면 해당지역에는 대략 2500명 정도의 인구가 추산된다. 무덤의 숫자는 예상 인구의 1/14정도이므로 묘를 당시 일반 구성원의 무덤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김광명 2004).

이러한 통계치를 고려하면, 남성이 많은 지석묘의 피장자는 농경공동체사회에서 가부장적 세대공동체의 長일 가능성(이동희 2002)이 높다.

동시대에 5명의 피장자가 있더라도 그 중 석검 등의 위세품을 부장하는 피장자는 여러 세대 공동체에서도 지도자격으로 1개 취락(친족집단)의 우두머리(大人,村長) 정도로 파악된다. 大人,村長은 혈연적 지위에 의한 제한적·비공식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제사를 주관하는 대인(제사장)으로서의 권위는 오랜 씨족사회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가 거론한 ‘주거군’과 ‘출계집단’에 대한 부연설명을 바란다.

3) 발표자는 “출계집단의 리더의 죽음을 매개로 한 영속적 권위의 유지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역사적 연속성을 따르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선형 또는 열상의 지석묘 배치 구조로 나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지석묘가 조성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숨바섬의 지석묘에 대한 인류학적 자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이동희 2011). 즉, 한국이나 숨바섬에서 공히 열을 짓는 지석묘군들이 확인되며, 일정한 방향으로 형식변화가 관찰되며 그것은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숨바섬의 대표적인 중핵마을인 린디지석묘군은 3열을 보이는데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축조되고 있다. 중심열이 길며, 나머지 양쪽 가장자리 열은 짧은 편이다. 중심열은 가장 웅장하면서 씨족의 종손계열이 무덤을 축조하고, 나머지 열은 씨족의 방계 와 관련된다.

4) 발표자는 “우산리 내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열상 구조의 변화이다. 기존에 열상구조를 보이다가 무질서한 군집 패턴으로의 전환이다. 이와 같은 사회 질서의 대전환을 꾀하였던 전략적 행동의 원천은 외래품의 차별적 소유와 송국리문화와 같은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었을 것이다. 특히, 송국리문화에서 비롯된 생업경제의 변화와 정치경제적 잉여 확보는 유력 집단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세력을 추종하고 사회변화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보성강유역의 지석묘 축조사회는 송국리문화와 관련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산리 내우 유적에서 열상을 보이는 다수의 지석묘는 송국리문화와 관련지어야 한다. 다른 지석묘군에서도 그러하지만, 지석묘군 말기에 열상구조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계기는

송국리문화 말기 단계와 관련짓는다면 세형동검문화(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산리 내우유적의 무질서한 군집에서 주 매장주체부는 늦은 단계의 석관형이거나 위석형이며, 유물도 늦은 단계에 해당하거나 유물이 보이지 않는 말기 단계이다. 섬진강유역에서는 호남서부권과 달리 기원전의 적석목관묘나 토광묘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문화적 보수성을 보이는 섬진강유역에서 지석묘문화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명 2004,「경북지역의 고인돌과 보존현황」, 『아시아권에서의 문화유산(고인돌) 보존과 활용』, 제1회 세계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동희, 2002,「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와 발전단계」,『호남고고학보』15

이동희, 2011,「인도네시아 숨바섬과 한국 지석묘 사회의 비교 연구」,『호남고고학보』38

이동희, 2015,「호남지방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공백기 시론」,『호남지방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문화』, 2015년 호남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이창희, 2013,「철기시대의 역연대」,『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조진선, 2005,『세형동검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조진선, 2020,「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최성락·강귀형, 2019,「'방사성탄소연대로 본 원삼국시대-삼국시대 토기편년'에 대한 반론」,『호남고고학보』6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에 대한 토론문

조 진 선 (전남대학교)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에 대하여 오늘 한수영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 정수옥 선생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초기철기시대 유적들은 이 시대의 특징적인 무덤들이 발굴 조사되어 많은 주목을 받아 왔지만 그밖에 생활유적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분 선생님들의 발표 자료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말 많은 자료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수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전주 동산동 유적에서 단옹직치, 단옹사치뿐 아니라 이옹횡치와 이옹직치 등 다양한 형태의 옹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Ⅰ~Ⅱ기에는 옹관묘가 확인되지 않다가 Ⅲ기부터 소량이지만 횡치 합구식 옹관묘가 조성되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전주 동산동 유적에서 확인된 다양한 형식의 옹관들이 초기철기시대 Ⅲ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① 초기철기시대 Ⅰ~Ⅱ기에도 옹관묘가 조영되었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았을 가능성, ② 전주 동산동 유적의 옹관묘 중에서 일부가 초기철기시대 Ⅲ기까지 이어졌을 가능성, ③ 반대로 초기철기시대 Ⅲ기 횡치옹관묘의 영향을 받아 전주 동산동 유적에 횡치옹관묘가 조영되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동산동 유적의 연대가 초기철기시대 Ⅲ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영 선생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전주 대정Ⅳ 유적에서는 1~2기의 장축노가 조영된 주거지들이 발굴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전통으로 이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동기시대 전기적인 양상이 청동기시대 중기에 어떠한 형태로 이어져서 초기철기시대에 복고되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호남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초기철기문화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그 뒤를 잇는 문화적 양상이 모호합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양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발굴 조사의 우연한 편재로 인해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초기철기시대적 문화 양상의 끝부분을 조금 더 내리던지, 아니면 원삼국시대적 문화 양상의 시작부분을 조금 더 올리던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수영 선생님께서는 초기철기시대 이후 유적의 부재는 제철유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어서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4. Ⅰ기에는 송국리형주거지와 수석리식주거지가 있으며, Ⅱ기에는 수석리식주거지가 사라지고 송국리식 토기의 비율도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Ⅲ기에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사라지고 전주 중동유적의 방형주거지가 등장하며, Ⅳ기에는 김제 반월리의 말각방형계 주거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 변화양상에서 Ⅰ기의 수석리식주거지와 Ⅲ기 이후의 방형주거지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5. 질문이 아니지만 전주 중동유적에서 출토된 평기와 7점과 야요이계 토기들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영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김진영 선생님께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부착된 토기군을 신창동식토기로, 홑구연으로 변화된 토기군으로 경질무문토기로 칭해졌던 토기를 군곡리식토기로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토기는 무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 군곡리식토기(경질무문토기)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선후관계가 인정되고 연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맥락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신창동식토기나 군곡리식토기라는 명칭은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기존 명칭들은 토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부여한 것이지만 이러한 안은 토기의 특성과 유적의 특성이 조합되어 약간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신창동 유적이나 군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기종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충분이 반영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절대연대를 언급하면서 방사성탄소연대는 상당한 간격을 가지고 있고 상대연대와 일치하지 않는 듯하지만 보정연대의 상한과 하한도 50~300년 정도 시간적 간격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연대와 일치하는 범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기년(紀年)적 편년과 방사성탄소연대에 기반한 편년을 어떻게 활용해서 합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방사성탄소연대 불신론자로 비춰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양자를 맞추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초기철기시대는 해양을 이용한 신통로가 열리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김진영 선생님께서는 유적을 거점형, 현지화형, 단일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중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는 거점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대곡리 인근에서 더 이상의 유적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인상적으로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한다면 단일형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점형과 단일형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선생님께서는 여수 웅천동 토광묘를 Ⅲ기로 구분해서 보성 우산리 현촌 유적과 동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토된 세형동검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남해안지역에서 좀 더 이른 시기의 유물들은 일찍부터 출토되고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수습된 성문의 조문경이 대표적이며, 장흥 학송리 동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남해안지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세형동검문화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옥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전주·완주 일대의 세형동검문화는 발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만경강유역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 관련 청동기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은데, 세형동검문화에 들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놀라운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남한지역 전체적으로 보아도 성립기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경강유역 세형동검문화의 기원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산 선제리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충남해안지역의 세형동검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양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군산 선제리유적이 발굴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경강유역에서 세형동검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만경강유역에서 세형동검문화 관련 무덤유적들은 상당히 많이 조사되었지만 그에 상응할 만큼 생활유적은 조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송국리형주거지가 그 역할을 상당히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수영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송국리형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조영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자료가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만경강유역에서 세형동검문화는 기원전 1세기경이 되면 급격하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최근 관련 유적들이 조금씩 확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와 분석 결과들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어 공백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메꿔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현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국고고학에서의 벼농사기원의 변화와 중국문명의 인식」에 관한 토론문

김 권 구 (계명대학교)

정운비(鄭云飛) 선생의 중국고고학에서의 지금까지의 발굴성과와 학제간융합연구(學制間融合研究)를 통하여 황하유역(黃河流域)과 마찬가지로 양자강유역도 도작(稻作)의 기원지 중의 하나이며 중국 문명의 주요 토대가 되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중국에서의 벼농사에 관한 발굴사와 연구사를 잘 정리해주시고 최신 발굴자료도 소개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식물고고학연구에서는 도작의 중국기원설을 강조하는 국가중심적 연구보다는 환경생태적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하여 고식물민족지고고학(古植物民族誌考古學palaeo-ethno-botany)과 고식물(古植物)고인지고고학(古認知考古學 palaeo-cognitive symbolic botanic archaeology)도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저고성유적(良渚古城遺址) 등에서 보이는 신석기시대 만기(新石器時代 晚期)의 양저문화(良渚文化)단계의 벼농사 양상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신석기시대 조기 유적지 19개의 분포양상을 고려할 때 절강성(浙江省) 중부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11,000-8,500년 전 벼농사(稻作)가 시작되었다고 하신 것을 중심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 양자강 중하류유역도 야생벼가 자라는 지역이었는지요? 대체로 인도 아샘(Asam)지역과 중국 운남성지역에 야생벼가 자랐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중국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야생벼가 당시 자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작(稻作)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토가 방대한 중국의 경우 다양한 환경조건이 펼쳐져 있어서 도작(稻作)의 기원을 논의할 때 환경이 다른 권역을 나누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야생벼가 자라지 않았다면 양자강 중하류지역은 운남성과 달리 야생벼로부터 벼농사가 시작된 발생지라고 하기보다는 벼 재배문화가 전파되어 채택된 2차적 벼농사 전파지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양자강 중하류역에서 벼농사가 막 시작되기 직전의 생업유형은 어떻했는지요? 구석기시대 말엽 잔영기(舊石器時代末葉殘影期)에서 신석기시대 초창기(新石器時代草創期) 혹은 조기(早期) 벼농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양자강 중하류역에서의 생업유형 변화양상에 대한 중국고고학계의

현재 주된 견해는 무엇이고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요? 단순히 벼농사의 기원을 약 10,000년 이전으로 연대를 상향시키는 것보다 생업양상의 지역별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어떻게 벼농사를 채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다양한 먹거리를 넓게 확장하여 먹는 '광범위 자원 식량활용경제(broad-spectrum economy)' 현상은 확인되고 있는지요? 벼농사를 시작하기 직전 단계의 인구증가 등 인구압력을 암시하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요?

다섯째,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신석기시대 조기 육도(陸稻)도 확인된 바 있는지요? 육도(陸稻)와 수도(水稻)의 생업상의 비중이 어떠하였는지 확인된 식물유체와 그에 관한 연구가 있는지요? 어떻게 도작(稻作)이 수도(水稻) 중심으로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도(陸稻)의 경우 국가기원의 수리가설(水利假說)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탄소동위원소분석(C3, C4, C5)을 통한 중국 신석기시대 만기(新石器時代 晩期) 양저문화(良渚文化)단계 인골분석이 있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C3식물군(콩, 보리, 벼, 온대성 초본류, 수목류, 시금치 등), C4식물군(기장, 조, 수수, 옥수수 등), C5(해양식물군)를 고려할 때 벼를 주식으로 했다면 인골에 C3탄소가 농축되고 벼가 아닌 조, 수수, 기장 등 밭작물을 주식으로 했다면 인골에 C4가 농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이 분석을 통하여 중국 양저문화사람들이 실제 쌀을 주식(主食)으로 먹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의 주식이 된 것은 나중이고 처음에는 의례용이거나 사회적 권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위유력자들 중심으로 소비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Gwongu Kim
(Department of History, Keimyung University)

Many thanks for your impressive presentation on developing rice cultivation in China from research history to many astonishing and fascinating recent discoveries. I think for palaeo-botanic studies of rice cultivation ecological approaches will be more productive than nationalistic approaches emphasizing Chinese origin of the rice cultivation. On the basis of such ecological researches palaeo-ethno botanic studies and palaeo-cognitive symbolic botanic archaeology can be developed properly. I would like to ask some questions over the rice cultivation practices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Firstly, I wonder whether the wild rice existed or not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Let me know your evidences to support the presence of the wild rice if the wild rice might exist.

Secondly, It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if you explain what processes the rice cultivation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had been started and why it began in a specific way. When the emergence of rice cultivation should be researched, the diverse environmental regions in China should be divided and studied separately. If there was no wild rice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the rice cultivation must be diffused secondary one rather than originated one.

Thirdly, what is the major prevailing subsistence type of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just before the rice cultivation emerged? Please let me know what is the present picture of changing processes in the subsistence patterns from Epi-Palaeolithic to Mesolithic or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present archaeological evidences to support the present picture.

Fourthly, I wonder whether the broad-spectrum economy could be identified or not. Do you have any evidence of population pressure including population increase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or just before the rice cultivation emerged?

Fifthly, I wonder whether you have any evidence to suggest that there had been the dry field rice cultivation contrary to the paddy field rice cultivation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If the dry field rice cultivation had been practiced, what ration it might have taken in the diet of the Initial Neolithic people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The dry field rice cultivation might show another trajectories different from Wittfogel's irrigation model in the rise of civilization and state formation.

Sixthly,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could present some examples of Carbon-Isotopic Analysis(C3, C4, C5) applied to Later Neolithic Liangzhu culture(良渚文化) phase- human bones from burials. The analysis could give us some light implying whether the related people ate rice as a staple or not. In addition the analysis could provide other evidences to show that as a staple they might eat dry field crops such as millets rather than rice. I wonder whether there might be any possibility that rice might be consumed mainly as a ritual purpose or status food for the power elite group only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에 관한 토론문

김 권 구 (계명대학교)

미야자토 오사무 선생님의 발표는 한반도 한국식동검문화기 문화의 흐름을 잘 정리하고 일본열도로의 확산과정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이형동기가 일본열도로는 전파되지 않고 다뉴세문경도 마음대로 입수하기 어려워 야요이사회에서는 동모나 동과 등 청동기의 대형화(大形化)되고 동검은 대형화 및 이형화(異形化)되면서 장식성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반도 북부에서 동검은 실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지만 한반도 남부에서는 실용성을 상실하면서 상징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며 동모나 석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보여 남한과 북한지역 사이의 무기에 대한 현저한 태도차이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동기문화에 대한 남북한 그리고 일본열도에서의 지역성을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이 한국식동검문화의 창출지역으로서 일본열도와 관련 있는 청동기문화로 보았습니다.

대체로 미야자토 오사무 선생님의 발표에 동의하며 발표내용이 아주 좋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 청동기의 출현은 북방초원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중원지역의 청동기문화의 자극 속에 요녕지역의 청동기문화로 형성되어 한반도로 들어와 무기류와 공구류 중심의 청동기문화에 의기가 추가되는 지역성을 가지면서 토착화되었다고 생각하며 호남지역의 청동기문화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둘째, 마제석검의 조형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한반도 석검과 동검 등 무기류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미야자토 선생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본열도에서는 과(戈) 문화가 야요이사회의 넓은 범위에 침투되었다고 하면서 모의전(模擬戰)과 같은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목과(木戈)도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광주 신창동에서는 세형동검을 모방한 듯한 목검이 출토된 바 있는데 이것도 모의전(模擬戰)과 같은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근에서 유력자의 무덤도 확인된 일본 후쿠오카의 청동기제작공방유구인 수구타카우다(須久タカウタ)과 같은 성격의 청동기생산센터가 호남지역의 경우 전북 신풍혁신도시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청동기매납유적이 한반도에서도 소수이고 호남지역에서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 양상인데 비하여 시마네현 고진다니유적의 사례와 같이 일본열도에서는 야요이사람들의 청동기폐기방식이 대규모인 경우도 확인되는데 청동기의 제작과정에서의 지역성과 가치관과 더불어 폐기의 지역성도 중요한 연구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미야자토 선생의 의견부탁합니다.

여섯째 일본열도에서의 동탁의례권 및 동모의례권 등이 청동기의 분포양상을 중심으로 한 의례권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지역과 호서지역에는 나오고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팔주령과 쌍두령 등 청동방울류입니다. 물론 간두령은 대구 신천동에서도 나오지만 대체로 방울류는 호남지역과 호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것도 방울류 의례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바랍니다. 사실 일본열도의 청동기들은 장대화(長大化)된 보는 청동기라면 한반도 호남과 호서지역의 청동기는 듣는 청동기라고 누군가가 말한 적이 있는데 남북한의 청동무기에 대한 관념의 차이와 더불어 청동방울류는 호남지역에서 유력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의례수단으로 창출한 특색 있는 호남 · 호서지역의 청동기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와 아산 남성리출토 검파형동기 등 청동의기가 파쇄되어 부장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일본에서의 청동제 동탁이나 동과의 파쇄부장사례가 있으면 언급바라고 청동의기의 파쇄부장에 대한 미야자토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